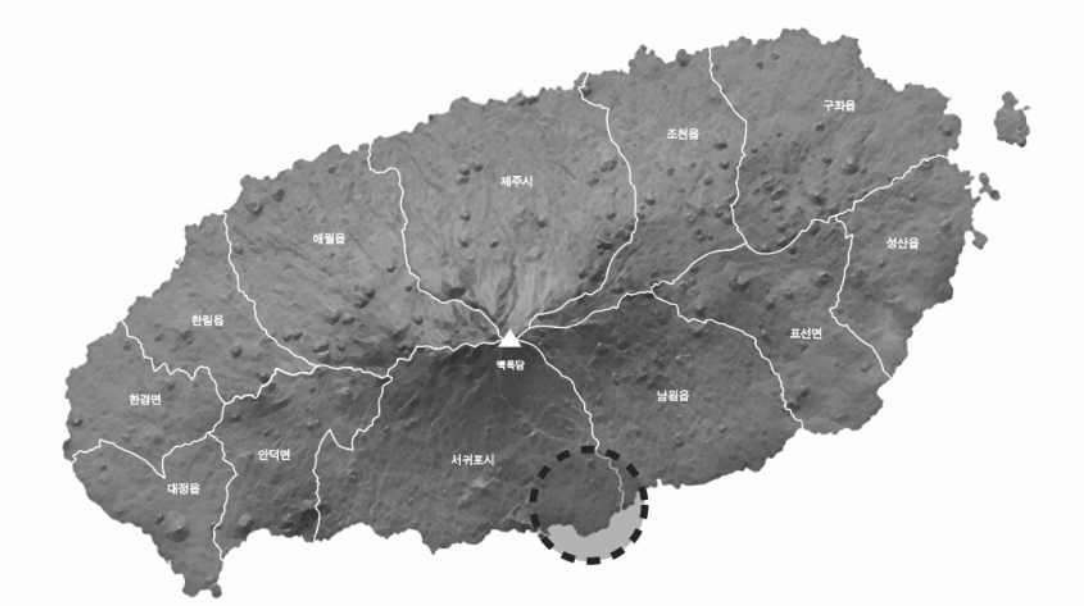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645-01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1

-서귀포시 토평동

구술: 조풍자, 김수절, 양성아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김보향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1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1
서귀포시 토평동

목 차

Ⅰ. 사업 개요 ····· 5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연구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7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8.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 8

Ⅱ. 구술 자료 ····· 11
1. 조사 마을 ····· 11
2. 제보자 일생 ····· 33
3. 밭일 ····· 75
4. 들일 ····· 169
5. 바다일 ····· 209
6. 의생활 ····· 234
7. 식생활 ····· 269
8. 주생활 ····· 369
9. 신앙 ····· 421
연구 참여자 ····· 430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결과물인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여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 발간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20년 3월 10일~2020년 12월 31일

3. 연구 참여자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가급적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4년 조사한 대정읍 구억리와 애월읍 봉성리, 2015년 조사한 한림읍 대림리의 구술 채록 보고서는 자료의 양이 적어서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조사하였다. 이미 조사한 내용과 제보자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보자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는 새롭게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과 그 역할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진 현황과 역할

이름	소속	분야	지역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외도동, 안덕면 덕수리
김미진	〃	〃	연구 책임, 대정읍 인성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	교열 및 감수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제주시 외도동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안덕면 덕수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인성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	대정읍 구억리
문덕찬	(사)제주어연구소	〃	한림읍 대림리
고창근	제주어보전 및 육성위원회	〃	애월읍 봉성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	위촉연구원
서수빈	〃		연구 보조
현혜경	〃	국어국문	〃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절, 양성아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옥,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34	대정읍 구억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5. 사업 추진 과정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약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 한 차례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하였다.
-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였다.
-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하였다.
-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하였다.
-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했다. ‘허는구나, 헷구나’처럼 ‘ㅓ’로 통일했고,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하였다.
- 제보자의 발음이 표기와 다르게 나는 경우는 발음기호인 대괄호([ ]) 안에 표기하였다.
- 보고서의 번호는 2019년에 이어 제주시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제주시 외도동’ 구술 자료가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9』가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조사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였다. 이는 제보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하였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랐다.
- 표준어 대역은 소괄호(( )) 안에 넣었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문맥에 맞게 의역할 경우는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예: ‘바령팟’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두었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대로 두었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각주 번호를 부여하였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하였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주석을 달았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8.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발간한 ≪제주어구술자료집≫은 <표 4>와 같다.

<표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연구자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연구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성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랑,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립, 강성현, 강대흥,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김보향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정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태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옥,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용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절, 양성아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옥,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34	대정읍 구억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Ⅱ. 구술 자료

(@ 김보향, #1 조풍자, #2 김수절, #3 양성아)

1. 조사 마을

101001 @ 토평[1]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얘기 들어본 거 잇수꽈?(토평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얘기 들어본 거 있습니까?)

101001 #1 그건 들어본 디 엇어. 원 옛날은, 나 두린 땐 ᄆᆞ을 닮지도 안헷저게.(그건 들어본 데 없어. 원 옛날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마을 같지도 않았어.)

101001 @ 아, 기꽈?(아, 그렇습니까?)

101001 #1 아이고, 이 ᄆᆞ을에 오백 가호 나난 막 아이고, 이거 어디, 이젠 멧 천 가호가 뒛저만은.(아이고, 이 마을에 오백 가호 되니까 마구 아이고, 이거 어디, 이젠 몇 천 가호가 됐지만.)

101001 @ 으.(으.)

101001 #1 오백 가호가 뒌 때가 나 시집온 후제 들엇어. 그전인이 삼백 가호도 못 헤시네.(오백 가호가 된 때가 내가 시집온 후에 들었어. 그전에는 삼백 가호도 못 했어.)

101001 @ 동네가 어떵 뒙니까? 알동네[2], 웃동네[3].(동네가 어떻게 됩니까? '알동네', '웃동네'.)

101001 #1 감낭굴[4].('감낭굴'.)

101001 @ 감낭굴.('감낭굴'.)

101001 #1 허금동산[5].('허금동산'.)

101001 @ 허금동산.('허금동산'.)

101001 #1 귀남동산[6].('귀남동산'.)

101001 @ 귀남동산.('귀남동산'.)

101001 #1 앞동산[7]. 경헨 ᄆᆞ을이 멧.('앞동산'. 그렇게 마을이 몇.)

101001 @ 여섯 갠 이신게예.(여섯 개는 있네요.)

101001 #1 으. 멧 동으론 잇인디 그때는 흔 동에 멧 집 엇엇저.(으. 몇 동으로

1) '토평'은 서귀포시 토평동을 말한다.
2) '알동네'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3) '웃동네'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4) '감낭굴'은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5) '허금동산'은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6) '귀남동산'은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7) '앞동산'은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있는데 그때는 한 동에 몇 집 없었어.)

101001 @ 아.(아.)

101001 #1 허금동산엔 헤난 디도 무신거 흔 열 가호.(허금동산이라고 했던 데도 뭐 한 열 가호.)

101001 @ 예.(예.)

101001 #1 또 감낭굴이엔 헌 디도 흔 멧 가호. 이젠 비작비작[8] 헤도.(또 '감낭굴'이라고 하는 데도 한 몇 가호. 이젠 '비작비작' 해도.)

101001 @ 예.(예.)

101001 #1 옛날엔 경 사름이 엇엇단 사름이 이젠 경. 또 육지 사름이.(옛날엔 그렇게 사람이 없었다가 사람이 이젠 그렇게. 또 육지 사람이.)

101001 @ 들어오고.(들어오고.)

101001 #1 막 들어와 가난 땅도 좁아지고.(마구 들어와 가니까 땅도 좁아지고.)

101001 @ 으.(으.)

101001 #1 옛날에사게 땅도 널럿주게.(옛날에야 땅도 넓었지.)

101001 @ 게난 삼춘 처음 웃동네 살앗잖아예?(그러니까 삼촌 처음 '웃동네' 살았잖아요?)

101001 #1 으, 웃동네. 허금동산.(으, '웃동네'. '허금동산'.)

101001 @ 아, 허금동산이과?(아, '허금동산'입니까?)

101001 #1 으, 허금동산. 그 느영 말곧는 어른은 감낭굴.(으, '허금동산'. 그 너랑 말하는 어른은 '감낭굴'.)

101001 @ 아, 감낭굴.(아, '감낭굴'.)

101001 #1 감낭굴.('감낭굴'.)

101001 @ 게민 허금동산에 삼춘 처음 왔을 때 집이 멧 개나 잇어난 거 닮으꽈?(그럼 '허금동산'에 삼촌 처음 왔을 때 집이 몇 개나 있었던 거 같습니까?)

101001 #1 수정 세지주, 그때사 흔 열 가호.(수 셀 수 있지, 그때야 한 열 가호.)

101001 @ 아.(아.)

101001 #1 열 가호. 원 그때사 수정 세져낫주. 옛날은 원 동네가 잇엇어게, 흔엇이게 동네가. 이 동네만 헤도 집 엇어낫저.(열 가호. 원 그때야 수 셀 수 있었지. 옛날은 원 동네가 있었어, 한없이 동네가. 이 동네만 해도 집 없었어.)

101001 @ 집 엇어난예?(집 없었어요?)

101001 #1 어게. 집 엇어낫저. 이 동네 거리엔 헤도 두망두망, 두망두망. 집 경 부쩡도 엇고 기자 다 두문두문 원 ᄆᆞ슬 닮지 안헤낫어.(어. 집 없었어. 이 동네 거리에는 해도 드문드문, 드문드문. 집 그렇게 붙어서도 없고 그저 다 드문드문 원 마을 같지 않았었어.)

101001 @ 으.(으.)

101001 #1 경허단 이 박정희 대통령 난 시대에 오일육도로 싹 빠난. 하이고, 그

8) '비작비작'은 집들이 모여서 여기저기 많아진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때에 살맛이 난, ᄉᆞ뭇.(그러다가 이 박정희 대통령 나온 시대에 오일육도로 싹 빼니까. 하이고, 그때에 살맛이 났어, 사뭇.)

101001 @ 예.(예.)

101001 #1 오일육도로 나난 일로 제주시 차도 뎅기곡.(오일육도로 나니까 이리로 제주시 차도 다니고.)

101001 @ 예.(예.)

101001 #1 ᄉᆞ뭇 발전이 뒌 거라. 글후제.(사뭇 발전이 된 거야. 그 후에.)

101001 @ 아, 여기 길 생기고 나난.(아, 여기 길 생기고 나니까.)

101001 #1 으. 그 박정희 대통령이 토평을 발전시킨 거라. 싹 서귀포로, 제주시 중간 산간으로. 옛날엔 우린 알로만 뎅겨시네게.(으. 그 박정희 대통령이 토평을 발전시킨 거야. 싹 서귀포로, 제주시 중간 산간으로. 옛날엔 우린 아래로만 다녔었어.)

101001 @ 돌앙예?(돌아서요?)

101001 #1 돌앙.(돌아서.)

101001 @ 성내 가젠 허민.('성내' 가려고 하면.)

101001 #1 으, 성내[9] 가젠 허민 알로만 돌앙 가시네. 알로만 경. 이젠 중간 질 믄 빠 놓고. 이 어디로 빠시, 봉개로, 봉개로 중간 질.(으, '성내' 가려고 하면 아래로 돌아서 갔어. 아래로만 그렇게. 이젠 중간 길 모두 빼 놓고. 이 어디로 뺐니, 봉개로, 봉개로 중간 길.)

101001 @ 알로 가젠 허민 막 한창 걸렸을 거 아니?(아래로 가려고 하면 아주 한창 걸렸을 거 아니?)

101001 #1 하이구, 알로 나 제주시에 가는디.(하이고, 아래로 내가 제주시에 가는데.)

101001 @ 소개헐 때, 사삼사건 때 화북 가낫덴 헷수꽈?(소개할 때, 사삼사건 때 화북 갔었다고 했습니까?)

101001 #1 으, 그때도, 그때도 멀엇주.(으, 그때도, 그때도 멀었지.)

101001 @ 멀엇지예.(멀었지요.)

101001 #1 아이고, 멀지. 원 멀어. 원 골목질이고. 어디 경 큰질이 잇어시냐게, 골목질이주게. 에구, 첨. 골목질 으식으식 밤인 못 뎅길 정도라. ᄆᆞᄉᆞ왕.(아이고, 멀지. 원 멀어. 원 골목길이고. 어디 그렇게 큰길이 있었니, 골목길이지. 어이구, 참. 골목길 으슬으슬 밤에는 못 다닐 정도야. 무서워서.)

101001 @ ᄆᆞᄉᆞ왕.(무서워서.)

101001 #1 으. ᄆᆞᄉᆞ왕 못 뎅길 정도로. 이 동네도이 이거 아파트 생기고 영허고 허난 이거주, 이 동네도 원 사람 안 살아낫저게. 믄 밧이라낫주. 밧이랏주, 집 엇어서. 첨 이거 이 집 생긴 것도 흔 오십 년.(으. 무서워서 못 다닐 정도로. 이 동네도 이거 아파트 생기고 이러고 하니까 이거지, 이 동네도 원 사람 안 살았었어. 모두 밭이었지. 밭이었지, 집 없었어. 참 이거 이 집 생긴 것도 한 오십 년.)

9) '성내'는 성 안에 있는 마을로, 여기서 '성내'는 제주시를 가리킨다.

101001 @ 음. 그 삼춘네 이 집은 오씨 집안인 거예?(음. 그 삼촌네 이 집은 오씨 집안인 거요?)

101001 #1 으.(으.)

101002 @ 게민 이 토평 전체로 봤을 때는 무슨 성씨가 많으꽈?(그럼 이 토평 전체로 봤을 때는 무슨 성씨가 많습니까?)

101002 #1 토평 오씨가 핫어. 아무 때도.(토평 오씨가 많아. 아무 때도.)

101002 @ 아, 오씨가 핫어?(아, 오씨가 많아?)

101002 #1 아무 때도.(아무 때도.)

101002 @ 아무 때도.(아무 때도.)

101002 #1 으. 아무 때도 오씨가 핫저. 겐디 김씨, 오씨 버금은 김씨고.(으. 아무 때도 오씨가 많아. 그런데 김씨, 오씨 버금은 김씨이고.)

101002 @ 으.(으.)

101002 #1 김씨 버금은 이 저 부씨.(김씨 버금은 이 저 부씨.)

101002 @ 아, 여기 부씨도 핫수과?(아, 여기 부씨도 많습니까?)

101002 #1 으. 어제 이디 오란 앚은 아이도 부칩이 시집왓저게.(으. 어제 여기 와서 앉은 아이도 부씨 집안에 시집왔어.)

101002 @ 아, 예.(아, 예.)

101002 #1 그디 경허고 강씨는 얼마, 이씨 강씨는 수정 세진다 이제도.(거기 그리고 강씨는 얼마, 이씨 강씨는 수 셀 수 있어, 이제도.)

101002 @ 음.(음.)

101002 #1 이제도 알아져. 강씨 저 이, 이씨는. 이디 오씨, 부씨 이디 경헨 하주, ᄒᆞ쏠. 겨난 이 ᄆᆞ슬에 완전 글후제 발전이 뒛주, 나 두린 때는 사름, ᄒᆞᆫ엇이 사름도 못 보고.(이제도 알 수 있어. 강씨 저 이, 이씨는. 여기 오씨, 부씨 여기 그렇게 많지, 조금. 그러니까 이 마을에 완전 그 후에 발전이 됐지, 내가 어렸을 때는 사람, 한없이 사람도 못 보고.)

101003 @ 게민 여기 동네.(그럼 여기 동네.)

101003 #1 땅도 궂고.(땅도 궂고.)

101003 @ 땅도 궂고예. 땅 궂이난 옛날에 무슨 농사했던 거라?(땅도 궂고요. 땅 궂으니까 옛날에 무슨 농사했던 거야?)

101003 #1 게 보리농사, 조농사 허민 그 땅 궂이민 ᄒᆞ쏠 땅, 이 ᄆᆞ슬 안네도 궂인 디, 좋은 디가 잇주게.(그래 보리농사, 조농사 하면 그 땅 궂으면 조금 땅, 이 마을 안에도 궂은 데, 좋은 데가 있지.)

101003 @ 예.(예.)

101003 #1 경허고 저 벵디레 가도 경 궂인 디 좋은 디가 잇고. 이제 서귀포레 금덩어리가이.(그리고 저 넓은 데로 가도 그렇게 궂은 데 좋은 데가 있고. 이제 서귀포로 금덩어리가.)

101003 @ 으.(으.)

101003 #1 그레 땅이 곡석 안 뒈낫저.(그리 땅이 곡식 안 됐었어.)
101003 @ 아.(아.)
101003 #1 식엉, 식은 땅[10].(식어서, 식은 땅.)
101003 @ 식은 땅이 무슨 말?(식은 땅이 무슨 말?)
101003 #1 식은 땅이엔 헌 건 땅이 멕가리 엇어근에 기자 보리, 조 갈아도 부꺼불어.(식은 땅이라고 하는 건 땅이 힘이 없어서 그저 보리, 조 갈아도 부풀어 버려.)
101003 @ 아. 막 찰지지 않아 가지고?(아. 아주 찰지지 않아 가지고?)
101003 #1 으, 으. 촌흑 땅이 어디 잇느니, 토평 지경 땅. 촌흑 땅이 엇인디 이 지금 이 제수장 나가 거느리지 안헴냐?(으, 으. 찰흙 땅이 어디 있니, 토평 지경 땅. 찰흙 땅이 없는데 이 지금 이 저수장 내가 거느리지 않니?)
101003 @ 예.(예.)
101003 #1 이 제수장으로 혜영 ᄒᆞ쏠 땅 좋은 더렌 논을 헤낫저게.(이 저수장으로 해서 조금 땅 좋은 데로는 논을 했었어.)
101003 @ 으.(으.)
101003 #1 경헨 우리 이제 ᄒᆞᆫ 오백 펭 하우스 헌 거 이제 논 헤난 디 하우스 허는디 그딘 촌흑 땅이 나와.(그래서 우리 이제 한 오백 평 하우스 하는 거 이제 논 했던 데 하우스 하는데 거긴 찰흙 땅이 나와.)
101003 @ 제수장이엔 헌 건 저수장 얘기하는 거, 물 모이는?('제수장'이라고 하는 건 저수장 얘기하는 거, 물 모이는?)
101003 #1 어, 어. 겡헹 허단 그것도 엇어졋저만은 이 땅이 토평 막 궂엉, 토평 땅은 제일 제주도 궂어.(어, 어. 그렇게 하다가 그것도 없어졌지만 이 땅이 토평 아주 궂어서, 토평 땅은 제일 제주도 궂어.)
101003 @ 게난 조, 보리농사들?(그러니까 조, 보리농사들?)
101003 #1 으.(으.)
101003 @ 감저 농서도 허고?(고구마 농사도 하고?)
101003 #1 감저 주장.(고구마 주로.)
101003 @ ᄆᆞ멀?(메밀?)
101003 #1 ᄆᆞ멀.(메밀.)
101003 @ 콩도 허고?(콩도 하고?)
101003 #1 으. 콩, 풋.(으. 콩, 팥.)
101003 @ 콩, 풋. 산디도 허고예?(콩, 팥. 밭벼도 하고요?)
101003 #1 으. 문 헌덴 허는 건 문 헛저게.(으. 모두 한다고 하는 건 모두 했어.)
101003 @ 경허멍 영 미깡낭 심기 시작헌 때가 언제쯤이꽈?(그러면서 이렇게 귤나무 심기 시작한 때가 언제쯤입니까?)
101003 #1 아이고, 그거 나 확실히 몰라. 원 미깡낭 이 저 우잣 이신 사름, 이녁 우잣 이신 사름은이 일본서 미깡낭 묘종을 저 ᄒᆞᆫ 부락에 멧 개썩 태왓어. 헌디 우

10) '식은 땅'은 차진 기운이 없는 푸석푸석한 땅을 말한다.

린 우잣 엇이난 타 와 봐도 어디 싱글 디 엇이난.(아이고, 그거 내가 확실히 몰라. 원 귤나무 이 저 터앝 있는 사람, 자기 터앝 있는 사람은 일본에서 귤나무 모종을 저 한 부락에 몇 개씩 태웠어. 그런데 우린 터앝 없으니까 타 와 봐도 어디 심을 데 없으니까.)

101003 @ 으.(으.)

101003 #1 뭐 허고 이 밧 이신 사름덜은 그 일본 미깡낭을 들어오기 시작헨에 그거 싱근 사름덜은 미깡을 춤 막 미릇 헷저. 미릇 헤연, 헤여신디 이 미깡낭 싱근 지도 상당히 오랫어.(뭐 하고 이 밭 있는 사람들은 그 일본 귤나무를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거 심은 사람들은 귤을 참 아주 미리 했어. 미리 했어, 했는데 이 귤나무 심은 지도 상당히 오랬어.)

101003 @ 으, 게난 삼춘 멧 살에?(으, 그러니까 삼촌 몇 살에?)

101003 #1 이 흔 오십 년 뭰 거 닮다. 이 미깡낭 싱근 지도.(이 한 오십 년 된 거 같아. 이 귤나무 심은 지도.)

101003 @ 오십 년 뭰 거예?(오십 년 된 거요?)

101003 #1 으, 메종으로게.(으, 모종으로.)

101003 @ 예.(예.)

101003 #1 젠젠헌 메종, 우리 요만씩헌 거 일년생 타단 싱건에.(자잘한 모종, 우리 요만한 거 일년생 타다가 심어서.)

101003 @ 예.(예.)

101003 #1 또 그디 또 텡구지낭이 잇주게, 텡구지낭 모종 놔근에 그것에 젭부쩡 갈라 싱그고 허고 헌 지가 아메도 오십 년은 뒛저.(또 거기 또 탱자나무가 있지, 탱자나무 모종 놔서 그것에 접붙여서 갈라 심어서 하고 한 지가 아무래도 오십 년은 됐어.)

101003 @ 게난 미깡낭 들어왕 미깡낭 심게 뒈난 다른 농사들은 안 헌 거라?(그러니까 귤나무 들어와서 귤나무 심게 되니까 다른 농사들은 안 한 거야?)

101003 #1 딱 설러 가시녜.(딱 그만둬 갔어.)

101003 @ 다 설러 간.(다 그만둬 갔어.)

101003 #1 다 설러 갓주. 경허난 밧 한 사름은 미깡낭 싱그고 농서를 지어신디 우리 ᄀᆞ뜬 사름은 막 늦게 싱것주게.(다 그만둬 갔지. 그러니까 밭 많은 사람은 귤나무 심고 농사를 지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아주 늦게 심었지.)

101003 @ 으.(으.)

101003 #1 밥을 굶으난.(밥을 굶으니까.)

101003 @ 밥, 농사. 보리농사?(밥, 농사. 보리농사?)

101003 #1 으, 으. 우선은 보리농사. 밥을 먹어야 헐 거난.(으, 으. 우선은 보리농사. 밥을 먹어야 할 거니까.)

101003 @ 예.(예.)

101003 #1 겡헹 밥 ᄒᆞ썰 먹기 시작헤연에 첨 우린 제일, 토평 안에서도 마지막

싱거져실 거여.(그렇게 밥 조금 먹기 시작해서 참 우린 제일, 토평 안에서도 마지막 심었을 거야.)

101003 @ 게민 삼춘네는 삼춘 멧 살 때 심은 거, 미깡낭을?(그럼 삼촌네는 삼촌 몇 살 때 심은 거, 귤나무를?)

101003 #1 나 싱글 땐 혼.(내가 심을 때는 한.)

101003 @ 아이 누구 날 때?(아이 누구 낳을 때?)

101003 #1 우리 큰년 날 땐 원 미깡낭 엇인 때고.(우리 큰딸 낳을 때는 원 귤나무 없을 때이고.)

101003 @ 엇엇고.(없었고.)

101003 #1 큰년 난 땐 미깡낭 엇인 때고 글후제 우리 셋년 난 때도, 우리 큰놈 ᄁᆞ장도 미깡낭이 엇은 거 닮다.(큰딸 낳을 때는 귤나무 없을 때고 그 후에 우리 둘째딸 낳을 때도, 우리 큰아들까지도 귤나무가 없는 거 같다.)

101003 @ 음.(음.)

101003 #1 그때ᄁᆞ장도 나 ᄆᆞ물 두드리레 우리 큰놈 저 구덕에 놩 ᄆᆞ물 두드리레 가 온 짐작은.(그때까지도 내가 메밀 두드리러 우리 큰아들 저 바구니에 놔서 메밀 두드리러 갔다 온 짐작은.)

101003 @ 으.(으.)

101003 #1 나 ᄆᆞ물 두드리레, 놉 빌지 못허난이 애기 난 뒷날부떠게 대구덕에 놘 졍 강 ᄆᆞ물 나 두드리레 가낫저게. 놉 빌지 못헨, ᄃᆞᆯ앙 가젠은 안 헷저만은 놉 빌지 못허난게.(내가 메밀 두드리러, 놉 빌리지 못하니까 아기 낳은 뒷날부터 대바구니에 놔서 져서 가서 메밀 나 두드리러 갔었어. 놉 빌리지 못해서, 데리고 가려고는 안 했지만 놉 빌리지 못하니까.)

102016 @ 게난 구덕에 놩, 애기 난 지 얼마 안 뒝?(그러니까 바구니에 놔서,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102016 #1 어, 뒷날.(어, 뒷날.)

102016 @ 예, 하하.(예, 하하.)

102016 #1 놉 빌지 못허난게.(놉 빌리지 못하니까.)

102016 @ 뒷날?(뒷날?)

102016 #1 어.(어.)

102016 @ 아이고, 어떵헐 거.(아이고, 어떡할 거.)

102016 #1 뒷날.(뒷날.)

102016 @ 예.(예.)

102016 #1 나 경허난 첨, 나 이거 늘ᄀᆞ라 ᄀᆞᆯ으민 창피헌 노릇이여만은 ᄀᆞᆫ지 안허냐. 그 해에 ᄆᆞ물 두드려나고 닷 말지기 보리밧, 우리 시어머니는 영 불껑에 접아 놓나게.(내가 그러니까 참, 내가 이거 너에게 말하면 창피할 노릇이지만 말하지 않니. 그 해에 메밀 두드렸었고 닷 말지기 보리밭, 우리 시어머니는 이렇게 재에 집어넣어.)

102016 @ 으.(으.)

102016 #1 느네 어멍이사 골으민 훤허게 알주. 톡톡 젭아놓민 그 닷 말지기 강, 안안에 애기구덕[11]에 강, 애기구덕 졍 강, 애기 낭 ᄆᆞ물 두드리고 그 걸름 밧 허고 헤 가난. 그 닷새도 안 뒛주게.(너희 어머니야 말하면 훤하게 알지. 톡톡 집어넣으면 그 닷 말지기 가서, 안아서 '애기구덕'에 가서, '애기구덕' 져서 가서, 아기 낳아서 메밀 두드리고 그 거름 밭 하고 해 가니까. 그 닷새도 안 됐지.)

102016 @ 음.(음.)

102016 #1 경헨 강 헤 나난 어걸[12] 등겨[13], 어걸 등겻젠 허민 느넨 몰른다.(그래서 가서 하고 나니까 '어걸' '등겨', '어걸' '등겼다'고 하면 너희는 모른다.)

102016 @ 뭐과?(뭡니까?)

102016 #1 느네 어무닌 안다.(너희 어머니는 알아.)

102016 @ 어걸 등?('어걸' 등?)

102016 #1 으. 어무니 나 뎅기단 보난 어걸 등긴 말이 무시것과? 강알로 어걸 등겨나ᄀᆞ렌 헙디다 허연. 어걸 이 손 주먹만인 헌다게.(으. 어머니 내가 다니다가 보니까 '어걸' '등긴' 말이 무엇입니까? 샅으로 '어걸' '등겼었다'고 합디다 해서. '어걸' 이 손 주먹만은 한다.)

102016 @ 예.(예.)

102016 #1 경헨 등기난이 아이고, 이젠 그 밧 막아난 일어산 걸어오지 못허난 그땐 철 구르마 앚졍 간 때난 구르마레 안아당 놘 허난. 난 놈덜이 이젠 어걸 등긴 말을, 벵은 자랑허렌 허주게. 막 경헌 사름덜 한다게.(그래서 '등기니까' 아이고, 이젠 그 밭 막아서 일어서서 걸어오지 못하니까 그땐 철 달구지 가지고 갔을 때니까 달구지에 안아다가 놔서 하니까. 난 남들이 이젠 '어걸' '등긴' 말을, 병은 자랑하라고 하지. 마구 그런 사람들 많다.)

102016 @ 예.(예.)

102016 #1 겡헨 벵을 자랑허렌 허난 아이고, 밧 검질메단 어걸 등겻젠 허난에 이제 고무신착을, 고무신짝 그때 원 다른 신은 엇이난 검은 고무신 그냥 반화 신엉 뎅길 때난 고무신착 구워근에 그걸 딱 허게 누르뜨렌 허라게.(그래서 병을 자랑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밭 김매다가 '어걸' '등겼다'고 하니까 이제 고무신짝을, 고무신짝 그때 원 신은 없으니까 검은 고무신 그냥 반화 신어서 다닐 때니까 고무신짝 구워서 그걸 딱 하고 누르라고 하더라.)

102016 @ 으.(으.)

102016 #1 경헨 그거 누르뜨난 들어간에, 그것이 들어가라게. 들어간 후젠 하이고, 일 년 전이랑 무거운 것도 들르지 말고 저 허벅[14]도 들르지 말렌 헨 나 물 질레 가민 허벅도 영 들렁 팡[15]더레 놔 주고 경허멍 헨 나 살앗저게. 어걸 등긴 말

11) '애기구덕'은 아기를 재울 때 쓰는 바구니를 말한다.
12) '어걸'은 자궁이나 그것이 몸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일컫는 말이다.
13) '등기다'는 무엇이 밑으로 축 늘어져 매달리다는 의미다.
14) '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로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가 아주 좁다.

허민 느네 어무닌 알 거여. 이제 멧 설산디.(그래서 그거 누르니까 들어가서, 그것이 들어가더라. 들어간 후에 하이고, 일 년 전에는 무거운 것도 들지 말고 저 '허벅'도 들지 말라고 해서 나 물 길러 가면 '허벅'도 이렇게 들어서 '팡'에 놔 주고 그러면서 해서 내가 살았어. '어걸' '등긴' 말하면 너희 어머니는 알 거야. 이제 몇 살인지.)

102016 @ 으.(으.)

102016 #1 느네 어무닌 놈 곧는 거라도.(너희 어머니는 남 말하는 거라도.)

102016 @ 삼춘보다 세 살 밑인디 돌아가셧수다.(삼촌보다 세 살 밑인데 돌아가셨습니다.)

102016 #1 아이고, 어무니 돌아가시냐? 아이고, 시상.(아이고, 어머니 돌아가셨니? 아이고, 세상.)

102016 @ 예.(예.)

102016 #1 겡헌 허난 훤허게 우리 나이엔 문 안다게.(그렇게 하니까 훤하게 우리 나이에는 모두 안다.)

102016 @ 으.(으.)

102016 #1 우리 나이엔 애기 나민이 조리허는 사름덜은 조릴 혼 보름썩 혼 덜썩 조릴 허는디 난 조리 못 헤 본 사름이여.(우리 나이에는 아기 낳으면 조리하는 사람들은 조리를 한 보름씩 한 달씩 조리를 하는데 난 조리 못 해 본 사람이야.)

102016 @ 그지.(그지.)

102016 #1 아방[16] 엇인 때 애기도 다섯 개 다 낫저게, 나만. 우리 저 막내는 밧디 강 검질메단 질레서 털어졋저게.(아버지 없을 때 아기도 다섯 개 다 낳았어, 나만. 우리 저 막내는 밭에 가서 김매다가 길에서 떨어졌어.)

102016 @ 하하.(하하.)

102016 #1 질레서 털어젼에 이 우녁집이 아이영 놉 빌엉 강 검질을 멧저. 미깡낭은 요만씩헌 때고.(길에서 떨어져서 이 윗집의 아이랑 놉 빌려서 가서 김을 맸어. 귤나무는 요만한 때고.)

102016 @ 으.(으.)

102016 #1 요만씩헌 때민 옛날은 보리 갈아 놩 그 트멍에 고랑에 미깡낭을 싱것주, 요만씩헌 거난.(요만한 때면 옛날은 보리 갈아 놓고 그 틈에 고랑에 귤나무를 심었지, 요만한 거니까.)

102016 @ 으, 으.(으, 으.)

102016 #1 겡헨 싱그난 그거 검질메레, 아방은 놈이 밧 갈레 가 불고.(그래서 심으니까 그거 김매러, 아버지는 남의 밭 갈러 가 버리고.)

102016 @ 으.(으.)

102016 #1 놈의 밧 갈레 가 불고 헨 우리 막내는 첨 거 무시거레 날 거니? 아

15) '팡'은 말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때에 받침이 되게끔 놓인 넓적한 큰 돌 따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물을 길어 나르는 '허벅'를 올려 넣어 두는 '물팡'을 말한다.

16)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킨다.

니, 이제 그거 가져지난 놈덜이 날ᄀᆞ라 조리 못 헴젠 허멍.(남의 밭 갈러 가 버리고 해서 우리 막내는 참 거 뭐라 낳을 거니? 아니, 이제 그거 가지니까 남들은 나보고 조리 못 한다고 하면서.)

102016 @ 으.(으.)

102016 #1 아이고, ○○이 어멍은 조리 못 허난 막내 난 때랑 막 조리허렌.(아이고, ○○이 어머니는 조리 못 하니까 막내 낳을 때는 잘 조리하라고.)

102016 @ 으.(으.)

102016 #1 경허젠 허단 보난 질레서 털어졍 조리랑 말앙. 경헨에 나 죽을 뻔. 그때도 죽을 뻔헤시녜게. 경헨 이젠 나가 둘이가 앚앙 검질메당 이 우녁집 아인디, 둘리가 앚앙 검질메당, 이 우녁집 아인 열여덥에 시집오랑 쉰하나 나사 아기 낫저게, 오누이.(그러려고 하다가 보니까 길에서 떨어져서 조리는 커녕. 그래서 나 죽을 뻔. 그때도 죽을 뻔했어. 그래서 이젠 내가 둘이 앉아서 김매다가 이 윗집 아이인데, 둘이 앉아서 김매다가, 이 윗집 아이는 열여덟에 시집와서 쉰하나 돼야 아기 낳았어, 오누이.)

102016 @ 아.(아.)

102016 #1 쉰하나, 쉰둘에 낫저, 오누이.(쉰하나, 쉰둘에 낳았어, 오누이.)

102016 @ 아이고, 어떡해.(아이고, 어떡해.)

102016 #1 아이고, 것도 애썼저게. 경헨 아이도 아니 나 본 때 가이도 아무것도 분시 모른 때 아니냐?(아이고, 것도 애썼어. 그래서 아이도 안 낳아 봤을 때 걔도 아무것도 분수 모를 때 아니니?)

102016 @ 예.(예.)

102016 #1 경허난 이제 난 앞이 막 배 아판 점심 졍 갓단에 나 집이 강 오켜. 가이ᄀᆞ라 배 아프덴 말은 못 허고, 나 집이 강 오켜 허난, 무사 가쿠과? 어떵헨 나 집이 강 오마. 이 마당에 보린 소빡 넌 때여.(그러니까 이제 난 앞에 아주 배 아파서 점심 져서 갔다가 나 집에 갔다 오겠어. 걔보고 배 아프다고 말은 못 하고, 나 집에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왜 가겠습니까? 어떡해서 나 집에 갔다 오마. 이 마당에 보리는 가득 넌 때야.)

102016 @ 으.(으.)

102016 #1 옛날에 보리, 보린 소빡 널어 뒌 간 땐디 이젠 아니 막 배가 아프난 아이고, 막 와삭와삭 똥이 ᄆᆞ료와라게. 똥이, 막 배 아파 가고 허난 놈이 창고 시난 창고에 영 간 사난 배가 아니 아프는 거라. 안 아판에 이젠 또 막 돌아오단 영 냇골 엠에 돌겡이밧[17] 잇저, 영 집더레 오는 디. ᄇᆞ딘 디여, 밧은게. 겡헨 오단에 막 똥 ᄆᆞ려우난게 에염더레 앚으난 애기 대가리가 나오지 안허느냐. 애기 대가리가 나오난 이젠 그디선 난 이젠 아이구, 어떵허민 좋으리 이젠 아이구, 사름 살려, 사름 살려 막 헷주게. 애긴 힘은 엇이난 나오진 안허고 걸어젼이, 애기 대가리가 나오단 걸어젼게. 나오단 야가기, 대가리만 나오단 걸어젼.(옛날에 보리, 보리는 가득 널어

17) '돌겡이밧'은 아주 작은 밭을 말한다.

두고 갔을 때인데 이젠 아니 마구 배가 아프니까 아이고, 마구 와삭와삭 똥이 마려웠어. 똥이, 마구 배 아파 가고 하니까 남의 창고 있으니까 창고에 이렇게 가서 서니까 배가 안 아픈 거야. 안 아파서 이젠 또 마구 돌아오다가 이렇게 내 옆에 '돌겡이밧' 있어, 이렇게 집으로 오는 데. 밭은 데야, 밭은. 그래서 오다가 아주 똥 마려우니까 옆에 앉으니까 아기 대가리가 나오지 않니. 아기 대가리가 나오니까 이젠 거기선 난 이젠 아이고, 어떡하면 좋을까 이젠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마구 했지. 아긴 힘은 없으니까 나오진 않고 걸렸어, 아기 대가리가 나오다가 걸렸어. 나오다가 목, 대가리만 나오다가 걸렸어.)

102016 @ 아이고, 어떡해.(아이고, 어떡해.)

102016 #1 아이고, 사름 살려, 사름 살려 허난에 마침 저끗디 사름, 육지서 온 어른이 잇어낫저게. 경허난 그 어른도 밧디 점심 헹 정 가단에 날 걸린 거라. 경허난 나 허리 누르떠 도렌 허난 허리 꼭 누르뜨난 난 것이 숫검뎅이 피 올란. 애기가 ᄉᆞ못 새카망. 새카망헌 게 가이 빌어다근에 배또롱줄 그치고 이젠 경헤노렌 허난 밧디서 나영 ᄀᆞ치 검질메던 아이가 온 거 아니냐. 오난 그 애긴 이젠 ᄀᆞᆯ체, 가이 옛날은 벌레기[18] 치젠 ᄀᆞᆯ체 밧디 아정 간다게. 벌레기 치젠 ᄀᆞᆯ첼 아정 가난 이제 그 ᄀᆞᆯ체레 애긴 놓젠 허민 그냥 놔지느냐? 웃통, 이 우녁집 아이 웃통 벗어 놓고.(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니까 마침 옆의 사람, 육지에서 온 어른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어른도 밭에 점심 해서 져서 가다가 날 걸린 거야. 그러니까 내 허리 눌러 달라고 하니까 허리 꼭 누르니까 낳은 것이 숯검정 피 올라서. 아기가 사뭇 시커매. 시커먼 게 걔 빌려다가 탯줄 자르고 이젠 그런다고 하니까 밭에서 나랑 같이 김매던 아이가 온 거 아니냐. 오니까 그 아긴 이젠 삼태기, 걔 옛날은 '벌레기' 치려고 삼태기 밭에 가지고 간다. '벌레기' 치려고 삼태기를 가지고 가니까 이제 그 삼태기에 아긴 놓으려고 하면 그냥 놓을 수 있니? 웃통, 이 윗집 아이 웃통 벗어 놓고.)

102016 @ 으.(으.)

102016 #1 이젠 경헨에 베똥롱줄 끈언 ᄀᆞᆯ체레 애기 놓고 난 이젠 걸어 앚앙, 그 내에서 이젠 걸어 앚장 집이 오난 하늘광 땅이 빈 오람직허고 가인 이젠 집이 간, 나 이디 오랑 눅져 뒌에, 나 집이 간에 옷 ᄀᆞᆯ아입어 오쿠다 헨 가 불지 안허느냐. 가난 나가 막 궤로워라게. 아이, 막 마당에 비 오람직허난 그 보릴 이젠 도루무깡더레 믄 담아 들여시네.(이젠 그렇게 탯줄 끊고 삼태기에 아기 놓고 난 이젠 걸어 가지고, 그 내에서 이젠 걸어 가지고 집에 오니까 하늘과 땅이 비는 옴직하고 걔는 이젠 집에 가서, 나 여기 와서 눕혀 두고, 나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겠다고 해서 가 버리지 않니. 가니까 내가 아주 괴롭더라. 아이, 마구 마당에 비 옴직하니까 그 보리를 이젠 드럼통에 모두 담아 들였어.)

102016 @ 하.(하.)

102016 #1 그 보리 문짝 도라무깡더레 담아 들이난 나가 곧 씨러졍 죽어짐 직허난 탁 뒈싸져 분 거라. 뒈싸젼 나가 그냥, 애기 난 때 눅지 말렌 헌다게. 누민 피

18) '벌레기'는 밭을 갈 적에 일어나는 헝클어진 풀포기를 말한다.

올랑이.(그 보리 모두 드럼통에 담아 들이니까 내가 곧 쓰러져서 죽음 직하니까 탁 쓰러져 버린 거야. 쓰러져서 내가 그냥, 아기 낳았을 때 눕지 말라고 한다. 누우면 피가 올라서.)

102016 @ 아.(아.)

102016 #1 눅지 말렌 허는디게, 애기 눅져 뒌 가이 옷 골아입엉 오랑 애기 목욕 시키쿠덴 헤근에 간 옷 골아입엉 옴 새에 나가 자빠져 분 거라.(눕지 말라고 하는데, 아기 눕혀 두고 걔 옷 갈아입고 와서 아기 목욕 시키겠다고 해서 가서 옷 갈아입고 오는 사이에 내가 쓰러져 버린 거야.)

102016 @ 으.(으.)

102016 #1 경허난 자빠지난 오란 성님, 성님 불르난 아니 바레난 시상이 킘킘 아니냐. 눈 어둑어 불언. 피 올란 왁왁헨. 아이고, 나 느 못 바레켜. 아이고, 나 느 바레지 못허켜게. 아이고. 게난 나 옛날 할망신디 이 피 올르민 알러레 쓸렌 말은 들엇저게. 피 알러레 ᄂᆞ릇 쓸렌. 경헨 이젠 가인 손맥 존 아이난 아이고, 나 오랑 ᄂᆞ릇 쓸어 보라, 어떵 허느니. 막 가죽 벗어짐직이, 여름이난 옷도 하영 안 입엉 난 닝구만 입은디 허난 막 이디 밀어져낫저. 등떵이로 요 앞으로 헹 밀어 가난 ᄒᆞ쏠베롱허게[19] 눈이 터져라게.(그러니까 자빠지니까 와서 형님, 형님 부르니까 안 보니까 세상이 캄캄 아니니. 눈 어두워 버렸어. 피 올라서 컴컴했어. 아이고, 나 너 못 보겠어. 아이고, 나 너 보지 못하겠어.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옛날 할머니에게 이 피 오르면 아래로 쓸라는 말은 들었어. 피 아래로 내리 쓸라고. 그래서 이젠 걔 손맥 좋은 아이니까 아이고, 나 와서 내리 쓸어 보라, 어떻게 하니. 아주 가죽 벗겨질 듯이, 여름이니까 옷도 많이 안 입고 러닝만 입었는데 하니까 마구 여기 밀어졌었어. 등때기로 요 앞으로 해서 밀어 가니까 조금 '베롱하게' 눈이 뜨이더라.)

102016 @ 으.(으.)

102016 #1 아이구, 눈 터졍 물은 몸으로 좔좔허고, 뜸으로 물은 좔좔허고 헨 이젠 아무도 엇인 때 그추룩 허난 가이 오란, 막 게와짐직허난 ᄂᆞᆺ사리 앗당 허난, 아이구 우로 게왕은 죽넨 헤라. 난 알러레만 쓸라, 알러레만 쓸라 허멍 살아나젠 허난 알러레만 쓸어 가난 눈이 베롱헤라게. 아이고, 그때 가이 ᄒᆞ쏠만 늦게 오라시민 목숨 끊어질 뻔. 나 두 번 죽을 뻔헤시네.(아이고, 눈 뜨여서 물은 몸으로 좔좔하고, 땀으로 물은 좔좔하고 해서 이젠 아무도 없을 때 그처럼 하니까 걔가 와서, 마구 게움직하니까 세숫대야 가져다가 하니까, 아이고 위로 게워서는 죽는다고 하더라. 난 아래로만 쓸어라, 아래로만 쓸어라 하면서 살아나려고 하니까 아래로만 쓸어 가니까 눈이 '베롱하더라'. 아이고, 그때 걔 조금만 늦게 왔으면 목숨 끊어질 뻔. 나 두 번 죽을 뻔했어.)

102016 @ 경헤신게.(그랬네.)

102016 #1 두 번 죽을 뻔. 경헨 질레서 털어젼 몸조리, 나 이제도록 몸조리 못헨 이거 아니냐. 아이고.(두 번 죽을 뻔. 그래서 길에서 떨어져서 몸조리, 나 이제도

19) '베롱허다'는 불빛 따위가 희미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록 몸조리 못해서 이거 아니냐. 아이고.)

102016 @ 참 참 참.(참 참 참.)

102016 #1 세상에. 애기 낭 나만이 몸조리 못헌 사름 엇다. 게난 나 우리 뚤은 애기 나난이 몸조리허라, 몸조리허라. 느 후회난다, 몸조리허라 허멍 이디 오랑 흔 보름썩 나 돌앙 살멍 헷저게.(세상에. 아기 낳아서 나만큼 몸조리 못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나 우리 딸은 아기 낳으니까 몸조리해라, 몸조리해라. 너 후회한다, 몸조리해라 하면서 여기 와서 한 보름씩 내가 데리고 살면서 했어.)

102016 @ 음.(음.)

102016 #1 아이고, 나 후회난.(아이고, 나 후회이니까.)

102016 @ 게난.(그러니까)

102016 #1 난이 애기 나 둰, 아방[20]이 놈의 밧을 갈레 가나 무시거 헹 버슬어사 살 사람이라부난 누게가 거념을 혜 줄 사름 엇어라게.(난 아기 낳아 두고, 아버지가 남의 밭을 갈러 가거나 뭐 해서 벌어야 살 사람이니까 누가 돌봐 줄 사람 없더라.)

102016 @ 으, 으.(으, 으.)

102016 #1 거념혜 줄 사름 엇이난 나냥으로게 밥이라도 헹 먹어사주, 어떵헤. 원 원.(돌봐 줄 사람 없으니까 나대로 밥이라도 해서 먹어야지, 어떡해. 원 원.)

102016 @ ᄌᆞ베기 헹 먹고?(수제비 해서 먹고?)

102016 #1 ᄆᆞ물쏠 ᄀᆞ루 ᄀᆞᆯ아당 놧당, 캉 먹고.(메밀쌀 가루 갈아다가 놨다가, 타서 먹고.)

102016 @ 캉 먹고예.(타서 먹고요.)

102016 #1 저베기 헹 먹고. 아이구. 저베긴 헤시냐게, 기자 물 삭삭 꿰와 놩 닥닥 찍엉 기자 휘젓엉 비왕 먹엇주. 느네 아이구, ᄀᆞᆯ아도 몰른다.(수제비 해서 먹고. 아이고. 수제비는 했니, 그저 물 팔팔 끓여 놔서 닥닥 찍어서 그저 휘저어서 부어서 먹었지. 너희 아이고, 말해도 모른다.)

101004 @ ᄀᆞᆯ아도 몰라. 하하. 이 마을에, 이 마을 주변에 오름, 무슨 오름 잇수과?(말해도 몰라. 하하. 이 마을에, 이 마을 주변에 오름, 무슨 오름 있습니까?)

101004 #1 물오름.[21](‘물오름’.)

101004 @ 물오름.(‘물오름’.)

101004 #1 저 끌오름[22].(저 ‘끌오름’.)

101004 @ 끌오름. 게니까 토평에 이신 거예?(‘끌오름’. 그러니까 토평에 있는 거요?)

101004 #1 어, 어 토평[23]으로.(어, 어 토평으로.)

101004 @ 물오름, 끌오름.(‘물오름’, ‘끌오름’.)

101004 #1 어, 그 이 사막모루[24]엔 헌 이 인정오름[25].(어, 그 이 ‘사막모루’라고

20)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킨다.
21) ‘물오름’은 서귀포시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22) ‘끌오름’은 서귀포시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끅오름, 칡오름’이라고도 한다.
23) ‘토평’은 서귀포시 토평동을 말한다.

하는 이 ‘인정오름’.)

101004 @ 인정오름.(‘인정오름’.)

101004 #1 어. 토평으로는.(어. 토평으로는.)

101004 @ 아, 세 개.(아, 세 개.)

101004 #1 으. 원 나 알아지는 건 것벳긴 엇다. 이 바당에 섬은 직구섬[26]이여 무슨 섬이여 그건.(으. 원 내가 아는 건 것밖에 없다. 이 바다에 섬은 ‘직구섬’이며 무슨 섬이며 그건.)

101004 @ 직구섬 또 무슨 섬?(‘직구섬’ 또 무슨 섬?)

101004 #1 문섬[27].(‘문섬’.)

101004 @ 문섬.(‘문섬’.)

101004 #1 으.(으.)

101004 @ 토평 앞에예?(토평 앞에요?)

101004 #1 으. 경헌디 저 끌오름엔 헌 저 오름은 저 무슨 오름, 예춘, 그건 예춘망[28]이엔 헌다. 예춘망.(으. 그런데 저 ‘끌오름’이라고 하는 저 오름은 저 무슨 오름, ‘예춘’, 그건 ‘예춘망’이라고 한다. ‘예춘망’.)

101004 @ 아.(아.)

101004 #1 이 토평 오름은.(이 토평 오름은.)

101004 @ 예촌망이 뭐?(‘예촌망’이 뭐?)

101004 #1 그 오름 일름ᄀᆞ라 예춘망.(그 오름 이름보고 ‘예춘망’.)

101004 @ 아, 아.(아, 아.)

101004 #1 게난 이 솔오름허고 인정오름허고 그자 저 무슨 오름이주.(그러니까 이 ‘솔오름’하고 ‘인정오름’하고 그저 저 무슨 오름이지.)

101004 @ 끌오름.(‘끌오름’.)

101004 #1 끌오름.(‘끌오름’.)

101004 @ 아, 솔오름도 있는 거예?(아, ‘솔오름’도 있는 거요?)

101004 #1 솔오름은 바로 이디.(‘솔오름’은 바로 여기.)

101004 @ 솔오름, 끌오름, 인정오름.(‘솔오름’, ‘끌오름’, ‘인정오름’.)

101004 #1 으, 으.(으, 으.)

101004 @ 그리고 내도 잇수과, 내?(그리고 내도 있습니다, 내?)

101004 #1 내 잇주게. ᄆᆞ쉬모루내[29].(내 있지. ‘ᄆᆞ쉬모루내’.)

101004 @ ᄆᆞ쉬모루내.(‘ᄆᆞ쉬모루내’.)

101004 #1 어. ᄆᆞ쉬모루엔 헌다. 건 원 이 토평은 ᄆᆞ쉬모루내 그거 ᄒᆞ나.(어. ‘ᄆᆞ쉬모루’라고 한다. 건 원 이 토평은 ‘ᄆᆞ쉬모루내’ 그거 하나.)

---

24) ‘사막모루’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지경 이름의 하나다.
25) ‘인정오름’은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26) ‘직구섬’은 서귀포시 토평동 앞바다에 있는 섬 이름이다.
27) ‘문섬’은 서귀포시 토평동 앞바다에 있는 섬 이름이다.
28) ‘예춘망’은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29) ‘ᄆᆞ쉬모루내’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내 이름이다.

101004 @ 예. 큰 바위 같은 것도 잇수과? 이름 있는 바위?(예. 큰 바위 같은 것도 있습니까? 이름 있는 바위?)

101004 #1 솔깍지네웃도[30], 그 바우엔 헌 건 그 솔깍지네웃도, 솔깍지네웃도 헤낫저.('솔깍지네웃도', 그 바위라고 하는 건 그 '솔깍지네웃도', '솔깍지네웃도' 했었어.)

101004 @ 으.(으.)

101004 #1 이 ᄆᆞ쉬모루내 알깍에.(이 'ᄆᆞ쉬모루내' 아래에.)

101004 @ 예, 예.(예, 예.)

101004 #1 그것이 솔깍지어웃도, 솔깍지어웃도. 우리 솔칵지어웃도 허멍 우리 고사리 술레 가고.(그것이 '솔깍지어웃도', '솔깍지어웃도'. 우리 '솔칵지어웃도' 하면서 우리 고사리 사르러 가고.)

101004 @ 으.(으.)

101004 #1 그 솔깍지어웃도 넘어근에 저 고사리 꺾으레 가곡 경 ᄀᆞᆯ아낫저. 옛날 말.(그 '솔깍지어웃도' 넘어서 저 고사리 꺾으러 가고 그렇게 말했었어. 옛날 말.)

101004 @ 예. 또 잇어, 바위가?(예. 또 있어, 바위가?)

101004 #1 그 바위는 잘 모르켜.(그 바위는 잘 모르겠어.)

101004 @ 굴은 굴, 굴?(굴은 굴, 굴?)

101004 #1 굴은 ᄆᆞ쉬모루굴[31] 하나. ᄆᆞ쉬모루굴허고.(굴은 'ᄆᆞ쉬모루굴' 하나. 'ᄆᆞ쉬모루굴'하고)

101004 @ ᄆᆞ쉬모루굴.('ᄆᆞ쉬모루굴'.)

101004 #1 또 어디 굴이 멧 군데 저, 넙작지[32]도 굴 이실 거라. 넙작지 굴허고 굴 ᄒᆞᆫ 서너 군데 잇저만은 일름은 다 모르켜.(또 어디 굴이 몇 군데 저, '넙작지'도 굴 있을 거야. '넙작지' 굴하고 굴 한 서너 군데 있지만 이름은 다 모르겠어.)

101004 @ 예. 이 바당에는, 바당 이름도 이실 거 아니? 토평에 속헌 바당 이름?(예. 이 바다에는, 바다 이름도 있을 거 아니? 토평에 속한 바다 이름?)

101004 #1 검은여[33].('검은여'.)

101004 @ 검은여.('검은여'.)

101004 #1 으, 우리 검은여벳긴.(으, 우리 '검은여'밖에.)

101004 @ 그럼 여기는 농사짓고 바닷일은 벨로.(그럼 여기는 농사짓고 바닷일은 별로.)

101004 #1 세미알[34], 검은여 원 두 군데 우린.('세미알', '검은여' 원 두 군데 우린.)

101004 @ 아, 세미알, 검은여.(아, '세미알', '검은여'.)

---

30) '솔깍지네웃도'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제보자 '솔각지는어업도'. '솔깍지는어윗도'라고도 한다.

31) 'ᄆᆞ쉬모루굴'은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굴 이름이다.

32) '넙작지'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33) '검은여'는 서귀포시 토평동 앞바다에 있는 여 이름이다.

34) '세미알'은 서귀포시 토평동 앞바다 이름의 하나다.

101004 #1 으.(으.)

101004 @ 바닷일은 많이 안 헷수과, 토평 사람들?(바닷일은 많이 안 했습니까, 토평 사람들?)

101004 #1 어.(어.)

101004 @ 아, 바닷일은?(아, 바닷일은?)

101004 #1 바닷일 허는 사름 줌수 잇주게.(바닷일 하는 사람 잠수 있지.)

101004 @ 예, 줌수 잇인디.(예, 잠수 있는데.)

101004 #1 이제도 잇이녜게.(이제도 있지.)

101004 @ 예, 있는데.(예, 있는데.)

101004 #1 바닷일 헤연에 그 어부덜은, 난 원 훨 충 모르난 바당에 그런 디 참석 안 헤도.(바닷일 해서 그 어부들은, 난 전혀 헤엄칠 줄 모르니까 바다에 그런 데 참석 안 해도.)

101004 @ 으, 으.(으, 으.)

101004 #1 훼원이 잇이녜게.(회원이 있지.)

101004 @ 으.(으.)

101004 #1 훼원이 잇엉 톨도 헤 오고, 메역도 헤 오고, 경 헤영덜 풀고. 이제도 헴서.(회원이 있어서 톳도 해 오고, 미역도 해 오고, 그렇게 해서들 팔고. 이제도 하고 있어.)

101004 @ 게난 어쨌든 바닷일도 헷구나예?(그러니까 어쨌든 바닷일도 했군요?)

101004 #1 으, 바당일도 허는 사름덜은 이제도. 바당일 헹 부제 된 사름덜 함시녜게, 이제도게. 전복 헤당 문 풀앙 밧 사고 문.(으, 바닷일도 하는 사람들은 이제도. 바닷일 해서 부자 된 사람들 많지, 이제도. 전복 해다가 모두 팔아서 밭 사고 모두.)

101004 @ 예, 예.(예, 예.)

101004 #1 우리 훨 충 모르난 그런 디 못헤영 산에만 살암주게.(우리 헤엄칠 줄 모르니까 그런 데 못해서 산에만 살고 있지.)

101005 @ 예. 여기에 학교, 기관이 뭐 잇수과? 학교, 무슨 학교?(예. 여기에 학교, 기관이 뭐 있습니까? 학교, 무슨 학교?)

101005 #1 학교에 이 초등학교, 초등학굔이.(학교에 이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101005 @ 토평초등학교 있고.(토평초등학교 있고.)

101005 #1 토평초등학교 이디 잇엇단에, 원 흔 밧디.(토평초등학교 여기 있었다가, 원 한 군데.)

101005 @ 음.(음.)

101005 #1 흔 밧이주 ᄆᆞ을 족은디 무신. 흔 밧디 이디 잇엇단 이 아래 초등학교로 가시녜.(한 군데지 마을 작은데 무슨. 한 군데 여기 있었다가 이 아래 초등학교로 갔어.)

101005 @ 가고. 아, 이제 토평초등학교 없어져 불언?(가고. 아, 이제 토평초등학

교 없어져 버렸어?)
101005 #1 교육청 짓어시네.(교육청 지었어.)
101005 @ 아, 교육청 그거 서귀포시교육청?(아, 교육청 그거 서귀포시교육청?)
101005 #1 으.(으.)
101005 @ 원래 거기가 토평초등학교랏수과?(원래 거기가 토평초등학교였습니까?)
101005 #1 어. 그거 초등학교랏저.(어. 그거 초등학교였어.)
101005 @ 게민, 토평초등학교는 어디로 간 거?(그럼, 토평초등학교는 어디로 간 거?)
101005 #1 아래.(아래.)
101005 @ 아래 어디?(아래 어디?)
101005 #1 이 앞동산으로 알러레 간 디여게. 젤 알동네.(이 앞동산으로 아래로 간 데야. 제일 아랫동네.)
101005 @ 젤 알동네.(제일 아랫동네.)
101005 #1 저 검은여레 가는 디, 그디 검은여레 가는 디주.(저 '검은여'로 가는데, 거기 '검은여'로 가는 데지.)
101005 @ 으.(으.)
101005 #1 그디, 그디 강 짓엇저게.(거기, 거기 가서 지었어.)
101005 @ 여기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것도 엇고?(여기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것도 없고?)
101005 #1 아이고.(아이고.)
101005 @ 그런 건 엇고.(그런 건 없고.)
101005 #1 쪼글락헌 ᄆᆞ을에. 옛날에 잇엇저.(자그마한 마을에. 옛날에 있었어.)
101005 @ 으.(으.)
101005 #1 사삼사건 ᄀᆞ리엔 경찰서 이 저 부락이 잇어낫저.(사삼사건 경에는 경찰서 이 저 부락에 있었어.)
101005 @ 아.(아.)
101005 #1 그땐 잇엇단 엇어젼.(그땐 있었다가 없어졌어.)
101005 @ 아, 그때 잇엇단 이제 없고.(아, 그때 있었다가 이제 없고.)
101005 #1 으, 이젠 엇어.(으, 이젠 없어.)
101005 @ 농협 이십디다예?(농협 있던데요?)
101005 #1 어게.(어.)
101005 @ 농협 있고.(농협 있고.)
101005 #1 군 농협 잇고, 단위농협도 잇고.(군 농협 있고, 단위농협도 있고.)
101005 @ 단위농협 잇고.(단위농협 있고.)
101005 #1 어, 단위농협, 군 농협.(어, 단위농협, 군 농협.)
101005 @ 새마을금고도 있고.(새마을금고도 있고.)

101005 #1 새마을금곤 이제야 짓은 거.(새마을금고는 이제야 지은 거.)

101005 @ 짓은 거. 우체국 있고?(지은 거. 우체국 있고?)

101005 #1 우체국은 엇어.(우체국은 없어.)

101006 @ 없고예. 예, 예. 이 마을에 어떤 접덜 잇수과? 계 하는 거, 접 하는 거? 마을접?)(없고요. 예, 예. 이 마을에 어떤 계들 있습니까? 계 하는 거, 계 하는 거? 마을계?)

101006 #1 ᄆᆞ을접 허는 거 어디 목장에, 원 우린 몰른디 계로 창고 ᄒᆞ나 짓엇젠 허는 거벳긴 엇어.(마을계 하는 거 어디 목장에, 원 우린 모르는데 계로 창고 하나 지었다고 하는 거밖에 없어.)

101007 @ 엇고. 이 마을 풍습 뭐 잇수과? 토평리 풍습이?(없고. 이 마을 풍습 뭐 있습니까? 토평리 풍습이?)

101007 #1 토평 풍습 원 나 원 잘 몰라. 들어보지 안허난.(토평 풍습 원 나 원 잘 몰라. 들어보지 않으니까.)

101008 @ 토평 특산물은 뭐과? 지금 특산물이 미깡?(토평 특산물은 뭡니까? 지금 특산물이 귤?)

101008 #1 원 토평서 특산물이 지금 토평서는 미깡벳긴.(원 토평에서 특산물이 지금 토평에서는 귤밖에.)

101008 @ 으.(으.)

101008 #1 뭐 특산이 엇다.(뭐 특산이 없다.)

101008 @ 미깡벳기.(귤밖에.)

101008 #1 어, 이제 기자 한라봉 나난 그거 특산.(어, 이제 그저 한라봉 나니까 그거 특산.)

101008 @ 아, 예 예.(아, 예 예.)

101008 #1 한라봉.(한라봉.)

101008 @ 토평도 한라봉 많이 헙니까?(토평도 한라봉 많이 합니까?)

101008 #1 어게. 한라봉 주장 허주게.(어. 한라봉 주로 하지.)

101008 @ 아.(아.)

101008 #1 경허단 이제 또이 한라봉 말앙 감평[35]이니.(그러다가 이제 또 한라봉 말고 감평이며.)

101008 @ 예.(예.)

101008 #1 이제 저 천, 천혜향이니?(이제 저 천, 천혜향이니?)

101008 @ 으.(으.)

101008 #1 그런 것덜 헴저. 젊은 아이덜.(그런 것들 하고 있어. 젊은 아이들.)

101008 @ 예. 게난 다 하우스 짓엉 허는 거 아니?(예. 그러니까 다 하우스 지어서 하는 거 아니?)

101008 #1 어게, 하우스 짓엉. 경허난이 한라봉 주장이여게, 지금.(어, 하우스 지

35) '감평'은 귤 품종의 하나다.

어서. 그러니까 한라봉 주로야, 지금.)

101008 @ 어, 예.(어, 예.)

101008 #1 경허난이 한라봉 주장이여. 한라봉 주장이주. 밀감엔이 돈 언마 못 산다, 이젠. 무시거 밀감엔. 이 한라봉이 ᄇᆞ름 ᄒᆞᆫ번 불어 불민 그 돈 들어가근에 따시 그 하우스 고치젠 허민 엄청나게 들주게. 경헤 불민 돈 들어간다만은, 대풍에 안 불엉 나올 때쯤은 ᄒᆞᆫ 일억썩 삼주. 사는 사름은. 우린 쪼글락헌 거난 무시거 이삼천.(그러니까 한라봉 주로야. 한라봉 주로지. 밀감엔 돈 얼만 못 벌어, 이젠. 뭐 밀감이라고. 이 한라봉이 바람 한번 불어 버리면 그 돈 들어가서 다시 그 하우스 고치려고 하면 엄청나게 들지. 그래 버리면 돈 들어가지만, 대풍에 안 불어서 나올 때쯤은 한 일억씩 사지. 사는 사람은. 우린 자그마한 거니까 뭐 이삼천.)

101008 @ 으.(으.)

101008 #1 원 경헤도 하영 나는 사름은 일억썩, ᄒᆞᆫ 오천썩 헴저게. 경허주, 미깡은이 경 어려와.(원 그래도 많이 나는 사람은 일억씩, 한 오천씩 하고 있어. 그렇지, 귤은 그렇게 어려워.)

101008 @ 어려워.(어려워.)

101008 #1 미깡 갑이나 준 때는 ᄒᆞ쏠 ᄒᆞᆫ 오천만 원 뒌 때도 잇고 일억 넘을 때도 잇고. 이젠 미깡 갑. 작년 ᄀᆞ튼 땐이 원 미깡 갑 ᄒᆞᆫ 관에 천 원도 안 가고 오백 원이여 뭐 박스 갑 설당 보민 아무것도 엇엇저게.(귤 값이나 줄 때는 조금 한 오천만 원 되는 때도 있고 일억 넘을 때도 있고. 이젠 귤 값. 작년 같은 땐 원 귤 값 한 관에 천 원도 안 가고 오백 원이며 뭐 박스 값 물다 보면 아무것도 없었어.)

101008 @ 삼춘네는 미깡은 안 허고 한라봉 그것만 허는 거라?(삼촌네는 귤은 안 하고 한라봉 그것만 하는 거야?)

101008 #1 아니, 밀감낭밧 ᄒᆞᆫ 이천 펭 ᄒᆞ단 거 넘은해ᄁᆞ장은 ᄒᆞᆫ 천오백만 원 받안에, 이제 ᄒᆞᆫ 이천만 원. ᄒᆞᆫ 이천오백만 원 받안 풀앗저만은 밧 ᄂᆞᆷ 줘 벳저.(아니, 밀감밭 한 이천 평 하다가 거 지난해까지는 한 천오백만 원 받아서, 이제 한 이천만 원. 한 이천오백만 원 받아서 팔았지만 밭 남 줘 버렸어.)

101008 @ 아, 예.(아, 예.)

101008 #1 하르방[36] 아프난. 이젠 설러 불젠. 나도 아프고.(할아버지 아프니까. 이젠 그만둬 버리려고. 나도 아프고.)

101009 @ 삼춘 생각허기에 여기 토평리 자랑거리가 잇수과?(삼촌 생각하기에 여기 토평리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101009 #1 토평[37] 자랑거리 헐 거 엇어.(토평 자랑거리 할 거 없어.)

101009 @ 무사, 하하하.(왜, 하하하.)

101009 #1 우리 토평은이 자랑거리 헐 거 엇나. 원, 원.(우리 토평은 자랑거리 할 거 없어. 원, 원.)

---

36)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37) '토평'은 서귀포시 토평동을 말한다.

101009 @ 무사?(왜?)

101009 #1 경허고 영 살아 보민 우리 토평 흔엇이 인심이 엇인 디여.(그리고 이렇게 살아 보면 우리 토평 한없이 인심이 없는 데야.)

101009 @ 무사?(왜?)

101009 #1 단체성이 엇어.(단체성이 없어.)

101009 @ 아, 단체성이 엇어. 으번에 그 할무니 말헌 것처럼?(아, 단체성이 없어. 요번에 그 할머니 말한 것처럼?)

101009 #1 어.(어.)

101009 @ 하하하.(하하하.)

101009 #1 경허난 이 커 오는 아이덜토이 이 토평 살고정 안허멩은 곧나.(그러니까 이 커 오는 아이들도 이 토평 살고 싶지 않다고는 말해.)

101009 @ 아.(아.)

101009 #1 단체성이 엇나. 단체성이 웨 엇이냐 허면은 우리 부락에 국훼의원이 나오던가 도의원이 나오던가 멘의원이 나오던가 허민 단체성이 잇이민 그걸 무꺼줄 거 아니냐. 없어. 다른 ᄆᆞ을 운동을 뎅겨. 경허영 싸웁는 거라.(단체성이 없어. 단체성이 왜 없나 하면은 우리 부락에 국회의원이 나오든가 도의원이 나오든가 면의원이 나오든가 하면 단체성이 있으면 그걸 묶어줄 거 아니냐. 없어. 다른 마을 운동을 다녀. 그래서 싸우는 거야.)

101009 @ 하하.(하하.)

101009 #1 그게 단체성 없는 거. 경허난 우리 동네 아이 나오라도 안 찍어 줭 어디 볼목리[38] 사름 문 운동 뎅기고 찍어 주고. 거 단체성이 신 거냐?(그게 단체성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아이 나와도 안 찍어 줘서 어디 보목동 사람 모두 운동 다니고 찍어 주고. 거 단체성이 있는 거냐?)

101009 @ 으.(으.)

101009 #1 게난 그 요자기 할망도 그거주. 이 토평리 ᄆᆞ슬 영헌 처레 도저히 몰르ᄀᆞ렌 이제도록 살아도, 늑도록 살아도 몰르ᄀᆞ렌.(그러니까 그 요전번 할머니도 그거지. 이 토평리 마을 이런 줄 도저히 몰랐다고 이제까지 살아도, 늙도록 살아도 몰랐다고.)

101009 @ 으.(으.)

101009 #1 무사 몰라게 알당도 버치주. 우리 토평이 단체 없는 부락이엔은 곧나. 나만 곧진 안허고. 단체 없어. 사름덜이 영 어디 뭐 헌 일이 나도 단체성이 엇엉 이 돈 한 사름덜 돈 자세나 허고.(왜 몰라 알다가도 부치지. 우리 토평이 단체 없는 부락이라고는 말해. 나만 말하지는 않고. 단체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어디 뭐 한 일이 나도 단체성이 없어서 이 돈 많은 사람들 돈 자세나 하고.)

101009 @ 돈 자세?(돈 자세?)

101009 #1 으, 자랑.(으, 자랑.)

38) '볼목리'는 서귀포시 보목동을 말한다.

101009 @ 아, 돈 자랑.(아, 돈 자랑.)

101009 #1 어.(어.)

101009 @ 게난 여기 토평도 막 부제덜 막 핫구나?(그러니까 여기 토평도 아주 부자들 아주 많았구나?)

101009 #1 경헌디 옛날 완전 일름 난 부제가이.(그런데 옛날 완전 이름 난 부자가.)

101009 @ 예.(예.)

101009 #1 성안칩[39] 칩, 성내칩, 모커리 이제 경, 이제 알대[40] 그 멧 부락이여게.('성안칩', '성내집', 곁채 이제 그렇게, 이제 '알대' 그 몇 부락이야.)

101009 @ 예.(예.)

101009 #1 우리 토평 옛날 일등이.(우리 토평 옛날 일등이.)

101009 @ 예. 성안칩 허는 게 뭐, 어디?(예. '성안칩' 하는 게 뭐, 어디?)

101009 #1 성안이엔 헌 집은 그 집 일름이.('성안'이라고 하는 집은 그 집 이름이.)

101009 @ 아, 집 이름이?(아, 집 이름이?)

101009 #1 아주 토평 일등 부제주게. 일등 부제고.(아주 토평 일등 부자지. 일등 부자이고.)

101009 @ 아.(아.)

101009 #1 성내칩이엔 헌 디도 이제 성내[41]서 오난 성내칩이엔 허는 거고.('성내칩'이라고 하는 데도 이제 '성내'에서 오니까 '성내칩'이라고 하는 거고.)

101009 @ 어.(어.)

101009 #1 경허연 그 집 일름인디 모커레 경헨 완전 흔 댓 군데 일등으로 부제라난디 폭삭 망해연 아무것도 엇다. 아무것도 엇엉 이제 새 부제덜.(그래서 그 집 이름인데 곁채 그래서 완전 한 댓 군데 일등으로 부자였는데 폭삭 망해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새 부자들.)

101009 @ 어.(어.)

101009 #1 새 부제, 이 부 선생이엔 헌 사름허고 토평 상도[42] ○○○이, 그 멧 군데벳긴 엇일 거여. 일등.(새 부자, 이 부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토평 상도 ○○○이, 그 몇 군데밖에 없을 거야. 일등.)

101009 @ 예.(예.)

101009 #1 밧 흔 만 평덜 잇고. 집, 서귀포 집덜 댓 군데 잇고.(밭 한 만 평들 있고. 집, 서귀포 집들 댓 군데 있고.)

101009 @ 토평리서 뭐 잘난 사름 나거나 헌 건 엇수과?(토평리에서 뭐 잘난 사

39) '성안칩'은 성 안에 있는 집이라는 의미다. 여기서 성은 정의현성으로 '성안' 정의현성이 있었던 성읍 지역을 말한다.

40) '알대'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41) '성내'는 성 내에 있는 마을로, 여기서 성읍 지역을 말한다.

42) '상도'은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람 나거나 한 건 없습니까?)

101009 #1 토평서 잘난 사름 아이고 도의원 알데기[43]엔 헌 디서 재산이 문 망해 벳주게.(토평에서 잘난 사람 아이고 도의원 '알데기'라고 하는 데서 재산이 모두 망해 버렸지.)

101009 @ 으.(으.)

101009 #1 얼굴도 잘나고 이제, 하르방은 죽어 베도 아덜이 경 얼굴이 잘나고 또 여자는 육지 사름인디 막 베운 사름.(얼굴도 잘나고 이제, 할아버지는 죽어 버려도 아들이 그렇게 얼굴이 잘나고 또 여자는 육지 사람인데 많이 배운 사람.)

101009 @ 음.(음.)

101009 #1 ᄉᆞ뭇 대학교 나오란, 거 무신 대학교 나오란, ᄉᆞ뭇 첨 잘도 ᄋᆞ망진 사름 돈 엇덴이 그 사름 이제 도의원으로 나오라낫주만은 우리 토평서 세 번을 나오라도 세 번을 안 찍어 줘시네.(사뭇 대학교 나와서, 거 무슨 대학교 나와서, 사뭇 참 아주 야무진 사람 돈 없다고 그 사람 이제 도의원으로 나왔지만 우리 토평에서 세 번을 나와도 세 번을 안 찍어 줬어.)

101009 @ 아.(아.)

101009 #1 어디 우리 토평 부락 인심 잇인 디니게.(어디 우리 토평 부락 인심 있는 데니.)

101009 @ 아.(아.)

101009 #1 그걸로 인심 엇인 부락이야. 이 부락 알아주지 안헌다. 토평 것덜이엔 헤낫저. 웨방 사름덜. 토평 것덜 토평 사름 나오라도 ᄒᆞ나 멘들아, 내세우지 안허영.(그걸로 인심 없는 부락이야. 이 부락 알아주지 않는다. 토평 것들이라고 했었어. 외방 사람들. 토평 것들 토평 사람 나와도 하나 만들어, 내세우지 않고.)

101009 @ 으.(으.)

101009 #1 경헤도 그 사람을 불쌍헌, 우린 ᄉᆞ뭇 문 그 그자 모이젠 허민 이 수박 사 가고 주스 사 가고 그 사름을 내세우젠 우린 동네에서 헷주만은 알동네 사름덜은 지네 동네라도 볼목리[44] 사름 운동 뎅기멍 볼목리 사름 문 내세왕 볼목리만 일름난 사름 낫저.(그래도 그 사람을 불쌍한, 우린 사뭇 모두 그 그저 모이려고 하면 이 수박 사서 가고 주스 사서 가고 그 사람을 내세우려고 우린 동네에서 했지만 아랫동네 사람들은 자기네 동네라도 보목동 사람 운동 다니면서 보목동 사람 모두 내세워서 보목동만 이름난 사람 났어.)

101009 @ 음.(음.)

101009 #1 우리 토평 일름난 사름 엇다 이제. 동장 하나도 토평 사름 안 멘들아 논 디여. 난 토평 살아도 토평 허주 내우켜[45].(우리 토평 이름난 사람 없다, 이제. 동장 하나도 토평 사람 안 만들어 놓은 데야. 난 토평 살아도 토평 '허주 내겠어'.)

101009 @ 아이구. (아이고.)

---

43) '알데기'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44) '볼목리'는 서귀포시 보목동을 말한다.
45) '허주 내우다'는 '좋지 않은 소문을 나게 하다'라는 의미다.

101009 #1 진짜여게.(진짜야.)
101009 @ 자랑헤야 뒈는디.(자랑해야 되는데.)
101009 #1 에이구. 아주 자랑헐 거 엇어.(어이구, 아주 자랑할 거 없어.)
101009 @ 이거 말고 토평에 대해서 헐 말 잇수과?(이거 말고 토평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까?)
101009 #1 토평에 대해서 기자 그거주.(토평에 대해서 그저 그거지.)

2. 제보자 일생

102001 @ 영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쿠다.(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102001 #1 영 살아온 이야기는 어떵?(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는 어떻게?)
102001 @ 태어난 지금까지 영 자라 온 얘기덜마씨.(태어난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 온 이야기들요.)
102001 #1 아이고, 나 잘난 거 엇다, 나.(아이고, 나 잘난 거 없다, 나.)
102001 @ 잘난 거 아니고마씨. 자라 온 거, 어렸을 때부터.(잘난 거 아니고요. 자라 온 거, 어렸을 때부터.)
102001 #1 어렸을 때부터도이.(어렸을 때부터도.)
102001 @ 어디서 태어낫수과?(어디서 태어났습니까?)
102001 #1 태어남은 일본서 태어나근에 으덥 설에 제주도 왓저게.(태어나기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여덟 살에 제주도 왔어.)
102001 @ 으.(으.)
102001 #1 경헨 이제 아부지가 죽어 부난, 아부진 아홉 설에 죽어 벳저게. 아부지 죽어 부난 할망, 하르방광 살앗저게. 겡헨에 이제 살단에.(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어 버리니까, 아버진 아홉 살에 죽어 버렸어. 아버지 죽어 버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어. 그래서 이제 살다가.)
102001 @ 게난 일본에서 태어낭?(그러니까 일본에서 태어나서?)
102001 #1 일본에서 태어난 제주도 오랑 죽엇저, 우리 아부지.(일본에서 태어나서 제주도 와서 죽었어, 우리 아버지.)
102001 @ 아.(아.)
102001 #1 아프난에. 아프난 제주도 오란 죽엇저게.(아프니까. 아프니까 제주도 와서 죽었어.)
102001 @ 예.(예.)
102001 #1 게난 첨 두린 때도 난 고생헨 살앗저게. 검질메고 쉐 멕이레 가고.(그러니까 참 어렸을 때도 난 고생해서 살았어. 김매고 소 먹이러 가고.)
102001 @ 그거 말고 일본에서 살앗던 얘기부터 해 줍서.(그거 말고 일본에서 살

았던 얘기부터 해 주세요.)
102001 #1 일본에선 경 기억이 안 나. 나 업엉 뎅겨난 거 기억나고.(일본에서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나. 나 업고 다녔던 거 기억나고.)
102001 @ 누구 업엉 뎅겨?(누구 업고 다녀?)
102001 #1 이제 우리 어멍 나 업엉 뎅기단에, 지진이 잘 일질 안허느냐?(이제 우리 어머니 나 업고 다니다가, 지진이 잘 일지 않니?)
102001 @ 예, 예.(예, 예.)
102001 #1 지진 일엉 우리 어멍 다릴, 이 계단을 ᄂᆞ리단에 다리 꺼꺼젼에.(지진 일어서 우리 어머니 다리를, 이 계단을 내리다가 다리 꺾어져서.)
102001 @ 예.(예.)
102001 #1 이제 ᄀᆞ트민 벵신 안 뒈주게. 그때 시대엔 나 두린 때라도 알아진다. 침 맞으레 뎅견게 이 다리가 영 부떠 불언게.(이제 같으면 병신 안 되지. 그때 시대에는 내가 어렸을 때라도 알아. 침 맞으러 다니더니 이 다리가 이렇게 붙어 버렸어.)
102001 @ 아.(아.)
102001 #1 오고라젼. 절룩젱이가 뒈낫저게.(오그라졌어. 절름발이가 됐었어.)
102001 @ 예.(예.)
102001 #1 경헨 살안. 나 제주도 오라도 막 고셍혜영 살앗저게.(그렇게 살았어. 나 제주도 와도 아주 고생해서 살았어.)
102001 @ 게난.(그러니까.)
102001 #1 검질메레 다녀세, 밧 메레.(김매러 다녔지, 밭 매러.)
102001 @ 일본에서 형제가 몇 명이란마씨?(일본에서 형제가 몇 명이었습니까?)
102001 #1 우리 작은아부지. 작은아부지도 이제 믄, 믄 죽어 벳저. 작은아부지, 큰하르부지 아덜.(우리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이제 모두, 모두 죽어 버렸어. 작은아버지, 큰할아버지 아들.)
102001 @ 그니까 어머니 형제가 일본에서 몇 명 태어낫수과? 이제 아부지 어무니 사이에?(그러니까 어머니 형제가 일본에서 몇 명 태어났습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102001 #1 저 우리 어무니 친정에?(저 우리 어머니 친정에?)
102001 @ 아니.(아니.)
102001 #1 우리 아부지?(우리 아버지?)
102001 @ 어, 어.(어, 어.)
102001 #1 아부지 성제, 성제.(아버지 형제, 형제.)
102001 @ 아니. 아부지는 성제이고.(아니. 아버지는 형제이고.)
102001 #1 으.(으.)
102001 @ 경헨 삼춘이 몇 번째과?(그래서 삼촌이 몇 번째입니까?)
102001 #1 큰, 큰하르부지, 나의 하르부지, 큰, 우이 하르부지 아덜 경헨 일본에

서 살단 일본에서 돌아갓저. 우리만 아부지 아프난 제주도 왓주.(큰, 큰할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큰, 위 할아버지 아들 그래서 일본에서 살다가 일본에서 돌아갔어. 우리만 아버지 아프니까 제주도 왔지.)

102001 @ 게난 삼춘이 형제가 몇이우과?(그러니까 삼촌이 형제가 몇입니까?)

102001 #1 나?(나?)

102001 @ 예, 예.(예, 예.)

102001 #1 나 형제 저 우리 아시허고, 아시 ᄒᆞ난 저 죽어 불고.(내 형제 저 우리 아우하고, 아우 하나 저 죽어 버리고.)

102001 @ 예.(예.)

102001 #1 저 우리 어무니가 난, 나 형제 요 상효[46] 살암저.(저 우리 어머니가 난, 내 형제 요 상효 살고 있어.)

102001 @ 예. 둘뿐. 게민 일본에서 태어난 건 삼춘만 일본에서 태어낫수과?(예. 둘뿐. 그럼 일본에서 태어난 건 삼촌만 일본에서 태어났습니까?)

102001 #1 으, 우리 아신 제주도 완 나고.(으, 우리 아우는 제주도 와서 나고.)

102001 @ 아, 제주도 완 나고?(아, 제주도 와서 나고.)

102001 #1 으. 경헨 난 기자 오랑 하르방이영 살멍 쉐 멕이레 뎅기곡 촐 비레 뎅기곡. 두린 때부떠 베와산덴 허멍 옛날 하르방덜은 경헤라게. 학교도 안 시켜근에. 학교도 가시믄 나 ᄉᆞ못. 쉐 멕이레 가렌 허믄 쉐 멕이레 가곡. 경혜근에 검질메곡 두린 때부터 기자 검질은, 베와산덴 허멍 일은 베와산덴 허멍 쌩일만 베우게시리 헤라게.(으. 그래서 난 그저 와서 할아버지랑 살면서 소 먹이러 다니고 꼴 베러 다니고.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옛날 할아버지들은 그러더라. 학교도 안 시키고. 학교도 갔으면 나 사뭇. 소 먹이러 가라고 하면 소 먹이러 가고. 그래서 김매고 어릴 때부터 그저 김은,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일은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생일만 배우게끔 하더라.)

102001 @ 음.(음.)

102001 #1 옛날엔 원 무식헌 하르방인ᄀᆞ라이 경 헤라게.(옛날에는 원 무식한 할아버지인가 그렇게 하더라.)

102001 @ 음.(음.)

102001 #1 난 경 공부시키젠을 안 헤라. 공부시키젠을 안 헹 기자 검질메레, 나 열세 설, 열네 설에 한창 검질멧주.(난 그렇게 공부시키려고 안 하더라. 공부시키려고 안 하고 그저 김매러, 내가 열세 살, 열네 살에 한창 김맸지.)

102001 @ 음.(음.)

102001 #1 원 그때 한창 검질멧저게.(원 그때 한창 김맸어.)

102001 @ 할망이영?(할머니랑?)

102001 #1 으, 하르방이영. 할망이영 하르방이영 경 검질메레 뎅겻저게. 경허난 첨 나 살아온 건 고생고생허단 첨 또 아무것도 엇인 디 나가, 골암저, 두린 때 고생

46) '상효'는 서귀포시 상효동을 가리킨다.

헤 나민 경헤도 늙어 가민 호강헨덴 헤도 호강을 못 허여.(으,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그렇게 김매러 다녔어. 그러니까 참 내가 살아온 건 고생고생하다가 참 또 아무것도 없는 데 내가, 말하고 있어, 어릴 때 고생하고 나면 그래도 늙어 가면 호강한다고 해도 호강을 못 해.)

102001 @ 음.(음.)

102001 #1 고셍고셍헤영 살아왓저. 게난 기자 옛날은 조 비여 오고 보리 비여 오곡 허민 그것 톧곡 호미로.(고생고생해서 살아왔어. 그러니까 그저 옛날은 조 베어 오고 보리 베어 오고 하면 그것 뜯고 낫으로.)

102001 @ 음.(음.)

102001 #1 그땐 클 아니 난 때난 두린 때, 나 두린 땐.(그땐 그네 안 나올 때니까 어릴 때, 내가 어릴 땐.)

102001 @ 음.(음.)

102001 #1 경헤여근에 기자 하르방넨 밧디 가멍 이제 날ᄀᆞ라 그 조 톧으라, 보리 톧으라. 경헤나시네. 경헨 톧앙 놔두민 ᄆᆞᆫ 톧아근에 헤당 멕에 담앙 놔두민 그거 오랑 괄뢍 도께로 마당질허곡. 나 막 고셍헨 살앗저.(그래서 그저 할아버지네는 밭에 가면서 이제 나보고 그 조 뜯어라, 보리 뜯어라. 그랬었어. 그래서 뜯어서 놔두면 모두 뜯어서 해다가 멱에 담아서 놔두면 그거 와서 말려서 도리깨로 마당질하고. 나 아주 고생해서 살았어.)

102002 @ 게난 일본에 있을 때 어무니, 아부지는 무슨 일 헷수과?(그러니까 일본에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무슨 일 했습니까?)

102002 #1 원 공장에 뎅겻주.(원 공장에 다녔지.)

102002 @ 공장에?(공장에?)

102002 #1 으, 옛날은 고무 공장이라고 고무 공장에 뎅긴 거 가트다. 나 셍각에.(으, 옛날은 고무 공장이라고 고무 공장에 다닌 거 같다. 내 생각에.)

102001 @ 게난 오사카과, 동경이과? 살앗던 게?(그러니까 오사카입니까, 동경입니까? 살았던 게?)

102001 #1 오사카 닮아.(오사카 같아.)

102001 @ 오사카 닮아. 게난 그런 기억은 확실허지 안허과?(오사카 같아. 그러니까 기억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102001 #1 기억 학실허지 안허다.(기억 확실하지 않다.)

102001 @ 일본에서 살아난 기억은 확실허지 않구나.(일본에서 살았던 기억은 확실하지 않구나.)

102001 #1 으, 일본에서 살아난 기억은 기자 나 그 지진 일어근에 우리 어멍 벵신 뒈영 기자 침 맞으레 뎅기는 기억벳기 원.(으, 일본에서 살았던 기억은 그저 나 그 지진 일어서 우리 어머니 병신 돼서 그저 침 맞으러 다니는 기억밖에 원.)

102001 @ 그거밖에?(그거밖에?)

102001 #1 으.(으.)

102001 @ 뭐, 일본에서도 학굔 안 다니고?(뭐, 일본에서도 학교는 안 다니고?)

102001 #1 학교 안 허고. 게난 우리 어멍은 일본 글을 베왕 일본서.(학교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일본 글을 배워서 일본에서.)

102001 @ 뭐 동네에서 영 친구덜이영 놀아난 기억은?(뭐 동네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랑 놀았던 기억은?)

102001 #1 놀아난 기억은 기자 옛날은 공기나 허고.(놀았던 기억은 그저 옛날은 공기나 하고.)

102001 @ 으.(으.)

102001 #1 기자 베뛸락, 줄넘기 허고 기자 그런 거 ᄒᆞ쏠 헤여진 거 닮다. 놀 때에.(그저 줄넘기, 줄넘기 하고 그저 그런 거 조금 한 거 같다. 놀 때에.)

102001 @ 일본에서예?(일본에서요?)

102001 #1 어, 어. 겨난게 제주돈 오라가난 일 베와산덴 허멍게 ᄋᆞ덥 설에 오난 아홉 설, 열 설 뒈난 일 베와산덴 헨 일을 베왓저게.(어, 어. 그러니까 제주도는 오니까 일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여덟 살에 오니까 아홉 살, 열 살 되니까 일 배워야 한다고 해서 일을 배웠어.)

102001 @ 게난 그 돌아오신 게 여덜 살이렌 허면.(그러니까 그 돌아오신 게 여덟 살이라고 하면.)

102001 #1 으.(으.)

102001 @ 해방뒈기 전이우다예?(해방되기 전이네요?)

102001 #1 해방뒘 전이주게. 나 제주도 오란 ᄉᆞ삼사건이 난 거주게.(해방되기 전이지. 내가 제주도 와서 사삼사건이 난 거지.)

102001 @ 그 사삼사건은 한참 후인 거고, 배 탕 왓수과? 무슨 배 탕 와신지 기억나?(그 사삼사건은 한참 후인 거고, 배 타서 왔습니까? 무슨 배 타서 왔는지 기억나?)

102001 #1 아니, 그거 몰라.(아니, 그거 몰라.)

102001 @ 몰라. 게민 돌아올 때 아부지랑 어무니랑 같이 온 거?(몰라. 그럼 돌아올 때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온 거?)

102001 #1 으, 으. 경헨 삼춘은 또 일본 간에 일본 살단, 첨 요자기꺼장 살단 죽엇저.(으, 으. 그래서 삼촌은 또 일본 가서 일본 살다가, 참 요전번까지 살다가 죽었어.)

102001 @ 게니까 어머닌 ᄀᆞ치 안 왓수과? 삼춘네 어머니?(그러니까 어머닌 같이 안 왔습니까? 삼촌네 어머니?)

102001 #1 으, 삼춘네 어머닌 아니고 우리 삼춘만 오랏단에 그자.(으, 삼촌네 어머닌 아니고 우리 삼촌만 왔다가 그저.)

102001 @ 아니, 아니. 아부지허고?(아니, 아니. 아버지하고?)

102001 #1 어머니 왓주게, 어머니.(어머니 왔지, 어머니.)

102001 @ 게민 세 식구가 ᄀᆞ치 온 거?(그럼 세 식구가 같이 온 거?)

102001 #1 으. 세 식구가 ᄀᆞ치 왓저.(으, 세 식구가 같이 왔어.)
102001 @ 경헨 삼춘네 가족이랑?(그래서 삼촌네 가족이랑?)
102001 #1 으, 경헨 우리 아시는 이디 오란.(으, 그래서 우리 아우는 여기 와서.)
102001 @ 낳고?(낳고?)
102001 #1 으, 낳고.(으, 낳고.)
102001 #1 으, 겨난 나허고 거리가 멀어.(으, 그러니까 나하고 거리가 멀어.)
102001 @ 나이가예?(나이가요?)
102001 #1 으.(으.)
102001 @ 나이 차가?(나이 차이가?)
102001 #1 으.(으.)
102001 @ 어무니도 고무 공장 다녔었던 거, 일본에서?(어머니도 고무 공장 다녔었던 거, 일본에서?)
102001 #1 어, 일본서 고무 공장 뎅겻저게.(어, 일본에서 고무 공장 다녔어.)
102003 @ 게민 아부지는 고향이 어디과?(그럼 아버지는 고향이 어딥니까?)
102003 #1 고향이 이 제주도.(고향이 이 제주도.)
102003 @ 게, 제주도 어디?(그래, 제주도 어디?)
102003 #1 제주도 저 우리 아부지 고향이 제주도, 본래 고향은, 이제 이 웨가는 토평이고 나가이.(제주도 저 우리 아버지 고향이 제주도, 본래 고향은, 이제 이 외가는 토평이고 내가.)
102003 @ 어무니가?(어머니가?)
102003 #1 으, 우리 어무니가 토평이고 우리 아부지는 함덕[47] 닮다, 함덕.(으, 우리 어머니가 토평이고 우리 아버지는 함덕 같아, 함덕.)
102003 @ 함덕예.(함덕요.)
102003 #1 느 함덕 알주?(너 함덕 알지?)
102003 @ 예, 예.(예, 예.)
102003 @ 게난 여기서 아부지 돌아가시난, 와 가지고 토평으로 왕 아버지 돌아가시난.(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와 가지고 토평으로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102003 #1 으, 어게, 어게.(으, 어, 어.)
102003 @ 으.(으.)
102003 #1 경허난 우리 웨할아버지, 웨할머니가 이 섯동네[48] 살앗저. 이 친정, 토평서 나고 토평서. 경허난 이제 우리 어무니가 우리 아부지 돌아가 부난 친정을 더 생각헤연 의지행 살젠 친정을 더 뎅긴 거여게. 시에서 경 안허민 살앗주, 그디서. 경헐 건디 우리 웨할머니가 토평 여기, 토평이라.(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이 '섯동네' 살았어. 이 친정, 토평에서 나고 토평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

47) '함덕'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를 말한다.
48) '섯동네'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 버리니까 친정을 더 생각해서 의지해서 살려고 친정을 더 다닌 거야. 시에서 그렇지 않으면 살았지, 거기서. 그럴 건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토평 여기, 토평이야.)

102003 @ 음.(음.)

102003 #1 경허난에 친정으로 헨에. 경헨 살단 나 이디 시집와시네게.(그러니까 친정으로 해서. 그래서 살다가 내가 여기 시집왔어.)

102003 @ 어무니는?(어머니는?)

102003 #1 어무닌 돌아가 불고.(어머닌 돌아가 버리고.)

102003 @ 돌아가 불고. 몇 살 때 돌아가셧수과?(돌아가 버리고. 몇 살 때 돌아가셨습니까?)

102003 #1 어, 우리 어무니가 이제 칠십아홉에 돌아간 거 닮다.(어, 우리 어머니가 이제 칠십아홉에 돌아간 거 같다.)

102003 @ 아. 그럼 한참 클 때까지 어무닌 ᄀᆞ치 살아신게예?(아, 그럼 한참 클 때까지 어머닌 같이 살았네요?)

102003 #1 어게. 나 풀아 주고게, 어무니사 나 키와 줫주게.(어. 나 시집보내 주고, 어머니야 나 키워 줬지.)

102003 @ 음.(음.)

102003 #1 경허고 첨 아부지는 나 ᄋᆞ덥 설에 죽어 불고.(그리고 참 아버지는 내가 여덟 살에 죽어 버리고.)

102003 @음.(음.)

102003 #1 완, 완 죽엇저게. 아판 일본서 아프난 들어완. 제주도, 공기 좋은 디엔 제주돌 온 거라.(와서, 와서 죽었어. 아파서 일본에서 아프니까 들어왔어. 제주도, 공기 좋은 데라고 제주도를 온 거야.)

102003 @ 음.(음.)

102003 #1 경허난 제주도. 경 안헤시민 우리 안 올 거.(그러니까 제주도.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안 올 거.)

102003 @ 일본 살단 제주도 들어왓잖아예?(일본 살다가 제주도 들어왔잖아요?)

102003 #1 으.(으.)

102003 @ 경헨 들어왕 보난 제주도 잘도 뭐 허다 느낀 거 셍각나는 거 잇수과?(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제주도 아주 뭐 하다 느낀 거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102003 #1 아이고, 제주도 아멩 저 나가 분시 모른 때라도 원 제주도 사름 살암직 안 헤라게. 원 살암직을 안 헤연. 경허영 또 이제 저 아부지 고향이 북촌[49]인디.(아이고, 제주도 아무리 저 내가 분수 모른 때라도 원 제주도 사람 살 것 같지 않더라. 원 사람 살 것 같지 않아. 그리고 또 이제 저 아버지 고향이 북촌인데.)

102003 @ 아, 북촌?(북촌?)

102003 #1 으. 북촌 이제 함덕.(으. 북촌 이제 함덕.)

49) '북촌'은 제주시 구좌읍 북촌리를 말한다.

102003 @ 함덕 옆에 북촌.(함덕 옆에 북촌.)

102003 #1 으, 북촌인디 원 그디보단도 이디 오난 더.(으, 북촌인데 원 거기보다도 여기 오니까 더.)

102003 @ 으.(으.)

102003 #1 이 토평을 오난 더 웨할머니 잇이난 어머니가 이디 와신디 더, 더. 더 ᄉᆞ못 살암직 안헤라게. 밧도 이, 이 제주도 안에서도 이 토평 땅이 막 뜬땅[50]이라. 영 이제 알아보민이 서이 호근[51]이로 저렌 나룩도 허민 잘 뒈고 보리도 갈민 막 보리밥도 맛잇고. 이 토평은 막 뜬땅. 완전 궂인 디라. 이 밀감 나고이 오일육도로[52], 박정희 대통령 오일육도로 빤 ᄇᆞ름에 이 토평이 이름낫저게.(이 토평을 오니까 더 외할머니 있으니까 어머니가 여기 왔는데 더, 더. 더 사뭇 살 것 같지 않아. 밧도 이, 이 제주도 안에서도 이 토평 땅이 아주 '뜬땅'이야. 이렇게 이제 알아보면 서쪽 호근동으로 저리로는 벼도 하면 잘 되고 보리도 갈면 아주 보리밥도 맛있고. 이 토평은 아주 '뜬땅'. 완전 궂은 데야. 이 밀감 나고 오일육도로, 박정의 대통령 오일육도로 뺀 바람에 이 토평이 이름났어.)

102003 @ 음.(음.)

102003 #1 오일육도로 저거 빠난에 일름도 나고 첨 이 미깡낭을 나난 이젠 첨 토평보단 더 존 디가 엇어 베도 옛날엔 이디 보리, 조 갈민 막 북부리[53] 지엉, 보리 비레 가민 보리가 문 메여져. 땅에 떠 부난.(오일육도로 저거 빼니까 이름도 나고 참 이 귤나무가 나니까 이젠 참 토평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 보여도 옛날에는 여기 보리, 조 갈면 아주 '북부리' 져서, 보리 베러 가면 보리가 모두 매어져. 땅이 떠 버리니까.)

102003 @ 음.(음.)

102003 #1 그런 건 나 원 두린 때부터도 알아진다.(그런 건 내가 원 어릴 때부터도 알 수 있어.)

102003 @ 음.(음.)

102003 #1 그추룩 밧이 궂어. 밧 좋지 안헷저게. 이 신, 하효린[54] 좋고 볼목리[55]렌. 이 토평 땅만 영 궂인 디, 제일 궂인 디. 무사 영 사름 사는 디넨 그땐 경헷저게. 하이고, 알러렌 ᄉᆞ못게 보리도 좋곡 나룩도 뒈곡 헌디 이 토평은 논도 베랑 엇엉 나 제수장 거느려라만은 그 제수장 논 헹 ᄒᆞ쏠 잇인 사름들은 나룩 헤여도 서이 나룩만 못 헷저, 당초.(그처럼 밭이 궂어. 밭 좋지 않았어. 이 신, 하효리는 좋고 보목동이라고. 이 토평 땅만 이렇게 궂은 데, 제일 궂은 데. 왜 이렇게 사람 사는 데냐고 그땐 그렇게 했어. 하이고, 아래는 사뭇 보리도 좋고 벼도 되고 하는데 이 토평은 논도 별로 없어서 내가 저수장 거느렸는데 그 저수장 논 해서 조금 있는 사

50) '뜬땅'은 차진 기운이 없는 푸석푸석한 땅을 말한다.
51) '호근'은 서귀포시 호근동을 말한다.
52) '오일육도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도로 이름이다.
53) '북부리'는 곡식에 이삭이 맺지 않고 말라 죽은 것을 말한다.
54) '하효리'는 서귀포시 하효동을 말한다.
55) '볼목리'는 서귀포시 보목동을 말한다.

람들은 벼 해도 서쪽 벼만 못 했어, 당초.)

102003 @ 저기 아부지는 일본서 난 사름이꽈?(저기 아버지는 일본에서 난 사람입니까?)

102003 #1 엇다. 제주도서 낫주. 일본 간 거주.(아니야. 제주도에서 났지. 일본 간 거지.)

102003 @ 어무니도?(어머니도?)

102003 #1 으, 으. 경헨 일본 간 거주.(으, 으. 그래서 일본 간 거지.)

102003 @ 일본에서 만낭 결혼헹?(일본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102003 #1 으, 으. 일본을 살젠 갓단에 우리 아부지가 아팡 온 거주게.(으, 으. 일본을 살려고 갔다가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온 거지.)

102003 @ 아.(아.)

102003 #1 아판에, 아판에 제주도 오민 공기 존 디 제주도 오민, 헹 온 것이 오랑 오래 못 살앗저. 오랑 기자, 일 년 안 살앗저.(아파서, 아파서 제주도 오면, 공기 좋은 데 제주도 오면, 해서 온 것이 와서 오래 못 살았어. 와서 그저, 일 년 안 살았어.)

102003 @ 일 년 안 살안에.(일 년 안 살아서.)

102003 #1 죽엇저게. 겨난 첨 아부지도 엇고 오빤 엇이난에, 난 우린 오빤 엇이난 첨 양제 둘고.(죽었어. 그러니까 참 아버지도 없고 오빤 없으니까, 난 우린 오빤 없으니까 참 양자 데리고.)

102003 @ 아, 양제 둘고.(아, 양자 데리고.)

102003 #1 으, 양제 둘고.(으, 양자 데리고.)

102005 @ 그때 들어왔을 땐 일제시대였던 거라예?(그때 들어왔을 땐 일제시대였던 거지요?)

102005 #1 으, 으. 일제시대주.(으, 으. 일제시대지.)

102005 @ 그때 막 공출허거나 그런 것덜?(그때 마구 공출하거나 그런 것들?)

102005 #1 아이고, 공출에 ᄉᆞ뭇 뭐, 공출들 두루 헷주게.(아이고, 공출에 사뭇 뭐, 공출들 두루 했지.)

102005 @ 으.(으.)

102005 #1 공출덜 ᄉᆞ뭇 뭐 보리도 허민 공출, 또 이제 ᄉᆞ뭇 그때덜은이 노무자[노미자]엔 안 허느냐? 노무자[노미자] 뽑아 강덜 노무자[노미자]덜 경, 남자덜은 경덜 노무자[노미자] 뽑아 가곡 아방 신 사름덜은 노무자[노미자]로 뽑아 가곡. 보리 공출, 조 공출, 공출은 막 헤낫저게.(공출들 사뭇 뭐 보리도 하면 공출, 또 이제 사뭇 그때들은 노무자라고 안 하니? 노무자 뽑아 가서들 노무자들 그렇게, 남자들은 그렇게들 노무자 뽑아 가고 아버지 있는 사람들은 노무자로 뽑아 가고. 보리 공출, 조 공출, 공출은 많이 했었어.)

102005 @ 으.(으.)

102005 #1 공출은 나 학실히 알아진다. 공출헤난 것사게. 그 당시에는 그치록

헤라게. 공출을 헤산덴 허멍.(공출은 나 확실히 알아. 공출했던 거야. 그 당시에는 그처럼 하더라. 공출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102005 @ 아.(아.)

102005 #1 문 헷주, 그때. 겨난 바쪄사 원 그걸 경 바쪄사 헌덴 허멍. 경헨 헤낫저게. 게난 우린 본래 첨 친정엔 ᄒᆞ쏠 밥 먹엇저만은 이딘 오난 나 스물하나 나는 해에 시집왓주.(모두 했지, 그때. 그러니까 바쳐야 원 그걸 그렇게 바쳐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했었어. 그러니까 우린 본래 첨 친정에는 조금 밥 먹었지만 여기는 오니까 내가 스물하나 되는 해에 시집왔지.)

102005 @ 음.(음.)

102005 #1 스물하나 나는 해에 시집오난이 그때도 어려와라. 그때도 어려와. 막 어려왕, 헹펜엇이 어려와라게.(스물하나 되는 해에 시집오니까 그때도 어렵더라. 그때도 어려워. 아주 어려워서, 형편없이 어렵더라.)

102006 @ 그 여기 왕 한 몇 년 잇이난 열두 살, 열세 살 뒈난 제주도에 사삼사건 일어낫잖아예?(그 여기 와서 한 몇 년 있으니까 열두 살, 열세 살 되니까 제주도에 사삼사건이 일어났잖아요?)

102006 #1 어게, 나 꼭 열세 설일 거여.(어, 나 꼭 열세 살일 거야.)

102006 @ 그때 기억이 잇수과? 뭔가 봐난?(그때 기억이 있습니까? 뭔가 봤던?)

102006 #1 우리 곱으레 뎅겨난 거벳긴.(우리 숨으러 다녔던 거밖에.)

102006 @ 어디 곱으레 뎅견?(어디 숨으러 다녔어?)

102006 #1 허허. ᄉᆞ뭇 빨갱이덜 아이고, 빨갱이덜 오민이 아이구, 토벌대덜, 토벌대엔 헌다, 그땐. 토벌대덜 낼은 올라올 거엔 허멍 이제 비끼렌, ᄉᆞ못 어디 강 숨으렌 허민 어디 목장에 강 숨엇당 굴이 잇엇저게, 굴이.(하하. 사뭇 빨갱이들 아이고, 빨갱이들 오면 아이고, 토벌대들, 토벌대라고 한다, 그땐. 토벌대들 낼은 올라올 거라고 하면서 이제 비키라고, 사뭇 어디 가서 숨으라고 하면 어디 목장에 가서 숨었다가 굴이 있어, 굴이.)

102006 @ 예.(예.)

102006 #1 굴소곱에 갓당 아이고, 그 시대엔이 그 시대엔이 굴소곱에 잘못 갓당도에 불부쪄 불민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이 오죽 하시냐게.(굴속에 갔다가 아이고, 그 시대엔 굴속에 잘못 갔다가도 불붙여 버리면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이 오죽 많니.)

102006 @ 음.(음.)

102006 #1 하이고, 나도이 사름덜 이제 짝 이제 그 토벌대덜 오랑 빨갱이덜 심어당, 빨갱이가 문 우리 일반 아니냐게. 그것ᄀᆞ라 빨갱이. 산에만 살아나민 빨갱이라.(하이고, 나도 사람들 이제 짝 이제 그 토벌대들 와서 빨갱이들 잡아다가, 빨갱이가 모두 우리 일반 아니니. 그것보고 빨갱이. 산에만 살았으면 빨갱이야.)

102006 @ 음.(음.)

102006 #1 아이고 그 사람덜 심어당 이 선문[56]이여게, 선문. 아이구 줄줄이 세

56) '선문'은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와놘 총으로 쏘앙 그 사름덜 탁탁탁탁 자빠지는 거 믄 보곡이.(아이고, 그 사람들 잡아다가 이 '선문'이야, '선문'. 아이고 줄줄이 세워놓고 총으로 쏘아서 그 사람들 탁탁탁탁 자빠지는 거 모두 보고.)

102006 @ 그것도 보고?(그것도 보고?)

102006 #1 어. 나 믄 봣저게.(어. 나 모두 봤어.)

102006 @ 에.(에.)

102006 #1 믄 자빠지는 거 보고 집집마다 또 빨갱이네 집 조사헌덴 헤시네, 빨갱이네 집. 산에 강 살아난 집 믄 조사헌덴.(모두 자빠지는 거 보고 집집마다 또 빨갱이네 집 조사한다고 했어, 빨갱이네 집. 산에 가서 살았던 집 모두 조사한다고.)

102006 @ 예.(예.)

102006 #1 우린 산에도 안 가고 우리 아부지가 그 화북[57]이기 때문에 우린 ᄒᆞ쏠 화북에 ᄂᆞ려갓어.(우린 산에도 안 가고 우리 아버지가 그 화북이기 때문에 우린 조금 화북에 내려갔어.)

102006 @ 화북? 북촌 아니고?(화북? 북촌 아니고?)

102006 #1 이 저 신촌[58], 화북 있지 아녀냐? 영 ᄌᆞ껏디.(이 저 신촌, 화북 있지 않니? 이렇게 근처에.)

102006 @ 예, 예.(예, 예.)

102006 #1 그딜 ᄂᆞ려강, 해변더레 이제 경 ᄂᆞ려강 그디 강 살앙 ᄒᆞ쏠 곱아당 돌아오고 헤신디이.(거길 내려가서, 해변으로 이제 그렇게 내려가서 거기 가서 살아서 조금 숨었다가 돌아오고 했는데.)

102006 @ 저 제주시 ᄌᆞ꼿디 얘기헴수과?(저 제주시 근처 얘기하고 있습니까?)

102006 #1 어, 제주시 저끗디 화북게.(어, 제주시 근처 화북.)

102006 @ 예.(예.)

102006 #1 알러레 알러레 가민. 산엔 가근에 ᄒᆞ쏠만 허민 빨갱이라. 산더레 가 가민 빨갱이.(아래로 아래로 가면. 산에 가서 조금만 하면 빨갱이야. 산으로 가 가면 빨갱이.)

102006 @ 으.(으.)

102006 #1 그자 빨갱이엔 헷주게. 경허민 빨갱이 새끼덜, 빨갱이 새끼덜 허멍이 아이고, 나 죽창으로 이디 박앙 죽이는 것도 보고이. 돌 지둘르는 것도 믄 보고.(그저 빨갱이라고 했지. 그러면 빨갱이 새끼들, 빨갱이 새끼들 하면서 아이고, 나 죽창으로 여기 박아서 죽이는 것도 보고. 돌 지지르는 것도 모두 보고.)

102006 @ 음.(음.)

102006 #1 이 영 빨갱이덜이엔 허멍 심어당, 뒷목다리 심어당 어디 이 대왓 의지라도 영 탁 놩 발로 불랑 돌 지둘르는 거 믄 보고. 벨 거 다 봣저, 나.(이 이렇게 빨갱이들이라고 하면서 잡아다가, 뒷목 잡아다가 어디 이 대밭 의지라도 이렇게 탁

57) '화북'은 제주시 화북동을 말한다.
58) '신촌'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를 말한다.

놔서 발로 밟아서 돌 지지르는 거 모두 보고. 별 거 다 봤어, 나.)

102006 @ 친족분들 중에서도 누게 피해 입은 사람 잇수과?(친척분들 중에서도 누구 피해 입은 사람 있습니까?)

102006 #1 우리 친척은 시집 펜이벳기 우리 친척은 베랑 엇다.(우리 친척은 시집 편밖에 우리 친척은 별로 없다.)

102006 @ 엇고.(없고.)

102006 #1 우리 친척은 베랑 엇인디 우리 시집 펜인, 아방[59] 펜인 경 빨갱이엔 무시거엔 하영 죽엇저게. ᄉᆞ삼사건에.(우리 친척은 별로 없는데 우리 시집 편은, 아버지 편은 그렇게 빨갱이라고 뭐라고 많이 죽었어. 사삼사건에.)

102006 @ ᄉᆞ삼사건에.(사삼사건에.)

102006 #1 ᄉᆞ삼사건에.(사삼사건에.)

102006 @ 게난 토평에도 피해가 막 많앗수과?(그러니까 토평에도 피해가 아주 많았습니까?)

102006 #1 하이고, 이 동네커리[60]에, 이 동네만.(하이고, 이 '동네커리'에, 이 동네만.)

102006 @ 예.(예.)

102006 #1 동네만 아덜덜 문 산에 올라가지 안헤시냐, ᄆᆞ수난이 문 올라가난 할망덜, 하르방덜 문 아들 찾으레 간. 문짝 심어당 죽여 베시녜게. 문짝 심어당 이 학교, 학교 마당[61]에 강.(동네만 아들들 모두 산에 올라가지 않았니, 무서우니까 모두 올라가니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두 아들 찾으러 가서. 모두 잡아다가 죽여 버렸어. 모두 잡아다가 이 학교, 학교 마당에 가서.)

102006 @ 어쨌든 산에만 가민 빨갱이렌 헷구나?(어쨌든 산에만 가면 빨갱이라고 했구나?)

102006 #1 어. 우이만 가민 빨갱이. 원 산에만 가민. 빨갱이 아니라. 우리 민간인이여만은 빨갱이, 빨갱이 헤라게, 원 그땐게. 산에만 가민 빨갱이라. 빨갱이 새끼, 빨갱이 새끼. 아이고, 경허멍 그추룩 헤 놓난이 ᄆᆞᄉᆞ왕. 경허난 ᄀᆞ만이 헹 아무 줴도 엇이 집이만 앚은 사람은 오랑 총으로 죽이젠 허당도 그냥도 넘어갈 때 있고.(어. 위에만 가면 빨갱이. 원 산에만 가면 빨갱이 아니야. 우리 민간인이지만 빨갱이, 빨갱이 하더라, 원 그땐. 산에만 가면 빨갱이야. 빨갱이 새끼. 빨갱이 새끼. 아이고, 그러면서 그처럼 해 놓으니까 무서워서. 그러니까 가만히 해서 아무 죄도 없이 집에만 앉은 사람은 와서 총으로 죽이려고 하다가도 그냥도 넘어갈 때 있고.)

102006 @ 음.(음.)

102006 #1 우리도 멧 번 총 뎅겨낫저.(우리도 몇 번 총 다녔었어.)

102006 @ 음.(음.)

102006 #1 멧 번 총 뎅겨난. 우리 어멍이영 나영 난 ᄉᆞ못 막 울멍 막 헤 가민

59)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킨다.
60) '동네커리'는 서귀포시 토평동의 마을 지경 이름의 하나다. 동쪽에 있는 네거리라는 의미다.
61) '학교 마당'은 학교 운동장을 가리킨다.

ᄉᆞ못 막 울어 가민 소리 내우민 죽이켄 허멍, 총 아져 오랑이 소리 내우민, 소리만 내우민 쏘우켄 허멍 그추룩 아이구. 토벌대도 그때 겡비대여 토벌대여 경허멍 경도 ᄀᆞᆯ아라. 이제 총 두 개 멘 사름은 단작 봐지민 쏘우메, 그 사람은 피허렌 헤라게. 그 사람은 피허렌 허민. 총 하나 멘 사름은 괜찮허고 총 두 개 멘 사름은 허민 단작 민간덜 문 쏘아 분덴 헹. 아이고, 나 쏘는 사람 하영 봣저. 죽여 부는 사름 하영 봣저게. 그자 예산 팡팡이라. 하이고.(몇 번 총 다녔었어. 우리 어머니랑 나랑 난 사뭇 마구 울면서 마구 해 가면 사뭇 마구 울어 가면 소리 내면 죽이겠다고 하면서, 총 가지고 와서 소리 내면, 소리만 내면 쏘겠다고 하면서 그처럼 아이고. 토벌대도 그때 경비대며 토벌대며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라. 이제 총 두 개 멘 사람은 당장 보이면 쏘아, 그 사람은 피하라고 하더라. 그 사람은 피하라고 하면. 총 하나 멘 사람은 괜찮고 총 두 개 멘 사람은 하면 당장 민간들 모두 쏘아 버린다고 해서. 아이고, 나 쏘는 사람 많이 봤어. 죽여 버리는 사람 많이 봤어. 그저 예산 팡팡이야. 하이고.)

102006 @ 음.(음.)

102006 #1 그 넘어간 ᄉᆞ건 생각허민이, 그거 나 기억난다게. 열세 설이라도.(그 넘어간 사건 생각하면, 그거 나 기억난다. 열세 살이라도.)

102006 @ 여기는 막 성 싸레 다니고는 안 헷수과?(여기는 마구 성 쌓으러 다니고는 안 했습니까?)

102006 #1 성 싸낫저게. 성 쌓앙 나 지키레도 가 왓어, 두려도 열댓 나 가난.(성 쌓았었어. 성 쌓아서 나 지키러도 갔다 왔어, 어려도 열댓 되어 가니까.)

102006 @ 나가라 헹?(나가라 해서?)

102006 #1 어, 어. 성 다왕 이 토평 ᄆᆞ슬이민 성을 막 쌓근에 밤이.(어, 어. 성 쌓아서 이 토평 마을이면 성을 마구 쌓아서 밤에.)

102006 @ 예.(예.)

102006 #1 돌아가멍 밤이 문 지켜시녜.(돌아가면서 밤에 모두 지켰어.)

102006 @ 아이들도?(아이들도?)

102006 #1 어게, 아이덜토게.(어, 아이들도.)

102006 @ 음.(음.)

102006 #1 돌아가멍. 돌아가멍덜 문 지켯주게. 경 첨 그 성 문 지켯고 잣[62] 다왕 뭐 오죽 ᄉᆞ못 이 토평은 난리 나나시녜. 어딘 어떵 허느니만은 토평은 난리 나낫저. 하영 죽음도 허고.(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들 모두 지켰지. 그렇게 참 그 성 모두 지켰고 담 쌓아서 뭐 오죽 사뭇 이 토평은 난리 났었어. 어딘 어떻게 하느니만 토평은 난리 났었어. 많이 죽기도 하고.)

102006 @ 곱으레 굴속에 들어가고 했었던 거는 누게가 오니까 곱으레 가는 거?(숨으러 굴속에 들어가고 했었던 거는 누가 오니까 숨으러 가는 거?)

102006 #1 토벌대, 토벌대.(토벌대, 토벌대.)

62) '잣'은 기다랗게 돌을 쌓아 올린 담을 말한다.

102006 @ 토벌대 오니까.(토벌대 오니까.)

102006 #1 토벌대 오민 쏘아 분덴. 으, 토벌대 오민 불 짇고[63] 쏘아 불고. 하영 죽엇저. 애기덜 믄 죽여 불고, 어멍이영 애기영 갔당 있당 어멍은 토벌대 저디 왐저 허민 어멍은 그 애기 내불어뒁 뛰어시네게. 애기만 죽은 디도 핫저게.(토벌대 오면 쏘아 버린다고. 으, 토벌대 오민 불 때고 쏘아 버리고. 많이 죽었어. 아기들 모두 죽여 버리고, 어머니랑 아기랑 갔다가 있다가 어머니는 토벌대 저기 온다고 하면 어머니는 그 아기 내버리고 뛰었어. 아기만 죽은 데도 많아.)

102006 @ 에이구.(에이구.)

102006 #1 에이구, 그 애기만 내불어 덩이 애기만 죽은 디도 하서. 그 생각허민 그땐 첨 살지 못헐 거 닮아라만은 경헤도 이녁 친척 아니난이 놈이난 기자 을큰헤여도 허고 놈덜이난 무시거 헷주. 아이고, 이 토평 어인간헷저. 어인간헤낫저.(에이구, 그 아기만 내버려 두고 아기만 죽은 데도 많아. 그 생각하면 그땐 참 살지 못할 것 같더라만 그래도 자기 친척 아니니까 남이니까 그저 안타까워도 하고 남들이니까 뭐 했지. 아이고, 이 토평 어연간했어. 어연간했었어.)

102006 @ 아, 많이 돌아가셨구나.(아, 많이 돌아가셨구나.)

102006 #1 으. 어인간헤낫저. 난 이 토평을 살기 따문에 그걸 보고 느 이제 들으레 가는 어른은 시집오라부난 그런 건 안 봐실 거여. 신효[64] 어른이난, 신효 어른이난 그런 건 안 봐실 거여만은 아이고, 난이 죽어부는 사름 형편엇이 하영 봣저. 하이고, 밋밋[65] 돌아당 줄줄런이 세왕 기자 팡팡, 자락자락[66].(으. 어연간했었어. 난 이 토평을 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너 이제 들으러 가는 어른은 시집오니까 그런 건 안 봤을 거야. 신효 어른이니까, 신효 어른이니까 그런 건 안 봤을 것이지만 아이고, 난 죽는 사람 형편없이 많이 봤어. 하이고, '밋밋' 데려다가 줄줄이 세워서 그저 팡팡, '자락자락'.)

102006 @ 먹을 것도 막 뺏아가 불고마씨?(먹을 것도 마구 뺏아가 버리고요?)

102006 #1 먹을 거 뺏으나 마나 뭐 여유가 엇게 기자 돌아낭 뎅기는 것덜 잡아당 기자 세왕 원 원. 그추룩 헤라게, 원 원. 아무 죄 엇인 사름덜 죽엇어.(먹을 거 뺏으나 마나 뭐 여유가 없게 그저 달아나서 다니는 것들 잡아다가 그저 세워서 원 원. 그처럼 하더라, 원 원.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죽었어.)

102006 @ 게난 집이 있는 쏠이나 뭐나.(그러니까 집에 있는 쌀이나 뭐나.)

102006 #1 것도 믄 아져가 불고.(것도 모두 가져가 버리고.)

102006 @ 아져가 불고예?(가져가 버리고요?)

102006 #1 으, 믄 아져가 불고. 믄딱 아져가 분다게. 수못 그걸 그 밥헹 먹으멍 살렌 허느냐게.(으, 모두 가져가 버리고. 모두 가져가 버린다. 사뭇 그걸 그 밥해서 먹으면서 살라고 하니.)

---

63) '짇다'는 불 따위를 '때다'의 의미다. 여기서는 '(불)사르다'의 의미로 쓰였다.
64) '신효'는 서귀포시 신효동을 말한다.
65) '밋밋'은 거침없이 줄곧 나오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66) 여기서 '자락자락'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쓰러지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102006 @ 음.(음.)

102006 #1 우리ᄀᆞ라 게나제나 ᄂᆞ려가렌만 헤나시네.(우리보고 그러나저러나 내려가라고만 했었어.)

102006 @ 해안으로?(해안으로?)

102006 #1 어. 해안으로 ᄂᆞ려가렌 헌다. 여기 시민 다 죽인덴, 빨갱이 새끼로 다 죽인덴.(어. 해안으로 내려가라고 한다. 여기 있으면 다 죽인다고, 빨갱이 새끼로 다 죽인다고.)

102006 @ 아니 토평 이 지대도 높은 디과?(아니 토평 이 지대도 높은 데입니까?)

102006 #1 어게. 이거 높은 디주게. 이 토평이 완전 높은 디. 높은 고지 아니냐, 이거.(어. 이거 높은 데지. 이 토평이 완전 높은 데. 높은 고지 아니냐, 이거.)

102006 @ 아, 높은 고지.(아, 높은 고지.)

102006 #1 어. 제일 높은 고지라, 이 토평이. 서귀포보단도.(어. 제일 높은 고지야, 이 토평이. 서귀포보다도.)

102006 @ 음.(음.)

102006 #1 경허난 여기 바당, 검은여[67] 바당이여 무신 바당이여 이디 첨 바당은 ᄇᆞ딤은 헌다. 경헤도 토평이. 바당은 ᄇᆞ뎌. 경헤도 이 토평이 산춘으로 알주게. 이 볼목린[68] 개춘[69]이고 이딘 산춘이고.(그러니까 여기 바다, '검은여' 바다다 무슨 바다다 여기 첨 바다는 밭기는 한다. 그래도 토평이. 바다는 밭아. 그래도 이 토평이 산촌으로 알지. 이 보목동은 '개춘'이고 여긴 산촌이고.)

102006 @ 토평은 바당 잇어도 산촌이엔 헷수과?(토평은 바다 있어도 산촌이라고 했습니까?)

102006 #1 으, 산촌이고 볼목리가 개춘이고 이 신하효린[70] 개춘. 이딘 산춘. 산춘이엔 헤낫저, 토평.(으, 산촌이고 보목동이 '개춘'이고 이 신하효리는 '개춘'. 여긴 산촌. 산촌이라고 했었어, 토평.)

102006 @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102005 #1 으, 아 옛날에 어질영 팡팡. 아이고, 요 영 펜안허게 살아지카 부덴 아무도 생각 안 허영. 일본 군인덜 담아들어낫저게. 일본 군인덜 ᄆᆞᆫ 담아들엉 ᄆᆞᆫ ᄉᆞ못. 아이고, 일본 군인덜 담아들엉. 그 일본 군인덜도 나 두려도 알아진다. 건빵, 옛날에 건빵이.(으, 아 옛날에 어질러서 팡팡. 아이고, 요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봐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일본 군인들 몰려들었었어. 일본 군인들 모두 몰려들어서 모두 사뭇. 아이고, 일본 군인들 몰려들어서. 그 일본 군인들도 나 어려도 알 수 있어. 건빵, 옛날에 건빵.)

102005 @ 으.(으.)

---

67) '검은여'는 서귀포시 토평동 앞바다에 있는 여 이름의 하나다.
68) '볼목리'는 서귀포시 보목동을 말한다.
69) '개춘'은 바닷가 마을을 말한다.
70) '신하효리'는 서귀포시 신효리와 하효리를 아울러 가리킨다.

102005 #1 그거 준다게 경허민 우리 지꺼정 ᄉᆞ못 쫓아뎅기멍 거 먹어난 기억잇나게. 그거 ᄉᆞ못 경허민 그 일분 군인덜 막 담아들어도 죽임 버릇은 안 헷저. 일본선.(그거 준다. 그러면 우리 기뻐서 사뭇 쫓아다니면서 거 먹었던 기억이 있어. 그거 사뭇 그러면 그 일본 군인들 마구 몰려들어도 죽이는 버릇은 안 했어. 일본에선.)

102005 @ 으.(으.)

102005 #1 이, 우리 제주도 빼앗젠은 헤도.(이, 우리 제주도 빼앗으려고는 해도.)

102005 @ 음.(음.)

102006 #1 제주도 막 빼앗젠은 헤낫주, 일본 그때게 첨. 경헷주만은 경 일분 군인덜은 오랑 경 사람 경 막 죽여 불진 안헷어. 이디 토벌대가 ᄆᆞᄉᆞ왓주.(제주도 마구 빼앗으려고는 했었지, 일본 그때 첨. 그랬지만 그렇게 일본 군인들은 와서 그렇게 사람 마구 죽여 버리지는 않았어. 여기 토벌대가 무서웠지.)

102006 @ 음.(음.)

102006 #1 아이구, 첨 ᄆᆞᄉᆞ왓저. 에구에구, 중창, ᄂᆞ 중창 알아지크냐?(아이고, 참 무서웠어. 에구에구, 죽창, ᄂᆞ 죽창 알겠니?)

102006 @ 죽창?(죽창?)

102006 #1 죽창.(죽창.)

102006 @ 으, 대나무로 만든 거예?(으, 대나무로 만든 거요?)

102006 #1 어, 경헨 칼 꽂앙.(어, 그래서 칼 꽂아서.)

102006 @ 예.(예.)

102006 #1 걸로 칵칵 찔러 죽이고, 걸로 칵칵 찍영 죽이고. 에이고, 에고. 나 그거 하영 봣주. 첨, 원 사름 죽임이 ᄑᆞ리 ᄒᆞ나 죽이는 거주게. ᄒᆞ쏠만 또 그 집이 강 조사허영 만약에 그 식구덜이 자민 아빠가 산에 가 부나 오빠가 산에 가 부나 곱앙, ᄆᆞᄉᆞ와근에 비껴 불민 그 가족은 믄 죽여 베시녜.(그것으로 칵칵 찔러 죽이고, 그것으로 칵칵 찍어서 죽이고. 에이구, 에구. 나 그거 많이 봤지. 참, 원 사람 죽이는 것이 파리 하나 죽이는 거지. 조금만 또 그 집에 가서 조사해서 만약에 그 식구들이 자면 아빠가 산에 가 버리거나 오빠가 산에 가 버리거나 숨어서, 무서워서 비켜 버리면 그 가족은 모두 죽여 버렸어.)

102006 @ 음.(음.)

102006 #1 가족덜은 기자 죽여 벤. 그 무신 죄덜이니게. 아무 죄도 엇이 경 씨멜족헤라게. 아이구, 그추룩 헹 죽영. 경허난 ᄒᆞ루에 죽인 디가 이 동네만 헤도 열 멧 밧이난 ᄒᆞ루 처냑에 제서덜 쭉 허게 제서게. 그 ᄉᆞ삼사건에 믄 죽여부난 제서 시월이라, 시월.(가족들은 그저 죽여 버렸어. 그 무슨 죄들이니. 아무 죄도 없이 그렇게 씨 멸족했어. 아이고, 그처럼 해서 죽여서. 그러니까 하루에 죽인 데가 이 동네만 해도 열 몇 군데이니까 하루 저녁에 제사들 쭉 하게 제사. 그 사삼사건에 모두 죽여 버리니까 제사 시월이야, 시월.)

102006 @ 시월덜에.(시월에.)

102006 #1 으, 시월, 시월 열나흘날일 거여.(으, 시월, 시월 열나흘일 거야.)

102006 @ 음.(음.)

102006 #1 기자 쭉 허게덜 문 헌다게.(그저 쭉 하게들 모두 한다.)

102006 @ 음.(음.)

102006 #1 아이구, 아무 죄도 엇이.(아이고, 아무 죄도 없이.)

102006 @ 게난예.(그러니까요.)

102006 #1 춤말로 아무 죄도 엇이 죽여 벳주. 난 그추룩 허는 거 보민 것도 뭔 잘못이 잇이나 무시거 허주, 겁낭 곱으레 뎅기는 사름을 죽이니 원 그런 숭시도 잇느냐게, 원 원. 이상헌 ᄉᆞ태라낫저게. 그 ᄉᆞ삼사건이 원. 원 게나제나 곱앙 듣는 건 그자 쏘우난에게, 빨갱이엔 허멍 아이구. 산에만 가민 빨갱이 아니냐게, 아이구. 우리 토평이 빨갱이 더 하낫저.(참말로 아무 죄도 없이 죽여 버렸지. 난 그처럼 하는 거 보면 것도 뭔 잘못이 있거나 뭐 하지, 무서워서 숨으러 다니는 사람을 죽이니 원 그런 흉사도 있니, 원 원. 이상한 사태였었어. 그 사삼사건이 원. 원 그러나저러나 숨어서 달리는 건 그저 쏘니까, 빨갱이라고 하면서 아이고. 산에만 가면 빨갱이 아니니, 아이고. 우리 토평이 빨갱이 더 많았었어.)

102006 @ 아.(아.)

102006 #1 게나제나 산에만 가민 빨갱이. 빨갱이 새끼 기자.(그러나저러나 산에만 가면 빨갱이. 빨갱이 새끼 그저.)

102006 @ 공부허는 사름덜이 많아나신게.(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네.)

102006 #1 공부허는 사름덜토.(공부하는 사람들도.)

102006 @ 경허난 학교 다니는 사름덜 다 산에 올라가 분 거 아니?(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사람들 다 산에 올라가 버린 거 아니?)

102006 #1 ᄋᆞ게, 경도 허고 첨 이 토평은이 볼목리레 이 개춘더레보단 이상케 산춘이난산디 더 토벌대가 사름을 경 이 산에 올라근에 심엉덜 줄 잇엉이, 줄 잇엉 그 무시걸로 문 기자 연결 연결 무끄멍 이껑 오는 것이 기자 흔 사름이 아이구, 수정 몰르게 이껑 ᄂᆞ려와라, 토벌대들이. 그거 문 죽이젠. 제주시에 강 많이 죽여시네.(어, 그렇게도 하고 참 이 토평은 보목동에 이 '개춘'에보다는 이상하게 산촌이어서인지 더 토벌대가 사람을 그렇게 이 산에 올라와서 잡아서들 줄 이어서, 줄 이어서 그 무엇으로 모두 그저 연결 연결 묶으면서 이끌어서 오는 것이 그저 한 사람이 아이고, 수 모르게 이끌어서 내려오더라, 토벌대들이. 그거 모두 죽이려고. 제주시에 가서 많이 죽였어.)

102006 @ 음.(음.)

102006 #1 이제 제주시에 멧 만 명이니게. 제주도 사름이 아이구. 우리 토평도 막 하고 호근리[71]도 핫주만은이 첨 우리 토평 사름도 이제 제주시에 첨 그 ᄉᆞ삼사건에 강 보민 아이구 일름덜 문 새겨진 거 보민 어이엇나게, 어이엇나.(이제 제주시에 몇 만 명이니. 제주도 사람이 아이고. 우리 토평도 아주 많고 호근동도 많지만

71) '호근리'는 서귀포시 호근동을 말한다.

참 우리 토평 사람도 이제 제주시에 참 그 사삼사건에 가서 보면 아이고 이름들 모두 새겨진 거 보면 어이없어, 어이없어.)

102001 @ 삼춘 그전이 여덟 살에 제주도 올 때 일본에서는 제주도 말 안 써낫수게예?(삼촌 그전에 여덟 살에 제주도 올 때 일본에서는 제주도 말 안 썼었지요?)

102001 #1 어게. 제줏말 안 썬에 나 일본말.(어. 제줏말 안 쓰고 나 일본말.)

102001 @ 집이서 어무니랑 얘기헐 때도 제줏말 안 써난?(집에서 어머니랑 얘기할 때도 제줏말 안 썼었어?)

102001 #1 응, 그디선 일본말은 베와신디 제주돈 오난 일본말 헤 가난 막 우리 하르방도 욕 허곡이.(응, 거기선 일본말은 배웠는데 제주도는 오니까 일본말 해 가니까 마구 우리 할아버지도 욕 하고.)

102001 @으.(으.)

102001 #1 저 이제 제주도 오면은 제줏말을 베와야 헌덴 허멍 헤 가는 것이 잊어베라게. 원.(저 이제 제주도 오면 제줏말을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해 가는 것이 잊어버리더라. 원.)

102001 @ 아, 일본어를, 일본말을?(아, 일본어를, 일본말을?)

102001 #1 으.(으.)

102001 @ 그냥 잊어불고?(그냥 잊어버리고?)

102001 #1 으게. 그거 무사. 아이고, 경허난 무식허게 나도 공부나 허고 뎅겨시면은 그 일본말 안 잊어분다게.(그래. 그거 왜. 아이고, 그러니까 무식하게 나도 공부나 하고 다녔으면 그 일본말 안 잊어버린다.)

102001 @ 으.(으.)

102001 #1 그걸 베와시면은. 경헌디 우리 어머니는 일본 살아나난 죽도록 또 일본말을 안 잊어불언게.(그걸 배웠으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일본 살았었으니까 죽도록 또 일본말을 안 잊어버리더라.)

102001 @ 으.(으.)

102001 #1 그자 문 일본글도 잘 알고. 공부를 경 머리가 좋아낫저만은 난 이제 문딱 잊어 먹언. 으덥 설에 헤난 거. 놈덜은.(그저 모두 일본글도 잘 알고. 공부를 그렇게 머리가 좋았었지만 난 이제 모두 잊어 먹었어. 여덟 살에 했던 거. 남들은.)

102001 @ 으, 잊어불어.(으, 잊어버렸어.)

102001 #1 문딱 잊어불언.(모두 잊어버렸어.)

102001 @ 으.(으.)

102001 #1 그자 쉐만 ᄀᆞ꾸고 밧디 강 검질만 메당 보난.(그저 소만 가꾸고 밭에만 가서 김만 매다가 보니까.)

102001 @ 게난 여기 제주 왕 이디 말 모르난 막 눈이 왁왁헤시큰게?(그러니까 여기 제주 와서 여기 말 모르니까 아주 눈이 캄캄했겠네요?)

102001 #1 쳇 번사 경헷주게.(첫 번이야 그랬지.)

102001 @ 경 얼마나 지나난 영 알아집데가?(그렇게 얼마나 지나니까 이렇게 알

수 있었습니까?)

102001 #1 기자 그럭저럭 그자 아인 때난 총기가 좋난에게 제줏말 베움도 쉬웟주게.(그저 그럭저럭 그저 아이 때니까 총기가 좋으니까 제줏말 배우기도 쉬웠지.)

102001 @ 예.(예.)

102001 #1 제줏말이 젤 어렵넨 허는 말은 들으멍도.(제줏말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 말은 들으면서도.)

102001 @ 으.(으.)

102001 #1 들으멍도 제주도 말을 경 베와져라, 제기게.(들으면서도 제주도 말을 그렇게 배울 수 있더라, 재게.)

102001 @ 으.(으.)

102001 #1 원 쳇 번은 기자 첨 일본말만 헷저게.(원 첫 번은 그저 첨 일본말만 했어.)

102001 @ 게난 일본말만 혜 부난 와 가지고 친구덜안티 막 놀림 받고는 안 혜낫수과?(그러니까 일본말만 해 버리니까 와 가지고 친구들한테 마구 놀림 받고는 안 했었습니까?)

102001 #1 놀림은 뭐 나가 공부를 헤시면은 혹생덜아피 놀림 받음사 헤나신디 모르지만은 공부를 안 허기 때문에 그자 경 놀림 받아 벤 기억은 안 나.(놀림은 뭐 내가 공부를 했으면 학생들에게 놀림을 받기야 했었는지 모르지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놀림 받아 본 기억은 안 나.)

102001 @ 기억은 안 나예?(기억은 안 나요?)

102001 #1 친굴 뭇젠 헷주.(친구를 맺으려고 했지.)

102001 @ 아.(아.)

102001 #1 친굴 삼젠 헷주.(친구를 삼으려고 했지.)

102001 @ 아, 친굴 삼젠 헷주.(아, 친구를 삼으려고 했지.)

102001 #1 으. 막 친구덜 삼젠만 날 춪아오랑. 막 친구 삼젠덜만 헷저게.(으. 마구 친구들 삼으려고만 날 찾아와서. 마구 친구 삼으려고들만 했어.)

102001 @ 아.(아.)

102001 #1 친구 삼젠만. 경허민 우리 어무닌 친구 삼으렌 막 뭐 주곡. 허허.(친구 삼으려고만.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친구 삼으라고 마구 뭐 주고. 허허.)

102001 @ 음.(음.)

102001 #1 경혜낫주. 겨난 베운 것이 엇어놓난.(그랬었어. 그러니까 배운 것이 없으니까.)

102007 @ 예. 결혼은 어떵 중매결혼 헷수과?(예. 결혼은 어떻게 중매결혼 했습니까?)

102007 #1 ᄆᆞᆯ 탕 오랑.(말 타고 와서.)

102007 @ 아니, 저.(아니, 저.)

102007 #1 중매헤연.(중매했어.)

102007 @ 중매헤연, 누게가 중매헤연?(중매했어, 누가 중매했어?)

102007 #1 어, 중매는 어디 동네 사름이 헤실 거라.(어, 중매는 어디 동네 사람이 했을 거야.)

102007 @ 아, 혼 동네과, 게난?(아, 한 동넵니까, 그러니까?)

102007 #1 아니여, 저 허금동산[72]이라고 웃동네여. 이제 지레 큰 어른 잇이녜이?(아니야, 저 '허금동산'이라고 윗동네야. 이제 키 큰 어른 있지?)

102007 @ 예.(예.)

102007 #1 그 어른이 저 웃동네 살암저게.(그 어른이 저 윗동네 살고 있어.)

102007 @ 예.(예.)

102007 @ 여기는 섯동네[73]라?(여기는 '섯동네'야?)

102007 #1 알동네.(아랫동네.)

102007 @ 여긴 알동네.(여긴 아랫동네.)

102007 #1 으, 이건 알동네로 왓주. 허금동산 웃동네 살단 알동네레 온 거.(으, 이건 아랫동네로 왔지. '허금동산' 윗동네 살다가 아랫동네로 온 거.)

102007 @ 음.(음.)

102007 #1 물 탄 오랏저. 가메, 가메 타고, 물 타고.(말 타고 왔어. 가마, 가마 타고, 말 타고.)

102007 @ 가메 타고. 물 타고예?(가마 타고. 말 타고요?)

102007 #1 으, 가메로 왓주.(으, 가마로 왔지.)

102008 @ 게난 중매결혼 헤 가지고 결혼헌 건디 결혼헐 때 사주는 봔마씨? ᄉᆞ주, ᄉᆞ주. 생년월일 놔근에 아 이 사람네.(그러니까 중매결혼 해 가지고 결혼한 건데 결혼할 때 사주는 봤어요? 사주, 사주. 생년월일 놔서 아 이 사람네.)

102008 #1 아, 사주는 보는 첸 헷주. 옛날이니까.(아, 사주는 보는 체는 했지. 옛날이니까.)

102008 @ 예. 옛날이난예.(예. 옛날이니까요.)

102008 #1 으, 옛날이난 사준 봣주. 경허난 저 이제 사주 보레 가민 무신 헤치, 무신 헤치 그런 거 궨찬허다 허민 기자.(으, 옛날이니까 사주는 봤지. 그러니까 저 이제 사주 보러 가면 무슨 띠, 무슨 띠 그런 거 괜찮다 하면 그저.)

102008 @ 경허민 결혼허는 거고예?(그러면 결혼하는 거고요?)

102008 #1 으, 결혼허고. 이제 상극이엔 허민 안 허고 경헤낫주. 옛날은 중매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대로 연애해 불민 그런 거, 저런 거 엇주만은 옛날은 다 중맬 허는 따문. 이녁대로 시집간 사름 베랑 엇일 거여.(으, 결혼하고. 이제 상극이라고 하면 안 하고 그랬었지. 옛날은 중매하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대로 연애해 버리면 그런 거, 저런 거 없지만 옛날은 다 중매를 하는 때문. 자기대로 시집간 사람 별로 없을 거야.)

---

72) '허금동산'은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73) '섯동네'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102008 @ 게난 얼굴 보난 마음엔 듭디가?(그러니까 얼굴 보니까 마음엔 듭디까?)

102008 #1 얼굴을 보난에 원, 경 시집와사 얼굴 알앗주. 혼동네 혼ᄆᆞ슬에 살아도.(얼굴을 보니까 원, 그렇게 시집와야 얼굴 알았지. 한동네 한마을에 살아도.)

102008 @ 아, 하하하.(아, 하하하.)

102008 #1 혼ᄆᆞ슬에 살아도.(한마을에 살아도.)

102008 @ 예.(예.)

102008 #1 혼ᄆᆞ슬에 살아도 아이구, 경 얼굴 경 봐나지 안헨 보난에 원 아무것도 오란 보난 엇고 허난이 안 살젠 허난 그 사름을 혼엇이 봐진 거 닮지 안허여. 나가 혼엇이.(한마을에 살아도 아이고, 그렇게 얼굴 그렇게 봤었지 않고 보니까 원 아무것도 와서 보니까 없고 하니까 안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한없이 본 거 같지 않아. 내가 한없이.)

102008 @ 아.(아.)

102008 #1 친절허게 봐진 거 닮지 안허여. 쳇날 처냑도.(친절하게 본 거 같지 않아. 첫날 저녁도.)

102008 @ 으.(으.)

102008 #1 쳇날 처냑도 뭐엔 골아도 나가 마음에 엇이난 대답도 안 헤진 거 닮고.(첫날 저녁도 뭐라고 말해도 내가 마음에 없으니까 대답도 안 한 거 같고.)

102008 @ 경허난 시집오기 싫어나난?(그러니까 시집오기 싫었었어?)

102008 #1 시집오기 싫진 안헨 보낸 건디.(시집오기 싫진 않아서 보낸 건데.)

102008 @ 예.(예.)

102008 #1 오란 원 신랑을 보난 원 어떵헨 원.(와서 원 신랑을 보니까 원 어떡해서 원.)

102008 @마음에 안 들었구나.(마음에 안 들었구나.)

102008 #1 으, ᄆᆞ음에 엇어뵈라게. 경허민 우리 어무니는 혼 부락에 사난 소문을 들엇주게.(으, 마음에 없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한 부락에 사니까 소문을 들었지.)

102008 @ 으.(으.)

102008 #1 소문을 들언 이제 경 술도 안 먹고 어진 사름이난에 이젠 첨 술 먹엉 부량헌 사름보다는 낫지 안허넨. 마음이 편안허면은 살기가 이제. 돈이 없어도 마음이 편허면은, 돈 잇어도 메닥질 허고 쌉는 디 보단 좋지 안허느냐, 좋지 안허느냐 허멍 우리 어멍 살게만 헤라게.(소문을 들어서 이제 그렇게 술도 안 먹고 어진 사람이니까 이젠 참 술 먹고 불량한 사람보다는 낫지 않냐고. 마음이 편안하면 살기가 이제. 돈이 없어도 마음이 편하면, 돈 있어도 매닥질 하고 싸우는 데 보다는 좋지 않냐, 좋지 않냐 하면서 우리 어머니 살게만 하더라.)

102008 @ 음.(음.)

102008 #1 경헨 첨 나 살아진 거주. 안 살젠 나 막 돌아뎅겻저. 놈이 알게.(그래

서 참 내가 살게 된 거지. 안 살려고 나 마구 돌아다녔어. 남이 알게.)

102008 @ 놈이 알게.(남이 알게.)

102008 #1 으, 문 알앗저. 우리 벗덜.(으, 모두 알았어. 우리 벗들.)

102008 @ 놈이 알게. 친정에도 가 불고.(남이 알게. 친정에도 가 버리고.)

102008 #1 으, 친정에 가근에 누워시민 둘레도 가곡 둘레 가민 가라 가라 막 발질로 차민 나 오랏단 친구신디 돌아나고.(으, 친정에 가서 누웠으면 데리러도 가고 데리러 가면 가라 가라 마구 발길로 차면 내가 왔다가 친구에게 달아나고.)

102008 @ 음.(음.)

102008 #1 막 소문나낫저게. 막 허당 버치난 초기 산에도 올라가나고.(마구 소문났었어. 마구 하다가 부치니까 초기 산에도 올라갔었고.)

102008 @ 어디 산에?(어디 산에?)

102008 #1 초기 산에.(버섯 산에.)

102008 @ 초기 산도 여기 잇수과?(버섯 산도 여기 있습니까?)

102008 #1 저 산에 잇주게. 할락산에, 돈 벌레.(저 산에 있지. 한라산에, 돈 벌러.)

102008 @ 돈 벌레?(돈 벌러?)

102008 #1 초기 강 타민.(버섯 가서 따면.)

102008 @ 아.(아.)

102008 #1 초기 밧게 헤낫저게. ᄉᆞ못 초기 밧덜 하영 허주게.(초기 밭 했었어. 사뭇 버섯 밭들 많이 하지.)

102008 @ 아.(아.)

102008 #1 경허민 돈 벌레.(그러면 돈 벌러.)

102008 @ 아, 거기 강 먹고 자고 허멍.(아, 거기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102008 #1 으, 산에 강 먹고 자고. 초기 탕 국 끌려 먹고. 쏠 아졍 강, 쏠 졍 강 밥헹 먹곡.(으, 산에 가서 먹고 자고. 버섯 따서 국 끓여 먹고. 쌀 가지고 가서, 쌀 지고 가서 밥해서 먹고.)

102008 @ 예.(예.)

102008 #1 나 초기 산에도 하영 살앗저게.(나 버섯 산에도 많이 살았어.)

102008 @ 아.(아.)

102008 #1 시집온 후제도.(시집온 후에도.)

102008 @ 시집온 후제도.(시집온 후에도.)

102008 #1 경헨 강 살앗주.(그렇게 가서 살았지.)

102008 @ 게난 안 살젠 거기로 도망갓구나.(그러니까 안 살려고 거기로 도망갔구나.)

102008 #1 으. 나 첨 안 살젠 동네 사름이 문 알다시피. 이젠 날ᄀᆞ라 그런 남편 들임이 어렵넨들 다 곧나. 돌아낭 뎅겻주만은.(으. 나 참 안 살려고 동네 사람이 모두 알다시피. 이젠 나보고 그런 남편 들이기가 어렵다고들 다 말해. 달아나서 다녔

지만.)

102008 @ 불러웡 헴구나게.(부러워 하고 있구나.)

102008 #1 으, 그자 쌉지 안허난.(으, 그저 싸우지 않으니까.)

102008 @ 쌉지 안허난.(싸우지 않으니까.)

102008 #1 첨 싸워 보진 안헷저게.(참 싸워 보지는 않았어.)

102008 @ 음.(음.)

102008 #1 싸워 보지 안헤영, 부부가 살젠 허민 아이덜이영 안 싸울 순 엇주게. 싸울 순 잇어도 일절 애기 다섯 개 나근에 키와도이 그 애기 콩으로도 안 테운다 하르방[74]은. 난 훼초리 봉강 아이덜 뚜리젠이라도, 복통 나민 헤도 원. 뚜리민 말 듣느넨 허멍 말 들을 건 때리지 안 헤도 말 듣넨 허멍.(싸워 보지 않고, 부부가 살려고 하면 아이들이랑 안 싸울 순 없지. 싸울 수는 있어도 일절 아기 다섯 개 낳아서 키워도 그 아기 콩으로도 안 태운다, 할아버지는. 난 회초리 주워서 아이들 때리려고도, 복통 나면 해도 원. 때리면 말 듣느냐고 하면서 말 들을 건 때리지 않아도 말 듣는다고 하면서.)

102008 @ 으.(으.)

102008 #1 것도 맞아 뵈는 말이라.(것도 맞아 보이는 말이야.)

102008 @ 맞수다.(맞습니다.)

102008 #1 그 말도이.(그 말도.)

102008 @ 예.(예.)

102008 #1 아이덜이 착허민. 뭐 때렷다고 말 듣는 건 아니주게.(아이들이 착하면. 뭐 때렸다고 말 듣는 건 아니지.)

102008 @ 예.(예.)

102008 #1 경헤도 나 베설 궂이면은 아이덜 저 아이덜 뚜립서, 뚜립서 허민 느 뚜리라 난 안 뚜리켜 허멍 골앙. 그 슝을 턴다[75], 동네 사름. 이제도.(그래도 내가 배설 궂으면 아이들 저 아이들 때리세요, 때리세요 하면 너 때려라. 난 안 때리겠어 하면서 말해. 그 흉을 본다, 동네 사람. 이제도.)

102008 @ 하하.(하하.)

102008 #1 하르방ᄀᆞ라 자네 뚜립서, 뚜립서 헤 가민 느 뚜리라 난 안 뚜리켜. 요만이도 안 건드리는 거라. 아이덜은 그렇게.(할아버지에게 재네 때리세요, 때리세요 해 가면 너 때려라 난 안 때리겠어. 요만큼도 안 건드리는 거야. 아이들은 그렇게.)

102008 @ 아.(아.)

102008 #1 일절 욕을 못 해 아이덜신디.(일절 욕을 못 해 아이들에게.)

102008 @ 예.(예.)

102008 #1 경허난 원 원 첨 싸워 보질 안헷저게.(그러니까 원 원 참 싸워 보질

74)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75) '슝을 털다'에서 '슝'은 '흉'에 대응한다. '슝을 털다'는 '흉을 보다'의 의미다.

않았어.)

102008 @ 으.(으.)

102008 #1 요 첨 콩으로 흔번 안 테왓젠 허주, 난.(요 참 콩으로 한번 안 태웠다고 하지, 난.)

102008 @ 음.(음.)

102008 #1 ᄎ분헌 사름이난.(차분한 사람이니까.)

102009 @ 게난 결혼헐 땐 뭐 혼수나 뭐 가졍 왓수과?(그러니까 결혼할 땐 뭐 혼수나 뭐 가지고 왔습니까?)

102009 #1 옛날은이 경 혼수여 뭐 시집이민 봉투여 헐, 서로 돈이 엇나게.(옛날은 그렇게 혼수다 뭐 시집이면 봉투다 할, 서로 돈이 없어.)

102009 @ 음.(음.)

102009 #1 이불 두 채.(이불 두 채.)

102009 @ 이불 두 채.(이불 두 채.)

102009 #1 뭐 단지 헹 오는 것이.(뭐 단지 해서 오는 것이.)

102009 @ 음.(음.)

102009 #1 단지 헹 오는 것이 이불 두 채 헹 오민 기자 왕 보민 시어멍은 메누리 옷을 허는 거라. 한복, 한복.(단지 해서 오는 것이 이불 두 채 해서 오면 그저 와서 보면 시어머니는 며느리 옷을 하는 거야. 한복, 한복.)

102009 @ 음.(음.)

102009 #1 나 시집올 땐 멩지가 주장이주. 그때는 멩지가 주장인디 멩지 치메 저고리 우리 어멍 헤여 줫주. 경혜영 헤 주고, 그때엔. 이제만인, 이제민 본견[76]일 거여. 그땐 그것ᄀ라 무신 인주엔 헤낫저만은 그 인주가.(내가 시집올 때는 명주가 주로지. 그때는 명주가 주로인데 명주 치마저고리 우리 어머니 해 줬지. 그래서 해 주고, 그때에는. 이제만큼은, 이제면 '본견'일 거야. 그땐 그것보고 무슨 인조견이라고 했었지만 그 인조견이.)

102009 @ 천 이름?(천 이름?)

102009 #1 으, 천 이름. 그거 잊어 먹엇저.(으, 천 이름. 그거 잊어 먹었어.)

102009 @ 유동? 아니?(뉴똥? 아니?)

102009 #1 유동도 좋아낫저게. 유동도 유동보단 ᄒᆞ쏠 존 거라, 더.(뉴똥도 좋았었어. 뉴똥도 뉴똥보다는 조금 좋은 거야, 더.)

102009 @ 아.(아.)

102009 #1 유동 치메도 아무나 못 입어낫저게. 옛날도 유동이엔 허민 아무나 못 입어낫저.(뉴똥 치마도 아무나 못 입었었어. 옛날도 뉴똥이라고 하면 아무나 못 입었었어.)

102009 @ 예.(예.)

102009 #1 경헌 건디 그거 이제 허는 사름은 이땅 메누리 헤 주곡. 경 안허민

76) '본견'은 명주실로 짠 옷감인 견 종류의 하나다.

기자 멩지 치메, 유동 치메 원 보통으로 그거 헹 입곡. 서로 답례품이 어디 잇느니? 주고받는 게 엇주.(그런 건데 그거 이제 하는 사람은 이따금 며느리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저 명주 치마, 뉴똥 치마 원 보통으로 그거 해서 입고. 서로 답례품이 어디 있니? 주고받는 게 없지.)

102009 @ 으. 게난 결혼 예물 같은 것도 엇고예?(으. 그러니까 결혼 예물 같은 것도 없고요?)

102009 #1 아니 일절, 일절.(아니 일절, 일절.)

102009 @ 일절 엇고예?(일절 없고요?)

102009 #1 으, 우리 시대엔이 물 탕 뎅길 때난이.(으, 우리 시대에는 말 타고 다닐 때니까.)

102010 @ 게난예. 사진 칙는 것도 엇고?(그러니까. 사진 찍는 것도 없고?)

102010 #1 사진은 잇어.(사진은 있어.)

102010 @ 아, 잇어마씨?(아, 있어요?)

102010 #1 사진은 우리가이 저 동네커리[77] 살단 이딜 오라신디.(사진은 우리가 저 '동네커리' 살다가 여기를 왔는데.)

102010 @ 으.(으.)

102010 #1 불난에 그 사진 카 벳저게. 족두리 쓰고 옛날 장옷 입엉.(불나서 그 사진 타 버렸어. 족두리 쓰고 옛날 장옷 입어서.)

102010 @ 아.(아.)

102010 #1 족두리 쓰고. 사진 잇어시민 보이컬.(족두리 쓰고. 사진 있었으면 보일걸.)

102010 @ 아이고.(아이고.)

102010 #1 족두리 쓰곡 그 신랑도 이제 한복, 장옷.(족두리 쓰고 그 신랑도 이제 한복, 장옷.)

102010 @ 예, 장옷.(예, 장옷.)

102010 #1 옛날 장옷 입고 그 건대[78] 쓰곡.(옛날 장옷 입고 그 '건대' 쓰고.)

102010 @ 건대 쓰고.('건대' 쓰고.)

102010 #1 으, 경헨 물 탕 오곡 나도 뛔께로 뛔께로 헹 하인덜 옛날게. 쌍놈덜, 쌍놈덜. 거 새각시 모셩 뎅기는 사름ᄀᆞ라 쌍놈이엔 헷저게. 게난 우리, 너이가 가메에 앚으민 들렁. 경혜영 시집왓저, 나.(으, 그래서 말 타서 오고 나도 독교로 독교로 해서 하인들 옛날에. 쌍놈들, 쌍놈들. 거 새각시 모셔서 다니는 사람보고 쌍놈이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 넷이 가마에 앉으면 들어서. 그래서 시집왔어, 나.)

102010 @ 음.(음.)

102010 #1 나 시대에도 거 옛날이주.(내 시대에도 거 옛날이지.)

102010 @ 옛날인게, 가메 탕 와시민.(옛날이네, 가마 타서 왔으면.)

---

77) '동네커리'는 서귀포시 토평동의 마을 지경 이름의 하나다. 동쪽에 있는 네거리라는 의미다.

78) '건대'는 상복에 쓰는 삼베로 만든 두건과 띠를 말하는데, 여기서 제보자는 결혼 예복에 머리에 쓰는 모자를 '건대'라 하고 있다.

102010 #1 옛날이주게. 게난 그 사진은 무사 안 찍느니? 사진 찍엇주만은 참 오꼿 술아 불엇저게.(옛날이지. 그러니까 그 사진은 왜 안 찍니? 사진 찍었지만 참 그만 살라 버렸어.)

102010 @ 예.(예.)

102010 #1 경헨 허난 옛날이사 경 이제 ᄀᆞ치 그추룩 어디 ᄀᆞ치 두가시가 뎅기곡, 두가시가 여행 뎅기곡 그런 거, 이젠 이젠 잔치에 가민 어디 여행 갈티, 무시거엔 헤도 그때 시대에는 두가시가 영 나가 그때 기억헤 보민이 두가시가 걷지도 안 헤낫저. 친정에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비끄러와은에 혼자만 뎅겻주.(그렇게 하니까 옛날에야 그렇게 이제 같이 그처럼 어디 같이 부부가 다니고, 부부가 여행 다니고 그런 거, 이젠 이젠 잔치에 가면 어디 여행 갈지, 뭐라고 해도 그때 시대에는 부부가 이렇게 내가 그때 기억해 보면 부부가 걷지도 안 했었어. 친정에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부끄러워서 혼자만 다녔지.)

102010 @ 아. 결혼헤도?(아. 결혼해도?)

102010 #1 으, 결혼헤도 남편허고 ᄀᆞ치 경 뎅김 버릇을 안 헷저, 절대 안 헷저. 건 어디 강 들어보라.(으, 결혼해도 남편하고 같이 그렇게 다니는 버릇을 안 했어, 절대 안 했어. 건 어디 가서 물어봐라.)

102010 @ 비끄러왕?(부그러워서?)

102010 #1 으, 비끄러왕. 여자만 시집이 갈 때에도 첨 여저만 가고 둘레 옴 버릇도 안 허고.(으, 부끄러워서. 여자만 시집에 갈 때에도 참 여자만 가고 데리러 오는 버릇도 안 하고.)

102010 @ 아이고.(아이고.)

102010 #1 또 그 시집이서 살당 친정에 갈 때도 이녁만 가고 경, 경헨 원. 이 웨방서도 경허여.(또 그 시집에서 살다가 친정에 갈 때도 자기만 가고 그렇게, 그렇게 원. 이 외방에서도 그래.)

102010 @ 어.(어.)

102010 #1 웨방서도. 그추룩 헤낫주. 경 두 가시가 꼭 의좋게 경 뎅겨보지 안헷저. 우리 시대에. 것도 아주 옛날이주, 첨.(외방에서도. 그처럼 했었지. 그렇게 부부가 꼭 의좋게 그렇게 다녀 보지 않았어. 우리 시대에. 것도 아주 옛날이지, 첨.)

102010 @ 예.(예.)

102010 #1 경헨 뎅겻주.(그렇게 다녔지.)

102010 @ 게난 ᄆᆞᆯ 타고 가메 타고 헹 왓잖아예?(그러니까 말 타고 가마 타고 해서 왔잖아요?)

102010 #1 으.(으.)

102010 @ 그때 잔치는 어떵 헤낫수과?(그때 잔치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02010 #1 잔치는 돗 잡앙 그자 옛날거치 도새기 잡앙 헤라게.(잔치는 돼지 잡아서 그저 옛날같이 돼지 잡아서 하더라.)

102010 @ 며칠을 헷수과?(며칠을 했습니까?)

102010 #1 이틀.(이틀.)

102010 @ 이틀. 전날은?(이틀. 전날은?)

102010 #1 전날은 기자 도새기 잡앙 가문잔치[79]라고.(전날은 그저 돼지 잡아서 '가문잔치'라고.)

102010 @ 음.(음.)

102010 #1 가문잔치 허고 뒷날은 새각시 둘아당 잔치허곡.('가문잔치' 하고 뒷날은 새색시 데려다가 잔치하고.)

102010 @ 음.(음.)

102010 #1 경허민 옛날은이 ᄆᆞ멀 갈아. ᄆᆞ멀떡, 이제 만두 잇잖아 만두 영 젭은 거.(그러면 옛날은 메밀 갈아. 메밀떡, 이제 만두 있잖아. 만두 이렇게 접은 거.)

102010 @ 예, 예.(예, 예.)

102010 #1 그런 거 혼 사름이, 가문잔칫날은 잔치 먹으레 가민 두 개씩 줫저게. 게민 그거 그거 원 고기 혼 반허고. 가문잔치민 그 베설, 아시날은 도새기 베설 헤영.(그런 거 한 사람이, '가문잔칫날'은 잔치 먹으러 가면 두 개씩 줬어. 그럼 그거 그거 원 고기 한 반하고. '가문잔치'면 그 창자, 전날은 돼지 창자 해서.)

102010 @ 게난 밥 먹고 그런 반으로 준 거 아니?(그러니까 밥 먹고 그런 반으로 준 거 아니?)

102010 #1 가문잔칫날 이땅 영 가민 밥도이 보리썰 섞은 밥.(가문잔칫날 이따금 이렇게 가면 밥도 보리쌀 섞은 밥.)

102010 @ 보리썰 섞은 밥.(보리쌀 섞은 밥.)

102010 #1 으, 곤썰 하나썩 섞엉.(으, 흰쌀 하나씩 섞어서.)

102010 @ 예.(예.)

102010 #1 경헤근에 밥도 영헨 주곡.(그래서 밥도 이렇게 주고.)

102010 @ 풋은 안 섞어?(팥은 안 섞어?)

102010 #1 풋도 서끈다게. 풋 서끄고. 만뒤[80] 두 개 영헨 줌지롱헤게 젭앙 만뒤 두 개썩 허민 그건 첨 받앙덜 가고.(팥도 섞는다. 팥 섞고. '만뒤' 두 개 이렇게 자 잘하게 접어서 '만뒤' 두 개씩 하면 그건 참 받아서들 가고.)

102010 @ 아.(아.)

102010 #1 또 새각시 잔칫날은 흰밥을 허잖아?(또 새색시 잔칫날은 흰밥을 하잖아?)

102010 @ 예.(예.)

102010 #1 아이구, 이레 혼 숟가락썩, 숟가락으로 ᄒᆞ나썩.(아이고, 이리 한 숟가락씩, 숟가락으로 하나씩.)

102010 @ 달렌?(달라고?)

102010 #1 먹젠.(먹으려고.)

---

79) '가문잔치'는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들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잔치를 말한다.

80) '만뒤'는 메밀가루를 익반죽 한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서 쪄낸 후에 다시 팥고물을 무친 떡을 말한다.

102010 @ 아이들?(아이들?)
102010 #1 아이덜 아니 어른도.(아이들 아니 어른도.)
102010 @ 어른도?(어른도?)
102010 #1 어. 아이구, 나도 시집강 후제 영헨 손 내와 뒁 이레도 혼 숟가락 도렌 헤낫저.(어. 아이고, 나도 시집가서 후에 이렇게 손 내 두고 이리도 한 숟가락 달라고 했었어.)
102010 @ 아.(아.)
102010 #1 얻어먹젠게. 곤밥이 어디 잇느니게?(얻어먹으려고. 쌀밥이 어디 있니?)
102010 @ 그니까.(그러니까.)
102010 #1 나 시집간 당시에사 어디 곤밥이 잇느니게. 잔칫날이나 곤밥 먹주. 식게날이나 허곡.(내가 시집간 당시에야 어디 쌀밥이 있니. 잔칫날이나 쌀밥 먹지. 제삿날이나 하고.)
102010 @ 예, 예.(예, 예.)
102010 #1 경허민 그 잔칫집이 가민 그 새각시 밥 갈라, 새각시 밥 갈라 헤낫저게. 옛날엔.(그러면 그 잔칫집에 가면 그 새색시 밥 갈라, 새색시 밥 갈라 했었어. 옛날엔.)
102010 @ 예.(예.)
102010 #1 게민 새각시 밥 갈람젠 허멍 얻어먹으레덜 ᄉᆞ못.(그럼 새색시 밥 가른다고 하면서 얻어먹으려고들 사뭇.)
102010 @ 게난.(그러니까.)
102010 #1 높은 사람은, ᄒᆞ쏠 어른은이 그 게지[81]에 혼 숟가락 톡 놩. 게지로 주곡.(높은 사람은, 조금 어른은 그 '게지'에 한 숟가락 톡 놔서. '게지'로 주고.)
102010 @ 게지가 뭐꽈?('게지'가 뭡니까?)
102010 #1 저 이제 스덴 사발 두껑이나.(저 이제 스테인리스강 사발 뚜껑이나.)
102010 @ 가짓겡이?('가짓겡이'?)
102010 #1 으, 게짓겡이, 게짓겡이.(으, '게짓겡이', '게짓겡이'.)
102010 @ 으.(으.)
102010 #1 그것에 헹 숟가락 혼 숟가락 톡 놩 주곡.(그것에 해서 숟가락 한 숟가락 톡 놔서 주고.)
102010 @ 아.(아.)
102010 #1 경 안헌 사름은 기자, 도렌 헌 사름은 숟가락으로 요레 톡톡. 혼 숟가락은 무시거게. 거 밥 혼 사발이 경 하느냐게.(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달라고 하는 사람은 숟가락으로 이리 톡톡. 한 숟가락은 뭐. 거 밥 한 사발이 그렇게 많니.)
102010 @ 게난 신랑 몫이랑 신부 몫만 곤밥인 것과?(그러니까 신랑 몫이랑 신

81) '게지'는 밥그릇의 뚜껑을 말한다. '가지', '가짓겡이', '게짓겡이'라고도 한다.

부 몫만 쌀밥인 겁니까?)

102010 #1 어게, 어게.(어, 어.)

102010 @ 옆에 있는 사람덜은 다 보리밥?(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리밥?)

102010 #1 보리썰 서껑.(보리쌀 섞어서.)

102010 @ 아, 서껑, 하하하.(아, 섞어서, 하하하.)

102010 #1 곤밥이 어디 시니게. 우리 시집갈 땐 엇엇저게.(쌀밥이 어디 있니. 우리 시집갈 땐 없었어.)

102010 @ 예.(예.)

102010 #1 에이구, 어디 곤밥.(어이구, 어디 쌀밥.)

102010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2010 #1 곤밥이 어디 셔나신이. 경허영 잔치집이 ᄉᆞ못 곤밥 얻어먹으레덜.(쌀밥이 어디 있었어. 그래서 잔칫집에 사뭇 쌀밥 얻어먹으러들.)

102010 @ 맞수다. 그 전날 가문잔치 헐 때 음식은 뭐 뭐 헙니까?(맞습니다. 그 전날 '가문잔치' 할 때 음식은 뭐 뭐 합니까?)

102010 #1 음식 기자 ᄆᆞᆯ망 헤다근에 이젠 먹엇저만은 그때 시대엔 ᄆᆞᆯ망도 엇엇어.(음식 그저 모자반 해다가 이젠 먹었지만 그때 시대에는 모자반도 없었어.)

102010 @ 으.(으.)

102010 #1 ᄂᆞ물.(나물.)

102010 @ ᄂᆞ물.(나물.)

102010 #1 춤ᄂᆞ물[82].('춤ᄂᆞ물'.)

102010 @ 으.(으.)

102010 #1 단지ᄂᆞ물[83], 단지ᄂᆞ물.('단지ᄂᆞ물', '단지ᄂᆞ물'.)

102010 @1 으.(으.)

102010 #1 단지ᄂᆞ물 헤당 막 훌터당 놩 그 돗 잡앙 돗국물[84]에, 그 가문잔치날 그자 그거 국 헹, 보리밥 헹 주곡 기자 경헨 먹주게. 뒷날은 새각시 오민, 오는 잔치, 오는 잔치가 무시거카 부덴? 오는 잔치 곤밥 허난 오는 잔치, 오는 잔치.('단지나물' 해다가 마구 훑어다가 넣어서 그 돼지 잡아서 '돗국물'에, 그 '가문잔칫날' 그저 그거 국 해서, 보리밥 해서 주고 그저 그렇게 먹었지. 뒷날은 새색시 오면, 오는 잔치, 오는 잔치가 무엇일까 봐? 오는 잔치 쌀밥 하니까 오는 잔치, 오는 잔치.)

102010 @ 아.(아.)

102010 #1 오는 잔치엔 ᄀᆞᆯ아.(오는 잔치라고 해.)

102010 @ 새각시 오는 잔치가 아니고?(새색시 오는 잔치가 아니고?)

102010 #1 새각시 들어오민 거 곤밥 헹 먹일 거난. 새각시 오는 잔치.(새색시 들어오면 거 쌀밥 해서 먹일 거니까. 새색시 오는 잔치.)

102010 @ 게민 전날은 가문잔치렌 허고.(그러면 전날은 '가문잔치'라고 하고.)

---

82) '춤노물'은 싹이 나서 오래지 않은 무청을 말한다.
83) '단지ᄂᆞ물'은 '조선무'의 무청을 말한다.
84) '돗국물'은 돼지고기를 삶은 물을 말한다.

102010 #1 뒷날은 새각시 오는 잔치.(뒷날은 새색시 오는 잔치.)

102010 @ 오는 잔치.(오는 잔치.)

102010 #1 오는 잔치 경 ᄀᆞᆯ앗저 뒷날은. 새각시 오는 날이난.(오는 잔치 그렇게 말했어, 뒷날은. 새색시 오는 날이니까.)

102010 @ 예.(예.)

102010 #1 그걸 구별헹 ᄀᆞᆫ나. 가문잔칫날은 이제 원 가문잔칫날이나 아무 때나 일반으로 잇저만은 옛날은 가문잔치. 아이고, 낼은 오는 잔치난에 경 ᄀᆞᆯ앗저.(그걸 구별해서 말해. '가문잔칫날'은 이제 원 '가문잔칫날'이나 아무 때나 일반으로 있지만 옛날은 '가문잔치'. 아이고, 낼은 오는 잔치니까 그렇게 말했었어.)

102010 @ 아.(아.)

102010 #1 경 ᄀᆞᆯ앗주게. 아이고.(그렇게 말했지. 아이고.)

102010 @ 예.(예.)

102010 #1 낼을 오는 잔치난 그추룩 ᄀᆞᆯ앗주게.(낼은 오는 잔치니까 그처럼 말했지.)

102011 @ 경 결혼헤 가지고 신혼살림은 어디서 차렷수과? 처음에.(그렇게 결혼해 가지고 신혼살림은 어디서 차렸습니까? 처음에.)

102011 #1 시어멍이영 살주, 어디 사느니? 경 집 잇엉 ᄯᅳ로 살아 보지 안헷저. 겨고 옛날에는.(시어머니랑 살지, 어디 사니? 그렇게 집 있어서 따로 살아 보지 않았어.)

102011 @ 예.(예.)

102011 #1 아멩 부제칩이도 아덜 내놈 버릇 안 헷저.(아무리 부잣집도 아들 내놓는 버릇 안 했어.)

102011 @ 예, ᄀᆞ치예.(예, 같이요.)

102011 #1 일절 ᄀᆞ치. 시어머니네 모셩 살앗주.(일절 같이. 시어머니네 모셔서 살았지.)

102011 @ 예.(예.)

102011 #1 안팟거리[85]. 안팟거리 잇인 딘 밧거레 살고.('안팟거리'. '안팟거리' 있는 데는 바깥채에 살고.)

102011 @ 으.(으.)

102011 #1 안팟거레 엇인 딘 이런 큰구들, 작은구들 허잖아.('안팟거리' 없는 데는 이런 큰방, 작은방 하잖아.)

102011 @ 예.(예.)

102011 #1 경허민 이런 구들에 살앗저.(그럼 이런 방에 살았어.)

102011 @ 큰구들은 시어머니 살고.(큰방은 시어머니 살고.)

102011 #1 어.(어.)

102011 @ 족은구들엔.(작은방에는.)

85) '안팟거리'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안채와 바깥채를 말한다.

102011 #1 어, 어 경헨 살앗저게.(어, 어 그렇게 살았어.)

102011 @ 게난 삼춘넨 어떵 살앗수과?(그러니까 삼촌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102011 #1 우리도 기자 맞구들[86] 영. 맞구들.(우리도 그저 '맞구들' 이렇게. '맞구들'.)

102011 @ 아. 안팟거리 엇어난?(아. '안팟거리' 없었어?)

102011 #1 으, 안팟거리 엇이난. 경헨 영 맞구들에 살단 첨 이레 온 거주.(으, '안팟거리'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맞구들'에 살다가 참 이리 온 거지.)

102011 @ 이레 온 거예.(이리 온 거요.)

102011 #1 으. 옛날엔이 경 뚜로 삶 버릇 안 헷저.(으. 옛날에는 그렇게 따로 사는 버릇 안 했어.)

102011 @ 음.(음.)

102011 #1 시집가민 이젠 기자 아덜 살 집 멘들아 놩덜 허고 또 아덜덜이 집이 안 살앙. 난 잔치 세 번 헷주만은 문 육지덜 훼사에 들어간 때난 기자 잔치만 넴겨불민 올라가고 헷저게.(시집가면 이제는 그저 아들 살 집 만들어 놔서들 하고 또 아들들이 집에 안 살아서. 난 잔치 세 번 했지만 모두 육지들 회사에 들어갈 때니까 그저 잔치만 넘겨 버리면 올라가고 했어.)

102011 @ 예.(예.)

102011 #1 경헨 헷주만은 옛날에는 잔칠 허민 기자 혼디덜만 살앗저게.(그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잔치를 하면 그저 같이들 살았어.)

102011 @ 으.(으.)

102011 #1 멧 년이라도.(몇 년이라도.)

102011 @ 게난예.(그러니까요.)

102011 #1 멧 년이라도 시어머니 혼디 모셩 살아시네게. 뚜로 삶 버릇 안 헷저. 첨, 이제난덜. 경허고 우리 제주돈 육지식 닮지 안허여근에 시어머니 이제 모셩 살진 안헷저. 뚜로 기자.(몇 년이라도 시어머니 같이 모셔서 살았어. 따로 사는 버릇 안 했어. 참, 이제니까들.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육지식 같지 않아서 시어머니 이제 모셔서 살지는 않았어. 따로 그저.)

102011 @ 으.(으.)

102011 #1 다 뚠 방에 살곡 시어머니냥으로 이제 뚜로 헤 먹고 경헨 살앗주. 육지식은 첨 나 이제 메느리 헨에 육지 올라간 보난 육진 게나제나 첨 육지 할망덜은 메누리 의지헤근에 기자 할망 하르방이 딱 메누리 의지헹 살아도 우리 제주도식은 딱 뚜로 살아.(다 다른 방에 살고 시어머니대로 이제 따로 해 먹고 그렇게 살았지. 육지식은 참 내가 이제 며느리 해서 육지 올라가서 보니까 육지는 그러나저러나 참 육지 할머니들은 며느리 의지해서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 딱 며느리 의지해서 살아도 우리 제주도식은 딱 따로 살아.)

102011 @ 예, 예.(예, 예.)

86) '맞구들'은 마주 보게 되어 있는 방을 말한다.

102011 #1 이녁냥으로.(자기대로.)
102011 @ 여기 큰방, 족은방 잇어도 밥.(여기 큰방, 작은방 있어도 밥.)
102011 #1 경 잇어도.(그렇게 있어도.)
102011 @ 밥 뚜로 헹 먹어?(밥 따로 해서 먹어?)
102011 #1 으. 우리 친정어무니도.(으. 우리 친정어머니도.)
102011 @ 예.(예.)
102011 #1 우리 친정어무니도 나 시집와 불곡 이제 문 풀아 부난 메누리 헤신디이.(우리 친정어머니도 내가 시집와 버리고 이제 모두 팔아 버리니까 며느리 했는데.)
102011 @ 예.(예.)
102011 #1 곤로 놩 당신냥으로 헹 먹어. 방에 곤로 놩.(곤로 놔서 당신대로 해서 먹어. 방에 곤로 놔서.)
102011 @ 아.(아.)
102011 #1 경허주 메누리 밥 얻어먹음 버릇, 움직거림 새엔 우리 제주도식은. 우리 제주도식은 경헤여.(그러지 며느리 밥 얻어먹는 버릇, 움직거리는 사이에는 우리 제주도식은. 우리 제주도식은 그래.)
102011 @ 경헤도 부엌은 ᄀᆞ치 쓸 거 아니?(그래도 부엌은 같이 쓸 거 아니?)
102011 #1 아니. 난로 있잖아, 난로.(아니. 난로 있잖아, 난로.)
102011 @ 예.(예.)
102011 #1 난로 놔근에 이 혼자 기자 헤 먹고 경헨 헷주. 경 뚜로 어디 경 첨 안팟거리 잇인 디는 안팟거리 살앗저게.(난로 놔서 이 혼자 그저 해 먹고 그렇게 했지. 그렇게 따로 어디 그렇게 참 '안팟거리' 있는 데는 '안팟거리' 살았어.)
102011 @ 예, 예.(예, 예.)
102011 #1 경 안팟거리 엇인 딘 이런 디 기자 살앗주게.(그렇게 '안팟거리' 없는 데는 이런 데 그저 살았지.)
102011 @ 아.(아.)
102011 #1 어디 경 뚜로 삶 버릇은 경. 이제야 난 거주, 아주 옛날엔 경 뚜로, 올레[87] 베꼇더레 아덜 풀앙 내놓지 안헷저. 부제칩도.(어디 그렇게 따고 사는 버릇은 그렇게. 이제야 난 거지,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따로, '올레' 밖으로 아들 팔아서 내놓지 않았어. 부잣집도.)
102012 @ 경헨 스물한 살에 결혼헹 큰아이는 멧 설에 나셧수과?(그렇게 스물한 살에 결혼해서 큰아이는 몇 살에 낳으셨습니까?)
102012 #1 나 오랑 삼 년 애기 안 낫저게. 살지 말젠 돌아뎅기난게.(내가 와서 삼 년 아기 안 낳았어. 살지 않으려고 돌아다니니까.)
102012 @ 하.(하.)
102012 #1 나 안 살젠, 시집 안 살젠 돌아뎅기난이 나영 ᄒᆞ루에 시집온 사름은

87)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말한다.

어가라 애기 난에 가이가 이제 우리 ○○이보단 세나 우이라.(나 안 살려고, 시집 안 살려고 돌아다니니까 나랑 하루에 시집온 사람은 어가라 아기 낳아서 걔가 이제 우리 ○○이보다 셋이나 위야.)

102012 @ 으.(으.)

102012 #1 가이 이제 서알동네[88] 어멍, 아방은 죽곡. 살앗저만은 난 안 살젠 막 돌아뎅겨 부난 나 삼 년 후제사 낫주. 삼 년 후제 낳난이 쳇 아이가, 쳇 우리 큰년이 나 스물세 설에 나진 거 닮다. 스물 흔 다섯, 다섯 나는 해에 나진 거 닮다.(걔 이제 '서알동네' 어머니, 아버지는 죽고. 살았지만 난 안 살려고 마구 돌아다녀 버리니까 나 삼 년 후에야 낳았지. 삼 년 후에 낳으니까 첫 아이가, 첫 우리 큰딸이나 스물세 살에 낳은 거 같아. 스물 한 다섯, 다섯 되는 해에 낳은 거 같아.)

102012 @ 으, 스물다섯 나는 해에.(으, 스물다섯 되는 해에.)

102012 #1 으. 삼 년을 아니 나난.(으. 삼 년을 안 낳으니까.)

102012 @ 겐 두 번째는 몇 살 터울이과?(그래서 두 번째는 몇 살 터울입니까?)

102012 #1 두 설, 원 두 설 차이여.(두 살, 원 두 살 차이야.)

102012 @ 두 설 차이. 다?(두 살 차이. 다?)

102012 #1 으.(으.)

102012 @ 그럼 큰뚤?(그럼 큰딸?)

102012 #1 큰뚤은, 큰뚤광 큰아덜은 두 설 차이.(큰딸은, 큰딸과 큰아들은 두 살 차이.)

102012 @ 으.(으.)

102012 #1 또 이제 우리 셋아덜은 세 살 차이.(또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은 세 살 차이.)

102012 @ 으.(으.)

102012 #1 막내 이제 죽어분 아인 네 설 차이 경 낫저게.(막내 이제 죽어버린 아이는 네 살 차이 그렇게 났어.)

102012 @ 네 설 차이.(네 살 차이.)

102012 #1 경헨 또 막낸, 또 막낸 이제 또 것도 이제 쥐헤치, 첨 이제 돌아온 돼지헤치여. 막내가.(그래서 또 막내는, 또 막내는 이제 또 것도 이제 쥐띠, 참 이제 돌아온 돼지띠야. 막내가.)

102012 @ 으.(으.)

102012 #1 막내가 돌아온 쥐헤치난에 이제 가이가 이제 마흔, 마흔 몇 설인고? 나 이제 애기덜.(막내가 돌아온 쥐띠니까 이제 걔가 이제 마흔, 마흔 몇 살인가? 나 이제 아기들.)

102012 @ 마흔여섯인게.(마흔여섯이네.)

102012 #1 마흔여섯.(마흔여섯.)

102012 @ 쥐헤치마씨?(쥐띠요?)

---

88) '서알동네'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102012 #1 뒈지헤치.(돼지띠.)

102012 @ 뒈지헤치민 마흔여섯.(돼지띠면 마흔여섯.)

102012 #1 뒈지헤치여. 경허난에 쥐헤친 나가, 우리 큰뚤이 쥐헤치주.(돼지띠야. 그러니까 쥐띠는 내가, 우리 큰딸이 쥐띠지.)

102012 @ 으.(으.)

102012 #1 우리 큰뚤이 나광 쥐헤치.(우리 큰딸이 나와 쥐띠.)

102012 @ 게난 맨 위에가 뚤, 맨 막내가 뚤, 사이엔 아덜예?(그러니까 맨 위가 딸, 맨 막내가 딸, 사이에는 아들요?)

102012 #1 으, 중간에. 거 무슨 미친 지랄 헐 거니.(으, 중간에. 거 무슨 미친 지랄 할 거니.)

102012 @ 하하하.(하하하.)

102012 #1 우로 오누이만 나건 딱 끈어 베시민 막 나도 놈 부럽지 안허게 살주.(위로 오누이만 낳건 딱 끊어 버렸으면 아주 나도 남 부럽지 않게 살지.)

102012 @ 게도 큰딸이 살림에 보탬되지 안헤마씨?(그래도 큰딸이 살림에 보탬되지 않아요?)

102014 #1 큰뚤은 잘 살암저. 신례리[89] 시집가신디.(큰딸은 잘 살고 있어. 신례리 시집갔는데.)

102014 @ 으.(으.)

102014 #1 큰뚤도, 큰뚤은 막 부제칩이 갓저게. 부제칩이 강 지 먹을 만이 살암저. 것도 옛날이난이 속앙 잘못 풀아젼, 뚤은. 법환리[90]서 이제 중맬 오라신디 우리 ○○이도, 우리 뚤ᄀᆞ장도 중매 막 헷저게. 연앨, 그 당신 연애 엇엇저, 그때도.(큰딸도, 큰딸은 아주 부잣집에 갔어. 부잣집에 가서 자기 먹을 만큼 살고 있어. 것도 옛날이니까 속아서 잘못 시집보냈어, 딸은. 법환동에서 이제 중매가 왔는데 우리 ○○이도, 우리 딸까지도 중매 많이 했어. 연애를 그 당시는 연애 없었어. 그때도.)

102014 @ 예.(예.)

102014 #1 경혜신디 법환리서 이제 서울 강 살겐 허멍 선생, 고등학교 선생이 이제 구월에 오라도 이제 그디도 아니 줫당, 성산포도 구월에 선생, 그때도 선생 오랑 구월에 안 줫당, 옛날엔 무사 부젤 경 세느니게.(그랬는데 법환동에서 이제 서울 가서 살자고 하면서 선생, 고등학교 선생이 이제 구월에 와도 이제 거기도 안 줬다가, 성산포도 구월에 선생, 그때도 선생 와서 구월에 안 줬다가, 옛날에는 왜 부자를 그렇게 세니.)

102014 @ 부제?(부자?)

102014 #1 부자, 부자.(부자, 부자.)

102014 @ 예, 부자.(예, 부자.)

102014 #1 밧 한 거 부자.(밭 많은 거 부자.)

89) '신례리'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를 말한다.
90) '법환리'는 서귀포시 법환동을 말한다.

102014 @ 예. 아, 경헨 그런 사름을 찾았구나?(예. 아,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았구나?)

102014 #1 세상에 그런 멍청도 어디 있느니?(세상에 그런 멍청도 어디 있니?)

102014 @ 하하. 좋주, 부제안티 가민.(하하. 좋지, 부자한테 가면.)

102014 #1 얼먹언, 얼먹언. 너무 아이가 얼먹언.(얼먹었어, 얼먹었어. 너무 아이가 얼먹었어.)

102014 @ 아.(아.)

102014 #1 부제칩이 가고이 시아부지가 일곱 성제. 시아부지가 일곱 성제.(부잣집에 가고 시아버지가 일곱 형제. 시아버지가 일곱 형제.)

102014 @ 하.(하.)

102014 #1 나 예단 허젠 허난이 얼마나 나 돈 하영 들여시, 빚 낫저 나 그때.(나 예단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나 돈 많이 들였니, 빚 났어, 나 그때.)

102014 @ 아.(아.)

102014 #1 여단 양말만 해도 흔 백 배. 여단이. 우이 시하르방이 세 성제, 또 우리 뚤 시아방이 일곱 성제라 놓난이 얼마나 얼마나 방상이 이제 원 원. 아이가 너미 얼먹언게. 막 착험은 헌다. 우리 뚤 착험은 헌다. 우리 뚤 착혜근에 첨, 쌩일이 이제 하우스 이천 펭 넘어 헤 놓곡 이제 밧도 ᄉᆞ못 멧 천 평 잇인디게 욕심이. 얼먹언, 얼먹언. (예단 양말만 해도 한 백 켤레. 예단이. 위의 시할아버지가 세 형제, 또 우리 딸 시아버지가 일곱 형제니까 얼마나 얼마나 종친이 이제 원 원. 아이가 너무 얼먹었어. 아주 착하기는 한다. 우리 딸 착하기는 한다. 우리 딸 착해서 참, 생일이 이제 하우스 이천 평 넘어 해 놓고 이제 밭도 사뭇 몇 천 평 있는데 욕심이. 얼먹었어, 얼먹었어.)

102014 @ 음.(음.)

102014 #1 부제칩이 가난 얼먹언. 잘못 풀아젼. 아이고, 가네 동창덜 선생 각시로 가민 고두레기[91] 놀곡게 봉급 타멍 호강시럽게 살암시녜게. 거 무슨 미친 지랄이니게. 막 뚤 잘못 풀아서. 경헨 막낸 또 지냥으로 연애헨에 저 서귀포 사름이영 연애헨에 이제 인천 살암서.(부잣집에 가니까 얼먹었어. 잘못 시집보냈어. 아이고, 걔네 동창들 선생 각시로 가면 '고두레기' 놀고 봉급 타면서 호강스럽게 살고 있지. 거 무슨 미친 지랄이니. 아주 딸 잘못 시집보냈어. 그리고 막내는 또 자기대로 연애해서 저 서귀포 사람이랑 연애해서 이제 인천 살고 있어.)

102014 @ 아이고, 얼굴 잘못 보큰게.(아이고, 얼굴 잘못 보겠네.)

102014 #1 얼굴 기자 일 년에 흔번.(얼굴 그저 일 년에 한번.)

102014 @ 일 년에 흔번.(일 년에 한번.)

102014 #1 막 고와, 우리 막내뚤은.(아주 고와, 우리 막내딸은.)

102014 @ 하.(하.)

102014 #1 아방도 어멍도 안 닮은 뚤이여게. 잘도 고운 뚤이여, 진짜. 아이, 진

91) 여기서 '고두레기'는 하는 일 없이 가만히의 의미로 쓰였다.

짜 막 곱덴덜 헤낫저.(아버지도 어머니도 안 닮은 딸이야. 매우 고운 딸이야, 진짜. 아이, 진짜 아주 곱다고들 했었어.)

102014 @ 겐 일헴수과? 아니민 애기만 키우멘?(그래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기만 키우고 있습니까?)

102014 #1 아이덜만 키왐저게. 아덜이 무시거니게. 뚤 세 개 아니냐, 아덜 하나. 네 개 애기.(아이들만 키우고 있어. 아들이 뭐니. 딸 세 개 아니냐, 아들 하나. 네 개 아기.)

102014 @ 애기 네 개.(아기 네 개.)

102014 #1 우리 ○○이도 뚤 두 개 나난, 뚤덜만 애기 하영 낫저.(우리 ○○이도 딸 두 개 낳으니까, 딸들만 아기 많이 낳았어.)

102014 @ 음.(음.)

102014 #1 저 우리 큰년도 뚤 두 개 나난 아덜 낳젠 허난 ᄉᆞ못 서울까지 강 검사허멍 헨에 아덜, 서 오누이고.(저 우리 큰딸도 딸 두 개 낳으니까 아들 낳으려고 하니까 사뭇 서울까지 가서 검사하면서 해서 아들, 서 오누이고.)

102014 @ 음.(음.)

102014 #1 족은년은 너 오누이고. 그놈의 아덜 헹 뭐 허는 거니?(작은딸은 네 오누이고. 그놈의 아들 해서 뭐 하는 거니?)

102014 @ 게난 아덜 낳젠 경 뭐 헌 거?(그러니까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뭐 한 거?)

102014 #1 으. 아덜 헹 무시거 허는 거니?(으. 아들 해서 뭐 하는 거니?)

102014 @ 아고게.(아이고.)

102014 #1 아고, 아고. 옛날이사 허주만은 이제사 아덜 헹 무시거 헐 거여만은 경헤라게. 원 원.(아이고, 아이고. 옛날에야 하지만 이제야 아들 해서 뭐 할 거여만 그러더라. 원 원.)

102014 @ 게도, 게도 아덜 나지난 큰소리쳐도 뒈쿠다게.(그래도, 그래도 아들 낳으니까 큰소리쳐도 되겠습니다.)

102014 #1 해 고셍헴시네게, 고셍헴서게. 애기덜 네 개 키우젠 헤 보라, 고생을 안 허느냐? 곤란도 허주게, 우리 족은년은. 우리 큰년은 이제 잔치 ᄆᆞᆫ 헨에 서 오누이 이제 아덜은 이제 군인 살안 대학 이제 올리가 졸업반산디 아덜 ᄒᆞ나난 졸업반산디 허난 원 걱정이 엇다게. 원 그거 하나 풀아 불민 걱정이 엇다만은. 우리 족은 건 ᄒᆞ나 풀아 보지도 안 허고 그거 네 개, 소나이 하나 이제. 선생인가 무시거 허는 체헴저만은 그거 네 개 키와 보라. 살아지크냐? 아이고.(해 고생하고 있어, 고생하고 있어. 아기들 네 개 키우려고 해 봐, 고생을 안 하느냐? 곤란도 하지, 우리 작은 딸은. 우리 큰딸은 이제 잔치 모두 해서 서 오누이 이제 아들은 이제 군인 살고 대학 이제 올해가 졸업반인지 아들 하나니까 졸업반인지 하니까 원 걱정이 없다. 원 그거 하나 팔아 버리면 걱정이 없다만. 우리 작은 건 하나 팔아 보지도 안 하고 그거 네 개, 소나이 하니 이제. 선생인가 뭐 하는 체하지만 그거 네 개 키워 봐. 살

수 있겠니? 아니고.)

102014 @ 게난 아덜덜도 장가가 가지고 막내 얘기는 들엇수다만은 큰아덜은 어디 살암수과?(그러니까 아들들도 장가가 가지고 막내 아기는 들었습니다만 큰아들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102014 #1 큰아덜 이제 중국 갓저게. 저 인천, 서울 살단 살단에 현대로 그 저 중국 간에 훼사 헤 놓난 우리 아덜이 첨 그디서 머리가 좋아낫저, 우리 큰아덜이나 셋아덜이나 머리가 좋안 허난, 얌전허고 허난에 저 공장을 메낀 거라. 중국 두 밧디 짓은 것 강 창고장으로 갓저게. 창고장으로 오 년.(큰아들 이제 중국 갔어. 저 인천, 서울 살다가 살다가 현대로 그 저 중국 가서 회사 해 놓으니까 우리 아들이 참 거기서 머리가 좋았었어, 우리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머리가 좋아서 하니까, 얌전하고 하니까 저 공장을 맡긴 거야. 중국 두 군데 지은 거 가서 창고장으로 갔어. 창고장으로 오 년.)

102014 @ 으, 공장장예?(으, 공장장요?)

102014 #1 공장장, 공장장 참.(공장장, 공장장 참.)

102014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2014 #1 공장장으로 갓주. 경헨에 강 살고 셋놈은 이제 저 마산 살암저. 엘지.(공장장으로 갔지. 그래서 가서 살고 둘째 아들은 이제 저 마산 살고 있어. 엘지.)

102014 @ 게난 중국 가고는 식게 때나.(그러니까 중국 가고는 제사 때나.)

102014 #1 식게 때엔 못 온다게.(제사 때엔 못 온다.)

102014 @ 기지예?(그렇죠?)

102014 #1 쳇 번 서울 살 땐 식게 믄 마타 가낫저게.(첫 번 서울 살 땐 제사 모두 맡아 갔었어.)

102014 @ 아, 마탕 가난?(아, 맡아서 갔었어?)

102014 #1 어. 믄딱 마타 갓저게. 원 마타 간에 서울서 제서헷저게. 서울서 허민 우리 족은년도 잇고 셋놈도 잇고 허난 그디서 지네만 헹 먹엇주게. 겐 허단에 중국을 가게 뒈난 중국 강 제서헤 먹으쿠다. 중국을 가게 뒈난 중국 제서 가졍 가쿠다 허난. 아부지가 아니 놈의 나라 가근에.(어. 모두 맡아서 갔어. 원 맡아 가서 서울에서 제사했어. 서울에서 하면 우리 작은딸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들만 해서 먹었지. 그래서 하다가 중국을 가게 되니까 중국 가서 제사해서 먹겠어요. 중국을 가게 되니까 중국 제사 가져서 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니 남의 나라 가서.)

102014 @ 그니까.(그러니까.)

102014 #1 아니, 그때 삼 년 살켄 헌 놈이 저거여게.(아이, 그때 삼 년 살겠다고 한 놈이 저거야.)

102014 @ 으.(으.)

102014 #1 아니 놈의 나라 가근에 어떵 이제 제설 허느니? 이디 궨당덜토 잇고

이디서 기자 메만 흔 직 거려 놔당 삼 년사 못 허느냐? 삼 년만 살앙 올 거건 이디 내불어 뒁 가렌 허난 경허난 내불어 뒁 가난 작년엔 멩질 때엔 느량 온다. 팔월 멩질, 정월 멩질엔 온다게. 경허난.(아니 남의 나라 가서 어떻게 이제 제사를 하니? 여기 권당들도 있고 여기서 그저 메만 한 술 떠 놓아다가 삼 년이야 못 하겠니? 삼 년만 살아서 올 거면 여기 내버려 두고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가니까 작년에는 명질 때엔 늘 온다. 팔월 명질, 정월 명질에는 온다. 그러니까.)

102014 @ 식게만 가져가고 멩질은 여기서 헤난?(제사만 가져가고 명질은 여기서 했었어?)

102014 #1 어, 어. 여기서 멩질은 허곡 게난 오란 어머니 이추룩 대수술 여러 번 받고 무시거 헤 나난 움직거리지도 못허고 이제도 못 허고 중국이라도 강 허쿠다. 중국은 더 살아사 험직허우다 허멍.(어, 어. 여기서 명질은 하고 그러니까 와서 어머니 이처럼 대수술 여러 번 받고 뭐 하고 나니까 움직거리지도 못하고 이제도 못 하고 중국이라도 가서 하겠습니다. 중국은 더 살아야 함직합니다 하면서.)

102014 @ 음.(음.)

102014 #1 이제 기자 글로 퉤직험직허다, 글로.(이제 그저 그리로 퇴직함직하다, 그리로.)

102014 @ 음.(음.)

102014 #1 그자 글로. 일로 봉급 타고 글로 봉급 타고 험은 헴저게. 경허난.(그저 그리로. 이리로 봉급 타고 그리로 봉급 타고 하기는 해. 그러니까.)

102014 @ 음, 음 좋수다게.(음, 음 좋습니다.)

102014 #1 경헨 식게 멩질은 이디서 기자 나가.(그래서 제사 명질은 여기서 그저 내가.)

102015 @ 게난 메누리덜은 좋고?(그러니까 며느리들은 좋고?)

102015 #1 막 좋아.(아주 좋아.)

102015 @ 다행이우다.(다행입니다.)

102015 #1 메누린 좋나게. 우리 큰메누리쯤은 육지 아인디 막 좋아. 볼 나위 엇이 좋나. 나 이디 거민 나양으로 돈 써진다만은 둘둘이 날ᄀᆞ라 일허지 말렌 허멍 둘둘이 통장에 돈 삼십만 원 놓나. 똑똑 놓나.(며느린 좋아. 우리 큰며느리쯤은 육지 아인데 아주 좋아. 볼 나위 없이 좋아. 나 여기 거면 나대로 돈 쓸 수 있지만 다달이 나보고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달이 통장에 돈 삼십만 원 넣어. 꼭꼭 넣어.)

102015 @ 아이고, 좋은게.(아이고, 좋네.)

102015 #1 똑똑 삼십만 원썩 놓나. 경헨.(꼭꼭 삼십만 원씩 넣어. 그래서.)

102015 @ 착헌게.(착하네.)

102015 #1 막 착헌다. 우리 큰메누린. 경헨 셋메누린 제줏아이고.(아주 착한다. 우리 큰며느린. 그리고 둘째 며느린 제줏아이고.)

102015 @ 음.(음.)

102015 #1 큰메누린 공부허레 보낸 놔두난 연애헤서라덜, 둘리가.(큰며느리는 공

부하라고 보내어 놔두니까 연애했더라, 둘이.)

102015 @ 경허는 거주.(그러는 거지.)

102015 #1 겨난 우리 권당덜은 강 떼렌 허연 떼레도 올라가 왓주.(그러니까 우리 권당들은 가서 떼라고 해서 떼러도 올라갔다 왔지.)

102015 @ 무사 제주도 메누리 헤야 뒐 거난?(왜 제주도 며느리 해야 될 거니까?)

102015 #1 으.(으.)

102015 @ 암튼 어무니들예, 제주도 어무니들예 다.(아무튼 어머니들요, 제주도 어머니들요 다.)

102015 #1 방상에서가 욕을 헤라게. 우리 방상 막 널르다게. 스못 우리 어디 저, 우리 오칩이 제주도 메누리, 육지 메누리 헌 디 잇이넨 허멍 떼렌 허난 떼레 육지 할망[92] 하르방[93]이 올라가 와시네.(종친에서가 욕을 하더라. 우리 종친 아주 넓다. 사뭇 우리 어디 저, 우리 오씨 집안 제주도 며느리, 육지 며느리 한 데 있냐고 하면서 떼라고 하니까 떼러 육지 할머니 할아버지 올라갔다 왔어.)

102015 @ 으.(으.)

102015 #1 올라가난이 언강이 요놈이 어떵사 좋는지 난 이제 치메 입은 것만 제주도 메누리 허켄 허난 어무니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스못 우리 메누리 나신더레 볼 나위 엇이 빌어라게.(올라가니까 애교가 요놈이 어떻게 좋은지 난 이제 치마 입은 것만 제주도 며느리 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이번만 살려주게요, 이번만 살려주세요. 사뭇 우리 며느리 나에게 볼 나위 없이 빌더라.)

102015 @ 아.(아.)

102015 #1 어머니 이번만 살려주세요. 날 폭허게 안앙.(어머니 이번만 살려주세요. 날 폭 안아서.)

102015 @ 으.(으.)

102015 #1 겡헷단에 이제 하도 메누리가 착허난 나가 이젠 또 수술허레 갓단 나가 대신 빌어시네게.(그랬다가 이제 너무 며느리가 착하니까 내가 이젠 또 수술하러 갔다가 내가 대신 빌었어.)

102015 @ 하하.(하하.)

102015 #1 그때 떼젠 헤난 거.(그때 떼려고 했던 거.)

102015 @ 미안허덴?(미안하다고?)

102015 #1 으. 미안허덴 이젠 사과허난. 어머니 미안허덴 안 헤도 이녁 이해 가노렌. 게난 어떵헨 이해 가지크니? 난 막 느 애돌암시카 부덴 이제 나 사과허노렌 골으난 경 골아라. 이제 제주도 사름은 제주도 메누리 허젠 허고 육지 사름은 육지 메누리 허젠 허고, 나 그런 거 다 이해헙니덴 경허멍 곧건, 경 느가 셍각허민 고맙덴 헤근에 경 오해 풀어시네게.(으. 미안하다고 이젠 사과하니까. 어머니 미안하다

92) '할망'은 표준어의 '할머니'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 자신을 가리킨다.
93)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고 안 해도 자기 이해 간다고. 그러니까 어떡해서 이해 갈 수 있니? 난 아주 너 애달고 있을까 봐 이제 나 사과한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더라. 이제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며느리 하려고 하고 육지 사람은 육지 며느리 하려고 하고, 나 그런 거 다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말하니, 그렇게 네가 생각하면 고맙다고 해서 그렇게 오해 풀었어.)

102015 @ 아이구, 게도 어무니도 사과허난.(아이고, 그래도 어머니도 사과하니까.)

102015 #1 멩질에 돌앙 오라시난 ᄉᆞ뭇 우리 어머닌, 우리 시어머닌 이디 앚앗당 저 그릇 ᄆᆞᆫ 내놓곡 무시거 허는 거 ᄆᆞᆫ 봣당 느 알앙 허렌 ᄀᆞᆯ앗당 나 무사 그 메누리 허켄 헙디겐 허멍 시어멍과 쌉고 헤시네. 나 그 메누리 앞이서. 나 무사 그 메누리 허켄 헙디과? 아덜ᄀᆞ라 돌앙 오지 말렌 허난 돌앙 완게.(명질에 데리고 오니까 사뭇 우리 어머닌, 우리 시어머닌 여기 앉았다가 저 그릇 모두 내놓고 뭐 하는 거 모두 봤다가 너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고 내가 왜 그 며느리 하겠다고 했냐고 하면서 시어머니와 싸우고 했어. 나 그 며느리 앞에서. 내가 왜 그 며느리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들보고 데리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데리고 왔어.)

102015 @ 하하.(하하.)

102015 #1 돌아오지 말렌 허난 돌앙 오난, 어머니 제줏메누리 못지 안허게 아이가 궨찬헌 거라. 우리 아덜이 막 착헌 아이여게. 소문나게 착헌 아이여.(데려오지 말라고 하니까 데리고 오니까, 어머니 제줏며느리 못지 않게 아이가 괜찮은 거야. 우리 아들이 아주 착한 아이야. 소문나게 착한 아이야.)

102015 @ 예.(예.)

102015 #1 경허난 이디서도 쭉 허게 장학생으로 서고 학교 장학생으로 허고 선생덜 ᄆᆞᆫ 촞아오곡. 아이가 얌전헤낫저, 아부지가 얌전허난. 그추룩 헨 헌디, 아니 대학교 ᄆᆞ칠 시대 뒈 가난 새각시 구해 주켄 이디서도 허고 저디서도 허곡 새각시 구헤 주켄 헤라게. 우리 돈 엇어도게. 사름 조난. 아, 그추룩 허난 경 그걸 듣젠 허주 육지 메누리 강 그 육지 가근에 연애허는 처레 알아시냐?(그러니까 여기서도 쭉 하게 장학생으로 서고 학교 장학생으로 하고 선생들 모두 찾아오고. 아이가 얌전했었어, 아버지가 얌전하니까. 그처럼 해서 했는데, 아니 대학교 마칠 시대 돼 가니까 새색시 구해 주겠다고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새색시 구해 주겠다고 하더라. 우리 돈 없어도. 사람 좋으니까. 아, 그처럼 하니까 그렇게 그걸 들으려고 하지 육지 며느리 가서 그 육지 가서 연애하는 줄 알았니?)

102015 @ 그니까예.(그니까요.)

102015 #1 나 그땐 진짜 왁왁헷저게. 경헨 떼레 올라강 떼도 못허곡 헌디, 원 우리 궨당덜토 ᄆᆞᆫ 육지 메누리 헷저.(나 그때는 진짜 캄캄했어. 그래서 떼러 올라가서 떼지도 못하고 했는데, 원 우리 권당들도 모두 육지 며느리 했어.)

102015 @ 하하. 그 이후에? 시작이 뒈 불엇구나, 여기서.(하하. 그 이후에? 시작이 돼 버렸구나, 여기서.)

102015 #1 우리 삼춘, 이제 우리 흔디 먹는 권당도 육지 메누리 헷저게. 아덜 저 학교 보낸 놔두난 연애허난.(우리 삼촌, 이제 우리 같이 먹는 권당도 육지 며느리 했어. 아들 저 학교 보내서 놔두니까 연애하니까.)

102015 @ 예.(예.)

102015 #1 겡헨 육지 메누리 허고 첨 우리 방상에도 문 육지 메누리덜 하다.(그래서 육지 며느리 하고 참 우리 종친에도 모두 육지 며느리들 많다.)

102015 @ 예.(예.)

102015 #1 막 하, 이제.(아주 많아, 이제.)

102015 @ 어쩔 수 엇수다게.(어쩔 수 없습니다.)

102015 #1 어, 어쩔 수 엇어. 게난 지네 좋으민 마는 거게. 이젠 생각헨 보난이.(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 좋으면 마는 거. 이젠 생각해 보니까.)

102015 @ 예.(예.)

102015 #1 나도 헛뒈게 미움을 받젠 헤진 거주. 겐 늙어 가민 미움이나 받아질 건가 헨 사과헷주게.(나도 헛되게 미움을 받으려고 한 거지. 그래서 늙어 가면 미움이나 받을 건가 해서 사과했지.)

102015 @ 예, 사과헌 건 다행이우다.(예, 사과한 건 다행입니다.)

102015 #1 어게.(어.)

102015 @ 잘헷수다, 잘헷수다.(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102015 #1 게난 애들지 안허궈렌 헤라. 애들지, 어머니 애들지 안헷어요. 이제 제주 어른덜은 제주 메누리 허젠 허는 건 사실 아닙니까, 허멍.(그러니까 애달지 않았다고 하더라. 애달지, 어머니 애달지 않았어요. 이제 제주 어른들은 제주 며느리 하려고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하면서.)

102015 @ 기지예. 제주 사름덜.(그렇죠. 제주 사람들.)

102015 #1 경헌디 이 동네 오민이 우리 메누리만이 착헌 아이 엇덴 곧나. 우리 올레[94] 안에.(그런데 이 동네 오면 우리 며느리만큼 착한 아이 없다고 말해. 우리 '올레' 안에.)

102015 @ 아.(아.)

102015 #1 막 칭찬받아.(아주 칭찬받아.)

102015 @ 아.(아.)

102015 #1 아이가 경 좋나게. 아이고, 지네 아멩 우리 셋아덜이 월급 하영 타도 셋메누리 경 안 허는디 요건 오면이 시아부지 나시, 우리 시어머니 산 때 우리 족은놈 산 때 뚜로뚜로 봉투에 문 주고 첨, 나 뚜로 주곡. 난 백만 원 준다게. 멩질에 왕.(아이가 그렇게 좋아. 아이고, 자기네 아무리 우리 둘째 아들 월급 많이 타도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요건 오면 시아버지 몫, 우리 시어머니 살았을 때 우리 작은아들 살았을 때 따로따로 봉투에 모두 주고 참, 나 따로 주고. 난 백만 원 준다. 명질에 와서.)

94)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말한다.

102015 @ 아덜 버는 것만으로도 경 허는 거?(아들 버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하는 거?)

102015 #1 어.(어.)

102015 @ 자기도 버는 거?(자기도 버는 거?)

102015 #1 원 아덜 버슨 것만.(원 아들 번 것만.)

102015 @ 아이고.(아이고.)

102015 #1 아덜 버슨 것만 경 헌다게. 경 허영 첨 오랑. 요자기도 사돈 아팡 나 육지 가 왓저, 요번에. 육지 가시난 아버님 드리레 허멍 돈 이십만 원 주건, 아이고 돈 느 나 통장에 매덜에 놓는 거 그거면 우리 쓰켄 골아 봐도 아부지 뚜로 똑 드리레 허멍 줜.(아들 번 것만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서 참 와서. 요전에도 사돈 아파서 내가 육지 갔다 왔어, 요전에. 육지 가니까 아버님 드리라고 하면서 돈 이십만 원 주건, 아이고 돈 너 내 통장에 매달 넣은 거 그거면 우리 쓰겠다고 말해 봐도 아버지 따로 꼭 드리라고 하면서 줬어.)

102015 @ 음.(음.)

102015 #1 우리 메누리 첨 착헌 아이라. 착헌다. 볼 나위 엇이 착허여. 이디 메누린 경 안헌다. 기자 오민 기자 날 안앙 스못. 볼 나위 엇이 안앙 허곡.(우리 며느리 참 착한 아이야. 착해. 볼 나위 없이 착해. 여기 며느리 그렇지 않아. 그저 오면 그저 날 안아서 사뭇. 볼 나위 없이 안아서 하고.)

102015 @ 예.(예.)

102015 #1 볼 나위 엇이 안앙.(볼 나위 없이 안아서.)

102015 @ 사위덜도 좋고?(사위들도 좋고?)

102015 #1 으. 아이고, 우리 사위덜은 착허주. 막 착허여, 우리 사위덜.(으. 아이고, 우리 사위들은 착하지. 아주 착해, 우리 사위들.)

102015 @ 아이고, 복 받아신게.(아이고, 복 받았네.)

102015 #1 아니, 원 우리 사위도 첨 놈덜은 영헴저 정헴저 이상케. 우리 사위도 이 놈덜은 뚤 가근에 두가시가 싸와지민 친정에도 오는 뚤이 하. 왓다근에 둘레 와시민 보내곡 무시거 허는디 이거 원 시집보내난 집이, 친정에 흔번 와 보지 안혜영 두가시 원 싸웁는 그적이 엇어.(아니, 원 우리 사위도 참 남들은 이런다 저런다 이상케. 우리 사위도 남들은 딸 가서 부부가 싸우면 친정에도 오는 딸이 많아. 왔다가 데리러 왔으면 보내고 뭐 하는데 이건 원 시집보내니까 집에, 친정에 한번 와 보지 않고 부부 원 싸우는 기척이 없어.)

102015 @ 예.(예.)

102015 #1 일절 쌉는 그적이 엇나.(일절 싸우는 기척이 없어.)

102015 @ 예, 예. 게난 어무니 아부지안티 본을 받은 건게게.(예, 예.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본을 받은 거네.)

102015 #1 원 어떵사 헤신디 원.(원 어떻게 했는지 원.)

3. 밭일

103001 @ 옛날에 이 토평에서 밧일은 어떤 밧일덜 헤낫수과?(옛날에 이 토평에서 밭일은 어떤 밭일들 했었습니까?)

103001 #1 어떤 밧일을 헤여게. 보리 갈고.(어떤 밭일을 해. 보리 갈고.)

103001 @ 보리 갈고.(보리 갈고.)

103001 #1 보리 갈고 이제 감저 주장으로 감저 싱경 감저에 돈을 삿저.(보리 갈고 이제 고구마 주로 고구마 심어서 고구마에 돈을 샀어.)

103001 @ 음.(음.)

103001 #1 감저, 고구마. 옛날 말론. 저 이젠 첨 고구마엔 헷저만은 옛날에사 고구마가 어디 있느니, 첨 감저.(고구마, 고구마. 옛날 말로는. 저 이제는 참 고구마라고 했지만 옛날에야 고구마가 어디 있니, 참 고구마.)

103001 @ 게난 옛날 말로 골아 주십서.(게난 옛날 말로 말해 주세요.)

103001 #1 으, 감저 싱거근에 그 무지 마다리에 공장에 강 감저 풀앙 살아시네.(으, 고구마 심어서 그 무지 마대에 공장에 가서 고구마 팔아서 살았어.)

103001 @ 으.(으.)

103001 #1 공장에 강.(공장에 가서.)

103001 @ 게난 주로 헤난 건 보리랑 감저랑?(그러니까 주로 했던 건 보리랑 고구마랑?)

103001 #1 으, 조.(으, 조.)

103001 @ 조. 또?(조. 또?)

103001 #1 경 허단에 그 멧 년 후엔 그 밀감남을 이제 이디 잘사는 사름덜이 일본서 밀감 묘종을 오난 잘사는 사름덜은이 우영에 밀감남을 싱거라게. 게난 우리ᄀᆞ튼 사름은 밧도 엇고 그런 무시거 허난 밀감남을 못 싱것단에 이제 막 널어져 가사 우린 그걸 헷저게.(그렇게 하다가 그 몇 년 후에는 그 밀감나무를 이제 여기 잘사는 사람들이 일본에서 밀감 모종을 오니까 잘사는 사람들은 터앝에 밀감나무를 심더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밭도 없고 그런 뭐 하니까 밀감나무를 못 심었다가 이제 마구 널려 가야 우린 그걸 했어.)

103001 @ 음.(음.)

103001 #1 경헨 헤 놓난이 우린 늦게 늦게 농서 오래 헤 먹고 농서 오래 헤 먹고 헷저. 보리 조만 헷저, 보리, 조만. 아이고, 우리 살아난 말 ᄀᆞᆯ앙 무시거 허느니. 우린 엇이난 다른 사람, ᄀᆞᆺ사 성님도 이제 헷주만은이 우린 본래 엇어 놓난 보리 남 새에 쏠 엇이난 보리 가근에 비영, 아멩 ᄀᆞᆯ아도 요샛 아이덜 몰른다게.(그래서 해 놓으니까 우린 늦게 늦게 농사 오래 해 먹고 농사 오래 해 먹고 했어. 보리 조만 했어, 보리, 조만. 아이고, 우리 살았던 말 해서 뭐 하니. 우린 없으니까 다른 사람, 아까 형님도 이제 했지만 우린 본래 없어 놓으니까 보리 나는 사이에 쌀 없으

니까 보리 가서 베어서, 아무리 말해도 요새 아이들 모른다.)

103001 @ 으.(으.)

103001 #1 그 보리 비어당 영헹 조졍근에 불에 그실영 발로 보병 그거 솖앙 먹고 헷어.(그 보리 베어다가 이렇게 쪼아서 불에 그을려서 발로 비벼서 그거 삶아서 먹고 했어.)

103001 @ 보리?(보리?)

103001 #1 으, 보리썰.(으, 보리쌀.)

103001 @ 보리 익기 전에?(보리 익기 전에?)

103001 #1 으. 어느 저르에. 아이고, 우리 경허노렌 허난 이제 보리 ᄆᆞᆯ구레에 나난 기자 ᄆᆞᆯ구레에 보리 강 헤당 그 ᄆᆞᆯ방에서 이제 수눌엉, 동네 사름 수눌엉 ᄆᆞᆯ방에에 ᄆᆞᆫ 그 보릴 ᄲᆞᆺ아시네게.(으. 어느 겨를에. 아이고, 우리 그러느라고 하니까 이제 보리 연자매에 나니까 그저 연자매에 보리 가서 해다가 그 연자매에서 이제 품앗이해서, 동네 사람 품앗이해서 연자매에 모두 그 보릴 빻았어.)

103001 @ 으.(으.)

103001 #1 ᄲᆞᆺ아근에 쏠 나민 그자 그거 ᄀᆞ레에, ᄆᆞᆯ령 거펴시네. 푸는체에 헤근에 체 헤영 푸닥푸닥 치곡. 아이고, 그거 치여근에 이제 ᄆᆞᆫ ᄆᆞᆯ령 얼멩이로 이제 ᄆᆞᆫ 치여근에이 그거 이제 ᄆᆞᆯ령 또 그 쏠을 내우젠 허민 ᄀᆞ레, 우리 ᄀᆞ레 저디 놔두난 도둑맞안. 옛날 ᄀᆞ레. 옛날 ᄀᆞ레 ᄒᆞᆫ 배 놔두난 도둑맞안. 아져가 불언. 경헨 그 ᄀᆞ레에서 거피멍 먹어시네게. 아이고, 우리 살아난 말사 ᄀᆞᆯ앙 무시거 허느니?(빻아서 쌀 나면 그저 그거 맷돌에, 말려서 거피했어. 키에 해서 체 해서 푸닥푸닥 치고. 아이고, 그거 쳐서 이제 모두 말려서 어레미로 이제 모두 쳐서 그거 이제 말려서 또 그 쌀을 내려고 하면 맷돌, 우리 맷돌 저기 놔두니까 도둑맞았어. 옛날 맷돌. 옛날 맷돌 한 쌍 놔두니까 도둑맞았어. 가져가 버렸어. 그래서 그 맷돌에서 거피하면서 먹었어. 아이고, 우리 살았던 말이야 해서 뭐 하니?)

보리농사

103002 @ 게난 보리농서 지어난 거부터 먼저 들어보쿠다.(그러니까 보리농사 지었던 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103002 #1 어, 어.(어, 어.)

103002 @ 쭉 허게 보리농서 지어난 거.(쭉 하게 보리농사 지었던 거.)

103002 #1 어게, 어게.(어, 어.)

103002 @ 보리농사 짓젠 허민 무슨 준비를 해야 헙니까?(보리농사 지으려고 하면 무슨 준비를 해야 합니까?)

103002 #1 아이고, 무슨 준비허느니게. 걸름, 도새기 질뢍. 도새기 질뢍 그 걸름 우리대로 마당더레 ᄆᆞᆫ 쉐스랑 헤영 ᄀᆞᆯ체로 담으멍 장남은 들르고 우린 들르지 못허민 그걸 이제 지게로 지어시네. 이제 남저덜은, 이제 하르방[95]은 그 걸름 헤영 ᄀᆞᆯ

95)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체레 담아. 우린 이제 지어, 마당에 놔. 이제 그걸 쉐로 볼려. 그걸, 그걸 이제.(아이고, 무슨 준비하니. 거름, 돼지 길러서. 돼지 기르고 그 거름 우리대로 마당에 모두 쇠스랑 해서 삼태기로 담으면서 장정은 들고 우린 들지 못하면 그걸 이제 지게로 지었어. 이제 남자들은, 이제 할아버지는 그 거름 해서 삼태기에 담아. 우린 이제 지어, 마당에 놔. 이제 그걸 소로 밟아. 그걸, 그걸 이제.)

103003 @ 걸름을?(거름을?)

103003 #1 어게. 걸름을 보리씨 삐영 젓어사 밧디 강 똑똑똑 밧 갈앙 고랑 나민 이제 고랑더레 쭉 허게 그 돗걸름을 허당 ᄆᆞ물 또 ᄆᆞ물 가느네게?(어. 거름을 보리씨 뿌려서 저어야 밭에 가서 똑똑똑 밭 갈아서 고랑 나면 이제 고랑에 쭉 하게 그 돼지거름을 해다가 메밀 또 메밀 갈잖아?)

103003 @으.(으.)

103003 #1 ᄆᆞ물 갈민 이녁 밧 엇인 사름은 놈의 밧 갈앙. 그 ᄆᆞ물 헹 건평 ᄆᆞ물 범벅 헹, 감저 놓고 ᄆᆞ물 범벅. 놈삐도 놧당 감저도 놧당 헹 가민, 그 돗걸름 허단, 물이 어디 잇느니?(메밀 갈면 자기 밭 없는 사람은 남의 밭 갈아서. 그 메밀 해서 거피해서 메밀 범벅 해서, 고구마 넣고 메밀 범벅. 무도 놨다가 고구마도 놨다가 해서 가면, 그 돼지거름 하던, 물이 어디 있니?)

103003 @으.(으.)

103003 #1 나도 물허벅[96] 졍 저 돈내코[97] 물 질레이. 아이고, 나 아이덜 키와 올 때 그 물 질어다근에 조반 헹 먹으민, 밥에 감저 놓민 아이덜 둥그리지 안허느냐?(나도 '물허벅' 져서 저 돈내코 물 길러. 아이고, 나 아이들 키워 올 때 그 물 길어다가 조반 해서 먹으면, 밥에 고구만 넣으면 아이들 굴리지 않니?)

103003 @ 예.(예.)

103003 #1 이젠 맛 좋게 먹을 거여. 그땐 둥그렁 ᄆᆞᆫ. 에염더레 시레기 놓곡, 쏠 엇이난. 쏠 족앙. 이녁 밧디 농서지어도 족앙이. 경허민 이제 그거 ᄆᆞᆫ 둥그리멍 허는 거 허영 그 ᄆᆞ물 범벅 헹 우리 그 물이 어디 셩 손 씻느니? 모욕도 아니 헹 살앗저.(이젠 맛 좋게 먹을 거야. 그땐 굴려서 모두. 옆에 시래기 넣고, 쌀 없으니까. 쌀 적어서. 자기 밭에 농사지어도 적어서. 그러면 이제 그거 모두 굴리면서 허는 거 해서 그 메밀 범벅 해서 우리 그 물이 어디 있어서 손 씻니? 목욕도 안 하고 살았어.)

103003 @ 으.(으.)

103003 #1 모욕, 물 어디 시니? 돈내코 강 나 물 ᄒᆞᆫ 허벅 졍 오민 우리 헤영 먹음이 어려워나시네게. 야, 이추룩 살기 존 때도 있느냐? 막 고생, 고생허멍 헨 살아오랑 이제 미깡낭을 나 가난이 ᄒᆞ꼼 삶이 좋아라게.(목욕, 물 어디 있니? 돈내코 가서 내가 물 한 허벅 지고 오면 우리 해서 먹기가 어려웠었어. 야, 이처럼 살기 좋은 때도 있니? 아주 고생, 고생하면서 해서 살아와서 이제 귤나무가 나와 가니까 조금

96) '물허벅'은 '물허벅'을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말한다.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는 아주 좁다.
97) '돈내코'는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계곡이다.

삶이 좋더라.)

103003 @ 음.(음.)

102016 #1 게난 난 나 시대보단 우리 어머니네 시대, 우리 시어머니네 시대, 우리 친정어머니네 시대 얼마나 고생헤시니게. 먹어보지도 못허고 써 보지도 못허고. 경헌디 우리 대에 경헤도 요런 존 세상도 보곡 애기덜 공부시켱 ᄆᆞᆫ 육지 내놓곡 경헨 이제 미깡남을 나 가난, 미깡남에 돈이 ᄒᆞ쏠 나 가난 애기덜 공부시키고 무시거 헤시녜. 옛날에사 돈이 어디 있느니게. 우리 엇인 사름은 못 살 때엿저게. 게난 감저 헤영 또 놈의 밧이라도 싱그민, 옛날에 그 마다리 이제는 저 저런 마다리가 잘 나와나신디 어려운 마다리랏저. 그것에 헤여근에 저 이제 이디 무죽시 감저 공장 난 때난 우리 그것 강 풀민. 어느 때랑 도새기 질뢍 풀아근에. 우리 돗통 저디 치와벳저만은 도새기 질뢍 아이고, 요 도새길 어느 때랑 잘 멕영 풀아근에 살리 헷저게.(그러니까 난 내 시대보다는 우리 어머니네 시대, 우리 어머니네 시대, 우리 친정어머니네 시대 얼마나 고생했니. 먹어보지도 못하고 써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 대에 그래도 요런 좋은 세상도 보고 아기들 공부시켜서 모두 육지 내놓고 그래서 이제 귤나무 나와 가니까, 귤나무에 돈이 조금 나와 가니까 아기들 공부시키고 뭐 했어. 옛날에야 돈이 있니. 우리 없는 사람은 못 살 때였어. 그러니까 고구마 해서 또 남의 밭이라도 심으면, 옛날에 그 마대 이제는 저 저런 마대가 잘 나왔는데 어려운 마대였어. 그것에 해서 저 이제 여기 '무죽시' 고구마 공장 나온 때니까 우리 그것 가서 팔면. 어느 때는 돼지 길러서 팔아서. 우리 돼지우리 저기 치워 버렸지만 돼지 길러서 아이고, 요 돼질 어느 때면 잘 먹여서 팔아서 살까 했어.)

102016 @ 으.(으.)

102016 #1 게난 옛날 살아난 거 이제 우리 아이덜ᄀᆞ라 ᄀᆞᆯ아도, 라면이라도 끌영 먹을 거 아니꽈?(그러니까 옛날 살았던 거 이제 우리 아이들보고 말해도, 라면이라도 끓여서 먹을 거 아닙니까?)

102016 @ 하하하.(하하하.)

102016 #1 옛날에 머리 못 쓰난 그거 아니과? 그추룩 ᄀᆞᆯ아. 복통 나.(옛날에 머리 못 쓰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처럼 말해. 복통 나.)

102016 @ 게난.(그러니까.)

102016 #1 라면도 먹어 봐시민 헷저게.(라면도 먹어 봤으면 했어.)

102016 @ 아.(아.)

102016 #1 경허단 첨 이젠 대통령 삶이주, 바로. 먹구정 허민 먹을 거, 쓰구정 허민 쓸 거. 이제 우리 어무니네 ᄋᆞ든, 아흔ᄒᆞ나에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갓저. 이디 밧거리 살단.(그러다가 참 이젠 대통령 삶이지, 바로. 먹고 싶으면 먹을 거, 쓰고 싶으면 쓸 거. 이제 우리 어머니네 여든, 아흔하나에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갔어. 여기 바깥채에 살다가.)

102016 @ 으.(으.)

102016 #1 경헨 돌아갓저만은 고생 고생헷저게. 고생헨 살앗저. 놈의 일, 나도

놈의 일, 게난 놈의 감저, 나 경허난 지금이 문 벵신 뒈연. 놈의 감저 가근에, 아침이 가민 구분허레. 경 감저 싱거근에이.(그렇게 돌아갔지만 고생 고생했어. 고생해서 살았어. 남의 일, 나도 남의 일, 그러니까 남의 고구마, 나 그러니까 지금 모두 병신 되었어. 남의 고구마 가서, 아침에 가면 구분하러. 그렇게 고구마 심어서.)

102016 @ 으.(으.)

102016 #1 아이고, 이제는 미깡 강 ᄒᆞ루 타민 삼시 ᄉᆞ시 간식이여 무시거 헷저만은 그땐인 쓴 ᄂᆞ물 헹 뒌장 놩 국 끌령근에 그거 주민. 배고픈 때난이.(아이고, 이제는 귤 가서 하루 따면 삼시 사시 간식이며 뭐 했지만 그땐 쓴 나물 해서 된장 넣어서 국 끓여서 그거 주면. 배고픈 때니까.)

102016 @ 으.(으.)

102016 #1 그거 먹어근에 헤영. 나도 첨 우리 하르방[98] 아무것도 엇인 디 오랏저게.(그거 먹어서 해서. 나도 참 우리 할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데 왔어.)

102016 @ 으.(으.)

102016 #1 엇인 디 오난, 몸뚱이만 잇인 디 오랏저, 기자. 경헌디 기자 나도 아니 살젠도 헤 보고. 경헌디 하르방이 막 고집을 헤영, 막 고집헤라게.(없는 데 오니까, 몸뚱이만 있는 데 왔어, 그저. 그런데 그저 나도 안 살려고도 해 보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마구 고집을 해서, 마구 고집하더라.)

102016 @ 으.(으.)

102016 #1 고집헤여근에 이 첨, 이 올레 안에 문 싸와도 우리 아이덜 경 ᄀᆞᆯ아낫저. 어무니, 어무니 우린 무사 안 싸왐수과, 무사 안 싸왐수과? 우리 하르방이 어질언.(고집해서 이 참, 이 골목 안에 모두 싸워도 우리 아이들 그렇게 말했었어. 어머니, 어머니 우리는 왜 안 싸웁니까, 왜 안 싸웁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어질어.)

102016 아.(아.)

102016 #1 귀아지 한번 안 맞은 사름 나. 이 콩으로 한번 안 태운 사름은 나여게.(귀퉁이 한번 안 맞은 사람 나. 이 콩으로 한번 안 태운 사람은 나야.)

102016 @ 아이고.(아이고.)

102016 #1 첨, 이 ᄉᆞ방에 들어보라, 첨.(참, 이 사방에 들어봐라, 참.)

102016 @ 그것도 복이우다.(그것도 복입니다.)

102016 #1 어. ᄀᆞᆺ사 어른도. 나 그디 웃동네 살단 이디 시집왓저게. ᄀᆞᆺ사 어른네 동네 살단. 경헨 와신디 ᄀᆞᆺ사 어른도 친허게 우리 첨 우리 시어머니 웨가로 ᄒᆞᆯ 부뜬 디고 헌 어른인디 첨 아무것도 엇인 몸뚱이만 잇인 사름신디 완에 기자 어떵어떵 애기덜이 착허난 경헤도 게난 지네 밥벌인 강 헴저게.(그래. 아까 어른도. 나 거기 윗동네 살다가 여기 시집왔어. 아까 어른네 동네 살다가. 그래서 왔는데 아까 어른도 친하게 우리 첨 우리 시어머니 외가로 조금 붙은 데이고 한 어른인데 참 아무것도 없는 몸뚱이만 있는 사람에게 와서 그저 어떻게 어떻게 아기들이 착하니까 그래도 자기네 밥벌이는 가서 하고 있어.)

98)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102016 @ 음.(음.)

102012 #1 큰놈은 저 현대에 갓단에 이제 중국, 사무장 헤 먹고, 계장 헤 먹고 그디서 수뭇 믄 헤 먹단 이제 마지막으로 창고장으로 헨에 저 중국 간에 저 창고 그디 강 훼사 흔두 밧디 짓으난, 이거 오년.(큰놈은 저 현대에 갔다가 이제 중국, 사무장 해 먹고, 계장 해 먹고 거기서 사뭇 모두 해 먹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창고장으로 해서 저 중국 가서 저 창고 거기 가서 회사 한두 군데 지으니까, 이거 오년.)

102012 @ 음.(으.)

102012 #1 오 년 살앗저. 그자 글로 퉤직헐 거여. 글로 퉤직혜 가고 우리 셋아덜은 엘지에.(오 년 살았어. 그저 그리로 퇴직할 거야. 그리로 퇴직해 가고 우리 둘째 아들은 엘지에.)

102012 @ 아이고, 좋은 데 들어가신게, 다덜.(아이고, 좋은 데 들어갔네요, 다들.)

102012 #1 어, 엘지에 이제 가이도 삼성 시험 보난 뒈고 엘지 시험 보난 뒈곡. 머리 좋나, 우리 셋놈은. 경헨 두 밧디 뒈어도 우리 큰놈이 저 엘지가 보너스도 백프로 주고 또 문저 뒈고 허난 우선 문저 뒌 디로 가렌 허멍 경헨에 엘지 들어간 이거 안직은 우리 셋놈은 앞으로도 흔 오 년 헤 먹을 거여.(어, 엘지에 이제 걔도 삼성 시험 보니까 되고 엘지 시험 보니까 되고. 머리 좋아, 우리 둘째 아들은. 그래서 두 군데 돼도 우리 큰놈이 저 엘지가 보너스도 백 퍼센트 주고 또 먼저 되고 하니까 우선 먼저 된 데로 가라고 하면서 그래서 엘지 들어가서 이거 아직은 우리 둘째 아들은 앞으로도 한 오 년 해 먹을 거야.)

102012 @ 으, 음.(으, 음.)

102012 #1 경헨 헤 먹고 헤영. 첨 옛날 살아난 말, 가네이 우리 애기덜은 착허난 돈 십 원 안 줘 봣저. 어디 셩 주느니게. 돈 십 원 안 줭 나 키왓저, 아이덜게. 경헤영 첨 설룹게. 놈들은 경 안 헤실 거여. 나만 경 고생헷주.(그렇게 해 먹고 해서. 참 옛날 살았던 말, 걔네 우리 아기들은 착하니까 돈 십 원 안 줘 봤어. 어디 있어서 주니. 돈 십 원 안 줘서 내가 키웠어, 아이들. 그렇게 참 서럽게. 남들은 그렇게 안 했을 거야. 나만 그렇게 고생했지.)

103002 @ 흐흐. 게난 어쨌든 자제분 애기는 나중에 또 물어보쿠다. 지금은 보리농사 짓는 거예.(흐흐. 그러니까 어쨌든 자제분 이야기는 나중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보리농사 짓는 거요.)

103002 #1 어게, 게난.(어, 그러니까.)

103002 @ 보리농사 짓젠 허민.(보리농사 지으려고 하면.)

103003 #1 난 놈의 밧디, 우리 놈의 밧 하영 버슬엇저게. 놈의 밧 버스난이 놈의 밧 강 허민 고사릴 솔아 와사.(난 남의 밭에, 우리 남의 밭 많이 벌었어. 남의 밭 버니까 남의 밭 가서 하면 고사리를 살라 와야.)

103003 @ 으.(으.)

103003 #1 고사리, 난이 아이쿠. 이 동네서 고사리 술레 하영 가 온 사름은 누게 아무도 엇일 거여. 부쪄 놩 흔 열흘썩 그자 저 애기낭귀[99]도 넘어강 그 고사리 강이.(고사리, 난 아이코. 이 동네에서 고사리 살러 많이 갔다 온 사람은 누구 아무도 없을 거야. 붙여 놓고 한 열흘씩 그저 '애기낭귀'도 넘어가서 그 고사리 가서.)

103003 @ 으.(으.)

103003 #1 수뭇 가민. 경허난 나 이 손 문 데와젼. 이거 보라게 문 벵신 뒈시네.(사뭇 가면. 그러니까 나 이 손 모두 비틀어져서. 이거 봐 모두 병신 됐어.)

103003 @ 이거 손가락.(이거 손가락.)

103003 #1 고사리 문 비영 그거 연기 안 나게 술아사 불껑이 뒈주게. 꼿불이 나민 불껑 뒈느냐게.(고사리 모두 베어서 그거 연기 안 나게 살라야 재가 되지. 꽃불이 나면 재가 되니?)

103003 @ 고사리 슨다는 게 고사리 꺼끄레 갓다는 거?(고사리 사른다는 게 고사리 꺾으러 갔다는 거?)

103003 #1 아니, 아니, 아니. 걸름.(아니, 아니, 아니. 거름.)

103003 @ 걸름?(거름?)

103003 #1 어. 고사리 술앙 불껑 만들아.(어. 고사리 살라야 재 만들어.)

103003 @ 예.(예.)

103003 #1 돈 엇어근에 우리 걸름 사지도 못허고 허난에 보리 갈고 조 갈고.(돈 없어서 우리 거름 사지도 못하고 하니까 보리 갈고 조 갈고.)

103003 @게난.(그러니까.)

103003 #1 그 보리 갈 때도 그 걸름에, 고사리 술앙이.(그 보리 갈 때도 그 거름에, 고사리 살라서.)

103003 @ 예.(예.)

103003 #1 고사리 연기 안 나게, 숫 묻듯. 느네 아무거엔 골아도 몰른다게.(고사리 연기 안 나게, 숯 묻듯. 너희 아무거라고 말해도 모른다.)

103003 @ 예.(예.)

103003 #1 고사리 비여당 기자 연기 안 나게, 연기만 팡팡 낭 저 꼿불 안 나게. 경허민 숫이 왕왕허게 나주게.(고사리 베어다가 그저 연기 안 나게, 연기만 팡팡 나서 저 꽃불 안 나게. 그러면 숯이 왕연하게 나지.)

103003 @ 음.(음.)

103003 #1 경허민 내에 강 물 들러당 그거 물 줘근에 그거 이제 븍븍 보병 흔 마다리 지엉 오랑 그것에 보리씨 서껑 젭아놩 우리 보리 갈아 먹엇저.(그러면 내에 가서 물 들어다가 그거 물 줘서 이제 박박 비벼서 한 마대 지어 와서 그것에 보리씨 섞어서 집어넣고 우리 보리 갈아 먹었어.)

103003 @ 아, 무사 돗걸름 안 헹?(아, 왜 돼지거름 안 하고?)

103003 #1 돗걸름 헤도 돗걸름 족곡게.(돼지거름 해도 돼지거름 적고.)

---

99) '애기낭귀'는 서귀포시 토평동의 지경 이름이다.

103003 @ 족곡.(적고.)

103003 #1 감저 싱금도 고사리 술아당 싱그곡.(고구마 심는 것도 고사리 살라다가 심고.)

103003 @ 아.(아.)

103003 #1 또 바당에 강 물망도 등짐으로, 쉐가 어디 잇느니? 우린 쉐도 엇어근에.(또 바다에 가서 모자반도 등짐으로, 소가 어디 있니? 우린 소도 없어서.)

103003 @ 예.(예.)

103003 #1 이제 등짐으로 물망 헤당 무시거허고. 우린 동네에서 더 고생허게 삶은 헷저게. 놈의 일만 허고.(이제 등짐으로 모자반 해다가 뭐하고. 우린 동네에서 더 고생하게 살기는 했어. 남의 일만 하고.)

103003 @ 게난 밧 엇이난?(그러니까 밭 없으니까?)

103003 #1 밧 엇이난. 경허난 이제 아이덜 두린 때난 기자 어떵 어떵 허멍 요 저 밧 혼 이천 평 저 우이 사 놓고. 이제 그디 이제 미깡낭 싱경 우리 글로 헨에 기자 헨 살안오란. 이제 하르방[100]도 일 못허고 어디 혼 오백 펭 요디 뻐딘 디 한라봉 ᄒᆞ썰 자파리헴저.(밭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니까 그저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요 저 밭 한 이천 평 저 위에 사 놓고. 이제 거기 이제 감귤나무 심어서 우리 글로 해서 그저 해서 살아왔어. 이제 할아버지도 일 못하고 어디 한 오백 평 요기 밭은 데 한라봉 조금 장난하고 있어.)

103003 @ 음.(음.)

103003 #1 이젠 게난.(이젠 그러니까.)

103003 @ 좋수다게, 노년에 심심허지 않고.(좋습니다, 노년에 심심하지 않고.)

103003 #1 어게. 게난 보리, 조 헤 먹을 땐 말도 못 헷저게.(어. 그러니까 보리, 조 해 먹을 때는 말도 못 했어.)

103003 @ 게난 보리농사 준비허젠 허민 걸름만 준비허민 뒐 거?(그러니까 보리농사 준비하려고 하면 거름만 준비하면 될 거?)

103003 #1 비료가 어디 잇느니게?(비료가 어디 있니?)

103003 @ 비료 엇이난.(비료 없으니까.)

103003 #1 옛날에 쉐 하영 질르는 사름은이.(옛날에 소 많이 기르는 사람은.)

103003 @ 예.(예.)

103003 #1 바령밧[101], 바령밧 허고 밧 한 사름은, 우리 하르방 친족 하르방은 겡 헤낫저.('바령밧', '바령밧' 하고 밭 많은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 친족 할아버지는 그랬었어.)

103003 @ 예.(예.)

103003 #1 밧 한 사름은 그 물모쉬 혼 백 바리 헤낫저. 그 저디 친족 하르방은.(밭 많은 사람은 그 마소 한 백 바리 했었어. 그 저기 친족 할아버지는.)

---

100)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101) '바령밧'은 보리를 벤 다음 농사를 한 철 쉬고 거름 대신으로 밤마다 마소 떼를 가두어 놀리는 밭을 말한다.

103003 @ 예.(예.)

103003 #1 경허민이 흔 두 처냑은 이 밧디, ᄒᆞ루 처냑은 저 밧디 허멍 걸름, 바령밧.(그러면 한 두 저녁은 이 밭에, 하루 저녁은 저 밭에 하면서 거름, '바령밧'.)

103003 @ 음.(음.)

103003 #1 거름 안 헤도 보리, 조 뒈주게.(거름 안 해도 보리, 조 되지.)

103003 @ 음.(음.)

103003 #1 우린 아무것도 엇이난 불껑 고사리 술아 와야지.(우린 아무것도 없으니까 재 고사리 살라 와야지.)

103003 @ 으.(으.)

103003 #1 또 돗걸름, 도새기 질룅 돗걸름 해야지.(또 돼지거름, 돼지 길러서 돼지거름 해야지.)

103003 @ 음.(음.)

103003 #1 경헨 헤낫저게. 원 그거 헷저, 그거. 게난 돗걸름 안 낸 사름 시나? 옛날사 ᄆᆞᆫ 도새기 질룅 돗걸름. 아이고, 요 마당에 내여놩 ᄇᆞᆯ령.(그렇게 했었어. 원 그거 했어, 그거. 그러니까 돼지거름 안 낸 사람 있니? 옛날에야 모두 돼지 길러서 돼지거름. 아이고, 요 마당에 내어놓고 밟아서.)

103005 @ 거기에 보리씨 뿌렁?(거기에 보리씨 뿌려서?)

103005 #1 으, 씨 뿌려근에 이제 데명 멕에 담앙 밧디 가근에 그걸 이젠 밧을 갈아.(으, 씨 뿌려서 이제 쌓아서 멱에 담아서 밭에 가서 그걸 이젠 밭을 갈아.)

103005 @ 예. 갈민 이제 우린 고랑더레 톡톡 젭아놔. 손으로?(예. 갈면 이제 우린 고랑에 톡톡 집어넣어. 손으로?)

103005 #1 손으로 젭아논다게. 겡허민 점심은 ᄆᆞ물 범벅을 헹 가나 감저 범벅을 헹 가나 허민 손으로.(손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점심은 메밀 범벅을 해서 가거나 고구마 범벅을 해서 가거나 하면 손으로.)

103005 @ 그 손으로.(그 손으로.)

103005 # 그 똥 부뜬 손으로 그냥 먹엇저.(그 똥 붙은 손으로 그냥 먹었어.)

103005 @ 하하.(하하.)

103005 #1 똥 부뜬 손으로 그냥 먹어서. 추접헤 붸지도 안헌다게. 에이구, 이젠 아이덜, 나 애기 키울 때이, 우리 엇어놓민 우유가 어디 잇느니? 허민 애기덜 키울 때도 감저 헤다근에 입에서 ᄌᆞ근ᄌᆞ근 씹어, 젓이 부족허지 안 허느냐게.(똥 붙은 손으로 그냥 먹었어. 더러워 보이지도 않아. 에이고, 이젠 아이들, 내가 아기 키울 때, 우리 없으면 우유가 어디 있니? 그럼 아기들 키울 때도 고구마 해다가 입에서 자근자근 씹어, 젖이 부족하지 않니.)

103005 @ 음, 음.(음, 음.)

103005 #1 젓이 부족허민이 배고팡 아이덜은 겍겍 헤 가민 감저 입에서 쏙쏙 씹엉 그거 ᄆᆞᆫ 꿈이영 헹 애기 먹영 커도 살암저게.(젖이 부족하면 배고파서 아이들은 꽥꽥 해 가면 고구마 입에서 쏙쏙 씹어서 그거 모두 침이랑 해서 아기 먹여서

커도 살고 있어.)

103005 @ 히히.(히히.)

103005 #1 이젠 우리 손지덜 할망 거 입에 거 숟구락 멕여 보지도 안헴저. 못허게 헴저. 못허게도 허고 이녁도 말고.(이젠 우리 손주들 할머니 거 입에 거 숟가락 먹여 보지도 않아. 못하게 해. 못하게도 하고 자기도 말고.)

103005 @ 맞아마씨.(맞아요.)

103005 #1 추접헤 뷍 만다게. 경헤난 우리 보리 갈아 먹고 조 갈아 먹을 때사 곤썰이 어디 잇느니? 나이, 보리쏠 두 말 졍 강 곤썰 두 뒈 바꽈 오랑 식게헤 먹고 헷저. 어떵헌 줄 앎이니? 에고.(더러워 보여서 만다. 그러니까 우리 보리 갈아 먹고 조 갈아 먹을 때야 흰쌀이 어디 있니? 나, 보리쌀 두 말 지고 가서 흰쌀 두 되 바꿔 와서 제사해 먹고 했어. 어떠한 줄 아니? 에고.)

103005 @ 음. 맞수다.(음. 맞습니다.)

103005 #1 에고.(에고.)

103005 @ 게난 아까 돗거름에 씨 헐 때는 돗거름 내 난 다음?(그러니까 아까 돼지거름 씨 할 때는 돼지거름 내고 난 다음?)

103005 #1 마당에이.(마당에.)

103005 @ 마당에.(마당에.)

103005 #1 마당에 내놩 막 헤쌍 보리씨 그레 삐영.(그 마당에 내놓고 마구 헤쳐서 보리씨 그리 뿌려서.)

103005 @으.(으.)

103005 #1 막 볼랑 쉐 엇인 땐 사름으로 볼르고.(마구 밟아서 소 없을 때는 사람으로 밟고.)

103005 @ 볼랑.(밟아서.)

103005 #1 쉐 잇이민 그 쉐로 이껑 뎅기멍 그걸 문 볼르주게.(소 있으면 그 소로 이끌고 다니면서 그걸 모두 밟지.)

103005 @ 경헹.(그래서.)

103005 #1 볼랑 이젠 멕에 담아. 멕에 담아근에 이젠 구루마에 밧디 시껑 가근에 밧 갈앙 기자 톡톡 젭아놔.(밟아서 이제는 멱에 담아. 멱에 담아서 이제 달구지에 밭에 실어서 가서 밭 갈아서 그저 톡톡 집어넣어.)

103005 @ 음.(음.)

103005 #1 경헤근에 보리가 나민 또 오줌 싸근에, 항에.(그래서 보리가 나면 또 오줌 싸서, 항아리에.)

103005 @ 예.(예.)

103003 #1 항 놩 오줌을 그레 모도느네. 허벅[102]에 그 오좀 졍 가근에 보리 픗릿픗릿 나 가민 오줌 강 영 헹 박세기로 치데경 놔두민 그딘 까망, 보리가이.(항아리에 넣어서 오줌을 그리 모아. '허벅'에 그 오줌을 져서 가서 보리 파릿파릿 나 가

102) '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로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가 아주 좁다.

면 오줌 가서 이렇게 해서 바가지로 끼얹어 놔두면 거긴 까매, 보리가.)

103003 @ 아.(아.)

103003 #1 아니 준 딘 노랑. 경허멍 질롯저게. 비료가 어디 있느니? 야, 아이고 비료 나건 디가 멧 년이니게?(아니 준 덴 노래. 그러면서 키웠어. 비료가 어디 있니? 야, 아이고 비료 난 지가 몇 년이니?)

103003 @ 게난예.(그러니까요.)

103003 #1 아이고.(아이고.)

103003 @ 아까 고사리 솔룬 거는 어떵 헹 거름으로 쓴 거라? 거기에 씨를 뿌려?(아까 고사리 사른 거는 어떡해서 거름으로 쓴 거야? 거기에 씨를 뿌려?)

103003 #1 고사린이 고사린 헤다근에 기자 감저 싱글 때 기자 고랑더레 그 불껑을 비와.(고사린 고사린 해다가 그저 고구마 심을 때 그저 고랑에 그 재를 부어.)

103003 @ 비왕?(부어서?)

103003 #1 그 오줌 ᄒᆞ쏠 집이 헤영 비왕이.(그 오줌 조금 집에 해서 부어서.)

103003 @ 예.(예.)

103003 #1 마다리레 오줌 놔도 좋고. 아레미 항 묻어도 좋고.(마대에 오줌 넣어도 좋고. 알루미늄 항아리 묻어도 좋고.)

103003 @ 음.(음.)

103003 #1 비료가 엇이난. 오줌으로 비료 대신.(비료가 없으니까. 오줌으로 비료 대신.)

103003 @ 게난 보리 헐 때도 그추룩 헤난 거 아니?(그러니까 보리 할 때도 그처럼 했던 거 아니?)

103003 #1 어게. 보리 헐 때도 고사리.(어. 보리 할 때도 고사리.)

103003 @ 그니까 서껑 헙니까?(그러니까 섞어서 합니까?)

103003 #1 으, 서껑 서껑게. 서껑 헌다게. 경허난 이 불껑은이 고사리 솔고 헌다.(으, 섞어서 섞어서. 섞어서 한다. 그러니까 이 재는 고사리 사르고 한다.)

103003 @ 게난.(그러니까.)

103003 #1 겨난 느네 아무거엔 골아도 몰른다게. 고사리 놀고사리 이만썩 허지 안허느냐게.(그러니까 너희 아무거라고 말해도 모른다. 고사리 날고사리 이만큼씩 하지 않니.)

103003 @ 예, 예.(예, 예.)

103003 #1 그것 강 ᄆᆞᆫ 비영.(그것 가서 모두 베어서.)

103003 @ 예.(예.)

103003 #1 불을 부찌민 연기만 팡팡. 꼿불 나민 고사리가 안 뒈여.(불을 붙이면 연기만 팡팡. 꽃불 나면 고사리가 안 돼.)

103003 @ 게민 놀고사리가 아니고?(그럼 날고사리가 아니고?)

103003 #1 놀고사리.(날고사리.)

103003 @ 몰른 고사리 아니고?(마른 고사리 아니고?)

103003 #1 아으 엇다게. 이제 고사리가 막 새잖아?(아으 아니다. 이제 고사리가 마구 쇠잖아?)

103003 @ 예.(예.)

103003 #1 이제 먹을 거 우리 먹을 거 꺼꺼 오라 나민.(이제 먹을 거 우리 먹을 거 꺾어 오고 나면.)

103003 @ 유월 이후 뒈민.(유월 이후 되면.)

103003 #1 남은 것이 막 새잖아게.(남은 것이 마구 쇠잖아.)

103003 @ 예, 예.(예, 예.)

103003 #1 경허민 고사리가 손 벌려정 허민 그거 고사리 비레 가주게.(그러면 고사리가 손 벌어져서 하면 그거 고사리 베러 가지.)

103003 @ 게민 그거 물렷당 불부찌는 거?(그럼 그거 말렸다가 불붙이는 거?)

103003 #1 아니, 아니, 그날. 비는 날.(아니, 아니, 그날. 베는 날.)

103003 @ 불붙읍니까?(불붙습니까?)

103003 #1 아홉 시까지 강 비주게. 네 시에 밥 먹엉.(아홉 시까지 가서 베지. 네 시에 밥 먹고.)

103003 @ 으.(으.)

103003 #1 밥헹 네 시에 먹엉.(밥해서 네 시에 먹고.)

103003 @ 으.(으.)

103003 #1 이제 고사리 비레 밤이 간다게. 겡허민 더웡 헤지느냐게.(이제 고사리 베러 밤에 간다. 그럼 더워서 할 수 있니.)

103003 @ 으.(으.)

103003 #1 그 산노롱헐 때 술젠.(그 서늘할 때 사르려고.)

103003 @ 으.(으.)

103003 #1 ᄉᆞ못 밤이 좀을 자느냐게. 네 시만 뒈민 나가주게.(사뭇 밤에 잠을 자니. 네 시만 되면 나가지.)

103003 @ 으.(으.)

103003 #1 네 시만 뒈민 나가민 기자 굽은 허리에 그 고사릴 문 비여. 경헨 모돠. 모돵 붉으민 모돠 놩 그 고사릴 이젠 술기 시작헨 ᄒᆞᆫ 마다리, 불껑 ᄒᆞᆫ 마다리 허젠 허민 아홉 시ᄁᆞ장은 비민 뒌다, 난.(네 시만 되면 나가면 그저 굽은 허리에 그 고사리를 모두 베여. 그래서 모아. 모아서 밝으면 모아 놔서 그 고사리를 이젠 사르기 시작해서 한 마대, 재 한 마대 하려고 하면 아홉 시까지는 베면 된다, 난.)

103003 @ 으, 음.(으, 음.)

103003 #1 경헨 손 재난, 겐 아홉 시까지만 비민 옛날 그 무지 마다리로 고사리가 ᄒᆞ나 뒈주게.(그래서 손 빠르니까, 그래서 아홉 시까지만 베면 옛날 그 무지 마대로 고사리가 하나 되지.)

103003 @ 그 놀고사리에 불이 붙읍니까?(그 날고사리에 불이 붙습니까?)

103003 #1 어게, 부뜬다게. 기자 연기로 숫 묻는 거, 숫 묻는 거. 어른덜은 다

알 거여.(어, 붙는다. 그저 연기로 숯 묻는 거, 숯 묻는 거. 어른들은 다 알 거야.)

103003 @ 음.(음.)

103003 #1 고사리 솔아 낫덴 허민 다 알아. 느네 찌렌 몰르고.(고사리 살라 났다고 하면 다 알아. 너희 무리는 모르고.)

103003 @ 예. 여긴 불껑이렌 헤? 불치렌 안 허고?(예. 여긴 '불껑'이라고 해? '불치'라고 안 하고?)

103003 #1 으.(으.)

103003 @ 불치를 여긴 불껑이렌 헷구나?('불치'를 여긴 '불껑'이라고 했구나?)

103003 #1 어. 불껑. 옛날엔 불껑. 불껑 헤낫저. 불치엔도 허곡 불껑이렌도 허곡.(어. '불껑'. 옛날에는 '불껑'. '불껑' 했었어. '불치'라고도 하고 '불껑'이라고도 하고.)

103003 @ 아, 불치엔도 허고?(아, '불치'라고도 하고?)

103003 #1 음, 경게. 경헨 허민 기자 그거 솔아 오민, 고사리 안 솔아 오민 불껑이 어디 잇느니게. 그거 솔아 와서 저디 놩 마다리에, 오줌을 싸멍 그레 노나.(음, 그래. 그렇게 하면 그저 그거 살라 오면, 고사리 안 살라 오면 재가 어디 있니. 그거 살라 와서 저기 놓고 마대에, 오줌 싸면서 그리 놓아.)

103003 @ 으.(으.)

103003 #1 경 안허민 아래 비와근에 오줌을 그레 서끄나 헹 막 서끄멍 묻엇당 허민 걸름이주게. 고사리 걸어.(그렇지 않으면 아래 부어서 오줌을 그리 섞거나 해서 마구 섞으면서 묻었다가 하면 거름이지. 고사리 걸어.)

103003 @ 음.(음.)

103003 #1 이젠 아녀난 거주. 하도 삶이 좋아 놓난 고사리도 안 비고. 또 그 보리, 조 갈 때 아이고, ᄉᆞ못 무시걸 허민 감저 싱경 먹곡 그 보리 걸곡 허렌 ᄉᆞ못 바당에 강 그 듬북이엔 헤낫저. 이젠 몰망, 몰망 헤도.(이제는 안 하니까 거지. 하도 삶이 좋아 놓으니까 고사리도 안 베고. 또 그 보리, 조 갈 때 아이고, 사뭇 무엇을 하면 고구마 심어서 먹고 그 보리 걸고 하라고 사뭇 바다에 가서 그 듬북이라고 했었어. 이젠 모자반, 모자반 해도.)

103003 @ 으.(으.)

103003 #1 바당 쎄 나민 ᄉᆞ못 바당에 강 난 휠 중도 모른다게.(바다가 세고 나면 사뭇 바다에 가서 난 헤엄칠 줄도 모른다.)

103003 @ 으.(으.)

103003 #1 겡혜도 그걸 강 ᄉᆞ뭇 거두왕 지여 아장 올라오랑 그거 밧디 강 보리 뽀작뽀작 나주게. 거 에염에 더껑. 또 그 몰망 놔근에 감저 싱그민 감저가 히칙허게[103] 들어.(그래도 그걸 가서 사뭇 거둬서 지어 가지고 올라와서 그거 밭에 가서 보리 뽀족뽀족 나지. 거 옆에 덮어서. 또 그 모자반 넣어서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가 '히칙하게' 들어.)

---

103) 여기서 '히칙허다'는 거름을 준 밭에 고구마가 '잘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103003 @ 으.(으.)

103003 #1 경헨 우리 살아왓저. 아이덜ᄀᆞ라 ᄀᆞᆯ으민 그거 무사 경 머리 못 쓰난 못 살앗젠.(그렇게 우리 살아왔어. 아이들보고 말하면 그거 왜 그렇게 머리 못 쓰니까 못 살았다고.)

103003 @ 하하.(하하.)

103003 #1 우리 아이덜 경 ᄀᆞᆯ아.(우리 아이들 그렇게 말해.)

103004 @ 예, 보리는 언제 갑니까?(예, 보리는 언제 갑니까?)

103004 #1 시월덜에.(시월에.)

103004 @ 음력 시월?(음력 시월?)

103004 #1 으, 음력 시월덜이민.(으, 음력 시월이면.)

103004 @ 예, 게민 보리 가는 순서를 ᄀᆞᆯ아 주면 먼저 아까 밭을 먼저 가는 거?(예, 그럼 보리 가는 순서를 말해 주면 먼저 아까 밭을 먼저 가는 거?)

103004 #1 밧을이 강 갈아 가멍.(밭을 가서 갈아 가면서.)

103004 @ 예, 갈아 가멍.(예, 갈아 가면서.)

103004 #1 불껑에 헐 때는, 불껑에 헐 때도 밧 갈민 고랑더레 기자 불껑 톡톡톡 젭아놓나. 그 씨 서끈 거.(재에 할 때는, 재에 할 때도 밭 갈면 고랑에 그저 재 톡톡톡 집어넣어. 그 씨 섞은 거.)

103004 @ 예.(예.)

103004 #1 젭아놓곡 더끄는 건 손으로.(집어넣고 덮는 건 손으로.)

103004 @ 손으로.(손으로.)

103004 #1 손으로 영 더껑. 손으로 앚앙 그걸 문 더껑.(손으로 이렇게 덮어서. 손으로 앉아서 그걸 모두 덮어서.)

103004 @ 아, 영 좁아논 걸 손으로?(아, 이렇게 집어넣은 걸 손으로?)

103004 #1 어. 보리씨 닷 말지긴 더끈다. 나 우리 큰놈 난 때에 보리씨 닷말지기 불껑을 할망 접아놓고, 그거 더끄젠 허난 놉 빌어지건 허젠 헌디, 놉 못 비난 나 진정 말이주 그것 강 더꺼낫당 어걸[104] 등연[105] 나 구루마레 옛날 철 구루마레 걸어오지 못헨 안아 와낫저. ᄉᆞ뭇 원 그거 앚앙 앙글앙글 문 더꺼낫당. 손으로 문 더꺼시녜.(어. 보리씨 다섯 마지긴 덮는다. 나 우리 큰놈 낳을 때에 보리씨 다섯 마지지 재를 할머니 집어넣고, 그거 덮으려고 하니까 놉 빌릴 수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놉 못 빌리니까 나 진정 말이지 그것 가서 덮었다가 '어걸' '등여서' 나 달구지에 옛날 철 달구지에 걸어오지 못해서 안아 왔었어. 사뭇 원 그거 앉아서 '앙글앙글' 모두 덮었었다가. 손으로 모두 덮었어.)

103004 @ 아.(아.)

103004 #1 경허난 섬비 헨 끗주만은 섬비 헹 영 끗주게.(그러니까 끙게 해서 끌지만 끙게 해서 이렇게 끌지.)

---

104) '어걸'은 자궁이나 그것이 몸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일컫는 말이다.

105) '등이다'는 무엇이 밑으로 축 늘어져 매달리다는 의미다.

103004 @ 예, 예.(예, 예.)

103004 #1 섬비 헹 영 끗주만은 섬비 헹 끗을 사름 엇이난 손으로 그거 문 막아시네. 손으로.(끙게 해서 이렇게 끌지만 끙게 해서 끌 사람 없으니까 손으로 그거 모두 막았어. 손으로.)

103004 @ 보통 다른 디 그거 덮는 거는 섬비 헹 끗는 거라예?(보통 다른 데 그거 덮는 거는 끙게 해서 끄는 거지요?)

103004 #1 으, 으. 넓은 디 가는 디는 섬비로도 헹 끗나게. 경헌디 또 섬비로 끗은 건이 잘 막아지진 안헌다.(으, 으. 넓은 데 가는 데는 끙게로도 해서 끌어. 그런데 또 끙게로 끈 건 잘 막아지진 않는다.)

103004 @ 아, 손으로 헤사.(아, 손으로 해야.)

103004 #1 으, 손으로가 깨껏이 막아지주게. 지피 묻어져사 씨도 잘 즈눌앙[106] 난다.(으, 손으로가 깨끗이 막을 수 있지. 깊이 묻혀야 씨도 잘 자리 잡혀서 나.)

103007 @ 게민 영 더프멍 불라 주기도 허는 건게.(그럼 이렇게 덮으면서 밟아 주기도 하는 거네.)

103007 #1 불라지주만은 경, 보리 나민 보리가 과짝 나지 안허여.(밟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보리 나면 보리가 곧게 나지 않아.)

103007 @ 예.(예.)

103007 #1 나민 강 조근조근 불라 줘.(나면 가서 차근차근 밟아 줘.)

103007 @ 아.(아.)

103007 #1 곳아 불민 발 들려지카 부덴. 조근조근 보리 불르레도 우리 뎅겨낫저.(곱아 버리면 발 들릴까 봐. 차근차근 보리 밟으러도 우리 다녔었어.)

103007 @ 아까 보리 가는 건 음력 시월이었잖아예?(아까 보리 가는 건 음력 시월이었잖아요?)

103007 #1 어.(어.)

103003 @ 그민 보리 갈기 전이 걸름을 냉 준비를 헤야 허는 거 아니?(그럼 보리 갈기 전에 거름을 내서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니?)

103003 #1 어게.(어.)

103003 @ 걸름 내는 건 언제 내여?(거름 내는 건 언제 내?)

103003 #1 걸름 내는 건 그자 시월덜 나 가민, 보리 갈 때 뒈 가민 원 낸다게.(거름 내는 건 그저 시월 돼 가면, 보리 갈 때 돼 가면 원 낸다.)

103003 @ 아.(아.)

103003 #1 ᄀᆞ슬 들어 가민 낸다.(가을 들어 가면 낸다.)

103003 @ 아, 그럼 며칠 후에 보리 갈 거다 허민?(아, 그럼 며칠 후에 보리 갈 거다 하면?)

103003 #1 으. 걸름을 내여.(으. 거름을 내.)

103003 @ 내여예?(내요?)

---

106) 여기서 '즈늘다'는 씨가 땅 속에 잘 묻혀서 자리 잡는 것을 말한다.

103003 #1 으. 새 보리찍 문 그거 내여 뒁 반찍허게 내여 뒁 또 보리찍 막 끌앙 놔두민 도새기 질루민 도새기도 하나도 아니라 어떤 때 두 개썩 질루민 그게 걸름 뒈. 또 쉐 질루민 쉐 똥 싸민 그자 똑 경헤영 기자 쉐걸름 또 밧더레 헤당 허끄곡.(으. 새 보릿짚 모두 내여 두고 말끔하게 내어 두고 또 보릿짚 마구 깔아서 놔두면 돼지 기르면 돼지도 하나도 아니고 어떤 때 두 개씩 기르면 그게 거름 돼. 또 소 기르면 소가 똥 싸면 그저 꼭 그렇게 그저 쇠두엄 또 밭으로 해다가 섞고.)

103003 @ 게난 돗걸름은 일 년에 몇 번을 냅니까?(그러니까 돼지거름은 일 년에 몇 번 냅니까?)

103003 #1 혼번, 혼번벳긴 엇나.(한번, 한번밖에 없어.)

103003 @ 아, ᄀᆞ슬 들민?(아, 가을 들면?)

103003 #1 으, ᄀᆞ슬리 혼번. 도새기걸름 두 번 내 보진 안헷저. 쉐걸름도 그거고. 쉐도 질루민이, 쉐도 질롯자 기자 검질 끌악 끌악 헹 영 영 자리 궂어 가민 끌곡 끌곡 허당 긋어 내여분다게.(으, 가을에 한번. 돼지거름 두 번 내 보진 않았어. 쇠두엄도 그거고. 소도 기르면, 소도 길러도 그저 검불 깔고 깔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리 궂어 가면 깔고 깔고 하다가 끌어 내버린다.)

103003 @ 으.(으.)

103003 #1 경허난 우리 경 쉐도 하영 안 질뤄 보고 쉐도 하나 질롸근에 기자 우린 못 사난 헤 온 사람이고. 도새기걸름 주장 걸름 헤영. 나 고사리 술아당 놈의 밧도 버슬고[107] 헷저. 고사리 술아당.(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소도 많이 안 길러 보고 소도 하나 길러서 그저 우린 못 사니까 해 온 사람이고. 돼지거름 주로 거름 해서. 나 고사리 살라다가 남의 밭도 벌고 했어. 고사리 살라다가.)

103004 @ 밧은 누게가 가는 거라?(밭은 누가 가는 거야?)

103004 #1 아방[108]이.(아버지가.)

103004 @ 아방이.(아버지가.)

103004 #1 으.(으.)

103004 @ 게민, 쉐 밧갈쉐.(그럼, 소 '밧갈쉐'.)

103004 #1 으, 밧갈쉐[109].(으, '밧갈쉐'.)

103004 @ 질롸?(길러서?)

103004 #1 으, 질롸. 안 질롸 무사게 농서지어 먹엉 살아지느냐?(으, 길러서. 안 길러서 왜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있냐?)

103004 @ 아.(아.)

103004 #1 아멩 어려와도 밧갈쉐 헨에 놈의 밧도 강 갈앙 돈 받아 오곡.(아무리 어려워도 '밧갈쉐' 해서 남의 밭도 가서 갈아서 돈 받아 오고.)

103004 @ 돈 받아 오고. 쏠로 받앙 왓겟지. 돈으로 받앙 와신가?(돈 받아 오고. 쌀로 받아서 왔겠지. 돈으로 받아서 왔나?)

---

107) '버슬다'는 표준어의 '벌다'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밭을 경작했다는 의미다.
108)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킨다.
109) '밧갈쉐'는 밭을 가는데 부리는 소를 말한다.

103011 #1 돈으로도 받고. 아이고, 우리 하르방[110] 놈의 보리 홀트레 가난, 옛날엔 클 헹 홀트잖아.(돈으로도 받고.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남의 보리 훑으러 가니까, 옛날에는 그네 해서 훑잖아.)

103011 @ 예.(예.)

103011 #1 느네 알 거여.(너희 알 거야.)

103011 @ 예, 예.(예, 예.)

103011 #1 보리 헤영 그 보리클로 븍븍 홀트는 것도이 강 홀트민 보리 흔 말.(보리 해서 그 보리그네로 박박 훑는 것도 가서 훑으면 보리 한 말.)

103011 @ 음.(음.)

103011 #1 아이고, 이젠 우리 강 미깡 타민 나룩쏠은 멧 말썩 사지느니?(아이고, 이젠 우리 가서 귤 따면 밭벼쌀은 몇 말씩 살 수 있니?)

103011 @ 하하. 흔 마다리 사고도 남을 거예?(하하. 한 마대 사고도 남을 거요?)

103011 #1 흔 마다리 사단도 남암시녜게. 얼마나 살기가 존 때니. 엇인 사름 살기 존 때여 이젠. 게난 엇인 사름도 이젠이 반찬 출리멍 먹곡. 막 살기 좋은다.(한 마대 사다가도 남아. 얼마나 살기가 좋은 때니. 없는 사람 살기 좋은 때야 이젠.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이젠 반찬 차리면서 먹고. 아주 살기 좋아.)

103005 @ 게난 보리 갈 때 보리씨는 이렇게 뿌리는 건 아니라예?(그러니까 보리 갈 때 보리씨는 이렇게 뿌리는 건 아니지요?)

103005 #1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3005 @ 좁아놩?(집어넣고?)

103005 #1 어. 보리씨 뿌리는 것도 잇긴 잇나.(어. 보리씨 뿌리는 것도 있긴 있어.)

103005 @ 으.(으.)

103005 #1 이 저 뿌리는 것도, 바령밧 쉐 놔근에 바령밧 헤난 딘 뿌령도 헐 수 잇주. 견디 우리는 삐연 헤 보지 안헷저.(이 저 뿌리는 것도 '바령밧' 소 넣어서 '바령밧' 했던 데는 뿌려서도 할 수 있지. 그런데 우리는 뿌려서 해 보지 않았어.)

103005 @ 음.(음.)

103005 #1 불치 젭아노나 돗걸름에 서껑 젭아노나.(재 집어넣거나 돼지거름 섞어서 집어넣거나.)

103005 @ 음.(음.)

103005 #1 경헹 갈아 봣저, 우리. 그추룩 헷주.(그렇게 갈아 봤어, 우리. 그처럼 했지.)

103006 @ 보리 종류에는 어떤 거 잇수과?(보리 종류에는 어떤 거 있습니까?)

103006 #1 술보리 잇고 겉보리 잇고. 두줄보리 잇고.(쌀보리 있고 겉보리 있고. 두줄보리 있고.)

---

110)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남편을 가리킨다.

103006 @ 두줄보리?(두줄보리?)

103006 #1 어, 두줄보린 영 헤근에, 두줄보리엔 헌 건 납작 지넹이 모냥으로 ᄀᆞ스락 영 양펜이 그거 두줄보리엔 허주게.(어, 두줄보린 이렇게 해서, 두줄보리라고 하는 건 납작 지네 모양으로 까끄라기 이렇게 양편으로 그거 두줄보리라고 하지.)

103006 @ 게난 삼춘네는 무슨 보리 갈아낫수과?(그러니까 삼촌네는 무슨 보리 갈았었습니까?)

103006 #1 우린 술보리 주장 헨 갈앗주게.(우리는 쌀보리 주로 해서 갈았지.)

103006 @ 술보리?(쌀보리?)

103006 #1 으, 술보리 헹 밥헹 먹젠 허난. 두줄보리도 밥헹 먹주만은, 거 보통으로 이 두줄보리 허는 사름덜은 그자 첨 여유 잇인 사름덜 헴주. 우린이 우선 밥헹 먹어야 살 거라부난 술보리.(으, 쌀보리 해서 밥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두줄보리도 밥해서 먹지만, 거 보통으로 이 두줄보리 하는 사람들은 그저 첨 여유 있는 사람들 하지. 우린 우선 밥해서 먹어야 살 거니까 쌀보리.)

103006 @ 그냥 밥 먹는 건 술보리과?(그냥 밥 먹는 건 쌀보리입니까?)

103006 #1 으. 밥 먹는 건. 두줄보리 밥이 더 맛은 잇어.(으. 밥 먹는 건. 두줄보리 밥이 더 맛은 있어.)

103006 @ 예, 예.(예, 예.)

103006 #1 두줄보리 밥이 쪼금 출지 듯헤여. 출지 듯허영 이 두줄보리도 좋은 밧디 갈곡.(두줄보리 밥이 조금 찰지 듯해. 찰지 듯해서 이 두줄보리도 좋은 밭에 갈고.)

103006 @ 으.(으.)

103006 #1 경헤낫저게. 경허난 두줄보리 가는 사름도 하긴 하근에 옛날에 두줄보리 가는 사름은 막 농협에서 받음도 헤낫저. 받음도 헤낫저.(그랬었어. 그러니까 두줄보리 가는 사람도 많기는 많아서 옛날에 두줄보리 가는 사람은 막 농협에서 받기도 했었어. 받기도 했었어.)

103006 @ 겉보리는 뭐 헐 때 써낫수과?(겉보리는 뭐 할 때 썼었습니까?)

103006 #1 겉보리엔 헌 거는 그 지넹이 닮은 보리 말고 ᄀᆞ스락이 길어. 겉보리라도. ᄀᆞ스락이 막 긴 거여게. 길어근에 겉보리.(겉보리라고 하는 거는 그 지네 닮은 보리 말고 까끄라기가 길어. 겉보리라도. 까끄라기가 아주 긴 거야. 길어서 겉보리.)

103006 @ 게민 것도 밥헹 먹는 거?(그럼 것도 밥해서 먹는 거?)

103006 #1 어게, 것도 ᄀᆞᆯ아당 밥헹 먹는 거.(어, 것도 갈아다가 밥해 먹는 거.)

103006 @ 아.(아.)

103006 #1 겉보리 밧 ᄒᆞᄉᆞᆯ 허민 에, 밥은 거세 다 겉보리밥ᄀᆞ치. 경 헤낫저, 우리. 밥 영 허민, 술보리 밥도이.(겉보리 밭 조금 하면 에, 밥은 거의 다 겉보리밥같이. 그렇게 했었어, 우리. 밥 이렇게 하면, 쌀보리 밥도.)

103006 @ 예.(예.)

103006 #1 출보리밥 잇고 이 거센 보리밥 잇곡 헷저게. 출보리밥은 수확이 족고 또 그 경 안헌 거센 밥은 수확이 하고.(찰보리밥 있고 이 거센 보리밥 있고 했어. 찰보리밥은 수확이 적고 또 그 그렇지 않은 거센 밥은 수확이 많고.)

103006 @ 음.(음.)

103006 #1 경헤영 수확 한 것만 우린 헤낫주. 낭[111] 난 보리 잇고 낭 쫄른 보리 잇고.(그래서 수확 많은 것만 우린 했었지. 줄기 난 보리 있고 줄기 짧은 보리 있고.)

103006 @ 아.(아.)

103006 #1 것도 멧 가지. 앚은베기보리[112], 낭 난 보리 그추룩 헤영.(것도 몇 가지. '앚은베기보리', 줄기 난 보리 그처럼 해서.)

103006 @ 아.(아.)

103006 #1 경헨 우리 갈아 먹어낫저.(그렇게 우리 갈아서 먹어었어.)

103006 @ 술보리 중에도 앚은베기?(쌀보리 중에도 '앚은베기'?)

103006 #1 으, 앚은베기, 낭 쫄른 것도 잇고 건 거 잇고 경허메.(으, '앚은베기', 줄기 짧은 것도 있고 긴 거 있고 그래.)

103006 @ 술보리가.(쌀보리가.)

103006 #1 겨난 낭 건 보리가, 그 낭이 건 것이 밥이 출진다고.(그러니까 줄기 긴 보리가, 그 줄기가 긴 것이 밥이 찰지다고.)

103006 @ 음.(음.)

103006 #1 이 낭 쫄른 건 낟곡은 하영 나도 밥이 ᄒᆞ쏠 거신덴 헤. 경헤낫저게, 옛날에 우리 보리 갈아 먹을 땐.(이 줄기 짧은 건 낟곡이 많이 나도 밥이 조금 거스른다고 해. 그랬었어, 옛날에 우리 보리 갈아 먹을 땐.)

103006 @ 삼춘네 술보리 갈아난 거는 술보리가 아무래도 수확이 좋으난?(삼촌네 쌀보리 갈았던 거는 쌀보리가 아무래도 수확이 좋으니까?)

103006 #1 으, 수확이 만허니까, 수확이 만허니까 우린 술보리 하영 갈앙 먹엇주.(으, 수확이 많으니까, 수확이 많으니까 우린 쌀보리 많이 갈아서 먹었지.)

103007 @ 아까 보리밧 밟기는 언제고마씨? 보리밧 불르는 거는?(아까 보리밭 밟기는 언제인가요? 보리밭 밟는 거는?)

103007 #1 아, 정월에.(아, 정월에.)

103007 @ 정월에?(정월에?)

103007 #1 으. 음력 정월이 나민 보리가 요만씩 나주게. 요만씩 낭 까릿까릿허민[113], 정월 나민 밧이 막 부끄잖아.(으. 음력 정월이 되면 보리가 요만큼씩 나지. 요만큼씩 나서 '까릿까릿하면', 정월 되면 밭이 마구 솟아오르잖아.)

103007 @ 음.(음.)

103007 #1 막 겨울에 눈 오라 나민 밧이 부끄잖아.(마구 겨울에 눈 오고 나면

111) '낭'은 표준어의 '나무'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보릿대를 가리킨다.
112) '앚은베기보리'는 보리의 한 종류다.
113) '까릿까릿허다'는 싹이 뾰족뾰족 난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밭이 솟아오르잖아.)

103007 @ 음.(음.)

103007 #1 경허민 강 꼰꼰꼰꼰 그 보리 불라 주주게. 경헨 불라 줘. 경헨 불라 근에 불른 딘 막 보리가 더 좋곡. 대강 보리 갈민 우린 오줌 정 강 줘낫저게.(그러면 가서 직신직신 그 보리 밟아 주지. 그렇게 밟아 줘. 그렇게 밟아서 밟은 덴 아주 보리가 더 좋고. 대강 보리 갈면 우린 오줌 지고 가서 줬었어.)

103007 @ 불를 때쯤, 프릇프릇헐 때 오줌 주는 거?(밟을 때쯤, 파릇파릇할 때 오줌 주는 거?)

103007 #1 으, 어게. 경허민 보리가 까망 막 뒈염직이 오줌으로 주장 헹 우린. 막 경 헤낫저게. 아이고, 비료 난 지가 멧 년이니? 첨 이젠 살기 좋앗저. 옛날에 살아온 생각허민 아이구, 아구 아구.(으, 어. 그러면 보리가 까맣게 막 될 것 같이 오줌으로 주로 해서 우린. 마구 그렇게 했었어. 아이고, 비료 난 지가 몇 년이니? 참 이젠 살기 좋았어. 옛날에 살아온 생각하면 아이고, 아구 아구.)

103008 @ 보리밧디 검질은 멧 번이나 멥니까?(보리밭 김은 몇 번이나 맵니까?)

103008 #1 보리밧디 검질 혼두 번도 메곡 세 번도 메곡.(보리밭 김 한두 번도 매고 세 번도 매고.)

103008 @ 예.(예.)

103008 #1 여름에 조팟은 씨 ᄉᆞ끄곡 또 컹 메곡 세 번은 멧저.(여름에 조밭은 씨 솎고 또 커서 매고 세 번은 맸어.)

103008 @ 조팟은 세 번, 보리밧은 두 번이나 세 번.(조밭은 세 번, 보리밭은 두 번이나 세 번.)

103008 #1 으. 대우리 메곡 보리밧디도 게나제나 대우리 나 가민 메곡 보리밧디도.(으. 귀리 매고 보리밭도 그러나저러나 귀리 나 가면 매고 보리밭도.)

103008 @ 예.(예.)

103008 #1 검질은 기자 두어 번 메곡.(김은 그저 두어 번 매고.)

103009 @ 게난 보리밧디 나는 검질 이름이 아까 대우리허고?(그러니까 보리밭에 나는 김 이름이 아까 귀리하고?)

103009 #1 대우리허고 물릇허고.(귀리하고 무릇하고.)

103009 @ 물릇?(무릇?)

103009 #1 으, 물릇이엔 허고. 대우리엔 허고 그 무신 진쿨. 진쿨 건 겨울 풀이주게. 여름 풀이 아니라 진쿨이엔 헌 것이 겨울 풀인다.(으, 무릇이라고 하고. 귀리라고 하고 그 무슨 별꽃. 별꽃 건 겨울 풀이지. 여름 풀이 아니라 별꽃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 풀이야.)

103009 @ 으.(으.)

103009 #1 그런 거 난다게. 경허민 보리레 얽어짐도 허고 ᄀᆞ스락풀이엔 헌 것도 보리레 얽어졍 나오는 ᄀᆞ스락풀, ᄀᆞ스락풀 허멍. 건 검질 이름이.(그런 거 난다. 그러면 보리에 얽히기도 하고 원추리라고 하는 것도 보리에 얽혀 나오는 원추리, 원

추리 하면서. 건 김 이름이.)

103009 @ 검질 이름. 아까 대우리.(김 이름. 아까 귀리.)

103009 #1 으, ᄆᆞ스락풀, 대우리 으.(으, 원추리, 귀리 으.)

103009 @ ᄆᆞ스락풀.(원추리.)

103009 #1 으.(으.)

103009 @ 진쿨.(별꽃.)

103009 #1 으.(으.)

103009 @ 물릇 이런 것덜 낫던 거라예.(무릇 이런 것들 났던 거지요?)

103009 #1 으, 그런 거 멧 가지. 여름엔 쒜비눔이 나곡.(으, 그런 거 몇 가지. 여름에는 쇠비름이 나고.)

103009 @ 예, 예.(예, 예.)

103009 #1 여름에는 쒜비눔 경 나곡 이제 첨, 그디 ᄆᆞᆯᄆᆞ작쿨이다 뭐다 허멍 검질 이름도 하주.(여름에는 쇠비름 그렇게 나고 이제 참, 거기 쇠무릎이며 뭐며 하면서 김 이름도 많지.)

103009 @ 게민 이제 보리 갈앙 붋앙 검질도 다 메수다예.(그럼 이제 보리 갈아서 밟아서 김도 다 맸습니다.)

103009 #1 어게. 아이고, 보리밧디 검질메젠 허민 땅 곳앙 ᄉᆞ못 얼고.(어. 아이고, 보리밭 김매려고 하면 땅 곱아서 사뭇 얼고.)

103009 @ 흐흐.(흐흐.)

103021 #1 여름엔 조팟디 검질메젠 허민 옛날에 양말이 어디 잇느니, 신이 어디 잇느니?(여름에는 조밭 김매려고 하면 옛날에 양말이 어디 있니, 신이 어디 있니?)

103021 @ 으.(으.)

103021 #1 맨발에.(맨발에.)

103021 @ 으.(으.)

103021 #1 맨발에 조컴질[114] 강 씨 ᄉᆞ꽝 메 가민 발창이 파삭파삭 데불민 그 검질 멩 발창더레 놓멍 나 메엿저. 아무거엔 ᄀᆞᆯ아도 아이덜 몰른다게.(맨발에 '조컴질' 가서 씨 솎아서 매 가면 발바닥이 바싹바싹 뜨거우면 그 김 매서 발바닥에 놓으면서 나 맸어. 아무거라고 말해도 아이들 모른다.)

103021 @ 아이고.(아이고.)

103021 #1 아무거엔 ᄀᆞᆯ아도 몰라. 첨 몰른다 우리 살아온 시태.(아무거라고 말해도 몰라. 참 모른다, 우리 살아온 시태.)

103010 @ 이젠 보리 익으난 이제 수확허는 거, 거둬들이는 거 어떵 헤신지 ᄎᆞᄎᆞᄎᆞ ᄀᆞᆯ아 줍서.(이제는 보리 익으니까 이제 수확하는 거, 거둬들이는 거 어떻게 했는지 차차차차 말해 주세요.)

103010 #1 보리 수확헐 때 강 비염주게. 익어가는 양.(보리 수확할 때 가서 베고 있지. 익어가는 대로.)

---

114) '조컴질'은 조밭에 나는 김을 가리킨다.

103010 @ 예, 어떵 비여?(예, 어떻게 베어?)

103010 #1 호미로 박박.(낫으로 박박.)

103010 @ 앉앙예?(앉아서요?)

103010 #1 호미로 앉앙 비엿주.(낫으로 앉아서 베었지.)

103010 @ 비여 놩?(베어 놔서?)

103010 #1 아이고, 비여 놩 옛날은 그거 우리, 우리 메타[115] 그 기계 메타 난 두드려 먹은 거 우리 삼 년이나 안 헷저.(아이고, 베어 놔서 옛날은 그거 우리, 우리 '메타' 그 기계 '메타' 나와서 두드려 먹은 거 우리 삼 년이나 안 했어.)

103010 @ 음.(음.)

103010 #1 경헤 가난 설렁[116] 미깡낭 싱것주.(그래 가니까 그만두고 귤나무 심었지.)

103010 @ 으.(으.)

103010 #1 게나제나 도께로 두드리고.(그러나저러나 도리깨로 두드리고.)

103010 @ 우선은 보리 비영.(우선은 보리 베어서.)

103010 #1 비영 클에 홀타.(베어서 그네에 홅아.)

103010 @ 아니, 물릴 거 아니?(아니, 말릴 거 아니?)

103010 #1 아.(아.)

103010 @ 밧디 놩?(밭에 놔서?)

103010 #1 밧디 놔근에 물르민 무껑.(밭에 놔서 마르면 묶어서.)

103010 @ 무껑. 며칠이나 물립니까?(묶어서. 며칠이나 말립니까?)

103010 #1 벳 바싹 나민 이틀이민 물른다게.(볕 바싹 나면 이틀이면 마른다.)

103010 @ 아.(아.)

103010 #1 거의 벳 잘 나민 이틀이민 물라. 겡 안허민 혼 사흘. 경헤영 날 우쳐[117] 가민 ᄒᆞ쏠 허민 놀보리 무꺼, 놀보리 무꺼. 놀보리 무껏다근에.(거의 볕 잘 나면 이틀이면 말라. 그렇지 않으면 한 사흘. 그래서 날 궂어 가면 조금 하면 날보리 묶어, 날보리 묶어. 날보리 묶어다가.)

103010 @ 예.(예.)

103010 #1 놀보리 이젠 문 모돵.(날보리 이젠 모두 모아서.)

103010 @ 놀보리가 뭐?(날보리가 뭐?)

103010 #1 놀보리엔 헌 건 젖은 것ᄀᆞ라 놀거엔 허주.(날보리라고 하는 건 젖은 것보고 날것이라고 하지.)

103010 @ 아.(아.)

103010 #1 옛날 말로 놀보리.(옛날 말로 날보리.)

103010 @ 예, 예.(예, 예.)

103010 #1 놀보리. 이제 그거 헨에 비 오람직허민 무꺼야 헐 거 아니냐? 경 안

115) '메타'는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낟알을 거둘 때 사용하는 모터가 달린 기계로 탈곡기를 말한다.
116) '설르다'는 하던 일을 그만두다의 의미다.
117) '우치다'는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한다.

허민 보리 바짝허게[118] 우리 문 나낫저게.(날보리. 이제 그거 해서 비 옴직하면 묶어야 할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보리 '바짝하게' 우리 모두 났었어.)

103010 @ 으.(으.)

103010 #1 보리 땅에서 나. 보리 뒈쌍 그 보리 뒈쌍 물롸. 하이고, 그걸 어떵 다 일일이.(보리 땅에서 나. 보리 뒤집어서 그 보리 뒤집어서 말려서. 하이고, 그걸 어떻게 다 일일이.)

103010 @ 비 맞으민 안 뒐 거 아니?(비 맞으면 안 될 거 아니?)

103010 #1 으, 경헤도 비 맞아. 비 맞아근에 허민 나근에 쉬염바리[119] 그 보리가 난다게. 나민이 그 나민 땅더레 부떠 벼.(으, 그래도 비 맞아. 비 맞아서 하면 나서 '쉬염바리' 그 보리가 난다. 나면 그 나면 땅에 붙어 버려.)

103010 @ 예.(예.)

103010 #1 땅에 영 뒈쌍, 그 보리를 모돵 뒈쓰젠 허민 땅에 구작구작[120] 부뜨멍, 문 땅에 부뜨민 우리 그거 하나썩 줍곡. 사름이 어떵헨 젼디느니. 경헤영 그거 문 줏엉 이제 지름ᄂᆞ물을 것도 이제 ᄒᆞ쏠 이제 받아낫저게.(땅에 이렇게 뒤집어서, 그 보리를 모아서 뒤집으려고 하면 땅에 '구작구작' 붙으면서, 모두 땅에 붙으면 우리 그거 하나씩 줍고. 사람이 어떡해서 견디니. 그렇게 그거 모두 주워서 이제 유채를 것도 이제 조금 이제 받았었어.)

103010 @ 으.(으.)

103010 #1 조합에서.(조합에서.)

103010 @ 으.(으.)

103010 #1 지름ᄂᆞ물을 받으민 돈 사젠 보리 ᄒᆞᆫ착 갈고 지름ᄂᆞ물 ᄒᆞᆫ착 갈민 그 ᄂᆞ물도 날이 좋아사주이. 거 비여 놓민 ᄒᆞᆫ 닷샌 물롸사주게.(유채를 받으면 돈 사려고 보리 한쪽 갈고 유채 한쪽 갈면 그 나물도 날이 좋아야지. 거 베어 놓으면 한 닷새는 말려야지.)

103010 @ 으.(으.)

103010 #1 아이고, 물르기 전이 비 오랑 거 비 맞앙 내불민 그거 까지고 ᄂᆞ물도 낭 그자 ᄉᆞ못 마나 치민 나 불고 혜영 불멍 데껴 불 때도 잇고.(아이고, 마르기 전에 비 와서 거 비 맞아서 내버리면 그거 까지고 나물도 나서 그저 사뭇 장마나 지면 나 버리고 해서 불면서 던져 버릴 때도 있고.)

103010 @ 지름ᄂᆞ물이엔 헌 건 유채ᄂᆞ물을?('지름ᄂᆞ물'이라고 하는 건 '유채나물'?)

103010 #1 어, 어. 옛날엔 것ᄀᆞ라 지름ᄂᆞ물, 지름ᄂᆞ물.(어, 어. 옛날에는 것보고 '지름ᄂᆞ물', '지름ᄂᆞ물'.)

103010 @ 지름ᄂᆞ물예.(유채요.)

103010 #1 이젠 유채엔 ᄀᆞᆫ나만은.(이제는 유채라고 말하지만.)

---

118) '바짝허다'는 싹이 뾰족하게 난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119) '쉬염바리'는 보리는 잔뿌리를 말한다.
120) '구작구작'은 베어 놓은 보리에서 난 싹이 땅에 달라붙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3010 @ 예.(예.)

103010 #1 옛날에 지름ᄂᆞ물, 지름ᄂᆞ물. 경헤연 그거 문 뒈쓰고 아이고, 첨.(옛날에 유채, 유채. 그래서 그거 모두 뒤집고 아이고, 참.)

103010 @ 게난 보리 비여 놩 영 옆으로 놩 널엇당.(그러니까 보리 베어 놓고 이렇게 옆으로 놔서 널었다가.)

103011 #1 보리 기자 막 비멍 영 너느네게.(보리 그저 마구 베면서 이렇게 널어.)

103011 @ 예.(예.)

103011 #1 줄짓엉 짝허게 줄짓어근에 ᄉᆞ못 소리덜 허멍.(줄지어서 쫙 줄지어서 사뭇 소리들 하면서.)

103011 @ 예.(예.)

103011 #1 경헹 이제 그거 문 비여 노면 그거 ᄆᆞᆯ르민 무껑 모탕 클로 이제 그거 홀트잖아게. 젭아 주곡 ᄒᆞᆫ 사람은 젭아 주곡 박 허게 홀트곡 경헤연 그 보리찝 문 무꺼 가멍 거 홀타 놓민 그 보리 고고리가 클방에, 문 멕에 담앙.(그래서 이제 그거 모두 베어 놓으면 그거 마르면 묶어서 모아서 그네로 이제 거 홅잖아. 집어 주고 한 사람은 집어 주고 박 하게 홅고 그래서 그 보릿짚 모두 묶어 가면서 거 홅아 놓으면 그 보리 이삭이 정미기, 모두 멱에 담아서.)

103011 @ 음.(음.)

103011 #1 ᄆᆞᆯㅋ레에 강 ᄀᆞᆯ아근에 쏠 내울 때 잇고 우리 도께로 문 마당질헤영 도께로 멍석 밋밋[121] ᄀᆞᆯ앙 도께로 문 ᄆᆞᆺ앙.(연자매에 가서 갈아서 쌀 낼 때도 있고 우리 도리깨로 모두 마당질해서 도리깨로 모두 마당질해서 도리깨로 멍석 '밋밋' 깔아서 도리깨로 모두 마아서.)

103011 @ 아.(아.)

103011 #1 얼멩이, 옛날 얼멩이. 느네 얼멩이 알아지크냐?(어레미, 옛날 어레미. 너희 어레미 알겠니?)

103011 @ 예, 예.(예, 예.)

103011 #1 그 얼멩이로 영 치멍 문.(그 어레미로 이렇게 치면서 모두.)

103011 @ 게난 보리 이렇게 붙은 거 놔가지고 마당에서 두드리는 거 아니, 도리께로예?(그러니까 보리 이렇게 붙은 거 놔서. 마당에서 두드리는 거 아니, 도리깨로요?)

103011 #1 보리 홀타 놩 고고리만.(보리 홅아 놔서 이삭만.)

103011 @ 아, 아.(아, 아.)

103011 #1 홀타 놩 낭은 낭대로 무껑 앗아 불고.(홅아 놔서 나무는 나무대로 묶어서 가져 버리고.)

103011 @ 으, 으.(으, 으.)

103011 #1 고고리만. 그 봉오지만 끗어 놩. 클에서 홀트민게 홀타지주게. 경허민

121) '밋밋'은 거침없이 줄곧 나오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그걸 두드려나신디 메타기[122] 난 후젠 요런 좀이 어디 있느니? 메타기레 앗아 대민 탕탕 쏠 낭 마다리레 쏠만 담곡. 그런 시기가 하이고, 이거 무슨 시기가 나와신고 허단 보난 멧 년 안 강 미깡낭 싱거라게.(이삭만. 그 봉우리만 끌어 놔서. 그네에서 홅으면 홅아지지. 그러면 그걸 두드렸었는데 '메타기' 나온 후에는 요런 좋기가 어디 있니? '메타기'에 가져 대면 탕탕 쌀 나와서 마대에 쌀만 담고. 그런 시기가 아이고, 이거 무슨 시기가 나왔는가 하다가 보니까 몇 년 안 가서 감귤나무 심더라.)

103011 @ 그니까.(그니까.)

103011 #1 하이고, 첨 문 온가지 문 허멍 살앗저, 하하하.(하이고, 참 모두 온갖 모두 하면서 살았어, 하하하.)

103011 @ 홀타수다예, 보리클에 홀트고 도께질헤 가지고 장만헨예?(홅았어요, 보리그네에 홅고 도리깨질해 가지고 장만해서요?)

103011 #1 으, 마당질. 믁물 마당질 문 허고.(으, 마당질. 메밀 마당질 모두 하고.)

103011 @ 예.(예.)

103011 #1 에이구, 어야홍어야홍 ᄉᆞ못. 어야홍어야홍.(에이구, 어야홍어야홍 사뭇. 어야홍어야홍.)

103012 @ 경 장만헨 보리쏠 만들젠 허난 또 장만헤살 거 아니?(그렇게 장만해서 보리쌀 만들려고 하니까 또 장만해야 할 거 아니?)

103012 #1 경헨 그 보리 이제 장만허면은 그거 옛날엔 믈ᄀᆞ레, 믈ᄀᆞ레에 가근에 물 놓멍, 물 놓멍 그거 껍데기 벳길 거 아니냐게?(그래서 그 보리 이제 장만하면 그거 옛날엔 연자매, 연자매에 가서 물 넣으면서, 물 넣으면서 그거 껍데기 벗길 거 아니냐?)

103012 @ 으.(으.)

103012 #1 벳기민 그걸 이젠 널엉 믈려야 체 갈르주게.(벗기면 그걸 이제는 널어서 말려야 체 가르지.)

103012 @ 으.(으.)

103012 #1 널엉 멍석에 앗당 젓으멍.(널어서 멍석에 가져다가 저으면서.)

103012 @ 물 놔 부난?(물 넣어 버리니까?)

103012 #1 어, 젓으멍 이제 그걸 체 갈랑 이제 거 문딱 이젠 푸는체로 퍼. 푸는체로 퍼 놩 그 보리 나면은 이제 정ᄀᆞ레[123]에서, ᄀᆞ레에서 거평 이제 밥을 헤 먹단 기계에, 가끄는 기계 나난에 하이고 간, 보리 간 장만헨 아졍 간 보리 가까단 밥허난이 문달문달[124] 문달문달. 하이고 이런 시상이 어디 시리 헤져라.(어, 저으면서 이제 그걸 체 갈라서 이제 거 모두 이제 거 모두 이젠 키로 까불러. 키로 까불러 놓고 그 보리 나면 이제 '정ᄀᆞ레'에서, 맷돌에서 거피해서 이제 밥을 해 먹다가 기계에, 깎는 기계 나오니까 하이고 가서, 보리 가서 장만해서 가지고 가서 보리 깎아

122) '메타기'는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낟알을 거둘 때 사용하는 모터가 달린 기계를 말한다.
123) '정ᄀᆞ레'는 조금 얄팍하고 가벼운 돌로 만든 맷돌이다.
124) '문달문달'은 껍질을 깎은 쌀이 부드러운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다가 밥하니까 ‘문달문달’, ‘문달문달’. 하이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을까 하게 되더라.)

103012 @ 아.(아.)

103012 #1 하하하.(하하하.)

103012 @ 기곗방 나난.(정미소 나오니까.)

103012 #1 기곗방 나 가난 요런 시상이 어디 시리? 경헤연 첨 하이구, 요추룩 살기가 좋암구나 생각헤시네게.(정미소 나와 가니까 요런 세상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참 하이고, 요처럼 살기가 좋구나 생각했어.)

103012 @ 물방에 가 가지고 이렇게 헐 때는 보통.(연자매 가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보통.)

103012 #1 그때는 이 쉐 잇곡 물 잇곡 사름 엇이민, 문 이녁 쉐 아졍 강 물ᄀᆞ레에 메와근에 벵벵 이녁냥으로 기자 돌림만 허민 뒈는디.(그때는 이 소 있고 말 있고 사람 없으면, 모두 자기 소 가지고 가서 연자매에 메워서 뱅뱅 자기대로 그저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103012 @ 으.(으.)

103012 #1 쉐 엇이민 사름 수눌엉. 동네 사름덜 수눌엉 강 물방에 밀려.(소 없으면 사람 품앗이해서. 동네 사람들 품앗이해서 가서 연자매에 밀려.)

103012 @ 아, 사름들이.(아, 사람들이.)

103012 #1 아이고, 사름덜이 밀려야주게. 그 돌은 그 ᄉᆞ못 밀려야주. 경헨 밀렁 허고 쉐 물 잇인 때 강 메와근에 쉐로 헤영 그디 강 문 그 물ᄀᆞ레에서 쳴 내와시네게.(아이고, 사람들이 밀려야지. 그 돌은 그 사뭇 밀려야지. 그래서 밀려서 하고 소 말 없을 때 가서 메워서 소로 해서 거기 가서 모두 그 연자매에서 체를 냈어.)

103012 @ 아.(아.)

103012 #1 경헨 제선 돌아오면은 남방에 알지이?(그래서 제산 돌아오면 나무절구 알지?)

103012 @ 예, 예.(예, 예.)

103012 #1 남방에 방엣귀.(나무절구 방앗공이.)

103012 @ 방엣귀.(방앗공이.)

103012 #1 우리 그것도 잇어낫저만은 어디사 문 가 베신지 그것에 쏠 ᄲᅳᆺ아근에 떡 헤영 제서헤 먹고 헷저게. 보리찍으로 불 솜고.(우리 그것도 있었지만 어디야 모두 가 버렸는지 그것에 쌀 빻아서 떡 해서 제사해 먹고 했어. 보릿짚으로 불 때고.)

103012 @ 불 솜고.(불 때고.)

103012 #1 낭이 어디서. 아이고 세상.(나무가 어디서. 아이고 세상.)

103013 @ 보리쌀 이제 다 장만헷수다. 다 장만허난 이제 보리쏠로는 뭐 헤 먹을 거?(보리쌀 이제 다 장만했습니다. 다 장만하니까 이제 보리쌀로는 뭐 해 먹을 거?)

103013 #1 밥해 먹을 거.(밥해 먹을 거.)

103013 @ 밥해 먹고. 또 밥만 헤 먹어?(밥해 먹고. 또 밥만 해 먹어?)

103013 #1 밥만 헤 먹엇주, 보리밥만 헹 먹엇주게.(밥만 해 먹었지, 보리밥만 해서 먹었지.)

103013 @ 아니 뭐, 보리쏠 말고 보리 깎기 전에 보리로?(아니 뭐, 보리쌀 말고 보리 깎기 전에 보리로?)

103013 #1 보리로.(보리로.)

103013 @ 게역?(미숫가루?)

103013 #1 보리로, 보리로 그거 기냥 옛날엔 우리 기자 쏠 먹을 만썩 가까단 먹어낫저게. 가까당 먹엉 항에 믄 도로무깡에 담아 놓고 일 년 먹을 거.(보리로, 보리로 그거 그냥 옛날엔 우리 그저 쌀 먹을 만큼씩 깎아다가 먹었었어. 깎아다가 먹고 항아리에 모두 드럼통에 담아 놓고 일 년 먹을 거.)

103013 @ 으.(으.)

103013 #1 보리 허면은 일 년 먹을 거 헹 미섹이[125] 담아 놔지민 아이고, 영 우리가 엇어 가는 양, 클방 나난에 그자 클방에 가민 가까단 먹고 헐 때는 허곡.(보리하면은 일 년 먹을 거 해서 '미섹이' 담아 놓으면 아이고, 이렇게 우리가 없어져 가는 대로, 정미소 나오니까 그저 정미소에 가면 깎아다가 먹고 할 때는 하고.)

103013 @ 으.(으.)

103013 #1 그전엔 또 물ᄀᆞ레 강 ᄀᆞᆯ아 오민 널엉 체에 걸렁 또 ᄀᆞ레에 거평 밥헹 먹고.(그전엔 또 연자매 가서 갈아 오면 널어서 체에 걸러서 또 맷돌에 거피해서 밥해서 먹고.)

103013 @ 밥헹 먹엉.(밥해서 먹고.)

103013 #1 으, 경헤낫저.(으, 그랬었어.)

103013 @ 게역도 헹 먹어난 거 아니?(미숫가루도 해서 먹었던 거 아니?)

103013 #1 아이고, 보리 보깡게. 그건 보리로 보깡 게역 헤 먹주. 보리게역으로 살앗주, 여름에사. 중석이 보리게역.(아이고, 보리 볶아서. 그건 보리로 볶아서 미숫가루 해 먹지. 보리미숫가루로 살았지, 여름에야. 곁두리가 보리미숫가루.)

103013 @ 하하 중석이?(하하 곁두리가?)

103013 #1 으, 중석이 보리게역.(으, 곁두리가 보리미숫가루.)

103013 @ 으.(으.)

103013 #1 밧디 강 일허젠 허민 게역덜 캉 먹게, 우리 게역 캉 먹게 헤영.(밭에 가서 일하려고 하면 미숫가루들 타서 먹게, 우리 미숫가루 타서 먹게 해서.)

103013 @ 으.(으.)

103013 #1 경헨 그 게역 캉 먹고 헤영. 아이고, 얼마나 둘아시니? 설탕이 어디 잇느니?(그래서 그 미숫가루 타서 먹고 해서. 아이고, 얼마나 달았니? 설탕이 어디 있니?)

103013 @ 뭐 놩?(뭐 넣어서?)

---

125) '미섹이'는 무엇이 한데 많이 모여 있거나 여기저기 흔하게 널려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3013 #1 사끄렝이, 사끄렝이.(사카린, 사카린.)

103013 @ 사끄렝이가 뭐꽈?('사끄렝이'가 뭡니까?)

103013 #1 이젠 것ᄀᆞ라 원 미숫ᄀᆞ루도 아니라, 미숫ᄀᆞ루도 그루후제 낫어. 사끄렝이엔 헌 것이 무스거 저 유리 닮은 거 둘코롱헌 것 나와낫저게. 설탕은 아니고.(이제 것보고 원 미숫가루도 아니야, 미숫가루도 그 후에 났어. '사끄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저 유리 같은 거 달콤한 것 나왔었어. 설탕은 아니고.)

103013 @ 아.(아.)

103013 #1 경헤연 그거 놔근에 게역 헹 먹어낫주게.(그래서 그거 넣어서 미숫가루 해서 먹었었지.)

103013 @ 아.(아.)

103013 #1 그거 놩 게역 헹 먹어.(그거 넣어서 미숫가루 해서 먹어.)

103013 @ 옛날에 혹시 옥수수 솖을 때 영 놔난 거?(옛날에 혹시 옥수수 삶을 때 이렇게 놨던 거?)

103013 #1 으, 옥수수 솖을 땐 미숫ᄀᆞ루주게.(으, 옥수수 삶을 때는 미숫가루지.)

103013 @ 무사 그거 미숫ᄀᆞ루라?(왜 그거 미숫가루야?)

103013 #1 옥수수 솖을 땐 미숫ᄀᆞ루 놩 솖앙 먹주. 옥수수도 밧 엠에 영 놧당 아이덜 그거 간식헤시네게. 아이덜 간식. 돈 엇어근에 사 먹도 못허고. 아이고, 우리 아이덜은 사 먹어보지 안헷저. 어느 저르에.(옥수수 삶을 땐 미숫가루 넣어서 삶아서 먹지. 옥수수도 밭 옆에 이렇게 놨다가 아이들 그거 간식했어. 아이들 간식. 돈 없어서 사 먹지도 못하고. 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사 먹어보지 않았어. 어느 겨를에.)

103014 @ 보리 장만헤 나면 보리 껍질 잇지예?(보리 장만하고 나면 보리 껍질 있지요?)

103014 #1 보리 껍질게 ᄆᆞ스락이엔 헌다게.(보라 껍질 까끄라기라고 한다.)

103014 @ 예, ᄆᆞ스락.(예, 까끄라기.)

103014 #1 ᄆᆞ스락. ᄆᆞ스락은 허민 굴묵[126] 짇어시녜, 우리가.(까끄라기. 까끄라기는 하면 '굴묵' 땠어, 우리가.)

103014 @ 아.(아.)

103014 #1 굴묵 짇언 그걸로 굴묵 짇언 살아시녜게.('굴묵' 때서 그걸로 '굴묵' 때서 살았어.)

103014 @ 음.(음.)

103014 #1 ᄉᆞ못 방 얼언 무시걸로 사느니게. 그걸로 굴묵 짇엉.(사뭇 방 추워서 뭐로 사니. 그걸로 '굴묵' 때서.)

103014 @ 체는?(체는?)

103014 #1 보리체는 도새기 멕이곡.(보릿겨는 돼지 먹이고.)

103014 @ 보리체는 도새기 멕이고?(보릿겨는 돼지 먹이고?)

126)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와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03014 #1 으, 또 그 ᄀᆞ스락은, 보리 헤난 그 ᄀᆞ스락은 굴묵 짇고.(으, 또 그 까끄라기는, 보리 했던 그 까끄라기는 '굴묵' 때고.)

103014 @ 굴묵 짇고.('굴묵' 때고.)

103014 #1 내불 거 엇어.(내버릴 거 없어.)

103014 @ 찝은?(짚은?)

103014 #1 보리찍은 이제 그걸로 우리가 지들커 헤 와지민 허고 밥헹 먹어사주. 마당에도 끌곡.(보릿짚은 이제 그걸로 우리가 땔감 해 올 수 있으면 하고 밥해서 먹어야지. 마당에도 깔고.)

103014 @ 으.(으.)

103014 #1 저 도새기통에도 담곡, 걸름. 걸름헤시네.(저 돼지우리에도 담고, 거름. 거름했어.)

103014 @ 걸름.(거름.)

103014 #1 으, 도새기걸름 허고. 하이고, 무시걸로 걸름허느니게.(으, 돼지거름하고. 하이고, 뭐로 거름하니.)

103014 @ 맞아마씨.(맞아요.)

103014 #1 게난 그자 보리찍은 나면은, 옛날도 동냥바치 보리찍 하영 눈 디 들어가낫젠 헌다. 부제칩이.(그러니까 그저 보릿짚은 나오면, 옛날도 동냥아치 보릿짚 많이 가린 데 들어갔었다고 한다. 부잣집에.)

103014 @ 부잣집이니까.(부잣집이니까.)

103014 #1 어, 보리찍 하영 눈 디 동냥질허레 갓젠 ᄀᆞᆫ나게. 에이고, 내불 게 하나 있느냐게? 꿰꼬질도, 나민 꿰도 갈아근에 꿰꼬질 털어 나민 우리 지들커 허젠 비 안 맞게 잘 놧당 걸로 불 솜앙 밥헹 먹고 아이고. 저추룩 가스에서 밥헤 먹으민 무사 아프느니만은 영 아팡 대수술 살 만허난 영 헤라게.(어, 보릿짚 많이 가린 데 동냥질하러 갔다고 말해. 에이고, 내버릴 게 하나 있냐? 깻단도, 나오면 깨도 갈아서 깻단 털고 나면 우리 땔감 하려고 비 안 맞게 잘 놨다가 걸로 불 때서 밥해서 먹고 아이고. 저처럼 가스에서 밥해 먹으면 왜 아프니 이렇게 아파서 대수술을 살 만하니까 이렇게 하더라.)

103014 @ 으.(으.)

103014 #1 살 만허난게.(살 만하니까.)

103014 @ 고생헤부난게.(고생하니까.)

102012 #1 살 만허난 이추룩이 아이덜 공부시켜은에 아들 세 성제 공부시키곡 뚤 두 개에, 뚤 이제 족은년은 인천 강 살고 큰년은 저 신효리[127] 강 살암저만은 그것덜 난 때에 요 무신 아이고, 밧디 가멍 우리 큰년 고생헌 아이주. 그 제일 몯이로 나난이 학교도 고등학교ᄁᆞ장벳기 못헷저게.(살 만하니까 이처럼 아이들 공부시켜서는 아들 세 형제 공부시키고 딸 두 개에, 딸 이제 작은딸은 인천 가서 살고 큰딸은 저 신효리 가서 살고 있지만 그것들 낳을 때에 요 무슨 아이고, 밭에 가면서 우

127) '신효리'는 서귀포시 신효동을 말한다.

리 큰딸 고생한 아이지. 그 제일 맏이로 나니까 학교도 고등학교까지밖에 못했어.)

102012 @ 으.(으.)

102012 #1 저 서귀서고 나왓저. 그 애기 들멍 집이서 때 허렌 허고. 물 들렁 오렌 허고. 에구 경허멍 헨에 첨, 헷저만은이 우이 아이덜은 요 돈 십 원 중학교ᄁᆞ장 고등학교ᄁᆞ장 돈 십 원 도렌도 안 헤 봣저. 돈도 엇고 허난. 막 불쌍허게 우리 애기덜 컷저게. 게난 착험은.(저 서귀서고 나왔어. 그 아기 돌보면서 집에서 때 하라고 하고. 물 들고 오라고 하고. 에구 그러면서 해서 참, 했지만 위의 아이들은 요 돈 십 원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돈 십 원 달라고도 안 해 봤어. 돈도 없고 하니까. 아주 불쌍하게 우리 아기들 컸어. 그러니까 착하기는.)

102012 @ 게난 공부 잘헤신게. 공부도 잘허고 아들들.(그러니까 공부 잘했네요. 공부도 잘하고 아들들.)

102012 #1 어게. 아덜덜은 기자 대학 허는 체허난 저 육지 강덜 문 훼사에덜 시험 봉 들어가고.(어. 아들들은 그저 대학 하는 체하니까 저 육지 가서들 모두 회사에들 시험 봐서 들어가고.)

102012 @ 아.(아.)

102012 #1 경허고 아이고, 난 놈의 애기덜 무시거 돈덜 얼만씩 주노라, 얼마씩 주노라 헤도 우리 애기덜은 첨 아부지가 어질어 놓난 애기덜이 착게.(그리고 아이고, 난 남의 아기들 뭐 돈들 얼마씩 준다, 얼마씩 준다 해도 우리 아기들은 첨 아버지가 어지어 놓으니까 아기들이 착해.)

102012 @ 아.(아.)

102012 #1 아이덜 착헤. 게난 우리 손지도이 막 착헤여. 우리 손지덜토 씨가 어질어놓난 하나 말썽부리는 애기가 엇나. 저 우리 큰메누리네도 오누이, 셋메누네도 오누이, 족은 것도 오누이 경헷저만은. 우리 큰메누리네 아덜도 이제 대학 일 년, 이 년. 일 년 반사 헤신디 헨 군대에 갓다 오란 유학 가고, 또 셋놈 아덜도 이젠 학교 일 년 반 헤연 군대에 간 오란 또 호주 간 일 년, 미국 간 일 년, 또 이제 중국 갓저. 삼 년차 유학.(아이들 착해. 그러니까 우리 손주도 아주 착해. 우리 손주들도 씨가 어지니까 하나 말썽부리는 아기가 없어. 저 우리 큰며느리네도 오누이, 둘째 며느리도 오누이, 작은 것도 오누이 그랬지만. 우리 큰며느리네 아들도 이제 대학 일 년, 이 년. 일 년 반인가 했는지 해서 군대에 갔다 와서 유학 가고, 또 둘째 아들 아들도 이젠 학교 일 년 반 해서 군대에 갔다 와서 또 호주 가서 일 년, 미국 가서 일 년, 또 이제 중국 갔어. 삼 년째 유학.)

102012 @ 하하하.(하하하.)

102012 #1 게난 돈을 어떵헨 버슬어 당허느니. 지네 아방네가 속암저게. 애기덜이 착허여.(그러니까 돈을 어떡해서 벌어서 당하니. 자기네 아버지네가 애쓰고 있어. 아기들이 착해.)

103015 @ 보리농사 짓으멍 영 생각나는 일 엇수과? 재미져난 거든 고생헤나 거든 보리농사 짓으멍 잇어난?(보리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일 없습니까? 재

미있던 거든 고생했던 거든 보리농사 지으면서 있었던?)

103015 #1 아이구, 생각나는 건 난이 애기덜 무시거 물려주지 못허고 후제에 물려주지 못헐 생각. 그자 놈광 ᄀᆞ치 못 사는 생각만 욕심부렷주.(아이구, 생각나는 건 난 아기들 뭐 물려주지 못하고 후에 물려주지 못할 생각. 그저 남과 같이 못 사는 생각만 욕심부렸지.)

103015 @ 으.(으.)

103015 #1 뚠 생각은 엇어라.(딴 생각은 없더라.)

103015 @ 으. 보리농사 지을 때 뭐 고생헤난 거?(으. 보리농사 지을 때 뭐 고생했던 거?)

103015 #1 하이고, 고생 말이사 ᄀᆞᆯ앙 무시거 허느니게.(하이고, 고생 말이야 말해서 뭐 하니.)

103015 @ 예.(예.)

103015 #1 하이고, 그건 입으로 말헐 수 엇나게. 입으로 말헐 수 엇나. 입을 거안 입고 요 모욕 흔번 못 헤여근에 고사리 강 ᄉᆞᆯ앙 와도 저디 물 흔 바가지 놔근에 치대기는 체혜영.(하이고, 그건 입으로 말할 수 없어. 입으로 말할 수 없어. 입을 거안 입고 요 목욕 한번 못 해서 고사리 가서 살라 와도 저기 물 한 바가지 놔서 끼얹는 체해서.)

103015 @ 음.(음.)

103015 #1 하르방[128]도 경헷저게, 물 엇이민 흔 직은 놔근에 물 적지는 체허고. 어느 저르에. 아이고.(할아버지도 그랬어, 물 없으면 한 모금은 넣어서 물 적시는 체하고. 어느 겨를에. 아이고.)

103015 @ 밧디 갓다 와도 씻지 못혜영예.(밭에 갔다 와도 씻지 못해서요.)

103015 #1 아이고, 아이고. 우리 살아난 말 ᄀᆞᆯ으민 경.(아이고, 아이고. 우리 살았던 말 하면 그렇게.)

조농사

103016 @ 지난번에 보리농사 짓는 거 물엇수다예.(지난번에 보리농사 짓는 거 물었습니다.)

103016 #1 으.(으.)

103016 @ 오늘은 조농사 짓는 거 물어보쿠다.(오늘은 조농사 짓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103016 #1 조농산이 옛날엔 조코고린 손으로 튿앗저게.(조농사는 옛날엔 조이삭은 손으로 뜯었어.)

103016 @ 으. 우선은 준비하는 거부터.(으. 우선은 준비하는 거부터.)

103016 #1 어.(어.)

103016 #1 조농사 준비허젠 허민 무슨 준비를 혜야 뒙니까?(조농사 준비하려고

128)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하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103016 #1 무슨 준비허느니, 그자 좁씨 삐영 조 가는 거주게.(무슨 준비하니, 그저 좁씨 뿌려서 조 가는 거지.)
103019 @ 좁씨 삐는 건?(좁씨 뿌리는 건?)
103019 #1 밧디 가근에이.(밭에 가서.)
103019 @ 으.(으.)
103019 #1 밧디 가근에 밧 갈아 놩.(밭에 가서 밭 갈아 놔서.)
103019 @ 으.(으.)
103019 #1 좁씨를 삔다게. 좁씨를 삐여, 쫙쫙허게 저 밧 가는 사름이.(좁씨를 뿌린다. 좁씨를 뿌려, 쫙쫙하게 저 밭 가는 사람이.)
103019 @ 예.(예.)
103019 #1 삐면은 우린 그걸 또게 벌레기[129]라고 옛날에 밧 갈앙 저 검질메는 것이 벌레기엔 곧나게. 영 벌레기, 저 가는 밧디 풀 메는 건 벌레기 치레 가사.(뿌리면 우린 그걸 또 '벌레기'라고 옛날에 밭 갈아서 저 김매는 것이 '벌레기'라고 말해. 이렇게 '벌레기', 저 가는 밭에 풀 매는 건 '벌레기' 치러 가야.)
103019 @ 아, 게난.(아, 그러니까.)
103019 #1 벌레기 치레 갓어.('벌레기' 치러 갔어.)
103019 @ 벌레기 치러 가다.('벌레기' 치러 가다.)
103019 #1 으, 벌레기 치레 갓어. 밧 가는 디, 저 간 후이 우리 검질메는 것은 밧 메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벌레기 쳔, 벌레기 쳔.(으, '벌레기' 치러 갔어. 밭 가는데, 저 간 후에 우리 김매는 것은 밭 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벌레기' 쳤어, '벌레기' 쳤어.)
103019 @ 벌레기 치는 거렌 헤예?('벌레기' 치는 거라고 해요?)
103019 #1 으, 벌레기 치는 거엔 곧나.(으, '벌레기' 치는 거라고 말해.)
103017 @ 게난 조농사 짓젠 허민 미릇 걸름 들이거나 그런 준비는 엇구나예?(그러니까 조농사 지으려고 하면 미리 거름 들이거나 그런 준비는 없구나?)
103017 #1 걸름이 어디 잇느니게? 걸름 엇나게.(거름이 어디 있니? 거름 없어.)
103017 @ 으.(으.)
103017 #1 조농사도 걸름 어디 있느니게, 기자 좁씨 삐여근에.(조농사도 거름 어디 있니, 그저 좁씨 뿌려서.)
103017 @ 예.(예.)
103021 #1 좁씨 삐영 기자 내불민 좁씨 나민 ᄉᆞᄁᆞ레 뎅겨, 이제.(좁씨 뿌려서 그저 내버리면 좁씨 나면 솎으러 다녀, 이제.)
103021 @ 음.(음.)
103021 #1 어느 때 ᄉᆞᄁᆞ는고 허민 음력 혼 유월, 유월 혼, 양력은 칠월 뒐 거주. 좁씨가 모종모종 나민 그걸 내불민 안 뒈주게.(어느 때 솎는가 하면 음력 한 유월,

129) '벌레기'는 밭을 갈 적에 일어나는 풀포기를 말한다.

유월 한, 양력은 칠월 될 거지. 좁씨가 모종모종 나면 그걸 내버리면 안 되지.)

103021 @ 음.(음.)

103021 #1 방수[130] 벌여, 방수 벌영근에 하나씩 하나씩 방수 벌영 욜로 요만씩 욜로 요만씩 헤근에 방수 벌영 그걸 ᄉᆞ꾸주게.('방수' 벌려, '방수' 벌려서 하나씩 하나씩 '방수' 벌려서 요리로 요만큼씩 요리로 요만큼씩 해서 '방수' 벌려서 그걸 솎지.)

103021 @ 음.(음.)

103021 #1 경허민 두불 멜 때는 검질 두불 메러 갈 때는 그 줓게 나민 씨를 ᄉᆞ꽈. 또 두불 ᄉᆞ꽈.(그러면 두벌 맬 때는 김 두벌 매러 갈 때는 그 배게 나면 씨를 솎아. 또 두불 솎아.)

103021 @ 방수 벌린다는 게 무슨 말이꽈?('방수' 벌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03021 #1 씨를 영 삐면은 벙뎅이 졍 나잖아?(씨를 이렇게 뿌리면 덩어리 져서 나잖아?)

103021 @ 예, 예.(예, 예.)

103021 #1 벙뎅이 졍 나지게.(덩어리 져서 나지.)

103021 @ 예, 예.(예, 예.)

103021 #1 거를 메여 줘야 ᄉᆞ꽈 줘야.(거를 매 줘야 솎아 줘야.)

103021 @ 예.(예.)

103021 #1 옛날엔 조 ᄉᆞ꾸레 가는 거, 꿰 ᄉᆞ꾸레 가는 거 경 골앗저게.(옛날엔 조 솎으러 가는 거, 깨 솎으러 가는 거 그렇게 말했어.)

103021 @ 아, 게난 간격을 놓는다는 얘기?(아, 그러니까 간격을 놓는다는 얘기?)

103021 #1 으, 간격을 사이사이 간격을 놔야 뒈주, 부떵은 안 뒈는 거.(으, 간격을 사이사이 간격을 놔야 되지, 붙어서는 안 되는 거.)

103021 @ 간격 벌여 주는 거를.(간격 벌려 주는 거를.)

103021 #1 으, 벌여 주는 거. 꿰 씨도 그거, 좁씨도 그거 아무 씨도 벌여 주는 거.(으, 벌려 주는 거. 참깨 씨도 그거, 좁씨도 그거 아무 씨라도 벌려 주는 거.)

103021 @ 으, 게난 방수 놓는덴 허는구나예.(으, 그러니까 '방수' 놓는다고 하는군요.)

103021 #1 우리 보리밧만 내분다게.(우리 보리밭만 내버린다.)

103021 @ 으.(으.)

103021 #1 보리는이 보리는 기자 돗걸름에 접아 놩 톡톡톡 방수 놩 젭아 놔 불민 그거는 안 ᄉᆞ꽈. 경헌디이 저 좁씨는 멧 번 ᄉᆞ꽈 줘야 헌다게.(보리는 보리는 그저 돼지거름에 집아 놔서 톡톡톡 '방수' 놔서 집어 놔 버리면 그거는 안 솎아. 그런데 저 좁씨는 몇 번 솎아 줘야 한다.)

103021 @ 게민 좁씨는 ᄉᆞ꽈주젠 허민 검질을 막 여러 번 메야 뒈쿠다예.(그럼

130) '방수'는 일정한 공간으로 벌어서 띈 간격을 말한다.

좁씨는 솎아 주려고 하면 김을 아주 여러 번 매야 되겠네요.)

103021 #1 아고, 여러 번 메주게.(아이고, 여러 번 매지.)

103021 @ 멧 불을 멥니까?(몇 벌을 맵니까?)

103021 #1 세불은 메여사.(세벌은 매어야.)

103021 @ 아, 세불은 메사?(아, 세벌은 매야.)

103021 #1 으, 세불은 메여사. 경헤연 마지막에 그 조낭이 이만이 헤영 짓으면은, 그 조낭이 또 뭐 ᄀᆞ라지엔 헌다. 옛날에 그 조가 아니고 조코고리 닮은 ᄀᆞ라지.(으, 세벌은 매어야. 그래서 마지막에 그 조짚이 이만큼 해서 무성하면, 그 조짚이 또 뭐 가라지라고 한다. 옛날에 그 조가 아니고 조이삭 같은 가라지.)

103022 @ 풀 이름.(풀 이름.)

103022 #1 풀 이름이 ᄀᆞ라지.(풀 이름이 가라지.)

103022 @ 검질 이름.(김 이름.)

103022 #1 ᄀᆞ라지렌 헤근에 우리 ᄀᆞ라지 메레 가 오고.(가라지라고 해서 우리 가라지 매러 갔다 오고.)

103022 @ 게민 조팟디 메는 풀들은 ᄀᆞ라지 말고 다른 풀 뭐가 잇수과?(그럼 조밭 매는 풀들은 가라지 말고 다른 풀 뭐가 있습니까?)

103022 #1 아이고, 다. 잡풀 다 다.(아이고, 다. 잡풀 다 다.)

103022 @ 게난 이름들.(그러니까 이름들.)

103022 #1 이름덜 뭐 기자 지는쿨 진쿨 뭐 소웽이풀 다, 검질 일름이 물릇 하주게, 하.(이름들 뭐 그저 별꽃, 별꽃 뭐 엉겅퀴 다, 김 이름이 무릇 많지, 많아.)

103022 @ 음. 제완지도 나고.(음. 바랭이도 나고.)

103022 #1 아이고, 그건 원 원 기본이고 제완지는.(아이고, 그건 원 원 기본이고 바랭이는.)

103022 @ 으.(으.)

103022 #1 제완지는 기본이고.(바랭이는 기본이고.)

103022 @ 예.(예.)

103022 #1 ᄆᆞᆯᄆᆞ작쿨이여 독쿨[131]이여. 경허민 거 저 요새 베체기쿨 그런 거는 꼿 피주게. 영 꼿 평. 그 옛날에 우리 두른 때엔 꼿싸움 영 야개기 걸령 꼿 피민 야개기 걸령 그런 꼿싸움 허고. 그런 풀밧디 나고 게나제나 아이고 검질이 멧 가지라.(쇠무릎이다 '독쿨'이다. 그러면 거 저 요새 질경이 그런 거는 꽃 피지. 이렇게 꽃 펴서.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엔 꽃싸움 이렇게 목 걸려서 꽃 피면 목 걸려 그런 꽃싸움 하고. 그런 풀밭에 나고 그러나저러나 아이고 김이 몇 가지야.)

103022 @ 음.(음.)

103022 #1 검질 막 여라 가지여. 제완지여 진쿨이여 뭐 원 원. 저 무신 가시리풀[132]이여 뭐 검질 일름이 원 ᄀᆞᆫ고 말 나위 엇주.(김 아주 여러 가지야. 바랭이다

131) '독쿨'은 풀 종류의 하나다.
132) '가시리풀'은 풀 종류의 하나다.

별꽃이다 뭐 원 원. 저 무슨 ‘가시리풀’이다 뭐 김 이름이 원 말하고 말 나위 없지.)

103022 @ 으.(으.)

103022 #1 이제도 그거주, 이제도 낭 밧디 나는 거. 물릇만 씨 져 베시녜.(이제도 그거지, 이제도 나무 밭에 나는 거. 무릇만 씨 져 버렸어.)

103022 @ 무사 씨 져 불어신고, 물릇은예?(왜 씨 져 버렸는지, 무릇은요?)

103022 #1 우리 미깡낭 싱경 제초제 헤 가난 물릇이 씨 져라게. 아이고, 옛날은 우리 물릇 씨 제우지 못헤영 보리밧디 물릇은 나 놓민이 그거 메젠 막. 보리 일어나 불고 헹 막 어려와낫저게. 경헨 헤나신디 난셍이풀. 난셍이 알지.(우리 귤나무 심어서 제초제 해 가니까 무릇이 씨 지더라. 아이고, 옛날은 우리 무릇 씨 지우지 못해서 보리밭 무릇은 나 놓으면 그거 매려고 마구. 보리 일어나 버리고 해서 아주 어려웠었어. 그래서 했었는데 냉이. 냉이 알지.)

103022 @ 예.(예.)

103022 #1 이제 저 이젠 무시거엔 ᄀᆞᆯ아라, 그것ᄀᆞ라. 난셍이엔 안 ᄀᆞᆯ안.(이제 저 이젠 뭐라고 말하더라, 그것보고. ‘난셍이’라고 안 말해.)

103022 @ 어쨌든 난셍이풀 옛날에예.(어쨌든 냉이 옛날에요.)

103022 #1 으, 옛날에 난셍이엔 ᄀᆞᆫ주게. 난셍인 우리 캐여당 먹는 거.(으, 옛날에 ‘난셍이’라고 말해. 냉이는 우리 캐다가 먹는 거.)

103022 @ 거 먹는 거랏수과?(거 먹는 거였습니까?)

103022 #1 아이고, 거 데우청도 먹곡.(아이고, 거 데쳐서도 먹고.)

103022 @ 으.(으.)

103022 #1 국 끌영도 먹고. 난셍이엔 헌 거.(국 끓여서도 먹고. 냉이라고 하는 거.)

103022 @ 아.(아.)

103022 #1 경헨 우리 그거 헤당 먹곡. 아고, 옛날 어디 ᄂᆞ물이 잇느니. 드릇ᄂᆞ물 ᄉᆞ뭇 드릇ᄂᆞ물이엔 헌 거 느네 아무거엔 ᄀᆞᆯ아도 몰를 거여.(그래서 우리 그거 해다가 먹고. 아이고, 옛날 어디 나물이 있니. 들나물 사뭇 들나물이라고 하는 거 너희 아무거라고 말해도 모를 거야.)

103022 @ 무사마씨, 드릇ᄂᆞ물 김치 좋아헙니다.(왜요, 들나물 김치 좋아합니다.)

103022 #1 하하.(하하.)

103022 @ 드릇ᄂᆞ물 김치.(들나물 김치.)

103022 #1 칼칼 써, 써.(칼칼 써, 써.)

103018 @ 게민 조는 언제 갑니까?(그럼 조는 언제 갑니까?)

103018 #1 조는 ᄉᆞ월덜 갈암실 거라.(조는 사월 갈고 있을 거야.)

103018 @ 음력 ᄉᆞ월?(음력 사월?)

103018 #1 으, 음력 ᄉᆞ월에 조는 갈암실 거여.(으, 음력 사월에 조는 갈고 있을 거야.)

103018 @ 예.(예.)

103018 #1 보리 옛날에 보리 그르에 조 갈아, 조 갈아 헤낫저.(보리 옛날에 보리 그루에 조 갈아, 조 갈아 했었어.)

103018 @ 으.(으.)

103018 #1 보리 그르에 조 갈아, 조 갈아 헤나신디 보리가 옛날은 이 ᄉᆞ월 망중에가 원 ᄉᆞ월 망중[133]에 한창 보리 헌덴 헌다.(보리 그루에 조 갈아, 조 갈아 했었는데 보리가 옛날은 이 사월 망종에가 원 사월 망종에 한창 보리 한다고 한다.)

103018 @ 으.(으.)

103018 #1 경헨 허는 따문 망중에 세주. 망중에 반 ᄀᆞ슬헤여, 반 ᄀᆞ슬헤여 옛날 어른덜 ᄀᆞᆯ아낫저게. 경허난 그 망중 뒈민 이제 조도 갈저, 산디도 갈저, 풋도 갈저, 콩도 갈저.(그렇게 하는 때문 망종에 세지. 망종에 반 가을해 반 가을해, 옛날 어른들 말했었어. 그러니까 그 망종 되면 이제 조도 갈랴, 밭벼도 갈랴, 팥도 갈랴, 콩도 갈랴.)

103018 @ 음.(음.)

103018 #1 망중 ᄇᆞ뎌 가민 이 봄이.(망종 밭아 가면 이 봄에.)

103018 @ 음, 봄이가.(음, 봄에.)

103018 #1 으, 봄이. ᄆᆞᆫ 여름 농서난. 여름 농선. 그자 보리만 겨울에, 시월덜에 갈주.(으, 봄에. 모두 여름 농사니까. 여름 농사는. 그저 보리만 겨울에, 시월에 갈지.)

103019 @ 으, 음력 시월에 갈고예?(으, 음력 시월에 갈고요?)

103019 #1 으, 음력 시월에.(으, 음력 시월에.)

103019 @ 게민 조는 씨를 뿌려 놓고 가는 거라?(그럼 조는 씨를 뿌려 놓고 가는 거야?)

103019 #1 으, 짝짝 삐영.(으, 쫙쫙 뿌려서.)

103019 @ 짝짝 삐여 놩.(쫙쫙 뿌려 놓고.)

103019 #1 짝짝 삐여. ᄆᆞᆫ 골고루 골고루 삐여.(쫙쫙 뿌려. 모두 골고루 골고루 뿌려.)

103019 @ 예.(예.)

103019 #1 다 삐주. 겨난 접아놓는 거엔 헌 건 ᄆᆞ멀.(다 뿌리지.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라고 하는 건 메밀.)

103019 @ 으.(으.)

103019 #1 ᄆᆞ멀도 불껑에 서껑 접아놓나게. 접아놓는 거엔 헌 거 보리, ᄆᆞ멀 이제 영 접아놩 가는 거.(메밀도 재에 섞어서 집어넣어. 집어넣는 거라고 하는 거 보리, 메밀 이제 이렇게 집어넣고 가는 거.)

103019 @ 나머지는?(나머지는?)

103019 #1 나머지는 다 삐여. 콩도 삐고 보리 그 저, 풋도 삐고 다 삐여.(나머지

133) '망중'은 이십사절기의 하나인 '망종'을 말한다. 소만(小滿)과 하지(夏至) 사이에 들며, 이맘때가 되면 보리는 익어 먹게 되고 모를 심게 된다. 6월 6일 무렵이다.

는 다 뿌려. 콩도 뿌리고 보리 그 저, 팥도 뿌리고 다 뿌려.)

103019 @ 어쨌든 밧 갈앙 씨 뿌리는 게 아니라?(어쨌든 밭 갈아서 씨 뿌리는 게 아니야?)

103019 #1 으.(으.)

103019 @ 씨 뿌렁 밧을 간다는 얘기라예?(씨 뿌려서 밭을 간다는 얘기지요?)

103018 #1 이 저 조농서는 밧을 초불 이 보리 그르에 헨 갈아 놔근에 씨 삔다게, 좁씨.(이 저 조농사는 밭을 초벌 이 보리 그루에 해서 갈아 놓고 씨 뿌린다, 조씨.)

103018 @ 예.(예.)

103018 #1 보리 그르 갈아 놩.(보리 그루 갈아 놓고.)

103018 @ 예.(예.)

103018 #1 경혜영 짝짝 삐여근에 ᄉᆞ뭇 벌레기[134] 치민 문 묻어지고. 벌레기검질, 검질 문, 문 검질 치고.(그래서 쫙쫙 뿌려서 사뭇 '벌레기' 치면 모두 묻히고. '벌레기검질', 김 모두, 모두 김 치고.)

103018 @ 경허난 검질 치는 게 일이구나?(그러니까 김 치는 게 일이구나?)

103020 #1 어게. 경혜연 문 에이고, 옛날에 ᄆᆞ쉬 신 집은 산디나 조나 갈민 불려낫저. ᄆᆞ쉬로.(어. 그래서 모두 에이고, 옛날에 마소 있는 집은 밭벼나 조나 갈면 밟았었어. 마소로.)

103020 @ 음.(음.)

103020 #1 잘 불려야 그 곡석이 잘 뭰덴 허멍. 경헌디 엇인 집인 잘 불리지도 안허고 그냥 갈아.(잘 밟아야 그 곡식이 잘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없는 집은 잘 밟지도 않고 그냥 갈아.)

103020 @ 그럼 삼춘넨 안 불려수꽈?(그럼 삼촌네는 안 밟았었습니까?)

103020 #1 으, 우리 불려 보지 안헷저. ᄆᆞ쉬 엇이난.(으, 우리 밟아 보지 않았어. 마소 없으니까.)

103020 @ 끗지도 안허고?(끌지도 않고?)

103020 #1 끗음은 ᄆᆞ물팟 우린 조밧도 ᄒᆞ쏠 섬비질은 꿰깡낭 혜영.(끌기는 메밀밭 우리는 조밭도 조금 끙게질은 쥐똥나무 해서.)

103020 @ 예.(예.)

103020 #1 꿰깡낭 혜영 섬비질은 헤낫저.(쥐똥나무 해서 끙게질은 했었어.)

103020 @ 아, 꿰깡낭으로.(아, 쥐똥나무로.)

103020 #1 으, 꿰깡낭 혜영.(으, 쥐똥나무 해서.)

103020 @ 게민 씨 뿌렁 갈앙 검질 줍는 거?(그럼 씨 뿌려서 갈아서 김 줍는 거?)

103020 #1 벌레기 치레.('벌레기' 치러.)

103020 @ 벌레기 쳥 경헨 섬비로?('벌레기' 쳐서 끙게로?)

---

134) '벌레기'는 밭을 갈 적에 일어나는 풀포기를 말한다. 제보자는 '벌레기검질'이라고도 했다.

103021 #1 으, 끝 허민 그게 또 흔 유월, 음력 유월쯤 나민 조가 이제 나.(으, 끝 하면 그게 또 한 유월, 음력 유월쯤 되면 조가 이제 나.)

103021 @ 예.(예.)

103021 #1 파릇파릇파릇 나 가민 아이고, 조 ᄉᆞ까사, 조 ᄉᆞ까사.(파릇파릇파릇 나 가면 아이고, 조 솎아야, 조 솎아야.)

103021 @ 하하.(하하.)

103021 #1 조 ᄉᆞ꾸레 가사. 경헤연 그거 문 ᄉᆞ꾸레 가고.(조 솎으러 가야. 그래서 그거 모두 솎으러 가고.)

103021 @ 예.(예.)

103021 #1 꿰 삐영 꿰 나민 꿰 ᄉᆞ꾸레 가고.(깨 뿌려서 깨 나면 솎으러 가고.)

103021 @ 음.(음.)

103021 #1 아이고, 놀 시간 어디 잇이니게? 에구에구.(아이고, 놀 시간 어디 있니? 에구에구.)

103021 @ 게난 조 ᄉᆞ꾸렝 강 검질이영 메영 한 세불은 메는 거라예?(그러니까 조 솎으레 가서 김이랑 매서 한 세벌은 매는 거지요?)

103021 #1 어, 세불은 멘다게.(어, 세벌은 맨다.)

103021 @ 방수 놓으멍예?('방수' 놓으면서요?)

103021 #1 어, 방수[135] 놓멍. 부떵은 안 뒈는 거.(어, '방수' 놓으면서. 붙어서는 안 되는 거.)

103021 @ 부떵 안 뒈는 거.(붙어서 안 되는 거.)

103021 #1 어, 부떵은 안 뒈. 그자 방수 놩 드무룽허게 방수 놔야.(어, 붙어서는 안 돼. 그저 '방수' 놔서 드물게 '방수' 놔야.)

103023 @ 예, 예. 그민 이제 검질도 다 멩, ᄉᆞ꾸는 거 다 헹 조가 컷수다. 조 컹 노랗게 익으난.(예, 예. 그럼 이제 김도 다 매서, 솎는 거 다 해서 조가 컸습니다. 조 커서 노랗게 익으니까.)

103023 #1 노랗게 익으민 조코고리가 잘 뒌 헤엔 기자 조코고리가 흔 뽐썩 알러레 노릇허주게.(노랗게 익으면 조 이삭이 잘 된 해에는 그저 조 이삭이 한 뼘씩 아래로 노릇하지.)

103023 @ 음.(음.)

103023 #1 노릇허민 기자 그거 비영. 이젠 그거 손으로, 앚앙 손으로이 문 호미로 튿아.(노릇하면 그저 그거 베서. 이젠 그거 손으로, 앉아서 손으로 모두 낫으로 뜯어.)

103023 @ 음.(음.)

103023 #1 문 줴여근에 ᄌᆞ근ᄌᆞ근 줴영 호미로 튿앙.(모두 좨서 차례차례 좨서 낫으로 뜯어서.)

103023 @ 음.(음.)

135) '방수'는 씨앗 등을 뿌릴 때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간격을 말한다.

103023 #1 이젠 걸 방에에 ᄆᆞᆯᄀᆞ레에도 가근에 ᄀᆞᆯ아나고.(이젠 걸 방아에 연자매에도 가서 갈았었고.)

103023 @ 예.(예.)

103023 #1 우린 마당에도 영 헤영 기자 ᄆᆞᆺ아나고 경헤영 그 조는 또 아주 옛날엔 남방에, 남방에서 졍 먹어나시네게.(우린 마당에도 이렇게 해서 그저 마았었고 그래서 그 조는 또 아주 옛날에는 나무절구, 나무절구에서 찧어서 먹었었어.)

103023 @ 그럼 조 빌 때, 보리는 영 비영 한 며칠 ᄆᆞᆯ리잖아예?(그럼 조 벨 때, 보리는 이렇게 베어서 한 며칠 말리잖아요?)

103023 #1 으.(으.)

103023 @ 조는 어떵헤?(조는 어떻게?)

103023 #1 조도 ᄆᆞᆯ려.(조도 말려.)

103023 @ 조도 ᄆᆞᆯ려.(조도 말려.)

103023 #1 으, 놀 거, 놀 거 아져 뎅기지 못. ᄒᆞ썰 허민 조칙도 거, 우린 조칙, 조칙 헷저. 그 조 뎅가리가.(으, 날 거, 날 거 가지고 다니지 못한다. 조금 하면 조짚도 거, 우린 '조칙', '조칙' 했어. 그 조 줄거리가.)

103023 @ 예, 예.(예, 예.)

103027 #1 조칙을 ᄆᆞ쉬 질루민 그걸 ᄆᆞ쉬 멕여사주게, 조칙은.(조짚을 마소 기르면 그걸 마소 먹여야지, 조짚은.)

103027 @ 으.(으.)

103027 #1 ᄆᆞ쉬 멕이는 따문 파싹 ᄆᆞᆯ련에 그걸 눌엇당 짇지도 안헤낫저. ᄆᆞ쉬 멕이젠 조칙은.(마소 먹이는 때문 바싹 말려서 그걸 가렸다가 때지도 않았었어. 마소 먹이려고 조짚은.)

103027 @ 음.(음.)

103027 #1 조 남뎅인 경 소나 ᄆᆞᆯ이나 경헨 멕이주.(조 대는 그렇게 소나 말이나 그렇게 먹이지.)

103027 @ 먹어?(먹어?)

103027 #1 아이구, 그거 멕연 살앗주 촐만 멕인 게 아니?(아이고, 그거 먹여서 살았지 꼴만 먹인 게 아니?)

103027 @ 으.(으.)

103027 #1 그 곡석 그거 멕이는 거.(그 곡식 그거 먹이는 거.)

103023 @ 게난 비어 놩 메칠이민 그걸 ᄆᆞᆯ령 무끕니까?(그러니까 베어 놓고 며칠이면 그걸 말려서 묶습니까?)

103023 #1 날 좋은 땐 기자 이런 벳 맞앙은 오늘 비면은 낼 모리쯤은 무꺼.(날 좋은 때는 그저 이런 볕 맞아서는 오늘 베면 내일 모래쯤은 묶어.)

103023 @ 무꺼근에?(묶어서?)

103023 #1 무꺼다근에 눌어.(묶었다가 가려.)

103023 @ 눌어.(가려.)

103023 #1 눌어야주게, 거 홈치 못허는 따문. 눌어 두면서 그걸 톧주게 톧아.(가려야지, 거 한꺼번에 못하는 때문. 가려 두면서 그걸 뜯지, 뜯어.)

103023 @ 눌어 놓고 조금 여유가 잇이민?(가려 놓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103024 #1 으, 밧디서도 톧고 집이 실러다근에도 톧고.(으, 밭에서도 뜯고 집에 실어다가도 뜯고.)

103024 @ 예.(예.)

103024 #1 고고리로 하나썩 그걸 수정 세멍 톧아사.(이삭으로 하나씩 그걸 수세면서 뜯어야.)

103024 @ 호미 세워 놩예?(낫 세워 놓고요?)

103024 #1 으, 발에 영 호미 젭져 둠서 톧아근에 영. 영 기차근에 놓곡, 놓곡. 그 고고리는 물벵이에 가근에 물벵이에서도 허고 도께로도 마당질헤영 문 뭇고.(으, 발에 이렇게 낫 끼워 두고서 뜯어서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놓고, 놓고. 그 이삭은 연자매에 가서 연자매에서도 하고 도리깨로도 마당질해서 모두 마고.)

103024 @ 으.(으.)

103024 #1 옛날에 얼멩이. 얼멩이 알아지크냐?(옛날에 어레미. 어레미 알겠냐?)

103024 @ 예, 얼멩이 알아집니다.(예, 어레미 압니다.)

103024 #1 그 얼멩이 헤영, 대얼멩이[136] 헷당 그 얼멩이로 치멍 두드려 가멍 문 ᄇᆞ름에 불려 가멍.(그 어레미 해서, 대어레미 해다가 그 어레미로 치면서 두드려 가면서 모두 바람에 불려 가면서.)

103024 @ 음.(음.)

103024 #1 불려사주 그거. 불리당 버친 건 푸는체로 푸곡. 문 푸진 못허주게. 경헤근에 허여당. 아이고, 이 물벵이서 ᄀᆞ는 것도 경 아주 옛날엔 남방에서만 져 먹엇주. 물벵이 ᄀᆞ는 것도 신식 나올 때라.(불려야지 그거. 불리다가 부친 거 키로 까부르고. 모두 까부르지는 못하지. 그렇게 해다가. 아이고, 이 연자매에서 가는 것도 그렇게 아주 옛날엔 연자매에서만 찧어 먹었지. 연자매 가는 것도 신식 나올 때야.)

103024 @ 음.(음.)

103024 #1 나올 때라, 아이고. 남방에서 ᄀᆞ루 ᄲᆞ앙 그 좁썰 내와근에이 남방에서 ᄀᆞ루 ᄲᆞ아근에 문 식게 멩질 헤나시녜게. 곤쏠이나 나룩쏠이나, 나룩이 어디서. 논 엇인 사름은 산디.(나올 때야, 아이고. 나무절구에서 가루 빻아서 그 좁쌀 내서 나무절구에서 가루 빻아서 모두 제사 명질 했었어. 흰쌀이나 볍쌀이나, 벼가 어디서. 논 없는 사람은 밭벼.)

103024 @ 음.(음.)

103024 #1 우리 조 가는 디 흔착 산디 갈앗당 제서 헤 먹젠 그 산디 헤근에. 산딘 클에 이제 영 헤영 그 보리 훌트는 클에, 보리 훌트는 클에 헤영 훌탓다근에 또 경 안허민 클 엇이민 그것도 손으로 헤영 도께로 두드려근에 쏠 멘들고.(우리 조 가는 데 한쪽 밭벼 갈았다가 제사 해 먹으려고 그 밭벼 해서. 밭벼는 그네에 이제 이

136) '대얼멩이'는 대로 만든 어레미를 말한다.

렇게 해서 그 보리 홅는 그네에, 보리 홅는 그네에 해서 홅았다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네 없으면 그것도 손으로 해서 도리깨로 두드려서 쌀 만들고.)

103024 @ 음.(음.)

103025 #1 남방에에서 또 쏠 멘들고. 옛날은 쏠 멘듦도 어렵지. 남방에서 세 사름이 지주게.(나무절구에서 또 쌀 만들고. 옛날은 쌀 만들기도 어렵지. 나무절구에서 세 사람이 찧지.)

103025 @ 으.(으.)

103025 #1 세 사름이 남방에서 헤영 지어 가멍 흔편이서, 수눌엉덜 수눌멍 헤영 허민 흔편이서 치여 가멍 대체로, 대체로 치여 가멍 또 여물은 또 놩 또 뭇아. 경허민 ᄀᆞ루 뿟아지지 안허영 쏠이 나.(세 사람이 나무절구에서 해서 찧어 가면서 한편에서, 품앗이해서들 품앗이하면서 해서 하면 한편에서 치어 가면서 대체로, 대체로 치어 가면서 또 여물은 또 넣어서 또 마아. 그러면 가루 빻이지 않고 쌀이 나.)

103025 @ 음.(음.)

103025 #1 그걸 톡톡 뭇아 가민. 경허멍.(그걸 톡톡 마아 가면. 그러면서.)

103025 @ 조코고리 튿아난 다음 그 조코고리를 물방에 강 지기도 허고 도께로.(조 이삭 뜯은 다음 그 조 이삭을 연자매에 가서 찧기도 하고 도리깨로.)

103025 #1 으, 도께로도 뭇고.(으, 도리깨로도 마고.)

103025 @ 어느 게 편헙니까?(어느 게 편합니까?)

103025 #1 물방에가 편허주게. 아멩헤도.(연자매가 편하지. 아무래도.)

103025 @ 예.(예.)

103025 #1 물방에에 벵벵 돌아강 저 쉐나 이땅 밧 갈레 안 간 땐 쉐 물방에에 영 강 멍에 씌우민 쉐도 벵벵 돈다게.(연자매에 뱅뱅 돌아가서 저 소나 이따금 밭 갈러 안 갈 땐 소 연자매에 이렇게 가서 멍에 씌우면 소도 뱅뱅 돈다.)

103025 @ 예.(예.)

103025 #1 쉐가.(소가.)

103025 @ 예.(예.)

103025 #1 벵벵 돌민 기자 그디서 비차락으로 씰어 올리민게 고고리 뭇아지주게.(뱅뱅 돌면 그저 거기서 빗자루로 쓸어 올리면 이삭 마아지지.)

103025 @ 아, 고고리 뭇아져?(아, 이삭 마아져?)

103025 #1 으, 복삭 뭇아진다게. 경허민 그디서 그거 불리든 푸는체로 푸든 불리지 못허민 그건 푸는체로 그거 믄 허멍.(으, 폭삭 마아진다. 그러면 거기서 그거 불리든 키로 까부르든 불리지 못하면 그건 키로 그거 모두 하면서.)

103025 @ 게민.(그럼.)

103025 #1 옛날은 그게 일이주게.(옛날은 그게 일이지.)

103025 @ 경허영 그거는 조 고고리 영 튿아낸 거잖아예?(그렇게 그거는 조 이삭 이렇게 뜯어낸 거잖아요?)

103025 #1 으, 튿아낸 거.(으, 뜯어낸 거.)

103025 @ 밥헤 먹젠 허민 다시 장만헤야 헐 거 아니?(밥해 먹으려고 하면 다시 장만해야 할 거 아니?)

103025 #1 아이고, 밥헤 먹젠 허민 그걸 또 남방에서 또 지어.(아이고, 밥해 먹으려고 하면 그걸 또 연자매에서 또 찧어.)

103025 @ 지어?(찧어?)

103025 #1 으, 지어사. 보리는 남방에서 헤영 그 쏠을 체 갈라근에 허면은 ᄆᆞ레에서 거평 먹고.(으, 찧어야. 보리는 나무절구에서 해서 그 쌀을 체 갈라서 하면 맷돌에서 거피해서 먹고.)

103025 @ 으.(으.)

103025 #1 조는 이제 남방에서 져사.(조는 이제 나무절구에서 찧어야.)

103025 @ 아.(아.)

103025 #1 경허난 이제 그 ᄆᆞᆯᄆᆞ레에서도 또 그 좁썰 내운 걸 또 강 ᄀᆞᆯ 수도 잇주.(그러니까 이제 그 연자매에서도 그 좁쌀 낸 걸 또 가서 갈 수도 있지.)

103025 @ 음.(음.)

103025 #1 남방에서도 남방에서도 헹 ᄀᆞᆯ아근에. 족은 건 못 허고 하사 것도.(나무절구에서도 나무절구에서도 해서 갈아서. 작은 건 못 하고 많아야 것도.)

103025 @ 그니까.(그니까.)

103025 #1 만헤사.(많아야.)

103025 @ 보통은 집이서 헹 먹는 거 남방에에서 헤 먹는데 그걸 ᄆᆞᆯᄆᆞ레에 강 다시 ᄀᆞᆯ 수도 잇어예?(보통은 집에서 해서 먹는 거 나무절구에서 해 먹는데 그걸 연자매에 가서 다시 갈 수도 있어요?)

103025 #1 어, 어. 하민 강.(어, 어. 많으면 가서.)

103025 @ 그니까 보리썰 헐 때는 보리썰 장만헐 때는 보리에 물 영 영 적지멍 ᄀᆞᆯ앗잖아예?(그니까 보리쌀 할 때는 보리쌀 장만할 때는 보리에 물 이렇게 이렇게 적시면서 갈았잖아요?)

103025 #1 어게, ᄆᆞᆯᄆᆞ레에서 헐 때 ᄆᆞᆯᄆᆞ레에 물 놔사 그거 벳겨지주게.(어, 연자매에서 할 때 연자매에 물 넣어야 그거 벗겨지지.)

103025 @ 조도 경헙니까?(조도 그렇습니까?)

103025 #1 아니, 존 그대로.(아니, 조는 그대로.)

103025 @ 그대로.(그대로.)

103025 #1 그대로 헨 먹엇저, 우리. 보리는이 물 놔야 ᄆᆞᆯᄆᆞ레에서 물을 놔야 벳겨지주 물 안 놓민 안 벳겨져. 껍데기가.(그대로 해서 먹었어, 우리. 보리는 물 넣어야 연자매에서 물을 넣어야 벗겨지지 물 안 넣으면 안 벗겨져. 껍데기가.)

103025 @ 음.(음.)

103025 #1 경헨 ᄆᆞᆯᄆᆞ레에서 빙빙빙 데우민 첨 보리썰이 문덜문덜문덜[137] 허게 체 막 무시거 허주게. 경허민 그걸 이제 문 체덜 고립갈르젠 허민 푸는체로 풀닥풀

137) '문덜문덜문덜'는 쌀의 껍질이 잘 깎여 쌀이 부드러운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닥[138].(그래서 연자매에 빙빙빙 틀면 참 보리쌀이 '문덜문덜문덜' 하게 체 마구 뭐 하지. 그러면 그걸 이제 모두 체들 구분하려고 하면 키로 '풀닥풀닥'.)

103025 @ 흐흐.(흐흐.)

103025 #1 하하하. 하이고, 허는 거 아이덜 이제, 이제 그거 헴시민 첨, 이제 그거 헴시민 첨 볼만 헐 거여만은 이제 허는 디가 엇주게.(하하하. 하이고, 하는 거 아이들 이제, 이제 그거 하고 있으면 참, 이제 그거 하고 있으면 참 볼만 할 거지만 이제 하는 데가 없지.)

103025 @ 게난예.(그러니까요.)

103025 #1 이젠이 에이고. 경허단이 우리 막 설러 가젠 헐 때에 미깡낭 싱거 갈 때에 ᄇᆞ더 가사 메타[139]가 낫저게.(이제는 어이고. 그러다가 우리 막 치워 가려고 할 때에 귤나무 심어서 갈 때에 밭아 가야 '메타'가 났어.)

103025 @ 음.(음.)

103025 #1 기계가 아이고, 그땐 막 살맛 나라만은 미깡낭덜을 싱거라. 아이고. 그전에사게 보리 조 갈아 먹젠 허민 ᄉᆞ못.(기계가 아이고, 그때는 아주 살맛 나더니만 감귤나무들을 심더라. 아이고. 그전에야 보리 조 갈아 먹으려고 하면 사뭇.)

103025 @ 음.(음.)

103025 #1 아이고, ᄆᆞ물 걸름 ᄆᆞ물 갈 땐 막 더운 때 헌다게.(아이고, 메밀 거름 갈 때는 아주 더운 때 한다.)

103067 @ 예.(예.)

103067 #1 막 더운 때.(아주 더운 때.)

103067 @ 아.(아.)

103067 #1 양력 흔 칠팔월에 그추룩 헹 그 ᄆᆞ물을 갈젠 허민 밤이 제사헤 먹어근에 아이고, ᄆᆞ물 걸름 놓젠 허민 더우카 부덴 쉐도 ᄉᆞ뭇 더우민 세 낸다게. 세 내여.(양력 한 칠팔월에 그처럼 해서 그 메밀을 갈려고 하면 밤에 제사해 먹어서 아이고, 메밀 거름 놓으려고 하면 더울까 봐 소도 사뭇 더우면 혀 낸다. 혀 내.)

103067 @ 으.(으.)

103067 #1 세 닷 발은 내주게. 경허민 밤이 가근에 그거 이제 제사, 이제는 초저냑이 제서헤 먹는디 옛날은 흔 시에 허지 안허느냐게?(혀 댓 발은 내지. 그러면 밤에 가서 그거 이제 제사. 이제는 초저녁에 제사해 먹는데 옛날은 한 시에 하지 않냐?)

103067 @ 으.(으.)

103067 #1 흔 시에 제 헤 먹엉이 설거지도 밀려 둬근에 그 ᄆᆞ물 허젠 허민 ᄆᆞ물팟 허레 가사, ᄆᆞ물팟 허레 가사. 아이고, 이제 ᄆᆞ물 갈레 가사. 경헤영 강 붉도록 가근에 그 ᄆᆞ물 걸름 밤이 강 젭아놓고 헤낫저.(한 시에 제 해서 먹고 설거지도 밀려 두고 그 메밀 하려고 하면 메밀밭 하러 가야, 메밀밭 하러 가야. 아이고, 이제

138) '풀닥풀닥'은 곡식의 체 따위를 가르기 위해 키질을 하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39) '메타'는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낟알을 거둘 때 사용하는 모터가 달린 기계를 말한다.

메밀 갈러 가야. 아이고, 이제 메밀 갈러 가야. 그렇게 가서 밝도록 가서 그 메밀 거름 밤에 가서 집어넣고 했었어.)

103067 @ 으, 그 밤이?(으, 그 밤에?)

103067 #1 어게. 더우민, 둘 흔허민 가근에 밤이 헤낫저게. 쉐가 더웡 안 뒈주게. 막 쉐가이 더우민 밧 갈레 가민 세 딱 닷 발은 내영 ᄉᆞ못 흘강흘강헤 가민게 사름보단도 쉐가 막 더웡.(어. 더우면, 달 환하면 가서 밤에 했었어. 소가 더워서 안 되지. 아주 소가 더우면 밭 갈러 가면 혀 딱 댓 발은 내서 사뭇 갈그랑갈그랑해 가면 사람보다도 소가 아주 더워서.)

103067 @ 게민 그 밤이 제사헤 먹엉 흔 시에.(그럼 그 밤에 제사해 먹고 한 시에.)

103067 #1 어, 밧 갈레 ᄆᆞ물밧 허레.(어, 밭 갈러 메밀밭 하러.)

103067 @ ᄆᆞ물밧디 강 접아놓고 쉐도 그때 밧 갈아?(메밀밭에 가서 집어넣고 소도 그때 밭 갈아?)

103067 #1 으, 경헤영 ᄆᆞ물 씨에 불껑에 헤영 서꺼근에게 딱 허게 놔뒷당 밧디 믄 헤영 그거 믄 버물영, 오줌 제왕 놔둔다게.(으, 그래서 메밀 씨에 재에 해서 섞어서 딱 하게 놔뒀다가 밭에 모두 해서 그거 모두 버무려서, 오줌 재워 놔둔다.)

103067 @ 으.(으.)

103067 #1 경헨 오줌 제왕 아이고, 옛날이사 오줌 흔 방울이라도 항 놩 받아근에 그걸 걸름으로 헤시녜게.(그래서 오줌 재워서 아이고, 옛날에야 오줌 한 방울이라도 항아리 놓고 받아서 그걸 거름으로 했어.)

103067 @ 예.(예.)

103067 #1 경헨 허난 그거 밧디 강 ᄆᆞ물 씨 버물영 놧다근에 기자 그거 영 헤영 출구덕[140], 출구덕 끈 돌앙.(그렇게 하니까 그거 밭에 가서 메밀 씨 버무려서 놨다가 그저 그거 이렇게 해서 '출구덕', '출구덕' 끈 달아서.)

103067 @ 예.(예.)

103067 #1 그레 담앙 메여 둠서 톡톡톡톡.(그리 담아서 매 두고서 톡톡톡톡.)

103026 @ 으, 좁아놓는 거. ᄆᆞ물 농서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 거고예. 좁썰 아까 경헨 장만헷잖아예. 좁썰 장만헌 걸로 뭐 헹 먹어낫수꽈?(으, 집어넣는 거. 메밀 농사에서 다시 한번 물어볼 거고요. 좁쌀 아까 그렇게 장만했잖아요. 좁쌀 장만한 거로 뭐 해서 먹었었습니까?)

103026 #1 밥헤 먹주, 무시거.(밥해 먹지, 뭐.)

103026 @ 밥헹 먹고 또?(밥해 먹고 또?)

103026 #1 떡 헤 먹고.(떡 해 먹고.)

103026 @ 떡 헤 먹고.(떡 해 먹고.)

103026 #1 친떡.(시루떡.)

103026 @ 친떡?(시루떡?)

---

140) '출구덕'은 대바구니의 하나로 나물이나 해산물 등을 채취할 때 허리에 차고 사용하는 바구니를 말한다.

103026 #1 으.(으.)

103026 @ 조로도 친떡 헤 먹어?(조로도 시루떡 해 먹어?)

103026 #1 어게. 경허민 모인좁썰, 히린좁썰 헷저.(어. 그러면 메조, 차조 했어.)

103026 @ 으.(으.)

103026 #1 경허민 히린좁썰, 이제 흔펜이 흑쏠 갈앗당 떡 헐 땐 모인좁썰 히린좁썰 경헨 두 가지로 헤낫저, 옛날엔. 두 가지로.(그러면 차조, 이제 한편에 조금 갈았다가 떡 할 땐 메조 차조 그렇게 두 가지로 했었어, 옛날엔. 두 가지로.)

103026 @ 예.(예.)

103026 #1 히린좁썰은 떡이 이제 첨 출떡거치 흐리고 모인좁썰은 그 떡이 헤싹허[141]주게. 경허는 따문 히린좁썰이영 모인좁썰이영 헤영 흔펜씩 놩 떡 헹 먹고.(차조는 떡이 이제 참 찰떡같이 차지고 메조는 그 떡이 '헤싹하지'. 그런 때문에 차조랑 메조랑 해서 한편씩 넣어서 떡 해서 먹고.)

103026 @ 으.(으.)

103026 #1 곤썰은 또 영 제펜[142]이라고 그 저 친떡 우이, 저 좁썰 침떡 우이 영 흑쏠 ᄀᆞ루 입경.(흰쌀은 또 이렇게 '제펜'이라고 그 저 시루떡 위, 저 좁쌀 시루떡 위에 이렇게 조금 가루 입혀서.)

103026 @ 예.(예.)

103026 #1 입져근에 헤영 풋 놔근에 상에 올리고.(입혀서 해서 팥 넣어서 상에 올리고.)

103026 @ 아.(아.)

103026 #1 그건 고급 떡으로.(그건 고급 떡으로.)

103026 @ 게난.(그러니까.)

103026 #1 우리 먹는 거는 조떡만 헹 먹고.(우리 먹는 거는 좁쌀떡만 해서 먹고.)

103026 @ 아.(아.)

103026 #1 조떡, 조떡 허멍.(좁쌀떡, 좁쌀떡 하면서.)

103026 @ 아멩헤도 곤썰이 더 어려운 거라예?(아무래도 흰쌀이 더 어려운 거지요?)

103026 #1 아이고, 야 곤썰이 어디 있느니게. 옛날 부제는 나룩이 잇엇저게.(아이고, 야 흰쌀이 어디 있니. 옛날 부자는 벼가 있었어.)

103026 @ 예.(예.)

103026 #1 저 논이.(저 논이.)

103026 @ 예.(예.)

103026 #1 우리 논 엇인 사름사 영 흔펜이 가근에 저 조 흔착, 산디 흔착 갈아사 제서헤 먹젠 허민 그걸 산디 헤근에. 아이고, 경허민 산디 졸멩이[143] 헤근에 좁

141) '헤싹허다'는 떡 따위가 찰기가 없이 무른 상태를 말한다.
142) '제펜'은 제사 등의 제를 지낼 때 쓰는 떡으로, 주로 쌀가루로 하얗게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143) 여기서 '졸멩이'는 부스러진 밭벼 쌀알을 가리키는 것으로, '싸라기'를 말한다.

썰에 서껑 밥허민 요런 돎이 어디 시니? 이젠 나룩밥도 무시것에 먹으렌 헤도이.(우리 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편에 가서 저 조 한쪽, 밭벼 한쪽 갈아야 제사해 먹으려고 하면 그걸 밭벼 해서. 아이고, 그러면 밭벼 싸라기 해서 좁쌀에 섞어서 밥하면 요런 달기가 어디 있니? 이젠 쌀밥도 뭐 먹으라고 해도.)

103026 @ 으.(으.)

103026 #1 하이고, 맛 좋아. 그럴 때 아이고. 잘도 곤썰, 곤썰밥이 어딧느니, 곤썰밥. 육지 사름덜은 아멩헤도 굶어도 나룩밥만 먹어실 거여. 경 조밥 안 먹어실 거여.(하이고, 맛 좋아. 그럴 때 아이고. 아주 흰쌀, 흰쌀밥이 어딨니, 흰쌀밥. 육지 사람들은 아무래도 굶어도 쌀밥만 먹었을 거야. 그렇게 조밥 안 먹었을 거야.)

103026 @ 하하하.(하하하.)

103026 #1 아니, 우리 제주도만 경 헤실 거라. 우리 제주도만.(아니, 우리 제주도만 그렇게 했을 거야. 우리 제주도만.)

103026 @ 아니우다게.(아닙니다.)

103026 #1 아니라?(아니야?)

103026 @ 거기도 막 피밥도 먹고 헷수다.(거기도 많이 피밥도 먹고 했습니다.)

103066 #1 이 밧 곶인 디 피 갈아근에이.(이 밭 곶은 데 피 갈아서.)

103066 @ 예.(예.)

103066 #1 우리도 피밥 먹어낫저. 아이고, 피 남방에서 피쏠 내우젠 허민 잘도 어려와.(우리도 피밥 먹었었어. 아이고, 피 나무절구에서 핍쌀 내려고 하면 매우 어려워.)

103066 @ 아.(아.)

103066 #1 얼마나 어려와나시니, 남방에서. 조는 쏠이 제기 나고 조는 질겨.(얼마나 어려웠니, 나무절구에서. 조는 쌀이 재게 나고 조는 질겨.)

103066 @ 질겨?(질겨?)

103066 #1 으.(으.)

103066 @ 게민 멧 번을 갈아야 뒈는 거?(그럼 몇 번을 갈아야 되는 거?)

103066 #1 아이고, 잘도 잘도 피는 첨 씨 하나도 엇이 허젠 허민 어려워낫저, 피는.(아이고, 매우 매우 피는 참 씨 하나도 없이 하려고 하면 어려웠었어, 피는.)

103066 @ 으.(으.)

103066 #1 게난 피는 곶인 밧디 갈아낫저, 옛날에.(그러니까 피는 곶은 밭에 갈았었어, 옛날에.)

103066 @ 피는 곶인 밧디 갈아난?(피는 곶은 밭에 갈았었어?)

103066 #1 으, 피는 곶인 밧디 갈아낫저. 게난 우린 핀 안 갈아 봣저. 영 우린 핀 안 갈앙 기자 저 밧도 엇주만은 저 조 허곡 보리 허곡 콩 허곡 감저 싱그곡 기자 ᄆᆞ물 갈곡 원 그거.(으, 피는 곶은 밭에 갈았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피는 안 갈아 봤어. 이렇게 우리는 피는 안 갈고 그저 저 밭도 없지만 저 조 하고 보리 하고 고구마 심고 그저 메밀 갈고 원 그거.)

103066 @ 으.(으.)
103066 #1 흔펜이 풋 갈고. 콩도 흔 방울 갈고.(한편에 팥 갈고. 콩도 한 방울 갈고.)
103066 @ 맞수다.(맞습니다.)
103066 #1 께도 ᄒᆞ쏠 갈고. 흔 밧 아졍이라도.(깨도 조금 갈고. 한 밭 가지고라도.)
103066 @ 맞수다.(맞습니다.)
103066 #1 ᄒᆞ꼼썩, ᄒᆞ꼼썩.(조금씩, 조금씩.)
103066 @ 맞수다. ᄒᆞ꼼썩, ᄒᆞ꼼썩.(맞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103066 #1 겡허영 살앗주. 이 밧 한 사름덜은 피 농서도 막 헤낫저.(그래서 살았지. 이 밭 한 사람들은 피 농사도 많이 했었어.)
103066 @ 으, 음.(으, 음.)
103066 #1 피 농서도 막 헤낫주. 경허영 피밥 맛 좋아.(피 농사도 많이 했었어. 그래서 피밥 맛 좋아.)
103026 @ 으. 아까예 조로 떡 헌덴 헷잖아?(으. 아까요 조로 떡 한다고 했잖아?)
103026 #1 으.(으.)
103026 @ 시리떡?(시루떡?)
103026 #1 으, 시리떡.(으, 시루떡.)
103026 @ 시리떡. 그때 그거 시리떡이렌 불럿수과, 제펜이렌 불럿수과?(시루떡. 그때 그거 시루떡이라고 불렀습니까, '제펜'이라고 불렀습니까?)
103026 #1 제펜은 흰떡ᄀᆞ라 제펜.('제펜'은 흰떡보고 '제펜'.)
103026 @ 흰.(흰.)
103026 #1 으, 곤썰로만 헌 거 제펜.(으, 흰쌀로만 한 거 '제펜'.)
103026 @ 제펜.('제펜'.)
103026 #1 제펜이엔 ᄀᆞᆫ고.('제펜'이라고 말하고.)
103026 @ 으.(으.)
103026 #1 조침떡, 조침떡 헤낫주.(조시루떡, 조시루떡 했었지.)
103026 @ 조침떡.(조시루떡.)
103026 #1 으.(으.)
103026 @ 조침떡. 조로 만든 침떡.(조시루떡. 조로 만든 시루떡.)
103026 #1 으, 조침떡이엔 허고 히린조침떡이엔 ᄀᆞᆫ고.(으, 조시루떡이라고 하고 차조시루떡이라고 말하고.)
103026 @ 게민 곤침떡이엔 안 ᄀᆞᆫ고?(그럼 흰시루떡이라고 안 말하고?)
103026 #1 곤침떡이엔도 ᄀᆞᆯ앗주만은 기자.(흰시루떡이라고 말했지만 그저.)
103026 @ 제펜?('제펜'?)
103026 #1 으, 제펜, 제펜.(으, '제펜', '제펜'.)

103026 @ 곤썰로 헌 건.(흰쌀로 한 건.)

103026 #1 곤침떡이엔 헌 건 곧건 디 오래지 안헷어. 풋 놓고 곤침떡 나온 때에 골앗주.(흰시루떡이라고 하는 건 말한 지 오래지 않았어. 팥 넣고 흰시루떡 나온 때에 말했지.)

103026 @ 음.(음.)

103026 #1 옛날엔 경 곤침떡만 헹 올려져시냐게. 하도 어려와 놓난.(옛날엔 그렇게 흰시루떡만 해서 올릴 수 있니. 하도 어려워 놓으니까.)

103026 @ 예.(예.)

103026 #1 게민 좁썰떡 우이 곤썰 ᄀᆞ루 ᄒᆞ쏠 놔근에, 제펜이엔 헌다. 그것ᄀᆞ라. 제펜으로 올려낫주게.(그럼 좁쌀떡 위에 흰쌀 가루 조금 넣어서, '제펜'이라고 한다. 그것보고. '제펜'으로 올렸었지.)

103026 @ 으.(으.)

103026 #1 바레기 좋게시리 곱닥허게 우로만.(보기 좋게끔 곱게 위로만.)

103026 @ 조로는, 좁썰로는 침떡 말고 다른 건 안 헷수과? 다른 떡은?(조로는, 좁쌀로는 시루떡 말고 다른 건 안 했습니까? 다른 떡은?)

103026 #1 히린좁썰은 오메기[144] 헹 술 헤낫저게.(차조는 '오메기' 해서 술 했었어.)

103026 @ 아, 오메기.(아, '오메기'.)

103026 #1 으, 오메기 헹 나도 약술도 헤나고 술도 헤나고.(으, '오메기' 해서 나도 약술도 했었고 술도 했었고.)

103026 @ 게난 조로 술, 감주렌 헙니까? 거 헤 먹어난?(그러니까 조로 술, 감주라고 합니까? 거 해 먹었었어?)

103026 #1 감주사 늘 허주. 이제도 난 좁썰 사단 감주 헌다.(감주야 늘 하지. 이제도 난 좁쌀 사다가 감주 한다.)

103026 @ 아, 늘 헤마씨?(아, 늘 해요?)

103026 #1 어, 나 늘 헌다.(어, 나 늘 한다.)

103026 @ 기.(그래.)

103026 #1 이 정월 멩질에는이 첨 옛날 할망이난에 저, 아이들은 감주, 골감주 허지 맙서, 허지 맙서 허여도.(이 정월 명질에는 참 옛날 할머니니까 저, 아이들은 감주, 감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해도.)

103026 @ 으.(으.)

103026 #1 경헤도 세배덜 오주게.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건 디 멧 년 뒈주만은 시어머니 신 때덜은 문 세배덜은 온 따문 골감지 헹 내놓민 골감지 먹나게.(그래도 세배들 오지. 우리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간 지 몇 년 되지만 시어머니 있을 때들은 모두 세배들은 오기 때문에 감주 해서 내놓으면 감주 먹어.)

144) '오메기'는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오메기떡'이라고도 한다.

103026 @ 으.(으.)

103026 #1 아이고, 옛날은 설탕도 엇어근에 사끄렝이 놩 헹 먹엇주만은 이젠 꿀 놔근에 딸렴네게. 꿀 놩.(아이고, 옛날은 설탕도 없어서 사카린 넣어서 해서 먹었지만 이젠 꿀 넣어서 달이고 있어. 꿀 넣고.)

103026 @ 으.(으.)

103026 #1 꿀 놔근에 히린좁썰 혼 뒈 반허고 골 혼 뒈 반허고 헤근에 감저밥 헤근에.(꿀 넣어서 차조 한 되 반하고 골 한 되 반하고 해서 고구마밥 해서.)

103026 @ 그거 만들어 봅서. 골감주 만들 때는 어떵헤여?(그거 만들어 보세요. 감주 만들 때는 어떡해?)

103026 #1 어떵헤여. 그 저 히린좁썰 헤당 밥헤여.(어떡해. 그 저 차조 해다가 밥해.)

103026 @ 밥헤여.(밥해.)

103026 #1 밥헤영 이젠 그걸 이젠 문작문작문작 저 그걸 밥주걱으로 젓어. 골 놔.(밥해서 이젠 그걸 이젠 '문작문작문작' 저 그걸 밥주걱으로 저어. 골 넣어.)

103026 @ 으.(으.)

103026 #1 젓어근에 솟디 헹 놔두민 부각허게[145] 궨다게.(저어서 솥에 해서 놔두면 '부각하게' 괜다.)

103026 @ 으.(으.)

103026 #1 으. 경허민 손으로 딱딱 젭질멍 즘진 체에 그걸 걸러. 걸렁 그걸 딸려. 딸리민 감쥐가 오죽 맛 좋느냐게?(으. 그러면 손으로 딱딱 짜면서 가는 체에 그걸 걸러. 걸러서 그걸 달여. 달이면 감주가 오죽 맛 좋냐?)

103026 @ 아, 게민 떡을 만들앙 영헹.(아, 그럼 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103026 #1 떡 안 만들아. 감주허는 거는.(떡 안 만들어. 감주하는 거는.)

103026 @ 예.(예.)

103026 #1 밥헤영 그자 젓어.(밥해서 그저 저어.)

103026 @ 젓어.(저어.)

103026 #1 어. 술 허는 거나 오메기 멘들주, 히린조 허영.(어. 술 하는 거나 '오메기' 만들지, 차조 해서.)

103026 @ 아.(아.)

103026 #1 술 허는 거는 히린조 오메기 헤근에.(술 하는 거는 차조 '오메기' 해서.)

103026 @ 으.(으.)

103026 #1 꿩꿩 물앙 언물에, 더운물도 아니 뒈는 거여. 언물에 물앙 기자 동글동글헤 놩 숢앙 문두데경 그자 그건 술 허는 거 아니냐?(꽝꽝 이겨서 찬물에, 더운물도 안 되는 거야. 찬물에 이겨서 그저 동글동글해 넣어서 삶아서 문질러서 그저 그건 술 하는 거 아니냐?)

145) '부각허다'는 거품이나 솜 따위가 잘 피어오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3026 @ 게민 삼춘 술도 멘들아 보고.(그럼 삼촌 술도 만들어 보고.)

103026 #1 어. 게난 나 곧지 안허냐. 고소리 놔두난 술 다꺼난 고소리 놔두난 도둑맞췻젠.(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냐. 소줏고리 놔두니까 술 빚었던 소줏고리 놔두니까 도둑맞았다고.)

103026 @ 아이고.(아이고.)

103026 #1 술 다끄는 고소리 놔두난 오꼿 도둑맞안.(술 빚는 소줏고리 놔두니까 그만 도둑맞았어.)

103026 @ 아이고, 어떵헐 거라.(아이고, 어떡할 거야.)

103026 #1 허허.(허허.)

103026 @ 게민 고소리에, 그 술 다끄는 고소리에 부분 명칭도 알아지쿠과?(그럼 소줏고리에, 그 술 빚는 소줏고리의 부분 명칭도 알겠습니까?)

103026 #1 어게.(어.)

103026 @ 그거 나중에 다시 물어보쿠다예. 물엉 가카?(그거 나중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묻고 갈까?)

103026 #1 고소리 층에 층에 톡 허게 놔근에 저 범벅이고 그 떡으로 만들앙 똑똑똑 사이에. 요거 영허민 요 사이에 떡으로 헹 요 사이에 똑똑똑 헹 막으민게 또 ᄌᆞ룩 돋은 고소리 잇지 안허느냐게.(소줏고리 층에 층에 톡 하게 놔서 저 범벅이고 그 떡으로 만들어서 똑똑똑 사이에. 이거 이러면 요 사이에 떡으로 해서 요 사이에 똑똑똑 해서 막으면 또 자루 돋은 소줏고리 있지 않니.)

103026 @ 예, 예.(예, 예.)

103026 #1 ᄌᆞ룩 돋은 거 느 모르크냐?(자루 돋은 거 너 모르겠니?)

103026 @ 여기 사진 잇수다.(여기 사진 있습니다.)

103026 #1 어, 이실 거여게. 이 저 경허난 저 그거 허여근에 문 막아근에 짐 안 나가게 막으민게 ᄉᆞ못. 이거 고소리 아니냐?(어, 있을 거야. 이 저 그러니까 저 그거 해서 모두 막아서 김 안 나가게 막으면 사뭇. 이거 소줏고리 아니냐?)

103026 @ 예, 예.(예, 예.)

103026 #1 요거 고소리민 요거 ᄌᆞ룩 아니냐? 경허민 요거 우이 거 들렁 요레 앚지민 이 짐을 난다.(요거 소줏고리면 요거 자루 아니냐? 그러면 요거 위의 거 들어서 이리 안치면 이 안치면 이 김이 난다.)

103026 @ 음.(음.)

103026 #1 떡 만들아근에이 그 ᄀᆞ루로 떡.(떡 만들어서 그 가루로 떡.)

103026 @ 이거 두 개는 떼지는 거?(이거 두 개는 뗄 수 있는 거?)

103026 #1 어게.(어.)

103026 @ 아, 떼지는 거.(아, 뗄 수 있는 거.)

103026 #1 으, 이 우이 건 앗아 이레 더끄는 거.(으, 이 위의 건 가지고 이리 덮는 거.)

103026 @ 아, 더끄는 거.(아, 덮는 거.)

103026 #1 경헨 요레 톡 허게 벵 허게시리 떡으로 막나. 고소리.(그래서 요리 톡 하게 뱅 하게끔 떡으로 막아. 소줏고리.)

103026 @ 예, 예.(예, 예.)

103026 #1 경헹 막으민 요레 졸졸졸 술은, 청준 ᄂᆞ리는 거 아니냐.(그렇게 막으면 요리 졸졸졸 술은, 청주는 내리는 거 아니냐.)

103026 @ 아.(아.)

103026 #1 경헨 ᄂᆞ리는 거 아니냐게.(그렇게 내리는 거 아니냐.)

103026 @ 떡은 어디 놓는 거라?(떡은 어디 넣는 거야?)

103026 #1 떡은게 멘들아근에게 술은 멘들아 놩 이레 놩 딸려 가민 술이 짜지는 거주게.(떡은 만들어서 술은 만들어 놔서 이리 넣어서 달여 가면 술이 짜지는 거지.)

103026 @ 아.(아.)

103026 #1 궤민, 궤민 짜지는 거. 궤민 짜지는 거.(끓으면, 끓으면 짜지는 거. 끓으면 짜지는 거.)

103026 @ 아, 궤민 짜지는 거. 여기를.(아, 끓으면 짜지는 거. 여기를.)

103026 #1 이거 나 문 헤낫저.(이거 나 모두 했었어.)

103026 @ 이거 뭐렌 부릅니까? 이 부분을?(이거 뭐라고 부릅니까? 이 부분을?)

103026 #1 이거 고소리 ᄌᆞ룩 돋은 거난게 고소리 그 이거ᄀᆞ라 무시거렌 ᄀᆞᆯ아낫저만은 나 못 튼내켜.(이거 소줏고리 자루 돋은 거니까 소줏고리 그 이거보고 뭐라고 말했었지만 나 못 기억하겠어.)

103026 @ 예, 예. 나중에 이거 이름만 따로 물어보쿠다.(예, 예. 나중에 이거 이름만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103026 #1 이거 이름 뭐, 고소리 원. 무신 그것ᄀᆞ라 무시거엔 헤낫저만은.(이거 이름 뭐, 소줏고리 원. 무슨 그것보고 뭐라고 했었지만.)

103026 @ 어쨌든 좁썰로 밥 만들고 떡 만들고 술 만들고 헤난 거예?(어쨌든 좁쌀로 밥 만들고 떡 만들고 술 만들고 했던 거요?)

103026 #1 으.(으.)

103027 @ 경헨 써난 조칩은?(그래서 썼던 조짚은?)

103027 #1 조칩은 쉐 주젠.(조짚은 소 주려고.)

103027 @ 쉐 주고.(소 주고.)

103027 #1 불도 안 솜아 봐서. 보리찍만 ᄒᆞᆯ 솜앗주.(불도 안 때 봤어. 보릿짚만 조금 땠지.)

103027 @ 으, 으.(으, 으.)

103027 #1 옛날 보리찍으로 밥헤 먹고 밀찍으로 밥헤 먹고. 또꼬망도 보리찍으로 강 쓸고.(옛날 보릿짚으로 밥해 먹고 밀짚으로 밥해 먹고. 똥구멍도 보릿짚으로 가서 쓸고.)

103027 @ 으.(으.)

103027 #1 아이고.(아이고.)

103027 @ 하하하.(하하하.)

103027 #1 밀찍으로. 보리찍은 경헤도 ᄒᆞᆯ 보도라워. 그 밀찍 홀타 나민 또꼬망 쓸 거 엇이민 밀낭뎅이 앗다 놓민 ᄉᆞ못 아이덜은 문 돌러레 쓸어 불고. 아이덜은, 아이덜 클 땐 문 돌러레 또꼬망 데영 문 쓸엉 오라 불고. 경 헤낫저.(밀짚으로. 보릿짚은 그래도 조금 보드라워. 그 밀짚 홅고 나면 똥구멍 쓸 거 없으니까 밀짚 가져다 놓으면 사뭇 아이들은 모두 돌에 쓸어 버리고. 아이들은, 아이들 클 때는 모두 돌에 똥구멍 데여서 모두 쓸어서 와 버리고. 그렇게 했었어.)

103027 @ 아, 아이고 아파.(아, 아이고 아파.)

103027 #1 보리찍으로 우리 또꼬망 쓸엉 살앗저. 아이고, 이제 삶이사 얼마나 좋아시니?(보릿짚으로 우리 똥구멍 쓸고 살았어. 아이고, 이제 삶이야 얼마나 좋았니?)

103027 @ 예, 얼마나 좋아. 좁씨는 어떵 보관을 헙니까?(예, 얼마나 좋아. 좁씨는 어떻게 보관을 합니까?)

103027 #1 보관이멍 말멍 기자 좁씨 기자 파싹 ᄆᆞᆯ왕.(보관이며 말며 그저 좁씨 그저 바싹 말려서.)

103027 @ 으.(으.)

103027 #1 항에 담앙 놔두민 어떵 안허여.(항아리에 담아서 놔두면 어떻지 않아.)

103027 @ 으. 좁썰처럼 갈앙 아니지예?(으. 좁쌀처럼 갈아서 아니지요?)

103027 #1 아니, 아니. 조로.(아니, 아니. 조로.)

103027 @ 조로.(조로.)

103027 #1 껍데기로.(껍데기로.)

103027 @ 껍데기로예. 항에 담앙 놔두민 뒐 거.(껍데기로요. 항아리에 담아서 놔두면 될 거.)

103027 #1 으. 껍데기로 헌다게. 무신 조 쏠 내왕 갈 리가 잇이냐게. 껍데기로 허는 거주.(으. 껍데기로 한다. 무슨 조 쌀 내서 갈 리가 있냐. 껍데기로 하는 거지.)

103027 @ 음.(음.)

103025 #1 첨. 그 허영 먹을 때사. 그땐 쏠 내우젠 허민 ᄉᆞ못 저냑 쏠 ᄀᆞᆯ아사, 조반 쏠 ᄀᆞᆯ아사 경 ᄀᆞᆯ앗저게.(참. 그 해서 먹을 때야. 그때는 쌀 내려고 하면 사뭇 저녁 쌀 갈아야, 조반 쌀 갈아야 그렇게 갈았어.)

103025 @ 하하하.(하하하.)

103025 #1 조반헤 먹을 거 ᄀᆞᆯ아사.(조반해 먹을 거 갈아야.)

103025 @ 그냥 그때그때?(그냥 그때그때?)

103025 #1 으, 그때그때.(으, 그때그때.)

103025 @ 미릇?(미리?)

103025 #1 바빤, 바빤.(바빴어, 바빴어.)

103025 @ 바빤?(바빴어?)

103025 #1 바빠. 흔저 헤사 밧딜 가주게.(바빠. 어서 해야 밭에 가지.)

103025 @ 으.(으.)

103025 #1 애기 그때 주랑주랑. 애기도 둘 때고이. 애기 난 때쯤은 어느 절에 즘이나 자 봐시믄. 아이고, 또 팔월 나민 그 슷못 촐 비레. 그 산에 애기구덕[146] 지어 앚앙 산에 가고. 점심 지곡. 애기구덕 지고 에이구, 이추룩도 호강허영 사느냐?(아기 그때 주렁주렁. 아기도 데릴 때고. 아기 낳은 때쯤은 어느 겨를에 잠이나 자봤으면. 아이고, 또 팔월 되면 그 사뭇 꼴 베러. 그 산에 '애기구덕' 지어 가지고 산에 가고. 점심 지고. '애기구덕' 지고 어이구, 이처럼도 호강해서 사냐?)

103025 @ 흐흐. 게민 조 종류는, 좁썰 종류는 아까 흐린조.(흐흐. 그럼 조 종류는, 좁쌀 종류는 아까 차조.)

103025 #1 으.(으.)

103025 @ 모인조 두 개뿐?(메조 두 개뿐?)

103025 #1 으, 우리 두 개뿐 헷저.(으, 우리 두 개뿐 했어.)

103025 @ 두 개뿐예. 다른 건 엇고예?(두 개뿐요. 다른 건 없고요?)

103025 #1 으.(으.)

콩 농사

103029 @ 예, 이번엔예 콩, 콩 농사 물어보쿠다.(예, 이번에는요 콩, 콩 농사 물어보겠습니다.)

103029 #1 콩 농사 무시거. 콩 씨 짝짝 삐영 놔두민 기자 콩이.(콩 농사 뭐. 콩 씨 쫙쫙 뿌려서 놔두면 그저 콩이.)

103031 @ 저 콩도 거름은 안 허는 것과?(저 콩도 거름은 안 하는 겁니까?)

103031 #1 걸름이 잇어게. 원 무시거 그자 불껑이나 ᄒᆞ쏠 허영 첨, 줌벳기 무시거 걸름사 시냐게, 옛날에사게. 걸름이 엇으민 밧디만 강 기자 빼작빼작빼작 흰콩도 갈아나고 푸린콩도 갈아나고.(거름이 있어. 원 뭐 그저 재나 조금 해서 참, 주기밖에 뭐 거름이야 있냐, 옛날에야. 거름이 없으면 밭에만 가서 그저 '빼작빼작빼작' 흰콩도 갈았었고 푸르대콩도 갈았었고.)

103031 @ 으.(으.)

103031 #1 기자 첨 ᄒᆞ쏠 건 딘 오줌이나 강 치대기민 ᄒᆞ쏠 가물가물 크고.(그저 참 조금 건 데는 오줌이나 가서 치대기면 조금 가물가물 크고.)

103031 @ 으.(으.)

103031 #1 경헤낫저게, 게난.(그랬었어, 그러니까.)

103029 @ 콩 농사지을 때도 무슨 준비는 따로 안 헤낫어예?(콩 농사지을 때도 무슨 준비는 따로 안 했었어요?)

146) '애기구덕'은 아기를 재울 때 쓰는 바구니를 말한다.

103029 #1 어게. 준비 안 헤 봣저. 준비가 잇이냐게. 옛날엔 ᄆᆞᆯ망 주장 헤근에.(어. 준비 안 해 봤어. 준비가 있니. 옛날에는 모자반 주로 해서.)

103029 @ 예.(예.)

103029 #1 바당에 강 ᄆᆞᆯ망을 헤당 기자 밧디 ᄀᆞᆯ앗저게.(바다에 가서 모자반을 해다가 그저 밭에 깔았어.)

103029 @ 게민 그거 콩밧디 ᄀᆞᆯ아난 거?(그럼 그거 콩밭에 깔았던 거?)

103029 #1 어, 저 콩밧디도 ᄀᆞᆯ고 조밧디도 ᄀᆞᆯ고 아무 디라도 ᄀᆞᆯ게 뒌 거주만은 헤 오지 못헹게. 허여 오지 못헤영.(어, 저 콩밭에도 깔고 조밭에도 깔고 아무 데라도 깔게 된 거지만 해 오지 못해서. 해 오지 못해서.)

103029 @ 아.(아.)

103029 #1 바당에 강 휘는 사름은 막 휘영 강 첨 그 ᄆᆞᆯ망을 비여낫주만은 우린 휠 중도 몰르고 그거 대풍 불엉 올려사.(바다에 가서 헤엄치는 사람은 마구 헤엄쳐서 가서 참 그 모자반을 베었었지만 우린 헤엄칠 줄도 모르고 그거 대풍 불어서 올려야.)

103029 @ 음.(음.)

103029 #1 올린 거 가근에 헤영. 것도 반으로 가근에이. 이녁만 허지 못헌다. 반으로 강 갈랑.(올린 거 가서 해서. 것도 반으로 가서. 자기만 하지 못한다. 반으로 가서 갈라서.)

103029 @ 음.(음.)

103029 #1 ᄆᆞᆫ 헤영 갈랑덜 ᄆᆞᆯ류앗당 시꺼당 감저 싱그고 헤낫주게.(모두 해서 갈라다가 말렸다가 실어다가 고구마 심고 했었지.)

105001 @ 게난 삼춘 바닷일도 좀 헤낫수다예?(그러니까 삼촌 바닷일도 좀 했었네요?)

105001 #1 바닷일은 그자 그 ᄆᆞᆯ망 허레 ᄒᆞ쏠 뎅김 뿐. 난 물질은 못 허고.(바닷일은 그저 그 모자반 하러 조금 다녔을 뿐. 난 물질은 못 하고.)

105001 @ 물질은 못 허고?(물질은 못 하고?)

105001 #1 으.(으.)

105001 @ 게도 바다에서 나는 거 뭐 나는진 알아지지예?(그래도 바다에서 나는 거 뭐 나는지는 알지요?)

105001 #1 톨, 메역게. 저, 그 무시거니 저 것ᄀᆞ라 ᄑᆞ레.(톳, 미역. 저 그 뭐니 저 것보고 파래.)

105001 @ 으.(으.)

105001 #1 또 저 미엔 헌 거 무시거, 우미 딸려 먹는.(또 저 해삼이라고 하는 거 뭐, 우뭇가사리 달여서 먹는.)

105001 @ 으, 으.(으, 으.)

105001 #1 그거 허레 뎅겨나고.(그거 하러 다녔었고.)

105001 @ 으, 으.(으, 으.)

105001 #1 또 미엔 헌 거도 저 진진헌 거 ᄀᆞ는ᄀᆞ는헌 거 그거 헤당 국 끌령 먹고. 원 ᄉᆞᆼ키가 엇이민 옛날에 그런 거 허레 바당에.(또 해삼이라고 하는 거도 저 길디긴 거 가늘디가는 거 그거 해다가 국 끓여서 먹고. 원 푸성귀가 없으면 옛날에 그런 거 하러 바다에.)

105001 @ 나중에 물어보쿠다예.(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105001 #1 으, 문.(으, 모두.)

103030 @ 콩 농사는 언제, 어떵 갑니까?(콩 농사는 언제, 어떻게 갑니까?)

103030 #1 콩도 그자 봄 낭.(콩도 그저 봄 돼서.)

103030 @ 봄이.(봄에.)

103030 #1 봄이, 봄이. 음력 ᄒᆞᆫ ᄉᆞ월덜에.(봄에, 봄에. 음력 한 사월에.)

103030 @ 음력 사월에.(음력 사월에.)

103030 #1 으, 그때 콩 가는 거.(으, 그때 콩 가는 거.)

103030 @ 마찬가지 콩 씨.(마찬가지 콩 씨.)

103030 #1 으, 콩 씨나 기자 꿰 씨나 그때 원 콩이 쪼금 말째 갈 거여. 꿰 씨보다.(으, 콩 씨나 그저 깨 씨나 그때 원 콩이 조금 말째 갈 거야. 깨 씨보다.)

103030 @ 게난 삐여 놩 밧 갈아 불 거예?(그러니까 뿌려 놓고 밭 갈아 버릴 거요?)

103030 #1 으, 어게.(으, 어.)

103031 @ 콩 거름 안 허고.(콩 거름 안 하고.)

103031 #1 걸름이 셔사주게. 걸름 엇이난에 글후제 비료 난 때에 기자 비료 난 때에 그냥 비료. 경헤 가난 비료 낫주. 복합비료산디 무슨 비료산디 나민 강 기자 ᄒᆞ쏠 짝짝 삐여근에 그자 콩 씨 그 우터레 삐여근에 기자 갈앙 내불민.(거름이 있어야지. 거름 없으니까 그 후에 비료 나온 때에 그저 비료 나온 때에 그냥 비료. 그래 가니까 비료 나왔지. 복합비료인지 무슨 비료인지 나오면 가서 그저 조금 쫙쫙 뿌려서 그저 콩 씨 그 위로 뿌려서 그저 갈아서 내버리면.)

103033 @ 으, 으. 콩밧디 검질은 멧 번이나 멥니까?(으, 으. 콩밭에 김은 몇 번이나 맵니까?)

103033 #1 콩밧디 검질도 두 번은 메사.(콩밭에 김도 두 번은 매야.)

103033 @ 두 번 멥니까?(두 번 맵니까?)

103033 #1 ᄒᆞᆫ번 메영은 안 뒌다. 두 번은 메사.(한번 매서는 안 된다. 두 번은 매야.)

103034 @ 예. 게민 콩밧디는 어떤 검질덜이 납니까?(예. 그럼 콩밭에는 어떤 김들이 납니까?)

103034 #1 아이고, 콩밧디도 기자 조팟디 나는 거 난다게, 기자.(아이고, 콩밭도 그저 조밭에 나는 거 난다, 그저.)

103034 @ 예, 예.(예, 예.)

103034 #1 뭐 원 쒜비눔 ᄀᆞ튼 거 비눔쿨 ᄀᆞ튼 거 원 원 제완지, 빈쿨[147]. 원 원

아니 나는 거 엇이 잡쿨 나. 물릇 거튼 거.(뭐 원 쇠비름 같은 거 쇠비름 같은 거 원 원 바랭이, '빈쿨'. 원 원 안 나는 거 없이 잡초 나. 무릇 같은 거.)

103034 @ 으, 아까 무쳐 먹어난 게 뭐라?(으, 아까 무쳐 먹었던 게 뭐야?)

103034 #1 무쳐 먹어난 거 난셍이.(무쳐 먹었던 거 냉이.)

103034 @ 난셍이.(냉이.)

103034 #1 으, 난셍이도이 비눔쿨, 비눔쿨도 무쳥 먹고 난셍이도 무쳥 먹고.(으, 냉이도 비름, 비름도 무쳐서 먹고 냉이도 무쳐서 먹고.)

103034 @ 아.(아.)

103034 #1 물릇도 옛날엔 배고플 땐 물릇도 헤단 딸련 먹어낫주만은 우린 물릇 딸련 먹어보진 안헷저. 놈의 건 먹어 봣저. 나 보리쏠 줜 바뀐단에.(무릇도 옛날엔 배고플 땐 무릇도 해다가 달여서 먹었었지만 우린 무릇 달여서 먹어 보진 않았어. 남의 건 먹어 봤어. 나 보리쌀 줘서 바꿔다가.)

103034 @ 아.(아.)

103034 #1 물릇 딸린 거.(무릇 달인 거.)

103034 @ 아.(아.)

103034 #1 ᄒᆞ쏠 쓰랑험은 헤도 것도 그것도 좋아. 물릇 딸린 것도.(조금 쌉쌀하기는 해도 것도 그것도 좋아. 무릇 달인 것도.)

103034 @ 아, 물릇도.(아, 무릇도.)

103034 #1 으. 물릇 먹어낫저게. 어른덜ᄀᆞ라 들어보라 물릇도 옛날엔 물릇 딸령 먹고 저 산마. 마 파당, 산마.(으. 무릇 먹었었어. 어른들보고 물어봐 무릇도 옛날엔 무릇 다려서 먹고 저 반하. 마 파다가, 반하.)

103034 @ 으.(으.)

103034 #1 쉐 ᄀᆞ꾸레 가민 산마 믄 파단 먹곡.(소 가꾸러 가면 반하 모두 파다가 먹고.)

103034 @ 쪼그만헌 거 아니 산마? 요만한?(쪼그마한 거 아니 반하? 요만한?)

103034 #1 아니 커. 뿔리. 그냥 생차도 먹고. 산마도 큰다게. 경헨 먹고. 아이고, 옛날에사 배고프민 멜순 있지 안허냐, 멜순.(아니 커. 뿌리. 그냥 생짜도 먹고. 반하도 커. 그렇게 먹고. 아이고, 옛날에야 배고프면 밀나물 있지 않니, 밀나물.)

103034 @ 예.(예.)

103034 #1 느네 알아지크냐?(너희 알겠니?)

103034 @ 예, 예. 알아집니다.(예, 예. 압니다.)

103034 #1 멜순. 그거 거껑 믄 집이 오랑 데왕 먹곡. 생차도 먹곡.(밀나물. 그거 꺾어서 모두 집에 와서 데워서 먹고. 생짜도 먹고.)

103034 @ 으.(으.)

103034 #1 멩게 믄 꺼꺼당 먹곡.(청미래덩굴 모두 꺾어다가 먹고.)

103034 @ 멩게는 뭐라?(청미래덩굴은 뭐야?)

147) '빈쿨'은 풀 이름의 하나다.

103034 #1 멩게는 ᄒᆞ쏠 허민 멩게낭 가시, 멩게낭 가시. 이젠 원 멩게낭 가시가 엇는디 멩게엔 헌 게 잇저게.(청미래덩굴은 조금 하면 청미래덩굴 가시, 청미래덩굴 가시. 이젠 원 청미래덩굴 가시가 없는데 청미래덩굴이라고 하는 게 있어.)

103034 @ 멜순도 헹 먹고.(밀나물도 해서 먹고.)

103034 #1 멜순도 헹 먹고, 멩게도 먹고.(밀나물도 해서 먹고, 청미래덩굴도 먹고.)

103034 @ 으.(으.)

103034 #1 우리 문 거끄멍 먹어나고.(우리 모두 꺾으면서 먹었었고.)

103034 @ 게민 멜순이나 멩게나 다.(그럼 밀나물이나 청미래덩굴이나 다.)

103034 #1 틀린 거, 틀린 거.(다른 거, 다른 거.)

103034 @ 게난 다 무쳉 먹어난 거?(그러니까 다 무쳐서 먹었던 거?)

103034 #1 어. 멜순은 무쳉 먹어낫저. 멩게는 우리 기자 생차 꺼껑 기자 쉐 멕이레 가민 꺼껑 먹곡.(어. 밀나물은 무쳐서 먹었었어. 청미래덩굴은 우리 그저 생짜 꺾어서 그저 소 먹이러 가면 꺾어서 먹고.)

103034 @ 으.(으.)

103034 #1 멜순은 우리 꺼껑당 데왕 먹나. 역불 그건 허레 가주.(밀나물은 우리 꺾어다가 데쳐서 먹어. 일부러 그건 하러 가지.)

103034 @ 예.(예.)

103034 #1 멜순은. 들굽 헤단, 합순 꺼꺼단 먹곡. 들굽 철에 들굽 헤단 먹곡. 아이고, 산에 가민 고사리 거끄레 가믄 우선은이 숭키 따문이 고사리보단 들굽을 더 멩심헨 헤낫저, 나.(밀나물은. 두릅 해다가, 합다리나무 꺾어다가 먹고. 두릅 철에 두릅 해다가 먹고. 아이고, 산에 가면 고사리 꺾으러 가면 우선은 푸성귀 때문 고사리보다는 두릅을 더 명심해서 했었어, 나.)

103034 @ 하하.(하하.)

103034 #1 숭키허젠. 숭키게. 오란 국 끌령 먹고 데왕도 먹고.(푸성귀하려고. 푸성귀. 와서 국 끓여서 먹고 데쳐서도 먹고.)

103034 @ 아.(아.)

103034 #1 얼마나 ᄉᆞ못. 이제 들굽이엔 헌 거 산에 강 헤 온 거이.(얼마나 사뭇. 이제 두릅이라고 하는 거 산에 가서 해 온 거.)

103034 @ 예.(예.)

103034 #1 요만이 놩 만 원이라. 비쌍 못 사당 먹어.(요만큼 놔서 만 원이야. 비싸서 못 사다가 먹어.)

103034 @ 하하하.(하하하.)

103034 #1 아이고, 옛날은 우리. 개간 안 헌 때난 옛날은 산에 가민 개간 안 허민 요 ᄆᆞ쉬ᄆᆞ루[148]만 가민 ᄉᆞ못 내로 우터레 가민 들굽이 핫저게.(아이고, 옛날은 우리. 개간 안 할 때니까 옛날은 산에 가면 개간 안 하면 요 'ᄆᆞ쉬ᄆᆞ루'만 가면 사

148) 'ᄆᆞ쉬ᄆᆞ루'는 서귀포시 토평동의 지경 이름이다.

뭇 내로 위로 가면 두룹이 많아.)

103034 @ 으.(으.)

103034 #1 이젠 문딱 개간헤 불고 이젠이 문 무시거 헤 부난. 거 중국 사름덜 오란 막 발전시켜 부난 고사리 거끌 디도 엇고 이젠 원 고사리 거끌 디도 엇어.(이젠 모두 개간해 버리고 이젠 모두 뭐 해 버리니까. 거 중국 사람들 와서 마구 발전시켜 버리니까 고사리 꺾을 데도 없고 이젠 원 고사리 꺾을 데도 없어.)

103034 @ 음.(음.)

103034 #1 아무것도 엇다 이젠. 겨난 산에 가도 안허고. 난 고사리 거꺼 나건 디도 이거 십 년 넘엇저.(아무것도 없다 이젠. 그러니까 산에 가지도 않고. 난 고사리 꺾어 본 지도 이거 십 년 넘었어.)

103034 @ 고사리 꺼끄레 안 다념수과?(고사리 꺾으러 안 다니고 있습니까?)

102016 #1 아이고, 나 손 영 헨 이거 관절로 아팡 이건 원 쓰지 말렌 헌 손이고.(아이고, 내 손 이렇게 해서 이거 관절로 아파서 이거 원 쓰지 말라고 한 손이고.)

102016 @ 예.(예.)

102016 #1 이 쒜 이거 다섯 개 놓고 다 수술허도 못허고 사고 난 거. 간 그착, 폐 그착, 자궁 들럭.(이 쇠 이거 다섯 개 놓고 다 수술하지도 못하고 사고 난 거. 간 자르고, 폐 자르고 자궁 들어내고.)

102016 @ 여기는 수술헌 게 사고 낭 수술헌 거?(여기는 수술한 게 사고 나서 수술한 거?)

102016 #1 으.(으.)

102016 @ 교통사고 나낫수과?(교통사고 났었습니까?)

102016 #1 으, 으. 저 경운기에, 경운기 가와[149]에 감아졍 나 죽을 뻔 첨, 멧 번 죽을 뻔헨 살앗주게.(으, 으. 저 경운기에, 경운기 벨트에 감겨서 나 죽을 뻔 참, 몇 번 죽을 뻔해서 살았지.)

102016 @ 에.(에.)

102016 #1 겡허연 그때엔 벵원도 엇고.(그래서 그때에는 병원도 없고.)

102016 @ 예.(예.)

102016 #1 그 나 이거 사고 난 때에 미깡낭 곧 메종 메종, 모종으로 싱글 때여게. 이거 아이고, 흔 오십 년.(그 나 이거 사고 났을 때에 감귤나무 곧 모종 모종, 모종으로 심을 때야. 이거 아이고, 한 오십 년.)

102016 @ 음.(음.)

102016 #1 오십 년 뒛저.(오십 년 되었어.)

102016 @ 아, 오래뒌 거구나.(아, 오래된 거구나.)

102016 #1 이거 오십 년 뒛저, 이거 사고 나건 디. 경허단에 그땐 벵원도 엇고 아무것도 엇인 때여. 저 서귀포 김영창이라고 흔 밧디 병원, 원 그디 흔 밧 잇어나

149) '가와'는 일본어 'かわ(가죽)'에서 온 말이다. 여기서는 경운기의 벨트를 가리킨다.

고 원 병원이 그땐 엇인 때주. 경헌 땐디 첨 그냥 줴는 사름만 헤단 지압허는 사름 헤단 지압 헤노렌 허난 더 빠져 불언. 흔 칠십 나 가난에게 아판 막 일 못 헤 가난 제주시 벵원마다 믄 뎅기멍 헤 봐도 수술 못 헌덴 헨 이제. 수술을 못 허켄 헨 서울 올라간에 이젠 우리들병원, 막 일름 난 병원에 뎅겨 봐도 지네 완구 안 헐 거난 수술 못 허켄 헨 지네 원 손 안 대켄 서울대학병원으로 저 이제 세브란스병원으로 저 삼성의료원으로 가도 이걸 수술 안 헤 줘라게.(이거 오십 년 되었어. 이거 사고 난 지. 그러다가 그땐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야. 저 서귀포 김영창이라고 한 군데 병원, 원 거기 한 군데 있었었고 원 병원이 그땐 없을 때지. 그런 때인데 참 그냥 죄는 사람만 해다가 지압하는 사람 해다가 지압 하느라고 하니까 더 빠져 버렸어. 한 칠십 되어 가니까 아파서 아주 일 못 해 가니까 제주시 병원마다 모두 다니면서 해 봐도 수술 못 한다고 해서 이제. 수술을 못 하겠다고 해서 서울 올라가서 이젠 우리들병원, 아주 이름 난 병원에 다녀 봐도 자기네 완구 안 할 거니까 수술 못 하겠다고 해서 자기네 원 손을 안 대겠다고 서울대학병원 저 이제 세브란스병원으로 저 삼성의료원으로 가도 이걸 수술 안 해 주더라.)

102016 @ 음.(음.)

102016 #1 막 나 죽어가가난 우리 메누리가 서울서 이제 경희대 한방병원이나 와 봅센 헨에 한방병원에 가난 이거 무시거, 무시거 쒜 놘에 다락다락[150] 올리멍 막 죽어짐직허권데 죽어도 나 집이 강 죽으켄 헨 나 이디서 죽어짐직허덴 허난, 지네 친구가 이제 인천 나누리병원 척추 전문의가 잇젠 헨에 엠알알 멧 밧디나 강 찍어신디사, 나 댓 개 엠알알 찍어다 논 거 잇저만은 그거 아졍 이제 인천을 가난에 세 군데 빠진 건디 흔 군데는 수술헤지켄.(마구 나 죽어가니까 우리 며느리가 서울에서 이제 경희대 한방병원이나 와 보세요 해서 한방병원에 가니까 이거 뭐, 뭐 쇠 놓아서 '다락다락' 올리면서 마구 죽음직하기에 죽어도 나 집에 가서 죽겠다고 해서 나 여기서 죽음직하다고 하니까, 자기네 친구가 이제 인천 나누리병원 척추 전문의가 있다고 해서 엠알에이 몇 군데나 가서 찍었는지, 나 댓 개 엠알에이 찍어다 놓은 거 있지만 그거 가지고 인천을 가니까 세 군데 빠진 건데 한 군데는 수술할 수 있겠다고.)

102016 @ 음.(음.)

102016 #1 아이구, 경허난 흔 군데라도 큰불이나 끄켄 헨 그디 가난 흔 밧디 헴시카 부덴 허단 보난 이디 쒜 이디 두 개, 이디 두 개, 이디 세 개, 다섯 개 놘에 허고 가운덴 손 못 대연에. 게난 이 큰 병원에선 완료 안 뒐 거난에 손 안 댄 거. 지네 일름난 병원은. 게난 나 고망에 강, 인천 나누리병원 강 헌 거여게.(아이구, 그러니까 한 군데라도 큰불이나 끄겠다고 해서 거기 가니까 한 군데 하고 있을까 봐 하다 보니까 여기 쇠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다섯 개 놔서 하고 가운데는 손 못 대어서. 그러니까 큰 병원에서 완료 안 될 거니까 손 안 댄 거. 자기네 이름난 병원은. 그러니까 내가 구멍에 가서, 인천 나누리병원 가서 한 거야.)

150) '다락다락'은 기계 따위가 움직이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2016 @ 으.(으.)

102016 #1 겡헨 나 이거 쒜 다섯 개, 이제 침대에 눕고 그자 아래에 못 앚나. 이거 이제난 헵주. 경헨 아래도 못 앚고. 폐 수술헨에, 폐 혼착 그찬 폐수술 헤연 혼 삼 년만이 요거 헌 거여게. 요거 경헨 헌 후젠 원 일도 안 헤 보고 그자.(그래서 나 이 쇠 다섯 개, 이제 침대에 눕고 그저 아래에 못 앉아. 이거 이제니까 하지. 그래서 아래도 못 앉고. 폐 수술해서, 폐 한쪽 잘라서 폐수술 해서 한 삼 년만에 요거 한 거야. 요거 그래서 한 후에 원 일도 안 해 보고 그저.)

102016 @ 병원 신세.(병원 신세.)

102016 #1 으, 경허난 전신마취 다섯 번 시켠 수술헤 나난 저 원 이 무럽 이거 네지[151]로 ᄒᆞ쏠 헤도 무럽 믄 관절 다엿젠 헤도 네지로만 헤연 오란에 이거 그냥 젼뎜신디 나 경허난 장애자 카드 헤 줘라. 원 장애자 카드 헤 줜게 오난 장애자 일이라도 동사무소서 허렌 허멍 헤도 허지 못헤영 삼 년을 못헷저게. 겡헷단 나 이거 작년부터사.(으, 그러니까 전신마취 다섯 번 시켜서 수술하고 나니까 저 원 이 무릎 이거 나사로 조금 해도 무릎 모두 관절 다였다고 해도 나사로만 하고 와서 이거 그냥 견디는데 나 그러니까 장애자 카드 해 주더라. 원 장애자 카드 해 줘서 오니까 장애자 일이라도 동사무소에서 하라고 하면서 해도 하지 못해서 삼 년을 못했어. 그랬다가 나 이거 작년부터야.)

102016 @ 으, 잘헷수다.(으, 잘했습니다.)

102016 #1 으. 강 헤여 보켄 헨 신청헤영 헤여 보는 거여게, 그자. ᄒᆞᆫ 덜에 삼십만 원이난 그자 궨찮헌게. 이녁 용돈 기자 무시거 첨 집이서 노느니 ᄒᆞᆫ 낮전 허민 ᄒᆞᆫ 덜에 열 나흘이난.(으. 가서 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해 보는 거야, 그저. 한 달에 삼십만 원이니까 그저 괜찮아. 자기 용돈 그저 뭐 참 집에서 노느니 한 낮전 하면 한 달에 열 나흘이니까.)

102016 @ 예, 예.(예, 예.)

102016 #1 경헨 기자. 것도 일 년 열두 덜 쭉 헤사.(그래서 그저. 것도 일 년 열두 달 쭉 해야.)

103035 @ 으, 으. 저 콩 검질멩 콩덜 컷수다예. 노랑헤 가난 꺾을 거 아니? 콩 꺾는 건?(으, 으. 저 콩 김매서 콩들 컸습니다. 노래 가니까 꺾을 거 아니? 콩 꺾는 건?)

103035 #1 콩썹 판찍 털어져사.(콩잎 말끔히 떨어져야.)

103035 @ 예, 예.(예, 예.)

103035 #1 판찍 털어지민 강 꺼꺼근에 꺼껑 것도 밧디 놩 ᄒᆞᆫ 사흘 ᄆᆞᆯ롸사.(말끔히 떨어지면 가서 꺾어서 꺾어서 것도 밭에 놔서 한 사흘 말라야.)

103035 @ 으.(으.)

103035 #1 ᄆᆞᆯ르민 멍석 시껑 가느네. 멍석 시껑 강 페왕 안아당 놩 믄 메와 가멍 도께로 두드려, 밧디서.(마르면 멍석 실어서 가. 멍석 실어서 가서 펴서 안아다

151) '네지'는 일본어 'ねじ'로, '나사'를 말한다.

가 놔서 모두 메워 가면서 도리깨로 두드려, 밭에서.)

103035 @ 음, 밧디서.(음, 밭에서.)

103035 #1 밧디서 장만헹 헌다.(밭에서 장만해서 한다.)

103035 @ 하하하.(하하하.)

103035 #1 밧디서 마당질허멍 어야홍 어야홍 허멍 놉 빌엉 간, 것도. 이녁만은 못 허주게. 놉 빌엉 가근에 헤영 두드령 헤여 오고 ᄆᆞ물도 놉 빌엉 강 수눌엇단에 두드려근에 ᄆᆞ물도 헹 오고.(밭에서 마당질하면서 어야홍 어야홍 하면서 놉 빌려서 가서, 것도. 자기만은 못 하지. 놉 빌려서 가서 하고 두드려서 해서 오고 메밀도 놉 빌려서 가서 품앗이했다가 두드려서 메밀도 해서 오고.)

103035 @ 게민 영 거 타작허젠 허민 튀지 말렌 옆이 뭐 안 칩니까?(그럼 이렇게 거 타작하려고 하면 튀지 말라고 옆에 뭐 안 칩니까?)

103035 #1 아이고, 널르게 ᄆᆞᆫ 헤여근에 막 튀민 기자 튀는 양 줏어 놓곡 헤낫저게. 멍석 ᄉᆞ못 막 여러 질 ᄁᆞᆫ다게. 마주 사근에이.(아이고, 넓게 모두 해서 마구 튀면 그저 튀는 대로 주워 놓고 했었어. 멍석 사뭇 아주 여러 종류 깐다. 마주 서서.)

103035 @ 으.(으.)

103035 #1 마주 상 도께질헤 가민 콩 안 튐도 허느냐?(마주 서서 도리깨질해 가면 콩 안 튀기도 하니?)

103035 @ 예.(예.)

103035 #1 경허민 막 널르게 헤근에 그자. 허민 베낏디 튄 건 줏어도 놓고 그자.(그러면 아주 넓게 해서 그저. 하면 밖에 튄 건 주워도 놓고 그저.)

103035 @ 줏어도 놓고.(주워 놓고.)

103035 #1 으. 막지 못헌다 거.(으. 막지 못한다 거.)

103035 @ 으.(으.)

103035 #1 경헤근에 ᄆᆞᆫ 불령 밧디서 불령. ᄇᆞ름이나 것도 좋은 날은 불령 허고. 경 안허민 얼멩이로 치엇당 그것도 놔뒷당 ᄇᆞ름 부는 날은 불리고.(그래서 모두 불려서 밭에서 불려서. 바람이나 것도 좋은 날은 불려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레미로 치었다가 그것도 놔뒀다가 바람 부는 날은 불리고.)

103035 @ 음.(음.)

103035 #1 에이고.(어이고.)

103035 @ 게난 콩은 꺼끄민 영 무끄지 안허는 거?(그러니까 콩은 꺾으면 이렇게 묶지 않는 거?)

103035 #1 무꺼 보지 안헷저.(묶어 보지 않았어.)

103035 @ 그냥 널어 놩.(그냥 널어 놔서.)

103035 #1 으, 기자 똑똑 꺼꺼 놩 모도왕 안아다 놔.(으, 그저 똑똑 꺾어 놔서 모아서 안아다 놔.)

103035 @ 안아다 놩 타작헤 부는 거?(안아다 놓고 타작해 버리는 거?)

103035 #1 으, 테작헤.(으, 타작해.)

103035 @ 예, 예.(예, 예.)
103036 #1 경헤영 두드려당 죽도 쒕 먹고 정ᄀᆞ레에 ᄀᆞᆯ앙.(그래서 두드려다가 죽도 쒀서 먹고 '정ᄀᆞ레'에 갈아서.)
103036 @ 예.(예.)
103036 #1 국도 끌령 먹고.(국도 끓여서 먹고.)
103036 @ 국도 끓여 먹고.(국도 끓여 먹고.)
103036 #1 콩ᄂᆞ물도 놩 먹곡.(콩나물도 넣어서 먹고.)
103036 @ 콩ᄂᆞ물도 놩 먹고.(콩나물도 넣어서 먹고.)
103036 #1 멧 가지, 천 가지.(몇 가지, 천 가지.)
103036 @ 게난 두부도 만들어 보고?(그러니까 두부도 만들어 보고?)
103036 #1 두분 만들어 보지 안헷저.(두부는 만들어 보지 않았어.)
103036 @ 안 헨?(안 했어?)
103036 #1 으.(으.)
103036 @ 메주 헤야 뒐 거 아니과, 메주?(메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메주?)
103036 #1 어게. 것사 허주게. 나 콩 닷말썩 옛날엔 솖앙.(어. 거야 하지. 나 콩 닷 말씩 옛날엔 삶아서.)
103036 @ 와.(와.)
103036 #1 나 그거 콩 닷 말썩 솖아근에 ᄉᆞ못 그 콩 솖을 때엔 옛날엔 초집이 살아나지 안헤시냐?(나 그거 콩 닷 말씩 삶아서 사뭇 그 콩 삶을 때엔 옛날엔 초가에 살았었지 않았니?)
103036 @ 으.(으.)
103036 #1 우리 초집 헤연 살 때이 새 비여사. 각단[152] 비레 가저, 새 비레 가저 허민 이제 그거 비레 가젠 허민 새벡이 밤이 혼 시만 뒈민 일어낭 저 콩 솖앙, 콩 솖앙 발로 문 불라.(우리 초가 해서 살 때 띠 베어야. '각단' 베러 가랴, 띠 베러 가랴 하면 이제 그거 베러 가려고 하면 새벽에 밤에 한 시만 되면 일어나서 저 콩 삶아서, 콩 삶아서 발로 모두 밟아.)
103036 @ 으.(으.)
103036 #1 발로 문딱 불랑 손으로 문 줴여. 또 이제 그걸 문 하나, 하나 찍 헤영, 나룩찍 헤영 ᄃᆞᆯ아메영.(발로 모두 밟아서 손으로 모두 죄어. 또 이제 그걸 모두 하나, 하나 짚 해서, 볏짚 해서 달아매.)
103036 @ 으.(으.)
103036 #1 ᄃᆞᆯ아메영 보잇보잇 트민 그거 장 담앙.(달아매서 보잇보잇 트면 그거 장 담가서.)
103036 @ 장 담앙.(장 담가서.)
103036 #1 에구. 장이사 이제도 담암주게. 콩 혼 말썩 솖으멍.(에구, 장이야 이제도 담그고 있지. 콩 한 말씩 삶으면서.)

152)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한다.

103036 @ 예, 예. 흔 말썩?(예, 예. 한 말씩?)

103036 #1 으, 이젠, 이젠 기자 흔 말썩 솖아도 나 넘은헨 안 허연, 올린.(으, 이젠, 이젠 그저 한 말씩 삶아도 나 지난해 안 했어, 올해는.)

103036 @ 으.(으.)

103036 #1 아이덜 육지 살멍 어무니 뒌장 먹켄 허멍 허영 아져가단 나 손 아프고 허리 아픈 줄 아난 지네대로 헹 먹켄 허멍 사당을 먹엇던 지네대로 헹 먹엇던 어머니 거 안 아져가켄 허멍 나 아픈 후젠.(아이들 육지 살면서 어머니 된장 먹겠다고 하면서 해서 가져가다가 나 손 아프고 허리 아픈 줄 아니까 자기네대로 해서 먹겠다고 하면서 사다가 먹든 자기네대로 해서 먹든 어머니 거 안 가져가겠다고 하면서 나 아픈 후에는.)

103036 @ 으.(으.)

103036 #1 수술 하도 여러 번 헤 가난 어멍 거 앗당 먹젠 허느냐? 경허난 지네대로 사난. 할망, 하르방만 사난 무시거 먹어지지 안허여. 손지 돌앙 살 때 흑쏠 헷주만은 손지덜토 이젠 문 군대에 갓다 왕 학교 뎅겨불고 이제 직장덜 어디 나가불고 헤가민 먹어지지 안허여.(수술 하도 여러 번 해 가니까 어머니 거 가져다가 먹으려고 하니? 그러니까 자기대로 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사니까 뭐 먹지 않아. 손주 데리고 살 때 조금 했지만 손주들도 이젠 모두 군대에 갔다 와서 학교 다니고 이제 직장들 어디 나가고 해 가면 먹지 않아.)

103037 @ 예. 콩찝은 뭐 헙니까?(예. 콩짚은 뭐 합니까?)

103037 #1 콩꼬질은이 밧디 강 끌아.(콩깍지는 밭에 가서 깔아.)

103037 @ 아, 콩꼬질은 밧디 강 끌아.(아, 콩깍지는 밭에 가서 깔아.)

103037 #1 어.(어.)

103037 @ 걸름뒈렌?(거름되라고?)

103037 #1 걸름허젠.(거름하려고.)

103037 @ 아.(아.)

103037 #1 데명 놧당 썩으민 헤싸. 데명 놧당 썩으민 헤싸.(쌓아 놨다가 썩으면 헤쳐. 쌓아서 놨다가 썩으면 헤쳐.)

103037 @ 음.(음.)

103037 #1 아이고, 얼마나 걸름이카 부덴 콩꼬질. 막 건다, 콩꼬질. 콩 갈아난 밧도 걸고.(아이고, 얼마나 거름일까 봐 콩깍지. 아주 걸어, 콩깍지. 콩 갈았던 밭도 걸고.)

103037 @ 예.(예.)

103037 #1 꿰 갈아난 밧은 가 불고.(깨 갈았던 밭은 가 버리고.)

103037 @ 예.(예.)

103037 #1 픗, 콩 갈아난 밧은 막 건덴 허멍 허주게.(팥, 콩 갈았던 밭은 아주 걸다고 하면서 하지.)

103037 @ 으.(으.)

103037 #1 경헤근에 큰 콩꼬질 허껑 무시거 허민이 걸어, 썩으민.(그래서 큰 콩깍지를 섞어서 뭐 하면 걸어, 썩으면.)

103037 @ 게민 콩꼬질은 걸름허고. 게민 콩찝은? 그 낭떼기?(그럼 콩깍지는 거름하고. 그럼 콩짚은? 그 대?)

103037 #1 게메 그걸 쎅여.(글쎄 그걸 썩혀.)

103037 @ 아, 그거 자체를 쎅여?(아, 그거 자체를 썩혀?)

103037 #1 으, 그 여물만 두드렁 빠 앗아 불민게.(으, 그 여물만 두드려서 빼 가져 버리면.)

103037 @ 아, 그거 전부를 콩꼬질이엔 헙니까?(아, 그거 전부를 '콩꼬질'이라고 합니까?)

103037 #1 으, 우리 옛날에 콩꼬질[153], 콩꼬질. 콩남뎅이ᄀᆞ라.(으, 우리 옛날에 '콩꼬질', '콩꼬질'. 콩대보고.)

103037 @ 왜 콩남뎅이가 있고 콩 영 싼 껍질이 잇잖아예?(왜 콩대가 있고 콩 이렇게 싼 껍질이 있잖아요?)

103037 #1 껍질 잇주게. 그 껍데기.(껍질 있지. 그 껍데기.)

103037 @ 게난 그 껍데기만 콩꼬질이엔?(그러니까 그 껍데기만 '콩꼬질'이라고?)

103037 #1 그것도 밧디 강.(그것도 밭에 가서.)

103037 @ 그니까 전부를 콩꼬질이엔?(그니까 전부를 '콩꼬질'이라고?)

103037 #1 으. 밧디 강 허꺼.(으. 밭에 가서 섞어서.)

103037 @ 허꺼예?(섞어요?)

103037 #1 으, 그 껍데기 난 것도 밧디 강 허꺼. 그거 걸름.(으, 그 껍데기 난 것도 밭에 가서 섞어. 그거 거름.)

103037 @ 걸름.(거름.)

103037 #1 막 걸어.(아주 걸어.)

103037 @ 그 콩낭이 막 잘 걸름이 뒙니까?(그 콩대가 아주 잘 거름이 됩니까?)

103037 #1 어게. 데명 놔두민 비 맞악 눈 맞악 허민게 썩주게.(어. 쟁여 놔두면 비 맞고 눈맞고 하면 썩지.)

103037 @ 으.(으.)

103037 #1 썩어. 혼 일 년만, 혼 해 저슬만 살민 기자 북삭헌다[154]게. 콩꼬질 제기 썩어.(썩어. 한 일 년만, 한 해 겨울만 살면 그저 '북삭해'. '콩꼬질' 재게 썩어.)

103037 @ 아, 제기 썩어.(아, 재게 썩어.)

103037 #1 으. 막 제기 썩나게. 느네 어머니넨 농사 안 지어나시냐?(으. 아주 재게 썩어. 너희 어머니넨 농사 안 지었었니?)

---

153) 여기서 '콩꼬질'은 콩을 털어내고 남은 콩깍지나 콩대를 모두 가리킨다.

154) 여기서 '북삭허다'는 단단한 콩대가 썩어 부드러워진 상태를 말한다.

103037 @ 우리도 헤낫수다.(우리도 했었습니다.)

103037 #1 경허난 어머니네도 들으민 훤허주. 뭐 콩꼬질 우리 걸름헤낫저.(그러니까 어머니네도 들으면 훤하지. 뭐 '콩꼬질' 우리 거름했었어.)

103037 @ 으.(으.)

103037 #1 니네 어무니 이제 멧 설산디 모르켜만은 문 그런 거 꺼꺼주.(너희 어머니 이제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모두 그런 거 꺾었지.)

103037 @ 음.(음.)

103037 #1 허단도 버쳣주.(하다가도 부쳤지.)

103038 @ 콩 농사지으멍 기억나는 일은 엇수과?(콩 농사지으면서 기억나는 일은 없습니까?)

103038 #1 콩 농사지으멍 기억나는 일은 무슨 일이니 기자. 콩 혼저 헤단 기자 죽 헹 먹을 여산, 밥헹 먹을 여산. 아이고, 콩 헤근에 ᄉᆞ못 주름 놔근에 콩주름, 콩주름. 주름 놩 먹곡. 옛날이사 돈 잇엉 사 먹어져시냐. 기자 이녁냥으로만 헹 먹엇주.(콩 농사지으면서 기억나는 일은 무슨 일이니 그저. 콩 어서 해다가 그저 죽 해서 먹을 계획, 밥해 먹을 계획. 아이고, 콩 해서 사뭇 콩나물 놔서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 놔서 먹고. 옛날에야 돈 있어서 사 먹을 수 있었니. 그저 자기대로만 해서 먹었지.)

103038 @ 이녁냥으로.(자기대로.)

103038 #1 ᄃᆞᆨ 질뢍 ᄃᆞᆨ새기 어느 때민 나리. ᄃᆞᆨ 모두와근에 그 ᄃᆞᆨ새기 풀앙 살고. 하하. 우리 엇어놓난 도새기 질뢍, 돗통에 도새기 질뢍 아이고, 이 도새기가 어느 때랑 커근에 그 용돈 쓰리 허곡.(닭 길러서 달걀 어느 때면 낳으리. 닭 모아서 그 달걀 팔아서 살고. 하하. 우리 없으니까 돼지 길러서, 돼지우리에 돼지 길러서 아이고, 이 돼지 어느 때면 커서 그 용돈 쓰리 하고.)

103038 @ 으.(으.)

103038 #1 돈이 어디 잇느니? 아이고, 우린 더 섭게 살앗저게. 엇어부난.(돈이 어디 있니? 아이고, 우린 더 서럽게 살았어. 없으니까.)

103038 @ 게난 ᄃᆞᆨ새기도 먹어 보지 못헨.(그러니까 달걀 먹어 보지 못했어?)

103038 #1 안 먹어 봣저. 아이고, 풀앗주.(안 먹어 봤어. 아이고, 팔았지.)

103038 @ 아이덜 멕이주.(아이들 먹이지.)

103038 #1 아이고, 아이덜. 아이고, 첨 돈 사사주, 돈.(아이고, 아이들. 아이고, 참 돈 사야지, 돈.)

103038 @ 아.(아.)

103038 #1 진작 말이주, 우리 애기덜 다섯 오누이 컷저만은이 어멍신디 아방신디 돈 십 원 도렌 안 헤 봣저게, 엇이난. 도렌 안 헤 봣저 우리 애기덜.(진작 말이지, 우리 아기들 다섯 오누이 컸지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돈 십 원 달라고 안 해 봤어, 없으니까. 달라고 안 해 봤어, 우리 아기들.)

103038 @ 착허우다, 그것도.(착합니다. 그것도.)

103038 #1 어게. 애기덜이 착허여. 착허연에 경허난 우리 큰아덜도 첨 이제 대학 들어가젠 허난 그때사 지네 아방 돈 만 원 주멍 수중에 노렌 허난 필요 엇수다, 필요 엇수다 허멍 노시 안 마트건, 야 경헤도 이제 돈은 수중에 경헤도 ᄒᆞ꼼 잇어사주 엇이민 안 뒌덴 허멍 첨. 생전 돈 도렌 안 헤 봣저. 요 과자 하나 안 사 먹어 봣저.(어. 아기들이 착해. 착해서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도 참 이제 대학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야 자기네 아버지 돈 만 원 주면서 수중에 넣으라고 하니까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도무지 안 맡아서, 야 그래도 이제 돈은 수중에 그래도 조금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참. 생전 돈 달라고 안 해 봤어. 요 과자 하나 안 사 먹어 봤어.)

103038 @ 음.(음.)

103038 #1 겐 첨 얼마나 섭게 산 처레 아느냐, 우리. 잘도 섭게 살앗저. 저 어제 느 그 저 이제 우리 ᄀᆞ치 살멍 훤허주. 우리 살아온 거. 그 어른ᄀᆞ라 들어보라 우리 어렵게 살아난 말이 옳은 말이냐, 거짓말이냐. 그 어른도 어렵겐 살앗저.(그래서 참 얼마나 서럽게 산 줄 아니, 우리. 아주 서럽게 살았어. 저 어제 너 그 저 우리 같이 살면서 훤하지. 우리 살아온 거. 그 어른보고 들어봐라. 우리 어렵게 살았던 말이 옳은 말이냐, 거짓말이냐. 그 어른도 어렵게는 살았어.)

103038 @ 맞아마씨.(맞아요.)

103038 #1 그 어른도 어렵겐 살앗고, 어렵겐 살앗저게.(그 어른도 어렵게는 살았고, 어렵게는 살았어.)

103038 @ 예, 예.(예, 예.)

103038 #1 그 어른도 ᄒᆞ쏠 옛날에 우리보단은 경헤도 집도 잇곡 밧도 잇곡 허여도 시어멍이 일 안 허엔 기자 놀멍 빗만 내우난 빗 오랑 버슬엉 물젠 허난 그 어른도 막 고생은 헷저게. 고생은 헨 살앗저.(그 어른도 조금 옛날에 우리보다는 그래도 집도 있고 밭도 있고 해도 시어머니가 일 안 해서 그자 놀면서 빚만 내니까 빚 와서 벌어서 물려고 하니까 그 어른도 아주 고생은 했어. 고생은 하고 살았어.)

103038 @ 으, 으.(으, 으.)

103038 #1 막 존 어른이라. 잘도 존 어른이여.(아주 좋은 어른이야. 아주 좋은 어른이야.)

103038 @ 경헙디다.(그럽디다.)

103038 #1 나 웃둥네에 ᄀᆞ치 혼동네에 살앗저게. 혼 물 먹으멍 경 살단 나 이 알동네레 시집와 불고 첨 이제도 ᄇᆞ디게 기자 우리 어멍과 막 첨 친허고 헤낫저.(나 윗동네에 같이 한동네에 살았어. 한 물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 이 아랫동네로 시집와 버리고 참 이제도 밭게 그저 우리 어머니와 아주 참 친하고 했었어.)

밭벼농사

103039 @ 예, 이제 산디 농사 물어보쿠다, 산디 농사. 산디 농사허젠 허민 무슨 준비헙니까?(예, 이제 밭벼 농사 물어보겠습니다, 밭벼 농사. 밭벼 농사하려고 하면

무슨 준비합니까?)

103039 #1 산디 농산 무시거 준비허느니. 기자 산디 씨 기자 혜영 놧당 산디 갈젠 허민 ᄒᆞ쏠 씨 헤사, 씨 헤사 허멍 놔뒷다근에 기자 멜망텡이[155]에 놔근에 강 뿌리주. 산디도. 산디도 강 뿌려.(밭벼 농사는 뭐 준비하니. 그저 밭벼 씨 그저 해서 놨다가 밭벼 갈려고 하면 조금 씨 해야, 씨 해야 하면서 놔뒀다가 그저 '멜망텡이'에 넣어서 가서 뿌리지. 밭벼도. 밭벼도 가서 뿌려.)

103040 @ 밧 갈기 전에?(밭 갈기 전에?)

103040 #1 으, 그자 갈기 전에.(으, 그저 갈기 전에.)

103040 @ 으.(으.)

103040 #1 산딘 갈기 전에 간 뿌렷저.(밭벼는 갈기 전에 가서 뿌렸어.)

103040 @ 뿌려 놩.(뿌려 놓고.)

103040 #1 으, 경헨 갈앙 그자 확확확 벌레기[156] 치민 밧이 골라지주게. 경헨 삭삭 허게시리.(으. 그래서 갈아서 그저 확확확 '벌레기' 치면 밭이 골라지지. 그래서 삭삭 하게끔.)

103040 @ 경헨 산디는 언제 갑니까?(그래서 밭벼는 언제 갑니까?)

103040 #1 산디도 봄이.(밭벼도 봄에.)

103040 @ 봄이?(봄에?)

103040 #1 으, 산디나 조나 콩, 풋 ᄒᆞ쏠 늦게 갈앗저.(으, 밭벼나 조나 콩, 팥 조금 늦게 갈았어.)

103040 @ 게민 음력 사월 뒈민?(그럼 음력 사월 되면?)

103040 #1 어, 으 으. 경허민 기자 음력 유월덜 뒈민 꿰도 ᄉᆞ끄곡 콩도 너미 줒으민 ᄉᆞ끄곡.(어, 으 으. 그러면 그저 음력 유월 되면 깨도 솎고 콩도 너무 배면 솎고.)

103040 @ 음.(음.)

103040 #1 또 내붐도 허고 줒으민 열지 안허주, ᄒᆞ쏠.(또 내버리기도 하고 배면 열지 않지, 조금.)

103040 @ 아.(아.)

103040 #1 콩이 줒으민 열질 안헌다.(콩이 배면 열지를 않는다.)

103040 @ 열질 안허여.(열지 않아.)

103040 #1 경허민 ᄒᆞ쏠.(그러면 조금.)

103040 @ 콩 ᄉᆞ까 주는 거.(콩 솎아 주는 거.)

103040 #1 으, 경허난 이제덜은 콩을 싱검주. 옛날엔 짝짝 씰 삐영 첨 갈앙 내불민 포 간 것[157]도 잇고 하나썩 지만썩 간 것도 잇고 헷주.(으, 그러니까 이제들은 콩을 심고 있지. 옛날엔 쫙쫙 씨를 뿌려서 참 갈아서 내버리면 포 간 것도 있고 하나씩 자기만씩 간 것도 있고 했지.)

---

155) '멜망텡이'는 어깨에 메고 다니게 만든 망태기를 말한다.
156) '벌레기'는 밭을 갈 적에 일어나는 풀포기를 말한다.
157) 여기서 '포 간 것'은 씨가 여러 개 겹친 것을 말한다.

103040 @ 으. 이젠 콩을 싱거, 싱거. 다 싱거. 경허주만은 옛날은 문 짝짝 멜망텡이에 메영 삐영 갈아시네게.(으. 이젠 콩을 심어, 심어. 다 심어. 그랬지만 옛날은 모두 쫙쫙 '멜망텡이'에 메서 뿌려서 갈았어.)

103041 @ 산디밧디도 걸름은 안 헙니까?(밭벼밭에도 거름은 안 합니까?)

103041 #1 걸름게 무사 안 허여게. 걸름만 시민 허주만은 기자. 산디밧디도 옛날엔 산디밧디도이 불껑이나 시민 겡헤 가난 걸름 장시도, 불껑 장시 나낫어.(거름 왜 안 해. 거름만 있으면 하지만 그저. 밭벼밭도 옛날엔 밭벼밭도 재나 있으면 그래 가니까 거름 장수도, 재 장수 났었어.)

103041 @ 아, 불껑을 팔레 다녀마씨?(아, 재를 팔러 다녀요?)

103041 #1 어, 불껑을 풀아낫저게.(어, 재를 팔았었어.)

103041 @ 아이고.(아이고.)

103041 #1 불껑 풀아낫저. 불껑 풀앙 허민 육지서 나룩, 저 그 나룩 솔아난 그 나룩 걸름 와낫저게.(재 팔았었어. 재 팔아서 하면 육지에서 벼, 저 그 벼 살았던 그 벼 거름 왔었어.)

103041 @ 으.(으.)

103041 #1 경헨 육지서 그거 오민 스못 거 사젠 허민 스못 맞춰사 것도. 경허민 그거 허껑 산디 갈고.(그래서 육지에서 그거 오면 사뭇 거 사려고 하면 사뭇 맞춰야 것도. 그러면 그거 섞어서 밭벼 갈고.)

103041 @ 씨에 서끄는 거지예?(씨에 섞는 거지요?)

103041 #1 씨에 서끄나 밧디 강 기자 삐나. 그건 서꺼도 뒈고 삐여도 뒈곡.(씨에 섞거나 밭에 가서 그저 뿌리거나. 그건 섞어도 되고 뿌려도 되고.)

103041 @ 게민 걸름을 먼저 삐여 난 다음에?(그럼 거름을 먼저 뿌리고 난 다음에?)

103041 #1 어게, 어게.(어. 어.)

103041 @ 산디 씨 뿌려 난 다음에.(밭벼 씨 뿌리고 난 다음에.)

103041 #1 어게.(그래.)

103041 @ 밧을 가는 거라예?(밭을 가는 거지요?)

103041 #1 으.(으.)

103041 @ 게난 산디 갈젠 허민 불껑을 뿌렷당 씨 뿌령 밧 가는 거라예?(그러니까 밭벼 갈려고 하면 재를 뿌렸다가 씨 뿌려서 밭 가는 거지요?)

103041 #1 으, 으게.(으, 어.)

103043 @ 게난 검질은 멧 불 멥니까? 산디밧디?(그러니까 김은 몇 벌 맵니까? 밭벼밭에?)

103043 #1 아이고, 산디도 여라 불 멘다게. 산디 문 컹 스못 산디밧디도이 이제 궂인 것도 메 불고 서너 번 뎅겨사 뒈여. 검질 두 번 메곡.(아이고, 밭벼도 여러 벌 맨다. 밭벼 모두 커서 사뭇 밭벼밭도 이제 궂은 것도 매 버리고 서너 번 다녀야 돼. 김 두 번 매고.)

103043 @ 아이고, 산디밧디도 경 하영 멥니까?(아이고, 밭벼밭도 그렇게 많이 맵니까?)

103043 #1 어게. 산디밧디엔 안 메지 안허영 ᄉᆞ못 산디 막 큰 후제 검질메젠 허민 야가지 문 찔러 불고.(어. 밭벼밭에 안 매지 않고 사뭇 밭벼 아주 큰 후에 김매려고 하면 모두 찔러 버리고.)

103043 @ 으.(으.)

103043 #1 ᄉᆞ못 야가지 찔러 불고.(사뭇 목 찔러 버리고.)

103043 @ 올라오멍?(올라오면서?)

103043 #1 으, 산디 커러와. 경게, 보리밧거치.(으, 밭벼 까다로워. 그렇게, 보리밭같이.)

103044 @ 게난 산디밧디는 어떤 검질들이 납니까?(그러니까 밭벼밭은 어떤 김들이 납니까?)

103044 #1 산디밧디도 기자 잡풀이주게.(밭벼밭도 그저 잡풀이지.)

103044 @ 잡풀.(잡풀.)

103044 #1 으.(으.)

103044 @ 이름은?(이름은?)

103044 #1 이름은 무신 기자 산디밧디도 원 기자 나는 쿨 남주, 원. 겨울 풀도 나고 여름 풀도 제완지, 주로 나는 거 콩쿨이여, 뭐 제완지여, 뭐 ᄉᆞ못 뭐.(이름은 무슨 그저 밭벼밭도 원 그저 나는 풀 나지, 원. 겨울 풀도 나고 여름 풀도 바랭이, 주로 나는 거 개불알풀이다, 뭐 바랭이다, 뭐 사뭇 뭐.)

103044 @ 음.(음.)

103044 #1 비눔쿨이여 기자 잡풀 문 난다게. 아니 나는 거 엇어.(비름이며 그저 잡풀 모두 난다. 안 나는 거 없어.)

103044 @ 음. 산디밧디도예?(음. 밭벼밭도요?)

103044 #1 으, 원 나는 건 다 난다게.(으, 원 나는 건 다 난다.)

103045 @ 예. 산디밧디 검질멧수다예, 검질메 낭 이제 거둬 들이젠 허난.(예. 밭벼밭 김맸습니다, 김매고 나서 이제 거둬 들이려고 하니까.)

103045 #1 거둬 들일 때 비여사 것도.(거둬 들일 때 베어야 것도.)

103045 @ 예, 비여.(예, 베어.)

103045 #1 호미로 비여 놩.(낫으로 베어 놔서.)

103045 @ 으.(으.)

103045 #1 홀타 놩 홀타 놔근에 기자.(홅아 놔서 홅아 놔서 그저.)

103045 @ 몰리지 안 허여?(말리지 않아?)

103045 #1 무사 안 몰려게. 것도 비여 놓민 몰려사주, 놀건 베주게, 베여. 놀건 비민 널엉 몰려사.(왜 안 말려. 것도 베어 놓으면 말려야지. 날것은 무겁지, 무거워. 날것은 베면 널어서 말려야.)

103045 @ 한 이틀 몰려사.(한 이틀 말려야.)

103045 #1 으, 물려사.(으, 말려야.)

103045 @ 경헨 무꺼?(그래서 묶어?)

103045 #1 어, 산딘 무꺼사. 무꺼사 아져 뎅기주게. 그냥 안아 뎅기지 못헌다, 산디는.(어, 밭벼 묶어야. 묶어야 가지고 다니지. 그냥 안아 다니지 못한다, 밭벼는.)

103045 @ 무끌 때는 뭐로 무끕니까?(묶을 때는 뭐로 묶습니까?)

103045 #1 께 혜영 무끄주게. 산디로도 무끈다만은. 잘허는 사름은 산디로도 영 혜영 께 헹 어떵 어떵 허는디 뚠 께 혜사 무끄주. 새 비여다근에.(매끼 해서 묶지. 밭벼로도 묶지만. 잘하는 사람은 밭벼로도 이렇게 해서 매끼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다른 매끼 해야 묶지. 띠 베어다가.)

103045 @ 새 비여당.(띠 베어다가.)

103045 #1 으.(으.)

103045 @ 께 미리 헤 놓는 거라예?(매끼 미리 해 놓는 거지요?)

103045 #1 으. 경혜영 무꺼사주, 저 산디로 무끄젠 허민 어려와.(으. 그렇게 묶어야지, 저 밭벼로 묶으려고 하면 어려워.)

103045 @ 음.(음.)

103045 #1 께 뚜로 헤사주. 산디 무끄젠 허민 께 헹 가사.(매끼 따로 해야지. 밭벼 묶으려고 하면 매끼 해서 가야.)

103045 @ 음.(음.)

103045 #1 뭣이든지 다 께 멘들아 놔사 무끔이 쉽는 거여게. 촐도 헤 보민 우리 께 믄 틀어 놩 무끄는 게 쉽고. 께 틀멍 무끄젠 허민 막 오래고 경게.(뭣이든지 다 매끼 만들어 놔야 묶기가 쉬운 거야. 꼴도 해 보면 우리 매끼 모두 틀어 놓고 묶는 게 쉽고. 매끼 틀면서 묶으려고 하면 아주 오래고 그래.)

103046 @ 게민 이제 산디쏠로는 뭐 헹 먹을 것과?(그럼 이제 밭벼쌀로는 뭐 해서 먹을 겁니까?)

103046 #1 산디쏠로는 옛날에사 먹어 봐시냐?(밭벼쌀로는 옛날에야 먹어 봤니?)

103046 @ 못 먹어 봔?(못 먹어 봤어?)

103046 #1 못 먹엇주게. 제사나 헹 먹고 떡이나 혜영 제서 떡이나 허고. 산디 아무나 경 하영 갈도 안헷어.(못 먹었지. 제사나 해서 먹고 떡이나 해서 제사 떡이나 하고. 밭벼 아무나 그렇게 많이 갈지도 않았어.)

103046 @ 못 헷어.(못 했어.)

103046 #1 우리 밧 엇인 사름은.(우리 밭 없는 사람은.)

103046 @ 으.(으.)

103046 #1 아이고, 스못 흔펜이 조 가는 에염에 흑쏠 갈앗당 제서에나 허곡. 아이고, 보리밥 먹당 산디쏠 하나썩 서끄난 이런 시상이 어디 시렌 헤낫저.(아이고, 사뭇 한편에 조 가는 옆에 조금 갈았다가 제사에나 하고. 아이고, 보리밥 먹다가 밭벼쌀 하나씩 섞으니까 이런 시상이 어디 있을까 했었어.)

103046 @ 하하하.(하하하.)

103046 #1 아니여, 웃을 게 아니고. 그추룩 우리 어려운 시대가 넘어가시네게.(아이야, 웃을 게 아니고. 그처럼 우리 어려운 시대가 넘어갔어.)

103046 @ 예.(예.)

103046 #1 게난 첨 우리 산디쏠이 경 아무상 엇이 경 먹어져시냐?(그러니까 참 우리 밭벼쌀이 그렇게 이유 없이 그렇게 먹을 수 있었냐?)

103046 @ 으.(으.)

103046 #1 하이구, 첨 나룩 잇인 사름은 나룩쏠이나 헷당 먹엇저.(하이고, 참 벼 있는 사람은 벼쌀이나 했다가 먹었어.)

103046 @ 나룩보다 산디가 더 어려운 것과?(벼보다 밭벼가 더 어려운 겁니까?)

103046 #1 아니, 나룩은 논에 나는 거난에, 그건 논에 나는 거난 논 잇인 사름은 나룩 헤 먹엇주만은 산딘게. 나룩도 경허주만은 산딘 갈아근에 ᄉᆞ못 산디도 ᄉᆞ꽈사. ᄉᆞ끄지 안허민 안 뒈난. 줓아도 안 뒈고. 게난 뭣이든지 방수 벌영 ᄉᆞ꽈나사주.(아니, 벼는 논에 나는 거니까, 그건 논에 나는 거니까 논 있는 사람은 벼 해 먹었지만 밭벼. 벼도 그랬지만 밭벼는 갈아서 사뭇 밭벼도 솎아야. 솎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뭣이든지 간격 벌려서 솎아야지.)

103046 @ 아, 산디도 ᄉᆞ꾸는 거?(아, 밭벼도 솎는 거?)

103046 #1 으게. 부뜬 거 잇이민 검질메멍 궂인 거영 메사주게.(으. 붙은 거 있으면 김매면서 궂은 거랑 매야지.)

103046 @ 으, 메 불어야 뒈여.(으, 매 버려야 돼.)

103046 #1 으, 오죽 공드는 거니. 검질메는 것도게. 에고.(으, 오죽 공드는 거니. 김매는 것도. 에고.)

103047 @ 산디찍은 뭐 헐 것과?(밭볏짚은 뭐 할 겁니까?)

103047 #1 산디찍도 쉐 먹곡 ᄆᆞᆯ 먹고 ᄆᆞᆫ딱 헤낫저게. 경헌디 기자 산디찍은 무시거 허느니. 기자 나둠서 무시거 예평 더끔도 허곡, ᄂᆞ람지로 대신 더끔도 허곡. 내불지 안헌다. 산디찍도.(밭볏짚도 소 먹고 말 먹고 모두 했었어. 그런데 그저 밭볏짚은 뭐 하니. 그저 놔두면서 뭐 엮어서 덮기도 하고, 이엉으로 대신 덮기도 하고. 내버리지 않는다. 밭볏짚도.)

103047 @ ᄂᆞ람지 여끌 때 쓰는 거예?(이엉 엮을 때 쓰는 거요?)

103047 #1 으, ᄂᆞ람지도 여껑 그자 아무거라도 더끄곡. 쏙쏙 여꺼근에.(으, 이엉도 엮어서 그저 아무거라도 덮고. 쏙쏙 엮어서.)

103047 @ 으.(으.)

103047 #1 경혜영 더끄고, 메주 ᄃᆞᆯ아메곡 산디찍도게 아무것도 하나 내부는 게 엇나게.(그래서 덮고, 메주 달아매고 밭볏짚도 아무것도 하나 내버리는 게 없어.)

103047 @ 산디찍예?(밭볏짚요?)

103047 #1 으. 내부는 게 엇어.(으. 내버리는 게 없어.)

103048 @ 산디 농사지으멍 생각나는 일 잇수과? 아니?(밭벼 농사지으면서 생각나는 일 없습니까? 아니?)

103048 #1 생각은 무슨 생각을 헤. 기자 놈거치 잇이민 나룩쏠이나 헴시민 허주만은 그 산디 갈 밧도 우린 엇이민 기자 흔펜이 ᄒᆞ쏠 좁아놩 ᄒᆞ꼼 갈고.(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 그저 남같이 있으면 볍쌀이나 하고 있으면 하지만 그 밭벼 갈 밭도 우린 없으면 그저 한편에 조금 집어넣어서 조금 갈고.)

103048 @ 아, 쪼금만.(아, 조금만.)

103048 #1 으, 좁아 놩 ᄒᆞ쏠 갈앗당. 꿰도 메레기[158]에 ᄒᆞ쏠 갈고. 밧이 하사. 놈덜은이 콩 흔 밧 뜨로.(으, 집어 넣고 조금 갈았다가. 깨도 '메레기'에 조금 갈고. 밭이 많아야. 남들은 콩 한 밭 따로.)

103048 @ 음.(음.)

103048 #1 폿밧 뜨로 꿰밧 뜨로 콩밧 뜨로 다 곳곳이 헌다게. 감저밧 뜨로. 우린.(팥밭 따로 깨밭 따로 콩밭 따로 다 곳곳이 한다. 고구마밭 따로. 우린.)

103048 @ 잘사는 사름이주, 그건.(잘사는 사람이지, 그건.)

103048 #1 이제 엇이난에 무시거 옛날에 놈의 밧 무시거허고. 감저도 놈의 밧디 싱거나고. 보리도 놈의 밧디 갈앙 벵작 헤나고.(이제 없으니까 뭐 옛날에 남의 밭 무엇하고. 고구마도 남의 밭에 심었었고. 보리도 남의 밭에 갈아서 병작 했었고.)

103048 @ 으.(으.)

103048 #1 이녁 밧 우리 엇엇저.(자기 밭 우리 없었어.)

고구마농사

103049 @ 예. 이제는 감저 농사 물어보쿠다예. 감저 농사. 감저 농사짓젠 허민 준비헤야 뭴 거 아니? 감저 씨 심엉?(예. 이제는 고구마 농사 물어보겠습니다. 고구마 농사. 고구마 농사지으려고 하면 준비해야 될 거 아니? 고구마 씨 심어서?)

103049 #1 준비헤사주게. 감저 묻엇당. 땅 팡 옛날에 감저 파다근에.(준비해야지. 고구마 묻었다가. 땅 파서 옛날에 고구마 파다가.)

103049 @ 예.(예.)

103049 #1 구뎅이에 묻엇당.(구덩이에 묻었다가.)

103049 @ 묻엇당.(묻었다가.)

103049 #1 묻엇다근에 씨 철 나민 아니 썩은 걸로 허여근에 내청 이제 고랑에 감저 불껑 허영 놔뒁당 불껑 끌아근에 감저 씨 놧당.(묻었다가 씨 철 되면 아니 썩은 걸로 해서 내쳐서 이제 고랑에 고구마 재 해서 놔뒀다가 재 깔아서 고구마 씨 놨다가.)

103049 @ 음.(음.)

103049 #1 꿀 나민 비여당게. 초불 갈앙 감저밧 초불 갈앙 놔둔다. 초불 갈앙 놔뒁당 북삭허렌[159].(덩굴 나면 베어다가. 초벌 갈아서 고구마밭 초벌 갈아서 놔둔다. 초벌 갈아서 놔뒀다가 '북삭하라고'.)

158) '메레기'는 밭의 구석이나 돌담이 쌓여 있는 주변 따위의 공간을 가리킨다.
159) 여기서 '북삭허다'는 땅이 단단하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를 말한다.

103049 @ 으.(으.)

103049 #1 손으로 찔르는 따문. 두불 강 갈주게.(손으로 찌르는 때문. 두벌 가서 갈지.)

103049 @ 으.(으.)

103049 #1 두불 강 갈아 가멍 기자 싱거 가멍. 경헤근에 첨 ᄀᆞ슬 들민 이녁 먹음사 얼마나 먹느니게. 그걸 풀아사 돈이 뒈주. 감저 공장에, 감저 공장 난 땐 감저 공장에 문 시꺼 강 옛날엔 어주엔 마다리로 헤영 흔 마다리에 얼마 행 시꺼 가낫주게.(두벌 가서 갈아 가면서 그저 심어 가면서. 그래서 첨 가을 들면 자기 먹기야 얼마나 먹니. 그걸 팔아야 돈이 되지. 고구마 공장에, 고구마 공장 나온 땐 고구마 공장에 모두 실어 가서 옛날엔 어저귀 마대로 해서 한 마대에 얼마 해서 실어 갔었지.)

103049 @ 음.(음.)

103049 #1 경헤영 풀아시네게. 경 풀앙, 감저 풀앙 ᄉᆞ못 공장에 강 감저 바쪙 살곡.(그래서 팔았어. 그렇게 팔아서, 고구마 팔아서 사뭇 공장에 가서 고구마 바쳐서 살고.)

103049 @ 아니, 감저 허젠 허면 감저로 심는 거 아니잖아예, 씨감저 허는 거잖아예?(아니, 고구마 하려고 하면 고구마로 심는 거 아니잖아요, 씨고구마 하는 거잖아요?)

103049 #1 씨감저 헹 씨 메종 놩게.(씨고구마 해서 씨 모종 놔서.)

103049 @ 메종 놩.(모종 놔서.)

103049 #1 메종 놩 메종 키왕.(모종 놔서 모종 키워서.)

103049 @ 키왕?(키워서?)

103049 #1 이만씩 크민게 끈엉?(이만큼씩 크면 끊어서?)

103049 @ 줄을?(줄을?)

103049 #1 으, 줄을 끈주게. 줄을 끈어당 다시 두불 끈나게.(으, 줄을 끊지. 줄을 끊어다가 다시 두벌 끊어.)

103049 @ 으.(으.)

103049 #1 요만씩 손으로 꺼꺼던 호미로 꺼꺼, 저 그찻던. 경헨 그창 꼭꼭 눌리멍 싱거 감시네게.(요만큼씩 손으로 꺾든 낫으로 꺾어, 저 자르든. 그래서 잘라서 꼭꼭 누르면서 심어 가.)

103050 @ 게메. 이제 감저줄을 비영 왓수다. 그럼 감저줄 놓을 디 밧을 갈아사 뒐 거 아니?(글쎄. 이제 고구마 기는줄기를 베어서 왔습니다. 그럼 고구마 기는줄기를 놓을 데 밭을 갈아야 될 거 아니?)

103050 #1 어게, 갈아사주.(어, 갈아야지.)

103050 @ 밧을 갈면 고랑이랑 이랑이랑 만듭니까?(밭을 갈면 고랑이랑 이랑이랑 만듭니까?)

103050 #1 어게. 겨난 고랑에 상 이렁더레 꼭꼭꼭 찔르멍. 무사 고랑, 이렁 감저

싱글 때사 불라지느냐게. 고랑으로만 뎅겻주.(어. 그러니까 고랑에 서서 이랑에 꼭꼭 찌르면서. 왜 고랑, 이랑 고구마 심을 때야 밟을 수 있니. 고랑으로만 다녔지.)

103050 @ 밑에가, 고랑 우이가 이렁?(밑이, 고랑 위가 이랑?)

103050 #1 으. 이렁, 고랑 경헤낫저게.(으. 이랑, 고랑 그랬었어.)

103050 @ 아.(아.)

103050 #1 이렁이랑 불르지 말아, 경허멍.(이랑이랑 밟지 말아, 그러면서.)

103050 @ 아, 이렁이랑 불르지 말아. 고랑에 사둠수루 이렁에.(아, 이랑이랑 밟지 말아. 고랑에 서 있으면서 이랑에.)

103050 #1 어, 영 고랑에 사둠서 꼭꼭꼭 찔르멍 기자.(어, 이렇게 고랑에 서 있으면서 꼭꼭꼭 찌르면서 그저.)

103050 @ 으.(으.)

103050 #1 그 고랑더레 저 고랑더레. 고랑이엔 헷저. 경허멍 싱것주.(그 고랑에 저 고랑에. 고랑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심었지.)

103050 @ 그 이렁에 감저 싱글 때, 줄 놓을 때 간격은 어만이?(그 이랑에 고구마 심을 때, 줄 놓을 때 간격은 어느만큼?)

103050 #1 간격은 부쩡 싱근다, 우린 옛날에.(간격은 붙여서 심는다, 우린 옛날에.)

103050 @ 아. 부쩡 싱건?(아. 붙여서 심었어?)

103050 #1 으, 떼지 안허영 그자 흔 치썩은 떼겸실 거여.(으, 떼지 않고. 그저 한 치씩은 떼고 있을 거야.)

103050 @ 예.(예.)

103050 #1 연 부청 싱근다.(이어 붙여서 심어.)

103050 @ 게민 이 감저는, 씨감저는 언제 놓는 것과?(그럼 이 고구마는, 씨고구마는 언제 놓는 겁니까?)

103050 #1 씨감저는 저 정월 나민.(씨고구마는 저 정월 되면.)

103050 @ 정월 나민.(정월 되면.)

103050 #1 으.(으.)

103050 @ 이제 줄 걷엉 진짜 감저 놓는 건 언제라?(이제 줄 걷어서 진짜 고구마 놓는 건 언제야?)

103050 #1 감저 놓는 거는 그 꿀 크는 양게 기자 유월절[160], 옛날 어른덜은 유월절 전이만 싱그민 뒈여, 싱그민 뒈여 헌다게.(고구마 놓는 거는 그 덩굴이 크는 대로 그저 '유월절', 옛날 어른들은 유월절 전에만 심으면 돼, 심으면 된다고 한다.)

103050 @ 으.(으.)

103050 #1 경헨 유월절 전이 싱근 건 ᄀᆞ물아도 아니 죽고.(그래서 유월절 전에 심은 건 가물어도 안 죽고.)

103050 @ 예.(예.)

160) '유월절'은 24절기 중 소서 전후를 말한다.

103050 #1 유월절 넘엉 싱근 건 ᄀᆞ물민 죽곡 헌덴 ᄀᆞᆯ아낫저게. 경헨 헤신디 이젠 감저도 유월절 안 거느렁 그자 꿀만 크민 이젠 싱그는디 옛날은 꿀을 키와사 하영 싱그주게.(유월절 넘어서 심은 건 가물면 죽고 한다고 말했었어.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고구마도 '유월절' 안 거느려서 그저 덩굴만 크면 이젠 심는데 옛날은 덩굴을 키워야 많이 심지.)

103050 @ 으.(으.)

103050 #1 꿀을 막 키와사 멧 도막이 끈어사.(덩굴을 많이 키워야 몇 도막을 끊어야.)

103050 @ 음.(음.)

103050 #1 경헤사 멧 말지기 감저 싱경 영 영 ᄀᆞᆯ앗주. 경 이제거치 먹을 거 ᄒᆞ썰썩 헐 때민 허주만은 옛날은 감저쿨 막 키왓저게. 이만헌.(그래야 몇 마지기 고구마 심어서 이렇게 이렇게 말했지. 그렇게 이제처럼 먹을 거 조금씩 할 때면 하지만 옛날은 고구마 기는줄기 많이 키웠었어. 이만한.)

103050 @ 음.(음.)

103050 #1 경헨 키왕 비엉 또 두불 손으로 이제 기치나 손으로 기치민 손 아프민 호미 영 세왕 똑똑 끈어근에 기자.(그렇게 키워서 베어서 또 두벌 손으로 이제 자르거나 손으로 자르면 손 아프면 낫 이렇게 세워서 똑똑 끊어서 그저.)

103050 @ 질게 그친 걸 한번 더 끈친다는 얘기?(길게 자른 걸 한번 더 자른다는 얘기?)

103050 #1 응, 영 썹 서너 개썩 놘에 끈엉. 경헤근에 그자 싱경 허민 첨 ᄒᆞᆫ 오월, 오월덜 나민 싱거야주.(응, 이렇게 잎 서너 개씩 놓아서 끊어서. 그래서 그저 심어서 하면 참 한 오월, 오월 되면 심어야지.)

103050 @ 게난.(그러니까.)

103050 #1 음력 오월덜.(음력 오월.)

103050 @ 정월덜에 싱경 오월.(정월에 심어서 오월.)

103050 #1 정월, 그자 정월, 이월에 싱거야. 메종 놔야.(정월, 그저 정월, 이월에 심어야. 모종 놔야.)

103050 @ 게민 대게 오래 키우는 거우다예?(그럼 아주 오래 키우는 거네요?)

103050 #1 으, 오래 키와산다게. 오래 키와야 헌다게. 이제 정월에, 넘은덜 정월에덜 감저 메덜 놧주. 이녁 먹을 거라도.(으, 오래 키워야 한다. 오래 키워야 한다. 이제 정월에, 지난달 정월에들 고구마 모종들 놨지. 자기 먹을 거라도.)

103050 @ 예, 예.(예, 예.)

103050 #1 놔신디 지금 ᄒᆞᆫ 조리썩 난 사름 잇고 안 난 사름 잇고.(놨는데 지금 한 집게뼘씩 난 사람 있고 안 난 사람 있고.)

103050 @ 아.(아.)

103050 #1 경허난 이제 앞으로 두어 덜 잇어사주. 막 오래 키운다, 건.(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두어 달 있어야지. 아주 오래 키운다, 건.)

103050 @ 긴게?(그렇네?)

103051 #1 으, 길게 키우젠 허민. 경헨 키와사.(으, 길게 키우려고 하면. 그렇게 키워야.)

103051 @ 게민.(그럼.)

103051 #1 옛날은 문 오줌 주멍. 문 오줌 지어당 주멍 감저꿀 제기 키우젠.(옛날은 모두 오줌 주면서. 모두 오줌 지어다가 주면서 고구마 기는줄기 재게 키우려고.)

103051 @ 아, 게민 묘종 났을 때 오줌을 주는 거라?(아, 그럼 모종 났을 때 오줌을 주는 거야?)

103051 #1 어. 커 가민. 비료도 주곡.(어. 커 가면. 비료도 주고.)

103051 @ 비료로 주고. 게민 그 감저를 심을 때, 묘종 말고 감저를 썹 헤당 심을 땐 거름 안 헙니까?(비료도 주고. 그럼 그 고구마를 심을 때, 모종 말고 고구마를 잎 해다가 심을 땐 거름 안 합니까?)

103051 #1 무사 안 헤게.(왜 안 해.)

103051 @ 으, 무슨 거름 헤?(으, 무슨 거름 해?)

103051 #1 하이고, 옛날은 엇으믄 그 밧을 초불 갈주게.(하이고, 옛날은 없으면 그 밭을 초벌 갈지.)

103051 @ 예.(예.)

103051 #1 초불 갈앙 두불 갈 때는 그 고랑더레.(초벌 갈아서 두벌 갈 때는 그 고랑에.)

103051 @ 예.(예.)

103051 #1 고랑더레 그 걸름을 이제 보리찍을 끄나 물망을 끄나 아무 걸름이라도 고랑더레 놔 놩 일로 올리고 절로 올리고 밧을 갈민 그것이 이렁 뒈는 거.(고랑에 그 거름을 이제 보릿짚을 깔거나 모자반을 깔거나 아무 거름이라도 고랑에 놔 놓고 이리로 올리고 저리로 올리고 밭을 갈면 그것이 이랑 되는 거.)

103052 @ 이렁 뒈는 거.(이랑 되는 거.)

103052 #1 어, 이렁 뒈는 거. 경헨 놩 감저 심으민 잘 들주.(어, 이랑 되는 거. 그래서 놔서 고구마 심으면 잘 들지.)

103052 @ 아.(아.)

103052 #1 고사리도 술민 고랑더레 강 졸졸졸졸 놔근에 일로 갈아가고 절로 갈아오곡 허면은 이렁이 뒈는 거.(고사리도 사르면 고랑에 가서 졸졸졸졸 놔서 이리로 갈아가고 저리로 갈아오고 하면 이랑이 되는 거.)

103052 @ 아.(아.)

103052 #1 하하하. 경헨 우리 감저 싱것저.(하하하. 그렇게 우리 고구마 심었어.)

103052 @ 게난 게난 그거 초불은?(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초벌은?)

103052 #1 초불은 갈앙 놧당.(초벌은 갈아서 놨다가.)

103052 @ 놧당 얼마 전에예?(놨다가 얼마 전에요?)

103052 #1 어게. 감저 싱글 때 뒈 가민 밧 초불 갈앗당 두불 갈 땐 걸름 강 놓

멍.(어. 고구마 심을 때 돼 가면 밭 초벌 갈았다가 두벌 갈 때는 거름 가서 놓으면서.)

103052 @ 걸름 놩 갈앙 톡톡톡 심는 거?(거름 놔서 갈아서 톡톡톡 심는 거?)

103052 #1 으. 감저 싱거. 경허는 거.(으. 고구마 심어서. 그러는 거.)

103053 @ 예. 감저밧디도 검질멥니까?(예. 고구마밭도 김맵니까?)

103053 #1 아고, 메곡말곡. 메곡말곡 아고, 감저밧디도 두어 불 메사.(아이고, 매고말고. 매고말고. 아이고, 고구마밭도 두어 벌 매야.)

103053 @ 두어 불 메사.(두어 벌 매야.)

103053 #1 감저꼴 낭 막 더꺼져 분 후제는.(고구마 기는줄기 나서 마구 덮혀 버린 후에는.)

103053 @ 으.(으.)

103053 #1 느 고랑 나 고랑 엇이 막 더꺼져 분 후제는 기자 우이 나온 것만 뽑는디 그것 영 거들거들[161] 날 때, 검질이 고랑에 난다게. 막 짓어. 경허민 메여사.(너 고랑 나 고랑 없이 마구 덮여 버린 후에는 그저 위에 나온 것만 뽑는데 그것 이렇게 '거들거들' 났을 때, 김이 고랑에 난다. 아주 무성해. 그럼 매어야.)

103054 @ 메여사예.(매어야요.)

103054 #1 메여사.(매어야.)

103054 @ 감저밧딘 어떤 검질 나는 거라?(고구마밭에는 어떤 김 나는 거야?)

103054 #1 어떤 검질 나 감저밧디도 기자 비눔쿨도 나고 제완지도 나고 쒜비눔도 나고 그자 ᄀᆞ튼 거여. 검질 일름은.(어떤 김이 나 고구마밭도 그저 비름도 나고 바랭이도 나고 쇠비름도 나고 그저 같은 거야. 김 이름은.)

103054 @ 여름에?(여름에?)

103054 #1 어, 여름 검질 기자. 주로 기자 원 제완지, 비눔쿨, 쒜비눔. 쒜비눔 잇는 밧은, 쒜비눔은 죽지 안허는 거여. 삼 년 ᄀᆞ물아도 산덴 허는 거, 쒜비눔이엔 헌 건. 경허민 우린 그 쒜비눔이엔 헌 거 박박 팡 메영 묻고 밧 바깟더레 내치고 경헤 낫저.(어, 여름 김 그저. 주로 그저 원 바랭이, 비름, 쇠비름. 쇠비름 있는 밭은, 쇠비름은 죽지 않는 거야. 삼 년 가물어도 산다고 하는 거, 쇠비름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우린 그 쇠비름이라고 하는 거 박박 파서 매어서 묻고 밭 밖으로 내치고 그랬었어.)

103054 @ 예.(예.)

103054 #1 죽지 안허는 따문에. 고롬쿨허고. 고롬쿨도 경 안 죽는 거.(죽지 않는 때문에. 땅빈대하고. 땅빈대도 그렇게 안 죽는 거.)

103054 @ 고롬쿨?(땅빈대?)

103054 #1 어. 고롬쿨도 잇저. 고롬쿨이엔 헌 거허고 쒜비눔이엔 헌 거는 삼 년 ᄀᆞ물아도 안 죽는 거.(어. 땅빈대도 있어. 땅빈대라고 하는 거하고 쇠비름이라고 하는 거는 삼 년 가물어도 안 죽는 거.)

161) '거들거들'은 풀 따위가 삐죽삐죽 올라온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3054 @ 으.(으.)

103054 #1 벳이 나도.(볕이 나도.)

103054 @ 제완지도 잘 안 죽지 안헙니까?(바랭이도 잘 안 죽지 않습니까?)

103054 #1 아이, 제완지는 벳만 나민 죽곡.(아니, 바랭이는 볕만 나면 죽고.)

103054 @ 아.(아.)

103054 #1 제완진 상관엇고. 안 죽는 풀이 고롬쿨, 쒜비눔. 그거 안 죽나게.(바랭이는 상관없고. 안 죽는 풀이 땅빈대, 쇠비름. 그거 안 죽어.)

103054 @ 안 죽는 거예.(안 죽는 거요.)

103054 #1 으. 거 원 생전 안 죽나. 게난 그런 건 그자 모도앗당 우리 시간 난 때엔 이젠 비료 포덜 나난이 나 낭밧디도 강 데며진다. 그자 쒜비눔 파민 그자 비료 줘난 푸대레 기자 꽉 담앙 꽉 거꾸로 세왕 내불민 문짝 썩어. 경헨 쎅여 분다게. 경헨 죽여 불어진다게. 그냥 메여 놩은 안 뒈여.(으, 거 원 생전 안 죽어. 그러니까 그런 건 그저 모았다가 우리 시간 났을 때에는 비료 포들 나오니까 나 나무밭에도 가서 쟁이게 돼. 그저 쇠비름 파면 그저 비료 줬던 포대에 그저 꽉 담아서 꽉 거꾸로 세워서 내버리면 푹 썩어. 그렇게 썩혀 버린다. 그렇게 죽여 버린다. 그냥 매어 놔서는 안 돼.)

103054 @ 아, 안 죽어?(아, 안 죽어?)

103054 #1 안 죽어, 안 죽어. 쒜비눔광 그 고롬쿨은 안 죽나.(안 죽어, 안 죽어. 쇠비름과 그 땅빈대는 안 죽어.)

103055 @ 그 그럼 정월덜에 씨감자 놩 오월덜에 감자줄을 심엇잖아예. 파는 건 언제 팝니까? 감자 수확하는 거?(그 그럼 정월에 씨고구마 놔서 오월에 고구마 기는줄기를 심었잖아요. 파는 건 언제 팝니까? 고구마 수확하는 거?)

103055 #1 시월.(시월.)

103055 @ 아, 시월달.(아, 시월.)

103055 #1 으. 상강 일, 상강 일 헌다, 또.(으. 상강 일, 상강 일 한다, 또.)

103055 @ 으.(으.)

103055 #1 상강 일 전에 이제 판 감자는 씨 놔둬도 안 썩고 상강일 넘으민 씨 놔두민 썩넨 허멍 옛날 어른덜 곧나. 상강 일 넘어가민 감저꿀이 ᄒᆞ쏠 가뭇가뭇 허주. 서리 ᄂᆞ령.(상강 일 전에 이제 판 고구마는 씨 놔둬도 안 썩고 상강 일 넘으면 씨 놔두면 썩는다고 하면서 옛날 어른들 말해. 상강일 넘어가면 고구마 기는줄기가 조금 가뭇가뭇 하지. 서리 내려서.)

103055 @ 서리 내령.(서리 내려서.)

103055 #1 으, 경허난 뒐 수 잇이민 상강 일 그자 닥쳐 가민덜 아이고, 감저 파베사, 감저 파베사 헤낫저게.(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상강 일 그저 닥쳐 가면들 아이고, 고구마 파야, 고구마 파야 했었어.)

103055 @ 감저 파젠 허민 어떵 팝니까?(고구마 파려고 하면 어떻게 팝니까?)

103055 #1 거 골겡이로 파주게.(거 호미로 파지.)

103055 @ 아니, 줄을 먼저 걷어야.(아니, 줄을 먼저 걷어야.)

103055 #1 어게. 줄 걷엉게. 호미 앚앙 강 장남, 아이고, 우리 거튼 거 걷지도 못헌다. 장남 혜영 강 걷어사주게. 경 헹 줄 문 걷어 놔근에 골겡이로 파주게.(어. 줄 걷어서. 낫 가지고 가서 장정, 아이고, 우리 같은 거 걷지도 못한다. 장정 해서 가서 걷어야지. 그렇게 해서 줄 모두 걷어 놔서 호미로 파지.)

103055 @ 으, 줄 문 걷어 놩 골겡이로.(으, 줄 모두 걷어 놔서 호미로.)

103055 #1 으. 옛날엔 쉐로도. 하영 헌 사름덜은 쉐로 갈앙 줏어낫저만은. 쉐로 갈앙 카져 불고.(으. 옛날엔 소로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소로 갈아서 주었었지만. 소로 갈아서 까여 버리고.)

103055 @ 그지예. 감저 카져 불민 안 뒐 거 아니?(그렇지요. 고구마 까여 버리면 안 될 거 아니?)

103055 #1 으, 경허난 골겡이로. 주로 골겡이로 파서.(으, 그러니까 호미로. 주로 호미로 파서.)

103056 @ 이제 감저 보관은 어떵 헐 거라?(이제 고구마 보관은 어떻게 할 거야?)

103056 #1 보관은 옛날은 땅 팡 묻어시네게.(보관은 옛날은 땅 파서 묻었어.)

103056 @ 으.(으.)

103056 #1 것벳긴 못 혜여.(것밖엔 못 해.)

103056 @ 게니까 감저눌[162] 눌어난 거 아니? 땅 팡?(그러니까 '감저눌' 가렸던 거 아니? 땅 파서?)

103056 #1 땅 파근에 보리찍이든 나룩찍이든 그자 새던 빙 허게 검질 아래 끌고 돌아가멍 끌아 놩 감저 비우주게.(땅 파서 보릿짚이든 볏짚이든 그저 띠든 빙 하게 검불 아래 깔고 돌아가면서 깔아 놓고 고구마 붓지.)

103056 @ 으.(으.)

103056 #1 감저 비와근에 검질을 톡 더꺼.(고구마 부어서 검불을 톡 덮어.)

103056 @ 으.(으.)

103056 #1 ᄂᆞ람지거치. 원 감저레 흑 안 들게 헤야주게.(이엉같이. 원 고구마에 흙 안 들게 해야지.)

103056 @ 안 들게.(안 들게.)

103056 #1 흑 들엉은 안 뒈주게. 게난 흑 안 들게 헤여근에 돌아가멍 혜영 주젱이 채왕, 주젱이엔 허믄 느 알아지크냐?(흙 들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흙 안 들게 해서 돌아가면서 해서 주저리 채워서, 주저리라고 하면 너 알겠니?)

103056 @ 예, 예. 공기 통허게 우에.(예, 예. 공기 통하게 위에.)

103056 #1 주젱이 채왕 톡 더끄주게.(주저리 채워서 톡 덮지.)

103056 @ 예.(예.)

103056 #1 경헨 더껏다근에 그게 잘 뒈민 ᄒᆞ나도 안 썩는 해가 있곡.(그렇게 덮

162) '감저눌'은 겨울 동안 고구마를 보관하기 위해 땅을 파서 짚을 깔고 고구마를 쌓은 놓은 더미를 말한다.

었다가 그게 잘 되면 하나도 안 썩는 해가 있고.)

103056 @ 으.(으.)

103056 #1 잇당 ᄒᆞ썰 썩는 해가 있곡 헌다게. 경헨 그축 보관헹 먹엄주. 감저 아래 놩 먹어지느냐게?(있다가 조금 썩는 해가 있고 한다. 그래서 그처럼 보관해서 먹고 있지. 고구마 아래 놔서 먹을 수 있니?)

103056 @ 으, 게난 경헨 보관, 주젱이 씨왕 보관을 헷잖아예. 경헨 중간중간에 감저 꺼냉 먹기도 헐 거 아니?(으, 그러니까 그렇게 보관, 주저리 씌워서 보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고구마 꺼내서 먹기도 할 거 아니?)

103056 #1 꺼내 먹기도 허주게.(꺼내 먹기도 하지.)

103056 @ 으, 어떵?(으, 어떻게?)

103056 #1 ᄒᆞᆫ펜으로.(한편으로.)

103056 @ 으, ᄒᆞᆫ펜으로.(으, 한편으로.)

103057 #1 경허민 씨감저, 씨감저 허멍 감저 구뎅일 옛날은 ᄒᆞ나만 허느냐게. ᄉᆞ못 감저로 우리 때 살 때난.(그러면 씨고구마, 씨고구마 하면서 고구마 구덩이를 옛날은 하나만 하니. 사뭇 고구마로 우리 때 살 때니까.)

103057 @ 예.(예.)

103057 #1 이제 밥에 놧든 감자 청, 우린 게나제나 조반헹 먹으민 낮이 감저 청원 주로 점심을 살앗주게, 옛날엔. 경허민 첨 놀러 오라도 대접이 감저고. 경허민 먹을 그 먹을 감저는 씨감저에 ᄀᆞ치 안 묻어. 씨감전 뜨로 묻주.(이제 밥에 놨든지 감자를 쳐서, 우린 그러나저러나 조반해서 먹으면 낮에 고구마 쪄서 원 주로 점심을 살았지, 옛날에는. 그러면 참 놀러 와도 대접이 고구마고. 그러면 먹을 그 먹을 고구마는 씨고구마에 같이 안 묻어. 씨고구마는 따로 묻지.)

103057 @ 으.(으.)

103057 #1 뜨로 묻어낫저, 우린. 경헨에 두 밧디 구뎅이 파근에 뜨로. 감저 한 집이덜은 멧 구뎅이덜 묻어낫저만은 기자 일 년 얼마 허민 먹주 허연 헤 뒁 남은 건 풀아나신게. 겐 풀앙 돈 사사 살주. 감저 싱경 주로 기자. 감저 공장 생긴 후젠 감저 풀앙 살앗주.(따로 묻었었어, 우린. 그래서 두 군데 구덩이 파서 따로. 고구마 많은 집에들은 몇 구덩이들 묻었었지만 그저 일 년 얼마 하면 먹지 해서 해 두고 남은 건 팔았었어. 그래서 팔아서 돈 사야 살지. 고구마 심어서 주로 그저. 고구마 공장 생긴 후에 고구마 팔아서 살았지.)

103057 @ 게난 감저 공장이 언제 생긴 것과? 한 삼춘 멧 살 때쯤? 시집왕?(그러니까 고구마 공장이 언제 생긴 겁니까? 한 삼촌 몇 살 때쯤? 시집와서?)

103057 #1 어게. 시집온 후제, 시집온 후제 생겻주.(어. 시집온 후에, 시집온 후에 생겼지.)

103057 @ 으.(으.)

103057 #1 이거 멧 십 년 뒈신고? 원 감저 공장 생긴 지가 원.(이거 몇 십 년 되었지? 원 고구마 공장 생긴 지가 원.)

103057 @ 시집왕 큰아이.(시집와서 큰아이.)

103057 #1 나 스물하나 나는 해에 시집왓저게.(나 스물하나 나는 해에 시집왔어.)

103057 @ 예.(예.)

103057 #1 경헌디 이거 으든하나난에 그때에가 시집온 후제가 감저 공장 생긴 거라.(그런데 이거 여든하나니까 그때에 시집온 후에 고구마 공장 생긴 거야.)

103057 @ 아.(아.)

103057 #1 시집옴 전에는 감저 공장 말 들어보도 안허고. 경헌디 원, 이 무죽시[163],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이 서귀포 무죽시 생겨낫주.(시집오기 전에는 고구마 공장 말 들어보지도 않고. 그런데 원, 이 '무죽시',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이 서귀포 '무죽시' 생겨났지.)

103057 @ 예.(예.)

103057 #1 경헤연 우리 그디 풀레 뎅겨나신디 글후제는 그자 생효[164]도 잇저, 어디도 잇저, 공천포[165]도 잇저. 감저 공장이 드러 하영 생겻저게.(그래서 우리 거기 팔러 다녔었는데 그 후에는 그저 상효도 있어, 어디도 있어, '공천포'도 있어. 고구마 공장이 들이 많이 생겼어.)

103057 @ 음.(음.)

103057 #1 생경 첨, 이 미깡낭 남 시작허난 엇어져 베시녜게.(생겨서 참, 이 밀감나무 나기 시작하니까 없어져 버렸어.)

103057 @ 감저 농서덜 안 지으난.(고구마 농사들 안 지으니까.)

103057 #1 으, 미깡낭 싱거 가난게.(으, 밀감나무 심어 가니까.)

103057 @ 게난 미깡낭 막 싱근 건 육십 년대 뒈서라예?(그러니까 밀감나무 많이 심은 건 육십 년대 돼서지요?)

103057 #1 으.(으.)

103057 @ 그전에면 감저 공장 생긴 거는 삼춘 멧 살쯤인 거 같수과?(그전에면 고구마 공장 생긴 거는 삼촌 몇 살쯤인 거 같습니까?)

103057 #1 혼 서른.(한 서른.)

103057 @ 서른?(서른?)

103057 #1 그자 그, 스물 댓.(그저 그, 스물 댓.)

103057 @ 댓서부터?(댓부터?)

103057 #1 스물댓부터 감자 공장 생긴 것도 닮다.(스물댓부터 고구마 공장 생긴 것도 같다.)

103057 @ 예. 시집왕 혼 삼, 사 년 시난.(예. 시집와서 한 삼, 사 년 있으니까.)

103057 #1 으, 으.(으, 으.)

103057 @ 거기에 강 풀아난 거?(거기에 가서 팔았던 거?)

---

163) '무죽시'는 서귀포시 정방동의 지경 이름이다.

164) '생효'는 서귀포시 상효동을 말한다.

165) '공천포'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2리를 말한다.

103057 #1 으, 풀아난 기억.(으, 팔았던 기억.)

103057 @ 어쨌든 감저는 헹 씨감저 허고 청도 먹고.(어쨌든 고구마 해서 씨고구마 하고 쪄서도 먹고.)

103057 #1 또 뻿데기 헤시네게.(또 절간고구마 했어.)

103057 @ 뻿데기.(절간고구마.)

103057 #1 뻿데기 헤근에, 아이구, 것도 기계 엇이믄 놈의 집이 강 빌엉을 허엿던 무시걸 허엿던 그거 문 헹 허믄이, 그 감저 뻿데기 문 하나 하나 하나 문 납작납작허게 헹 널엇단 그거 이제 물르믄 골앙.(절간고구마 해서, 아이고, 것도 기계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빌려서 했든 뭐 했든 그거 모두 해서 하면, 그 고구마 절간고구마 모두 하나 하나 하나 모두 납작납작하게 해서 널었다가 그거 이제 마르면 갈아서.)

103057 @ 음.(음.)

103057 #1 골앙 감저 오메기[166].(갈아서 고구마 '오메기'.)

103057 @ 감저 오메기?(고구마 '오메기')

103057 #1 감저 떡.(고구마 떡.)

103057 @ 아.(아.)

103057 #1 까망. 이젠 그거 맛 졸 거여. 옛날은이 든 거 엇이난 그냥 헹 먹어시네게. 무시거 사끄렝이나 약간 놓곡 헹, 헹 먹엇주만은. 이젠 거 감저 오메기 맛졸 거라. 그거 헤영 널엇당 감저 오메기 헹 먹고 범벅도 헹 먹고 또 뻿데기로 청 먹곡.(까매. 이젠 그거 맛 좋을 거야. 옛날은 단 거 없으니까 그냥 해서 먹었어. 뭐 사카린이나 약간 넣고 해서, 해서 먹었지만. 이젠 거 고구마 '오메기' 맛 좋을 거야. 그거 해서 널었다가 고구마 '오메기' 해서 먹고 범벅도 해서 먹고 또 절간고구마로 쪄서 먹고.)

103057 @ 아.(아.)

103057 #1 뻿데기로 기자 물 컷당 청 먹고. 경헨, 경헷주. 점심으로 그냥.(절간고구마로 그저 물 담갔다가 쪄서 먹고. 그렇게, 그랬지. 점심으로 그냥.)

103057 @ 점심으로. 게민 뻿데기는 감저눌[167] 눌엇당 뻿데기를 만드는 거 아니면 수확헹?(점심으로. 그럼 절간고구마는 '감저눌' 가렸다가 절간고구마를 만드는 거 아니면 수확해서?)

103057 #1 ᄀᆞ슬리.(가을에.)

103057 @ ᄀᆞ슬에.(가을에.)

103057 #1 으, ᄀᆞ슬리 건 썰엉. 눌엇당 썰진 안헌다.(으, 가을에 건 썰어서. 가렸다가 썰진 않는다.)

103057 @ 그냥 수확헐 때예?(그냥 수확할 때요?)

103057 #1 으, 수확헐 때 ᄀᆞ슬리, ᄀᆞ슬 벳디 물려사주.(으, 수확할 때 가을에, 가

166) '오메기'는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오메기떡'이라고도 한다.

167) '감저눌'은 겨울 동안 고구마를 보관하기 위해 땅을 파서 짚을 깔고 고구마를 쌓은 놓은 더미를 말한다.

을 볕에 말려야지.)

103057 @ 몰려사.(말려야.)

103057 #1 으, 눌엇당은 겨울 들어 불믄 몰리지 못허주게. ᄀᆞ슬 파멍, 파멍 기자 뻿데기 헐 거는 문저 기자 골아, 썰어.(으, 가렸다가 겨울 들어 버리면 말리지 못하지. 가을 파면서, 파면서 그저 절간고구마 할 거는 먼저 그저 갈아, 썰어.)

103057 @ 으.(으.)

103057 #1 하영 안 허는 사름은 ᄒᆞ쏠 시쳥도 허곡. 하영 허는 사름은 파멍 기냥 골앙 기자 흑더레도 널엉 먹을 때 시쳐도 뒈고, 경헤낫저게. 경허난 감저 뻿데기덜 집집마다 헤낫저.(많이 안 하는 사람은 조금 씻어서도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파면서 그냥 갈아서 그저 흙에도 널어서 먹을 때 씻어도 되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고구마 절간고구마들 집집마다 했었어.)

103057 @ 게난 감저 뻿데기는 헹 먹기만 헷수과? 그것도 풀기도 헷수과?(그러니까 고구마 절간고구마는 해서 먹기만 했습니까? 그것도 팔기도 했습니까?)

103057 #1 풀아보진 안헷저. 뻿데기.(팔아보진 않았어. 절간고구마.)

103057 @ 아, 먹는 거로.(아, 먹는 거로.)

103057 #1 기자 오메기떡[168], 골앙 오메기 떡 헹 먹곡, 기자 놔둠서 쳥 먹곡.(그저 '오메기떡', 갈아서 '오메기떡' 해서 먹고, 그저 놔두면서 쪄서 먹고.)

103057 @으.(으.)

103057 #1 감저 뻿데기.(고구마 절간고구마.)

103057 @ 감저 뻿데기로 오메기떡 허민 조로 만든 것보단 돌 것 같다예, 맛이 돌아?(고구마 절간고구마로 '오메기떡' 하면 조로 만든 것보단 달 것 같아요, 맛이 달아?)

103057 #1 히린조 오메기가 맛 좋주게, 아멩헤도.(차조 '오메기'가 맛 좋지, 아무래도.)

103057 @ 아, 조 오메기가 맛있어?(아, 조 '오메기'가 맛있어?)

103057 #1 어, 히린조 오메기가 활썩 맛 좋주. 감저 오메기는 식으민 어느 것도 쾅쾅허주만은 식으민 이게 팽팽허고 감저떡보단은 아멩헤도 조 오메기가 출지고 좋주게.(어, 차조 '오메기'가 훨씬 맛 좋지. 고구마 '오메기'는 식으면 어느 것도 딴딴하지만 식으면 이게 팽팽하고 고구마떡보다는 아무래도 조 '오메기'가 찰지고 좋지.)

103057 @ 어.(어.)

103057 #1 더운 때쯤이사 조 오메기 오죽 좋느냐게. 솖으멍사라사 완전 좋주게.(더운 때쯤이야 조 '오메기' 얼마나 좋니. 삶으면서라야 완전 좋지.)

103057 @ 아, 조 오메기가.(아, 조 '오메기'가.)

---

168) '오메기떡'는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오메기'라고도 한다. 제보자는 '오메기'을 좁쌀가루만이 아니고 고구마가루로도 만들었다고 한다. 고구마가루로 만든 것을 '감저 오메기', 좁쌀가루로 만든 것을 '조 오메기'라 부르고 있다.

103057 #1 난 첨 이제도, 난 이거 요자기ᄁᆞ장 히린조 오메기 히린좁썰 사당, 사다근에 클방에 강 물 컷당 ᄀᆞᆯ아당 오메기 헤근에 문닥문닥헤근에[169] 오합주[170] 헐 때.(난 참 이제도, 난 이거 요사이까지 차조 '오메기' 차조 사다가, 사다가 정미소 가서 물 담갔다가 갈아다가 '오메기' 해서 '문닥문닥해서' '오합주' 할 때.)

103057 @ 오합주?('오합주'?)

103057 #1 으, 오합주 헐 때 계란 멧 개, 꿀 혼 뒈 이제 저 츰지름 혼 뒈.(으, '오합주' 할 때 계란 몇 개, 꿀 한 되 이제 저 참기름 한 되.)

103057 @ 으.(으.)

103057 #1 그 계란 경헨 까 놔근에 그자 오메기 문닥문닥헤영. 경허민 누룩 놓곡 오합주난게 다섯 가지 놔근에 막 맛 좋아.(그 계란 그렇게 까 넣어서 그저 '오메기' '문닥문닥해서'. 그러면 누룩 넣고 '오합주'니까 다섯 가지 넣어서 아주 맛 좋아.)

103057 @ 아고.(아이고.)

103057 #1 ᄉᆞ못 오합주엔 허민 게난 우리 하르방[171], 옛날엔 오합주도 헹 줘라만은 이젠.(사뭇 '오합주'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옛날엔 '오합주'도 해서 주더라만 이젠.)

103057 @ 하하하.(하하하.)

103057 #1 오합주도 안 헹 줨젠 허멍. 막 맛 좋아. 잘도 맛 좋아.('오합주'도 안 해 준다고 하면서. 아주 맛 좋아. 매우 맛 좋아.)

103057 @ 아.(아.)

103057 #1 첨, 얼마나 맛 좋카 부덴 거.(참, 얼마나 맛 좋을까 봐 거.)

103057 @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103057 #1 나 첨 망뎅기[172] 사다 놓곡 헨 헤낫저만은 난 움직거리기 실프난 걸 안 헴주. 그거, 그거만이헌 거 엇나게.(게을러서 안 하니까 거지. 나 참 '망뎅기' 사다 놓고 해서 했었지만 난 움직거리기 싫으니까 걸 안 하고 있지. 그거, 그거만한 거 없어.)

103057 @ 으.(으.)

103057 #1 경헹 우리 하르방 보기도 헤낫저게. 경헨 헤신디. 오죽 맛 좋아.(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보기도 했었어. 그래서 했는데. 얼마나 맛 좋아.)

103057 @ 으.(으.)

103057 #1 그 오메기 허민 솖지 못허영 대썹 끈어당 솟창에 ᄀᆞᆯ앙. 솟창에 ᄀᆞᆯ아근에 오메기 톡톡톡톡 놔둠서 그자 그 대썹으로 뱅허게 젓으민 솟창에 안 눌엉 좋나.(그 '오메기' 하면 삶지 못해서 댓잎 끊어다가 솥 바닥에 깔아서. 솥바닥에 깔아서 '오메기' 톡톡톡톡 놔두면서 그저 그 댓잎으로 뱅하게 저으면 솥 바닥에 안 눌어

169) '문닥문닥허다'는 반죽이나 떡 따위가 물렁물렁한 모양을 나타낸다.
170) '오합주'는 청주, 달걀, 참기름, 꿀, 생강 등 다섯 가지를 혼합하여 발효시킨 제주의 전통 민속주를 말한다.
171)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172) '망데기'는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를 말한다.

서 좋아.)

103057 @ 아, 예, 예.(아, 예, 예.)

103057 #1 그냥은 들이치민 솟창에 부떠 불주게. 경헨 기자 대썹 끌아근에 오메기 만들앙 톡톡 놓민 기자 대썹으로 헤영, 오죽 ᄃᆞ느냐, 조 오메기. 기자 게난 이제도 잘허는 사름은 히린좁썰 헤당 속떡도 헴시네게.(그냥은 들어뜨리면 솥 바닥에 붙어 버리지. 그래서 그저 댓잎 깔아서 '오메기' 만들어서 톡톡 넣으면 그저 댓잎으로 해서, 오죽 다니, 조 '오메기'. 그저 그러니까 이제도 잘하는 사람은 차조 해다가 쑥떡도 하고 있어.)

103057 @ 으.(으.)

103057 #1 히린좁썰 놩.(차조 넣어서.)

103057 @ 게난 그거는.(그러니까 그거는.)

103057 #1 찹쌀로 안 허영.(찹쌀로 안 해서.)

103058 @ 감저는 경헹 먹곡, 오메기도 헹 먹곡 허는디 줄기는 뭐 헙니까? 감저줄기.(고구마는 그렇게 먹고, '오메기'도 해서 먹고 하는데 줄기는 뭐 합니까? 고구마덩굴.)

103058 #1 감저줄기사게 그거 밧디 놩 ᄆᆞᆯ류왕 쉐, ᄆᆞ쉬.(고구마덩굴야 그거 밭에 놔서 말려서 소, 마소.)

103058 @ 쉐, ᄆᆞ쉬.(소, 마소.)

103058 #1 으.(으.)

103058 @ 먹이로 주는 거?(먹이로 주는 거?)

103058 #1 으, 집이 앗당 문 감저꿀도 눌어낫저. ᄆᆞᆯ린 거.(으, 집에 가져다가 모두 고구마덩굴도 가렸었어. 말린 거.)

103058 @ 예.(예.)

103058 #1 촐 비여단에 촐 부족허민 그 조낭[173], 산디낭도 문 멕엿주만은 조낭, 이제 감저꿀. 감저꿀이 밧디서 뒈쌍 ᄂᆞ뒈쌍 허멍.(꼴 베어다가 꼴 부족하면 그 조짚, 밭볏짚도 모두 먹였지만 조짚, 이제 고구마덩굴. 고구마덩굴 밭에서 뒤집고 뒤집고 하면서.)

103058 @ 으.(으.)

103058 #1 거둬 나민 막 ᄆᆞᆯ류주게. ᄆᆞᆯ류왕 잔뜩 이젠 ᄒᆞᆫ번 줄 거만썩 무끈다게. ᄒᆞᆫ번 줄 거만썩 무꺼근에 이제 잔뜩 시꺼당 집 안에 눌어.(거두고 나면 마구 말렸지. 말려서 잔뜩 이젠 한번 줄 그만큼씩 묶는다. 한번 줄 그만큼씩 묶어서 이제 잔뜩 실어다가 집 안에 가려.)

103058 @ 으.(으.)

103058 #1 올레[174] 안에 눌엇단에 겨울 들면 쉐, ᄆᆞ쉬 주젠.('올레' 안에 가렸다가 겨울 들면 소, 마소 주려고.)

---

173) '조낭'은 '조+낭(나무)'로, 여기서 나무는 조의 줄기를 말한다.

174)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말한다.

103058 @ 으. 쉐, ᄆᆞ쉬 주젠예.(으. 소, 마소 주려고요.)

103058 #1 겡 헨에 겡헨 쉐촐로.(그렇게 해서 그렇게 쇠꼴로.)

103058 @ 쉐촐로.(쇠꼴로.)

103058 #1 경허민 그 걸름게 밧디 강 또 ᄀᆞᆯ아근에 걸름, 도새기 걸름 쉐 걸름 헹 또 살앗주게.(그러면 그 거름 밭에 가서 또 깔아서 거름, 돼지 거름 소 거름 해서 또 살았지.)

103058 @ 음.(음.)

103058 #1 무신 다른 걸름 훤엇이 셔시냐. 이젠 비료 ᄒᆞ썰 허민 이젠 비료, 비료덜만 줭 살앗주만은. 옛날에는 쉐걸름, 도새기걸름 원 그거, 걸로 헨 살앗주.(무슨 다른 거름 한없이 있었니. 이젠 비료 조금 하면 이젠 비료, 비료들만 줘서 살았지만. 옛날에는 쇠두엄, 돼지거름 원 그거, 걸로 해서 살았지.)

기타 농사

103060 @ ᄒᆞ꼼 더 물어봐도 뒈쿠과?(조금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103060 #1 무시거 물어볼 게 셔게.(뭐 물어볼 게 있어.)

103060 @ 수박 농사 짓어낫수과?(수박 농사 지었었습니까?)

103060 #1 아니.(아니.)

103061 @ 참외 농사?(참외 농사?)

103061 #1 춤웨도 안 헤나고.(참외도 안 했었고.)

103061 @ 안 헤나고예?(안 했었고요?)

103061 #1 기자, 밧디 간에 옛날에, 막 오랫저. 이거 흔 이십 년 뒛주.(그저, 밭에 가서 옛날에, 아주 오랬어. 이거 한 이십 년 됐지.)

103061 @ 예.(예.)

103060 #1 수박 싱경 먹어낫주게. 이녁냥으로게 먹을 것만.(수박 심어서 먹었었지. 자기대로 먹을 것만.)

103060 @ 그니까, 그니까.(그러니까, 그러니까.)

103060 #1 수박 싱건에 드랑드랑 ᄋᆞᆯ아신디 ᄆᆞᆫ 도독 타 가 불언에.(수박 심어서 주렁주렁 열었는데 모두 도둑 따 가 버렸어.)

103060 @ 아.(아.)

103060 #1 ᄆᆞᆫ 도독 타 가 불언. 알아진 사람 타 가 불언. 그 사름 이제 죽어벳저만은 첨.(모두 도둑 따 가 버렸어. 아는 사람 따 가 버렸어. 그 사람 이제 죽어버렸지만 참.)

103060 @ 아이고.(아이고.)

103060 #1 타 가 불멍 헤신디 물웨 싱그곡 수박 싱그곡 호박도 싱그곡 경 이녁냥으로 ᄉᆞᆼ키 헤사주게. 수박 이녁 먹을 건 싱경 먹어낫저. 이제난 안 헴저.(따 가 버리면서 했는데 노각 심고 수박 심고 호박도 심고 그렇게 자기대로 푸성귀 해야지. 수박 이녁 먹을 건 심어서 먹었었어. 이제니까 안 하지.)

103060 @ 게난 수박 싱그젠 허민 어떵헨 그거는?(그러니까 수박 심으려고 하면 어떡해서 그거는?)

103060 #1 어떵 헹 싱거, 거.(어떻게 해서 심어, 거.)

103060 @ 씨는?(씨는?)

103060 #1 씨, 수박씨 헹 놔뒷다근에 기자 강 구뎅이 멘들주, 영. 영 굿 멘들아.(씨, 수박씨 해서 놔뒀다가 그저 가서 구덩이 만들지, 이렇게. 이렇게 북 만들아.)

103060 @ 구뎅이 만들아.(구덩이 만들어.)

103060 #1 봉분을 멘들아, 봉분.(봉분을 만들어, 봉분.)

103060 @ 아, 봉분은 만들어?(아, 봉분은 만들어?)

103060 #1 으. 봉분 만들앙 싱그는 거주게. 다 봉분.(으. 봉분 만들어서 심는 거지. 다 봉분.)

103060 @ 봉분을 어떵 만듭니까?(봉분을 어떻게 만듭니까?)

103060 #1 어떵 만드느니, 흑 모도와 놩.(어떻게 만드니, 흙 모아 놓고.)

103060 @ 예.(예.)

103060 #1 흑 모도와 놩 비료 서껑.(흙 모아 놔서 비료 섞어서.)

103060 @ 아, 거기에.(아, 거기에.)

103060 #1 으, 경헤영 그 우터레 씨 꼭꼭 찔렁 놔두민 나주게.(으, 그렇게 그 위로 씨 꼭꼭 찔러서 놔두면 나지.)

103060 @ 아.(아.)

103060 #1 경허민 나주게.(그러면 나지.)

103060 @ 그 씨는 우리 수박 먹을 때 그 씨를 받아 두는 거?(그 씨는 우리 수박 먹을 때 그 씨를 받아 두는 거?)

103060 #1 으, 그걸로. 겡헨 밧디 갓당 일헐 때 수박 익어시민 벌렁 먹곡.(으, 그걸로. 그래서 밭에 갔다가 일할 때 수박 익었으면 쪼개서 먹고.)

103060 @ 벌렁 먹곡.(쪼개서 먹고.)

103061 #1 아이고, 첨. 춤웨도 싱것당 벌렁 먹곡.(아이고, 참. 참외도 심었다가 쪼개서 먹고.)

103061 @ 춤웨도 경 싱거?(참외도 그렇게 심어서?)

103061 #1 어. 춤웨도 경헹 싱그주.(어. 참외도 그렇게 심지.)

103061 @ 봉분 만들앙?(봉분 만들어서?)

103061 #1 으, 봉분 만들아. 다 봉분 만들앙. 기자 그 안에서 꿀 벋을 만이 방수[175] 벌영.(으, 봉분 만들어. 다 봉분 만들어서. 그저 그 안에서 덩굴 벋을 만큼 간격 벌려서.)

103061 @ 으.(으.)

103061 #1 겡헹 싱경 먹어낫저. 겡헹 수박, 웨사 옛날엔게 이녁냥으로.(그렇게

175) '방수'는 씨앗 등을 뿌릴 때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간격을 말한다.

심어서 먹었었지. 그렇게 수박, 외야 옛날엔 자기대로.)

103061 @ 게니까 먹을 만큼은 헤난 거 아니예?(그러니까 먹을 만큼은 했던 거 아니요?)

103062 #1 으, 먹을 만큼. 고치도 싱경 먹곡게. ᄉᆼ키사 ᄂᆞ물 갈앙 먹곡 원 이녁냥으로 헹 먹엇주, 어디 경 돈 줭 사 먹어졋어?(으, 먹을 만큼. 고추도 심어서 먹고. 푸성귀야 나물 갈아서 먹고 원 자기대로 해서 먹었지, 어디 그렇게 돈 줘서 사 먹을 수 있었어?)

103062 @ 고치도 모종으로 안 허고 씨로 헷수과?(고추도 모종으로 안 하고 씨로 했습니까?)

103062 #1 어게, 씨로. 모종으로 이제난 모종이주. 옛날이사 모종이 어디 잇느니게?(어, 씨로. 모종으로 이제니까 모종이지. 옛날에야 모종이 어디 있니?)

103062 @ 엇어.(없어.)

103062 #1 에에, 옛날엔 우리 모종 말 원 난 몰랏저. 이제사 모종이주, 옛날에사 모종이라 씨로 남주. 씨로 놧다근에 줒으민 갈라 싱고.(에에, 옛날에는 우리 모종 말 원 난 몰랐어. 이제야 모종이지, 옛날에야 모종이야 씨로 나지. 씨로 놨다가 배면 갈라서 심고.)

103062 @ 아, 갈라 싱거?(아, 갈라서 심어?)

103062 #1 으, 우리냥으로 갈라 싱거. 줒으민 갈라 싱거. 갈주게 갈아.(으, 우리대로 갈라서 심어. 배면 갈라 심어. 갈지 갈아.)

103062 @ 으.(으.)

103062 #1 영 갈앙 내불민 줒으민 기자 뽑앙 고치는 저 제기 죽지 안허는 거주게.(이렇게 갈아서 내버리면 배면 그저 뽑아서 고추는 저 재게 죽지 않는 거지.)

103062 @ 잘 살아예?(잘 살아요?)

103062 #1 으, 잘 살아. 고치는 잘 살아. 벳이 나도 살아. 경허민 싱경 기자 고치 농서도 우리 하우스에 이젠 무시거 오백 평 헌 거 첨 어우러져 부난 못 헷주만은 재작년엔 고치 헤근에 고치 열댓 근 ᄀᆞᆯ아왓저. 나 ᄆᆞᆯ령.(으, 잘 살아. 고추는 잘 살아. 볕이 나도 살아. 그러면 심어서 그저 고추 농사도 우리 하우스에 이젠 뭐 오백 평 한 거 참 어우러져 버리니까 못 했지만 재작년엔 고추 해서 고추 열댓 근 갈아왔어. 나 말려서.)

103062 @ 으.(으.)

103062 #1 겡허난 사름 엇언 아이덜 ᄆᆞᆫ 손지덜 기여 나 불고 허난 고칫ᄀᆞ룬 여남은 근, 열 근은 ᄀᆞᆯ아단 놔두난 이제 나 멧 년 안 사켜.(그러니까 사람 없어서 아이들 모두 손주들 기어 나 버리고 하니까 고춧가루는 여남은 근, 열 근은 갈아다가 놔두니까 이제 나 몇 년 안 사겠어.)

103062 @ 하하. 그거 다 집이서 농사지은 거랏어?(하하. 그거 다 집에서 농사지은 거였어?)

103062 #1 어게. 작년 싱그난 고치가 ᄉᆞ못 이만씩 고치가 잘 뒈연. 하우스에 허

난이.(어. 작년 심으니까 고추가 사뭇 이만큼씩 고추가 잘 되었어. 하우스에 하니까.)

103062 @예.(예.)

103062 #1 콩낭만썩 잘 뒈난 아이구, 몰류지 못허난 저 농협에 간에 몰류와시네. 흔 콘테나에 만 원썩.(콩대만큼씩 잘 되니까 아이고, 말리지 못하니까 저 농협에 가서 말렸어. 한 컨테이너에 만 원씩.)

103062 @ 아, 거기에 돈 주민 몰려 줘?(아, 거기에 돈 주면 말려 줘?)

103062 #1 으, 몰려 줘라게.(으, 말려 주더라.)

103062 @ 아이고.(아이고.)

103062 #1 경헌디 급허게 강 몰리와부난 고치가 ᄒᆞ썰 거무룽헤라게.(그런데 급하게 가서 말리니까 고추가 조금 거무스름하더라.)

103062 @ 게니까 햇빛에 강.(그러니까 햇볕에 가서.)

103062 #1 게난 햇빗이 몰리운 거 서껀에 ᄀᆞᆯ아 왓저.(그러니까 햇볕에 말린 거 섞어서 갈아 왔어.)

103062 @ 아. 게난 아멩헤도 햇빗에 몰린 것이 좋은 거라예?(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햇볕에 말린 것이 좋은 거지요?)

103062 #1 어. 비 오란에, 막물 끗이난 비 오란에 몰류지 못험직허권데 두 콘테나 강 몰려 와신디 아멩헤도 나냥으로 몰린 것만 못해라.(어. 비 와서, 막물 끝이니까 비 와서 말리지 못함직하기에 두 컨테이너 가서 말려서 왔는데 아무래도 나대로 말린 것만 못하더라.)

103062 @ 게난예.(그러니까요.)

103062 #1 나냥으로 세멘이 기자 뒈싹 ᄂᆞ뒈싹 영 몰령. 경허난 뭣이던지 베울노릇이주. 고치도 우리 생각엔 꼭지 빠 불민 제기 몰람직헤도 꼭지 빠 불민 썩어.(나대로 시멘트 그저 뒤집고 뒤집어 이렇게 말려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배울 노릇이지. 고추도 우리 생각에는 꼭지 빼 버리면 재게 마름직해도 꼭지 빼 버리면 썩어.)

103062 @ 썩어 불어.(썩어 버려.)

103062 #1 꼭지차 몰류와사.(꼭지째 말려야.)

103063 @ 게니까. 배추는 어떵헷수과?(그러니까. 배추는 어떡했습니까?)

103063 #1 배추는 기자, 기자 씨. 이제난 좋은 씨 낫주. 옛날에사 경 좋은 씨가 잇이냐?(배추는 그저, 그저 씨. 이제니까 좋은 씨 났지. 옛날에야 그렇게 좋은 씨가 있니?)

103063 @ 음.(음.)

103063 #1 짝짝 삐영 ᄎᆞᆷᄂᆞ물 흔펜이, 배치 흔펜이 밧디 가근에 낭 트멍에.(쫙쫙 뿌려서 'ᄎᆞᆷᄂᆞ물' 한편에, 배추 한편에 밭에 가서 나무 틈에.)

103063 @ 으.(으.)

103063 #1 경헤근에 첨 갈아근에 허민 배치 ᄂᆞ물도 돈 줘근에 사 보지 안헷저

게.(그래서 참 갈아서 하면 배추 나물도 돈 줘서 사 보지 않았어.)

103063 @ 음.(음.)

103063 #1 돈 줜 사 보지 안혜영 이녁냥으로 혜영 기자 속 앚은 거 혜당 이녁냥으로 케연 김치 혜영 먹단 이젠 낭도 어우려져 불고 헐 디도 엇고 허난 그자 사단 먹엄주.(돈 줘서 사 보지 않고 자기대로 해서 그저 속 앉은 거 해다가 자기대로 캐서 김치 해서 먹다가 이젠 나무도 어우러져 버리고 할 데도 없고 하니까 그저 사다가 먹고 있지.)

103063 @ 게민 집이서 삼춘이 키운 것도 속 앚입니까?(그럼 집에서 삼촌이 키운 것도 속 앉습니까?)

103063 #1 아이고, 막 튼튼허게 앚나.(아이고, 아주 튼튼하게 앉아.)

103063 @ 아이고, 잘 키와신게.(아이고, 잘 키웠네.)

103063 #1 으, 튼튼허게 앚아.(으, 튼튼하게 앉아.)

103063 @ 게민 영 무꺼 주는 거, 크민?(그럼 이렇게 묶어 주는 거, 크면?)

103063 #1 무꺼 주지 안혜도 튼튼허게 속에 앚아. 드물게시리 그자 방수 벌영 드물게 놓민 ᄉᆞ못 사 온 거왕 ᄏᆞ뚱허주. 씨 좋은 거 혜당 허민.(묶어 주지 않아도 튼튼하게 속에 앉아. 드물게끔 그저 간격 벌려서 드물게 놓으면 사뭇 사 온 거와 가지런하지. 씨 좋은 거 해다가 하면.)

103063 @ 아, 씨 좋은 거 허민.(아, 씨 좋은 거 하면.)

103063 #1 으, 김치 ᄂᆞ물 허켄 허민 씨가 좋은 걸로 헤야.(으, 김치 나물 하려고 하면 씨가 좋은 거로 해야.)

103063 @ 게난 옛날에는 그거는.(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는.)

103063 #1 아주 옛날에는.(아주 옛날에는.)

103063 @ 그니까 이런 거.(그러니까 이런 거.)

103063 #1 으, 으. 그거 캐당 소금에 절엿당 저 제소장에 강 뿔아당.(으, 으. 그거 캐다가 소금에 절였다가 저 저수장에 가서 빨아다가.)

103063 @ 어디 강 뿔아당?(어디 가서 빨아다가?)

103063 #1 저 제수장 물에 강.(저 저수장 물에 가서.)

103063 @ 제수장이 어디라?(저수장이 어디야?)

103063 #1 우리 생효[176] 저 제수장 잇저. 이젠 그 제수장도 엇어졋저만은.(우리 상효 저 저수장 있어. 이젠 그 저수장도 없어졌지만.)

103063 @ 아, 그럼 거 바닷물인 것과?(아, 그럼 거 바닷물인 겁니까?)

103063 #1 제수장 물에 강 허당 또 바당에 바당물에 졍 강 거 츤물에 헤당 에이구.(저수장 물에 가서 하다가 또 바다에 바닷물에 지고 가서 거 짠물에 해다가 어이구.)

103063 @ 여기.(여기.)

103063 #1 일주일 죽여사 옛날은이 냉장고도 엇고.(일주일 죽여야 옛날은 냉장

176) '생효'는 서귀포시 상효동을 말한다.

고도 없고.)
103063 @ 예.(예.)
103063 #1 아무것도 엇어 놓난 소금을 일주일을 죽여사 쉬지 안헌덴 허멍.(아무것도 없어 놓으니까 소금을 일주일을 죽여야 쉬지 않는다고 하면서.)
103063 @ 예.(예.)
103063 #1 경혜영 그거 김치 혜영 먹는 추룩. 아이고, 그거 헹 먹엇주. 속 앚은 ᄂᆞ물이 옛날에사 엇어낫저게.(그래서 그거 김치 해서 먹는 척. 아이고, 그거 해서 먹었지. 속 앉은 나물이 옛날에야 없었어.)
103063 @ 제수장이 어디?(저수장이 어디?)
103063 #1 제수장 잇어낫저, 생효. 이젠 엇어져 벳어.(저수장이 있었어, 상효.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
103063 @ 상효?(상효?)
103063 #1 으, 상효, 상효.(으, 상효, 상효.)
103063 @ 상효에? 뭐 허는 것과?(상효에? 뭐 하는 겁니까?)
103063 #1 옛날에 물게, 물. 논물 앚지는 디.(옛날에 물, 물. 논물 고이게 하는 데.)
103063 @ 아, 논물 모아 논 데.(아, 논물 모아 놓은 데.)
103063 #1 으. 논물 모아 논 제수장이라. 막 크게. 잘도 크게. 그 제수장에 빠정 사름도 죽곡 워낙 커 놓난.(으. 논물 모아 놓은 저수장이야. 아주 크게. 매우 크게. 그 저수장에 빠져서 사람도 죽고 워낙 커 놓으니까.)
103063 @ 아, 경 크게.(아, 그렇게 크게.)
103063 #1 경허단 이젠 엇어졋저, 그거. 밧으로 멘들아 벤 엇어젼.(그러다가 이젠 없어졌어, 그거. 밭으로 만들어 버려서 없어졌어.)
103063 @ 게난 배추도 먹을 만큼은 키웡 먹엇고. 무수도 키왕?(그러니까 배추도 먹을 만큼 키워서 먹었고. 무도 키워서?)
103063 #1 나 먹을 만인.(나 먹을 만큼.)
103063 @ 것도 그냥 씨 뿌령 헷수과?(것도 그냥 씨 뿌려서 했습니까?)
103063 #1 으. 씨 뿌령 헤도 뒈여. 씨 톡톡 뿌려도 뒈주게.(으. 씨 뿌려서 해도 돼. 씨 톡톡 뿌려도 되지.)
103063 @ 그때는 씨들도 못 사난 씨 다 받아 논 거?(그때는 씨들도 못 사니까 씨 다 받아 놓은 거?)
103063 #1 옛날에사 이녁냥으로 받앙 허주게.(옛날에야 자기대로 받아서 하지.)
103063 @ ᄂᆞ물 씨덜예.(나물 씨들요.)
103063 #1 배치 ᄂᆞ물도 이녁냥으로 받앙 씨 삐엿당 ᄆᆞᆯ려근에 발로 ᄌᆞ근ᄌᆞ근 ᄇᆞᆯ랑 그거 쌍 봇당 그걸로 갈앙 먹곡 갈앙 먹곡 헷주. 어디 씨 사레 경 가곡.(배추 나물도 자기대로 받아서 씨 뿌렸다가 말려서 발로 자근자근 밟아서 그거 싸서 놨다가 그걸로 갈아서 먹고 갈아서 먹고 했지. 어디 씨 사러 그렇게 가고.)

103063 @ 그니까.(그러니까.)

103063 #1 이녁냥으로 갈앙 먹곡 헷주. 이제난 ᄂᆞ물 씨 존 거 사레 가고. 모종 사당 싱그곡.(자기대로 갈아서 먹고 했지. 이제니까 나물 씨 좋은 거 사러 가고. 모종 사다가 심고.)

103063 @ 모종 사당 싱그고.(모종 사다가 심고.)

103063 #1 으, 이젠 경. 아이고, 삶이 얼마나 좋앗어.(으, 이제는 그렇게. 아이고, 삶이 얼마나 좋았어.)

103065 @ 지슬은 어떵 헷수과, 지슬?(감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자?)

103065 #1 지슬도 고랑에, 땅 파근에 고랑에 불껑 놩 씨 톡톡톡 그레 놓주게. 경허민 그자 굿올렁.(감자도 고랑에, 땅 파서 고랑에 재 놔서 씨 톡톡톡 그리 넣지. 그러면 그저 북돋아서.)

103065 @ 굿올렷당?(북돋았다가?)

103065 #1 으, 흑 올려사.(으, 흙 올려야.)

103065 @ 아, 흑 올리는 거 굿올린덴 얘기헙니까?(아, 흙 올리는 거 북돋운다고 얘기합니까?)

103065 #1 으, 으. 흑 올리는 것ᄀᆞ라 굿올린덴. 지슬 굿올리레 감서, 지슬 굿올리레 감서. 하하하.(으, 으. 흙 올리는 것보고 북돋운다고. 감자 북돋우러 간다, 감자 북돋우러 간다. 하하하.)

103065 @ 아, 굿올린덴 허는구나.(아, 북돋운다고 하는구나.)

103065 #1 어.(어.)

103065 @ 어쨌든 고랑에 톡톡톡 놓는 거?(어쨌든 고랑에 톡톡톡 넣는 거?)

103065 #1 어. 고랑에 영 영 싱그주게. 경헨 싱것당 말쩬 더 올려 줘사 지슬이 들주게.(어. 고랑에 이렇게 이렇게 심지. 그렇게 심었다가 말짼 더 올려 줘야 감자 들지.)

103065 @ 으.(으.)

103065 #1 경허는 거.(그러는 거.)

103066 @ 피, 피 농서도 지어 보긴 헷수과?(피, 피 농사도 지어 보긴 했습니까?)

103066 #1 우린 안 헤 봣저. 피 농사.(우린 안 해 봤어. 피 농사.)

103066 @ 안 헤 봣어.(안 해 봤어.)

103066 #1 으, 피 농선 안 헤 봣저. 남 가는 거 봣주.(으, 피 농사는 안 해 봤어. 남 가는 거 봤지.)

103066 @ 남 가는 거?(남 가는 거?)

103066 #1 으. 남 가는 거 봣주. 피 농선 우린 안 헤 봣저.(으, 남 가는 거 봤지. 피 농사는 우린 안 해 봤어.)

103066 @ 게민 피밥은 영 얻어당 안 헤, 먹어 봣수과?(그럼 피밥은 이렇게 얻어다가 안 해, 먹어 봤습니까?)

103066 #1 으, 저 어디 나 어디 갈 때에, 가시리[177]산디 어디 간 때에 피밥 흔 번 먹어 봣저, 전이.(으, 저 어디 나 어디 갈 때에, 가시리인지 어디 갔을 때에 피밥 한번 먹어 봤어, 전에.)

103066 @ 으.(으.)

103066 #1 막 옛날에 이젠 것도 엇어졋어.(아주 옛날에 이젠 것도 없어졌어.)

103066 @ 엇어, 엇어.(없어, 없어.)

103066 #1 에, 엇다게. 옛날에 피밥 먹어 봣저. 막 맛 좋아.(에, 없다. 옛날에 피밥 먹어 봤어. 아주 맛 좋아.)

103066 @ 맛 좋아?(맛 좋아?)

103066 #1 으. 피밥.(으. 피밥.)

103066 @ 장만허는 거 막 힘들지 안허여, 피?(장만하는 거 아주 힘들지 않아, 피?)

103066 #1 아이고, 경헤도 그, 그 글후제 피 공장에서 쏠 내우는 기계 나낫어.(아이고, 그래도 그, 그 그 후에 피 공장에서 쌀 내는 기계 났었어.)

103066 @ 예.(예.)

103066 #1 공장에서 골아당 먹을 때 나난 끗 헤실 거여게.(공장에서 갈아다가 먹을 때 나니까 끝 했을 거야.)

103066 @ 으.(으.)

103066 #1 이젠 원 피 가는 디도 엇곡. 조 가는 디도 엇곡.(이젠 원 피 가는 데도 없고. 조 가는 데도 없고.)

103066 @ 으.(으.)

103066 #1 이제도 조 가는 디 심은 싯주게. 잇주만은 제주돈 훤엇이 엇어. 제주돈 조 가는 디가, 우리 제주 일주 헤 보민 어디 저 서이에 흔 멧 군데 봄은 봣주. 조 가는 디 엇어.(이제도 조 가는 데 있기는 있지. 있지만 제주도는 한없이 없어. 제주도는 조 가는 데가, 우리 제주 일주 해 보면 어디 저 서쪽에 한 몇 군데 보기는 봤지. 조 가는 데 없어.)

103067 @ ᄆᆞ물 농산 어떵 헷수과? ᄆᆞ물 농사?(메일 농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메밀 농사?)

103067 #1 ᄆᆞ물 농산 기자 ᄆᆞ물 씨 불껑에 서껑당 기자 밧 갈멍 강 톡톡 젭아 놓나게. 젭아놩 그 뭐니 께꽝낭, 께꽝낭으로 섬비 멘들앙. 섬비 크게 멘들앙. 경헨 젭아놩 삭 ᄀᆞ로 끗으민 뒈주.(메밀 농사는 그저 메밀 씨 재에 섞어다가 그저 밭 갈면서 톡톡 집어넣어. 집어놓고 그 뭐니 쥐똥나무, 쥐똥나무로 끙게 만들어서. 끙게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집어넣어서 삭 가로 끌면 되지.)

103067 @ 그 섬비는 누게가 끗이는 거라?(그 끙게는 누가 끄는 거야?)

103067 #1 아무라도 끗주게. 아무라도 끗어사.(아무라도 끌지. 아무라도 끌어야.)

103067 @ 사람이?(사람이?)

177) '가시리'는 표선면 가시리를 말한다.

103067 #1 으, 사람이 끗주 누게가 끗느니게. 사람이 끗어사주. 나도 막 끗어 봣저.(으, 사람이 끌지 누가 끌어. 사람이 끌어야지. 나도 마구 끌어 봤어.)

103067 @ 아, 막 끗어봔예. 게민 ᄆᆞ물은 여름에 간덴 헷잖아예?(아, 마구 끌어 봤지요. 그럼 메밀은 여름에 간다고 했잖아요?)

103067 #1 오게 여름에 가는 거주, 것사게.(그래. 여름에 가는 거지, 것이야.)

103067 @ 게민 여름에 ᄆᆞ물은 막 금방 자라는 거구나.(그럼 여름에 메밀은 아주 금방 자라는 거구나.)

103067 #1 어, 경허난게 시월 나민 비는 거.(어, 그러니까 시월 되면 베는 거.)

103067 @ 음력 칠월에 갈앙.(음력 칠월에 갈아서.)

103067 #1 어. 시월 나민.(어, 시월 되면.)

103067 @ 시월 나민.(시월 되면.)

103067 #1 어. 음력 시월 나민 비는 거.(어. 음력 시월 되면 베는 거.)

103067 @ 석 달이민 비는 것다예?(석 달이면 베는 거네요?)

103067 #1 어, 어.(어, 어.)

103067 @ ᄆᆞ물밧디 검질메고 헙니까?(메밀밭 김매고 합니까?)

103067 #1 ᄆᆞ물밧디도 검질멘다만은 아이고, 옛날은 ᄆᆞ물도 강 ᄉᆞ까당 ᄒᆞ꼼 데왕 ᄉᆞᆼ키 헌다만은. 것도 데왕 ᄉᆞᆼ키로 먹고. ᄆᆞ물도 맛 좋아.(메밀밭도 김매지만 아이고, 메밀도 가서 솎아다가 조금 데워서 푸성귀 한다만. 것도 데워서 푸성귀로 먹고. 메밀도 맛 좋아.)

103067 @ 아.(아.)

103067 #1 ᄆᆞ물 난 거 ᄉᆞ까당 경헨 먹어낫주. 것도 맛 좋주만은. 이제도 ᄆᆞ물이사 저디 갈암주.(메밀 난 거 솎아다가 그렇게 먹었었지. 것도 맛 좋지만. 이제도 메밀이야 저기 갈고 있지.)

103067 @ 으, ᄆᆞ물 하영 갈앙.(으, 메밀 많이 갈아서.)

103067 #1 ᄆᆞ물덜은 하영 갈암시녜. 게난 제주도 ᄆᆞ물쏠은 비쌍 ᄉᆞ못 ᄆᆞ물쏠 ᄒᆞᆫ 뒈에 만오천 원, 이만오천 원인가 만오천 원인가.(메밀들은 많이 갈고 있어. 그러니까 제주도 메밀쌀은 비싸서 사뭇 메밀쌀 한 되에 만오천 원, 이만오천 원인가 만오천 원인가.)

103067 @ 그거 다 크민 시월덜에 거둬들이젠 허민?(그거 다 크면 시월에 거둬들이려고 하면?)

103067 #1 비영 ᄆᆞᆯ령.(베어서 말려서.)

103067 @ ᄆᆞᆯ령.(말려서.)

103067 #1 도께로 ᄆᆞᆺ암주 것도.(도리깨로 마았지, 것도.)

103067 @ 그것도 영.(그것도 이렇게.)

103067 #1 얼멩이로 ᄆᆞᆫ 혜영.(어레미로 모두 해서.)

103067 @ 무끄진 안헤여?(묶진 않아?)

103067 #1 ᄆᆞ물 무끄진 안헌다.(메밀 묶진 않는다.)

103067 @ 무끄진 안허여.(묶진 않아.)
103067 #1 ᄆᆞ물은 안 무꺼 봣저. 그자 비여당 안아 놩 두드리주.(메밀은 안 묶어 봤어. 그저 베어다가 안아 놓고 두드리지.)
103067 @ 으.(으.)
103067 #1 안아당 팡팡 그자 마당질허는 더레. 이젠 기계 시난덜.(안아다가 팡팡 그저 마당질하는 데에. 이젠 기계 있으니까들.)
103067 @ 게난.(그러니까.)
103067 #1 안아당 팡팡 허민 쏠만 기자 마다리 대민 팡팡.(안아다가 팡팡 하면 쌀만 그저 마대 대면 팡팡.)
103067 @ 이젠 비멍 쏠 나오지 안헙니까?(이젠 베면서 쌀 나오지 않습니까?)
103067 #1 어. 비멍.(어. 베면서.)
103067 @ 콩도, 콩도.(콩도, 콩도.)
103067 #1 아이고, 무시거던지 다 거 아니냐게. 보리나 콩이나 나룩이나 이젠 원 기계 시상 아니냐.(아이고, 뭐든지 다 거 아니냐. 보리나 콩이나 나룩이나 이제는 원 기계 세상 아니니.)
103067 @ 그니까예.(그러니까요.)
103067 #1 살기가 얼마나 존 때니게. 에이구, 첨 하도 살기 존 때라 놓난 이젠. 경헨 아프지만 말아사 ᄒᆞ꼼.(살기가 얼마나 좋은 때니. 에이구, 참 하도 살기 좋은 때여 놓으니까 이젠. 그래서 아프지만 말아야 조금.)
103068 @ 예, 예. 담배 농사 같은 건 이 동네 안 헤 봔.(예, 예. 담배 농사 같은 건 이 동네 안 해 봤어.)
103068 #1 우리 안 헤 봣저.(우린 안 해 봤어.)
103068 @ 예.(예.)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쉐, 쉐 얼마나 길러낫수과? 멧 마리나?(소, 소 얼마나 길렀었습니까? 몇 마리나?)
104001 #1 아니, 우리 밧갈쉐[178]. 밧갈쉐 ᄒᆞ나.(아니, 우리 '밧갈쉐'. '밧갈쉐' 하나.)
104001 @ 밧갈쉐 ᄒᆞ나?('밧갈쉐' 하나?)
104001 #1 으, 밧갈쉐 ᄒᆞ나.(으, '밧갈쉐' 하나.)
104001 @ 예. 그럼, 쉐 질뤄난 얘기 쭉 한번 해 주십서.(예. 그럼, 소 길렀던 얘

178) '밧갈쉐'는 밭을 가는 힘센 부룩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기 쭉 한번 해 주십시오.)

104001 #1 쉐 질뤄난 거 무시거 쭉 곧느니. 기자 쉐 지르다근에 돌음쉐[179] 허민 우리 돌아가멍 돌음[180]을 허주게.(소 길렀던 거 뭐 쭉 말하니. 그저 소 기르다가 '돌음쉐' 하면 우리 돌아가면서 '돌음'을 하지.)

104001 @ 돌음이 뭐라?('돌음'이 뭐야?)

104001 #1 돌음이엔 헌 건 이 집이 쉐, 저 집이 쉐 문 우리 저 이 반에, 우리 일 반이면 일 반에 그 반이 쉐 다 모도와.('돌음'이라고 하는 건 이 집에 소, 저 집에 소 모두 우리 저 이 반에, 우리 일 반이면 일 반에 그 반에 소 다 모아.)

104001 @ 아, 모도와.(아, 모아.)

104001 #1 경허민 돌아가멍 두 사름썩 ᄀᆞ꾸레 가주게.(그럼 돌아가면서 두 사람씩 가꾸러 가지.)

104001 @ 음.(음.)

104001 #1 경허멍덜 살앗주게. 그 쉘 어떵 이녁냥으로 멕이레 가느니게. 농사 안 질 때.(그러면서 살았지. 그 소를 어떻게 자기대로 먹이러 가니. 농사 안 지을 때.)

104001 @ 게민 밧갈쉐 ᄒᆞᆫ 마리 하젠 허민 그거는 사당, 새끼 때 송아지.(그럼 '밧갈쉐' 한 마리 하려고 하면 그거는 사다가, 새끼 때 송아지.)

104001 #1 어게, 송아지 때 사당 키왕. 키왕도 허고 또 제기 밧 갈젠 허민 바꽝도 허곡 큰 쉐 바꽝. 송애기 줭 큰 쉐 바꽝. 제기 이녁 밧이라도 갈아사 돈 벌어 먹젠 허민.(어, 송아지 때 사다가 키워서. 키워서도 하고 또 재게 밭 갈려고 하면 바꿔서도 하고 큰 소 바꿔서. 송아지 주고 큰 소 바꿔서. 재게 자기 밭이라도 갈아야 돈 벌어 먹으려고 하면.)

104001 @ 으.(으.)

104001 #1 경헌 따문 송애기 우린 안 질뤄 봣저.(그런 때문에 송아지 우린 안 길러 봤어.)

104001 @ 송애긴 안 질롸 보고.(송아진 안 길러 보고.)

104001 #1 으, 밧 가는 것만 헷주. 큰 쉐, 큰 밧갈쉐.(으, 밭 가는 것만 했지. 큰 소, 큰 '밧갈쉐'.)

104001 @ 쉐도 키울 때 보면 영 밧 갈젠 허민 멧 살이나 뒈면 밧 가는 거마씨?(소도 키울 때 보면 이렇게 밭 갈려고 하면 몇 살이나 되면 밭 가는 거예요?)

104001 #1 밧 가는 건 송애기 피헤근에 이제 두 설만 뒈민 베우레 뎅겨. 두 설, 세 설만 뒈민.(밭 가는 건 송아지 피해서 이제 두 살만 되면 배우러 다녀. 두 살, 세 살만 되면.)

104001 @ 아.(아.)

104001 #1 베와야주게. 멍에 씌와근에 송애긴 베와사.(배워야지. 멍에 씌워서 송

179) '돌음쉐'는 '돌보는 소'를 말한다.
180) '돌음'은 '돌다((아기를)보살피다, 돌보다)'에서 온 말로, 여기서는 소를 '돌보는 것'을 말한다.

아지는 배워야.)

104001 @ 으.(으.)

104001 #1 경헤근에 ᄎᆞᄎᆞ 커 가민 지냥으로 멍에만 씌우민 갈주게.(그래서 차차 커 가면 자기대로 멍에만 씌우면 갈지.)

104001 @ 게민.(그럼.)

104001 #1 이끄지 안헤도. 송애기 땐 이끄곡.(이끌지 않아도. 송아지 땐 이끌고.)

104001 @ 송애기 땐 이끄곡?(송아지 때는 이끌고?)

104001 #1 으, 아이 몰르주게. 송애기 땐. ᄉᆞ못 몰르민, 큰 밧갈쉔 기자 멍에만 씌웡 내불민 쭉 간다게. 쭉 허게 밧을 갈아. 경허민 기자 첨 이녁. 우린 기자 농서 짓젠 허난 경 암쉐 질루지 안헷저. 놈덜은 암쉐 질롸 새끼 내왕 풀곡 헤도 우린 암쉐 질롸 보지 안허연. 밧갈쉐, 수컷만.(으, 아니 모르지. 송아지 땐. 사뭇 모르면, 큰 '밧갈쉐'는 그저 멍에만 씌워서 내버리면 쭉 간다. 쭉 하게 밧을 갈아. 그러면 그저 참 자기. 우린 그저 농사지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암소 기르지 않았어. 남들은 암소 길러서 새끼 낳게 해서 팔고 해도 우린 암소 길러 보지 않았어. '밧갈쉐', 수컷만.)

104001 @ 아, 그거 한 마리만마씨?(아, 그거 한 마리만요?)

104001 #1 으. 우린 두 ᄆᆞ리 안 헤봣저. ᄒᆞᆫ ᄆᆞ리만. ᄒᆞᆫ 마리만 늘 질롸.(으. 우린 두 마리 안 해 봤어. 한 마리만. 한 마리만 늘 길러.)

104001 @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104001 #1 경허단 미깡낭 싱거 가난 풀아 베시네.(그러다가 밀감나무 심어 가니까 팔아 버렸어.)

104001 @ 게민 쭉 한번, 송애긴 안 질롸 봣잖아예. 게민 놈의 집 쉐를.(그럼 쭉 한번, 송아지는 안 길러 봤잖아요. 그럼 남의 집 소를.)

104001 #1 으, 송애긴 안 질롸 봣저. 밧갈쉐만 그 큰 쉐만 질렀주.(으, 송아지는 안 길러 봤어. '밧갈쉐'만 그 큰 소만 길렀지.)

104001 @ 게민 쉐 질루멍 일 년 동안 쭉 한번 얘기 해 봅서. 봄엔 어떵 어떵 허고.(그럼 소 기르면서 일 년 동안 쭉 한번 얘기 해 보십시오. 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104001 #1 봄에 어떵 어떵 헤여 기자 이 ᄀᆞ슬 들어 가민 기자 이 베낏디 풀이 믄 지어 불주게. 헤 가민 촐 비여당 눌곡 조칙 헤당 눌곡 허민 쉐, 쉐왕에. 저 우리 쉐막, 쉐막 헌다. 저디.(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저 이 가을 들어 가면 그저 이 밖에 풀이 모두 지어 버리지. 해 가면 꼴 베어다가 가리고 조짚 해다가 가리고 하면 소, 외양간에. 저 우리 외양간, 외양간 한다. 저기.)

104001 @ 으.(으.)

104001 #1 쉐막. 쉐 메나난 쉐막.(외양간. 소 매니까 외양간.)

104001 @ 음.(음.)

104001 #1 저 쉐막에 강 보라.(저 외양간에 가서 봐라.)

104001 @ 음.(음.)

104001 #1 경헨 질루곡. 봄 나 가민 돌음을 허주게. 밧 이녁 밧 갈 때는 갈당 밧 문 지어지민 그 쉘 집집마다 돌음이라고 우리 돌아가멍 문 산에 강 멕이주게.(그래서 기르고. 봄 돼 가면 '돌음'을 하지. 밭 자기 밭 갈 때는 갈다가 밭 모두 지면 그 소를 집집마다 '돌음'이라고 우리 돌아가면서 모두 산에 가서 먹이지.)

104001 @ 멧 사름이나?(몇 사람이나?)

104001 #1 두 사름썩, 두 사름썩. ᄒᆞ루에 두 사름썩 멕여. 돌음이.(두 사람씩, 두 사람씩. 하루에 두 사람씩 먹여. '돌음'이.)

104001 @ 멕이는 건 두 사름인데 몇 집이나 소를 영 모도왕?(먹이는 건 두 사람인데 몇 집이나 소를 이렇게 모아서?)

104001 #1 아, 많이 헌다게. 많이 허여. 많이 헌다. 이 동네거리라고 ᄉᆞ못 그레 문 몰아강 ᄉᆞ못 그디 가민 문 문딱 나오민 그날 당번이 잇주게.(아, 많이 한다. 많이 해. 많이 한다. 이 '동네거리'라고 사뭇 그리 모두 몰아다가 사뭇 거기 가면 모두 모두 나오면 그날 당번이 있지.)

104001 @ 으.(으.)

104001 #1 그날 쉐 멕이는 당번. ᄎᆞ례, 이녁 ᄎᆞ례.(그날 소 먹이는 당번. 차례, 자기 차례.)

104001 @ 음. 당번이 두 사람.(음. 당번이 두 사람.)

104001 #1 어. 두 사람. 두 사람 허민 문 집집마다 문 소라. 소 엇이냐게. 소 아무것이 엇인 사름은 또 밧 엇인 사름은 소도 엇고. 밧 ᄒᆞ꼼이라도 신 사름은 소 잇곡.(어. 두 사람. 두 사람 하면 모두 집집마다 모두 소야. 소 없냐. 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또 밭 없는 사람은 소도 없고. 밭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소 있고.)

104001 @ 으.(으.)

104001 #1 경헤근에 소 잇인 사름은 문딱 헤영 이 부근 문딱 헌다게. 또 다른 동네, 섯동네[181]레 섯동네, 웃동네[182]레 웃동네. 우리 동알동네[183]주, 이디가.(그래서 소 있는 사람은 모두 해서 이 부근 모두 한다. 또 다른 동네, '섯동네'에 '섯동네', '웃동네'에 '웃동네'. 우리 '동알동네'지, 여기가.)

104001 @ 동알동네?('동알동네'?)

104001 #1 어, 이건 우리 동네커리[184]엔 헌다. 이디 나가민.(어, 이건 우리 '동네거리'라고 한다. 여기 나가면.)

104001 @ 예.(예.)

104001 #1 경허민 우리 동알동네 문딱 헨 둘썩 헹 돌음 헌다게. 경헤영 ᄀᆞ슬 들어 가민 기자 이녁만썩 이젠 그 베꼇디 풀이 엇어 갈 거 아니냐게. 시월덜 지여 가면은. 촐도 비여 불고. 아무것도 엇어 가민 이녁만썩 헤영 촐 멕이멍 봄 나도록. 봄이 풀 나도록 집이서 질롯주. 경허민 쉐걸름 높아 가민 그 걸름을 이젠, 막 쉐똥 싸

181) '섯동네'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182) '웃동네'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183) '동알동네'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184) '동네거리'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가민 또꼬망에 부트주게. 경허민 그걸 막 끗어내여, 끗어내영 이제 흔펜이 데며.(그러면 우리 '동알동네' 모두 해서 둘씩 해서 '둘음' 한다. 그래서 가을 들어 가면 그저 자기만큼씩 이젠 그 밖에 풀어 없어 갈 거 아니니. 시월 지어 가면은. 꼴도 베어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가면 자기만큼씩 해서 꼴 먹이면서 봄 되도록. 봄에 풀 나도록 집에서 길렀지. 그러면 쇠두엄 높아 가면 그 거름을 이젠, 아주 소똥 싸 가면 똥구멍에 붙지. 그러면 그걸 마구 끌어내, 끌어내서 이제 한편에 쟁여.)

104001 @ 예.(예.)

104001 #1 데멋다근에 밧디 싱거 감시네. 걸름.(쟁였다가 밭에 실어 가고 있어. 거름.)

104001 @ 으.(으.)

104001 #1 그추룩 헹 아주 옛날에사 어디 비료가 시냐? 그걸로 걸름헷주게. 도새기 질롸근에.(그처럼 해서 아주 옛날에야 어디 비료가 있니? 그걸로 거름했지. 돼지 길러서.)

104001 @ 무슨 밧디?(무슨 밭에?)

104001 #1 쉐걸름은 그자 밧디 강 허껑 조도 갈곡 산디도 갈곡 그자 허껑 좁씨 삐여근에 기자 영헹 갈아근에 좁씨 쫙쫙 삐민 그자 쉐, 옛날에 부제칩인 물을 하영 질루주게. 물로 꿰밧이나 조밧이나 불려시네.(쇠두엄은 그저 밭에 가서 섞어서 조도 갈고 밭벼도 갈고 그저 섞어서 조씨 뿌려서 그저 이렇게 갈아서 조씨 쫙쫙 뿌리면 그저 소, 옛날에 부잣집은 말을 많이 기르지. 말로 깨밭이나 조밭이나 밟았어.)

104001 @ 으.(으.)

104001 #1 우린 불리지 못허민이 쉐 하나로 ᄒᆞ쏠 불리당 또 사름으로 버치민 꿰깡낭 헤근에 쉐 또꼬망에 메영 쉐로 영 막아사주. ᄀᆞ로, 밧 갈아 놓민 ᄀᆞ로 막아사 그 좁씨영 문 산디씨영 경허는 거.(우린 밟지 못하면 소 하나로 조금 밟다가 또 사람으로 부치면 쥐똥나무 해서 소 똥구멍에 매서 소로 이렇게 막아야지. 가로, 밭 갈아 놓으면 가로 막아야 그 조씨랑 모두 밭벼씨랑 그러는 거.)

104001 @ 꿰꽝낭으로 허는 건 그거 끄슬퀴, 섭피?(쥐똥나무로 하는 건 그거 끙게, 끙게?)

104001 #1 으, 섬비.(으, 끙게.)

104001 @ 섬비.(끙게.)

104001 #1 섬비질, 섬비질.(끙게질, 끙게질.)

104001 @ 섬비질?(끙게질?)

104001 #1 으, 옛날에 우리. 꿰깡낭 섬비. 하하하.(으, 옛날에 우리. 쥐똥나무 끙게. 하하하.)

104001 @ 예.(예.)

104001 #1 꿰깡낭 섬비엔 헌다, 우린. 게난 꿰강낭 아니 여령 못허주게. 다른 건 ᄒᆞ도 못해. 그 꿰깡낭은 과작허는 따문에 밧을 잘 갈아져. 무겁게시리 영 양펜이 돌을 탁 지둘랑, 양펜이 헤영 넙작허게 허민 끗으민이 밧이 일로 이만은 막아진다게,

그거 막아져, 막아진다.(쥐똥나무 '섬비'라고 한다, 우린. 그러니까 쥐똥나무 아니 여려서 못하지. 다른 건 하지도 못해. 그 쥐똥나무는 '과작하는' 때문에 밭을 잘 갈려. 무겁게끔 이렇게 양편에 돌을 탁 지질러서, 양편에 해서 넓적하게 하면 끌면 밭이 이리로 이만큼은 막을 수 있다, 그거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다.)

104001 @ 으.(으.)

104001 #1 막 벰은 헌다게. 게볍게 헤영은 막아지지 안허여. 경허민 버치민 손으로도 앚앙 막곡. 그 섬비질 못허민 손으로 앚앙 막아시네. 버치민. 경혠 살앗저.(아주 무겁기는 한다. 가볍게 해서는 막을 수 있지 않아. 그러면 부치면 손으로도 앉아서 막고. 그 끙게질 못하면 손으로 앉아서 막었어. 부치면. 그렇게 살았어.)

104001 @ 게난 그 섬비질허는 거는 농사지을 때 다 헷엇던 거?(그러니까 그 끙게질하는 거는 농사지을 때 다 했었던 거?)

104001 #1 으, 안 헐 수가 엇다게. 쉐 몰 한 집이는 섬비질 기자 안 막아진 거 손으로 ᄒᆞ쏠 막으민 뒈연에 볼려시네게 볼렷어.(으, 안 할 수가 없다. 소 말 많은 집에는 끙게질 그저 안 막힌 거 손으로 조금 막으면 되어서 밟았어, 밟았어.)

104001 @ 으.(으.)

104001 #1 몰 댓 바리 헤여근에 그자 믄 밧을 볼렷주.(말 댓 마리 해서 그저 모두 밭을 밟았지.)

104002 @ 으. 그 쉐 보면 영 종류가 잇잖아예. 예를 들면 털 색깔이 다른 것들.(으. 그 소 보면서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털 색깔이 다른 것들.)

104002 #1 게. 어럭쉐도 잇고.(그래, 얼룩소도 있고.)

104002 @ 게니까.(그러니까.)

104002 #1 얼룩쉐, 검은쉐, 황쉐 경 노랑쉐. 그추룩 헤근에 쉐 색깔도 막 여러 가지주. 코만 흰 쉐도 잇곡 이 둑지 얼룩베기 잇곡.(얼룩소, 검은소, 황소 그렇게 노랑소. 그처럼 해서 소 색깔도 아주 여러 가지지. 코만 흰 소도 있고 이 어깨 얼룩배기 있고.)

104002 @ 으.(으.)

104002 #1 경허민 얼룩쉐.(그러면 얼룩소.)

104002 @ 어쨋든 얼룩무늬 있으면.(어쨌든 얼룩무늬 있으면.)

104002 #1 으, 얼룩쉐. 그디 얼룩 밧갈쉐[185] 잇지 안허여게. 경허멍 하하.(으, 얼룩소. 거기 얼룩 '밧갈쉐' 있지 않아. 그러면서 하하.)

104002 @ 예, 예.(예, 예.)

104002 #1 얼룩 밧갈쉐 잇지 안허여게. 경허영 곧고, 아무것도 엇인 건 그자 첨 황쉐.(얼룩 '밧갈쉐' 있지 않아. 그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없는 건 그저 참 황소.)

104002 @ 으.(으.)

104002 #1 황밧갈쉐[186], 황밧갈쉐.('황밧갈쉐', '황밧갈쉐'.)

185) '밧갈쉐'는 밭을 가는 힘센 부룩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186) '황밧갈쉐'는 밭을 가는 힘센 황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104002 @ 황밧갈쉐?(‘황밧갈쉐’?)

104002 #1 으.(으.)

104002 @ 어, 좋수다. 이름.(어, 좋습니다. 이름.)

104002 #1 황밧갈쉐.(‘황밧갈쉐.’)

104002 @ 집이 질뤄난 거 어떤 쉐 질뤄낫수과?(집에 길렀던 거 어떤 소 질렀었습니까?)

104002 #1 우린 검은 쉔 안 질롸 봣저. 황밧갈쉐만 질롯주.(우린 검은 소는 안 길러 봤어. ‘황밧갈쉐만’ 길렀지.)

104002 @ 음.(음.)

104003 #1 황밧갈쉐만 질롸근에 첨 듬직헌 거 질롸사 놈의 밧이라도 강 갈아근에 품 받아 오고.(‘황밧갈쉐’만 길러서 참 듬직한 걸 길러야 남의 밭이라도 가서 갈아서 삯 받아 오고.)

104003 @ 음.(음.)

104003 #1 이녁 농서만 지젠 안헤영 놈의 밧도 주로 갈앗저게.(자기 농사만 지으려고 않고 남의 밭도 주로 갈았어.)

104003 @ 음. 겐 하루 강 밧 갈아 주민 얼마나 받아신디?(음. 그래서 하루 가서 밭 갈아 주면 얼마나 받았는지?)

104003 #1 하이고, 이제사이 ᄉᆞ못 ᄒᆞ루 강 일허민 막 무시거 헷주만은 막 장남, 장남이 옛날엔 장남이 보리썰 두 뒈, 보리 ᄒᆞᆫ 말 그추룩 줫저. 보리로.(하이고, 이제야 사뭇 가서 일하면 아주 뭐 했지만 아주 장정, 장정이 옛날엔 장정이 보리쌀 두 되, 보리 한 말 그처럼 줬어. 보리로.)

104003 @ 음.(음.)

104003 #1 경헷주, 무신 돈으로 줘 봐시냐?(그랬지, 무슨 돈으로 줘 봤니?)

104003 @ 그지예.(그렇지요.)

104003 #1 곡석으로 줫주.(곡식으로 줬지.)

104003 @ 곡석으로.(곡식으로.)

104003 #1 아이고, 이젠 나룩쏠 ᄒᆞᆫ 말, 우리 여저 강 일헤도 나룩썰 ᄒᆞᆫ 가마니, 저 ᄒᆞᆫ 푸데 사당 남암시녜. 이제 얼마나 살기 좋아시니게.(아이고, 이젠 볍쌀 한 말, 우리 여자 가서 일해도 볍쌀 한 가마니, 저 한 포대 사다가 남아. 이제 얼마나 살기 좋았니.)

104003 @ 게난예.(그러니까요.)

104003 #1 옛날은 우리 강 허민 조 ᄒᆞᆫ 뒈, 보리 ᄒᆞᆫ 뒈.(옛날은 우리 가서 하면 조 한 되, 보리 한 되.)

104003 @ ᄒᆞ루 종일 일헹?(하루 종일 일해서?)

104003 #1 ᄒᆞ루 종일 일허영. 조 ᄒᆞᆫ 뒈, 보리 ᄒᆞᆫ 뒈. 막 생각헌 집이가 관뒈로 싹싹 쓸엉 두 뒈.(하루 종일 일해서. 조 한 되, 보리 한 되. 많이 생각한 집이 관되로 싹싹 쓸어서 두 되.)

104003 @ 아이고.(아이고.)

104003 #1 겉보리. 것도 쏠 아니, 보리로.(겉보리. 것도 쌀 아니, 보리로.)

104003 @ 보리로.(보리로.)

104003 #1 에이구, 느네 어무니 촌에 살아나시민 알주, 문 알주.(어이구, 너희 어머니 촌에 살았으면 알지, 모두 알지.)

104003 @ 하하하, 문 알주.(하하하, 모두 알지.)

104003 #1 문 알주게. 모른 거 잇어.(모두 알지. 모른 거 있어.)

104002 @ 게난 쉐 이름이, 종류가 털 색깔 다른 것도 잇지만 쉐들 여기 뿔 나잖아예?(그러니까 소 이름이, 종류가 털 색깔 다른 것도 있지만 소들 여기 뿔 나잖아요?)

104002 #1 으.(으.)

104002 @ 뿔 모양에 따라서도 이름이 다릅니까?(뿔 모양에 따라서도 이름이 다릅니까?)

104002 #1 뿔 모냥이 그자 뿔이 영 앞더레 온 거 잇곡, 영 잦아진 거 잇곡 경허민 그 뿔 일름은 안 골아낫저. 난 그건 못 들어낫저.(뿔 모양이 그저 뿔이 이렇게 앞으로 온 거 있고, 이렇게 젖혀진 거 있고 그러면 그 뿔 이름은 안 말했었어. 난 그건 못 들었었어.)

104002 @ 모르고예.(모르고요.)

104002 #1 그건 못 들어낫저, 그자.(그건 못 들었었어, 그저.)

104003 @ 예, 예. 게난 쉐 이용헷엇던 거는 거의 다 밧 가는 용도?(예, 예. 그러니까 소 이용했었던 거는 거의 다 밭 가는 용도?)

104003 #1 어게, 밧 가는 용도로만 헷주게. 경허고 돗걸름 내민, 이 돗걸름 돗통에서 내베사주게, 마당에. 경허민 그레 이제 보리씨 허껑 쉐로 불려시네.(어, 밭 가는 용도로만 했지. 그리고 돼지거름 내면, 이 돼지거름 돼지우리에서 내버려야지, 마당에. 그러면 그리 이제 보리씨 섞어서 소로 밟았어.)

104003 @ 아, 쉐로 불린 거?(아, 소로 밟은 거?)

104003 #1 어게. 사름으로 다 어떵 불리느니. 사름으로도 불르지만은 쉐 잇인 집인 쉐로 불린다게.(어. 사람으로 다 어떻게 밟니. 사람으로도 밟지만 소 있는 집은 소로 밟는다.)

104003 @ 으.(으.)

104003 #1 쉐로 꽁꽁 불령 모도왕 멕에 담앙 그 걸름착[187] 잇나게. 걸름착 옛날은, 줄 놔근에 줄 놩 줄로 저 방석을 만들앗저, 영 방석을 망텡이 줄 망텡이. 경헨 그것더레 담앙 양펜이 저 질메 지와근에, 저 쉐 질메 지왕 그거 시꺼 아장 밧디 강.(소로 꽁꽁 밟아서 모아서 멱에 담아서 그 '걸름착'이 있어. '걸름착' 옛날은, 줄 놔서 줄 놔서 줄로 저 방석을 만들었어, 이렇게 방석을 망태기 줄 망태기. 그래서 그것에 담아서 양편에 저 길마 지워서, 저 소 길마 지워서 그거 실어 가지고 밭에

187) '걸름착'은 거름을 담아 나르는 멱서리를 말한다.

가서.)

104003 @ 으. 망텡이에?(으. 망태기에?)

104003 #1 으, 망텡이 양펜이 시끄민.(으, 망태기 양편에 실으면.)

104003 @ 쉐에 시끈다는 거?(소에 싣는다는 거?)

104003 #1 어게. 쉐에 시껑 가근에. 쉐에 시껑 강. 경혜영 그걸로 거름은 문 시꺼 간다게.(어. 소에 싣고 가서. 소에 싣고 가서. 그래서 그걸로 거름은 모두 실어 간다.)

104003 @ 쉐로?(소로?)

104003 #1 어. 사름으로 얼마나 져 가?(어. 사람으로 얼마나 져 가?)

104003 @ 어쨌든 짐 시꺼 갈 때 써낫고, 밧 갈 때 써낫고.(어쨌든 짐 실어 갈 때 썼었고, 밭 갈 때 썼었고.)

104003 #1 어, 밧 불릴 때 써낫고.(어, 밭 밟을 때 썼었고.)

104003 @ 밧 불리 때 써낫고.(밭 밟을 때 썼었고.)

104003 #1 어게. 원 그거 주로.(어. 원 그거 주로.)

104003 @ 쉐에 영 마차 같은 거 그런 거 안 허지예?(소에 이렇게 마차 같은 거 그런 거 안 하지요?)

104003 #1 구루마도 헌다게.(달구지도 한다.)

104003 @ 구루마도 허고예?(달구지도 하고요?)

104003 #1 구루마 하이고, 우리도 구루마, 아무나 구루마도 못 헷저게. 부제칩이 구루마가 잇어낫주.(달구지 하이고, 우리도 달구지, 아무나 달구지도 못 했어. 부잣집에 달구지가 있었지.)

104003 @ 으, 으.(으, 으.)

104003 #1 경허민 우린 구루마도 막 마지막 헤낫저게. 수못 이런 시상이 어디 시리 수못 첨 자가용 산 건 지꺼지지도 안허주. 구루마 낭 그 쉐에 메왕 시껑 뎅길 때 지꺼정이. 하이고, 요런 시상이 어디 시리 헤낫저게.(그러면 우리는 달구지도 막 마지막 했었어. 사뭇 이런 세상이 어디 있을까 사뭇 참 자가용 산 건 기쁘지도 않지. 달구지 나와서 그 소에 메워서 싣고 다닐 때 기뻐서. 하이고, 이런 세상이 어디 있을까 했었어.)

104003 @ 거 다 정 다녀신디.(거 다 지고 다녔는데.)

104003 #1 하이고, 경혜근에 구루마, 철 구루마[188] 헌다게. 이 쒜 바퀴가 철 구루마. 철 구루마 헷단에 글후젠 고무 난에 고무 구루말[189] 헷주게. 글후제는.(하이고, 그래서 달구지, 철 달구지 한다. 이 쇠 바퀴가 철 달구지, 철 달구지 했다가 그 후엔 고무 나오니까 고무 달구지를 했지. 그 후에는.)

104003 @ 아.(아.)

104003 #1 철 구루마 허단에 것도 아주 옛날이난. 경헨 고무 구루마 나낫저게.

188) '철 구루마'는 바퀴가 쇠로 되어 있는 달구지를 말한다.
189) '고무 구루마'는 바퀴가 고무로 되어 있는 달구지를 말한다.

겡헨 쉐도 막 여러 가지 헷저게. 밧도 불리고 걸름도 불리고 구루마질도 허고 짐도 시껑 뎅기곡. 쉐 오죽 많이, ᄒᆞ썰 허민 쉐 부리듯. 아이고, 쉐 부리듯 부려.(철 구루마 하다가 것도 아주 옛날이니까. 그래서 고무 달구지가 났었어. 그리고 소도 아주 여러 가지 했었어. 밭도 밟고 거름도 밟고 달구지질도 하고 짐도 싣고 다니고. 소 오죽 많이, 조금 하면 소 부리듯. 아이고, 소 부리듯 부려.)

104003 @ 아.(아.)

104003 #1 경 ᄀᆞᆯ아낫저. 막 쉐가 놀지 안허연 부려나난.(그렇게 말했었어. 마구 소가 놀지 않고 부렷었으니까.)

104003 @ 예.(예.)

104003 #1 아이고, 밧갈쉐[190] 부리듯, 경게.(아이고, '밧갈쉐' 부리듯, 그렇게.)

104003 @ 막 일을 시킨다는 얘기?(마구 일을 시킨다는 얘기?)

104003 #1 으, 지치게 일을 허여. 오뉴월에 ᄉᆞ못. 나 밤이 강 그 ᄆᆞ물팟 갈ᄀᆞ렌 헨에이. 낮이쯤 밧 갈 땐 세가 닷 발은 난다게. 밧갈쉐 지쳥, 더웡이 하하하 헌다게. 막 지쳥. 경헨 허는 따문 해 안 올라올 때 갈젠 ᄆᆞ물팟 헐 땐. 해 올라오지 안헌 때 허젠 경헤나시녜게.(으, 지치게 일을 해. 오뉴월에 사뭇. 나 밤에 가서 그 메밀밭 갈았다고 했지. 낮에쯤 밭 갈 때는 혀가 닷 발은 나온다. '밧갈쉐' 지쳐서, 더워서 하하하 한다. 아주 지쳐서. 그렇게 하는 때문 해 안 올라올 때 갈려고 메밀밭 할 때는. 해 올라오지 않을 때 하려고 그랬었어.)

104003 @ 맞수다, 맞수다.(맞습니다, 맞습니다.)

104003 #1 쉐가 오죽 여러 가지 일을 허여. 하이고, 막 밧 불리멍. 사름보단 더 헷저, 쉐. 첨, 안 헌 거 엇어, 쉐가.(소가 오죽 여러 가지 일을 해. 하이고, 마구 밭 밟으면서. 사람보다 더 했어, 소. 참, 안 한 거 없어, 소가.)

104003 @ 게난 가장 중요한 건 밧 가는 거 아니예?(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밭 가는 거 아니요?)

104003 #1 어게. 우선은 밧 가는 거.(어. 우선은 밭 가는 거.)

104004 @ 그럼 밧 갈젠 허민 아까 잠깐 ᄀᆞᆯ아신디 질들어야 뭴 거라예?(그럼 밭 갈려고 하면 아까 잠깐 말했는데 길들어야 될 거지요?)

104004 #1 질들어사. 이 밧갈쉐.(길들어야. 이 '밧갈쉐'.)

104004 @ 게난 어떤 순서로 질들여?(그러니까 어떤 순서로 길들여?)

104004 #1 아이고, 이꺼사게. 사름이 이꺼. 코 꿰여근에, 코 안 꿰민 버친다.(아이고, 이끌어야. 사람이 이끌어. 코 꿰어서, 코 안 꿰면 부친다.)

104004 @ 처음부터 밭에 강 경 이꺼난 거 아니잖아. 뭐 연습시키진 안허고?(처음부터 밭에 가서 그렇게 이끌었던 거 아니잖아. 뭐 연습시키지는 않고?)

104004 #1 연습을 시키레 가는 거주게. 연습을 시키레.(연습을 시키러 가는 거지. 연습을 시키러.)

104004 @ 예.(예.)

190) '밧갈쉐'는 밭을 가는 힘센 부룩소를 가리키는 말이다.

104004 #1 그 밧갈쉐 이제 그 송애기가 커 가면은 코 꿴다게. 코 안 뀌민 버쳐, 코 안 뀌민 버쳐. 겨민 코 뀌여근이 이런 디 우리 쉐석 걸쳥 이껑 가근에 장남은 조롬에 사곡, 잠대 잇주게, 밧 가는 잠대. 잠대 이제도 싯주. 느네 박물관에 가민 밧 가는 거 잇나.(그 '밧갈쉐' 이제 그 송아지가 커 가면 코 꿴다. 코 안 뀌면 부쳐, 코 안 뀌면 부쳐. 그럼 코 뀌여서 이런 데 우리 쇠고삐 걸쳐서 이끌고 가서 장정은 꽁무니에 서고, 쟁기 있지, 밭 가는 쟁기. 쟁기 이제도 있지. 너희 박물관에 가면 밭 가는 거 있어.)

104004 @ 잇수다.(있습니다.)

104004 #1 그런 거 메우주게. 메왕 그자 앞이서 이끄민 멍에 씌왕 이끄민 경헤도 베들락베들락허당도 질들어 놓민 고집 헤여. 질 들어 놓민 헤여. 경헨 막 질들어 근에 익숙어 노면은 지대로 그자. 혼자 밧 갈 수 잇어.(그런 거 메우지. 메워서 그저 앞에서 이끌면 멍에 씌워서 이끌면 그래도 바동바동하다가도 길들어 놓으면 고집 해. 길 들어 놓으면 해. 그래서 마구 길들어서 익숙해 놓으면 자기대로 그저. 혼자 밭 갈 수 있어.)

104004 @ 혼자 할 때쯤이면 쉐 몇 살쯤이면 경 헤여?(혼자 할 때쯤이면 소 몇 살쯤이면 그렇게 해?)

104004 #1 흔 기자 쉐사게 대여섯 설 나 가민 어른 노릇 뒈는 거난.(한 그저 소야 대여섯 살 되어 가면 어른 노릇 되는 거니까.)

104004 @ 아.(아.)

104004 #1 대여섯 나 가민 쉐가 어른 노릇. 막상 산덴 헤도 쉐가 얼마나 사느니게. 경 오래 살진 안헌다게. 옛날은, 이제 첨, 저 도살장에 늙어 가민 감주만은 옛날은 쉐 늙어 가민 잡앙 집이서들 믄 잡앙 먹곡 경.(대여섯 되어 가면 소가 어른 노릇. 막상 산다고 해도 소가 얼마나 사니.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아. 옛날은, 이제 참, 저 도살장에 늙어 가면 가지만 옛날은 소 늙어 가면 잡아서 집에서들 모두 잡아서 먹고 그렇게.)

104004 @ 먹고예?(먹고요?)

104004 #1 으, 집이서 잡앙 먹곡. 쉐 추렴 오죽 옛날에 하영 헤시냐게.(으, 집에서 잡아서 먹고. 소 추렴 오죽 옛날에 많이 했니.)

104004 @ 게난 밧 갈젠 허민 옛날에 잠대 메우고 뒤이 영 이끄는 사름을 뭐렌 골앗수과?(그러니까 밭 갈려고 하면 옛날에 쟁기 메우고 뒤에 이렇게 이끄는 사람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104004 #1 앞이가 사름 이끄는 사름.(앞에가 사람 이끄는 사람.)

104004 @ 아, 앞이 사름.(아, 앞에 사람.)

104004 #1 앞이 사름 이끄곡 뒤엔 저 잠대로 밀리곡.(앞에 사람 이끌고 뒤에는 저 쟁기로 밀리고.)

104004 @ 으.(으.)

104004 #1 밀리곡 겡헤근에 앞이 사름은 아이고 오늘 송애기 ᄀᆞ르치젠 허난 쉐

이끄레 가사. 오늘 쉐 ᄀᆞ르치레 가젠 허민.(밀리고 그래서 앞에 사람은 아이고 오늘 송아지 가르치려고 하니까 소 이끌러 가야. 오늘 소 가르치러 가려고 하면.)

104004 @ 그 이끄는 사람을 장남?(그 이끄는 사람을 장정?)

104004 #1 어게, 장남. 장남이엔 헌다. 밧갈쉐 장남 영. 밧갈쉐 장남.(어, 장정. '장남'이라고 한다. '밧갈쉐' 장정 이렇게. '밧갈쉐' 장정.)

104004 @ 장남이엔 허는 거예?('장남'이라고 하는 거요?)

104004 #1 어, 장남이엔 헤낫저. 밧 가는 사름ᄀᆞ란 장남.(어, '장남'이라고 했었어. 밭 가는 사람보고 장정.)

104004 @ 밧 가는 사람을 장남이렌 헐 거.(밭 가는 사람을 장정이라고 할 거.)

104004 #1 어게.(어.)

104004 @ 예, 예.(예, 예.)

104004 #1 장남이엔 허주.(장정이라고 하지.)

104005 @ 쉐도 우리 나이들 잇잖아예. 한 살, 두 살, 세 살. 근데 그 한 살 때 불르는 일름이 있지 안허과?(소도 우리 나이들 있잖아요. 한 살, 두 살, 세 살. 근데 그 한 살 때 부르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104005 #1 송애기.(송아지.)

104005 @ 송애기. 두 설 때 불르는 일름?(송아지. 두 살 때 부르는 이름?)

104005 #1 두 설 때 불르는 거는 송애기엔 허단 송애기 ᄒᆞ쏠 커 가민 기자 무시거 저 ᄒᆞ썰 일름이 잇저만은 건 튼내지 못허커. 송애기 커 가민 그자.(두 살 때 부르는 거는 송아지라고 하다가 송아지 조금 커 가면 그저 뭐 거 조금 이름이 있지만 거는 기억해 내지 못하겠어. 송아지 커 가면 그저.)

104006 @ 사릅, 나릅 뭐 그런 이름덜 모르쿠과?(사릅, 나릅 뭐 그런 이름들 모르겠습니까?)

104006 #1 모르크라.(모르겠어.)

104006 @ 모르크라. 뒛수다. 뒛수다. 혹시 쟁기에 잠대, 잠대에 영 부분 명칭덜?(모르겠어. 됐습니다. 됐습니다. 혹시 쟁기에 쟁기, 쟁기에 이렇게 부분 명칭들?)

104006 #1 베, 베.('베', 볏)

104006 @ 벳.(볏.)

104006 #1 베, 보섭 그 베에 보섭.(볏, 보습 그 볏에 보습.)

104006 @ 보섭.(보습.)

104006 #1 으. 영 흑 자차지는 건 베. 또 영 돌아지는 건 보섭.(으. 이렇게 흙 젖히는 거 볏. 또 이렇게 달린 건 보습.)

104006 @ 음.(음.)

104006 #1 경헨 메우는 거주.(그렇게 메우는 거지.)

104006 @ 벳이 아니고 베렌 헤난?('벳'이 아니고 '베'라고 했어?)

104006 #1 베, 베. 베렌 헤낫저.('베', 볏. '베'라고 했었어.)

104006 @ 음.(음.)

104006 #1 보섭, 베.(보습, 볏.)

104006 @ 다른 거 이름 알아지는 거 잇수과?(다른 거 이름 아는 거 있습니까?)

104006 #1 다른 거 이름 알아지는 거 무시거 잇느니? 밧 가는 디사 기자 첨 멍에허곡 잠대허곡벳긴 더 앗졍 가느냐게.(다른 거 이름 아는 거 뭐 있니? 밭 가는 데야 그저 첨 멍에하고 쟁기하고밖에 더 가지고 가니.)

104006 @ 으.(으.)

104008 #1 멍에, 잠대주. 원 멍에허고 잠댄 다게 쉐에 똘라강 밧 가는 것이.(멍에, 쟁기지. 원 멍에하고 쟁기는 다 소에 따라가서 밭 가는 것이.)

104008 @ 예.(예.)

104008 #1 멍에 헨에 톡 씌왕 허민 멍에 잘못 멘들아 불민 쉐 야가지 벗어졍 믄 험벅 감고 믄 헌다, 것도. 얼마나 못 젼디느니? 새왓쯤은 ᄉᆞ못 강 갈아 가민 쉐이디 야가지 믄 벗어졍 피가 좔좔 나고 헤낫저.(멍에 해서 톡 씌워서 하면 멍에 잘못 만들어 버리면 소 목 벗겨져 모두 헝겊 감고 모두 한다, 것도. 얼마나 못 견디니? 띠밭쯤은 사뭇 가서 갈아 가면 소 여기 목 벗겨져서 피가 좔좔 나고 했었어.)

104008 @ 음.(음.)

104008 #1 쉐도 얼마나 못 젼디느니. 말ᄀᆞᆯ을 줄 모른 거 뿐이주. 쉐도 잘도 못 젼뎌낫저. 경헤도 이제 쉐가 막 익숙어 노면은 첨 이레 영 ᄃᆞᆼ기면 이펜더레 저레 영 ᄃᆞᆼ기민 기자 그 밧 가는 사름이 조정허멍 쉐 앞더레 가는 거 조정허멍 가시네게.(소도 얼마나 못 견디니. 말할 줄 모른 거 뿐이지. 소도 아주 못 견뎠었어. 그래도 이제 소가 아주 익숙해 놓으면 참 이리 이렇게 당기면 이편으로 저리 이렇게 당기면 그저 그 밭 가는 사람이 조정하면서 소 앞으로 가는 거 조정하면서 갔어.)

104008 @ 으.(으.)

104008 #1 경허민 원 이끄지 안 헤도 익숙어 놓민.(그러면 원 이끌지 않아도 익숙해 놓으면.)

104008 @ 익숙어 놓민예?(익숙해 놓으면요?)

104008 #1 으, 지대로 믄, 믄딱 갈아. 멍에에 강 돌아오고.(으, 자기대로 모두, 모두 갈아. 밭머리에 가서 돌아오고.)

104007 @ 그 밧 갈 때는 잠대 메웡 허는디 쉐에 짐 시끄젠 허민 등에 뭐 메왕 허잖아예?(그 밭 갈 때는 쟁기 메워서 하는데 소에 짐 실으려고 하면 등에 뭐 메워서 하잖아요?)

104007 #1 질메.(길마.)

104007 @ 예.(예.)

104007 #1 질메게. 질메 메와근에게.(길마. 길마 메워서.)

104007 @ 예.(예.)

104007 #1 질메 메왕 망텡이 헹 양펜이 그자 시끄주. 양펜이 멕 시끄곡. 곡석 시끌 때는 이제 멕 안 헤근에 그자, 곡석 시끌 땐 이착 시끄곡 저착 시끄곡. 둘리마주 시끌 때는 ᄀᆞ치 시끄는디 혼자만 시끌 때는 이착 흔 두어 단 시꺼 둰 저착에

강 시끄곡. 혼자 시끌 땐 경. 으, 경헤낫저.(길마 메워서 망태기 해서 양편에 그저 싣지. 양편에 멱 싣고. 곡식 실을 때는 이제 멱 안 해서 그저, 곡식 실을 때는 이쪽 싣고 저쪽 싣고. 둘이 마주 싣을 때는 같이 싣는데 혼자만 실을 때는 이쪽 한 두어 단 실어 두고 저쪽에 가서 싣고. 혼자 실을 때는 그런다. 으, 그랬었어.)

104007 @ 잡아주지 안허민 털어져 부난.(잡아주지 않으면 떨어져 버리니까.)

104007 #1 잡아주지 안허민.(잡아주지 않으면.)

104007 @ 예.(예.)

104007 #1 하영 시꺼 불민 질메가 그 질메가 ᄐᆞ라지주. 게난 거 ᄐᆞ라지지 안 허게 양펜이 사름 잇이민 기자 ᄀᆞ치 시끄곡.(많이 실어 버리면 길마가 그 길마가 비뚤어지지. 그러니까 거 비뚤어지지 않게 양편에 사람 있으면 그저 같이 싣고.)

104007 @ 음.(음.)

104007 #1 경허멍 ᄆᆞᆫ 그 질메로 시꺼 오랏저게.(그러면 모두 그 길마로 실어 왔어.)

104007 @ 음.(음.)

104007 #1 질메로. 구루마 엇인 때사 우리 거 질메로 시꺼 왓주. ᄆᆞᆫ 이 질메로 시꺼왓주. 구루마 엇인 땐. 구루마 시난 첨 이거 어떵헌 거라, 바로 대통령 삶이주.(길마로. 달구지 없을 때야 우리 거 길마로 실어 왔지. 모두 이 길마로 실어왔지, 달구지 없을 때는. 달구지 있으니까 참 이거 어떠한 거야, 바로 대통령 삶이지.)

104007 @ 음.(음.)

104007 #1 구루마 나난.(달구지 있으니까.)

104007 @ 그 질메에도 부분 명칭이 이실 건디 그런 거 알아지쿠과? 우에 부분은 뭐렌 불르고 밑에 부분은 뭐렌 불르고 허는 일름.(그 길마에도 부분 명칭이 있을 건데 그런 거 알겠습니까? 위의 부분은 뭐라고 부르고 밑의 부분은 뭐라고 부르고 하는 이름.)

104007 #1 그런 건 잘 모르켜.(그런 건 잘 모르겠어.)

104007 @ 예, 예.(예, 예.)

104007 #1 우리 그거 무시거 헤나난.(우리 그거 뭐 했었으니까.)

104007 @ 멍에도 마찬가지예?(멍에도 마찬가지요?)

104007 #1 어, 멍에도 마찬가지.(어, 멍에도 마찬가지.)

104009 @ 예, 예. 여기 토평은 목장은 엇어낫수과?(예, 예. 여기 토평은 목장은 없었습니까?)

104009 #1 목장 양근에목장[191].(목장 '양근에목장'.)

104009 @ 무슨 목장?(무슨 목장?)

104009 #1 양근에.('양근에'.)

104009 @ 양근에.('양근에'.)

104009 #1 양근에, 양근에엔 헌다. 넙작지[192].('양근에', '양근에'라고 한다. '넙작

191) '양근에목장'은 서귀포시 토평리에 있는 목장 이름이다.

지'.)

104009 @ 으.(으.)

104009 #1 목장이 솔오름[193]지에 넙작지.(목장이 '솔오름'지에 '넙작지'.)

104009 @ 넙작지랑 양근에?('넙작지'랑 '양근에'?)

104009 #1 양근에는.('양근에'는)

104009 @ 예.(예.)

104009 #1 이 토평[194] 솔오름 막 동짝이고.(이 토평 '솔오름' 아주 동쪽이고.)

104009 @ 예.(예.)

104009 #1 또 넙작지는 솔오름 바로 뒤에가 넙작지엔 헌다. 우리 고사리 꺼끄레 가난 디.(또 '넙작지'는 '솔오름' 바로 뒤가 '넙작지'라고 한다. 우리 고사리 꺾으러 갔던 데.)

104009 @ 게민 거기가 다 토평 지대과?(그럼 거기가 다 토평 지대입니까?)

104009 #1 어게, 우리 토평 지경.(어, 우리 토평 지경.)

104009 @ 으, 토평 지경에.(으, 토평 지경에.)

104009 #1 넙작지는 이 저 위미리[195] 지경도 뒈곡 신효리[196] 지경도 뒈곡. 경 동짝이 양근에 경 뒌다.('넙작지'는 이 저 위미리 지경도 되고 신효리 지경도 되고. 그렇게 동쪽이 '양근에' 그렇게 된다.)

104009 @ 예.(예.)

104009 #1 넙작지는 우리 토평 솔오름 지경이여. 그디만 고사리 거끄레 가 오고.('넙작지'는 우리 토평 '솔오름' 지경이야. 거기만 고사리 꺾으러 갔다 오고.)

104009 @ 솔오름?('솔오름'?)

104009 #1 어게, 솔오름. 아고, 솔오름 우린 원 그디 안 살아보지 안헷저. 매날 그디 솔오름 아래 진술[197]이엔 헌 딘 우리 촐 비레 뎅기는 디.(어, '솔오름'. 아이고, '솔오름' 우린 원 거기 안 살아보지 않았어. 매날 거기 '솔오름' 아래 '진술'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꼴 베러 다니는 데.)

104009 @ 음.(음.)

104009 #1 쉐촐. 쉐촐 나는 디가 진술. 노겡이굴[198], 밧 일름사 오죽 하.(쇠꼴. 쇠꼴 나는 데가 '진술'. '노겡이굴', 밭 이름이야 오죽 많아.)

104009 @ 게민 그 목장 관리는 마을에서 어떵 혜?(그럼 그 목장 관리는 마을에서 어떻게 해?)

104009 #1 마을에서게 임제가 있는 목장덜이주게. 임제가 다 있는 목장이라.(마을에서 임자가 있는 목장들이지. 임자가 다 있는 목장이야.)

---

192) '넙작지'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193) '솔오름'은 서귀포시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194) '토평'은 서귀포시 토평동을 말한다.
195) '위미리'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를 말한다.
196) '신효리'는 서귀포시 신효동을 말한다.
197) '진술'은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198) '노겡이굴'은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104009 @ 마을 공동 목장이 아니고?(마을 공동 목장이 아니고?)

104009 #1 공동 목장이 아니고.(공동 목장이 아니고.)

104009 @ 개인 목장?(개인 목장?)

104009 #1 개인 목장덜 다 기자 ᄒᆞ꼼씩 옛날에 돈 ᄒᆞ꼼씩 주멍 쉐 질루난에 그 목장들을 사시네게.(개인 목장들 다 그저 조금씩 옛날에 돈 조금씩 주면서 소 기르니까 그 목장들을 샀어.)

104009 @ 아.(아.)

104009 #1 경혜영 그 목장덜을 사 놓고 돈 엇인 사름덜은 못 사고. 경허난 이제게 그 옛날 하르방덜 돈 잇엉 목장 사 놓난 이제 ᄉᆞ못 금값 받암시네게.(그래서 그 목장들을 사 놓고 돈 없는 사람들은 못 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할아버지들 돈 있어서 목장 사 놓으니까 이제 사뭇 금값 받고 있어.)

104009 @ 하하하.(하하하.)

104009 #1 중국 사름덜 오란 ᄉᆞ못 팡팡 돈 주난 십 억썩, 이십 억썩 받아시네게.(중국 사람들 와서 사뭇 팡팡 돈 주니까 십 억씩, 이십 억씩 받았어.)

104009 @ 완전 부잔게.(완전 부자네.)

104009 #1 ᄋᆞ게. 그런 사름덜은 부제 됏저게. 우리거치 엇인 사름은, 목장 엇인 사름은 돈 못 받아도.(어. 그런 사람들은 부자 됐어. 우리같이 없는 사람은, 목장 없는 사람은 돈 못 받아도.)

104009 @ 으.(으.)

104009 #1 에구, 옛날 하르방덜게.(어이구, 옛날 할아버지들.)

104009 @ 그 목장에 우리 집 쉐는 못 보내쿠다예. 그 집 쉐들만 거기 강 질루는 거 아니, 놔두는 거 아니?(그 목장에 우리 집 소는 못 보내겠네요. 그 집 소들만 거기 가서 기르는 거 아니, 놔두는 거 아니?)

104009 #1 저, 이제?(저, 이제?)

104009 @ 으.(으.)

104009 #1 이제 쉐덜.(이제 소들.)

104009 @ 아니, 아니. 옛날에.(아니, 아니. 옛날에.)

104009 #1 옛날에 아니. 그 목장을 사면은 우리 엇인 사름은 그 임제신디 그 촐밧을 천 펭이민 천 펭, 이천 펭이민 이천 펭. 이제난 멧 펭, 멧 펭 헴주, 그때는 멧 말지기.(옛날에 아니. 그 목장을 사면 우리 없는 사람은 그 임자에게 그 꼴밭을 천 평이면 천 평, 이천 평이면 이천 평. 이제니까 몇 평, 몇 평 하지, 그때는 몇 마지기.)

104009 @ 예, 멧 말지기.(예, 몇 마지기.)

104009 #1 어, 이제 우리가 멧 말지기만 촐 빌 걸 이제 도렌 허주게.(어, 이제 우리가 몇 마지기만 꼴 벨 걸 이제 달라고 하지.)

104009 @ 음.(음.)

104009 #1 경헨 ᄆᆞᆫ 공동으로 촐은 비여 온다게. 촐은 ᄆᆞᆫ 비여 와.(그래서 모두

공동으로 꼴은 베어 온다. 꼴은 모두 베어 와.)

104009 @ 아, 촐을 공동으로 비여 와마씨?(아, 꼴을 공동으로 베어 와요?)

104009 #1 어. 촐밧은 돈 줭 비진 안. 그자 어딜로 지네, 옛날에사 목장 무사 헤시니게. 촐벳긴 안 헤나난.(어. 꼴밭은 돈 줘서 베진 않는다. 그저 어디로 자기네, 옛날에야 목장 왜 했니. 꼴밖에 안 했었으니까.)

104009 @ 그거 목장 주인안티 돈 주는 거?(그거 목장 주인한테 돈 주는 거?)

104009 #1 돈, 그땐 안 줘 봇저.(돈, 그땐 안 줘 봤어.)

104009 @ 그냥.(그냥.)

104009 #1 기자 우리 빌언. 빌언 비여 왓주. 그냥 고마운 것만 생각헐 거주. 밧임제신디 촐은 빌언. 우리도 쉐 하나 질루젠 허난 그냥 빌엉, 촐밧 빌엉 촐 비여 와 낫저게.(그저 우리 빌려서. 빌려서 베어 왔지. 그냥 고마운 것만 생각할 거지. 밭 임자에게 꼴은 빌려서. 우리도 소 하나 기르려고 하니까 그냥 빌려서, 꼴밭 빌려서 꼴 베어 왔었어.)

104009 @ 돈 안 주고. 고맙다예?(돈 안 주고. 고맙네요?)

104009 #1 어게, 옛날은 다 경헷주게. 경허난에 촐밧덜이 막 하영 산 사름은 혼 오천 펭, 만 펭, 경덜 헹 산 사름은 거 다 무시거 허느니게. 촐 비여 가렌 허주게.(어, 옛날은 다 그랬지. 그러니까 꼴밭들 아주 많이 산 사람은 한 오천 평, 만 평, 그렇게들 해서 산 사람은 거 다 뭐 하니. 꼴 베어 가라고 하지.)

104009 @ 으.(으.)

104009 #1 다 촐 비여 가렌 헌다게.(다 꼴 베어 가라고 한다.)

104009 @ 게민 여기 토평 사름은 쉐를 막 하영 질뤄난 사름은 엇구나?(그럼 여기 토평 사람은 소를 아주 많이 길렀던 사람은 없구나?)

104009 #1 어게. 막 떼로 이제 첨 축사는 안 헤 봇저게.(어. 아주 떼로 이제 참 축사는 안 해 봤어.)

104009 @ 으.(으.)

104009 #1 이녁 부릴 거만 헷주.(자기 부릴 거만 했지.)

104009 @ 거의 다 한 마리?(거의 다 한 마리?)

104009 #1 으, 거의 다 혼 ᄆᆞ리고 다 보통은 농서짓는 사름은 혼 ᄆᆞ리. 경허고 암쉐나 질롕 새끼 나민 혼 서너 ᄆᆞ리, 댓 ᄆᆞ리. 막 하야 댓 ᄆᆞ리 그거주. 저 경 축사론 안 헤 봇저.(으, 거의 다 한 마리고 다 보통은 농사짓는 사람은 한 마리. 그리고 암소나 길러서 새끼 낳으면 한 서너 마리, 댓 마리. 아주 많아야 댓 마리 그거지. 저 그렇게 축사로는 안 해 봤어.)

104009 @ 게난 쉐 질룰 때 겨울에는 영 쉐막에 데려왕 촐 주고 키우지만 봄 나민 방목을 시키잖아예?(그러니까 소 기를 때 겨울에는 이렇게 외양간에 데려와서 꼴 주고 키우지만 봄 되면 방목을 시키잖아요?)

104009 #1 봄 나민게 기자 내놧주게.(봄 되면 그저 내놨지.)

104009 @ 내놓면 그 목장에 보내는 건 아니?(내놓으면 그 목장에 보내는 건 아

니?)

104009 #1 무사 아니라, 그 목장에 감주게.(왜 아니야, 그 목장에 가지.)

104009 @ 그 목장 가는 거.(그 목장 가는 거.)

104009 #1 으, 그 목장에 가민 촐왓, 이제 촐 비잖아.(으, 그 목장에 가면 꼴밭, 이제 꼴 베잖아.)

104009 @ 예.(예.)

104009 #1 그런 밧은 에우주게. 담을 다와.(그런 밭은 에우지. 담을 쌓아.)

104009 @ 으.(으.)

104009 #1 담을 다왕 그런 디 못 가게 허곡 이제 알레러만, 마장[199] 이제 쉐 먹이는 데 쉐 마장, 마장이엔 헤낫저. 옛날에 쉐 마장. 경헨 아래서 멕이주게. 촐 비는 디는 안 가. 그건 키와사주게.(담을 쌓아서 그런 데 못 가게 하고 이제 아래로만, 마장 이제 소 먹이는 데 소 마장, 마장이라고 했었어. 옛날에 소 마장. 그래서 아래서 먹이지. 꼴 베는 데는 안 가. 그건 키워야지.)

104009 @ 게민 그디 올릴 때도 돈 안 내고.(그럼 거기 올릴 때도 돈 안 내고.)

104009 #1 으.(으.)

104009 @ 아고, 목장 주인 완전.(아이고, 목장 주인 완전.)

104009 #1 기자 기냥 멕인다게. 마장 마장 허멍 그냥 멕인다.(그저 그냥 먹인다. 마장 마장 하면서 그냥 먹인다.)

104009 @ 아니, 그럼 그거 헤 주는 값으로 강 일헤 주는 건 아니?(아니, 그럼 그거 해 주는 값으로 가서 일해 주는 건 아니?)

104009 #1 아니.(아니.)

104009 @ 아닌데 그냥 공짜로 다 허렌 헙니까?(아닌데 그냥 공짜로 다 하라고 합니까?)

104009 #1 으, 으.(으, 으.)

104009 @ 개인 땅인데.(개인 땅인데.)

104009 #1 으, 경허난 시청 땅도 잇주만은 시청 땅도 잇긴 잇주만은 그런 디나 저런 디나 그 돈이엔 헌 건 줘 보지 안헷저게.(으, 그러니까 시청 땅도 있지만 시청 땅도 있긴 있지만 그런 데나 저런 데나 그 돈이라고 하는 건 줘 보지 않았어.)

104009 @ 아.(아.)

104009 #1 이제난 임제덜 낭 저추룩덜 헴주. 옛날에사 무신게 임제 신디 엇인디 뭐 강 촐 비당 임제 나민. 우리 만약에 농서지레 가젠 허민 청촐[200] 비레 가주게. 쉐 멕여사 뒷날 밧 갈레 갈 거주. 경허민 강 영 청촐이라도 들어강 비노렌 허민 임제가 촐왓디 비지 말렌 경 헹 곧고.(이제니까 임자들 나서 저처럼들 하지. 옛날에야 무슨 임자 있는지 없는지 뭐 가서 꼴 베다가 임자 나오면. 우리 만약에 농사지으러 가려고 하면 '청촐' 베러 가지. 소 먹어야 뒷날 밭 갈러 갈 거지. 그러면 가서 이렇

199) '마장'은 '마(馬)+ 장(場)'으로 목장을 가리킨다.

200) '청촐'은 아직 새파란 기운이 살아 있는 꼴을 말한다.

게 ‘청촐’이라도 들어가서 벤다고 하면 임자가 꼴밭 베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말하고.)

104009 @ 음.(음.)

104009 #1 경허민 베껏디 나와 마장에 어웍 나는 거 새 나는 거 비영 오랑 쉐 주곡 경헤난. 엇인 사름은.(그러면 밖에 나와 마장에 억새 나는 거 베어 와서 소 주곡 그랬었어. 없는 사람은.)

104009 @ 엇인 사름은.(없는 사람은.)

104009 #1 으, 이녁 촐왓디 잇인 사름은 이녁 촐왓디 강 비영 멕이곡. 그추룩 헨 살앗저게. 게난 이제난 ᄉᆞ못 ᄋᆞ만헌 땅이라도 ᄆᆞᆫ 돈이주. 옛날에사 밧 닮아시냐게.(으, 자기 꼴밭 있는 사람은 자기 꼴밭에 가서 베어서 먹이고. 그처럼 해서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니까 사뭇 이만한 땅이라도 모두 돈이지. 옛날에야 밭 같았니.)

104009 @ 아.(아.)

104009 #1 옛날은 밧 닮지 안헤시네게. 아이고, 이젠 ᄋᆞ만이라도 공게 엇어. 공게 엇다, 이젠.(옛날은 밭 같지 않았어. 아이고, 이젠 요만큼이라도 공것 없어. 공것 없다, 이젠.)

104009 @ 그지예.(그렇지요.)

104009 #1 ᄒᆞᆫ 방울. 중국 사름 오란에 이 솔오름ᄀᆡ장 밋밋[201] 그자 구경헐만헷어.(한 방울. 중국 사람 와서 이 ‘솔오름’까지 ‘밋밋’ 그저 구경할만했어.)

104009 @ 집 짓엇수과?(집 지었습니까?)

104009 #1 어게. 집 짓으고 우리 노인당으로 오렌 헨 우리가 막 하간 거 받아오고 헷저만은이. 그 집 지은 안에이 목욕탕 ᄆᆞᆫ 만들아 놓곡 ᄉᆞ못 하이고.(어. 집 짓고 우리 노인당으로 오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온갖 거 받아 오고 했지만. 그 집 지은 안에 목욕탕 모두 만들어 놓고 사뭇 하이고.)

104009 @ 뭐 호텔처럼 짓어 놘?(뭐 호텔처럼 지어 놨어?)

104009 #1 바로 호텔거치 지고이. 집을 호텔거치 짓지 안허연 틀막틀막틀막 허게 그 아파틀 기자 ᄒᆞᆫ 사름 살 무시거 닮아.(바로 호텔같이 짓고. 집을 호텔같이 짓지 않고 드문드문드문 하게 그 아파트를 그저 한 사람 살 뭐 같아.)

104009 @ 아.(아.)

104009 #1 조근조근조근 밋밋 기자 짓곡.(차근차근차근 ‘밋밋’ 그저 짓고.)

104009 @ 아.(아.)

104009 #1 그 우리 구경시키는 딘 ᄉᆞ못 영화, 영화관 ᄆᆞᆫ 출려 놓고 우리 영화 구경시키고 ᄉᆞ못. 안에 ᄆᆞᆫ 목욕탕, ᄉᆞ못 베라벨 거 ᄆᆞᆫ 헤 놘 원 원. 옛날에 ᄆᆞᆫ 내분, 내분 땅들이 원 원.(그 우리 구경시키는 덴 사뭇 영화, 영화관 모두 차려 놓고 우리 영화 구경시키고 사뭇. 안에 모두 목욕탕, 사뭇 별의별 거 모두 해 놓고 원 원. 옛날에 모두 내버린, 내버린 땅들이 원 원.)

104009 @ 에이구, 삼춘 그거라도 상 놔둘걸 하하.(어이구, 삼촌 그거라도 사서

201) ‘밋밋’은 거침없이 줄곧 나오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놔둘걸 하하.)

104009 #1 입이 굶으난 어느 저르에. 그냥 밥 밥.(입이 굶으니까 어느 겨를에. 그냥 밥 밥.)

104009 @ 예.(예.)

104009 #1 그날 강 버슬어당, 밥이 굶어 놓난 우리 거튼 건 원 어느 저를에.(그날 가서 벌어다가, 밥 굶어 놓으니까 우리 같은 건 원 어느 겨를에.)

104009 @ 예. 그날 버슬엉 그날 먹엉, 아이덜 공부시키고.(예.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104009 #1 으, 첨 아이덜 나 참 아이덜 다섯 개 그거 공부 ᄒᆞ꼼 시키는 체허고 돈 꾸레 안 다녀 본 적 엇다. 나 곤란허게 살앗저게.(으, 참 아이들 나 참 아이들 다섯 개 그거 공부 조금 시키는 체하고 돈 꾸러 안 다녀 본 적 없다. 나 곤란하게 살았어.)

104009 @ 예.(예.)

104009 #1 우리 하르방 아무것도 엇인 하르방 만낭.(우리 할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할아버지 만나서.)

104009 @ 으. 게난 쉐 질루멍 영 생각나는 일 잇수과? 쉐 잊어먹엉 뭐 헷다거나?(으. 그러니까 소 기르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일 없습니까? 소 잃어버리고 뭐 했다거나?)

104009 #1 아이고, 쉐 잊어먹언 우리 저 ᄉᆞ못 코시허멍 저 목장 사는 하르방 빌엉 밤 자멍 춪아오고 헷저.(아이고, 소 잃어버리고 우리 저 사뭇 고사하면서 저 목장 사는 할아버지 빌려서 밤 자면서 찾아오고 했어.)

104009 @ 아이고.(아이고.)

104009 #1 쉐 일어먹엉. 제숙[202] 궝 강 코시허멍.(소 잃어버리고. '제숙' 구워서 가서 고사하면서.)

104009 @ 아, 코시허멍.(아, 고사하면서.)

104009 #1 어, 쉐 나오렌 코시허멍.(어, 소 나오라고 고사하면서.)

104009 @ 어디 숨어 분 거 쉐가? 곱아 분 거?(어디 숨어 버린 거 소가? 숨어 버린 거?)

104009 #1 곱아 불지 아니 헤도 경 코시허민 그날 제수 좋앙 쉐 춪아진덴. 하하하. 경헨 우리 산에 사는 사름 장남, 산에 하르방 빌엉 우리 쉐 일어불어시난 춪아도렌 헤영 곤밥 허고. 옛날에 곤밥이 어디 잇느니?(숨어 버리지 않아도 그렇게 고사하면 그날 재수 좋아서 소 찾을 수 있다고. 하하하. 그래서 우리 산에 사는 사람 장정, 산에 할아버지 빌려서 우리 소 잃어버렸으니까 찾아 달라고 해서 흰밥 하고. 옛날에 흰밥이 어디 있니?)

104009 @ 예.(예.)

104009 #1 그때 산에 가젠 허민 메 헤여 놓고. 생선 궈 놓고 헹 줴영 보내여.

202) '제숙'은 제사상에 올리는 고기를 말하는 것으로 '제육'의 제주어다.

경허민 그 쉐 촞앙 와.(그때 산에 가려고 하면 메 해 놓고. 생선 구워 놓고 해서 쥐어서 보내. 그러면 그 소 찾아서 와.)

104009 @ 촞앙 와.(찾아서 와.)

104009 #1 경헤낫저. 아이고, 경허난이 혼 이틀도 살고 제수 좋민 그날도 촞앙 와낫저만은 우리 생각엔 경헤저라게. 제일 청촐 비레, 청촐 비여당 이제 그 새 멕이곡 허민이 아이고, 기자 읏런 걸 안 헤영 살아 봐시민 허멍.(그랬었어. 아이고, 그러니까 한 이틀도 살고 재수 좋으면 그날도 찾아서 왔었지만 우리 생각엔 그렇더라. 제일 '청촐' 베러, '청촐' 베어다가 이제 그 새 먹이고 하면 아이고, 그저 이런 걸 안 하고 살아 봤으면 하면서.)

104009 @ 음.(음.)

104009 #1 그거 기자 촐 아니 비고 요거 아무것도 아니 헹 못 살 건가? 그 생각헤낫주. 못 젼뎐.(그거 그저 꼴 안 베고 요거 아무것도 안 하고 못 살 건가? 그 생각했었지. 못 견뎠어.)

104009 @ 못 젼뎐.(못 견였어.)

104009 #1 힘들엉, 힘들엉.(힘들어서, 힘들어서.)

104009 @ 촐 헹 대는 게.(꼴 해서 대는 게.)

104009 #1 힘들엉. 기자 펜안히 기자 청촐도 비지 말고 게난 혼 밧갈쉐 이녁 안 질룰 땐 놈, 하르방[203] 군대에 가 불언에 이제 놈의 밧, 놈의 쉐 빌어 허젠 허민 청촐을 비영 가고.(힘들어서. 그저 편안히 그저 '청촐'도 베지 말고 그러니까 한 '밧갈쉐' 자기 안 기를 때는 남, 할아버지 군대에 가 버려서 이제 남의 밭, 남의 소 빌려서 하려고 하면 '청촐'을 베어서 가고.)

104009 @ 예.(예.)

104009 #1 아이고, 그 밧, 빌엉 갈젠 허민. 밧갈쉐 장남 잘 먹어산덴 허멍 때 헤 주젠 허민 막 성가시고 헤낫저게.(아이고, 그 밭, 빌리면서 갈려고 하면. '밧갈쉐' 장정 잘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때 해 주려고 하면 아주 성가시고 했었어.)

104009 @ 밧갈쉐 장남은 저기 집이 남자 어른이 헤난 거 아니?('밧갈쉐' 장정은 저기 집의 남자 어른이 했던 거 아니?)

104009 #1 이녁 엇이민 밧갈쉐 장남 빌어사. 아방[204] 군대에 가 분 때.(자기가 없으면 '밧갈쉐' 장정 빌려야. 아버지 군대에 가 버렸을 때.)

104009 @ 아, 아방 군대 가 분 때?(아, '아버지' 군대 가 버렸을 때?)

104009 #1 으, 군대 가 분 때. 빌젠 허민 밧갈쉐 장남을 빌어사.(으, 군대 가 버렸을 때. 빌리려고 하면 '밧갈쉐' 장정을 빌려야.)

104009 @ 게민 아방 이실 때는 아방이 허고예?(그럼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가 하고요?)

104009 #1 으, 으. 아방이 허곡게. 아방이 허고.(으, 으.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203)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204) '아방'은 표준어의 '아버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하고.)

104009 @ 밧갈쉐 장남을 빌어사.('밧갈쉐' 장정을 빌려야.)

104009 #1 빌어사. 막 하영 빌엉 헤낫저.(빌려야. 아주 많이 빌려서 했었어.)

말 기르기

104011 @ 물도 질뤄낫수과, 물?(말도 길렀었습니까, 말?)

104011 #1 물은 안 질롸낫저.(말은 안 길렀었어.)

104011 @ 물은 안 질롼예. 물은 넘어가고.(말은 안 기르고요. 말은 넘어가고.)

104011 #1 이 토평서 물 질룬 사름 엇어.(이 토평에서 말 기른 사람 없어.)

104011 @ 아, 엇어.(아, 없어.)

104011 #1 으. 물 질루는 사름은 엇다. 이 토평서 흔엇이. 흔, 흔 멧 밧디 잇엇주. 저 섯동네[205]레 흔 멧 밧디 잇엇주. 경 물 질루는 사름 엇나게.(으. 말 기르는 사람은 없다. 이 토평에서 한없이. 한, 한 몇 군데 있었지. 저 '섯동네'에 한 몇 군데 있었지. 그렇게 말 기르는 사람 없어.)

104011 @ 게, 밧 불리젠 헤도 그렇게 물?(그래, 밭 밟으려고 해도 그렇게 말?)

104011 #1 물 밧 불리는 사름덜은게 그 부제덜게. 물도 질루곡 쉐도 질루곡 헌 사름덜 흔 멧 밧디 물 질롸낫저.(말 밭 밟는 사람들은 그 부자들. 말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하는 사람들 한 몇 군데 말 길렀었어.)

104011 @ 으.(으.)

104011 #1 우린 물 안 질뤄 봣저. 쉐 하나만.(우린 말 안 길러 봤어. 소 하나만.)

먹이

104016 @ 게난 쉐 길르멍 먹이 허젠 허민 아까 촐도 헷주만은 다른 먹이덜은 어떤 거 헷수과?(그러니까 소 기르면서 먹이 하려고 하면 아까 꼴도 했지만 다른 먹이들은 어떤 거 했습니까?)

104016 #1 아이고, 쉐도 보게 헤사.(아이고, 소도 보게 해야.)

104016 @ 예.(예.)

104016 #1 쉐도 보게 헤영이 ᄉᆞ못 콩도 숢앙 멕이곡.(소도 보게 해서 사뭇 콩도 삶아서 먹이고.)

104016 @ 으.(으.)

104016 #1 ᄉᆞ못 ᄀᆞ스락 그 ᄉᆞ못 잇인 보리도 헹 멕이곡 쉐도 멕여산덴 허멍 막 쉐 그 촐도 숢앙 막 멕이곡.(사뭇 까끄라기 그 사뭇 있는 보리도 해서 먹이고 소도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마구 소 그 꼴도 삶아서 마구 먹이고.)

104016 @ 아, 촐도 숢앙 멕입니까?(아, 꼴도 삶아서 먹입니까?)

104016 #1 어, 물 꿰왕 ᄉᆞ못 촐도 숢앙 멕이곡 헤낫저게.(어, 물 끓여서 사뭇 꼴도 삶아서 먹이고 했었어.)

---

205) '섯동네'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104016 @ 예.(예.)

104016 #1 그냥 ᄆᆞ른 것만 멕이진 안헌다게.(그냥 마른 것만 먹이지는 않는다.)

104016 @ 술지우젠?(살찌우려고?)

104016 #1 어게, 술 올라사주게.(어, 살 올라와야지.)

104016 @ 올라사.(올라야.)

104016 #1 어, 막 잘 먹어. 경허민 ᄉᆞ못.(어, 아주 잘 먹어. 그러면 사뭇.)

104018 @ 촐 비젠 허민 아까 놈의 밧 빌렁?(꼴 베려고 하면 아까 남의 밭 빌려서?)

104018 #1 어게. 놈의 밧, 촐밧 빌민게 그 밧디 놈 빌엉 강도 비고 이녁만도 비고 경허주게. 경혜영 촐 강 비여 놓민, 아이고, 옛날에사 장갑이 어디 잇느니?(어. 남의 밭, 꼴밭 빌리면 그 밭에 남 빌려서 가서도 베고 자기만도 베고 그랬지. 그래서 꼴 가서 베어 놓으면, 아이고, 옛날에야 장갑이 어디 있니?)

104018 @ 으.(으.)

104018 #1 장갑 안 쪙 맨손에 허당 나 이거 이디 페적 보라. 이디 문착 그차졍 이디 이거 이제.(장갑 안 끼고 맨손에 하다가 나 이거 여기 표적 봐라. 여기 싹둑 잘려서 여기 이거 이제.)

104018 @ 거 촐 비당 헌 거?(거 꼴 베다가 한 거?)

104018 #1 어게. 장갑 안 쪈에.(어. 장갑 안 끼고.)

104018 @ 아이구.(아이고.)

104018 #1 장갑 안 쪈 기자 기냥 비단 보난 이디 호미로 문착 그차젼 요레 동그랑헤나신디 이거 경헤도 이거 페적 이제 잇이네, 이거 페적. 경헤근에 이제 허민 맨손에 그 촐. 장갑이 어디셔게?(장갑 안 끼고 그저 그냥 베다가 보니까 여기 낫으로 싹둑 잘려서 이리 동그랬었는데 이거 그래도 이거 표적 이제 있어, 이거 표적. 그래서 이제 하면 맨손에 그 꼴. 장갑이 어딨어?)

104018 @ 호미로 비엇수과?(낫으로 베었습니까?)

104018 #1 호미로 비엇주게.(낫으로 베었지.)

104018 @ 영 손잡앙 이렇게?(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104018 #1 어게. 이추룩, 이추룩 헹 비주. 경 비영 이제 톡톡톡톡 ᄃᆞ리로 쭉허게 놧단 ᄆᆞ르민 무끄느네.(어. 이처럼, 이처럼 해서 베지. 그렇게 베어서 이제 톡톡톡톡 다리로 쭉 놨다가 마르면 묶어.)

104018 @ 무끌 때는 뭐로 무꺼?(묶을 때는 뭐로 묶어?)

104018 #1 그걸로.(그걸로.)

104018 @ 지께렌 헙니까, 그걸?('지께'라고 합니까, 그걸?)

104018 #1 그걸 께 멘들어근에. 기자 촐은 비민 뚠 께, 어디 새 좋은 거 시민 비여당 시둘룅 께 튼다게. 께 틀민 막 무끔이 쉽주. 경허고 께 틀지 안헤여근에 허젠 헹은 촐 영 비여 놓민 소돌겡이로 벵벵벵벵 허멍 확 언주앙 무끈다게. 경헨 무끄주.(그걸 매끼 만들어서. 그저 꼴은 베면 다른 매끼, 어디 띠 좋은 거 있으면 베

어다가 시들게 해서 매끼 튼다. 매끼 틀면 아주 묶기가 쉽지. 그리고 매끼 틀지 않고 하려고 해서는 꼴 이렇게 베어 놓으면 '소돌겡이'로 뱅뱅뱅뱅 하면서 확 그러모아서 묶는다. 그래서 묶지.)

104018 @ 음. 비여 놩 흔 메칠을 물려야 뒐 거?(음. 베어 놓고 한 며칠을 말려야 될 거?)

104018 #1 아니. 버렁 좋민 뒷날 무꺼.(아니. 볕 좋으면 뒷날 묶어.)

104018 @ 아.(아.)

104018 #1 버렁 좋민, 막 벳, 버렁 나민.(볕 좋으면, 마구 볕, 볕 나면.)

104018 @ 아, 벳 버렁이렌 허여?(아, 볕 '버렁'이라고 해?)

104018 #1 어. ᄇᆞ름 불고 벳 잘 나민 벳 버렁, 옛날은. 하하.(어. 바람 불고 볕 잘 나면 볕 '버렁', 옛날은. 하하.)

104018 @ 아, 벳 버렁.(아, 볕 '버렁'.)

104018 #1 벳 버렁 ᄉᆞ못 실랑실랑허난 낼은 촐 무꺼지켜. 경헤낫저.(볕 '버렁' 사뭇 살랑살랑하니까 내일은 꼴 묶을 수 있겠어. 그랬었어.)

104018 @ 예, 예.(예, 예.)

104018 #1 벳 버렁이 실랑실랑허난 낼은 무꺼지켜.(볕 '버렁'이 살랑살랑하니까 내일은 묶을 수 있겠어.)

104018 @ 게민, 오늘 비여 놩.(그럼, 오늘 베어 놓고.)

104018 #1 으, 오늘 비민 낼 오후엔 무꺼져.(으, 오늘 베면 내일 오후에는 묶을 수 있어.)

104018 @ 무꺼예?(묶어요?)

104018 #1 으, 경 벳 안 낭은 흔 이틀 잇어사.(으, 그렇게 볕 안 나서는 한 이틀 있어야.)

104018 @ 게민 어떵 모앙 날르는 거라?(그럼 어떻게 모아서 나르는 거야?)

104018 #1 아이고, 촐단은 ᄌᆞᆫᄌᆞᆫ허난.(아이고, 꼴단은 가늘디가느니까.)

104018 @ 얼마나 헙니까?(얼마나 합니까?)

104018 #1 막 ᄌᆞᆫ다게. 촐단은 ᄌᆞᆫᄌᆞᆫ허난 픽픽 앗앙 던진다게.(아주 가늘다. 꼴단은 가늘디가느니까 픽픽 가지고 던진다.)

104018 @ 게민 요만이벳기 안 허는 거?(그럼 요만큼밖에 안 하는 거?)

104018 #1 어. 촐단은 줄아.(어. 꼴단은 가늘어.)

104018 @ 아, 이쪽은 작다예?(아, 이쪽은 작네요?)

104018 #1 어, 촐단은 막 ᄌᆞᆫ다게.(어, 꼴단은 아주 가늘다.)

104018 @ 우린 이만큼 헙니다.(우린 이만큼 합니다.)

104018 #1 그건이 이제야 그 무시거 헷주. 옛날은 촐단 경 안 헷저. 줄아사 촐 눌이 ᄉᆞ뭇 이 집만이 눈다게. 쉐 한 집이덜은.(그건 이제야 그 뭐 했지. 옛날은 꼴단 그렇게 안 했어. 가늘어야 꼴가리 사뭇 이 집만큼 가린다. 소 많은 집들은.)

104018 @ 으.(으.)

104018 #1 이 집만은 눌어. 경 홁으민 올려지느냐게. 줄게 기자 혼착 손으로 픽픽 데끼게. 게난 촐단을 줄아낫저게.(이 집만큼은 가려. 그렇게 굵으면 올릴 수 있니. 가늘게 그저 한쪽 손으로 픽픽 던지게. 그러니까 꼴단을 가늘었어.)

104018 @ 경 어떵 옮겨? 뭘로?(그렇게 어떻게 옮겨? 뭐로?)

104019 #1 모도아당 놓주게. 그 밧 안에 모도아당.(모아다가 놓지. 그 밭 안에 모아다가.)

104018 @ 모돠 놩?(모아 놔서?)

104018 #1 어, 믄. 혼착 손에 댓 단썩, 댓 단썩 헹 모다다 놩 눌어.(어, 모두. 한쪽 손에 댓 단씩, 댓 단씩 해서 모아 놔서 가려.)

104018 @ 눌어.(가려.)

104018 #1 경헤영 눌엇단 시꺼 와.(그렇게 눌었다가 실어 와.)

104019 @ 뭐로 시꺼 와?(뭐로 실어 와?)

104019 #1 그 구루마 엇이민 쉐로 시꺼 오고. 구루마 신 사름은 구루마로 시꺼 오고 경 헤시네게.(그 달구지 없으면 소로 실어 오고. 달구지 있는 사람은 달구지로 실어 오고 그렇게 했었어.)

104019 @ 경 집이 왕 다시?(그렇게 집에 와서 다시?)

104019 #1 으, 집이 오랑 또 눌곡. 밧디서 눌고, 그디서 눌고 집이 오랑도 눌고. 얼마나 사름이 애가 썬 살아시니?(으, 집에 와서 또 가리고. 밭에서 가리고, 거기서 가리고 집에 와서도 가리고. 얼마나 사람이 애가 써서 살았니?)

104019 @ 음.(음.)

104019 #1 숨 쉬여 보지 안헷저게, 아이고.(숨 쉬어 보지 않았어, 아이고.)

104019 @ 게난 쉐 한 마리 키웟잖아예? 여기서는, 이 지역에서는 한 바리엔 헙니까? 한 바리가 몇 묶음?(그러니까 소 한 마리 키웠잖아요? 여기서는, 이 지역에서는 한 바리라고 합니까? 한 바리가 몇 묶음?)

104019 #1 쉐 한 마리.(소 한 마리.)

104019 @ 아니, 한 마리 말고.(아니, 한 마리 말고.)

104019 #1 어, 혼 바리, 혼 바리. 멧 바리 그거는 이.(어, 한 바리, 한 바리. 몇 바리 그거는 이.)

104019 @ 멧 뭇?(몇 뭇?)

104019 #1 어, 저 멧 뭇이엔 헌 거는 촐ᄀᆞ라도 멧 뭇이엔 허고 멧 단 허고 헤낫저만은.(어, 저 몇 뭇이라고 하는 거는 꼴보고도 몇 뭇이라고 하고 몇 단 하고 했었지만.)

104019 @ 예.(예.)

104019 #1 쉐도 멧 바리 그추룩 헤낫저게, 옛날은. 바령밧[206], 바령밧. 물 여남은 개, 댓 개 잇어 가민 기자 그 집이 물이 멧 마리 바령밧.(소도 몇 바리 그처럼

206) '바령밧'은 보리를 벤 다음 농사를 한 철 쉬고 거름 대신으로 밤마다 마소 떼를 가두어 놀리는 밭을 말한다.

했었어, 옛날은. ‘바령밧’, ‘바령밧’. 말 여남은 개, 댓 개 이어 가면 그저 그 집에 말이 몇 마리 ‘바령밧’.)

104019 @ 아니, 아니 그 뭇을 멧 뭇 헹 혼 바리 헙니까?(아니, 아니 그 뭇을 몇 뭇 해서 한 바리 합니까?)

104019 #1 아, 촐?(아, 꼴?)

104019 @ 촐, 촐.(꼴, 꼴.)

104019 #1 촐 혼 오십 단, 혼 백 단을 시꺼낫저, 백 단. 촐은 젠젠헌 거, 막 하영 시꺼 건. 경허민 혼 바리, 두 바리. 혼번 시끄는 것이 혼 바리, 두 바리.(꼴 한 오십 단, 한 백 단을 실었었어, 백 단. 꼴은 자잘한 거, 아주 많이 실어 건. 그러면 한 바리, 두 바리. 한번 싣는 것이 한 바리, 두 바리.)

104019 @ 뭐에 시끄는 것이?(뭐에 싣는 것이?)

104019 #1 소에 시끄는 것이 혼 바리, 두 바리.(소에 싣는 것이 한 바리, 두 바리.)

104019 @ 아, 거기에 백 개를 시끈다고마씨?(아, 거기에 백 개를 싣는다고요?)

104019 #1 어, 소에, 소에 마주 영 시꺼근에 허는 것이 혼 바리, 두 바리.(어, 소에, 소에 마주 이렇게 실어서 하는 것이 한 바리, 두 바리.)

104019 @ 그게 백 개?(그게 백 개?)

104019 #1 으, 혼 백 개도 시끄곡 단 큰 건 오십 개도 시끄곡. 그건 크게 족게. 큰 단도 잇고 쯔른 단도 잇고.(으, 한 백 개도 싣고 단 큰 건 오십 개도 싣고. 그건 크게 작게. 큰 단도 있고 짧은 단도 있고.)

104019 @ 게난 쉐 혼 마리 키우젠 허면 촐은, 집이 무끌 때 먹을 만큼은 헤야 잖아예?(그러니까 소 한 마리 키우려고 하면 꼴은, 집에 묶을 때 먹을 만큼은 해야 잖아요?)

104019 #1 그럼.(그럼.)

104019 @ 멧 바리 정도 쉐가 먹읍니까? 한 계절 나젠 허면.(몇 바리 정도 소가 먹습니까? 한 계절 나려고 하면.)

104019 #1 경허젠 허면이 촐은 그때 혼 백 바리, 백 바리 허여사, 백 바리엔 헌 건 쉐에 시끄는 거 백 바리주게.(그러려고 하면 꼴은 그때 한 백 바리, 백 바리 해야, 백 바리라고 하는 건 소에 싣는 거 백 바리지.)

104019 @ 예, 예.(예, 예.)

104019 #1 그 정도 헤사 쉐 한 ᄆᆞ리 저슬에 넘어가실 거여.(그 정도 해야 소 한 마리 겨울에 넘어갔을 거야.)

104019 @ 아.(아.)

104019 #1 멧 백 바리 헌다게. 쉐 한 사름은 멧 백 바리 ᄉᆞ못. 멧 백 바리덜 헴주. 경헨 허는디 우린 쉐 ᄒᆞ나난에 기자, 쉐 ᄒᆞ나난 우린 원 경.(몇 백 바리 한다. 소 한 사람은 몇 백 바리 사뭇. 몇 백 바리들 하지. 그렇게 하는데 우린 소 하나니까 그저, 소 하나니까 우린 원 그렇게.)

104016 @ 여물은 그 촐 말고 다른 것들 아까 촐도 솖앙 주고 콩도.(여물은 그 꼴 말고 다른 것들 아까 꼴도 삶아서 주고 콩도.)

104016 #1 촐도 솖앙 주고 콩 쫄레기도 영 나오민 솖앙 쉐 멕이곡.(꼴도 삶아서 주고 콩 쭉정이 이렇게 나오면 삶아서 소 먹이고.)

104016 @ 어.(어.)

104016 #1 쉐도 잘 먹어사, 잘 먹어사 일허는 따문 촐만 자주 줭 살지 안헌다게. 문 먹을 것도 헹 주주, 쉐도.(소도 잘 먹어야, 잘 먹어야 일하는 때문 꼴만 자주 줘서 살지 않아. 모두 먹을 것도 해서 주지, 소도.)

104016 @ 으.(으.)

104016 #1 황백비라고 황백비도 쉐 이 풍 걸리카 부덴 딸령 멕인다.(황백피라고 황백피도 소 이 풍 걸리까 봐 달여서 먹인다.)

104016 @ 황백비가 뭐라?(황백피가 뭐야?)

104016 #1 황백비는 낭이 잇나게.(황백피는 나무가 있어.)

104016 @ 아.(아.)

104016 #1 그런 낭 벳겨당 원 딸령 쉐 풍, 풍증 잇이카 부덴이, 풍 걸리지 말렌 문 것도 딸령 멕이곡 쉐도.(그런 나무 벗겨다가 원 달여서 소 풍, 풍증 있을까 봐, 풍 걸리지 말라고 모두 것도 달여서 먹이고 소도.)

104016 @ 아고, 하하.(아이고, 하하.)

104016 #1 쉐도 약 헤 줘사주. 어떨 말이니. 이젠 축산이여 뭐여 헤도 이젠 뭐 강아지 하나라도 아파 가민 병원 가지 안허느냐, 그 축산 병원. 옛날은 그런 거 엇인 따문 이녁대로 문 소, 이제 배탈 나도 약 헹 멕이곡.(소도 약 해 줘야지. 어떨 말이니. 이젠 축산이다 뭐다 해도 이젠 뭐 강아지 하나라도 아파 가면 병원 가지 않니, 그 축산 병원. 옛날은 그런 거 없는 때문 자기대로 모두 소, 이제 배탈 나도 약 해서 먹이고.)

104016 @ 아.(아.)

104016 #1 쉐가 배탈 나도 약 헹. 쉐도 아다루[207] 뒐 때가 잇주게.(소가 배탈 나도 약 해서. 소도 '아다루' 될 때가 있지.)

104016 @ 으.(으.)

104016 #1 아다루 뒐 때 잇어놓난 약 문 헹 멕이곡.('아다루' 될 때 있으니까 약 모두 해서 먹이고.)

104016 @ 게난 영 쉐 질루멍 기억나는 거 잇수과? 촐 베멍, 촐 베멍 촐 먹이 헹 오멍.(그러니까 이렇게 소 기르면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꼴 베면서, 꼴 베면서 꼴 먹이 하고 오면서.)

104016 #1 촐 비멍 기억나는 거 무시거라, 기냥 촐 비여다근에 기자 눌어사 ᄆᆞ슴 놓곡. 우리 살아오는 건 기자 촐 문 헤당 눌곡 곡식 문 헤 들이고 헤사 ᄆᆞ슴 놩 ᄒᆞ쏠.(꼴 베면서 기억나는 거 뭐야, 그냥 꼴 베어다가 그저 가려야 마음 놓고. 우리 살

207) '아다루'는 일본어 'あたる'에서 온 말로, 먹은 음식에 체하다는 의미다.

아오는 건 그저 꼴 모두 해다가 가리고 곡식 모두 해 들이고 해야 마음 놔서 조금.)

104016 @ 예.(예.)

104016 #1 기자 감저 믄 파 들이고 경혜영 ᄆᆞ슴 놩 혼 두어 덜 살앙 봄 나민 또 시작이주.(그저 고구마 모두 파 들이고 그래서 마음 놔서 한 두어 달 살아서 봄 되면 또 시작이지.)

104016 @ 아, 촐 허는 게 대개 걱정이긴 걱정이구나.(아, 꼴 하는 게 대개 걱정이긴 걱정이구나.)

104016 #1 게. 팔월에 비 오라 보라. 요보단 걱정이 엇다. 그 촐 비 맞아 나민 소가 먹질 안헌다게.(그래. 팔월에 비 와 봐. 요보단 걱정이 없다. 그 꼴 비 맞고 나면 소가 먹질 않는다.)

104016 @ 아.(아.)

104016 #1 비 안 맞아사이. 비 안 맞앙 벳만 맞아사 파랑헌 게 ᄀᆞ소롱헌 내가 나주. 비 맞아 불민 그 촐은 먹지 안헌다. 게난 우리 그 촐은 불 짇어 벰주. 그 촐은 먹지 안허여. 무시거 보리ᄀᆞ루 놩 혜영 그 이제 비 맞은 촐은 데껴 붐 무시거허고 우리 불 솜음은 아까우민 무시거 서껑이나. 안 줭은 먹도 안허여, 쉐. 쉐도 성케 헤사.(비 안 맞아야. 비 안 맞아서 볕만 맞아야 파란 게 고소한 내가 나지. 비 맞아 버리면 그 꼴은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그 꼴은 불 때 버리지. 그 꼴은 먹지 않아. 뭐 보릿가루 넣어서 해서 그 이제 비 맞은 꼴은 던져 버리기 뭐하고 우리 불 때기는 아까우면 뭐 섞어서나. 안 줘서는 먹지도 않아, 소. 소도 성하게 해야.)

104016 @ 음.(음.)

104016 #1 아이고, 촐 성케 헤당 파랑케 눌엉 그추룩 헷주. 비만 오지 말아사 팔월에 비 오랑은 파이[208]고.(아이고, 꼴 성하게 해다가 파랗게 가려서 그처럼 했지. 비만 오지 말아야 팔월에 비 와서는 실패고.)

104016 @ 아, 비 맞으면.(아, 비 맞으면.)

104016 #1 비만 오지 말아사. 아이고, 촐 성케 허젠 허민이 곡석이나 마찬가지라. 그추룩 걱정헷저. 걱정 안 헤 가난 영 아판.(비만 오지 말아야. 아이고, 꼴 성하게 하려고 하면 곡식이나 마찬가지야. 그처럼 걱정했어. 걱정 안 해 가니까 이렇게 아팠어.)

104016 @ 하하.(하하.)

104016 #1 진짜 촐 설러 불어 문딱 설러 불엉 그자 이제사 그자 첨 살주 허단 보난 하간 디 아판 폐 그착, 간 그착. 나 이추룩 쒜 하영 놩 아이고.(진짜 꼴 그만 둬 버려서 그저 이제야 그저 참 살지 하다가 보니까 온갖 데 아파서 폐 자르고, 간 자르고. 나 이처럼 쇠 많이 넣어서 아이고.)

땔감

104022 @ 이번에는 지들커 헤난 거 물어보쿠다예.(이번에는 땔감 했던 거 물어

208) '파이'는 일본어 'パイ(敗)'에서 온 말로 '망침, 실패'라는 의미다.

보겠습니다.)

104022 #1 가스락낭 허레.(우묵사스레피 하러.)

104022 @ 게민 지들커 헤난 종류가 뭐 뭐 잇수과?(그럼 땔감 했던 종류가 뭐 뭐 있습니까?)

104022 #1 소낭도 끈곡, 소낭은 ᄆᆞᄉᆞ왕 못 끈주게. 산림청에서 오카 부덴이.(소나무도 끊고, 소나무는 무서워서 못 끊지. 산림청에서 올까 봐.)

104022 @ 아.(아.)

104022 #1 산림청 걸리카 부덴 가민 가스락낭 끈엉. 가스락낭 소곱에, 짐 우리 차지 안허민이 짐 안 차 가민 소낭 가지나 탁 끈으민 살림청이나 뎅기카 부덴 ᄆᆞᄉᆞ왕 가스락낭더레 묻어.(산림청 걸릴까 봐 가면 우묵사스레피 끊어. 우묵사스레피 속에, 짐 우리 차지 않으면 짐 안 차 가면 소나무 가지나 탁 끊으면 살림청이나 다닐까 봐 무서워서 우묵사스레피에 묻어.)

104022 @ 으.(으.)

104022 #1 묻엉 이제 그 가스락낭을 헤 오주게. 허민 우리 저 솔오름[209] 우이 가근에 화목이엔 헌 그 옛날은 저 박탈낭이엔 헌 것이 젤 게벼워낫저. 놀차도.(묻어서 이제 그 우묵사스레피를 해 오지. 그럼 우리 저 '솔오름' 위에 가서 화목이라고 하는 그 옛날은 저 박달나무라고 하는 것이 제일 가벼웠었어. 날짜도.)

104022 @ 으.(으.)

104022 #1 박탈낭.(박달나무.)

104022 @ 으.(으.)

104022 #1 알 거여 느네도. 박탈낭이엔 헌 것이 제일 놀낭 중엔 게벼왕. 서이낭이 무겁곡. 경허민 우리 박탈낭 허러 가젠 허민 저 넙작지[210] 솔오름 뒤에 강 아이고 그 낭 지영 내로 넘어 오젠 허민 ᄉᆞ못 애가 썽.(알 거야 너희도. '박탈낭'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생나무 중에는 가벼워서. 서어나무가 무겁고. 그러면 우리 박달나무 하러 가려고 하면 저 '넙작지' '솔오름' 뒤에 가서 아이고 그 나무 지고 내로 넘어오려고 하면 사뭇 애가 써.)

104022 @ 으.(으.)

104022 #1 ᄇᆞ든 디 이 오름에 강 가스락낭 허젠 허민 것도 놈의 밧 아니냐. 이녁 밧 엇이난.(밭은 데 이 오름에 가서 우묵사스레피 하려고 하면 것도 남의 밭 아니냐. 자기 밭 없으니까.)

104022 @ 으.(으.)

104022 #1 놈의 밧디 강 가스락낭 허젠 허민 도둑질로 제기 헤연 나와 베사.(남의 밭에 가서 우묵사스레피 하려고 하면 도둑질로 재게 해서 나와 버려야.)

104022 @ 아, 하하하.(아, 하하하.)

104022 #1 막 제기 헹 나와 베사. 경헨 임제 가 가민 ᄉᆞ못 질레 거 모도우는 척

209) '솔오름'은 서귀포시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210) '넙작지'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허곡. 하이고, 참.(아주 재게 해서 나와 버려야. 그래서 임자 가 가면 사뭇 길에 거 모으는 체하고. 하이고, 참.)

104022 @ 가스락낭이 뭐과?(우묵사스레피가 뭡니까?)

104022 #1 가스레기낭 몰라?(우묵사스레피 몰라?)

104022 @ 예. 그 낭 종류?(예. 그 나무 종류?)

104022 #1 어. 그것ᄀᆞ라 가스레기낭. 어머니ᄀᆞ라 들어보라. 가스레기낭 알아집네겐.(어. 그것보고 우묵사스레피. 어머니보고 물어봐라. 우묵사스레피 알 수 있습니까 하고.)

104022 @ 게민 가스레기낭이렌도 ᄀᆞᆫ고 가스락낭이렌도 ᄀᆞᆫ고?(그럼 '가스레기낭'이라고도 말하고 '가스락낭'이라고도 말하고?)

104022 #1 어게, 가스락낭 기자, 가스락낭이엔도 허고 가스레기낭이엔도 허고.(어, 우묵사스레피 그저, '가스락낭'이라고도 하고 '가스레기낭'이라고도 하고.)

104022 @ 게민.(그럼.)

104022 #1 낭 일름이 볼레낭도 잇고 베라벨 낭이 다 시난에 경허난 기자 우리 지들커 허젠 허민 가스락낭이 더 쉽나게. 그거 닥닥 허당 딱허게 눌엉 놔두민 그자 놀차 몰라. 그거 빠당.(나무 이름이 보리수나무도 있고 별의별 나무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저 우리 땔감 하려고 하면 우묵사스레피가 더 쉬워. 그거 닥닥 해다가 딱하게 가려서 놔두민 그저 날짜 말라. 그거 빼다가.)

104022 @ 그민 아까 소, 소나무 허는 거는, 소낭 하는 거는?(그럼 아까 소, 소나무 하는 거는, 소나무 하는 거는?)

104022 #1 소낭은 아무나 강 못 그친다. 모르게, 우리 모르게.(소나무는 아무나 가서 못 자른다. 모르게, 우리 모르게.)

104022 @ 그니까 그거는 산림청에서 뭐렌 허는데 가스락낭은 뭐렌 안 해?(그러니까 그거는 산림청에서 뭐라고 하는데 우묵사스레피는 뭐라고 안 해?)

104022 #1 으, 가스락낭은 뭐엔 안 혜. 거 지들커로 나니까.(으, 우묵사스레피는 뭐라고 안 해. 거 땔감으로 나니까.)

104022 @ 아.(아.)

104022 #1 건 지들커로 우리가 나난. 잡낭은 아무 말도 엇는디 소낭은 못 그치주게. 산림청에서. 걸려도 벌금. 아이고, 모르게벳기 못 헷저게.(건 땔감으로 우리가 나니까. 잡나무는 아무 말고 없는데 소나무는 못 자르지. 산림청에서. 걸려도 벌금. 아이고, 모르게밖에 못 했어.)

104022 @ 으.(으.)

104022 #1 게난 이녁 오름에 밧 잇인 사름은 이제 소낭을 싱그주게. 우리 그거 우리 권당네 우리 부제로 사는 권당 하나 잇이난 오름에 소낭 강 헤당 ᄉᆞ못 막 시꺼당 눌엇당 겨울에 짇어 가민 ᄂᆞᆷ덜, 동네 사름 불러워헤낫저.(그러니까 자기 오름에 밭 있는 사람은 이제 소나무를 심지. 우리 그거 우리 권당네 우리 부자로 사는 권당 하나 있으니까 오름에 소나무 가서 해다가 사뭇 마구 실어다가 가렸다가 겨울

에 때 가면 남들, 동네 사람 부러워했었어.)

104022 @ 으.(으.)

104022 #1 아이고, 가스락낭 조반 헹 먹어지민 우선 가스락낭 강 흔 짐 강 헤 오라사 감저 쳥 먹곡. 지들커가 것가 그거 문제주게.(아이고, 우묵사스레피 조반 해서 먹으면 우선 우묵사스레피 가서 한 짐 가서 해 와야 고구마 쪄서 먹고. 땔감이 그것이 그거 문제지.)

104022 @ 으, 게민 지들커에 가스락낭도 잇곡 또 다른 거?(으, 그럼 땔감에 우묵사스레피도 있고 또 다른 거?)

104022 #1 가스락낭도 잇고 그디 기자 저베낭도 잇고. 원 원 아무 낭이라도, 복당낭도 잇고. 원 낭 일름이엔 헌 건 기자 서이낭 원 아무 낭이라도 기자 허여 오주게. 소낭만 ᄆᆞ습주.(우묵사스레피도 있고 거기 그저 구슬잣밤나무도 있고. 원 원 아무 나무라도, 예덕나무도 있고. 원 나무 이름이라고 하는 건 그저 서어나무 원 아무 나무라도 그저 해 오지. 소나무만 무섭지.)

104022 @ 게니까 낭 말고는 뭐 걷어 오는 거?(그러니까 나무 말고는 뭐 그러모아 오는 거?)

104024 #1 걷어 오는 거 솔입벳기 더 잇어?(그러모아 오는 거 솔가리밖에 더 있어?)

104024 @ 솔입 걷어당 쓰고예?(솔가리 그러모아다가 쓰고요?)

104024 #1 으, 솔입 걷어단 숨고.(으, 솔가리 그러모아다가 때고.)

104023 @ 똥 줏으레는 안 다녓수과?(똥 주우러는 안 다녔습니까?)

104023 #1 무사 똥 줏으레 안 가느니? 우리 솔오름에 강 소똥 ᄆᆞᆫ 줏고 ᄆᆞᆯ똥 ᄆᆞᆫ 줏고. ᄆᆞᆯ똥은 줏어당 굴묵[211] 짓고.(왜 똥 주우러 안 가니? 우리 '솔오름'에 가서 소똥 모두 줍고 말똥 모두 줍고. 말똥은 주워다가 '굴묵' 때고.)

104023 @ 예, 굴묵 짓고.(예, '굴묵' 때고.)

104023 #1 또 쉐똥은 줏어당 ᄆᆞᆯ리지 못허민 ᄆᆞᆫ 밧디 가근에 ᄉᆞ뭇 ᄀᆞᆯ곡. 쉐똥은 그건 원 원 기본으로 헤낫저게. 쉐똥 ᄆᆞᆯ똥은 줏이레 ᄉᆞ못 기본. 그거 안 허민 살아져시냐게?(또 소똥은 주워다가 말리지 못하면 모두 밭에 가서 사뭇 깔고. 소똥은 그건 원 원 기본으로 했었어. 소똥 말똥은 주우러 사뭇 기본. 그거 안 하면 살 수 있었니?)

104023 @ ᄆᆞᆯ똥은 굴묵 짓는 디 쓰고.(말똥은 '굴묵' 때는 데 쓰고.)

104023 #1 으, 경허민 ᄆᆞᆯ륜 거 경허민 ᄆᆞᆯ똥도 산에 가민 ᄆᆞᆯ륜 거 잇나게.(으, 그러면 말린 거 그러면 말똥도 산에 가면 말린 거 있어.)

104023 @ 으.(으.)

104023 #1 경허민 ᄆᆞᆯ륜 거 허민 그건 기자 굴묵에 앗당 옛날엔 굴묵 헤근에 정지에 허민 기자 비왕 굴묵 짇엉. 구둘 멘도롱허게 허젠 허민게 ᄀᆞ스락도 경헹 ᄀᆞ스락 하영 짇엇주만은 아이고, 솔입 글겡이 헤영 솔입 걷으레 ᄂᆞᆷ의 소낭밧디 강 솔입

211)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걷엄시민 지네 거엔 허멍 못 허게 허고 경헤낫저.(그러면 말린 거 하면 그건 그저 '굴묵'에 가져다가 옛날에는 '굴묵' 해서 부엌에 하면 그저 부어서 '굴묵' 때서. 방 따뜻하게 하려고 하면 까끄라기도 그렇게 까끄라기 많이 땠지만 아이고, 솔가리 갈퀴 해서 솔가리 그러모으러 남의 소나무밭에 가서 솔가리 그러모으고 있으면 자기네 거라고 하면서 못 하게 하고 그랬었어.)

104023 @ 아.(아.)

104024 #1 소낭 임제게.(소나무 임자.)

104024 @ 소낭 임제.(소나무 임자.)

104024 #1 으, 지네 걷어 가켄 경허멍 헤낫저게. 욕도 듣고 하하, 문 욕도 듣고.(으, 자기네 그러모아 가겠다고 그러면서 했었어. 욕도 듣고 하하. 모두 욕도 듣고.)

104024 @ 게민 솔입 걷엉, 솔입 걷으민 영 지영 오젠 허민 어떵혜?(그럼 솔가리 그러모아서, 솔가리 그러모으면 이렇게 지고 오려고 하면 어떡해?)

104024 #1 그 솔입 북북 걷잖아게.(그 솔가리 박박 그러모았잖아.)

104024 @ 뭐로 긁어? 걷어?(뭐로 긁어? 그러모아?)

104024 #1 글겡이. 영헌 거.(갈퀴. 이런 거.)

104024 @ 으, 영헌 거.(으, 이런 거.)

104024 #1 그걸로 강 북북 모도와.(그걸로 가서 박박 모아.)

104024 @ 으.(으.)

104024 #1 마다리 이제 영 옛날 저 어주에 마다리가 잇어 그거 체여, 체여근에 그레 언주와 놩 배로 문 무꺼. 이제 칙으로 문 무껑, 탁탁 무껑.(마대 이제 이렇게 옛날 저 어저귀 마대가 있어. 그거 째어, 째어서 그리 그러모아 놔서 바로 모두 묶어. 이제 칡으로 모두 묶어서, 탁탁 묶어서.)

104024 @ 으.(으.)

104024 #1 흘청 져 와지나게. 그거 무꺼야주.(흘려서 져 올 수 있니. 그거 묶어야지.)

104024 @ 아, 게난 마다리는 가졍 가낫구나?(가, 그러니까 마대는 가지고 갔었구나?)

104024 #1 으. 마다리 옛날, 옛날 그 어주에 마다리, 이 저 감저 담는 것덜 잇어주게. 큰 마다리. 이젠 경 큰 마다리도 엇어.(으. 마대 옛날, 옛날 그 어저귀 마대, 이 저 고구마 담는 것들 있었지. 큰 마대. 이젠 그렇게 큰 마대도 없어.)

104024 @ 그거 무슨 마다리엔 곧는다고?(그거 무슨 마대라고 말한다고?)

104024 #1 어주에 마다리엔 골앗낫저.(어저귀 마대라고 말했었어.)

104024 @ 어주에 마다리?(어저귀 마대?)

104024 #1 으, 옛날엔 어주에 마다리엔 골아낫저. 그것ᄀᆞ라 어주에 마다리 막 커.(으, 옛날엔 어저귀 마대라고 말했었어. 그것보고 어저귀 마대 아주 커.)

104024 @ 어주에가 뭔가?(어저귀가 뭔가?)

104024 #1 몰라. 나 어주에도 몰라. 그자 일름만 어주에 마다리, 어주에 마다리.(몰라. 나 어저귀도 몰라. 그저 이름만 어저귀 마대, 어저귀 마대.)

104024 @ 으.(으.)

104024 #1 겐난 그 마다리가 옛날 원 크게 삼으로 만들앙 짠 마다린가 원. 삼으로 짜난 어주에 마다리엔 헴신디.(그러니까 그 마대가 옛날 원 크게 삼으로 만들어서 짠 마대인가 원. 삼으로 짜니까 어저귀 마대라고 하는지.)

104024 @ 으.(으.)

104024 #1 어주에 마다리, 어주에 마다리.(어저귀 마대, 어저귀 마대.)

104024 @ 게민 마다리 안 가졍 강 거기 낭가지로 영 만들앙.(그럼 마대 안 가지고 가서 거기 나뭇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104024 #1 저 마다리 안 아졍 가민 솔, 저 가스락낭이라도 그착 영 늘언이 끌주게. 경 그레 언주와 놩 영.(저 마대 안 가지고 가면 솔, 저 우묵사스레피라도 잘라서 이렇게 늘려서 깔지. 그렇게 그리 '언주어' 놓고 이렇게.)

104024 @ 무끄는 거라예?(묶는 거지요?)

104024 #1 으, 배로 무꺼. 양펜이 무껑 톡 졍 와. 경헤낫주게.(으, 바로 묶어. 양편에 묶어서 톡 지고 와. 그랬었지.)

104024 @ 으.(으.)

104024 #1 마다리 엇인 때엔. 마다리 엇인 때가 하주.(마대 없을 때에는. 마대 없을 때가 많지.)

104025 @ 나무 하젠 허민 뭐 가졍 갑니까? 낭 허젠 허민.(나무 하려고 하면 뭐 가지고 갑니까? 나무 하려고 하면.)

104025 #1 낭 허젠 허민 옛날에 지게 헷저만은 지게로 난 못 진다. 놈은 지게로 지는디 난 지게 못 지민이.(나무 하려고 하면 옛날에 지게 했지만 지게로 난 못 진다. 남은 지게로 지는데 난 지게 못 지면.)

104025 @ 으.(으.)

104025 #1 기냥 헤근에 기자 지민 등뗑이 누르떠 불엉 옷 벗어 대여 봐도 누르떠 불고 카지고 문 헌다게. 경허민 궹이[212] 엇게시리, 등뗑이레 오는 거 궹이 엇게 헤근에 지영 오곡 헤낫저게. 저 솔오름[213]끄지 강. 아이고, 나 낭 장시도 헤낫수다.(그냥 해서 그저 지면 등때기 눌러 버려서 옷 벗어 대어 봐도 눌러 버리고 타지고 모두 한다. 그러면 '궹이' 없게끔, 등때기에 오는 거 '궹이' 없게 해서 지어 오고 했었어. 저 '솔오름'까지 가서. 아이고, 나 나무 장사도 했었습니다.)

104025 @ 에? 낭 장시를 헤낫어?(에? 나무 장사를 했었어?)

104025 #1 어.(어.)

104025 @ 어떵 낭 장시를 헙니까?(어떻게 나무 장사를 합니까?)

104025 #1 어떵 낭 장시허느니?(어떻게 나무를 장사하니?)

---

212) '궹이'는 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을 말한다.

213) '솔오름'은 서귀포시에 있는 오름 이름이다.

104025 @ 낭헹 왕.(나무해서 와서.)

104025 #1 낭헹 오랑.(나무해서 와서.)

104025 @ 으.(으.)

104025 #1 집이서 이젠 그걸 깨여. 도치로 벌러, 도치로 벌렁.(집에서 이젠 그걸 깨. 도끼로 쪼개, 도끼로 쪼개서.)

104025 @ 아, 큰 낭 헹 오는 거?(아, 큰 나무 해서 오는 거?)

104025 #1 큰 낭 헹 왕, 서이낭 건 잘 깨진다.(큰 나무 해서 와서, 서어나무 건 잘 깨진다.)

104025 @ 서이낭?(서어나무?)

104025 #1 으, 서이낭 ᄀᆞ튼 건이. 서이낭, ᄎᆞ낭.(으, 서어나무 같은 건. 서어나무, 참나무.)

104025 @ 으.(으.)

104025 #1 경허민 서귀포 풀레 가민이 영 등뗑이로 졍 강 낭 삽서, 낭 삽서 허민. 나 낭 장시 오래 헷저.(그러면 서귀포 팔러 가면 이렇게 등때기로 지고 가서 나무 사세요, 나무 사세요 하면. 나 나무 장사 오래 했어.)

104025 @ 아, 낭도 헤당 풀앗수과?(아, 나무도 해다가 팔았습니까?)

104025 #1 어. 낭 장시. 돈 어려우난 어떨 말이니. 낭도 헤당 풀아낫저. 경헌디 낭 장시 나 웃동네[214] 살 때에 나영 낭 장시헤난 사름 이제 혼 멧 사름이주. 나 후 때에 낭 장시 안 헤실 거여. 나 대에 낭 장시헷주. 나 대에 낭 장시헷저.(어. 나무 장사. 돈 어려우니까 어떡할 말이니. 나무도 해다가 팔았었어. 그런데 나무 장사 나 '웃동네' 살 때에 나랑 나무 장사했던 사람 이제 한 몇 사람이지. 나 후 대에 나무 장사 안 했을 거야. 나 대에 나무 장사했지. 나 대에 나무 장사했어.)

104025 @ 아.(아.)

104025 #1 경허난 서귀포 그때엔이 원 솔동산[215]이나 어디나 집이 경 잇이냐게.(그러니까 서귀포 그때에는 원 '솔동산'이나 어디나 집이 그렇게 있니.)

104025 @ 으.(으.)

104025 #1 이제거치 삐작삐작[216] 허지 안 헷지게.(이제같이 '삐작삐작' 하지 안 않았지.)

104025 @ 예.(예.)

104025 #1 골목에 쑥쑥 솔동산 거튼 디 ᄂᆞ려강 기자 속속 들어가사 낭 삽서, 낭 삽서 헤여근에 사낫주. 옛날은 낭도 잘 사. 서귀포 사름덜.(골목에 쑥쑥 '솔동산' 같은 데 내려가서 그저 속속 들어가야 나무 사세요, 나무 사세요 해서 샀었지. 옛날은 나무도 잘 사. 서귀포 사람들.)

104025 @ 게민 그 낭 장시헷을 때가 삼춘 멧 살 때쯤?(그럼 그 나무 장사했을 때가 삼촌 몇 살 때쯤?)

---

214) '웃동네'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215) '솔동산'은 서귀포시 지경 이름의 하나다.

216) '삐작삐작'은 건물 따위가 빈틈없이 많이 들어선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104025 #1 어, 흔 스물댓, 서른 안에.(어, 한 스물댓, 서른 안에.)

104025 @ 그럼 한 육십년대?(그럼 한 육십년대?)

104025 #1 경 뒛저게.(그렇게 됐어.)

104025 @ 아, 그때 낭 장시헤난 거예?(아, 그때 나무 장사했던 거요?)

104025 #1 으, 그때 낭 장시를 헷저게.(으, 그때 나무 장사를 했어.)

104026 @ 혹시 숫도 구워낫수과?(혹시 숯도 구웠었습니까?)

104026 #1 숫은 아니 구워낫주만은 숫 구는 거 봄은 헤낫저만은.(숯은 안 구웠었지만 숯 굽는 거 보기는 했었다만.)

104026 @ 어떵 구웁디까 숫?(어떻게 굽습데까, 숯?)

104026 #1 숫 놀낭 헤영이.(숯 생나무 해서.)

104026 @ 무슨 낭으로 숫은 허는 거라?(무슨 나무로 숯은 하는 거야?)

104026 #1 ᄎᆞ낭이 젤 좋넨 헌다, ᄎᆞ낭숫이.(참나무가 제일 좋다고 한다, 참나무숯이.)

104026 @ 예.(예.)

104026 #1 건 누게ᄀᆞ라 들어보라만은.(건 누구보고 물어보라만.)

104026 @ 예.(예.)

104026 #1 ᄎᆞ낭, 서이낭 경헤근에 그 우선은 ᄎᆞ낭숫을 더 알아줘낫저, 옛날에. ᄎᆞ낭숫을 알아주민. 영 헤근에 낭을 싸. 봉분, 오름 만들아이. 오름 만들앙 이제 돌아가멍 흑을 씌와, 흑을 씌와.(참나무, 서어나무 그래서 그 우선은 참나무숯을 더 알아줬었어, 옛날에. 참나무숯을 알아주면. 이렇게 해서 나무를 쌓아. 봉분, 오름 만들어. 오름 만들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흙을 씌워, 흙을 씌워.)

104026 @ 으.(으.)

104026 #1 경허민 영 이런 어귀 멘들주게. 어귀 멘들앙 이 알로 불을 때여.(그러면 이렇게 이런 어귀 만들지. 어귀 만들어서 이 아래로 불을 때.)

104026 @ 아.(아.)

104026 #1 불 때민 꼿불 안 나주게. 꼿불 나 가민 흑 씌우고, 흑 씌우고 헤영. 숫 묻으는 것이난 숫 묻는 건 봐낫저. 난 안 헤낫저만은. 숫 묻어근에 우리 그 숫도 사 오고. 경헤연 완전 숫이라, ᄉᆞ못 새카망헌 숫.(불 때면 꽃불 안 나지. 꽃불 안 나가면 흙 씌우고, 흙 씌우고 해서. 숯 묻는 것이니까 숯 묻는 건 봤었어. 난 안 했었지만. 숯 묻어서 우리 그 숯도 사 오고. 그래서 완전 숯이야, 사뭇 시꺼먼 숯.)

104026 @ 아.(아.)

104026 #1 그건 우리 낭불[217] 솜아근에 게스미[218] 물 줭 허는 것보다는 멧 곱, 첨 이제 이제 저 숫 풀지 안허느냐게?(그건 우리 '낭불' 때서 숯 물 줘서 하는 것보다는 몇 곱, 참 이제 이제 저 숯 팔지 않니?)

104026 @ 예.(예.)

---

217) '낭불'은 나무를 때어 피운 불을 말한다.

218) '게스미'는 일본어 'げすみ'로, 표준어 '뜬숯'에 해당하는 말이다.

104026 #1 그런 숫 뒈여. 옛날에 숫 장시 숫 장시 헤낫저게.(그런 숯 돼. 옛날에 숯 장사 숯 장사 했었어.)

104026 @ 게난.(그러니까.)

104026 #1 ᄉᆞ못 숫 장시, 숫 장시. 그추룩 헤연 산에 강 숫 묻어근에 풀앙 살곡 헌 사름이 핫주. 우린 첨 그런 거 안 헤여근에 기자 농서지엉 살곡. 낭 지여당. 나낭 장시, ᄂᆞ물 장시도 헤나고.(사뭇 숯 장사, 숯 장사. 그처럼 해서 산에 가서 숯 묻었었고 팔아서 살고 하는 사람 많지. 우린 참 그런 거 안 해서 그저 농사지어서 살고. 나무 지어다가. 나 나무 장사, 나물 장사도 했었고.)

104026 @ ᄂᆞ물 장시도. ᄂᆞ물은 질롸?(나물 장사도. 나물은 길러서?)

104026 #1 어게. ᄂᆞ물 밧디 갈앙게. 밧디 ᄂᆞ물 갈앙 춤ᄂᆞ물[219] 뽑앙 강 풀고. 나 댕우지[220] 장시로 모슬포 가 오고.(어. 나물 밭에 갈아서. 밭에 나물 갈아서 '춤ᄂᆞ물' 뽑아서 가서 팔고. 나 '댕우지' 장사로 모슬포 갔다 오고.)

104026 @ 하하.(하하.)

104026 #1 나 안 헤난 장시 엇다. 살젠 허난 어떵헐 말이니. 밥 먹엉 살젠 허난.(나 안 했던 장사 없다. 살려고 하니까 어떡할 말이니. 밥 먹고 살려고 하니까.)

104026 @ 게민 낭 장시는 나이가 스물 몇, 서른 그때잖아예?(그럼 나무 장사는 나이가 스물 몇, 서른 그때잖아요?)

104026 #1 댕우지 장사는 스물 전이 가진 거 닮다.('댕우지' 장사는 스물 전에 간 거 같다.)

104026 @ 아이고.(아이고.)

104026 #1 나 처녀로 산 때에 처음에 웃둥네[221] 처녀로 살 때에 우리 벗이영 댕우지 이제 산에 저 모슬포 강 풀앙 와낫저.(나 처녀로 살 때에 처음에 '웃동네' 처녀로 살 때에 우리 벗이랑 '댕우지' 이제 사서 저 모슬포 가서 팔아서 왔었어.)

104026 @ 집이 거 딴 게 아니고 놈의 거 산에?(집의 거 딴 게 아니고 남의 거 사서?)

104026 #1 놈의 거 산.(남의 거 사서.)

104026 @ 산.(사서.)

104026 #1 어, 장서로. 장서로 가 왓주. 집이도 댕우지낭[222] 우리 어머니네 집이 ᄒᆞ쏠 친정 어멍네도 댕우지낭이 잇엇저게. 옛날은 댕우지 경 알아줘라게. 이젠 안 알아줘도.(어, 장사로. 장사로 갔다 왔지. 집에도 '댕우지낭' 우리 어머니네 집에 조금 친정 어머니네도 '댕우지낭'이 있었어. 옛날은 '댕우지' 그렇게 알아주더라. 이젠 안 알아줘도.)

104026 @ 음.(음.)

---

219) '춤ᄂᆞ물'은 싹이 나서 오래되지 않은 무 이파리를 말한다.

220) '댕우지'는 귤 비슷하되 거죽이 우툴두툴한 아주 큰 유자의 한 종류다. '댕유자', '당유지', '댕유지'라고 한다.

221) '웃동네'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222) '댕우지낭'은 귤 비슷하되 거죽이 우툴두툴한 아주 큰 유자의 한 종류인 '댕우지' 나무를 가리킨다.

104026 #1 경혜연 댕우지 장서 우리 모슬포 강 밤 자멍 장서헹 오랑, 댕우지 장서 두어 번 헤 봣주.(그래서 '댕우지' 장사 우리 모슬포 가서 밤 자면서 장사해서 와서, '댕우지' 장사 두어 번 해 봤지.)

104026 @ ᄂᆞ물 장서는 언제 헌 거라?(나물 장사는 언제 한 거야?)

104026 #1 ᄂᆞ물 장선 여라 번 헷저. 나 이디 시집온 후제도 헤낫저. ᄂᆞ물 장서는 여러 번 헷주.(나물 장사는 여러 번 했어. 나 여기 시집온 후에도 했었어. 나물 장사는 여러 번 했지.)

104025 @ 게난 영 산에 낭허레를 많이 다녓수다예?(그러니까 이렇게 산에 나무하러 많이 다녔네요?)

104025 #1 하이고, 낭허레 안 강 살아지느냐게?(하이고, 나무하러 안 가서 살 수 있니?)

104025 @ 게난 풀젠 허난.(그러니까 팔려고 하니까.)

104025 #1 어. 풀젠 허난 낭 강 헤여 오라사 그거 꿰영 그거 놀낭 헤 오민 꿰민 영 담 엠더레덜 세우주게. 세우민 물랑 헤뜩헤뜩 물륜다게. 경허민 게벼워 ᄒᆞ썰. 경허민 납작납작 놔근에 지영 강 낭 삽서, 낭 삽서 헤낫저.(어. 팔려고 하니까 나무 가서 해 와야 그거 패서 그거 생나무 해 오면 패면 이렇게 담 옆으로들 세우지. 세우면 말라서 '헤뜩헤뜩' 말린다. 그러면 가벼워 조금. 그러면 납작납작 놔서 지고 가서 나무 사세요, 나무 사세요 했었어.)

104025 @ 게민 그건 삼춘만 헌 거 남자 삼춘이랑 ᄀᆞ치 헌 거?(그럼 그건 삼촌만 한 거 남자 삼촌이랑 같이 한 거?)

104025 #1 아니, 남자 삼춘은 안 가고. 나만.(아니, 남자 삼촌은 안 가고. 나만.)

104025 @ 게민 깨는 거는 누게가 깻수과?(그럼 패는 거는 누가 팼습니까?)

104025 #1 남저도 깨고 나도 깨고. 나도 도치 들르멍 낭 깨져라.(남자도 패고 나도 패고. 나도 도끼 들고 나무 팰 수 있더라.)

104025 @ 아, 도치로.(아, 도끼로.)

104025 #1 으, 도치로 낭 깨져. 옛날에사 다 여자 깻주.(으, 도끼로 나무 팰 수 있어. 옛날에야 다 여자 팼지.)

104025 @ 아.(아.)

104025 #1 여저덜냥으로 깻어.(여자들대로 팼어.)

104025 @ 아, 기과? 낭 깨는 일도?(아, 그렇습니까? 나무 패는 일도?)

104025 #1 으, 여저덜이 다.(으, 여자들이 다.)

104025 @ 남자들 다 뭐 헷어? 밧 가는 거벳기 안 헤신게.(남자들 다 뭐 했어? 밭 가는 거밖에 안 했네.)

104025 #1 남자들은 기자 밧딧일허는 게 주장으로.(남자들은 그저 밭일하는 게 주로.)

104025 @ 아니, 밧딧일도 검질도 안 메고 밧 가는 거벳기 더 헷수과?(아니, 밭일도 김도 안 매고 밭 가는 거밖에 더 했습니까?)

104025 #1 밧 갈고 기자 쎈 일덜은 헤낫주게. 쎈 일덜. 우리 하르방[223]은 못 사난에 난 그추룩 헤근에 뎅기곡 양펜으로 버슬어시네. 초기 산에 가낫저게, 초기 산에.(밭 갈고 그자 센 일들은 했었지. 센 일들. 우리 할아버지는 못 사니까 난 그처럼 해서 다니고 양편으로 벌었어. 버섯 산에 갔었어, 버섯 산에.)

104025 @ 누가?(누가?)

104025 #1 우리.(우리.)

104025 @ 하르방이?(할아버지가?)

104025 #1 으. 초기 산에 강 버슬고 돌 벌르레도 뎅겨나고 안 헌 일 엇다.(으. 버섯 산에 가서 벌고 돌 쪼개러도 다녔었고 안 한 일 없다.)

104025 @ 아, 밖에 강 일헹 돈 벌엉 왓구나.(아, 밖에 가서 일해서 돈 벌어서 왔구나.)

104025 #1 어. 둘이 버슬어사 살주 어떵헨 사느니게. 우린 둘리 버슬엉 살앗저게. 경헨 버슬어당 우린 살곡 헤나난 우리 하르방 이제 둑지 빠지고, 어깨 빠지고 벵신 뒈 불언. 지금 밧 혼 이천 펭 헌 것도 놈 줘벳저게, 허지 못헹.(어. 둘이 벌어야 살지 어떡해서 사니. 우린 둘이 벌어서 살았어. 그렇게 벌다가 우리 살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제 어깨 빠지고, 어깨 빠지고 병신 돼 버렸어. 지금 밭 한 이천 평 한 것도 남 줘 버렸어, 하지 못해서.)

104025 @ 음.(음.)

104025 #1 일 설러 벳저, 이제.(일 그만둬 버렸다, 이제.)

104025 @ 음.(음.)

104025 #1 일 설러 불고 하우스 혼 오백 펭, 저 한라봉 허는 거 기자, 것도 아덜 중국서 오란 막 놈 줘 불렌 헤도 하르방이 우리 밥 굶어 죽어진다. 기자 자파리로 허켜 허멍 혼 오백 펭 하우스 기자.(일 그만둬 버리고 하우스 한 오백 평, 저 한라봉 하는 거 그저, 것도 아들 중국에서 와서 마구 남 줘 버리라고 해도 할아버지가 우리 밥 굶어 죽는다. 그저 장난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한 오백 평 하우스 그저.)

104025 @ 잘허는 거우다.(잘하는 겁니다.)

104025 #1 게난 우리 하르방 기자 그디 강 살암저. 요새 원 그거. 나 손 아판 꼿 못 타난 하르방 꼿 타레.(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저 거기 가서 살고 있어. 요새 원 그거. 나 손 아파서 꽃 못 따니까 할아버지 꽃 따러.)

104025 @ 잘헴수다, 그건.(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104025 #1 자파리헤사주게.(장난해야지.)

104025 @ 게난 그 낭 허레 강 들키, 놈의 낭 헹 감덴 들키기도 허고?(그러니까 그 나무 하러 가서 들키, 남의 나무 해서 간다고 들키기도 하고?)

104025 #1 들켱 돌아나고. 산림 올라왐저 허민 우리 ᄉᆞ못 곱앙 돌아나고.(들켜서 달아나고. 산림 올라온다고 하면 우리 사뭇 숨어서 달아나고.)

104025 @ 곱앙 돌아나고.(숨어서 달아나고.)

---

223)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104025 #1 나데[224]도, 나데엔 헤낫저. 옛날 그 이제 나데. 그 나데 아졍 강 낭 그치당 그거 아졍 듣지 못혜영 그 나데도 일허불엉 ᄉᆞ못 놈의 나데 빌곡. 우리 곱앙 ᄉᆞ못 내창으로 곱앙 돌아뎅기곡 헤낫저게.(‘나데’도, ‘나데’라고 했었어. 옛날 그 이제 ‘나데’. 그 ‘나데’ 가지고 가서 나무 잘라다가 그거 가지고 달리지 못해서 그 ‘나데’도 잃어버려서 사뭇 남의 ‘나데’ 빌리고. 우리 숨어서 사뭇 내로 숨어서 돌아다니고 했었어.)

104025 @ 아.(아.)

104025 #1 산림청 늘 돌아봣저게 그땐게.(산림청 늘 돌아봤어, 그땐.)

104025 @ 아, 돌아봔?(아, 돌아봤어?)

104025 #1 으. 이젠 원 어떵사 허는지 몰라도 그땐이 산림청 아이고, 산림청 올라왐저 허민 ᄆᆞᄉᆞ와낫저게. 산에 강 낭허젠 허민 ᄆᆞᄉᆞ와낫저게. 경허난 새벡이 강 헤영 오곡. 어둑웡 저냑이도 강 헹 오곡. 아이고 낭 지레 시즈근이[225] 뎅겻저. 시즈근허게 나 낭 지레 뎅겻저게.(으. 이제는 원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땐 산림청 아이고, 산림청 올라온다고 하면 무서웠었어. 산에 가서 나무하려고 하면 무서웠었어.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해서 오고. 어두워서 저녁에도 가서 해서 오고. 아이고 나무 지러 ‘시즈근이’ 다녔어. ‘시즈근하게’ 나 나무 지러 다녔었어.)

104025 @ 으.(으.)

104025 #1 낭 장시허젠 허민 낭 욕심 안 헹 어떵 허느니게?(나무 장사하려고 하면 나무 욕심 안 하고 어떻게 하니?)

104025 @ 게난예.(그러니까요.)

104025 #1 강 놀낭 강 헤당. 경허난 나 이추룩 판나 베시녜게.(가서 생나무 가서 해다가. 그러니까 나 이처럼 고장나 버렸어.)

104025 @ 하하.(하하.)

104025 #1 고사리 술레도 일등 헤나고. 이 동네 고사리 술레 나만이 뎅긴 사름 엇다.(고사리 사르러도 일등 했었고. 이 동네 고사리 사르러 나만큼 다닌 사람 없다.)

사냥

104028 @ 으. 사냥도 혹시 헤 봣수과?(으. 사냥도 혹시 해 봤습니까?)

104028 #1 으?(으?)

104029 @ 사냥? 사농? 꿩 잡으레 같은 거?(사냥? 사냥? 꿩 잡으러 같은 거?)

104029 #1 꿩 잡으레 같은 건 안 허여.(꿩 잡으러 같은 건 안 해.)

104029 @ 안 헤 봔예?(안 해 봤어요?)

104029 #1 으.(으.)

104028 @ 여기서 남자 어른도 안 헤 봣잖아예, 사농예?(여기서 남자 어른도 안

224) ‘나데’는 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데 쓰는 연장을 말한다.
225) 여기서 ‘시즈근이’는 빈번하게, 자주의 의미로 쓰였다.

해 봤잖아요, 사냥요?)
104028 #1 으.(으.)
104028 @ 사농이렌 골읍니까?('사농'이라고 말합니까?)
104029 #1 꿩 사농.(꿩 사냥.)
104029 @ 꿩 사농.(꿩 사냥.)
104029 #1 꿩 사농허레 뎅겨.(꿩 사냥하러 다녀.)
104030 @ 노루는?(노루는?)
104030 #1 노루도 안 헤나고.(노루도 안 했었고.)
104030 @ 노루도 안 헤나고?(노루도 안 했었고?)
104030 #1 으.(으.)
104031 @ 지달이도 안 헤나고?(오소리도 안 했었고?)
104031 #1 지달이도 안 헤나고.(오소리도 안 했었고.)
104031 @ 예.(예.)
104031 #1 버슬엉 살젠 허난 그런 거 허레 뎅길 저를도 엇어라.(벌어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 하러 다닐 겨를도 없더라.)
104031 @ 엇언예?(없었어요?)
104031 #1 어. 우린 저르 엇어, 당체. 우선 입에 먹을, 아이덜, 새끼덜 그 무사 이제, 이제랑 헴시면은 나도 멍청이 짓 헷주이.(어. 우린 겨를 없어. 당최. 우선 입에 먹을, 아이들, 새끼들 그 왜 이제, 이제는 하고 있으면 나도 멍청이 짓 했지.)
104031 @ 으.(으.)
104031 #1 베우지 못허난 멍청이주. 두 개만 딱 나건 막아 불 거 아니냐게. 두 개만 나건.(배우지 못하니까 멍청이지. 두 개만 딱 낳건 막아 버릴 거 아니니. 두 개만 낳건.)
104031 @ 아, 하하.(아, 하하.)
104031 #1 두 개만 나건 딱 막아 베시민 이추룩 애쓰진 안허주게. 다섯 갤 나 놓난이 경헤도 하영 지와 벳저만은 다섯 개 나 놓난게 그것들 경헤도 공분 시켜살 거 아니냐이. 공분 시켜사 험 따문 어떵헐 말이니?(두 개만 낳건 딱 막아 버렸으면 이처럼 애쓰지는 않지. 다섯 개를 낳아 놓으니까 그래도 많이 지워 버렸지만 다섯 개 낳아 놓으니까 그것들 그래도 공부는 시켜야 할 거 아니냐. 공부는 시켜야 하는 때문 어떡할 말이니?)
104031 @ 음.(음.)
104031 #1 하르방도 앚앙 안 뒐 거. 나도 앚앙 안 뒐 거. 게나제나 게나제나 헷주. 게난 이젠 벵신 뒈 불언. 벵신 뒛주.(할아버지도 앉아서 안 될 거. 나도 앉아서 안 될 거. 그러나저러나 그러나저러나 했지. 그러니까 이젠 병신 돼 버렸어. 병신 됐지.)

5. 바다일

105001 @ 그 바다에서 하는 일들이 뭐 뭐 잇수꽈?(그 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뭐 뭐 있습니까?)
105001 #3 바당에 뎅기는 거?(바다에 다니는 거?)
105001 @ 예. 바당에서 허는 거.(예. 바다에서 하는 거.)
105001 #3 저기 물망.(저기 모자반.)
105001 @ 예, 물망.(예, 모자반.)
105001 #3 물망, 고지기[226].(모자반, '고지기'.)
105001 @ 으.(으.)
105001 #3 감태.(감태.)
105001 @ 으.(으.)
105001 #3 구제기.(소라.)
105001 @ 으.(으.)
105001 #3 생복.(생복.)
105001 @ 으.(으.)
105001 #3 오분작 그거 잇주게.(오분자기 그거 있지.)
105001 @ 그거 잡는 거예. 물에 들엉 잡는 거?(그거 잡는 거요. 물에 들어서 잡는 거?)
105001 #3 물에 들엉 잡는 거 오분작.(물에 들어서 잡는 거 오분자기.)
105001 @ 으.(으.)
105001 #3 구제기.(소라.)
105001 @ 으.(으.)
105001 #3 생복.(생복.)
105001 @ 으.(으.)
105001 #3 메역.(미역.)
105001 @으.(으.)
105001 #3 감태, 거 뭐 막 여러 가지주게. 그런 거 다.(감태, 거 뭐 아주 여러 가지지. 그런 거 다.)
105002 @ 게난 이 토평[227]에서가 듬북이랑 감태 하는 것도 헤낫수과?(그러니까 이 토평에서가 듬북이랑 감태 하는 것도 했었습니까?)
105002 #3 헤난, 엿날에 헤낫주게. 감태 허는 거, 웨냐허면 그때는 난 어린 때니까.(했었어, 옛날에 했었지. 감태 하는 거, 왜냐하면 그때는 난 어릴 때니까.)
105002 @ 예.(예.)
105002 #3 저 애기 돌멍. 나 막 어린 때 어멍 죽어베신디.(저 아기 돌보면서. 나

226) '고지기'는 모자반의 일종으로 거름으로 사용한다.
227) '토평'은 서귀포시 토평동을 말한다.

아주 어릴 때 어머니 죽어버렸는데.)

105002 @ 으.(으.)

105002 #3 셋어멍네가 물질허난에 엿날에 저기 감태 허연에 영 땅 팡 거 술앙.(둘째 머니네가 물질하니까 옛날에 저기 감태 해서 이렇게 땅 파서 거 살라서.)

105002 @ 으.(으.)

105002 #3 걸로 화약 헹 보내낫주게.(걸로 화약 해서 보냈었지.)

105002 @ 화약 헹 보내?(화약 해서 보내?)

105002 #3 화약. 응, 저 감태로 화약 멩글안.(화약. 응, 저 감태로 화약 만들어서.)

105002 @ 아, 감태 술아 가지고.(아, 감태 살라 가지고.)

105002 #3 응. 술앙 그걸로 화약 멩글앙 보냇어. 제국 때에.(응. 살라서 그걸로 화약 만들어서 보냈어. 제국 때에.)

105002 @ 제국 때에? 게민 이 감태는 작업헐 때 공동으로 작업헷수과?(제국 때에? 그럼 이 감태는 작업할 때 공동으로 작업했습니까?)

105002 #3 공동, 그때 공동으로 작업헷주.(공동, 그때 공동으로 작업했지.)

105002 @ 공동으로 작업헨?(공동으로 작업했어?)

105002 #3 으, 공동으로 저 어부덜이영 이 배로 헤 놓곡. 또 그 깃이로 헤영 져 날라근에 그거 화약 멩글아낫어.(으, 공동으로 저 어부들이랑 이 배로 해 놓고. 또 그 가로 해서 지어 날라서 그거 화약 만들었었어.)

105002 @ 그 화약 만드는 걸 여기서 헨, 아니면 여기선 그 감태만 말령, 물령 보내난 거?(그 화약 만드는 걸 여기서 했어, 아니면 여기서는 그 감태만 말려서, 말려서 보냈던 거?)

105002 #3 으, 아니, 술앙.(으, 아니, 살라서.)

105002 @ 술앙?(살라서?)

105002 #3 땅 영, 땅 영 동글락허게 팡 그디 담앙 술아근에 보내난 거 알아지메. 그건 난 직접 안 헤 보고.(땅 이렇게, 땅 이렇게 동그랗게 파서 거기 담아서 살라서 보냈던 거 알 수 있어. 그건 난 직접 안 해 보고.)

105002 @ 으.(으.)

105002 #3 그땐 난 어린 때난에 저 저 나이 든 어른덜 옛날.(그땐 난 어릴 때니까 저 저 나이 든 어른들 옛날.)

105002 @ 으. 그거는 저기 어린 때 감태 작업헷던 거고예. 저기 삼춘이 커 가지고 삼춘이 결혼하고 나서는 감태 작업?(으. 그거는 저기 어릴 때 감태 작업했던 거고요. 저기 삼촌이 커 가지고 삼촌이 결혼하고 나서는 감태 작업?)

105002 #3 난 감태 작업은 안 헤 보고.(난 감태 작업은 안 해 보고.)

105002 @ 으.(으.)

105002 #3 저기 물망, 고지게엔 헌 거 잇어. 저기 물망보다 더 쎄주게. 영, 고지게엔 헌 거는 팔월에 헤다근에 이 저 망사리[228] 헤영 밀려 오랑 이추룩 ᄌᆞ물앙, 밀

려왕.(저기 모자반, ‘고지기’라고 하는 거 있어. 저기 모자반보다 더 세지. 이렇게, ‘고지기’라고 하는 거는 팔월에 해다가 이 저 ‘망사리’ 해서 밀려와서 이처럼 캐서 밀려와서.)

105002 @ 예.(예.)

105002 #3 거 져다근에 옛날에 돗통 잇주, 돗통.(거 져다가 옛날에 돼지우리 있지, 돼지우리.)

105002 @ 예.(예.)

105002 #3 도새기 질루는 디. 그디 놔근에 걸름헤영 보리 갈민 보리 막 좋고.(돼지 기르는 데. 거기 놔서 거름해서 보리 갈면 보리 아주 좋고.)

105002 @ 아, 고지기 헤당 거 걸름헷엇던 거구나.(아, ‘고지기’ 해다가 거 거름했었던 거구나.)

105002 #3 으, 걸름허고 또 그자 ᄆᆞᆯ망, 보통 ᄆᆞᆯ망 막 질주게. 물싸민 또 이만썩헌 디 탁 어우러진 거 막 그차당 그거 이녁, 이녁만 간 디 망사리에 ᄌᆞ물아당 ᄀᆞᆺ디 오랑 널엇당 ᄆᆞᆯ르민 져다근에 저기 이 엿날에, 지금 고구마 잇지게.(으, 거름하고 또 그저 모자반, 보통 모자반 아주 길지. 물써면 또 이만한 데 탁 어우러진 거 마구 잘라다가 그거 자기, 자기만 간 데 ‘망사리’에 캐다가 가에 와서 널었다가 마르면 져다가 저기 이 옛날에, 지금 고구마 있지.)

105002 @ 으.(으.)

105002 #3 그거.(그거.)

105002 @ 감저, 감저.(고구마, 고구마.)

105002 #3 감저. 고구마 감저. 그거 고랑에 놔근에 싱그민 감저 잘 들고.(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그거 고랑에 놔서 심으면 고구마 잘 들고.)

105002 @ 아.(아.)

105002 #3 또 거 헤 낭 감저 싱거 낭 보리 잘 뒈고.(또 거 하고 나서 고구마 심고 나서 보리 잘 되고.)

105002 @ 보리 잘 뒈고. 예, 예.(보리 잘 되고. 예, 예.)

105002 #3 그거 많이 헤난.(그거 많이 했었어.)

105002 @ 저 듬북도 헤낫수과? 듬북.(저 듬북도 했었습니까? 듬북.)

105002 #3 듬북?(듬북?)

105002 @ 으, 듬북.(으, 듬북.)

105002 #3 듬북이 뭣인고? 듬북은 몰르큰게.(듬북이 뭐인가? 듬북은 모르겠어.)

105003 @ 듬북은 안 헤난?(듬북은 안 했었어?)

105003 #3 듬북이 무시거여만은.(듬북이 무엇이지만.)

105003 @ 저기 보말 하고, 보말은 어떵 잡앗낫수과?(저기 고둥 하고, 고둥은 어떻게 잡았었습니까?)

105003 #3 보말도 하영 잡앗주. 그때는 그땐 나 물질헐 때난 보말 안 잡앗주게.

228) ‘망사리’는 바다에서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고서 담아 넣는, 그물로 엮어 만든 물건을 말한다.

(고둥도 많이 잡았지. 그때는 그땐 나 물질할 때니까 고둥 안 잡았지.)

105003 @ 예.(예.)

105003 #3 그거 구제기 잡곡 또 저 오분작 잡주. 안 잡단 거 설른 후제 아판 설러 부난. 아판 설러 분 후젠 바당에 가민 휘여근에 그것도 잡곡 돌 일렁도 잡곡.(그거 소라 잡고 또 저 오분자기 잡지. 안 잡다가 거 그만둔 후에 아파서 그만둬 버렸어. 아파서 그만둬 버린 후에야 바다에 가면 헤엄쳐서 그것도 잡고 돌 일으켜서도 잡고.)

105003 @ 아. 보말도.(아. 고둥도.)

105003 #3 으, 보말이나 수두리나.(으, 고둥이나 팽이고둥이나.)

105003 @ 수두리나.(팽이고둥이나.)

105003 #3 으.(으.)

105004 @ 수두리도 보말 종류 아니예?(팽이고둥도 고둥 종류 아니요?)

105004 #3 수두리광 보말이 뜰려. 수두리는 영 좁작좁작허[229]고 보말은 까망헹 동글락헹 ᄒᆞ꼼 쫍짝헤도 납작허고 경헤.(팽이고둥과 고둥이 달라. 팽이고둥은 이렇게 '좁작좁작하고' 고둥은 까매서 동그랗고 조금 '쫍작해도' 납작하고 그래.)

105004 @ 으, 게민 보말 종류에는 이름, 이름 알아지는 거 뭐 뭐 잇수과?(으, 그럼 고둥 종류에는 이름, 이름 아는 거 뭐 뭐 있습니까?)

105004 #3 그.(그.)

105004 @ 수두리 있고?(팽이고둥 있고?)

105004 #3 그 수두리, 보말, 춤ᄀᆞ메기[230], 문두닥지[231].(그 팽이고둥, 고둥, '춤ᄀᆞ메기', '문두닥지'.)

105004 @ 문두닥지.('문두닥지'.)

105004 #3 ᄯᅳ시 저 메옹이.(또 저 '메옹이'.)

105004 @ 메옹이.('메옹이'.)

105004 #3 또 저 뭐여 곧지 못허켜게, 그거. 다 곧지 못허큰게. 나 영 못 곧을 때 못 골아.(또 저 뭐 말하지 못하겠어, 그거. 다 말하지 못하겠어. 나 이렇게 못 말할 때 못 말해.)

105004 @ 예, 예.(예, 예.)

105004 #3 튼나민 헤도.(생각나면 해도.)

105005 @ 예, 튼나믄 골아 줍서.(예, 생각나면 말해 주세요.)

105005 #3 못 골으큰게.(못 말하겠어.)

105005 @ 그렇게 보말 종류가 잇고. 깅이, 깅이는 어떵 잡앗수과?(그렇게 고둥 종류가 있고. 게, 게는 어떻게 잡았습니까?)

105005 #3 으?(으?)

---

229) '좁작허다'는 표준어의 '좁다'에 대응한다. 여기서 '좁작좁작허다'는 고둥의 모양이 가늘다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230) '춤ᄀᆞ메기'는 고둥 종류의 하나다.

231) '문두닥지'는 고둥 종류의 하나다.

105005 @ 깅이, 겡이?(‘깅이’, ‘겡이’?)

105005 #3 겡이.(‘겡이’.)

105005 @ 아, 여기 겡이렌 헌 거예.(아, 여기 ‘겡이’라고 한 거요.)

105005 #3 겡이도 산케[232] 잇고 또 저기 그자 보통 겡이 잇고.(게도 ‘산케’ 있고 또 저기 그저 보통 게 있고.)

105005 @ 예.(예.)

105005 #3 또 저 무시거니, 무신 겡이 잇주게. 것도 튼내지 못헤. 저 저 돌켕이[233].(또 저 뭐, 무슨 게가 있지. 것도 생각해 내지 못해. 저 저 ‘돌켕이’.)

105005 @ 아, 돌켕이도 잇고.(‘돌켕이’도 있고.)

105005 #3 으. 돌켕이도 잇고.(으. ‘돌켕이’도 있고.)

105003 @ 게민, 겡이를 잡젠 허민 어떵 잡앗어?(그럼, 게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잡았어?)

105003 #3 겡이 돌 일러근에 돋는 거 심주.(게 돌 일으켜서 달리는 거 잡지.)

105003 @ 하하하.(하하하.)

105003 #3 돋는 거 허민 구덕 아졍 가민 구덕에 물망 놩 잡아사 그 소곱에 들어가주. 경 안허민 둘아나 불어.(달리는 거 하면 바구니 가지고 가면 바구니에 모자반 놔서 잡아야 그 속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달아나 버려.)

105003 @ 아, 둘아나 불어? 물망 갖다 놔서 그 속에 숨엉 잇어, 겡이가예. 맞수다, 맞수다. 아까 겡이 종류는 돌켕이?(아, 달아나 버려? 모자반 가져다 놔서 그 속에 숨어 있어, 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게 종류는 ‘돌켕이’?)

105003 #3 돌켕이.(‘돌켕이’.)

105003 @ 으.(으.)

105003 #3 또 여파리겡이[234].(또 ‘여파리겡이’.)

105003 @ 여파리겡이도 잇고?(‘여파리겡이’도 있고?)

105003 #3 으, 여파리겡이 막 제여.(으, ‘여파리겡이’ 아주 재.)

105003 @ 아.(아.)

105003 #3 제여. 보통 심지 못허여, 여파리겡이는. 게고 또.(재. 보통 잡지 못해, ‘여파리겡이’는. 그리고 또.)

105003 @ 춤겡이?(참게?)

105003 #3 거시기 똥겡이[235]도 잇고.(거시기 ‘똥겡이’도 있고.)

105003 @ 똥겡이 잇고.(‘똥겡이’ 있고.)

105003 #3 으. 또 무신 겡이, 겡이도 막 ᄋᆞ라 개 허난.(으. 또 무슨 게, 게도 아주 여러 개 하니까.)

105003 @ 춤겡이 엇수과, 춤겡이?(참게 없습니까, 참게?)

---

232) ‘산케’는 게 종류의 하나다.
233) ‘돌켕이’는 게 종류의 하나다.
234) ‘여파리겡이’는 게 종류는 하나다.
235) ‘똥겡이’는 게 종류의 하나다.

105003 #3 춤겡이[236]가 보통 그거주게. 겡이가 막 으라 갠디 다 곧지 못허켜.(참게가 보통 그거지. 게가 아주 여러 개인데 다 말하지 못하겠다.)

105003 @ 예, 예.(예, 예.)

105003 #3 또 거시기 산케도 잇주. 저기 거 바당물에서 거는 거 닮아도 이 겡이는 검엉허고 쉬염도 엇고 그런 것도 잇고.(또 거시기 '산케'도 있지. 저기 거 바닷물에서 거는 거 닮아도 그 게도 거멓고 수염도 없고 그런 것도 있고.)

105003 @ 게민 우리 옛날에 영 불 피웡, 횃불 피워 가지고.(그럼 우리 옛날에 이렇게 불 피워서, 횃불 피워 가지고.)

105003 #3 ᄀᆞ메기 잡는 거.('ᄀᆞ메기' 잡는 거.)

105003 @ 예?(예?)

105003 #3 ᄀᆞ메기 잡는 거.('ᄀᆞ메기' 잡는 거.)

105003 @ ᄀᆞ메기 잡는 거?('ᄀᆞ메기' 잡는 거?)

105003 #3 으.(으.)

105003 @ 그거는 밤이 불 피왕?(그거는 밤에 불 피워서?)

105003 #3 으, 밤이. 어둑운 디 영 강 불 들러근에 ᄀᆞ메기 난 거 잡아오주게.(으, 밤에. 어두운 데 이렇게 가서 불 들고 'ᄀᆞ메기' 나온 거 잡아오지.)

105003 @ ᄀᆞ메기?('ᄀᆞ메기'?)

105003 #3 ᄀᆞ메기, 춤ᄀᆞ메기, 보말, 수두리.('ᄀᆞ메기', '춤ᄀᆞ메기', '보말', '수두기'.)

105003 @ 아.(아.)

105003 #3 구제기도 ᄀᆞ디 나민 구제기 ᄀᆞ튼 거 문 잡아오고.(소라도 가에 나오면 소라 같은 거 모두 잡아오고.)

105006 @ ᄀᆞ메기 잡을 때 불 피왕 헤?('ᄀᆞ메기' 잡을 때 불 피워서 해?)

105006 #3 으, 게민 불 싸민 저기 돌에 문 나. 밤이.(으, 그럼 불 켜면 저기 돌에 모두 나와. 밤에.)

105006 @ 으.(으.)

105006 #3 낮이는 기여들고, 물에 기여들고. 밤이는 나오고.(낮에는 기어들고, 물에 기어들고. 밤에는 나오고.)

105006 @ 밤이는 나오고. 게민 그거는 오징에 잡을 때는 안 헷수과?(밤에는 나오고. 그럼 그거는 오징어 잡을 때는 안 했습니까?)

105006 #3 에?(에?)

105006 @ 오징에?(오징어?)

105006 #3 오징에는 배에서 나끄주게. 오징에는 배에서 나끄는 거.(오징어는 배에서 낚지. 오징어는 배에서 낚는 거.)

105006 @ 예, 예.(예, 예.)

---

236) '춤겡이'는 게 종류의 하나다. 등때기가 푸르스름하고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다. 지역에 따라서 '춤깅이', '춤긍이'라고 한다.

105006 #3 저 물꾸럭은 심주. 물꾸럭은 심어.(저 문어는 잡아. 문어는 잡아.)

105006 @ 아, 횃불로?(아, 횃불로?)

105006 #3 물꾸럭은 강 기는 거 심고 고망에 든 거 막 ᄀᆞᆯ겡이로 파냉 심고.(문어는 가서 기는 거 잡고 구멍에 든 거 마구 호미로 파내서 잡고.)

105007 @ 여기 원담[237] 잇지예?(여기 '원담' 있지요?)

105007 #3 으, 원담 잇나. 원담 다우민 저 고기 잡젠덜 ᄆᆞᆫ 허고 멜 든 거 물싸불민 멜 거렁 잡곡.(으, '원담' 있어. '원담' 쌓으면 저 고기 잡으려고들 모두 하고 멸치 든 거 물써 버리면 멸치 떠서 잡고.)

105007 @ 삼춘도 원담에 강 멜 거려낫수과?(삼촌도 '원담'에 가서 멸치 떴었습니까?)

105007 #3 으, 멜도 잡는 거 보고 저기 무스거니 따치 ᄀᆞ튼 거 그런 거 심어낫주게.(으, 멸치도 잡는 거 보고 저기 뭐 독가시치 같은 거 그런 거 잡았었지.)

105007 @ 아, 원담에 따치도 들어낫구나예?(아, '원담' 독가시치도 들었었군요?)

105007 #3 으, 따치도 들곡 저기 무신 궤기니? 저, 저 검은 궤기, 원 ᄀᆞᆫ지, 튼내 짐헤도 ᄀᆞᆫ지 못허켜. 경헌디 원담은 하영 헤낫주. 두린 때 바당가에 우리 살아나고 허난.(으, 독가시치도 들고 저기 무슨 고기니? 저, 저 검은 고기, 원 말하지, 생각날 것 같아도 말하지 못하겠어. 그런데 '원담'은 많이 했었지. 어렸을 때 바닷가에 우리 살았었고 하니까.)

105009 @ 게민 원담에서 멜 들민, 멜 거리레 가젠 허민 어떵 공동으로 갑니까, 개인?(그럼 '원담'에서 멸치 들면, 멸치 뜨러 가려고 하면 어떻게 공동으로 갑니까, 개인?)

105009 #3 아니, 개인이로덜. 공동이로 다와 논 거는 헤 놩덜 이녁만썩덜 거려 앗고.(아니, 개인으로들. 공동으로 쌓아 놓은 거는 해 놓고 자기만큼씩 떠 가지고.)

105009 @ 예.(예.)

105009 #3 이 저 검은여[238] 바당가에, 검은여주게. 이 토평 바당 저 아래 가면 저 오롬젱이[239]엔 헌 디 잇어. 지금 호텔 동녘짝인디 이 돌로 다와진, 돌로 멘들아진 ****가 잇주게.(이 저 '검은여' 바닷가에, '검은여'지. 이 토평 바다 저 아래 가면 저 '오롬젱이'라고 하는 데 있어. 지금 호텔 동쪽인데 이 돌로 쌓인, 돌로 만들어진 ****가 있지.)

105009 @ 예, 예.(예, 예.)

105009 #3 그디 들민 동글랑헌 사둘 멘글아근에 막 다울리멍 그디 디물앙덜 멧 짐썩 잡아 오곡 헷주.(거기 들면 동그란 사둘 만들어서 마구 쫓으면서 거기 들이밀어서들 몇 짐씩 잡아 오고 했지.)

105009 @ 게민 그건 공동으로 가는 건게예?(그럼 그건 공동으로 가는 거네요?)

---

237) '원담'은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이다. '갯담'이라고도 한다.

238) '검은여'는 서귀포시 토평동 앞바다에 있는 여 이름이다.

239) '오롬젱이'는 서귀포시 토평동의 바다 이름의 하나다.

105009 #3 아, 공동으로 아니. 게난 그것도 이녁 사둘, 사둘 동글랑허게 멩글아 가근에 들이밀어근에 잡으민 하영 잡아 오주게. 그디 허는 사름덜 ᄒᆞ꼼썩 줘 둬근에.(아, 공동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사둘, 사둘 동그랗게 만들어 가서 들이밀어서 잡으면 많이 잡아 오지. 거기 하는 사람들 조금씩 줘 두고.)

105009 @ 아.(아.)

105009 #3 막 ᄒᆞᆫ 여남은 개썩 잡아.(아주 한 여남은 개씩 잡아.)

105009 @ 게난 그거 혼자 강 못 헐 거 아니?(그러니까 그거 혼자 가야 못 할 거 아니?)

105009 #3 으?(으?)

105009 @ 혼자는 가가지고 못 헐 거잖아. ᄀᆞ치 강 헐 거잖아?(혼자는 가서 못 할 거잖아. 같이 가서 할 거잖아?)

105009 #3 ᄒᆞᆫ디 강 그거 ᄒᆞᆫ디 강. 뎃따이[240]도 안허고 아무것도 안 허민 못 허주게. 지픈 디, 동글락헌 디 가근에 그 물싸 가민 막 들이밀어근에 거리민 허는 따문에. 보통으론 못 허여.(같이 가서 그거 같이 가서. 돕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못 하지. 깊은 데, 동그란 데 가서 물써 가면 마구 들이밀어서 뜨면 하는 때문에. 보통으로는 못 해.)

105009 @ 보통으론 못 허여.(보통으론 못 해.)

105009 #3 으. ᄒᆞ는 사름신디 강 비나, 주나 경 헤사주.(으. 하는 사람에게 가서 빌리거나, 주거나 그렇게 해야지.)

105009 @ 뭘 빌어? 사람을 빌엉 가는 거?(뭘 빌려? 사람을 빌려서 가는 거?)

105009 #3 아니, 멜.(아니, 멸치.)

105009 @ 아, 멜.(아, 멸치.)

105009 #3 멜 사둘로 하영 잡아도. 주는 거 빌어 오주.(멸치 사둘로 많이 잡아도. 주는 거 빌려 오지.)

105009 @ 게민 원담 쌓아 가지고?(그럼 '원담' 쌓아 가지고?)

105009 #3 원담에는 하영 못 허고. 물싸 불민 쪼금 허고 기자 히지렁헌 거 든 거 ᄒᆞ나썩 잡주.('원담'에는 많이 못 하고. 물써 버리면 조금 하고 그저 어지러운 거 든 거 하나씩 잡지.)

105009 @ 예. 원담에서 하영 못허고?(예. '원담'에서 많이 못하고?)

105009 #3 으.(으.)

105009 @ 토평은 원담 막 하지 않앗수과?(토평은 '원담' 아주 많지 않았습니까?)

105009 #3 원담은 두어 밧디 다와낫주만은 경 하영 못 헤여.('원담'은 두어 군데 쌓았지만 그렇게 많이 못 해.)

105009 @ 경 하영 못 허여? 게민 사둘 들렁 가는 건 원담에서 허는 거 아니?(그렇게 많이 못 해? 그럼 사둘 들고 가는 건 '원담'에서 하는 거 아니?)

240) '뎃따이'는 일본어 'てつだい'에서 온 말로, '도움'이라는 의미다.

105009 #3 그거는 통에.(그거는 통에.)

105009 @ 통에.(통에.)

105009 #3 통에, 막 큰 통이 잇어. 저 검은여 가믄 오롬젱이렌 헌 디. 지냥으로[241] 생겨진 통이 잇주게.(통에, 아주 큰 통이 있어. 저 '검은여' 가면 '오롬젱이'라고 하는 데. 저절로 생긴 통이 있지.)

105009 @ 아.(아.)

105009 #3 민물 내리고 바당물 막 ᄂᆞ려가 불민 거 어떵 멜 들어오면은 다 다울리멍 거리는 거.(민물 내리고 바닷물 마구 내려가 버리면 거 어떻게 멸치 들어오면 다 쫓으면서 뜨는 거.)

105009 @ 아, 그거는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지냥으로 생긴 거?(아, 그거는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자기대로 생긴 거?)

105009 #3 지냥으로 생긴 통이 잇어.(자기대로 생긴 통이 있어.)

105009 @ 예.(예.)

105009 #3 경헌 딜로 거리는 거.(그런 데로 뜨는 거.)

105009 @ 그거 검은여예?(그거 '검은여'요?)

105009 #3 으, 검은여이 저 오롬젱이엔 헌 디 잇어, 오롬젱이.(으, '검은여'이 저 '오롬젱이'라고 하는 데 있어, '오롬젱이'.)

105009 @ 멜은 경헨 사둘로 거리민 거려지는 거라?(멸치는 그래서 사둘로 뜨면 뜰 수 있는 거야?)

105009 #3 거리주, 거리민 멧 집이서 거리주, 거릴 때는.(뜨지, 뜨면 몇 집에서 뜨지, 뜰 때는.)

105009 @ 아, 멧 집이서 거려.(아, 몇 집에서 떠.)

105009 #3 엇인 때는 못 거리고 신 때, 막 그땐 하영 거려.(없을 때는 못 뜨고 있을 때, 아주 그땐 많이 떠.)

105009 @ 으.(으.)

105009 #3 ᄋᆞ라 번, 혼번 들이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들이쳥 거리고, 들이쳥 또 거리고 경허주게.(여러 번, 한번 들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들어뜨려서 뜨고, 들어뜨려서 또 뜨고 그러지.)

105009 @ 그 원담에 멜 거리레 가젠 허민 뭐 들렁 갑니까?(그 '원담'에 멸치 뜨러 가려고 하면 뭐 들고 갑니까?)

105009 #3 뭐 들렁 가, 구덕덜 들렁 감주.(뭐 들고 가, 바구니들 들고 가지.)

105009 @ 으.(으.)

105009 #3 원담에는 구덕허고 무신 거 째끄만헌 거. 뭐 구덕이로 강 거림도 허고 허는디.('원담'에는 바구니하고 무슨 거 자그마한 거. 뭐 바구니로 가서 뜨기도 하고 하는데.)

105009 @ 족바데?(뜰채?)

---

241) '지냥으로'는 '지(자기)+냥으로(대로)'로 '자기대로'의 의미인데 여기서는 '저절로'의 의미로 쓰였다.

105009 #3 으?(으?)

105009 @ 족바지.(뜰채.)

105009 #3 으, 무시거 헹 족을 걸로 거리는 따문에 저 원담에서는 거시기 많이 못 거려. 기자 히여뜩헌 거 ᄒᆞ꼼 줏음벳긴.(으, 뭐 해서 작은 거로 뜨는 때문에 저 '원담'에서는 거시기 많이 못 떠. 그저 어지러운 거 조금 줍기밖에는.)

105009 @ 으.(으.)

105009 #3 제라허게 통 멘들아진 디 이추룩, 이 이 저기, 이 삼방만 큰 통이 잇어. 검은여엔 헌 디 오롬젱이엔 헌 디 그디 가민 지냥으로 만들어진 둥글랑헌 통이 잇주게. 그디서 거려.(제대로 통 만들어진 데 이처럼, 이 이 저기, 이 마루만 큰 통이 있어. '검은여'라고 하는 데 '오롬젱이'라고 하는 데 거기 가면 자기대로 만들어지 동그란 통이 있어. 거기서 떠서.)

105009 @ 으, 그디는 사름덜이 만든 게 아니라?(으, 거기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야?)

105009 #3 아니. 거 엿날 본래 멘들아진 디.(아니. 거 옛날 본래 만들어진 데.)

105009 @ 본래 멘들아진 거예?(본래 만들어진 거요?)

105009 #3 으.(으.)

105010 @ 이제 바닷궤기, 바닷궤기 나끄젠 허민 어떵 헙니까?(이제 바닷고기, 바닷고기 낚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5010 #3 으?(으?)

105010 @ 궤기 나끄려고 하면?(고기 낚으려고 하면?)

105010 #3 나끄레 가는 거는 ᄀᆞᆺ이로도 춤대 헹 강 옛날은 이추룩 요새 영 기계 낚시가 아니라 대 헤근에 무시거 춤대 헤근에 옛날 춤대엔 헹 대로 헤근에 무시거 저 낚시 ᄃᆞᆯ아메근에 돌 우이 강 상 나까낫주게.(낚으러 가는 거는 가로도 참대 해서 가서 옛날은 이처럼 요새 이렇게 기게 낚시가 아니라 대 해서 뭐 참대 해서 옛날 참대라고 해서 대로 해서 뭐 저 낚시 달아매서 돌 위에 가서 사서 낚았었지.)

105010 @ 예.(예.)

105010 #3 돌셍이 ᄀᆞ튼 거, 어렝이 ᄀᆞ튼 거, 우럭 ᄀᆞ튼 거 그런 거.(돌 같은 거, 어렝놀레기 같은 거, 우럭 같은 거 그런 거.)

105012 @ 그런 거예. 물에 들엉도 영 궤기 나끄고, 찔르고 헤낫수과?(그런 거요. 물에 들어서도 이렇게 고기 낚고, 찌르고 했었습니까?)

105012 #3 물에, 물에 들엉은 난 궤긴 안 헤 보고, 허는 사름은 물에 들엉 소살로 쏘아.(물에, 물에 들어서는 난 고기 안 해 보고, 하는 사람은 물에 들어서 작살로 쏘아.)

105012 @ 으.(으.)

105012 #3 소살로 우럭 ᄀᆞ튼 거 큰 거 막 쏘아근에 허는 디 난 그런 건 안 헤 봣주. 소살질은 안 헤 보고.(작살로 우럭 같은 거 큰 거 마구 쏘아서 하는 데 난 그건 안 해 봤지. 작살질은 안 해 보고.)

105012 @ 으, 소살질은 안 헤 보고.(으, 작살질은 안 해 보고.)

105012 #3 소살질은 안 헤 보고. 그자 메역 허민 비창[242]에 허리에 차고 골겡이 앗곡 경헨 가민 구제기 잡고 생복 봐지민 떼여 놓곡.(작살질은 안 해 보고. 그저 미역 하면 '비창'에 허리에 차고 호미 가지고 그래서 가면 소라 잡고 생복 보이면 떼어 놓고.)

105012 @ 으.(으.)

105012 #3 또 오분작 시민 떼 놓곡. 오분작은 골겡이로 떼곡.(또 오분자기 있으면 떼 놓고. 오분자기는 호미로 떼고.)

105012 @ 으.(으.)

105012 #3 또 생복은 비창으로 끼고.(또 생복은 '비창'으로 캐고.)

105015 @ 비창으로 끼고.('비창'으로 캐고.)

105015 #3 호미는, 호미 아장 가민 호미는 메역 케고.(낫은, 낫 가지고 가면 낫은 미역 캐고.)

105015 @ 바다에 쓰는 것도 그냥 호미렌 골앗수과?(바다에 쓰는 것도 그냥 '호미'라고 말했습니까?)

105015 #3 으?(으?)

105015 @ 바다에 쓰는 것도 그냥 호미렌 골앗수과?(바다에 쓰는 것도 그냥 '호미'라고 말했습니까?)

105015 #3 호미.('호미'.)

105015 @ 좀호미렌 안 헨?('좀호미'라고 안 했어?)

105015 #3 으?(으?)

105015 @ 중게호미렌 안 하는 거?('중게호미'라고 안 하는 거?)

105015 #3 아니 아니, 호미. 진짜 호미로.(아니 아니, '호미'. 진짜 낫으로.)

105015 @ 게민 골겡이도 그냥 골겡이고.(그럼 '골겡이'도 그냥 '골겡이'고.)

105015 #3 으, 골겡이로 허고.(으, 호미로 하고.)

105015 @ 아니 밧딧일허는 골겡이랑.(아니 밭일하는 호미랑.)

105015 #3 어, 밧딧일허는 골겡이.(어, 밭일하는 호미.)

105015 @ 바닷일 허는 골겡이가 틋나지 안허여?(바닷일 하는 호미가 다르지 않아?)

105015 #3 안허여. 저 지금, 그 지금은 무시거 째끌락헌 거 잇주만은 옛날은 기자 밧디 쓰는 골겡이 아졍 강 조개 떼곡.(않아. 저 지금, 그 지금은 뭐 조그마한 거 있지만 옛날은 그저 밭에 쓰는 호미 가지고 가서 조개 떼고.)

105015 @ 예.(예.)

105015 #3 밧디 검질메곡 헷주게.(밭에 김매고 했지.)

105015 @ 아, 똑같은 걸로?(아, 똑같은 걸로?)

105015 #3 으.(으.)

---

242) '비창'은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전복 따위를 캐는 데 쓰는 쇠붙이로 된 길쭉한 모양의 도구를 말한다.

105015 @ 아, 틋나지 안헷구나예?(아, 다르지 않았군요?)

105017 #3 으, 그건. 우리 옛날 헐 땐 뭐, 체얌 베울 때는 이 속곳[243] 흐나만 입엉 적삼[244]도 안 입곡.(으, 그건. 우리 옛날 할 때는 뭐, 처음 배울 때는 이 '속곳' 하나만 입고 적삼도 안 입고.)

105017 @ 으.(으.)

105017 #3 경허단 말쩨라 가난 이녁냥으로 적삼 멩글아근에 입엇주.(그러다가 말째라 가니까 자기대로 적삼 만들어서 입었지.)

105017 @ 으, 속곳만 입엉 물질을 헷던 거라예?(으, '속곳'만 입고 물질을 했던 거지요?)

105017 #3 경헷주게. 게난 요새추룩 고무옷 입엉 헤시민 나도 이젯꺼정 물질헤실걸.(그랬지. 그러니까 요새처럼 고무옷 입고 했으면 나도 이제까지 물질했을걸.)

105017 @ 하하하. 게난 물질은 멧 살부터 멧 살까지 헌 것과?(하하하. 그러니까 물질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한 겁니까?)

105017 #3 나 어린 때부터 허연에 나 멧 설 허단에, 막 아판, 아판 설러 벳주게. 나 이디서도 상군[245]으로 느량 헷주게.(나 어릴 때부터 해서 나 몇 살 하다가, 아주 아파서, 아파서 그만둬 버렸지. 나 여기서도 '상군'으로 늘 했지.)

105017 @ 으.(으.)

105017 #3 이디서는 엿날에는 부락으로 이 바당 츠지헤근에 그 부락에서 돈 내멍 이녁 부락만썩 그 바당 츠지허주게.(여기서는 옛날에는 부락으로 이 바다 차지해서 그 부락에서 돈 내면서 자기 부락만큼씩 그 바다 차지하지.)

105017 @ 경헷지예.(그랬지요.)

105017 #3 게민 상군이 돈 얼마, 중군이 돈 얼마, 하군이 돈 얼만. 그 돈 메왕 조합에 돈 바쩐.(그럼 '상군'이 돈 얼마, '중군'이 돈 얼마, '하군'이 돈 얼마. 그 돈 메워서 조합에 돈 바쳤어.)

105017 @ 으.(으.)

105017 #3 바찌고 메역 헤 오민 또 메역 헤 오민 더러 이제, 하영 헌 사름은 하영 뽑고 족영 헌 사름은 족영 뽑고 헤근에 부락 유지자덜 문 갈라 주곡.(바치고 미역 해 오면 또 미역 해 오면 더러 이제,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뽑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뽑고 해서 부락 유지자들 모두 나눠 주고.)

105017 @ 으.(으.)

105017 #3 또 그거 헤영 풀아근에 이디 엿날엔 농협 이디 쪼금 잇어낫어. 경허난 그디서 허민 뭐 척상도 그 돈으로, 낸 걸로 사곡.(또 그거 해서 팔아서 여기 옛날에는 농협 여기 조금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하면 뭐 책상도 그 돈으로, 낸 걸

243) '속곳'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광목 따위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물소중이', '소중이', '소중기'라고도 한다.

244) '적삼'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적삼을 말하다. '물적삼'이라고도 한다.

245) '상군'은 물질할 때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말한다. '큰줌네', '상줌네'라고도 한다. 해녀의 물질 기량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뉜다.

로 사고.)

105017 @ 으.(으.)

105017 #3 그 돈으로 우리 메와근에 믄 헹 내여낫주게. 그걸로 사용헤나고.(그 돈으로 우리 메워서 모두 해서 내었었지. 그걸로 사용했었고.)

105017 @ 게니까 돈 벌어온 거 ᄒᆞ꼼씩 냉 책상도 사 주고 헷던 거 아니예?(그러니까 돈 벌어온 거 조금씩 내서 책상도 사 주고 했던 거 아니요?)

105017 #3 어. 그 돈 메왕. 그거 헹 또 또 조합에 돈 바치고. 세금이로.(어. 그 돈 메워서. 그거 해서 또 또 조합에 돈 바치고. 세금으로.)

105017 @ 세금으로예?(세금으로요?)

105017 #3 겐 나도 그거 아파 부난 세금 물지 못허난 세금도 못 내고 뭐 헷단에 저 누게니, 헐 때에 훤 흔 핸가 두 핸가 헨 나 쪼금 벵원에 뎅기멍 돈 안 들엇주. 나 세금 하영 내낫주.(그래서 나도 그거 아파 버리니까 세금 물지 못하니까 세금도 못 내고 뭐 했다가 저 누구지, 할 때에 원 한 해인가 두 해인가 해서 나 조금 병원에 다니면서 돈 안 들었지. 나 세금 많이 냈었지.)

105017 @ 으.(으.)

105017 #3 아팡 못 헹.(아파서 못 해서.)

105017 @ 게난 물질은 막 어릴 때부터 헤낫수과, 삼춘은?(그러니까 물질은 아주 어릴 때부터 했었습니까, 삼촌은?)

105017 #3 어린 땐 베움만 허고.(어린 땐 배우기만 하고.)

105017 @ 베움만 허고. 영 정식으로 나갈 땐 언제서부터라?(배우기만 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나갈 때는 언제부터야?)

105017 #3 정식으로 나갈 땐 흔 스물, 스물, 스물흔 설. 스물, 나 열아홉에 이디 시집왓주게.(정식으로 나갈 때는 한 스물, 스물, 스물한 살. 스물, 나 열아홉에 여기 시집왔지.)

105017 @ 예, 예.(예, 예.)

105017 #3 열아홉에 시집오난에 이월에 시집와신디 유월 나난 군인 가 벳주게. 군인 가 부난 나 막 물질허연. 물질허연에 첨 밧도 ᄒᆞ나 사고.(열아홉에 시집오니까 이월에 시집왔는데 유월 되니까 군인 가 버렸지. 군인 가 버리니까 나 막 물질했어. 물질해서 참 밭도 하나 사고.)

105017 @ 아고, 아고.(아이고, 아이고.)

105017 #3 물질로 헹 번 걸로 옛날에 부모님, 옛날엔 보리밥도 기리고 감저밥도 기려낫주게.(물질로 해서 번 걸로 옛날에 부모님, 옛날에는 보리밥도 그립고 고구마밥도 그리웠었지.)

105017 @ 예, 예.(예, 예.)

105017 #3 시집와도 볼 디가 하는 거라.(시집와도 볼 데가 많은 거야.)

105017 @ 예.(예.)

105017 #3 부락이 이 이디도 잔치 잇고 저 권당네 집이 잔치 잇고 고모네 집이

잔치 잇고 허민 그때는 쏠 두 뒈씩.(부락이 이 여기도 잔치 있고 저 권당네 집에 잔치 있고 고모네 집에 잔치 있고 하면 그때는 쌀 두 되씩.)

105017 @ 보리쏠 두 뒈씩.(보리쌀 두 되씩.)

105017 #3 어. 곤썰, 곤썰 두 뒈 허는 딘 또 쪼금 나신 디 권당 칩이 허젠 허민 좁썰 뒈 뒈 보리썰 두 뒈 경헤낫주게.(어. 흰쌀, 흰쌀 두 되 하는 데는 또 조금 나은 데 권당 집에 하려고 하면 좁쌀 되 되 보리쌀 두 되 그랬었지.)

105017 @ 예.(예.)

105017 #3 우리 돈으로 허민 돈도 아져가고.(우리 돈으로 하면 돈도 가져가고.)

105017 @ 으.(으.)

105017 #3 경허난 말쩨라 가난 또 보리쏠 흔 말도 허고 곤썰 흔 말은 막 저 거시기 권당 칩이, 사돈칩이 경헨 가져가고.(그러니까 말째라 가니까 또 보리쌀 한 말도 하고 흰쌀 한 말은 아주 저 거시기 권당 집에, 사돈집에 그렇게 가져가고.)

105017 @ 으, 곤썰은 사돈집이예?(으, 흰쌀은 사돈집에요?)

105017 #3 으.(으.)

105017 @ 경헨 가져가고. 게난 물질은 스물한 살서부터.(그래서 가져가고. 그러니까 물질은 스물한 살부터.)

105017 #3 스물한 설 나 애기 난에 저 우리가 저 거시기 큰아덜 나고 큰뚤 나고 셋뚤 나난 세 설 뒈난 설러 벳주게. 가이가 이제 쉰, 쉰네 설인가 뒛어.(스물한 살 나 아기 낳아서 저 우리가 저 거시기 큰아들 낳고 큰딸 낳고 둘째 딸 낳으니까 세 살 되니까 그만둬 버렸지. 걔가 이제 쉰, 쉰네 살인가 되었어.)

105017 @ 아, 게민 막 젊었을 때 설른 편인게.(아, 그럼 아주 젊었을 때 그만둔 편이네.)

105017 #3 으, 아프난 아프난.(으, 아프니까 아프니까.)

105017 @ 아프난. 어디 아팡 그만둔 것과?(아프니까. 어디 아파서 그만둔 겁니까?)

105017 #3 이 몸이 전체 아판 손도 노랑헤 불고, 이 물에 가민 발도 노랑헤 불고 이 다리도 노랑헤 불고.(이 몸이 전체 아파서 손도 노래 버리고, 이 물에 가면 발도 노래 버리고 이 다리도 노래 버리고.)

105017 @ 아.(아.)

105017 #3 물질 계속 헤시민 돈 많이 벌엇주.(물질 계속 했으면 돈 많이 벌었지.)

105017 @ 벌어실 건디.(벌었을 건데.)

105017 #3 겐디 아판 못 헨.(그런데 아파서 못 했어.)

105017 @ 한창 다른 사름덜 물질헹 돈 벌 때 그만둬신게예?(한창 다른 사람들 물질해서 돈 벌 때 그만두었네요?)

105017 #3 으, 막 돈 벌엇주. 그땐 메역 값을 하영 줘낫주게. 게민 메역 허민. 메역 허민 정 많이 뎅겻주, 정.(으, 막 돈 벌었지. 그때는 미역 값을 많이 줬었지.

그럼 미역 하면. 미역 하면 지고 많이 다녔지, 지고.)

105017 @ 예.(예.)

105017 #3 게난 우리 군인 가 분 때난 메역 영 다섯 징, 여섯 징 ᄌᆞ물아 오주게, ᄒᆞᆫ번 가민.(그러니까 우리 군인 가 버릴 때니까 미역 이렇게 다섯 '징', 여섯 '징' 캐서 오지, 한번 가면.)

105017 @ 예, 예.(예, 예.)

105017 #3 바당이 멀어, 경허난. 이 토평 바당은 ᄀᆞᆺ디광 이 한 바당이, 메역 난 디가 막 멀어.(바다가 멀어, 그러니까. 이 토평 바다는 가와 이 한 바다가, 미역 나는 데가 아주 멀어.)

105017 @ 으.(으.)

105017 #3 ᄒᆞᆫ참은 가야 뒈는 거라, 게난. 겡 헤 와도 누게 마중헐 사람 베랑 엇이민 그 문 ᄂᆞᆷ 주멍 허고 시아방네 졍 오민 문 안네 불고 기자 졍 오멍도 사름덜 보민 기자 허는 것카 부덴 매날, 졍 오단 보민, 우리 웃동네[246] 살앗주게. 알동네[247] 사름도 보민 기자 헌 거카 부덴. 허민 멕이 이만썩 질어. 세 망, 두 망, 네 망 지민 이만썩 허는 거라.(한참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해 와도 누가 마중할 사람 별로 없으면 그 모두 남 주면서 하고 시아버지네 지고 오면 모두 드려 버리고 그저 지고 오면서도 사람들 보면 그저 하는 것일까 봐 매날, 지고 오다가 보민, 우리 '웃동네' 살았지. '알동네' 사람도 보면 그저 한 걸까 봐. 하면 멱이 이만큼씩 길어. 세 망, 두 망, 네 망 지면 이만큼씩 하는 거야.)

105017 @ 아고.(아이고.)

105017 #3 겐 주단 집이 오랑 보민 잔뜩 졍 오라도 반뚝벳긴 안 허여.(그래서 주다가 집에 와서 보면 잔뜩 지고 와도 반밖에는 안 해.)

105017 @ 아고, 어떵혜.(아이고, 어떡해.)

105017 #3 계속 그추룩 줘근에 멧 년 경헤도 그축 얻어먹어도, 난 물에 가민 또 배고프주게, 일헤 나민. 경헤도 감저 꼬렝이[248] ᄒᆞ나 주는 사름 ᄒᆞ나 엇어서 경 줘도.(계속 그처럼 줘서 몇 년 그래도 그처럼 얻어먹어도, 난 물에 가면 또 배고프지, 일하고 나면. 그래도 고구마 '꼬렝이' 하나 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그렇게 줘도.)

105017 @ 아. 경 메역 허멍 ᄂᆞᆷ 좋은 일 막 시켯구나게.(아. 그렇게 미역 하면서 남 좋은 일 많이 시켰구나.)

105017 #3 아이고, 게나제나 하영 줫주게.(아이고, 그러나저러나 많이 줬어.)

105011 @ 으. 우리 옛날에도 어른덜, 남자 어른덜 낚시덜 막 하영 헷을 거 아니예? 낚시허젠 허면 아까 낚싯대는 대나무로 헷어예?(으. 우리 옛날에도 어른들, 남자 어른들 낚시들 아주 많이 했을 거 아니요? 낚시하려고 하면 아까 낚싯대는 대나무로 했어요?)

---

246) '웃동네'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247) '알동네'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248) '꼬렝이'는 표준어의 '꽁무니'에 대응하는 말이다. 여기서는 '감저 꼬렝이'의 형태로 '감저(고구마)'와 같이 쓰여, 고구마 따위의 하찮은 것 또는 '고구마 꽁무니'라는 의미로 쓰였다.

105011 #3 으.(으.)

105011 @ 옛날에는 왕대 비여당.(옛날에는 왕대 베어다가.)

105011 #3 으, 왕대로.(으, 왕대로.)

105011 @ 비여당 허고 게민 낚싯줄이랑 낚싯바늘이랑 낚싯줄에 메다는 봉돌이랑 그런 건 어떵 구헤낫수과?(베어다가 하고 그럼 낚싯줄이랑 낚싯바늘이랑 낚싯줄에 매다는 봉돌이랑 그런 건 어떻게 구했었습니까?)

105011 #3 그거 뽕돌 엿날은 멩글멍도 허고 사당도 허고 헤낫주게. 그때는 무시거 허민 낚시도 홈치 크지 안헌 거 헤근에덜 궤기 나끄레 허단에. 저기 이 새 시대가 오라 가난 이제 또 기계에 츰대 그거 허민 그걸로 깃이레도 가고 먼 바당에도 가고, 배 탕도 가곡.(그거 봉돌 옛날은 만들면서도 하고 사다가도 하고 했었지. 그때는 뭐 하면 낚시도 아예 크지 않은 거 해서 고기 낚으러 하다가. 저기 이 새 시대가 와 가니까 이제 또 기계에 참대 그거 하면 그걸로 가로도 가고 먼 바다에도 가고, 배 타서도 가고.)

105011 @ 배 탕도 가고예. 낚시줄도, 낚시줄은 만들지 못허난 옛날에도 사당 썼을 거 아니?(배 타서도 가고요. 낚싯줄도, 낚싯줄은 만들지 못하니까 옛날에도 사다가 썼을 거 아니?)

105011 #3 옛날엔 무신 노끗 닮은 걸로 헤근에 헤신디.(옛날에는 무슨 노끈 같은 거로 해서 했는데.)

105011 @ 으.(으.)

105011 #3 노끗 닮은 걸로. 거 저 거시기 궤기 그 낚시, 기계 츰대 낭은 나이롱. 멀리 내끼민 거에 궤기 물엉.(노끈 같은 거로. 거 저 거시기 고기 그 낚시, 기계 참대 나무는 나일론. 멀리 던지면 거에 고기 물어서.)

105012 @ 궤기 물엉 잡고예. 삼춘은 소살로는 안 잡아 봣수다예?(고기 물어서 잡고요. 삼촌은 작살로는 안 잡아 봤네요?)

105012 #3 어?(어?)

105012 @ 물질허멍 궤기는 안 잡아 봐수다예.(물질하면서 고기는 안 잡아 봤네요.)

105012 #3 물질허멍 안 잡아 봐신디 테위로 궤기 나끄레는 가 왓어. 하르방[249] 배도 헤나고 테위도 헤나난.(물질하면서 안 잡아 봤는데 떼로 고기 낚으러는 가 왔어. 할아버지 배도 했었고 떼도 했었으니까.)

105012 @ 아고, 남자 삼춘 거 헤낫수과? 말 안 골으켄 허는디 물어봐사큰게.(아이고, 남자 삼촌 거 했었습니까? 말 안 하겠다고 하는데 물어봐야겠네.)

105012 #3 거 헨에 저기 테위로 헨에 우리 내 젓는 거 문 검은여 잇는 디 젓는 거 사진 찍엉 돈 주난 돈도 문 노인당에 바쪄 불고 그 사진이 우리 제주시 똘, 똘 잇인디 이제 식당 허는 디 걸어졍 잇어.(거 해서 저기 떼로 해서 우리 노 젓는 거 모두 '검은여' 있는 데 젓는 거 사진 찍어서 돈 주니까 돈도 모두 노인당에 바쳐 버

249)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리고 그 사진이 우리 제주시 딸, 딸 있는데 이제 식당 하는 데 걸려 있어.)

105013 @ 아, 기구나. 게민 이땅 삼춘안티도 물어봐사큰게. 그 배에 관련된 거.(아, 그렇구나. 그럼 이따가 삼촌한테도 물어봐야겠네. 그 배에 관련된 거.)

105013 #3 배에.(배에.)

105013 @ 배 일름들.(배 이름들.)

105013 #3 물어봐. 배 혼번 산에 헤 봣주게. 경허고 테위 주장 헨. 이녁 혼자만 테위 헹 뎅기당 놀 불믄[250] 막 끗어가 불고 허난 저 끗어가 불고 아파 가난에 나 못허고 헨 설러 벳주게.(물어봐. 배 한번 사서 해 봤지. 그리고 떼 줄곧 했어. 자기 혼자만 떼 해서 다니면서 너울 불면 마구 끌어가 버리고 하니까 저 끌어가 버리고 아파 가니까 나 못하고 해서 그만둬 버렸지.)

105013 @ 으.(으.)

105013 #3 겐 어렝이 ᄀᆞ튼 거 많이 나까 와. 나까당 놈덜 주곡.(그래서 어렝놀래기 같은 거 많이 낚아 와. 낚아다가 남들 주고.)

105013 @ 아까 배 종류에는 아까 테위도 잇고 또 다른 배는 뭐렌 ᄀᆞᆯ아낫수과?(아까 배 종류에는 아까 떼도 있고 또 다른 배는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05013 #3 배에, 배 일름도 잇주만은 몰라. 난 그 일름 몰르주.(배에, 배 이름도 있지만 몰라. 난 그 이름 모르지.)

105013 @ 요거 불르는 일름이 엇어낫수과?(요거 부르는 이름이 없었습니까?)

105013 #3 아, 이거.(아, 이거.)

105013 @ 거 무신 배엔 불러낫수과?(거 무슨 배라고 불렀었습니까?)

105013 #3 이거 무신 배. 배엔만 헷주, 무신 배 몰라. 이거는 엿날에 돗대 ᄃᆞᆯ앙 뎅기는 배.(이거 무슨 배. 배라고만 했지, 무슨 배 몰라. 이거는 옛날에 돛대 달고 다니는 배.)

105013 @ 게니까 돗대 ᄃᆞᆯ앙 뎅기는 배.(그러니까 돛대 달고 다니는 배.)

105013 #3 돗대 ᄃᆞᆯ앙 뎅기다근에 ᄇᆞ름 신 때 요걸로 ᄇᆞ름이로 영 이거로 영 가낫주게.(돛대 달아서 다니다가 바람 있을 때 요걸로 바람으로 이렇게 이거로 이렇게 갔었지.)

105013 @ 으.(으.)

105013 #3 경헤나신디 ᄇᆞ름 꺼져 불민 못 뎅겨 이거 지와 뒨 내 젓엉 뎅기고.(그랬었는데 바람 꺼져 버리면 못 다니고 이거 지워 두고 노 저어서 다니고.)

105013 @ 예, 내 젓엉 뎅기고예.(예, 노 저어서 다니고요.)

105013 #3 겐 나 나 이 배에 내 젓엉 막 돌아뎅겨낫어.(겐 나 나 이 배에 노 저으면서 마구 돌아다녔었어.)

105013 @ 아.(아.)

105013 #3 겐 흑산이[251]엔 헌 디 가민 흑산이 ***가 만허주게. 흑산. 이것도 잇

250) '놀 불다'는 '너울이 일다'는 의미다.

251) '흑산이'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섬인 '흑산도'를 말한다.

고 이제는 이런 게 엇주게. 기계로 허영.(그래서 '흑산이'라고 하는 데 가면 '흑산이' ***가 많지. '흑산'. 이것도 있고 이제는 이런 게 없지. 기계로 해서.)

105013 @ 게니까. 이런 일름덜 알아졈시카 헨 물어보는 거마씨.(그러니까. 이런 이름들 알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105013 #3 난 저건 모르크라, 무신 배처렌지.(난 저건 모르겠어, 무슨 배인지.)

105014 @ 그, 그럼 해녀들 물질헐 때 물에 들엉 잡는 건 뭐 뭐가 잇수과? 물질헹 잡아 오는 거.(그, 그럼 해녀들 물질할 때 물에 들어서 잡는 건 뭐 뭐가 있습니까? 물질해서 잡아 오는 거.)

105014 #3 잡아 오는 거 구제기.(잡아 오는 거 소라.)

105014 @ 구제기.(소라.)

105014 #3 생복.(생복.)

105014 @ 생복.(생복.)

105014 #3 또 조개. 조개엔 허주게, 저 오분작.(또 조개. 조개라고 하지, 저 오분자기.)

105014 @ 오분작.(오분자기.)

105014 #3 해녀는 그거 잡아. 또 보말, 수두리 거튼 건 제라허게 물에 들엉 안 잡앙 그것만 허레 갈 땐 フ디로 강 그것만 들엉 잡주, 보통은. 해녀들은 수두리보말은 대강 안 잡젠 허주게.(해녀는 그거 잡아. 또 고둥, 팽이고둥 같은 건 제대로 물에 들어서 안 잡고 그것만 하러 갈 때는 가로 가서 그거만 들어서 잡지, 보통은. 해녀들은 팽이고둥은 대강 안 잡으려고 하지.)

105014 @ 아, 물에 들엉은 안 잡는 거.(아, 물에 들어서는 안 잡는 거.)

105014 #3 으, 물에 들엉 그거 안 헨에 우리 설러 분 사름덜 물질 못 헐 경우에는 들어강 잡아 와.(으, 물에 들어서 그거 안 하고 우리 그만둬 버린 사람들 물질 못 할 경우에는 들어가서 잡아 와.)

105014 @ 으. 메역이나 우미는 물에 들엉 안 잡아낫수과?(으. 미역이나 우뭇가사리는 물에 들어서 안 잡았었습니까?)

105014 #3 무사 안 잡아. 저 우미도 물에 들엉 허곡 물싸민 フ디도 많이 나주. フ디로도 강 헤 오고. 톨도 フ디로 강 헤 오고.(왜 안 잡아. 저 우뭇가사리도 물에 들어서 하고 물써면 가에도 많이 나지. 가로도 가서 해 오고. 톳도 가로 가서 해 오고.)

105014 @ フ디로 헤 오고예.(가로 해 오고요.)

105014 #3 몰망도 물싸민 フ디로 강 헤 오고.(모자반도 물써면 가로 가서 해 오고.)

105014 @ 물에 들엉도 허고예?(물에 들어서도 하고요?)

105014 #3 으, 물에 들엉도 허고 フ디로도 허고. フ디로도 나니까.(으, 물에 들어서도 하고 가로도 하고. 가로도 나니까.)

105015 @ 그럼 물질헐 때 필요헌 것덜이 잇잖수과예? 물론 옷 입어야 뒈고.(그

럼 물질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옷 입어야 되고.)

105015 #3 게난 옷 입엉근에, 속곳[252]이엔 헌 거 엿날에 그거 여라 개라사주게.(그러니까 옷 입고, '속곳'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그거 여러 개여야지.)

105015 @ 예.(예.)

105015 #3 물에 갈 때 입으민 강 올 때 몰른 거 입엇당 또 널엇당 또 들어가민 나옴 새 몰르지 안 허민 또 강 들엉 나오민 몰른 거 입어사, 구덕이레 하나. 또 저기 낭불[253] 살를 거 졍 가사 불살랑 초고.(물에 갈 때 입으면 가서 올 때 마른 거 입었다가 또 널었다가 또 들어가면 나오는 사이 마르지 않으면 또 가서 들어서 나오면 마른 거 입어야, 바구니에 하나. 또 저기 '낭불' 사를 거 지고 가야 불살라서 쬐고.)

105015 @ 으.(으.)

105015 #3 경 뜻이민 물에 강 들곡.(그렇게 따뜻하면 물에 가서 들고.)

105015 @ 게난 한번 물에 들 때 속곳 하나만 헹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가졍 가야 뒈는구나.(그러니까 한번 물에 들 때 '속곳' 하나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105015 #3 으, 여라 개, 입엉 골아입을 거게. 또 얼민 나오민 우이 쓸 거. 썽 가근에 영 불살라도 추우니까 쓰곡 경.(으, 여러 개, 입고 갈아입을 거. 또 추우면 나오면 위에 쓸 거. 쓰고 가서 이렇게 불살라도 추우니까 쓰고 그렇게.)

105015 @ 게민 물질 갈 때 구덕에 속곳도 담앙 가고 또 뭐 담앙 가?(그럼 물질 갈 때 바구니에 '속곳'도 담아서 가고 또 뭐 담아서 가?)

105015 #3 속곳 담곡 호미 담곡 비창 담곡 골겡이 담곡 눈 잇어. 눈 영 큰 거 허민 낭이로 영 헤근에 짜근에 그레, 벌러지카 부덴 놩 담곡. 또 그것에 낭 담앙 그 구덕에 담곡 그거 저거 물건 그거 다 담고 그 테왁[254], 테왁도 베여. 테왁헤근에 구덕에 놔근에 지곡. 겐 흔 짐 졍 가 갈 때도.('속곳' 담고 낫 담고 '비창' 담고 호미 담고 물안경 있어. 물안경 이렇게 큰 거 하면 나무로 이렇게 해서 짜서 그리, 깨질까 봐 넣어서 담고. 또 그것에 나무 담아서 그 바구니에 담고 그거 저거 물건 그거 다 담고 그 '테왁', '테왁'도 무거워. '테왁' 해서 바구니에 놔서 지고. 그래서 한 짐 지고 갈 때도.)

105015 @ 불 초젠 허면 불 땔 거.(불 쬐려고 하면 불 땔 거.)

105015 #3 불 땔 거 게메.(불 땔 거 글쎄.)

105015 @ 그것도 가졍 가고.(그것도 가지고 가고.)

105015 #3 그거 구덕에 담앙 졍 가고 흔 짐 졍 가.(그거 바구니에 담아서 지고 가고 한 짐 지고 가.)

105015 @ 흔 짐 졍 가야 뒈예. 게민 아까 눈, 눈 보관허는 눈곽도 뚜로 잇어낫

252) '속곳'은 '속곳'은 속옷을 말한다. 여기서 '속곳'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었던 옷을 말한다.
253) '낭불'은 나무로 때는 불을 말한다.
254) '테왁'은 박의 씨 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가지고 가서 타는 물건을 말한다. 최근에는 스티로폼을 둥글게 만든 것을 사용한다.

수과?(한 짐 지고 가야 되지요. 그럼 아까 물안경, 물안경 보관하는 '눈곽'도 따로 있었습니까?)

105015 #3 으, 뚠, 뚠곽[255] 잇어. 뚠곽 옛날에 두 뒈갓들[256]이 잇어낫어, 쏠 드는 거. 그만이헌 거에 이만인 영 짠 거 막 크메.(으, 딴, '뚠곽' 있어. '뚠곽' 옛날에 두 되들이가 있었어, 쌀 드는 거. 그만한 거에 이만큼 이렇게 짠 거 아주 커.)

105015 @ 으.(으.)

105015 #3 눈 이만이헌 거 헤근에 허젠 허민. 겐 그거 그 구덕에 담고 테왁 놓곡 그거 다 놓곡 허민 물질허레 가주.(눈 이만한 거 해서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거 그 바구니에 담고 '테왁' 넣고 그거 다 넣고 하면 물질하러 가지.)

105016 @ 게민 옛날이랑 비교허민 지금은 물질허는 게 막 틋나잖아예?(그럼 옛날이랑 비교하면 지금은 물질하는 게 아주 다르잖아요?)

105016 #3 튼나. 아니, 물질허는 거는 지금도 ᄀᆞ튼디 다 막 뚠나주게. 발에 신는 것도 뚠나고 옷도, 경허난 ᄒᆞ루 ᄌᆞ물앙 물질허곡 계속헴주만은. 옛날에는 그 바당에 물, 우리 그 물질헐 때는 눈 팡팡헤도 물질허레 가낫주게.(달라. 아니, 물질하는 거는 지금도 같은데 다 아주 다르지. 발에 신는 것도 다르고 옷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물질하고 계속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 바다에 물, 우리 그 물질할 때는 눈 팡팡해도 물질하러 갔었지.)

105016 @ 에고, 경 추운데도.(어이구, 그렇게 추운데도.)

105016 #3 으. 육지광 또 이디광 물 시리운 거 뜰려.(으. 육지와 또 여기와 물 시린 게 달라.)

105016 @ 예.(예.)

105016 #3 저기 흑산도[257] 우리 간 헷주만은 그딘 가민 ᄒᆞᆫ 서물날쯤 물 실리운데 가민 물이 막 물 알이 어둑어. 물 아래 들어가민 콰시허게[258] 무신 수도에 물 튼 거거치 소리 나. 영 사름 들어가민.(저기 흑산도 우리 가서 했지만 거긴 가면 한 서물쯤 물 시린 데 가면 물이 아주 물 아래가 어두워. 물 아래 들어가면 콸콸하게 무슨 수도에 물 튼 거같이 소리 나. 이렇게 사람 들어가면.)

105016 @ 예.(예.)

105016 #3 겡허고 또 ᄒᆞᆫ 서물날 넘어가민 물 알 붉고.(그리고 또 한 서물 넘어가면 물 아래 밝고.)

105016 @ 음.(음.)

105016 #3 이디는 경 붉고 어둑고 안 허는디 육지서는 경 막 헤여. 차이, 차이가 잇어.(여기는 그렇게 밝고 어둡고 안 하는데 육지에서는 그렇게 막 해. 차이, 차이가 있어.)

105016 @ 으, 차이가 잇어. 물옷이 옛날에는 속곳[259]이랏잖아예?(으, 차이가 있

255) '뚠곽'은 물안경을 보관하는 상자를 말한다.
256) 여기서 '갓들'은 '그만큼 담을 수 있는 용량'이라는 의미의 '들이'의 의미인 것 같다.
257) '흑산도'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섬이다.
258) '콰시하다'는 많은 양의 액체가 급히 쏟아져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을 나타낸 말이다.

어. 물옷이 옛날에는 ‘속곳’이었잖아요?)

105016 #3 속곳.(‘속곳’.)

105016 @ 머리에도 쓰는 게 잇어낫수과?(머리에도 쓰는 게 있었습니까?)

105016 #3 수건.(수건.)

105016 @ 수건 쓰고?(수건 쓰고?)

105016 #3 수건 안 쓰민 머리 이 물 내려근에 눈에 물 들어가민 저기 눈에 물 들어 불민 바레지도 못허고 허주게.(수건 안 쓰면 머리 이 물 내려서 눈에 물 들어가면 저기 눈에 물 들어 버리면 보지도 못하고 하지.)

105016 @ 으.(으.)

105016 #3 게난 잔뜩 써근에 머리 물 ᄂᆞ리지 안허게 잔뜩 써야 물, 눈에 물 안 들어. 눈 이디가 물 들어 불민 안 뒈주게. 나오지 못허주게.(그러니까 잔뜩 써서 머리 물 내리지 않게 잔뜩 써야 물, 눈에 물 안 들어. 눈 여기가 물 들어 버리면 안 되지. 나오지 못하지.)

105016 @ 겐 머리에 쓰고.(그래서 머리에 쓰고.)

105016 #3 간 때도 속이나, 쑥 잇잖아, 쑥. 그거 감앙 ᄒᆞ쏠 캐영 가야 물 들어갈 때 영 다까야 눈이 얼랑얼랑[260] 안 허주. 저기 우리 거 퐁퐁[261]에 놩 사발 씻는 식이로.(갔을 때도 쑥이나, 쑥 있잖아, 쑥. 그거 감아서 조금 캐서 가야 물 들어갈 때 이렇게 닦아야 눈이 ‘얼랑얼랑’ 안 하지. 저기 우리 거 퐁퐁에 넣어서 사발 씻는 식으로.)

105016 @ 아.(아.)

105016 #3 경허여.(그래.)

105016 @ 그 눈을, 큰눈을 속으로.(그 눈을, ‘큰눈’을 속으로.)

105016 #3 큰눈[262]이나 족은눈[263]이나 영 다깡 쓰주.(‘큰눈’이나 ‘족은눈’이나 이렇게 닦아서 쓰지.)

105016 @ 그럼 삼춘은 큰눈 썻수과, 족은눈 썻수과?(그럼 삼촌은 ‘큰눈’ 썼습니까, ‘족은눈’ 썼습니까?

105016 #3 족은눈 쓰단에 큰눈 썻주게. 큰눈 하영 썻어.(‘족은눈’ 쓰다가 ‘큰눈’ 썼지. ‘큰눈’ 많이 썼어.)

105016 @ 아. 족은눈 쓰다가.(아. ‘족은눈’ 쓰다가.)

105016 #3 으, 체암 베울 땐 족은눈 써신디.(으, 처음 배울 때는 ‘족은눈’ 썼는데.)

105016 @ 예.(예.)

105016 #3 그다음에는 배운 후제는 큰눈.(그다음에는 배운 후에는 ‘큰눈’.)

---

259) ‘속곳’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입는 광목 따위로 만든 물옷을 말한다. ‘물소중이’, ‘소중이’, ‘소중기’라고도 한다.

260) ‘얼랑얼랑’은 안경 등에 이물질이 끼어 선명하지 않은 모습을 나타낸다.

261) ‘퐁퐁’은 그릇 따위를 씻는 데 쓰는 세제 이름을 말한다.

262) ‘큰눈’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물안경으로 알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왕눈’이라고도 한다.

263) ‘족은눈’은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물안경으로 알이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05016 @ 아, 큰눈 썬. 옷은 그냥 처음 베울 때나 나중에나 똑같고, ᄀᆞ트고?(아, '큰눈' 썼어. 옷은 그냥 처음 배울 때나 나중에나 똑같고, 같고?)

105016 #3 으.(으.)

105016 @ 게난 삼춘 그만뒈사 고무옷이 나온 거?(그러니까 삼촌 그만둬야 '고무옷'이 나온 거?)

105016 #3 우리 고무옷[264] 나온 때 나 설러분 막 후제, 후제 나왓주게.(우리 '고무옷' 나왔을 때 나 그만둬서 막 후에, 후에 나왔지.)

105016 @ 아.(아.)

105016 #3 우리 헐 때 고무옷 나시민 우리 아프지도 안허고 막 하영 헷주.(우리 할 때 '고무옷' 나왔으면 우리 아프지도 않고 아주 많이 했지.)

105016 @ 음.(음.)

105016 #3 막 설러벤 오랜 후제 고무옷 나완.(막 그만둬 버린 오랜 후에 고무옷 나왔어.)

105016 @ 게민 막 일찍 설러신게.(그럼 아주 일찍 그만뒀네.)

105016 #3 일찍 설럿주. 게난 나 설러건 디가 이제 우리 셋뚤은 스물, 아니 저기 오십네 설 뒈난 가이 세 설 때 설러부난 오랫주게. 막 한참 허단 설러 불언. 아프난.(일찍 그만뒀지. 그러니까 내가 그만둔 지가 이제 우리 둘째 딸은 스물, 아니 저기 오십네 살 되니까 걔 세 살 때 그만두니까 오랬지. 아주 한창 하다가 그만둬 버렸어. 아프니까.)

105016 @ 예, 아프난예. 예, 예.(예, 아프니까요. 예, 예.)

105016 #3 우린 메역, 이 금헤여근에 믄 지켜낫주. 멧 사름썩 바당 지키레 매날 돌아보멍 허당 허지. 허민 먼바당에 난 휘여 가지 못허민 놈의 또고망[265]에 뚤라진 거 쥐어 가주게.(우린 미역, 이 금해서 모두 지켰었어. 몇 사람씩 바다 지키러 매날 돌아보면서 하다가 하지. 하면 먼바다에 난 헤엄쳐서 가지 못하면 남의 꽁무니에 떨어진 거 쥐어 가지.)

105016 @ 으, 으.(으, 으.)

105016 #3 게난 난 휘진 잘못허는디 나 또꼬망에 흔 서른 사름썩 마흔 사름썩 나 또꼬망에 둘아졍.(그러니까 난 헤엄치지 잘못하는데 내 꽁무니에 한 서른 사람씩 마흔 사람씩 나 꽁무니에 달려.)

105016 @ 하하하.(하하하.)

105016 #3 이녁만 휘여 가지 못허난. 또고망에 둘아진 건 막 놈 가는 양 가.(자기만 헤엄쳐 가지 못하니까. 꽁무니에 달린 거 마구 남 가는 대로 가.)

105016 @ 게도 삼춘이 상군[266]인 거 아난 뒤에 붙어 온 거 아니?(그래도 삼촌이 '상군'인 거 아니까 뒤에 붙어 온 거 아니?)

105016 #3 경허난 이 바당에 어디 강 지픈 거 어디가 여 신 거 이 토평 지경,

264) '고무옷'은 해녀들이 바닷속에서 해산물 등을 캘 때 입는 고무로 만든 잠수복을 말한다.
265) '또꼬망'은 표준어의 '똥구멍'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꽁무니'라는 의미로 쓰였다.
266) '상군'은 물질할 때 기량이 뛰어난 해녀를 말한다. '큰줌녜', '상줌녜'라고도 한다.

토평 지경에 신 바당 안에 여 어디 신 거, 어디 생복 하는 거, 어디 구제기 하는 거 다 알주게.(그러니까 이 바다에 어디 가서 깊은 거 어디가 여 있는 거 이 토평 지경, 토평 지경에 있는 바다 안에 여 어디 있는 거, 어디 생복 많은 거, 어디 소라 많은 거 다 알지.)

105016 @ 게난 게난 경허난 삼춘 쫓아가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영 쫓아간 거잖아예?(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촌 쫓아가면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쫓아간 거잖아요?)

105016 #3 으. 게난 메역 허레 멀리 휘어 가지 못허난에 가는 거. 경헨 허멍 나 구젱기도 많이 헹 잡앙 옛날에 걸어근에 서귀포 정 강. 우리 하르방[267] 군인 강 오랑 막 중간 대수술허젠 허난 저 한국병원에 입원헨에. 채비 엇이난 영 흔참 넘어간 디 강 잡앙 그거 서귀포 정 강 풀앙 집이 오랑 그걸로 채비헹 벵완에 갓주.(으. 그러니까 미역 하러 멀리 헤엄쳐서 가지 못하니까 가는 거. 그렇게 하면서 나 소라도 많이 해서 잡아서 옛날에 걸어서 서귀포 지고 가서. 우리 할아버지 군인 가서 와서 막 중간 대수술하려고 하니까 저 한국병원에 입원해서. 채비 없으니까 이렇게 한참 넘어간 데 가서 잡아서 그거 서귀포 지고 가서 팔아서 집에 와서 그걸로 채비해서 병원에 갔지.)

105016 @ 아이고.(아이고.)

105016 #3 경헹 하르방 살렷어.(그래서 할아버지 살렸어.)

105016 @ 아이고, 게민 병원비는 어떵헨?(아이고, 그럼 병원비는 어떡해서?)

105016 #3 병원빈 꾸멍 대고 임시 채비 엇이민 보통으로 돈 꾸어 주질 안허난.(병원비는 꾸면서 대고 임시 채비 없으면 보통으로 돈 꿔 주질 않으니까.)

105016 @ 예.(예.)

105016 #3 경허멍 살아낫어. 게난 아이덜 공부 잘 못 시키고. 하르방이 너미 아파 부난 군인 강 왕 이십칠 년 동안 아판. 대수술, 족은 수술, 매해 굿허고, 아이고 매해 약이엔 헌 건 제주시에 강 약국에 약국이엔 헌 건 다 돌아뎅기고. 약도 말도 못허게 먹엇주.(그러면서 살았었어. 그러니까 아이들 공부 잘 못 시키고. 할아버지가 너무 아파 버리니까 군인 갔다 와서 이십칠 년 동안 아팠어. 대수술, 작은 수술, 매해 굿하고, 아이고 매해 약이라고 하는 건 제주시에 가서 약국에 약국이라고 하는 건 다 돌아다니고. 약도 말도 못하게 먹었지.)

105016 @ 고생헷구나.(고생했구나.)

105016 #3 군인 간, 해병으로 가난게 제대, 제대 안 시켜 줜.(군인 가서, 해병으로 가니까 제대, 제대 안 시켜 줬어.)

105018 @ 음. 톳, 톳은 어떵 개인으로 작업헙니까?(음. 톳, 톳은 어떻게 개인으로 작업합니까?)

105018 #3 무시거?(뭐?)

105018 @ 톨, 톨.(톳, 톳.)

---

267)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105018 #3 톨도 옛날에는 톨도 헨에 저기 바쪄낫주.(톳도 옛날에는 톳도 해서 저기 바쳤었지.)

105018 @ 게난 공동으로 헹 바찌는 거?(그러니까 공동으로 해서 바치는 거?)

105018 #3 공동으로덜 헹 바쪄낫주. 경헤신디 그거는 우리 어린 때 헷주, 역은[268] 후제 안 헨.(공동으로들 해서 바쳤었지. 그랬는데 그거는 우리 어렸을 때 했지, 큰 후에 안 했어.)

105018 @ 무사 역은 후젠 안 헨?(왜 큰 후에 안 했어?)

105018 #3 그거 공동이로 지커지도 못허고 톨 나는 디 하지 안허난.(그거 공동으로 지키지도 못하고 톳 나는 데 많지 않으니까.)

105018 @ 아, 게난 이쪽 토평에는 톨 하영 안 납니까?(아, 그러니까 이쪽 토평에는 톳 많이 안 납니까?)

105018 #3 하영 안 나.(많이 안 나.)

105018 @ 하영 안 나. 어릴 때는 공동으로 작업헹?(많이 안 나. 어릴 때는 공동으로 작업해서?)

105018 #3 옛날에 공동으로 작업헹덜 ᄒᆞ루 허젠 허면은 비여근에 ᄒᆞᆫ 짐썩 졍 가는 사름 두 짐썩 졍 가는 사름 헤낫주게.(옛날에 공동으로 작업해서들 하루 하려고 하면 베어서 한 짐씩 지고 가는 사람 두 짐씩 지고 가는 사람 했었지.)

105018 @ 으.(으.)

105018 #3 나 알기에는 두린 때라도 알아지난. 경헤신디 역은 후제는 많이 엇인디난에 그대로 내불민 그자 저기 물때 뒈 가민 헤 오곡 물때 뒈 가민 헤 오곡.(내가 알기에는 어렸을 때라도 알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큰 후에는 많이 없는 데니까 그대로 내버리면 그저 저기 물때 돼 가면 해 오고 물때 돼 가면 해 오고.)

105019 @ 우미는 어떵 헙니까? 공동으로 헙니까, 개인으로?(우뭇가사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으로 합니까, 개인으로?)

105019 #3 우미는 저기 이디, 이디는 베랑 안 헌 디라부난. 가는 사름 헤당 먹엇주. 우리 이디 토평 지경에는 우미 영 ᄑᆞ는 사름도 엇고.(우뭇가사리는 저기 여기, 여기 별로 안 하는 데이니까. 가는 사람 해다가 먹었지. 우리 여기 토평 지경에는 우뭇가사리 이렇게 파는 사람도 없고.)

105019 @ 아, 우미가 벨로 안 낫구나예?(아, 우뭇가사리가 별로 안 났군요?)

105019 #3 베랑 지픈 바당에 안 나주게, 깆디만.(별로 깊은 바다에 안 나지, 가만.)

105019 @ 아, 베랑 안 나는구나.(아, 별로 안 나는구나.)

105019 #3 다른 바당에덜은 저 울산더레 가민 우미 헤여근에 막 헤다근에 멧 칭썩 그걸로 막 해녀들 풀주게.(다른 바다들은 저 울산에 가면 우뭇가사리 해서 마구 해다가 몇 칭씩 그걸로 마구 해녀들 팔지.)

105019 @ 예.(예.)

---

268) '역다'는 말귀를 알아듣고 혼자 판단할 만큼 성장하다는 뜻이다.

105019 #3 경헌디 우리 토평 바당엔 우미 헤근에 경 ᄑᆞ는 사름도 엇고. ᄀᆞᆺ디 나난에 물싸 가민 강 헤 오랑.(그런데 우리 토평 바다에는 우뭇가사리 해서 그렇게 파는 사람도 없고. 가 나니까 물써 가면 가서 해 와서.)

105020 @ 저기 구젱기, 구젱기랑 생복은 전부 개인이지예? 개인으로 허는 거지예?(저기 소라, 소라랑 생복은 전부 개인이지요? 개인으로 하는 거지요?)

105020 #3 개인이로.(개인으로.)

105021 @ 그 생복에도 종류가 잇수과?(그 생복에도 종류가 있습니까?)

105021 #3 생복 종류가 잇주게. 이제 바당에 싯는 것은 자연이고 이제 이 서귀포서 ᄑᆞ는 거는, 그건 양식이고.(생복 종류가 있지. 이제 바다에 있는 것은 자연이고 이제 이 서귀포에서 파는 거는, 그건 양식이고.)

105021 @ 그런 거 말고 생복에도 남자랑 여자랑?(그런 거 말고 생복에도 남자랑 여자랑?)

105021 #3 어, 잇어. 수커는 납작허고 암커는 굴락허고[269].(어, 있어. 수컷은 납작하고 암컷은 '굴락하고'.)

105021 @ 아, 굴락허고. 맛 좋기는 뭐가 맛 좋읍니까?(아, '굴락하고'. 맛 좋기는 뭐가 맛 좋습니까?)

105021 #3 어?(어?)

105021 @ 맛 좋긴 뭐가 맛 좋아? 암컷이랑 수컷이랑?(맛 좋기는 뭐가 맛 좋아? 암컷이랑 수컷이랑?)

105021 #3 그 자연은 다 맛잇주. 수커, 수천복이 더 맛잇어.(그 자연은 다 맛있지. 수컷, 수전복이 더 맛있어.)

105021 @ 납작헌 거?(납작한 거?)

105021 #3 으. 바레민 납작허여.(으. 보면 납작해.)

105021 @ 구젱기도 어떤 종류가 잇수과, 그렇게?(소라도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그렇게?)

105021 #3 구젱기도 민둥구제기[270].(소라도 '민둥구제기'.)

105021 @ 으.(으.)

105021 #3 또 젠젠헌 소라구제기.(또 자잘한 '소라구제기'.)

105021 @ 예.(예.)

105021 #3 또 뭐 쌀구제기[271] 그거라. 커 가는 양 구제기가 경 헤신가?(또 뭐 '쌀구제기' 그거야. 커 가는 양 소라가 그렇게 했나?)

105021 @ 으.(으.)

105021 #3 민둥구제기는 막 오래 살민 이 쌀[272]이 ᄒᆞ꼼 몽고라지주게.('민둥구

269) '굴락허다'는 오목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270) '민둥구제기'는 껍질의 돌기가 닳아 없어진 성숙한 소라를 말한다. 달리 '문둥구젱이', '민둥구젱기', '민둥구젱이'라고 한다.
271) '쌀구제기'는 껍질에 돌기가 돋은 성숙한 소라를 말한다. 달리 '쌀고동', '쌀구젱이'라고 한다.
272) '쌀' 소라 껍질에 돋은 돌기를 말한다.

제기'는 아주 오래 살면 이 살이 조금 몽그라지지.)

105024 @ 음. 아까 배 보여 드려신디 이거 명칭들은 알아지쿠과? 여기 앞에를 뭐렌 골아신지?(음. 아까 배 보여 드렸는데 이거 명칭들은 알겠습니까? 여기 앞을 뭐라고 말했는지?)

105024 #3 이거 배에는 이거는 이물.(이거 배에는 이거는 이물.)

105024 @ 으.(으.)

105024 #3 이거는 고물. 중간에 건 몰르크라.(이거는 고물. 중간에 건 모르겠어.)

105024 @ 으. 이거는?(으. 이거는?)

105024 #3 이거는 저기 저 초석.(이거는 저기 저 초석.)

105024 @ 초석.(초석.)

105024 #3 옛날에 노래도 잇주게. 이물에는 이 사공아, 고물에는 고 사공아.(옛날에 노래도 있지. 이물에는 이 사공아, 고물에는 고 사공아.)

105024 @ 아, 하하하.(아, 하하하.)

105024 #3 경헨 내 젓주게.(그렇게 노 젓지.)

105022 @ 경허멍 내 젓어. 이 테우는, 테우는 자리 잡을 때만 써낫수과?(그러면서 노 저어. 이 떼는, 떼는 자리 잡을 때만 썼었습니까?)

105022 #3 테위도 어렝이 나끌 때 많이 썻주게. 저 자리 거릴 때도 헤나고.(떼도 어렝놀래기 낚을 때 많이 썼지. 저 자리 뜰 때도 했었고.)

105022 @ 자리 거릴 때도 헤나고.(자리 뜰 때도 했었고.)

105022 #3 테위는 저추룩 안 헤근에 영영 젓어. 그거 그거는 직접 영 물에 틔와진 거난.(떼는 저처럼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저어. 그거 그거는 직접 이렇게 물에 띄워진 거니까.)

105022 @ 예.(예.)

105022 #3 영 판데기 멩글아근에 사름 사근에, 걸쳐근에. 배에는 저거, 테위는 물에 낭이 물에 커진 디 우이 앚아근에 그디서 내 젓고 그디서.(이렇게 판때기 만들어서 사람 서서, 걸쳐서. 배에는 저거, 떼는 물에 나무에 물에 잠긴 데 위에 앉아서 거기서 노 젓고 거기서.)

105022 @ 아, 그디서 내 젓고 허는 거예. 예, 바닷일에 관한 건 다 물어봣수다.(아, 거기서 노 젓고 하는 거요. 예, 바닷일에 관한 건 다 물어봤습니다.)

6. 의생활

옷감

106001 @ 저기예, 옷, 옷. 이젠 옷.(저기요, 옷, 옷. 이젠 옷.)

106001 #2 옷?(옷?)

106001 @ 옷 종류 같은 거, 바농질헤난 거 그런 거 물어보쿠다예. 옷ᄀᆞ슴, 옷ᄀᆞ

슴 종류에는 어떤 거 잇수과?(옷 종류 같은 거, 바느질했던 거 그런 거 물어보겠습니다. 옷감, 옷감 종류에는 어떤 거 있습니까?)

106001 #2 베도 잇고 모시도 잇고 미녕도 잇고, 또 뭐 이시니, 이런 비단 거튼 거게.(베도 있고 모시도 있고 무명도 있고, 또 뭐 있니, 이런 비단 같은 거.)

명주

106002 @ 멩지?(명주?)

106002 #2 멩주. 멩준 우리 누에 질롸근에 뽕, 뽕 톧앙 누에 멕영 막 멩지 짜낫저. 멩지 클에 ᄒᆞ루, 이틀만 짜민, 짜민 ᄒᆞᆫ 빌.(명주. 명주는 우리 누에 길러서 뽕, 뽕 뜯어서 누에 먹여서 마구 명주 짰었어. 명주 물레에 하루, 이틀만 짜면, 짜면 한 필.)

106002 @ 아.(아.)

106002 #2 경헤근에 우리 처년 때, 학교 졸업헨에 우리 처녀 때이.(그래서 우리 처녀였을 때, 학교 졸업해서 우리 처녀 때.)

106002 @ 예.(예.)

106002 #2 시집 안 오고 헌 때 그거 막 짜근에. 그거 ᄒᆞᆫ 빌 주민 ***이엔 헌 거 치메 ᄒᆞ나 ᄀᆞ슴 줘라. ᄒᆞᆫ 빌 주어사, 엿날에. 경헨 그거 상 입곡 멩진 집이 헤영 하난.(시집 안 오고 했을 때 그거 마구 짜서. 그거 한 필 주면 ***이라고 한 거 치마 하나 감 주더라. 한 필 주어야, 옛날에. 그래서 그거 사서 입고 명주는 집에 해서 많으니까.)

106002 @ 아.(아.)

106002 #2 경허멍 그 누에 질황, 누에 쳇 번 요만썩헌 때부터 ᄌᆞ근ᄌᆞ근 커 놔근에 고치 헤근에이 영 영 고치 싸곡. 영헤영 고치 싸곡.(그래서 그 누에 길러서, 누에 첫 번 요만할 때부터 차근차근 커 놔서 고치 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치 싸고. 이렇게 고치 싸고.)

106006 @ 게난 누에 질루는 거 물어보쿠다예.(그러니까 누에 기르는 거 물어보겠습니다.)

106006 #2 어.(어.)

106006 @ 누에 질루는 거예.(누에 기르는 거요.)

106006 #2 어.(어.)

106006 @ 누에 허젠 허민 그 알을 어디 강 얻어 오는 거라? 어디 강 사 와?(누에 하려고 하면 그 알을 어디 가서 얻어 오는 거야? 어디 가서 사 와?)

106006 #2 어디산디 강 얻어 오는지, 그때 문 조합으로 나와라게.(어디인지 가서 얻어 오는지, 그때 모두 조합으로 나오더라.)

106006 @ 예. 게민 누에 사민 요만헌 거 아니?(예. 그럼 누에 사면 요만한 거 아니?)

106006 #2 쳇 번 누에 저 거시기 알, 알 기자 좁썰거치 똑똑똑똑 헤진 거 요만

이헌 것가 기자 혼, 혼 줌.(첫 번 누에 저 거시기 알, 알 그저 좁쌀같이 똑똑똑똑 한 거 요만한 것이 그저 한, 한 줌.)

106006 @ 음.(음.)

106006 #2 경헤영 반 장, 혼 장, 반 장, 혼 줄 경허멍 혼 줄은 젤 족은 거 반 장은 ᄒᆞ썰 큰 거, 혼 장은 막 큰 거.(그래서 반 장, 한 장, 반 장, 한 줄 그러면서 한 줄은 제일 작은 거 반 장은 조금 큰 거, 한 장은 아주 큰 거.)

106006 @ 아.(아.)

106006 #2 경헤근에 혼 장 질루민 구들 ᄒᆞ나 이 방만헌 거 솜빡허게[273], 이디 숨빡.(그래서 한 장 기르면 방 하나 이 방만한 거 가득하게, 여기 가득.)

106006 @ 게민 한 장이엔 허민 이만헌 거 하나 상 오는 거?(그럼 한 장이라고 하면 이만한 거 하나 사서 오는 거?)

106006 #2 혼 장이엔 허민 씨가, 씨가 혼 장.(한 장이라고 하면 씨가, 씨가 한 장.)

106006 @ 예, 씨가 혼 장.(예, 씨가 한 장.)

106006 #2 씨가 혼 장 허민 그거 키우민 막 하.(씨가 한 장 하면 그거 키우면 아주 많아.)

106006 @ 게민 이 방에서 누에를 키우덴 허민.(그럼 이 방에서 누에를 키운다고 하면.)

106006 #2 허민 좀, 좀박[274]이엔 헌 거 영헨 네모난 거 잇주게. 좀박 영헹 네모난 거 시민 이디 문딱 단가[275] 메여.(하면 좀, '좀박'이라고 하는 거 이런 네모난 거 있지. '좀박' 이런 네모난 거 있으면 여기 모두 '단가' 매.)

106006 @ 으.(으.)

106006 #2 저 거시기 대 헤다근에.(저 거시기 대 해다가.)

106006 @ 대 헤당.(대 해다가.)

106006 #2 대 헤당 혼 칸 혼 칸 올려놓는 거. 이디 혼 칸 요디 혼 칸, 요디 혼 칸 이 방 ᄒᆞ나 숨빡.(대 해다가 한 칸 한 칸 올려놓는 거. 여기 한 칸 요기 한 칸, 요기 한 칸 이 방 하나 가득.)

106006 @ 음.(음.)

106006 #2 반 장. 혼 장 허민 이 구들 두 개 헤사주, 두 개.(반 장. 한 장 하면 이 방 두 개 해야지, 두 개.)

106006 @ 아, 한 장이면 누에가 얼마나, 크기가 얼만이 헤?(아, 한 장이면 누에가 얼마나, 크기가 얼마만큼 해?)

106006 #2 혼 장은 요디 요만이헌 것이 이디 똑똑똑 이거 문 무시거 좁썰거치 자락 허게 놔지민 그것이 씨.(한 장은 요기 요만한 것이 여기 똑똑똑 이거 모두 뭐 좁쌀같이 와락 하게 놓으면 그것이 씨.)

---

273) '솜빡하다'는 물건이나 사람이 아주 많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누에가 방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
274) '좀박'은 누에를 칠 때 사용하는 네모난 나무 상자를 말한다.
275) '단가'는 대나무 등을 엮어 만든 선반을 말한다.

106006 @ 이게, 이 크기가 혼 장?(이게, 이 크기가 한 장?)

106006 #2 으.(으.)

106006 @ 처음에 이만헐 때 이 크기 혼 장이면 이 방 다 차?(처음에 이만할 때 이 크기 한 장이면 이 방 다 차?)

106006 #2 어. 차당도 남아.(어. 차다가도 남아.)

106006 @ 아, 기마씨.(아, 그래요.)

106006 #2 어, 이 방 두 개 허여. 두 개 혼 장 허민.(어, 이 방 두 개 해. 두 개 한 장 하면.)

106006 @ 이만헌 거 한 장인디 이거 하나씩 잘르멍 여기.(이만한 거 한장인데 이거 하나씩 자르면서 여기.)

106006 #2 아니, 이디 영 놓민 이디 문딱 깨우주게.(아니, 여기 이렇게 놓으면 여기 모두 깨우지.)

106006 @ 예.(예.)

106006 #2 좀박에 영헹 놔두민 깨우민이 그걸 문딱 깨우민 이 좀박더레 들여놓고 저레 놓고 똥 치우멍 영 영 허멍. 쳇 번은 요만썩헌 거 허민 뿡 헤당 좀질이 막 끄늘게 썰어근에 그거 영 영 주민 그거 문 먹어.('좀박'에 이렇게 놔두면 깨우면 그걸 모두 깨우면 이 '좀박'에 들여놓고 저리 놓고 똥 치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첫 번은 요만한 거 하면 뿡 해다가 가늘게 아주 가늘게 썰어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주면 그거 모두 먹어.)

106006 @ 먹어.(먹어.)

106006 #2 먹엉 뒷날은 요만이 더 크곡.(먹고 뒷날은 요만큼 더 크고.)

106006 @ 아, 하하.(아, 하하.)

106006 #2 뒷날은 또 요만이 더 크곡. 그거 자꾸 헤근에 주주게.(뒷날은 또 요만큼 더 크고. 그거 자꾸 해서 주지.)

106006 @ 예.(예.)

106006 #2 물 불라지민 누에 죽어 벼. 물 안 불라지게. 물르게.(물 발리면 누에 죽어 버려. 물 안 발리게. 마르게.)

106006 @ 게민 그 이파리, 그 뽕잎에 물 없이?(그럼 그 이파리, 그 뽕잎에 물 없이?)

106006 #2 물 엇게.(물 없게.)

106006 @ 으.(으.)

106006 #2 비 온 날은 문딱 물을 다까사. 경헤근에 그거 주민 크민 저 혼불 줌 잣저, 두불 줌잣저, 세불 줌잣저, 네불 줌잣저, 경허주게.(비 온 날은 모두 물을 닦아야. 그래서 그거 주면 크면 저 초벌 잠잤다, 두벌 잠잤다, 세벌 잠잤다, 네벌 잠잤다, 그러지.)

106006 @ 음.(음.)

106006 #2 경헨 ᄒᆞ쏠 커 가는 걸 경 곧주게.(그렇게 조금 커 가는 걸 그렇게 말

하지.)

106006 @ 게민 흔불 줌자는 게 며칠 지나민 흔불 줌자는 거?(그럼 초벌 잠자는 게 며칠 지나면 초벌 잠자는 거?)

106006 #2 그거 몰라. 흔 일주일.(그거 몰라. 한 일주일.)

106006 @ 일주일.(일주일.)

106006 #2 일주일 뒈카?(일주일 될까?)

106006 @ 누에가 요만이.(누에가 요만큼.)

106006 #2 요만썩헌 거.(요만한 거.)

106006 @ 거 실 뽑을 때까지 허면 멧 불 줌을 재웁니까?(거 실 뽑을 때까지 하면 몇 벌 잠을 재웁니까?)

106006 #2 네불.(네벌.)

106006 @ 네불 줌을 재우는 거라예?(네벌 잠을 재우는 거지요?)

106006 #2 어, 네불.(어, 네벌.)

106006 @ 게민 네불이면 흔불 줌자는 게 일주일이면 이만큼 크는 게 흔 달이민 뒈는 거?(그럼 네벌이면 초벌 잠자는 게 일주일이면 이만큼 크는 게 한 달이면 되는 거?)

106006 #2 으.(으.)

106006 @ 아.(아.)

106006 #2 경헨 거 마지막에 뽕 튿아당 그대로 뽕낭차로 영 더껑 놔두민 그냥 웃드레 올르멍 문 먹곡.(그래서 거 마지막에 뽕 뜯어다가 그대로 뽕나무째로 이렇게 덮어서 놔두면 그냥 위로 오르면서 모두 먹고.)

106006 @ 게민 처음에는?(그럼 처음에는?)

106006 #2 줌질게 썰엉.(잘게 썰어서.)

106006 @ 줌질게.(잘게.)

106006 #2 우리 무시거 저 쪽파나 무시거 막 끗늘게 썰듯 그추룩 헤근에 영 영헹 주곡.(우리 뭐 저 쪽파나 뭐 아주 가늘게 썰듯이 그처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고.)

106006 @ 예.(예.)

106006 #2 경헨 거 커 가민 ᄒᆞ쏠 이디 ᄀᆞ득아 가민 요쪽더레 ᄒᆞ쏠 옮겨 놓고 요쪽더레 옮겨 놓고 헤영 또 ᄒᆞ쏠 커 가민 크게 썰고.(그렇게 거 커 가면 조금 여기 가득해 가면 요쪽으로 조금 옮겨 놓고 요쪽으로 옮겨 놓고 해서 또 조금 커 가면 크게 썰고.)

106006 @ 크게 썰고.(크게 썰고.)

106006 #2 ᄒᆞ쏠 커 가민 또 크게 썰고 또 헤당 영 무지령[276]도 놓곡.(조금 커 가면 또 크게 썰고 또 해다가 이렇게 '무지려서'도 넣고.)

106006 @ 아.(아.)

276) '무지리다'는 풀이나 나물 따위를 손으로 뒤틀어 뜯는다는 의미다.

106006 #2 경허당 마지막엔 그대로 통차.(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대로 통째.)

106006 @ 예.(예.)

106006 #2 통차 막 들이쳐.(통째 마구 들어뜨려.)

106006 @ 예.(예.)

106006 #2 경헨 먹어근에 허민 누에 마지막 다 뒌 건 올를 때 뒈민 노랑헌 게 족아. ᄒᆞ쏠 줄어들어.(그래서 먹어서 하면 누에 마지막 다 된 건 오를 때 되면 노란 게 작아. 조금 줄어들어.)

106006 @ 으.(으.)

106006 #2 줄어들민 그건 또 이디 헤근에 누에 올리는 거 베염고사리, 고사리, 베염고사리.(줄어들면 그건 또 여기 해서 누에 올리는 거 뱀고사리, 고사리, 뱀고사리.)

106006 @ 베염고사리 영 영 헌 거.(뱀고사리 이렇게 이렇게 한 거.)

106006 #2 으, 그런 거 비여당이, 허궁고사리, 허궁고사리엔 허주게.(으, 그런 거 베어다가, 고비, 고비라고 하지.)

106006 @ 허흥?(허흥?)

106006 #2 허궁. 허궁고사리.('허궁', 고비.)

106006 @ 아, 허궁고사리.(아, 고비.)

106006 #2 으, 그거 비여당 영헹 놔근에 그거 올르는 거 요만썩헌 거 노랑헌 거 영헹 오그라져근에 ᄒᆞ쏠 사름도 늙어가민 족듯이 족아.(으, 그거 베어다가 이렇게 놔서 그거 오르는 거 요만한 거 노란 거 이렇게 오그라져서 조금 사람도 늙어가면 작듯이 작아.)

106006 @ 음.(음.)

106006 #2 경허민 그거 올령 놔두민 고치가 뒈여이.(그러면 그거 올려서 놔두면 고치가 되어.)

106006 @ 으.(으.)

106006 #2 누에 영 벵 동글락헨. 그 그 고치 뒈민 그 고치가 문딱 또 굳으민 문 손으로 따.(누에 이렇게 뱅 동그래. 그 그 고치 되면 그 고치가 모두 또 굳으면 모두 손으로 따.)

106006 @ 음.(음.)

106006 #2 손으로 땅 이디 모여 놔근에 그걸 ᄆᆞᆯ류와, 벳디 ᄆᆞᆯ류와근에 솟디 놔근에 불 ᄉᆞᆷ으멍 이디, 이딘 솟 놔근에 대막뎅이 하시[277], 접음 영 두 개 헤영 영 영 접으멍 고주리, 고주리주. 고주리엔 헌다게.(손으로 따서 여기 모아 놔서 그걸 말려, 볕에 말려서 솥에 넣어서 불 때면서 여기, 여기는 솥 놔서 대막대기 젓가락, 젓가락 이렇게 두 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서 누에고치, 누에고치지. '고주리'라고 한다.)

106006 @ 고주리.(누에고치.)

277) '하시'는 일본어 'はし'로 '젓가락'이라는 뜻이다.

106006 #2 어, 고주리. 그 누에 번데기가.(어, 누에고치. 그 누에 번데기가.)
106006 @ 번데기.(번데기.)
106006 #2 지금 번데기, 번데기 허멍 풀지.(지금 번데기, 번데기 하면서 팔지.)
106006 @ 예, 예.(예, 예.)
106006 #2 거 고주리.(거 누에고치.)
106006 @ 예.(예.)
106006 #2 고주리, 고주리 허주게.(누에고치, 누에고치 하지.)
106006 @ 고주리.(누에고치.)
106006 #2 경헨 그건 접아내영 이레 영 놔두고 이딘 또 영 영 감으멍 실 나오주게, 영. 영 허민 이딘 영 영 젓으고 욜론 불 때곡.(그렇게 그건 집어내서 이리 이렇게 놔두고 여긴 또 이렇게 이렇게 감으면서 실 나오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긴 이렇게 이렇게 젓고 여기로는 불 때고.)
106006 @ 예.(예.)
106006 #2 불 때곡 허민 이딘 영 영 젓으멍 이거 영 영 젓으멍 요레도 바레곡 요레 바레멍 영 접아내고 이디 줍아 가민 저거 영 더 놔근에 허곡. 경헤근에 이만은, 요만은 높이 헤지민 그거 믄 이거 이제, 이거 불도 안 때곡 요거 뜯어내영 그거 헤영 멩지실, 멩주실 헤영 요레 영 걸어 뒈근에 새로 허곡.(불 때고 하면 여긴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서 이리도 보고 이리 보면서 이렇게 집어내고 여기 집어 가면 저거 이렇게 더 놔서 하고. 그래서 이만큼, 요만큼 높이 하면 그거 모두 이거 이제, 이거 불도 안 때고 요거 뜯어내서 그거 해서 명주실, 명주실 해서 요리 이렇게 걸어 두고 새로 하고.)
106006 @ 아.(아.)
106006 #2 아이고, 잘도 어려와 그거.(아이고, 아주 어려워 그거.)
106006 @ 게난 누에 질롸가지고 실을 뽑젠 허민 누에가 얼마만큼 큽니까? 손가락 크기만큼?(그러니까 누에 길러서 실을 뽑았다고 하면 누에가 얼마만큼 큽니까? 손가락 크기만큼?)
106006 #2 어게. 요만썩, 요만썩은 커.(어. 요만큼, 요만큼은 커.)
106006 @ 요만썩 커.(요만큼 커.)
106006 #2 요만썩 컷당 고주리 뒈 가민 요만은.(요만큼 컸다가 누에고치 돼 가면 요만큼.)
106006 @ 아, 고주리 뒈민 이게 줄어듭니까?(아, 누에고치 되면 이게 줄어듭니까?)
106006 #2 줄어들어.(줄어들어.)
106006 @ 여기 노랑헌 거 앉은 거는 그게?(여기 노란 거 앉는 거는 그게?)
106006 #2 노랑허고, 노리롱허고 줄어들어.(노랗고, 노르무레하고 줄어들어.)
106006 @ 게민 그 노리롱헌 게 고주리 뒌 거?(그럼 그 노르무레한 게 번데기 된 거?)

106006 #2 고주리 뒈 가는 거.(번데기 돼 가는 거.)
106006 @ 아.(아.)
106006 #2 다 뒌. 집 짓젠.(다 된. 집 지으려고.)
106006 @ 집 짓젠.(집 지으려고.)
106006 #2 어, 사름 거트민 세상 다 떠나는 거주게.(어, 사람 같으면 세상 다 떠나는 거지.)
106006 @ 으.(으.)
106006 #2 으, 경헤영 그거 이레 저 허궁고사리 헤당 놔두민 집 짓어. 영 영. 쳇번은 널리 영 헷당 추추 헤근에 좁게 헹 요만이 집 짓언게. 잘도 거 신기헤여.(으, 그래서 그거 이리 저 고비 해다가 놔두면 집 지어. 이렇게 이렇게. 첫 번은 널리 이렇게 했다가 차차 해서 좁게 해서 요만큼 짓 지었어. 아주 거 신기해.)
106006 @ 경헨 그거 따당 솟에 놓는 거?(그래서 그거 따다가 솥에 넣는 거?)
106006 #2 으, 따근에 그거 번데기도 삼스방에 못 쓰는 번데기가 잇주.(으, 따서 그거 번데기도 삼사방에 못 쓰는 번데기가 있지.)
106006 @ 예.(예.)
106005 #2 그거 문 뜯엉 문딱 곱닥허게 벳겨 둬근에.(그거 모두 뜯어서 모두 곱게 벗겨 둬서.)
106005 @ 예.(예.)
106005 #2 곱닥허게 벳디 물류와근에.(곱게 볕에 말려서.)
106005 @ 예.(예.)
106005 #2 사락허게[278] 막 고와. 헤영케 요만썩 허게 막 곱나. 경허민 그거 솟디 물 꿰우멍 놔근에 영 영 젓으멍 헤 가민 그거 실로 이레 영 헹 이레 영 헹 연결허는 거가 잇주. 영 영 영 헤여근에 요디 영 영 감앙 또 욜로 영 뽑아내영.('사락하게' 아주 고와. 하얗게 요만큼씩 하게 아주 고와. 그러면 그거 솥에 물 끓이면서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서 해 가면 그거 실로 이리 이렇게 해서 이리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가 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기 이렇게 이렇게 감아서 또 요리로 이렇게 뽑아내서.)
106005 @ 음.(음.)
106005 #2 경헨 요디 영 둘르는 게 잇어. 물레, 물레. 물레엔 헨 영 영 이건 둘르곡 이건 영 영 허멍 고주린 요레 헤근에 번데기.(그래서 요기 이렇게 두르는 게 있어. 물레, 물레. 물레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건 두르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누에고치는 요리 해서 번데기.)
106005 @ 이딘 솟디를 얘기허는 거 아니?(여긴 솥을 얘기하는 거 아니?)
106005 #2 으, 요건 솟. 요건 솟. 이건 저 물레, 물레. 이건 물레 영 실 감는 거.(으, 요건 솥. 요건 솥. 이건 저 물레, 물레. 이건 물레 이렇게 실 감는 거.)
106005 @ 아.(아.)

278) 여기에서 '사락허다'는 물건 등이 볕에 잘 마른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106005 #1 실 감는 거.(실 감는 거.)

106005 @ 예. 이 물레가 이런 건 아니지예, 이런 거?(예. 이 물레가 이런 건 아니지요, 이런 거?)

106005 #2 아, 이건 물레 닮다. 이거 물레.(아, 이건 물레 같다. 이거 물레.)

106005 @ 이거 물레?(이거 물레?)

106005 #2 어, 이거 물레. 이거, 이거 기여. 이거, 이거. 이디 영, 요디 솟 놔근에 요레 물레 요 실 와신게. 요건 두 개로 온디.(어, 이거 물레. 이거, 이거 그래. 이거, 이거. 여기 이렇게 요기 솥 놔서 요리 물레 요 실 왔네. 요건 두 개로 왔는데.)

106005 @ 게민 솟 여기 잇어?(그럼 솥 여기 있어?)

106005 #2 솟은 요디 솟 헤근에, 요디 솟 헤영 요디 영헹 요런 거 요디가 잇지. 요디 시민 요디 연결헹 요레 뽑아내영 요거 영 영 둘르멍 영.(솥은 여기 솥 해서, 요기 솥 해서 요기 이렇게 요런 거 요기가 있지. 요기 있으면 요기 연결해서 요리 뽑아내서 요거 이렇게 이렇게 두르면서 이렇게.)

106005 @ 솟 옆이서 바로 물레를?(솥 옆에서 바로 물레를?)

106005 #2 어, 영 헹 둘른다게.(어, 이렇게 해서 두른다.)

106005 @ 이디 밑에선 불 때멍?(여기 밑에서는 불 때면서?)

106005 #2 어, 욜론 불 때곡 요건 솟이고 요딘 또 무시거 영 연결허는 거 영헌 거 잇주. 경허민 영 욜로 영 젓갈로 영 영 젓으민 실이 나와. 이 솟디서 경허민 그거 영 뽑아근에 요레 영 흔번 영 헤근에 요레 둥경 요거 벵 허게 두 번 감앙.(어, 요리로는 불 때고 요건 솥이고 요긴 또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런 거 있지. 그러면 이렇게 요리로 이렇게 젓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 실이 나와. 이 솥에서 그러면 그거 이렇게 뽑아다가 요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요리 당겨서 요거 뱅하게 두 번 감아서.)

106005 @ 으.(으.)

106005 #2 욜로 헹 또 영 연결헤여근에 경허민 요레 영 허민 요레, 요레 강 요레 영 잇어근에 벵벵 둘르민 이거 영 젓어 가멍 영 허민 실이 졸졸졸졸 나오주게.(요리로 해서 또 이렇게 연결해서 그러면 요리 이렇게 하면 요리, 요리 가서 요리 이렇게 이어서 뱅뱅 두르면 이거 이렇게 저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실이 졸졸졸졸 나오지.)

106005 @ 음.(음.)

106005 #2 하하하.(하하하.)

106005 @ 오, 신기하다. 이거는 뭐 허는 것과, 이거는?(오, 신기하다.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106005 #2 이건이 멘네 볼르는 물레.(이건 면화 바르는 물레.)

106005 @ 아.(아.)

106005 #2 저건 실 감는 물레. 이건 멘네.(저건 실 감는 물레. 이건 면화.)

106005 @ 씨 볼르는.(씨 바르는.)

106005 #2 목화, 목화. 씨 불르는 물레.(목화, 목화. 씨 바르는 물레.)
106005 @ 이건 이땅 다시 물어보쿠다예.(이건 이따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106005 #2 어, 어.(어, 어.)
106005 @ 거민 아까 한 장 헤 가지고 이 방 하나 키왓잖아예?(그럼 아까 한 장 해 가지고 이 방 하나 키웠잖아요?)
106005 #2 음.(음.)
106005 @ 그럼 그거 허면 멩지실 얼마나 나옵니까?(그럼 그거 하면 명주실 얼마나 나옵니까?)
106005 #2 멩지?(명주?)
106005 @ 으.(으.)
106005 #2 멩지, 혼 장 길루민 멩지 네 빌은 나올 거라. 네 빌.(명주, 한 장 기르면 명주 네 필은 나올 거야. 네 필.)
106005 @ 네 빌?(네 필?)
106005 #2 으.(으.)
106005 @ 네 빌이민 옷 얼마나 헤 입을 수 있는 거?(네 필이면 옷 얼마나 해 입을 수 있는 거?)
106005 #2 서른 자썩 네 개민 백이십 자.(서른 자씩 네 개면 백이십 자.)
106005 @ 예.(예.)
106005 #2 백이십 자민 혼 빌에, 멩지 혼 빌에 우리 치마 두 개.(백이십 자면 한 필에, 명주 한 필에 우리 치마 두 개.)
106005 @ 아, 치마 두 개.(아, 치마 두 개.)
106005 #2 으, 치마 두 개.(으, 치마 두 개.)
106005 @ 혼 빌에 치마 두 개민, 네 빌이민?(한 필에 치마 두 개면, 네 필이면?)
106005 #2 ᄋᆞ답 개.(여덟 개.)
106005 @ 여덥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거.(여덟 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거.)
106005 #2 으. 혼 장 질루민 네 빌 넘어 나올 거라.(으. 한 장 기르면 네 필 넘어 나올 거야.)
106005 @ 으.(으.)
106005 #2 네 빌 넘어 나올 거라.(네 필 넘어 나올 거야.)
106005 @ 게민 어쨌든 그게 혼 달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예?(그럼 어쨌든 그게 한 달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6005 #2 으?(으?)
106005 @ 한 달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예?(한 달에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6005 #2 혼 달에 다 못 허여.(한 달에 다 못 해.)
106005 @ 어쨌든 잠잣당 깻당 잠잣당 깻당 네 번 잠자민?(어쨌든 잠잤다가 깼다가 잠잤다가 깼다가 네 번 잠자면?)

106005 #2 어, 어 그건 거자 흔 덜, 기자 ᄒᆞ쏠 뒈고. 그거 헹 뽑아내곡 물레 헹 실 뽑아내곡 허민 아멩헤도 흔 ᄉᆞ십 일 걸릴 거라.(어, 어 그건 거의 한 달, 그저 조금 되고. 그거 해서 뽑아내고 물레 해서 실 뽑아내고 하면 아무래도 한 사십 일 걸릴 거야.)

106005 @ ᄉᆞ십 일.(사십 일.)

106005 #2 으, 으. 경 걸릴 거여.(으, 으. 그렇게 걸릴 거야.)

106005 @ 그렇게 뽑아낸 명주실, 멩지실에도 어떤 종류가 잇수과?(그렇게 뽑아낸 명주실, 명주실에도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106005 #2 아니, 아니. 그건 몰르켜. 우린 기자 흔 가지로 헤나난.(아니, 아니. 그건 모르겠어. 우린 그저 한 가지로 했었으니까.)

106005 @ 고운 거랑 나쁜 거랑 불르는 이름이 잇지 안허여?(고운 거랑 나쁜 거랑 부르는 이름이 있지 않아?)

106005 #2 으, 왕 고치, 왕 고치엔 헌 건 두 개, 누에 두 개가 들어강 집 하나 짓은 거 왕 고치.(으, 왕 고치, 왕 고치라고 하는 건 두 개, 누에 두 개가 들어가서 집 하나 지은 거 왕 고치.)

106005 @ 예.(예.)

106005 #2 그건 실이 홁게 나와. 홁게 나오민 그건 저 ᄒᆞ쏠 ᄂᆞ린 멩지.(그건 실이 굵게 나와. 굵게 나오면 그건 저 조금 내린 명주.)

106005 @ 예.(예.)

106005 #2 그건 ᄯᅳ로 헤근에 ᄂᆞ린 멩지로 미녕에 ᄀᆞ찌 서껑 짜낫저, 우리.(그건 따로 해서 내린 명주로 무명에 같이 섞어서 짰었어, 우리.)

106005 @ ᄂᆞ린 멩지?(내린 명주?)

106005 #2 으, 왕 고치, 왕실[279].(으, 왕 고치, '왕실'.)

106005 @ 안 좋은 거?(안 좋은 거?)

106005 #2 안 좋은 거 왕실.(안 좋은 거 '왕실'.)

106005 @ 왕실.('왕실'.)

106005 #2 좋은 건 기자 실, 좋은 건.(좋은 건 그자 실, 좋은 건.)

106003 @ 멩지로는 어떤 옷 멘들앙 입엇수과?(명주로는 어떤 옷 만들어서 입었습니까?)

106003 #2 멩지론 요새이.(명주로는 요새.)

106003 @ 으.(으.)

106003 #2 제주돈 수의, 죽엉 강 입는 옷. 그거 다 흔다. 게민 여잔이 세 빌 반 들어라. 여잔 다 허젠 허난.(제주도는 수의, 죽고 가서 입는 옷. 그거 다 한다. 그럼 여자는 세 필 반 들더라. 여잔 다 하려고 하니까.)

106003 @ 아.(아.)

106003 #2 세 빌 반. 남잔 세 빌 드는 거 닮아라. 세 빌.(세 필 반. 남자는 세

279) '왕실'은 굵은 실을 말한다.

필 드는 거 같더라. 세 필.)

106003 @ 아.(아.)

106003 #2 옛날엔 우린 노린 물도 들영 저고리 헹 입고 붉은 물도 들영 저고리 헹 입곡 치만 검은 물 들영 다듬이질헤영 주름 과짝 세왕 경헨 치마 헹 입곡.(옛날엔 우린 노란 물도 들여서 저고리 해서 입고 붉은 물도 들여서 저고리 해서 입고 치마는 검은 물 들여서 다듬이질해서 주름 짝 세워서 그래서 치마 해서 입고.)

106003 @ 음.(음.)

106003 #2 경헤낫저게.(그랬었어.)

106002 @ 아까 이렇게 헤 가지고 실 뽑앙 이렇게 돌렷잖아예?(아까 이렇게 해 가지고 실 뽑아서 이렇게 돌렸잖아요?)

106002 #2 으.(으.)

106002 @ 이게 멩지실 다 만들아진 거?(이게 명주실 다 만들어진 거?)

106002 #2 멩지, 멩지실 만들엉 거 그거 헤근에 이젠 또 요디 영 돌리는 기계가 또 잇어. 이거 영 허는 물레가 아니고. 또 영 허는 활, 활 물레가 잇어이.(명주, 명주실 만들어서 거 그거 해서 이젠 또 여기 이렇게 돌리는 기계가 또 있어. 이거 이렇게 하는 물레가 아니고. 또 이렇게 하는 활, 활 물레가 있어.)

106002 @ 음.(음.)

106002 #2 벵 이 둘레로 두는 거. 그거 이 멩지실을 요추룩 헌 거 그걸이 요추룩 둘레 헌 걸 그걸 영 씌와근에 경헨 실 감아, 또. 활 통에 감아. 저 요새 저 거시기 오렌지 거튼 거 먹어난 통 거튼 거 막 어렵주게, 엿날엔.(병 이 둘레로 두는 거. 그거 이 명주실을 요처럼 한 거 그걸 요처럼 둘레 한 걸 그걸 이렇게 씌워서 그래서 실 감아, 또. 활 통에 감아. 저 요새 저 거시기 오렌지 같은 거 먹었던 통 같은 거 아주 어렵지, 옛날엔.)

106002 @ 으.(으.)

106002 #2 그런 것에 실 문 감앗주게.(그런 것에 실 모두 감았지.)

106002 @ 예.(예.)

106002 #2 감으멍 영헤근에 이런 쒜에 감은 건 딱딱허민 영 영 영 영 ᄇᆞ벼근에 영 영 영 영 ᄇᆞ벼근에 이넉만썩 가게시리 경헨 영 영 감으멍 궂인 건 영 영 입으로 다듬아 불곡 또 궂어근에 실 끈어지민 영헹 실 ᄇᆞ벼근에 봉가 내여근에 막 어렵게 봉가 내영 그 실 잇어근에. 실 잇는 식도 영 헤근에 가데기 쳥[280] 영 허민 뒈여.(감으면서 이렇게 이런 쇠에 감은 건 딱딱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벼서 이만큼씩 가게끔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으면서 궂은 건 이렇게 이렇게 입으로 다듬어 버리고 또 궂어서 실 끊기면 이렇게 실 비벼서 주워 내서 아주 어렵게 주워 내서 그 실 이어서. 실 잇는 식도 이렇게 해서 '가데기 쳐서' 이렇게 하면 돼.)

---

280) 여기서 '가데기'는 '가닥'으로 '가데기 치다'는 실을 이을 때, 실 두 가닥을 엇갈리게 하여 연결한다는 의미다.

106002 @ 아, 실 잇는 것도.(아, 실 잇는 것도.)

106002 #2 어.(어.)

106002 @ 그냥 무끄지 안헹.(그냥 묶지 않아.)

106002 #2 으, 영 무끄질 안허여.(으, 이렇게 묶질 않아.)

106002 @ 예.(예.)

106002 #2 영 두 개 놩 가데기 쳥 영 돌렁 욜로 영 헤근에 영 허민 딱 뒈주게. 경허민 그걸 딱허게 놩 또 이걸 활 통에 놩 감고. 활 통에 감아근에 그거 흔 스무 개 헤신가. 그거 원 멧 개 헤난 거 몰르큰게. 우리도 막 헤난디. 그거 이디 놔근에 멩지 놀아, 또. 흔 사람 저레 줄 허민 이디 고지 네 개 박아근에 흔번 저레 영 돌아가고 절로 흔번 영 돌아왕 요디 오민 영헹 새 줏고. 영 영 영 새 줏앙 요거 ᄒᆞ나에 영 걸고. 또 욜로 헤근에 저레 돌아가곡 저레 영 돌아오민 요디 왕 새 줏곡. 경헨 흔 빌 허는 거 ᄒᆞ루 경 헤영 놀아.(이렇게 두 개 놔서 '가데기 쳐서' 이렇게 돌려서 요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딱 되지. 그러면 그걸 딱하게 놔서 또 이걸 활 통에 놔서 감고. 활 통에 감아서 그거 한 스무 개 했나. 그거 원 몇 개 했던 거 모르겠어. 우리도 많이 했는데. 그거 여기 놔서 명주 날아, 또. 한 사람 저리 줄 하면 여기 고지 네 개 박아서 한번 저리 이렇게 돌아가고 저리로 한번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 오면 이렇게 새 잣고. 이렇게 이렇게 새 자아서 요거 하나에 이렇게 걸고. 또 요리로 해서 저리 돌아가고 저리 돌아오면 여기 와서 새 잣고. 그렇게 한 필 하는 거 하루 그렇게 해서 날아.)

106002 @ 음.(음.)

106002 #2 놀아근에 그걸 돈 줴여. 이걸 영 허민 이추룩 문딱 돈 쥔다게. 영헹 줴민 영헹 걸치멍 돈 문 줴민 막 이 발로 흔 여남은 발썩 헌 거 댓 개 뒈주게.(날아서 그걸 돈 쥐어. 이걸 이렇게 하면 이처럼 모두 돈 쥔다. 이렇게 쥐면 이렇게 걸치면서 돈 모두 쥐면 마구 이 발로 한 여남은 발씩 한 거 댓 개 되지.)

106002 @ 예.(예.)

106002 #2 그거 문 줴여근에 헷다근에 또 그걸 메여, 메여.(그거 모두 쥐어서 했다가 또 그걸 매, 매.)

106002 @ 메여.(매.)

106002 #2 아래 모닥불 살르고 몬지, 몬지락불[281] 옛날 말로 몬지락불 살롸근에 그 우터레 도꼬마리 놓곡.(아래 모닥불 사르고 먼지, '몬지락불' 옛날 말로 '몬지락불' 살라서 그 위로 도투마리 놓고.)

106002 @ 음.(음.)

106002 #2 경헤여근에 저레 헤근에 영 헹. 또 솔 헤여다근에 저 바당에 가근에 저 패 헤다근에 가시리.(그래서 저리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솔 해서 저 바다에 가서 저 패 해다가 참풀가사리.)

281) '몬지락불'은 '몬지락+불'의 구성으로, '몬지락'은 '먼지'에 대응한다. 여기서 '몬지락불'은 까끄레기나 검불 등에 불을 붙여 피운 불을 말한다.

106002 @ 가시리.(참풀가사리.)
106002 #2 가시리 풀 쑤어근에.(참풀가사리 풀 쑤어서.)
106002 @ 예.(예.)
106002 #2 가시리 풀 쑤어근에 그 솔에 볼라근에 그거 영 영 영 영 허멍 그거 헤근에.(참풀가사리 풀 쑤어서 그 솔에 발라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해서.)
106002 @ 풀 멕이는 거?(풀 먹이는 거?)
106002 #2 또 메멍 영 영 도꼬마리에 믄 감앙.(또 매면서 이렇게 이렇게 도투마리에 모두 감아서.)
106002 @ 예.(예.)
106002 #2 경헨 클에 강 짜주게. 오죽 어려우카 부덴 허느니?(그래서 물레에 가서 짜지. 오죽 어려울까 봐 하니?)
106002 @ 게민 풀 멕염구나.(그럼 풀 먹이는구나.)
106002 #2 어, 풀 멕여근에.(어, 풀 먹여서.)
106002 @ 아.(아.)
106002 #2 경게.(그렇게.)
106002 @ 예.(예.)
106002 #2 경허민 그 새, 새 줏는 것도 ᄒᆞ나만 뜰리민 다 뜰려 벼.(그러면 그 새, 새 잣는 것도 하나만 틀리면 다 틀려 버려.)
106002 @ 하하.(하하.)
106002 #2 다 뜰려 벼. 이디 거는 것도 저레 돌아가단 ᄒᆞ나만 중간에 이레 돌아와 불민 안 뒈는 거.(다 틀려 버려. 여기 거는 것도 저리 돌아가다가 하나만 중간에 이리 돌아와 버리면 안 되는 거.)
106002 @ 경헌게.(그러더라.)
106002 #2 거 다 뜰려 부는 거.(거 다 틀려 버리는 거.)
106002 @ 다 뜰려 부는 거.(다 틀려 버리는 거.)
106002 #2 어. 거 막 멩심헤사. 하하하.(어. 거 아주 명심해야. 하하하.)
106002 @ 멩심헤사. 예, 누에, 멩지 헷고예, 이제 미녕.(명심해야. 예, 누에, 명주 했고요, 이제 무명.)

무명

106007 #2 아, 미녕도 똑ᄀᆞ타.(아, 무명도 똑같아.)
106007 @ 미녕 종류에는 뭐 뭐 잇수과?(무명 종류에는 뭐 뭐 있습니까?)
106007 #2 목화.(목화.)
106007 @ 아니, 미녕에 종류에는?(아니, 무명의 종류에는?)
106007 #2 미녕 종류 뭐 무시거 잇어게, 그거 ᄒᆞ나주.(무명 종류 뭐 뭐 있어, 그거 하나지.)

106007 @ 토목, 생목, 광목 뭐 그런 말?(토목, 생목, 광목 뭐 그런 말?)

106007 #2 아, 광목, 광목. 광목은 저 기계로 짱 저 거시기에서 나오는 거. 우리 이디서 허는 건 미녕.(아, 광목, 광목. 광목은 저 기계로 짜서 저 거시기에서 나오는 거. 우리 여기서 하는 건 무명.)

106007 @ 그냥 미녕이렌 헌 거.(그냥 무명이라고 하는 거.)

106007 #2 으. 기자 미녕 혼 가지.(으. 그저 무명 한 가지.)

106007 @ 토목이렌도 애기 안 헤난?(토목이라고도 애기 안 했었어?)

106007 #2 안 허연.(안 했어.)

106007 @ 엿새미녕, 닷새미녕은 엇어낫수과?('엿새미녕', '닷새미녕'은 없었습니까?)

106007 #2 어, 엿새미녕[282] 닷새미녕[283] 헌 건, 일곱새미녕[284], 거 막 즘진 건 일곱새, 엇새. 닷샌 막 홁은 거.(어, '엿새미녕' '닷새미녕' 하는 건, '일곱새미녕', 거 아주 자잘한 건 '일곱새', '엿새'. '닷새'는 아주 굵은 거.)

106007 @ 홁은 건 닷새미녕예?(굵은 건 '닷새미녕'요?)

106007 #2 으.(으.)

106008 @ 게민 미녕으로는 어떤 옷 멘들앙 입엇수과?(그럼 무명으로는 어떤 옷 만들어서 입었습니까?)

106008 #2 미녕옷은 이디 저 정벵이도 멘글곡 저고리도 미녕으로 허곡 이불도 허곡.(무명옷은 여기 저 잠방이도 만들고 저고리도 무명으로 하고 이불도 하고.)

106008 @ 아, 이불도 미녕으로?(아, 이불도 무명으로?)

106008 #2 으, 이불도 안팟 문 이불, 기자 이디서 헤지는 거난 그걸로만 헷주게.(으, 이불도 안팎 모두 이불, 그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로만 했지.)

106008 @ 으.(으.)

106008 #2 사지 못허난. 이녁냥으로 허는 거난. 경허고 미녕으로, 미녕실로 헤근에 저 대비[285]엔 헤근에이 대비 영 짜근에 신고.(사지 못하니까. 자기대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무명으로, 무명실로 해서 저 양말이라고 해서 양말 이렇게 짜서 신고.)

106008 @ 으.(으.)

106008 #2 저 이 손에 저 장갑도, 데부꾸로[286]. 거 일본말.(저 이 손에 저 장갑도, '데부꾸로'. 거 일본말.)

106008 @ 일본말이고.(일본말이고.)

106008 #2 장갑이주. 우린 데부꾸로, 데부꾸로 헤낫저게.(장갑이지. 우린 장갑, '데부꾸로' 했었어.)

---

282) '엿새미녕'은 '엿새무명'을 말한다. 백스무 올의 날실로 짠 무명으로 거칠고 품질이 좋지 못하다. '닷새미녕'은 품질이 더 좋지 않고, '일곱새미녕'은 아주 올이 고운 무명이다.

283) '닷새미녕'에서 새는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로, '닷새미녕'은 올이 가장 굵은 무명을 말한다.

284) '일곱새미녕'에서 새는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로, '일곱새미녕'은 아주 올이 고운 무명이다.

285) '대비'는 '일본식 버선'인 일본어 'たび'에서 온 말로 '양말'을 말한다.

286) '데부꾸로'는 일본어 'てぶくろ'로 '장갑'을 말한다.

106008 @ 예.(예.)

106008 #2 그거 짜근에 손에 끼고. 그거 미녕실로 경허고 미녕은 헤근에 이제 몸뻬도 헹 입고 저 이 소곱에 살마다[287] 옛날은 그 해녀만 입지 안허고 속곳, 속곳 헤도 난 안 입어 봣저만은 속곳, 속곳 허멍 입어낫어덜. 속곳도 멘글앙 입고. 다 옷 헹 입주, 그거 겉옷이나 속곳이나 다.(그거 짜서 손에 끼고. 그거 무명실로 그리고 무명은 해서 이제 몸뻬도 해서 입고 저 이 속에 '살마다' 옛날은 그 해녀만 입지 않고 '속곳', '속곳' 해도 난 안 입어 봤지만 '속곳', '속곳' 하면서 입었었어. '속곳'도 만들어서 입고. 다 옷 해서 입지, 그거 겉옷이나 '속곳'이나 다.)

106008 @ 다 미녕으로.(다 무명으로.)

106008 #2 어, 우이옷이나 아래옷이나 미녕으로. 미녕허고 멩지만 헹 입어낫주, 다른 옷은 엇엇주게.(어, 윗옷이나 아래옷이나 무명으로. 무명하고 명주만 해서 입었었지, 다른 옷은 없었지.)

106008 @ 엇어난예. 게난 토목 허는 말은 안 써난?(없었어요. 그러니까 토목 하는 말은 안 썼었어?)

106009 #2 토목?(토목?)

106009 @ 으.(으.)

106009 #2 토목은 저 거시기 그 저 짓 안 지운 거 토목이엔 허는 거 닮다.(토목은 저 거시기 그 저 깃 안 지운 거 토목이라고 하는 거 같다.)

106009 @ 으.(으.)

106009 #2 짓 안 지운 거. 거 풀 쒀근에 거 짓 안 지운 거.(깃 안 지운 거. 거 풀 쒀서 거 깃 안 지운 거.)

106009 @ 예, 예.(예, 예.)

106009 #2 으, 그거 닮다.(으, 그거 같아.)

106010 @ 광목은 공장에서?(광목은 공장에서?)

106010 #2 광목은 공장에서 나와근에 어게.(광목은 공장에서 나와서 어.)

106011 @ 홍세미녕이란 게 뭐과?('홍세미녕'이란 게 뭡니까?)

106011 #2 홍세미녕[288]?('홍세미녕'?)

106011 @ 예.(예.)

106011 #2 그 미녕은 헤여근에 홍세 놔난 거게.(그 무명은 해서 혼서 놨던 거.)

106011 @ 음.(음.)

106011 #2 저 장게갈 때 새각시 둘레 가젠 허민 그 홍세 놀 때 미녕허고 멩지 놓주게.(저 장가갈 때 새색시 데리러 가려고 하면 그 혼서 놓을 때 무명하고 명주 넣지.)

106011 @ 홍세가 뭐라?(혼서가 뭐야?)

106011 #2 홍세가 장게갈 때 무시거 정 가지 안허느냐?(혼서가 장가갈 때 뭐 져

287) '살마다'는 '팬츠, 잠방이'라는 의미의 일본어 'さるまた'에서 온 말로, '팬티, 속옷'을 말한다.

288) '홍세미녕'은 '홍세함'에 넣는 무명을 가리킨다. '홍세함'이란 혼례를 치룰 때 신랑집에서 마련한 예장 등을 넣고 신부 집에 가는 예물 함을 말한다.

서 가지 않니?)
106011 @ 함?(함?)
106011 #2 그거 함, 함.(그거 함, 함.)
106011 @ 음. 그걸 홍세렌 허는 거.(음. 그걸 혼서라고 하는 거.)
106011 #2 으, 그거 그거. 지금은 돈으로 놓고 무시거 헴주만은 그땐 홍세엔 헤근에 ᄒᆞ쏠 잇인 집인 멩지 놓곡.(으, 그거 그거. 지금은 돈으로 넣고 뭐 하지만 그때는 혼서라고 해서 조금 있는 집은 명주 넣고.)
106011 @ 예.(예.)
106011 #2 엇인 집인 미녕.(없는 집은 무명.)
106011 @ 예.(예.)
106011 #2 경헨 놔낫저게.(그래서 놨었어.)
106011 @ 삼춘 시집올 때는 멧 필이나 놔십디까?(삼춘 시집올 때는 몇 필이나 놨었습니까?)
106011 #2 저 미녕 두 빌, 멩지 두 빌 논 거 닮아라. 아, 미녕 ᄒᆞᆫ 빌, 멩지 ᄒᆞᆫ 빌. 경 논 거 닮아라.(저 무명 두 필, 명주 두 필 넣은 거 같더라. 아, 무명 한 필 명주 한 필. 그렇게 넣은 거 같더라.)
106011 @ 아.(아.)
106011 #2 경 헨 아져 오난 할망[289] 문딱 아져 가 변.(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니까 할머니 모두 가지고 가 버렸어.)
106011 @ 하하.(하하.)
106011 #2 어, 아져 오난.(어, 가지고 오니까.)
106011 @ 할망이엔 허민 시어멍?(할머니라고 하면 시어머니?)
106011 #2 어, 시어멍.(어, 시어머니.)
106011 @ 시어멍이 문딱 가져가 불언?(시어머니가 모두 가져가 버렸어?)
106011 #2 어.(어.)
106012 @ 아이고 그걸로 옷도 못 헤 입언. 예, 예. 목화 농사는 어떵 지어낫수과, 미녕 만들젠 허민?(아이고, 그걸로 옷도 못 해 입었어. 예, 예. 목화 농사는 어떻게 지었었습니까, 무명 만들려고 하면?)
106012 #2 미녕 만들젠 허민, 멘네 갈젠 허민이.(무명 만들려고 하면, 면화 갈려고 하면.)
106012 @ 예, 멘네, 멘네 농사.(예, 면화, 면화 농사.)
106012 #2 멘네가 어느 때, 이때 갈암신가? 어느 때 가는 건 몰르켜. 가을에 타.(면화가 어느 때, 이때 갈고 있나? 어느 때 가는 건 모르겠어. 가을에 따.)
106012 @ 가을에.(가을에.)
106012 #2 어, 구월에.(어, 구월에.)
106012 @ 봄에 갈암신게.(봄에 갈고 있어.)

289) '할망'은 표준어의 '할머니'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시어머니를 가리킨다.

106012 #2 어, 봄에 갈암서. 저 구월덜에, 팔월덜로 구월덜에 탄다게.(어, 봄에 갈고 있어. 저 구월에, 팔월로 구월에 딴다.)

106012 @ 예.(예.)

106012 #2 멘네 간 보민이 영 ᄃᆞ레 영 올앗당이, ᄃᆞ레 막 맛 좋아.(면화 가서 보면 이렇게 다래 이렇게 열었다가, 다래 아주 맛 좋아.)

106012 @ 으.(으.)

106012 #2 거 딴 먹고.(거 따서 먹고.)

106012 @ 으, 멘네 가는 거부터 ᄀᆞᆯ아 줍서. 밧 갈앙?(으, 면화 가는 거부터 말해 주세요. 밭 갈아서?)

106012 #2 밧 갈앙 그디 씨 놔근에, 씨 톡톡톡 놔근에.(밭 갈아서 거기 씨 놔서, 씨 톡톡톡 놔서.)

106012 @ 뿌리는 게 아니고 톡톡 놓는 거?(뿌리는 게 아니고 톡톡 넣는 거?)

106012 #2 톡톡 놓는 디도 잇고 씨 한 딘 뿌리곡.(톡톡 넣는 데도 있고 씨 많은 데는 뿌리고.)

106012 @ 으.(으.)

106012 #2 또 씨 족은 딘 톡톡 놔근에 방수[290] 벌영 놓곡.(또 씨 적은 데는 톡톡 넣어서 간격 벌려서 넣고.)

106012 @ 예.(예.)

106012 #2 경헨 멘네 갈아근에 허민 그거 멘네 나주게. 여름에 저 노래도 잇지 안허냐. 여름에 꼿이 피영 가을 뒈민 거시기 헌덴 노래도게.(그래서 면화 갈아서 하면 그거 면화 나지. 여름에 저 노래도 있지 않니. 여름에 꽃이 펴서 가을 되면 거시기 한다고 노래도.)

106012 @ 예.(예.)

106012 #2 경허민 가을에 강 보민이 ᄃᆞ레 요만썩 요만썩 헌 ᄃᆞ레 영 헹 쫄망쫄망허주게. 경헨 믄 꼿 피엿당 춤. 꼿 핀 때 막 꼿이 고와.(그러면 가을에 가서 보면 다래 요만큼씩 요만큼씩 한 다래 이렇게 해서 쫄망쫄망하지. 그래서 모두 꽃 피었다가 참. 꽃 피었을 때 아주 꽃이 고와.)

106012 @ 멘네는 영 갈아근에 검질메 주거나?(면화는 이렇게 갈아서 김매 주거나?)

106012 #2 검질메고.(김매고.)

106012 @ 소까 주는 것도 잇어?(솎아 주는 것도 있어?)

106012 #2 건 검질메곡게 저 비료도 주민 크곡게. 건 엿날엔 비료 엇엉 비료도 못 줫주만은.(건 김매고 저 비료도 주면 크고. 건 옛날엔 비료 없어서 비료도 못 줬지만.)

106012 @ 오줌?(오줌?)

106012 #2 오줌도 져당 주곡. 대갠 멘네왓디 안 주고 보리왓디 줘라게.(오줌도

290) '방수'는 씨앗 등을 뿌릴 때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간격을 말한다.

져다가 주고. 대개는 면화밭에 안 주고 보리밭에 주더라.)

106012 @ 아.(아.)

106012 #2 오줌은 보리왓디.(오줌은 보리밭에.)

106012 @ 으, 보리왓디.(으, 보리밭에.)

106012 #2 으, 보리왓디 대게 줜게. 멘네왓은 그자 내베 뒁.(으, 보리밭에 대개 주더라. 면화밭은 그저 내버려 두고.)

106012 @ 내베 뒁.(내버려 두고.)

106012 #2 경허민 멘네 경헹 그 ᄃᆞ레 올아근에 그걸 ᄃᆞ레가 익으민 헤영케 부각허게[291]. 거 안 봔데이?(그러면 면화 그래서 그 다래 열어서 그걸 다래가 익으면 하얗게 '부각하게'. 거 안 봤었지?)

106012 @ 예, 예 못 봣수다.(예, 예 못 봤습니다.)

106012 #2 그걸 갑 갑 헤근에 갑이 네 갑도 잇고 다섯 갑도 잇고 헌 거 꼿 피듯이. 부각허게 헤영케 밧디 기자 헤영헤여. 게민 거 문 밧디 강 문 따멍 문 출구덕 짜근에 이레 놓곡 영 탕 놓곡 탕 놓곡 헤근에. 저 거시기 히여뜩헌 검질은 다듬아 불고 그것만, 그것만 헹 벳디 왕 막 널어.(그걸 쪽 쪽 해서 쪽이 네 쪽도 있고 다섯 쪽도 있고 한 거 꽃 피듯이. '부각하게' 하얗게 밭에 그저 하얘. 그럼 거 모두 밭에 가서 모두 따면서 모두 '출구덕' 짜서 이리 넣고 이렇게 따서 넣고 따서 넣고 해서. 저 거시기 어지러운 검불은 다듬어 버리고 그것만, 그것만 해서 볕에 와서 마구 널어.)

106012 @ 으.(으.)

106012 #2 널엇당 ᄀᆞ사 물레.(널었다가 아까 물레.)

106012 @ 예.(예.)

106012 #2 물레에 ᄒᆞ나씩 멕이멍 영 영 허민 씬 이레 털어지곡 목환, 저 솜은 저레 가곡.(물레에 하나씩 먹이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씨는 이리 떨어지고 목화는, 저 솜은 저리 가고.)

106012 @ 으.(으.)

106012 #2 경헨 문딱 발레여.(그래서 모두 발라.)

106012 @ 예.(예.)

106012 #2 그걸 또 막 두드려.(그걸 또 마구 두드려.)

106012 @ 발렌 거를?(바른 거를?)

106012 #2 그거 문 불른 거. 불른 걸 저 기계 엇인 땐 이디서 막 몽뎅이로 두드리민 걸 막 피여낭 솜 뒈여.(그거 모두 바른 거. 바른 걸 저 기계 없을 땐 여기서 마구 몽둥이로 두드리면 걸 마구 피어나서 솜 돼.)

106012 @ 아.(아.)

106012 #2 솜 뒈영 엿날은 막 그걸 영 솜 뒌 걸 골로루 골로루 막 페와 놩 그걸 영 헤여근에 솜 헤여근에 이불 헹 더끄곡 헷주만은. 그 기계 나난 불른 거 물류

291) '부각허다'는 거품이나 솜 따위가 잘 피어오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왕 아정 가민 기계에서 문딱 헤 줘.(솜 돼서 옛날은 마구 그걸 이렇게 솜 된 걸 골고루 골고루 마구 펴 놔서 그걸 이렇게 해서 솜 해서 이불 해서 덮고 했지만. 그 기계 나니까 바른 거 말려서 가지고 가면 기계에서 모두 해 줘.)

106012 @ 음.(음.)

106012 #2 또 말째라 가난 멘네만 아져가도 불라근에 헤 주곡.(또 말째라 가니까 면화만 가져가도 발라서 해 주고.)

106012 @ 아.(아.)

106012 #2 말째라 가난 점점 머리가 발달뒈 가난.(말째라 가니까 점점 머리가 발달돼 가니까.)

106012 @ 아, 멘네 가져가민 거기서 다 씨 따 가지고?(아, 면화 가져가면 거기서 다 씨 따 가지고?)

106012 #2 으, 경헨 엿날은 거 화리에도 영 헹 탁탁허게 화리에 쏘우멍 그걸 페와난 셍이라.(으, 그래서 옛날은 거 화로에도 이렇게 해서 탁탁하게 화로에 쐬면서 그걸 폈던 모양이야.)

106012 @ 예.(예.)

106012 #2 화리 영 헹 요레 놩 영 영 영 영 허민 탁탁허게.(화로 이렇게 해서 요리 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탁탁하게.)

106012 @ 아.(아.)

106012 #2 경 두드려지는 식으로. 경헤근에 그걸 막 널리 페왕.(그렇게 두드려지는 식으로. 그래서 그걸 마구 널리 펴서.)

106012 @ 음.(음.)

106012 #2 경허민 그거 솜 뒈여근에게. 게난 옛날 하르방[292]덜 오죽 어려와시냐?(그러면 그거 솜 돼서. 그러니까 옛날 할아버지들 오죽 어려웠니?)

106012 @ 그걸 다 허멍 살앗던 거라예?(그걸 다 하면서 살았던 거지요?)

106012 #2 으, 문 허멍게. 우린 기자 저 물레에 불란에 기계에 아정 강 기자 헤낫저게. 경만 헹 허민 경헤영 거 정[293] 짓엉 또.(으, 모두 하면서. 우린 그저 저 물레에 발라서 기계에 가지고 가서 그저 했었어. 그렇게만 해서 하면 그래서 거 '정' 지어서 또.)

106012 @ 음.(음.)

106012 #2 물레에 불라근에 그 기계에 앚아 가민 그 정 짓어 주주. 요만씩 요만씩 헤근에.(물레에 발라서 그 기계에 가지고 가면 그 '정' 지어 주지. 요만큼 요만큼씩 해서.)

106012 @ 정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이과?('정' 짓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06012 #2 정 짓넨 ᄒᆞ는 게 쫄랑허게 요추룩 헤근에 거시기 이디 가레떡거치 밀어.('정' 짓는다고 하는 게 길쭉하게 요처럼 해서 거시기 여기 가래떡같이 밀어.)

---

292)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293) '정'은 솜을 가늘게 말아서 두 뼘 가량의 길이로 끊어낸 물건을 말한다.

106012 @ 아, 밀어.(아, 밀어.)

106012 #2 어, 그거 영 막뎅이 놓멍 밀엉 영 뽑고 영 뽑고 허멍 헤여근에 그걸 또 미녕 줏주게, 물레 헤근에.(어, 그거 이렇게 막대기 놓으면서 밀어서 이렇게 뽑고 이렇게 뽑고 하면서 해서 그걸 또 무명 자아, 물레 해서.)

106012 @ 예, 예.(예, 예.)

106012 #2 가레기, 가레기 요디 놓고 미우젱이[294] 헤여근에 요디 영 놔근에.(가락, 가락 요기 놓고 '미우젱이' 해서 여기 이렇게 놔서.)

106012 @ 미우젱이?('미우젱이'?)

106012 #2 미우젱이엔 헤근에 지금 저 무시거 저 뭐니 산에 가민.('미우젱이'라고 해서 지금 저 뭐 저 뭐니 산에 가면.)

106012 @ 억새.(억새.)

106012 #2 억새. 억새 꺽죽.(억새. 억새 껍질.)

106012 @ 미우젱이.('미우젱이'.)

106012 #2 억새 꺽죽 헤근에 가레기에 영 놩 허민 그거 그 긋사 정 짓은 거 헤근에 물레에 돌리멍 영 줏아근에 영 올리고 경허멍 미녕 헤낫저게.(억새 껍질 해서 가락에 이렇게 놔서 하면 그거 그 아까 '정' 지은 거 해서 물레에 돌리면서 이렇게 자아서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무명 했었어.)

106012 @ 음.(음.)

106012 #2 그거 경헨 가레기에 헤근에 미녕 줏아근에.(그거 그렇게 가락에 해서 무명 자아서.)

106012 @ 이것도 써낫수과?(이것도 썼었습니까?)

106012 #2 이걸 물레, 이거 물레.(이걸 물레, 이거 물레.)

106012 @ 이거 물레.(이거 물레.)

106012 #2 이거 미녕 줏는 거, 미녕 줏는 거. 이건 저 멘네 불르는 거.(이거 무명 잣는 거, 무명 잣는 거. 이거 저 면화 바르는 거.)

106012 @ 불르는 거.(바르는 거.)

106012 #2 어, 씰 불라내는 거. 이건 씰 뽑아내는 거.(어, 실 발라내는 거. 이건 실 뽑아내는 거.)

106012 @ 씰 뽑아내는 거예? (실 뽑아내는 거요?)

106012 #2 으, 씰 뽑아내는 거. 경허멍 믄 씰 뽑아내엉 그것도 꼬리로 감고, 꼬리론 대막뎅이 헤근에 영 헹 영 영 허멍 꼬리 감곡. 또 모젱이 감고 동글랑동글랑 곰거치. 경헤근에 또 긋사 멩지 놀듯 믄 놀아사.(으, 실 뽑아내는 거. 그러면서 모두 실 뽑아내서 그것도 실톳으로 감고, 실톳으로는 대막대기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실톳 감고. 또 몽당이 감고 동그랗게 곰같이. 그래서 또 아까 명주 날듯 모두 날아야.)

106012 @ 아, 그것도 놀아사.(아, 그것도 날아야.)

294) '미우젱이'는 억새꽃을 싸고 있는 줄기를 말한다.

106012 #2 어. 것도 놀앙 또 모닥불 살롸 메영.(어. 것도 날아서 또 모닥불 살라서 매서.)

106012 @ 예.(예.)

106012 #2 메영 또 베틀에 헹 짜주게. 경 어루와, 어루와.(매서 또 베틀에 해서 짜지. 그렇게 어려워, 어려워.)

106012 @ 어루와.(어려워.)

106012 #2 으, 멧 가지니?(으, 몇 가지니?)

106012 @ 게난예.(그러니까요.)

106012 #2 어루와.(어려워.)

모시

106013 @ 모시도 헤낫수과, 모시?(모시도 했었습니까, 모시?)

106013 #2 모신 저 우린 안 헤 봣저만은 놈 ᄒᆞ꼼 허는 거 어린 때 봐난 거 닮아.(모신 저 우린 안 해 봤지만 남 조금 하는 거 어렸을 때 봤던 거 같아.)

106013 @ 예.(예.)

106013 #2 모신 막 큰 낭 강 비여당 거 썹 확확 훌터 뒁 솖아라, 솖아. 겐 거죽 벳경.(모신 아주 큰 나무 가서 베어다가 거 잎 확확 홅어 두고 삶더라, 삶아. 그래서 껍질 벗겨서.)

106013 @ 거죽 벳경.(껍질 벗겨서.)

106013 #2 으, 거죽 벳경 니빨로 영 영 할망덜 허멍.(으, 껍질 벗겨서 이빨로 이렇게 이렇게 할머니들 하면서.)

106013 @ 으, 으.(으, 으.)

106013 #2 그 씰 멩글앙. 또 씰 영 영 멩글앙 요만이허민 요만이헌 거 두 개 허당 요디 헤근에 영 잇엉 영 헤영 영 놓고. 경헤라 차롱에.(그 실 만들어서. 또 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요만하면 요만한 거 두 개 하다가 여기 해서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그렇더라 채롱에.)

106013 @ 잇으멍.(이으면서.)

106013 #2 이디 영 영 허고.(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

106013 @ 으.(으.)

106013 #2 어, 니빨로 영 영 헤당 이디 영 영 잇고. 이거 잇는 거, 잇는 거.(어, 이빨로 이렇게 이렇게 해다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잇고. 이거 잇는 거, 잇는 거.)

106013 @ 잇는 거.(잇는 거.)

106013 #2 어, 노 꼬왕. 두 개 영 합쳐근에 영 허민 뒈고. 게민 이 차롱더레 영 놓고 헤라. 허는 거 봐난.(어, 노 꼬아서. 두 개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이 채롱에 이렇게 놓고 하더라. 하는 거 봤었어.)

106013 @ 아, 봐난.(아, 봤었어.)

106013 #2 어, 닥도 경허고. 저이 거시기 닥 헤다근에 베, 베.(어, 닥도 그러고.

저 거시기 닥도 해다가 베, 베.)

106013 @ 베.(바.)

106013 #2 어. 모신 모시 뜬나고 닥낭 뜬나.(어. 모시는 모시 다르고 닥나무 달라.)

106013 @ 베가 삼 얘기허는 거?(베가 삼 얘기하는 거?)

106013 #2 어, 어.(어, 어.)

106013 @ 아, 닥 헤다가 베도 헤나고?(아, 닥 해다가 베도 했었고?)

106013 #2 어, 베.(어, 베.)

106013 @ 삼춘네는 안 헤난 거예?(삼촌네는 안 했던 거요?)

106013 #2 안 헤난 거. 허는 거 봐낫저. 이제 눈에 ᄒᆞ쏠 어른거려.(안 했던 거. 허는 거 봤었어. 이제 눈에 조금 어른거려.)

106013 @ 그거 허는 거, 모시 허는 거나 닥 허는 거나 모시 허는 거나?(그거 하는 거, 모시 하는 거나 닥 하는 거나 모시 하는 거나?)

106013 #2 ᄀᆞ타, ᄀᆞ타.(같아, 같아.)

106013 @ 같아?(같아?)

106013 #2 어, ᄀᆞ타, ᄀᆞ타. 손이 하영 가곡 솖고, 하영 가. 손이 하영 가.(어, 같아, 같아. 손이 많이 가고 삶고, 많이 가. 손이 많이 가.)

도구

106019 @ 아까 미녕이나 멩지 헐 때 물레, 물레에 불러난 일름덜 생각남수과?(아까 무명이나 명주 할 때 물레, 물레 불렀던 이름들 생각납니까?)

106019 #2 어?(어?)

106019 @ 물레에 영 불러난 일름. 이름, 이름. 예를 들면 이거는 뭐렌 불러난 거 잇어?(물레에 이렇게 불렀던 이름. 이름, 이름. 예를 들면 이거는 뭐라고 불렀던 거 있어?)

106019 #2 이딘 영 쫍짝허게 나와근에 영 영 허민 욜로 영 감아져. 영 영 감아져.(여긴 이렇게 좁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리로 이렇게 감겨. 이렇게 이렇게 감겨.)

106019 @ 실 감아지는 거예?(실 감기는 거요?)

106019 #2 으, 으. 욜로 영 쫍짝헌 거 나왕 영 영 둘루주게.(으, 으. 이리로 이렇게 좁은 거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두르지.)

106019 @ 음.(음.)

106019 #2 이건 이추룩 영 발 헤근에 영 세왕, 영 세왕 욜로 쫍짝허민 요거 영 허민 요 둘레로 새에, 가운디로이 실 영 영 감아지주게. 욜로 영 뽑앙 영 올리고, 영 뽑앙 영 올리고.(이건 이처럼 이렇게 발 해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이리로 좁게 이거 이렇게 하면 요 둘레로 새에, 가운데로 실 이렇게 이렇게 감기지. 요리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올리고.)

106019 @ 아, 이디서 올리는 거라.(아, 여기서 올리는 거야.)

106019 #2 어.(어.)

106019 @ 이거는?(이거는?)

106019 #2 이디 앚으는 거.(여기 앉는 거.)

106019 @ 이거를 뭐렌 불렀수과?(이거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106019 #2 이건 방석으로 이디 앚앗주게. 이디 끌앙 앚앙 이거 흔들지 말게.(이건 방석으로 여기 앉았지. 여기 깔아서 앉아서 이거 흔들지 말게.)

106019 @ 으, 흔들지 말게.(으, 흔들지 말게.)

106019 #2 흔들지 말게 기자 저 도망가지 말게 끌앙 앚앙 욜로 요거 영 둘루멍 요레 멘네, 요것도 멘네 헤영 막 물류와사 벳디.(흔들지 말게 그저 저 도망가지 말게 깔아서 앉아서 요리로 요거 이렇게 두르면서 요리 면화, 요것도 면화 해서 마구 말려야 볕에.)

106019 @ 으.(으.)

106019 #2 과상허게[295] 물류와사 소왕소왕[296] 허게 잘 먹주. 경 안허민 안 나가, 안 나가.('과상하게' 말려야 '소왕소왕' 하게 잘 먹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가, 안 나가.)

106019 @ 음.(으.)

106019 #2 경헨 물류왕 욜로, 욜로 멕이주게. 욜로 멕이민 요렌 멘네 나왕 요렌 씨 떨어지고.(그렇게 말려서 요리로, 요리로 먹이지. 요리로 먹이면 요리는 면화 나오고 요리는 씨 떨어지고.)

106019 @ 씨 떨어지고.(씨 떨어지고.)

106019 #2 이렌 씨 떨어지곡.(이리는 씨 떨어지고.)

106019 @ 이거는 불르는 이름?(이거는 부르는 이름?)

106019 #2 요건 둘르는 거.(요건 두르는 거.)

106019 @ 둘르는 거 ᄌᆞ룩이렌 불러?(두르는 거 자루라고 불러?)

106019 #2 어. ᄌᆞ룩, ᄌᆞ룩. 물레 ᄌᆞ룩.(어. 자루, 자루. 물레 자루.)

106019 @ 이거는 불러난 이름은 생각 안 남수과?(이거는 불렀던 이름은 생각 안 납니까?)

106019 #2 그냥 물레엔만 헤낫저. 멘네 불르는 물레.(그냥 물레라고만 했었어. 면화 바르는 물레.)

106019 @ 멘네 불르는 물레예.(면화 바르는 물레요.)

106019 #2 으, 멘네 불르는 물레. 이건 실 뽑는 물레 기자.(으, 면화 바르는 물레. 이건 실 뽑는 물레 그저.)

106020 @ 실 뽑는 물레.(실 뽑는 물레.)

106020 #2 어.(어.)

---

295) '과상허다'는 물건이 바짝 마른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296) 여기서 '소왕소왕'은 목화의 씨를 뺄 때 사용하는 씨아에 잘 마른 목화를 넣고 돌릴 때 나는 소리나 씨아가 잘 돌아가는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바느질

106022 @ 이젠 바농질 물어보쿠다. 바농질예. 바농질허젠 허민 뭐 뭐가 잇어야 됩니까?(이젠 바느질 물어보겠습니다. 바느질요. 바느질하려고 하면 뭐 뭐가 있어야 됩니까?)

106022 #2 바농질허젠 허민 ᄀᆞ세 잇곡 바농 잇곡 실 잇곡 경허민 뒈주게.(바느질하려고 하면 가위 있고 바늘 있고 실 있고 그러면 되지.)

106022 @ 실, 바농, ᄀᆞ세.(실, 바늘, 가위.)

106022 #2 어.(어.)

106023 @ 바농질허면 이렇게 촘촘히 허는 것도 잇고 꼬짝꼬짝 허게 허는 것도 잇고 일름이 잇지 안허여?(바느질하면 이렇게 촘촘히 하는 것도 있고 곧게 하는 것도 있고 이름이 있지 않아?)

106023 #2 일름이 영 헹 감추는 거 잇고 뎅침허는 거 잇고.(이름이 이렇게 해서 감추는 거 있고 박음질하는 거 있고.)

106023 @ 어, 뎅침허는 거.(어, 박음질하는 거.)

106023 #2 호움질허는 거 잇고.(홈질하는 거 있고.)

106023 @ 봉질?(봉질?)

106023 #2 호움질은 그대로 영 영 헤근에.(홈질은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6023 @ 아, 호움질.(아, 홈질.)

106023 #2 으, 호움질은 혼짝으로 영 혼 줄로 나가고 뎅침은 뒤로 바농질 혼번, 앞더레 혼번 허는 거. 또 감추는 건 기자 우로 영영 감추는 거.(으, 홈질은 한쪽으로 이렇게 한 줄로 나가고 박음질은 뒤로 바느질 한번, 앞으로 한번 하는 거. 또 감추는 건 그저 위로 이렇게 이렇게 감추는 거.)

106023 @ 으, 거 세 개?(으, 거 세 개?)

106023 #2 으.(으.)

106023 @ 세 개 잇는 거예?(세 개 있는 거요?)

106023 #2 경헤낫저게.(그랬었어.)

106022 @ 예, 예. 바농질허젠 허민 바농, 실도 잇어야 허지만 손가락 이디 찔르지 말렌.(예, 예. 바느질하려고 하면 바늘, 실도 있어야 하지만 손가락 여기 찌르지 말라고.)

106022 #2 아, 그건 안 쪄낫저. 손골메. 그거 잇어.(아, 그건 안 꼈었어. 골무. 그거 있어.)

106022 @ 그거 잇어예.(그거 있어요.)

106022 #2 어, 우리 어머니넨 그거 헹 헤라. 우리 어멍은 그거 헤근에 헤낫저.(어, 우리 어머니네는 그거 해서 하더라. 우리 어머니는 그거 해서 했었어.)

106022 @ 바농질허는 일 헤낫수과?(바느질하는 일 했었습니까?)

106022 #2 으, 바농질 우리도, 이 노인훼서도이 이천칠백만 원 벌엇어.(으, 바느질 우리도, 이 노인회에서도 이천칠백만 원 벌었어.)

106022 @ 뭐 헹?(뭐 해서?)

106022 #2 저 상복 헨에. 우리 노인덜. 우리 헤낫저게. 혼 멧 년, 혼 칠년인가 멧 년 헷저. 상복 헹 풀아시녜.(저 상복 해서. 우리 노인들. 우리 했었어. 한 몇 년, 한 칠 년인가 몇 년 했어. 상복 해서 팔았어.)

106022 @ 아.(아.)

106022 #2 장이사에 강. 막 욕 들으멍. 폴레 왓젠 욕 들이민 아고, 사 줍서, 사 줍서 허멍. 겐 이천칠백만 원 헨에 칠백만 원은 개용 거시기로 임시 여금헷단 쓰곡 이천만 원은 여금헷당 지금 부락에 저 잇젠 헨게.(장의사에 가서. 마구 욕 들으면서. 팔러 왔다고 욕 들으면 아이고, 사 주세요, 사 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이천칠백만 원 해서 칠백만 원은 개인용 거시기로 임시 예금했다가 쓰고 이천만 원은 예금했다가 지금 부락에 저 있다고 하더라.)

재단과 염색

106030 @ 음. 게민 다림질허젠 허민 뭐 또 필요헌 게 있지 안헤?(음. 그럼 다림질하려고 하면 뭐 또 필요한 게 있지 않아?)

106030 #2 다름질은 다르미 잇어낫주게, 다름질허는 거.(다름질은 다리미 있었어, 다림질하는 거.)

106030 @ 다리미엔 헙니까, 뭐렌 헙니까?(다리미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106030 #2 윤디도 잇어나고. 윤디.(인두도 있었고. 인두.)

106030 @ 다리웨렌 헤?('다리웨'라고 해?)

106030 #2 다리웨. 다리웨엔 헌 건 동글랑헌 낭푼이 닮은 것에 영 ᄌᆞ룩 돋은 거.(다리미. '다리웨'라고 하는 건 동그란 양푼 같은 것에 이렇게 자루 돋은 거.)

106030 @ ᄌᆞ룩 돋은 거.(자루 돋은 거.)

106030 #2 그레 불 담아놩 영 영 다리는 거.(그리 불 담아놔서 이렇게 이렇게 다리는 거.)

106030 @ 예, 예.(예, 예.)

106030 #2 윤딘 영 헹 쫄랑헌 거 영 ᄌᆞ룩 신 거 불살른 디 영 짇엇다근에 영 영 다리는 거.(인두는 이렇게 해서 짧은 거 이렇게 자루 있는 거 불사른 데 이렇게 때서 이렇게 이렇게 다리는 거.)

106030 @ 아.(아.)

106030 #2 경헤근에 멩지옷 헐 땐 윤디가 잇어사.(그리고 명주옷 할 땐 인두가 있어야.)

106030 @ 눌러 주고.(눌러 주고.)

106030 #2 눌러 줘근에 혼불 영 나가근에 영 꺽어근에 영 눌러 주곡.(눌러 주고 초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눌러 주고.)

106030 @ 눌러 주고.(눌러 주고.)

106030 #2 어, 꺼끄는 것도 다 뚠나.(어, 꺾는 것도 다 달라.)

106030 @ 뚠나예.(다르네요.)

106030 #2 옷 허는디, 저고리 허는 것도. 이디 거 헐 땐 우터레 꺼끄고.(옷 하는데, 저고리 하는 것도. 여기 거 할 때는 위에 꺾고.)

106030 @ 으.(으.)

106030 #2 이디 거 헐 땐 두터레 꺼끄고.(여기 거 할 때는 뒤로 꺾고.)

106030 @ 아이고.(아이고.)

106030 #2 다 뚠나. 이디 거 헐 때 요레 꺼끄고 요디 거 헐 땐 이레 꺼끄고 다 뚠나. 또 짓 헐 땐 요레 꺼끄고.(다 달라. 요기 거 할 때 요리 꺾고 요기 거 할 때는 이리 꺾고 다 달라. 또 깃 할 때는 요리 꺾고.)

106030 @ 음.(음.)

106030 #2 문딱 뚠난다게.(모두 다르다.)

106030 @ 윤디는 그런 거 헐 때 꺾어 줄 때 사용허는 거라?(인두는 그런 거 할 때 꺾어 줄 때 사용하는 거야?)

106030 #2 으, 윤딘 꺼끌 때 사용허는 거. 저 다리민 다리웨, 다리웨.(으, 인두는 꺾을 때 사용하는 거. 저 다리미는 '다리웨', 다리미.)

106030 @ 다리웨.(다리미.)

106030 #2 다리웬 불 담아 놔근에 옷 문 헤여 나근에 주름 사지 말게 영헤영, 꼬부려지지 말게 다리는 거.(다리미는 불 담아 놓고 옷 모두 해 놓고 주름 서지 말게 이렇게, 꼬부려지지 말게 다리는 거.)

옷 종류

106024 @ 남자 옷 종류에는 뭐가 잇수과?(남자 옷 종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106024 #2 남자 옷 종륜 큰옷, 큰옷 잇고 저 거시기 굴아지크냐게, 어디. 두루막 잇고 뚜시 정벵이 적삼, 바지저고리, 쪼끼. 저 또 제 헐 때 막 큰옷 거 무시거엔 헌다만은 잊어벤 굴아지크냐?(남자 옷 종류는 큰옷, 큰옷 있고 저 거시기 말할 수 있겠어, 어디. 두루마기 있고 또 잠방이 적삼, 바지저고리, 조끼. 저 또 제 할 때 마구 큰옷 거 뭐라고 한다만 잊어버려서 말할 수 있겠냐?)

106025 @ 예, 뒛수다, 뒛수다. 여자 옷은마씨?(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여자 옷은요?)

106025 #2 여자 옷은 장옷. 장옷 잇고 치마저고리.(여자 옷은 장옷. 장옷 있고 치마저고리.)

106025 @ 음.(음.)

106025 #2 두루막.(두루마기.)

106025 @ 음.(음.)

106025 #2 바지, 굴중이.(바지, 홑바지.)

106025 @ 굴중이.(홑바지.)

106025 #2 어, 속곳.(어, 속곳.)

106025 @ 속곳.(속곳.)
106025 #2 그런 거 잇고.(그런 거 있고.)
106026 @ 아이들 옷은?(아이들 옷은?)
106026 #2 아이덜, 아이덜은게 제우 겉옷, 소곱에 옷허고 겉옷이주게. 우이옷허고 소곱에.(아이들, 아이들은 겨우 겉옷, 속에 옷하고 겉옷이지. 윗옷하고 속에.)
106026 @ 아이덜 애기 때 쉬허니까 여기에.(아이들 아기 때 쉬하니까 여기에.)
106026 #2 고장정벵이.(고쟁이.)
106026 @ 고장정벵이.(고쟁이.)
106026 #2 어, 이디 영 터근에이.(어, 여기 이렇게 터서.)
106026 @ 구멍 터근에 쉬 헤도 젖지 안허게.(구멍 터서 쉬 해도 젖지 않게.)
106026 #2 으, 으. 경.(으, 으. 그렇게.)
106026 @ 고장정벵이.(고쟁이.)
106026 #2 으.(으.)
106027 @ 게민 옷 만들젠 허민 어떵 헹 만드는 거? 치마저고리랑?(그럼 옷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만드는 거? 치마저고리랑?)
106027 #2 그거 재단헤 놔근에게.(그거 재단해 놔서.)
106027 @ 마름질헤영.(마름질해서.)
106027 #2 문 ᄆᆞᆯ롸놔근에 ᄆᆞᆯ롸낭 만들주게.(모두 말려서 말려서 만들지.)
106027 @ 치수 같은 거 다 잽니까?(치수 같은 거 다 잽니까?)
106027 #2 ᄆᆞᆯ를 때 치수가 나와.(마를 때 치수가 나와.)
106027 @ 음.(음.)
106027 #2 ᄆᆞᆯ를 때 저 큰 거 족은 거 문 나오곡 옷 ᄒᆞ나민 ᄒᆞ나에 ᄒᆞᆫ 가지 싹 ᄆᆞᆯ롸 내영 뚜로 놓곡 허민.(마를 때 저 큰 거 작은 거 모두 나오고 옷 하나면 하나에 한 가지 싹 말려서 내어서 따로 넣고 하면.)
106027 @ 예.(예.)
106027 #2 그거 만들곡 허민 ᄒᆞᆫ 사름 마탕 ᄒᆞ나 허민 기자 뒈주게.(그거 만들고 하면 한 사람 맡아서 하나 하면 그저 되지.)
106028 @ 으. 남자들 바지 하면은 명칭이 잇잖아예?(으. 남자들 바지 많으면 명칭이 있잖아요?)
106028 #2 으.(으.)
106028 @ 여기는 뭐렌 부를 거?(여기는 뭐라고 부를 거?)
106028 #2 허리띠, 허리.(허리띠, 허리.)
106028 @ 여기 부분은 뭐렌 불르는 거 잇수과?(여기 부분은 뭐라고 부르는 거 있습니까?)
106028 #2 이딘 다님 치고.(여기는 대님 치고.)
106028 @ 다님 치고.(대님 치고.)
106028 #2 으, 다님. 이딘 허리.(으, 대님. 여긴 허리.)

106028 @ 여기는 불르는 이름 엇어?(여기는 부르는 이름 없어?)
106028 #2 몰르켜, 거.(모르겠어, 거.)
106028 @ 저고리는?(저고리는?)
106028 #2 저고리 곰허고 짓허고 동전허고. 동전, 짓, 앞섭.(저고리 고름하고 깃하고 동전하고. 동전, 깃, 앞섶.)
106028 @ 아, 여기 압섭.(아, 여기 앞섶.)
106028 #2 앞섭.(앞섶.)
106028 @ 뒤에 간 건 뒤섭?(뒤에 간 건 '뒤섭'?)
106028 #2 뒤엔 안 헌다. 뒤섭이엔 안 헤.(뒤에는 안 한다. '뒤섭'이라고 안 해.)
106028 @ 앞섭만?('앞섶'만?)
106028 #2 으, 앞섭.(으, '앞섶'.)
106028 @ 이 뒤에 뭐 대는 거 잇잖아예?(이 뒤에 뭐 대는 거 있잖아요?)
106028 #2 등바대.(등바대.)
106028 @ 으, 등바대엔 허고예.(으, 등바대라고 하고요.)
106028 #2 으.(으.)
106028 @ 치마는? 이디 영 허는 거.(치마는? 여기 이렇게 하는 거.)
106028 #2 허리 치마.(허리 치마.)
106028 @ 여기는 뭐렌 부르는 이름은 엇고?(여기는 뭐라고 부르는 이름은 없고?)
106028 #2 이디 치마엔 허주게, 허리 치마.(여기 치마라고 하지, 허리 치마.)
106028 @ 예. 이거 보선이라예. 보선 이 앞부분을 뭐렌 헙니까?(예. 이거 버선이지요. 버선 이 앞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106028 #2 앞고지, 뒷고지.(앞코, 뒤축.)
106028 @ 여기는 뭐렌 불르는 이름이 잇어?(여기는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어?)
106028 #2 건 몰르켜, 그거. 앞고지, 뒷고지엔만 헤나난.(건 모르겠어, 그거. 앞코, 뒤축이라고만 했었어.)
106029 @ 예. 옛날에 단추, 단추 엇어낫잖예?(예. 옛날에 단추, 단추 없었었잖아요?)
106029 #2 단추 몾안에 헤낫주게.(단추 매듭지어서 했었지.)
106029 @ 그걸 뭐렌 불러낫수과?(그걸 뭐라고 불렀었습니까?)
106029 #2 거 무신 단추엔 헤낫저만은.(거 무슨 단추라고 했었지만.)
106029 @ ᄆᆞ작단추?(매듭단추?)
106029 #2 어, ᄆᆞ작단추이엔 헤나신가. ᄆᆞ작 메낫저게.(어, 매듭단추라고 했었나. 매듭 맸었어.)
106029 @ 그걸 벌ᄆᆞ작이엔 안 헤낫수과?(그걸 벌매듭이라고 안 했었습니까?)
106029 #2 벌ᄆᆞ작이엔은 안 허고.(벌매듭이라고는 안 하고.)

106029 @ 안 허고.(안 하고.)
106029 #2 못인, 못인 단추엔 헤난 거 닮다. 못인 단추.(맺은, 맺은 단추라고 했던 거 같아. 맺은 단추.)
106029 @ 치메영 물들영 입어낫잖아예?(치마랑 물들여서 입었었잖아요?)
106029 #2 으.(으.)
106031 @ 경 물들이젠 허민 뭐로 물들여?(그렇게 물들이려고 하면 뭐로 물들여?)
106031 #2 염색물 사당.(염색물 사다가.)
106031 @ 아.(아.)
106031 #2 물레 장시 뎅겨낫저. 물레 풀레. 붉은 물 풀고, 노린 물 풀고. 저 거시기 검은 물 풀고 믄 헤낫저게.(물감 장수 다녔었어. 물감 팔러. 붉은 물 팔고, 노란 물 팔고. 저 거시기 검은 물 팔고 모두 했었어.)
106031 @ 예. 그거 팔레 다녀낫구나.(예. 그거 팔러 다녔었구나.)
106031 #2 어.(어.)

신발

106032 @ 신발의 종류에는 뭐 뭐가 잇수과?(신발의 종류에는 뭐 뭐가 있습니까?)
106032 #2 그건 나 으라 가지 몰라.(그건 나 여러 가지 몰라.)
106032 @ 으, 아는 것만 골아 주면.(으, 아는 것만 말해 주면.)
106032 #2 고무신 허고.(고무신 하고.)
106032 @ 고무신 허고.(고무신 하고.)
106032 #2 반화허고 운동화, 또시 구두. 구두는 일본말 아닌가?(반화하고 운동화, 또 구두. 구두는 일본말 아닌가?)
106032 @ 게난 그거는 요즘이고 옛날.(그러니까 그거는 요즘이고 옛날.)
106032 #2 으, 옛날에 거.(으, 옛날의 거.)
106032 @ 어렸을 때?(어렸을 때?)
106032 #2 어렸을 때 초신허고, 초신, 초신.(어렸을 때 짚신하고, 짚신, 짚신.)
106032 @ 초신이지예.(짚신이지요.)
106032 #2 나박신.(나막신.)
106032 @ 나박신?(나막신?)
106032 #2 나박신 저 거시기 나무로 만든 신.(나막신 저 거시기 나무로 만든 신.)
106032 @ 기지예.(그렇지요.)
106032 #2 나무로 멘들앙 이만이 올라온 신 나박신.(나무로 만들어서 이만큼 올라온 신 나막신.)
106032 @ 으, 나박신.(으, 나막신.)

106032 #2 나박신이엔 헤실 거라게. 경헌 거 닮아, 우리. 경헌디 그거 허고 초신 벳기 안 봣저게.(나막신이라고 했을 거야. 그런 거 같아, 우리. 그런데 그거 하고 짚신밖에 안 봤어.)

106032 @ 으, 으.(으, 으.)

106032 #2 경허고 검은 반화.(그리고 검은 반화.)

106032 @ 검은 반화가 뭐과?(검은 반화가 뭡니까?)

106032 #2 검은 고무신 반화 신. 검은 고무신.(검은 고무신 반화 신. 검은 고무신.)

106032 @ 거민 가죽신은 엇어낫수과?(그럼 가죽신은 없었었습니까?)

106032 #2 잇어낫주만은 우린 봐 보진 안허연. 노리가죽 신이여 쉐가죽 신이여 허멍 잇어낫어.(있었지만 우린 봐 보진 않았어. 노루가죽 신이다 소가죽 신이다 하면서 있었어.)

106032 @ 예. 결혼헐 때 예복에는 그런 가죽신 신어난 거 아니?(예. 결혼할 때 예복에는 그런 가죽신 신었던 거 아니?)

106032 #2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6032 @ 아니.(아니.)

106032 #2 우린 코신 신어.(우린 코신 신어.)

106032 @ 코신 신언?(코신 신었어.)

106032 #2 으, 으. 지금 신.(으, 으. 지금 신.)

106032 @ 지금 신예?(지금 신요?)

106032 #2 으, 으.(으, 으.)

106032 @ 게민 나막신이랑 짚신 같은 건 집에서들 만들엉 신어신가?(그럼 나막신이랑 짚신 같은 건 집에서들 만들어서 신었는가?)

106032 #2 저 나박신은 몰라. 저 초신은 삼, 저 영 삼앗젠 허주게. 그거 만드는 거.(저 나막신은 몰라. 저 짚신은 삼, 저 이렇게 삼았다고 하지. 그거 만드는 거.)

106032 @ 으, 음.(으, 음.)

106032 #2 삼으멍 노꼿 꼬아근에 거 우리도 헤낫저게.(삼으면서 노끈 꼬아서 거 우리도 했었어.)

106032 @ 음.(음.)

106032 #2 학교에서 헤낫어, 우리도.(학교에서 했었어, 우리도.)

106032 @ 학교에서 헤낫어?(학교에서 했었어?)

106032 #2 어. 학교 간에 찍 가져간이 학교 간에 거 일제시대.(어. 학교 가서 짚 가져가서 학교 가서 거 일제시대.)

106032 @ 일제시대?(일제시대?)

106032 #2 어.(어.)

106032 @ 삼춘 학교도 다니신 거?(삼촌 학교도 다니신 거?)

106032 #2 초등학교 다녓저게.(초등학교 다녔어.)

106032 @ 초등학교예.(초등학교요.)
106032 #2 어.(어.)
106032 @ 공부헤신게. 맞아 친정은 잘 살아낫지예?(공부했네. 맞아 친정은 잘 살았었지요?)
106032 #2 어, 초등학교 다닌디 저 일본 글 알긴 아는디 해석을 못 허여.(어, 초등학교 다녔는데 저 일본 글 알긴 아는데 해석을 못 해.)
106032 @ 으.(으.)
106032 #2 말을 몰라 놓난.(말을 몰라 놓으니까.)
106032 @ 말 몰라 놓난.(말 몰라 놓으니까.)
106032 #2 어, 삼학년꺼지 일본 글 베왓주게.(어, 삼학년까지 일본 글 배웠지.)
106032 @ 으.(으.)
106032 #2 겨난 글은 나오민 알아져.(그러니까 글은 나오면 알아.)
106032 @ 글 나오민 알아지고.(글 나오면 알 수 있고.)
106032 #2 어, 무신 자다 아는디 그거 해석을 못 허여.(어, 무슨 자다 아는데 그거 해석을 못 해.)
106032 @ 기구나, 기구나.(그렇구나, 그렇구나.)
106032 #2 겨난 신은 거 나박신허고 초신허고 검은 고무신벳기 우린 몰라.(그러니까 신은 거 나막신하고 짚신하고 검은 고무신밖에 우린 몰라.)
106035 @ 초신 멘들 때 어떵 멘들아낫수과?(짚신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었습니까?)
106035 #2 저 찍으로 노꼿 꼬아근에.(저 짚으로 노끈 꼬아서.)
106035 @ 예, 노꼿 꼬아근에.(예, 노끈 꼬아서.)
106035 #2 그 노꼿 꼬아근에 영 네귀방장허게 헤근에 영 발에 놩 이디 영 걸고 이디 영 놔근에 그 찍으로 또 꿰메주게. 찍으로 그거 찍으로 갓다 왓다 허멍 꿰메 영 쫙 허게 둥기고 또 찍으로 헤근에 끙는끙는허게 실ᄀᆞ치 헤근에 찍 막 잘 거시기 헤근에 그거 꼬앙 이걸로.(그 노끈 꼬아서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해서 이렇게 발에 놔서 여기 이렇게 걸고 여기 이렇게 놔서 그 짚으로 또 꿰매지. 짚으로 그거 짚으로 갔다 왔다 하면서 꿰매서 쫙 하게 당기고 또 짚으로 해서 가늘디가늘게 실같이 해서 짚 아주 잘 거시기 해서 그거 꼬아서 이걸로.)
106035 @ 으, 으.(으, 으.)
106035 #2 손으로 벵벵 노꼿 꼬듯. 꼬앙 그걸 찍 거시기 저 거 무시거엔 곧니, 잊어벤 알아지크라. 그 찍신에 그것 그레 놔근에 그걸 여펴근에 헤난디. 그걸 깍이엔 허난디, 깍이엔 허느냐?(손으로 뱅뱅 노끈 꼬듯. 꼬아서 그걸 짚 거시기 저 거 뭐라고 말하니, 잊어버려서 알겠어. 그 짚신에 그것 그리 놔서 그걸 엮어서 했었는데. 그걸 총이라고 했었는데, 총이라고 하니?)
106035 @ 으, 깍 만들엉.(으, 총 만들어서.)
106035 #2 어, 어. 깍 만들아근에 그걸 그레 여쭈아근에 문 거시기 헤근에 경헨

만들어낫주. 영헨 옹포롱허게 헤근에.(어, 어. 총 만들어서 그걸 그리 여쭤서 모두 거시기 해서 그래서 만들었었지. 이래서 옴팍하게 해서.)

106035 @ 으.(으.)

106035 #2 경 헨 신엉 뎅겨난.(그렇게 해서 신고 다녔었어.)

106035 @ 게민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만든 거 그거 직접 신을 수 있는 걸 만든 거?(그럼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만든 거 그거 직접 신을 수 있는 걸 만든 거?)

106035 #2 어. 경헨 우리 영 신엉 뎅겨나고.(어.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신어서 다녔었고.)

106035 @ 신엉 뎅겨나고예.(신고 다녔었고요.)

106035 #2 그디서 학교서도 영 신엉 뎅기고. 학교에서 일제시대 그거 찍이영 아정 오렌 헤근에 헤낫저게.(거기서 학교에서도 이렇게 신어서 다니고. 학교에서 일제시대 그거 짚이랑 가지고 오라고 해서 했었어.)

106036 @ 으. 기민 그 초신에도 어떵 종류가 잇수과?(으. 그럼 그 짚신에도 어떻게 종류가 있습니까?)

106036 #2 아니, 아니. 종류 엇어, 건. 깍신[297], 깍 헤근에 깍 영 영 헤근에 그걸 만들곡 헤근에 종류 엇어, 그건. 이제도 그거 ᄑᆞ는 거 잇주게. ᄑᆞ는 거 그거주게.(아니, 아니. 종류 없어, 건. '깍신', 총 해서 총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걸 만들고 해서 종류 없어, 그건. 이제도 그거 파는 거 있지. 파는 거 그거지.)

106036 @ 으, 으. 장식품으로 ᄑᆞ는 거?(으, 으. 장식품으로 파는 거?)

106036 #2 어, 장식품으로 ᄑᆞ는 거. 그거라, 그거. 그거 헤낫어, 우리.(어, 장식품으로 파는 거. 그거야, 그거. 그거 했었어, 우리.)

모자 등

106037 @ 기지예. 이제는 모자 물어보쿠다. 모자. 모자 종류에도 뭐 잇수과?(그렇지요. 이제는 모자 물어보겠습니다. 모자. 모자 종류에도 뭐 있습니까?)

106037 #2 모자?(모자?)

106037 @ 으.(으.)

106037 #2 모잔 페렝이허고 페렝이허고 무시거 이제 쓰는 거벳긴. 페렝이, 옛날엔 페렝이벳기 안 써 봣저. 삿갓.(모자는 밀짚모자하고 밀짚모자하고 뭐 이제 쓰는 거밖에는. 밀짚모자, 옛날에는 밀짚모자밖에 안 써 봤어. 삿갓.)

106037 @ 삿갓.(삿갓.)

106037 #2 으, 삿갓 조끔 썬 뎅겨난 거, 봐난 거 닮아. 우린 안 쓴디. 그 베트남 삿갓 막 쓰는 거 그거.(으, 삿갓 조금 써서 다녔던 거, 봤던 거 같아. 우린 안 썼는데. 그 베트남 삿갓 마구 쓰는 거 그거.)

106037 @ 으, 으.(으, 으.)

297) '깍신'은 '깍+신' 구성으로, '깍'은 짚신의 운두를 이루는 낱낱이 울을 말한다. '깍신'은 일일이 총을 내어서 만든 신을 가리킨다.

106037 #2 그거 하르방덜 썬 뎅겨라.(그거 할아버지들 써서 다니더라.)

106038 @ 게난 삿갓허고 페렝이는 여름에 쓰는 모자잖아예?(그러니까 삿갓하고 밀짚모자는 여름에 쓰는 모자잖아요?)

106038 #2 으.(으.)

106038 @ 햇빛 날 때 써나신디 그거 말앙.(햇볕 날 때 썼었는데 그거 말고.)

106039 #2 겨울에?(겨울에?)

106039 @ 겨울에는 뭐 엇어낫수과?(겨울에는 뭐 없었습니까?)

106039 #2 겨울엔 그 애기덜 댕기 들려근에 써낫어. 애기덜 댕기 들령 써나고 우리, 우리 시대에 그 댕기 들린 거 쓰고 그 무시거, 무신 모자 엇엇어, 엇엇어. 수건 쓰고.(겨울엔 그 아기들 댕기 달려서 썼었어. 아기들 댕기 달려서 썼었고 우리, 우리 시대에 그 댕기 달린 거 쓰고 그 뭐, 무슨 모자 없었어, 없었어. 수건 쓰고.)

106039 @ 댕기?(댕기?)

106039 #2 댕기엔 헤근에 저 곱닥헌 저 물색으로 헤근에 영 질게 헤근에 요레 영, 이레 영 꿰메민 이레 영 지랑허게시리.(댕기라고 해서 저 고운 저 물색으로 해서 이렇게 길게 해서 요리 이렇게, 이리 이렇게 꿰매면 이리 이렇게 치렁하게끔.)

106039 @ 아.(아.)

106039 #2 댕기, 댕기.(댕기, 댕기.)

106039 @ 게민 여기, 목 뒤에 여기 덮어지게?(그럼 여기, 목 뒤에 여기 덮히게?)

106039 #2 으, 댕기 지랑허게시리. 경헨 이디 꼿덜 헤근에 여라 색, 초록색이여 붉은색이여 파랑색이여 헤영 꼿거치 헤 놩 여기 꿰매고. 여기 벵 동글락허게.(으, 댕기 치렁하게끔. 그런 여기 꽃들 해서 여러 색, 초록색이며 붉은색이며 파랑색이며 해서 꽃같이 해 놓고 여기 꿰매고. 여기 뱅 동그랗게.)

106039 @ 음.(음.)

106039 #2 꿰매영 영 헨 썽. 이제 사진관에 가민 잇어. 사진관에 가민 아이덜 씌와근에 사진 찌는 거.(꿰매서 이렇게 해서 써서. 이제 사진관에 가면 있어. 사진관에 가면 아이들 씌워서 사진 찍는 거.)

106039 @ 음.(음.)

106039 #2 그거라.(그거야.)

106039 @ 아, 영 색동처럼.(아, 이렇게 색동처럼.)

106039 #2 으, 색동으로.(으, 색동으로.)

106039 @ 경헤 가지고 이 뒤에 영 늘어지는 거?(그래 가지고 이 뒤에 이렇게 늘어지는 거?)

106039 #2 뒤엔 끈으로, 끈으로 요만썩, 요만썩 헤근에 끈으로 영헹 늘어지게 줄에 영 헤근에. 요레 벵 동글락허겐 꼿 으라 가지 붉은 거, 파란 거, 노란 거 허멍 으라 색 놔근에 포 놔근에 즈근즈근 경헨 꿰메영 벵 동글락허게.(뒤엔 끈으로, 끈으로 요만큼씩, 요만큼씩 해서 끈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줄에 이렇게 해서. 요리 뱅 동

그랗게 꽂 여러 가지 붉은 거, 파란 거, 노란 거 하면서 여러 색 넣어서 포 넣어 차근차근 그렇게 꿰매서 뱅 동그랗게.)

106040 @ 이 동네는 양태 그런 거 안 헤낫수과?(이 동네는 양태 그런 거 안 했었습니까?)

106040 #2 으?(으?)

106040 @ 물총 가져 가지고 모자 만드는 거 이 동넨 안 헤낫수과?(말총 가져 가지고 모자 만드는 거 이 동넨 안 했었습니까?)

106040 #2 몰라, 그건. 물총으로 허는 건 그건 아주 엿날.(몰라, 그건. 말총으로 하는 건 그런 아주 옛날.)

106040 @ 예, 아주 옛날.(예, 아주 옛날.)

106040 #2 으, 우리 시대엔 아니.(으, 우리 시대엔 아니.)

106044 @ 아니. 비 올 때 어디 쉐 보레 가젠 허민 이디 영 걸쳐난 거 잇수과?(아니. 비 올 때 어디 소 보러 가려고 하면 여기 이렇게 걸쳤던 거 있습니까?)

106044 #2 우장.(우장.)

106044 @ 우장.(우장.)

106044 #2 저, 찍으로 멘글아근에 우장. 그거 썽, 그거 하르방덜 썽 뎅기는 거 봐낫저.(저, 짚으로 만들어서 우장. 그거 써서, 그거 할아버지들 써서 다니는 거 봤었다.)

106044 @ 으, 우장 만들앙.(으, 우장 만들어서.)

106044 #2 영헨 무뚱[298]에 걸엇다근에 비 와 가민 그거 써근에 가고. 하르방덜.(이렇게 '무뚱'에 걸었다가 비 와 가면 그거 써서 가고. 할아버지들.)

106044 @ 여기는 우장 쓰고 우에는 삿갓 써서, 페렝이 써서?(여기는 우장 쓰고 위에는 삿갓 써서, 밀짚모자 써서?)

106044 #2 우엔 저 페렝이도 쓰고 무시것덜 헨 썬 헷어. 우장만 영 쓴 거 봐낫어, 영 보민.(위에는 저 밀짚모자도 쓰고 뭐들 해서 써서 했어. 우장만 이렇게 쓴 거 봐었어, 이렇게 보면.)

106044 @ 우장을예?(우장을요?)

106044 #2 으, 우장 헤근에 찍으로 여펴근에. 찍으로 여핀 거. 새, 새.(으, 우장 해서 짚으로 엮어서. 짚으로 엮은 거. 띠, 띠.)

106044 @ 예.(예.)

106044 #2 새로 영 여픈 거.(띠로 이렇게 엮은 거.)

106044 @ 여픈 거렌 헙니까?(엮은 거라고 합니까?)

106044 #2 어, 여픈 거엔 헌다. ᄂᆞ람쥐도 새로 여핀다. 여핀다 허고 ᄂᆞ람쥐 새로.(어, 엮은 거라고 한다. 이엉도 띠로 엮는다. 엮는다 하고 이엉 띠로.)

106044 @ 음.(음.)

106044 #2 게난 영 여끄는 거주, 여끄는 거. 우린 여펴, 여펴 헤낫주.(그러니까

298) '무뚱'은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엮는 거지, 엮는 거. 우린 엮어, 엮어 했었지.)
106044 @ 으.(으.)
106044 #2 발음이 경. 게난 여끄는 거주, 여끄는 거.(발음이 그렇게. 그러니까 엮는 거지, 엮는 거.)
106044 @ 여끄는 거예?(엮는 거요?)
106044 #2 으, 여끄는 거여게.(으, 엮는 거요.)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이제부턴 밥헤 먹어난 거 물어볼 건데.(이제부터는 밥해 먹었던 거 물어볼 건데.)
107001 #2 으.(으.)
107001 @ 옛날이우다예, 지금 말고.(옛날입니다, 지금 말고.)
107001 #2 으, 엿날에.(으, 옛날에.)
107001 @ 옛날에 삼춘 어렸을 때 영 생각해 보멍 골아 주십서.(옛날에 삼촌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해 주세요.)
107001 #2 밥, 밥헤 먹어난 거.(밥, 밥해 먹었던 거.)
107001 @ 우선은 밥에 종류에는 무슨 밥 잇수과, 옛날에?(우선은 밥에 종류에는 무슨 밥 있습니까, 옛날에?)
107001 #2 보리밥, 보리밥.(보리밥, 보리밥.)
107001 @ 으.(으.)
107001 #2 조팝.(조밥.)
107001 @ 으.(으.)
107001 #2 또 좁쌀에 거시기 감자 놩 고구마. 그거 서꺼근에 헤근에 감잔 하영 놓고 저 쌀은 ᄒᆞ꼼은 놓민 감저만 막 나와, 밥헹 나오민.(또 좁쌀에 거시기 고구마 넣어서 고구마. 그거 섞어서 해서 고구마는 많이 넣고 저 쌀은 조금은 넣으면 고구마만 마구 나와, 밥해서 나오면.)
107001 @ 음.(음.)
107001 #2 또 국은 드릇ᄂᆞ물 캐여다근에 거멍케 국 끌령 먹곡. 드릇ᄂᆞ물 헤다근에.(또 국은 들나물 캐다가 거멓게 국 끓여서 먹고. 들나물 해다가.)
107001 @ 게난 아까 밥 종류에는 보리.(그러니까 아까 밥 종류에는 보리.)
107001 #2 보리밥.(보리밥.)
107001 @ 조팝.(조밥.)
107001 #2 조팝. 좁쌀에 감자 하영 놔근에 그거 밥헹 먹고. 또 ᄆᆞ물 하영 나민, ᄆᆞ물 갈앙 그거 감자 하영 놔근에 저 거시기 범벅.(조밥. 좁쌀에 고구마 많이 넣어

서 그거 밥해서 먹고. 또 메밀 많이 나면, 메밀 갈아서 그거 고구마 많이 넣어서 저 거시기 범벅.)

107001 @ 범벅.(범벅.)

107001 #2 어, 범벅 헹 먹곡.(어, 범벅 해서 먹고.)

107001 @ 으.(으.)

107001 #2 제베기 헹 먹고.(수제비 해서 먹고.)

107001 @ 제베기 헹 먹고예?(수제비 해서 먹고요?)

107001 #2 어. 묵 거시기 헤근에.(어. 묵 거시기 해서.)

107001 @ 게민.(그럼.)

107001 #2 또 밀 저 거시기 밧디 강 갈민 밀 헤다근에 ᄀᆞ레에 ᄀᆞᆯ아근에 밀 헤근에 밀처베기 헹 먹고.(또 밀 저 거시기 밭에 가서 갈면 밀 해다가 맷돌에 갈아서 밀 해서 밀수제비 해서 먹고.)

107001 @ 여기도 밀도 농사 지어낫수과?(여기도 밀도 농사지었었습니까?)

107001 #2 어, 그거 헤영 우리도 나도 ᄀᆞᆯ아당 애기덜이영 헹 먹엇주게. 그거 허고 보리 또, 보리 ᄀᆞᆯ아근에 보리밧디 거 헤당 져당, 짐으로이 멜빵, 이런 멜빵 걸게 헤영 영 졍 오랑 그거 영 영 홀타근에.(어, 그거 해서 우리도 나도 갈아다가 아기들이랑 해서 먹었지. 그거 하고 보리 또, 보리 갈아서 보리밭에 거 해다가 지어다가, 짐으로 멜빵, 이런 멜빵 걸게 해서 이렇게 지고 와서 그거 이렇게 이렇게 홅아서.)

107001 @ 으.(으.)

107001 #2 그거 두드령 도께로, 도께로 두드려근에, 그거 도께로 두드려근에 장만헤여근에 이제 그거 ᄀᆞᆯ아근에 게역, 저 미숫ᄀᆞ루.(그거 두드려서 도리깨로, 도리깨로 두드려서, 그거 도리깨로 두드려서 장만해서 이제 그거 갈아서 미숫가루, 저 미숫가루.)

107001 @ 으.(으.)

107001 #2 게역 헹 먹고.(미숫가루 해서 먹고.)

107001 @ 게역 헹 먹고예.(미숫가루 해서 먹고요.)

107001 #2 으. 게역 헹 먹고 또 보리제베기 헹 먹고. 보리쏠 거 ᄀᆞᆯ아근에 보리쏠 존 건 밥헹 먹고 ᄒᆞ쏠 알맹인 또 ᄀᆞᆯ아근에 게역, 저 거시기 제베기 헹 먹곡.(으. 미숫가루 해서 먹고 또 보리수제비 해서 먹고. 보리쌀 거 갈아서 보리쌀 잔 건 밥해서 먹고 조금 알맹인 또 갈아서 미숫가루, 저 거시기 수제비 해서 먹고.)

107001 @ 으.(으.)

107001 #2 경허멍 우리 헷주게. 경허멍.(그러면서 우리 했지. 그러면서.)

107002 @ 게민예, 밥헹 먹젠 허민 쏠 종류, 아까 밥 종류 얘기헷잖아예. 옛날에 쏠 종류에는 뭐 잇어나시고예? 쏠?(그럼요, 밥해서 먹으려고 하면 쌀 종류, 아까 밥 종류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쌀 종류에는 뭐 있었나요? 쌀?)

107002 #2 쏠 종류?(쌀 종류?)

107002 @ 쏠.(쌀.)

107002 #2 무시거?(뭐?)

107002 @ 무신 쏠, 무신 쏠 잇어?(무슨 쌀, 무슨 쌀 있어?)

107002 #2 보리쏠, 좁썰, 밀, 저 ᄆᆞ물, 콩, 팥, 두불콩. 경헤근에 그거 뭐 잇어낫어. 꿰, 꿰도 허고. 꿰도 콩밧디 놔근에 털어근에 허고 그거 헤낫주게. 지슬도 싱거근에 먹고.(보리쌀, 좁쌀, 밀, 저 메밀, 콩, 팥, 두불콩. 그래서 그거 뭐 있었어. 깨, 깨도 하고. 깨도 콩밭에 놔서 털어서 하고 그거 했었지. 감자도 심어서 먹고.)

107003 @ 으. 보리밥 하영 헹 먹엇잖아예?(으. 보리밥 많이 해서 먹었잖아요?)

107003 #2 보리밥 하영 헹 먹엇주게.(보리밥 많이 해서 먹었지.)

107003 @ 예.(예.)

107003 #2 보리밥 주로 먹엇주게.(보리밥 주로 먹었지.)

107003 @ 주로예.(주로요.)

107003 #2 조팝허고.(조밥하고.)

107003 @ 조팝허고.(조밥하고.)

107003 #2 으.(으.)

107003 @ 보리밥 헤 먹젠 허민 보리 ᄀᆞᆯ아 놩 그거 테작헹 왕 어떵 헹 보리밥을 지엇수과? 그거 ᄎᆞᄎᆞᄎᆞᄎᆞ ᄀᆞᆯ아 줍서.(보리밥 해 먹으려고 하면 보리 갈아 놓고 그거 타작하고 와서 어떻게 해서 보리밥을 지었습니까? 그거 차차차차 말해 주세요.)

107003 #2 보리밥 허젠 허민이 보리쏠 가근에 보리 그 ᄆᆞᆯᄀᆞ레에 보리 ᄀᆞᆯ아다근에.(보리밥 하려고 하면 보리쌀 가서 보리 그 연자매에 보리 갈아다가.)

107003 @음.(음.)

107003 #2 ᄆᆞᆯᄀᆞ레 둥글이멍 물 놩 ᄀᆞᆯ아당 저 마당에 와근에 멍석에 널엉 또 푸는체로 그거 곧 체 갈라근에, 체 갈랑 또 널어근에 파삭 ᄆᆞᆯ리우민 ᄀᆞ레에 놔근에 맷돌.(연자매 둥글리면서 물 넣어서 갈아다가 저 마당에 와서 멍석에 널어서 또 키로 그거 곧 체 갈라서, 체 갈라서 또 널어서 바싹 말리면 맷돌에 놔서 맷돌.)

107003 @ 으.(으.)

107003 #2 ᄀᆞ레 놩 영 영 ᄀᆞᆯ멍 헤근에 그걸 치민, 영 영 치민 우터레 안 ᄀᆞᆯ아진 거 올라가고 알러렌 ᄀᆞᆯ아진 거 나가곡 허민 거 청, 또 아래 거 치민 궂인 건 알러레 ᄂᆞ려가고 중간에 거 헹 건 좋은 거.(맷돌 놔서 이렇게 이렇게 갈면서 해서 그걸 치면, 이렇게 이렇게 치면 위에 안 갈린 거 올라가고 아래로는 갈린 거 나가고 하면서 거 쳐서, 또 아래 거 치면 궂은 건 아래로 내려가고 중간의 거 해서 건 좋은 거.)

107003 @ 아, 중간에 건 좋은 거.(아, 중간에 건 좋은 거.)

107003 #2 으, 건 좋은 거. 경헨 거 보리밥 헹 먹고.(으, 건 좋은 거. 그래서 거 보리밥 해서 먹고.)

107003 @ 우이 게 좋은 게 아니고 중간에 게 좋은 거?(위의 게 좋은 게 아니고 중간의 게 좋은 거?)

107003 #2 우이 건 또 ᄀᆞᆯ아사.(위의 건 또 갈아야.)

107003 @ 아.(아.)

107003 #2 또 ᄀᆞᆯ아사. 겡허멍 그거 헤 먹고.(또 갈아야. 그러면서 그거 해서 먹고.)

107003 @ 으. 보리밥 헹 먹젠 허민 강 ᄆᆞᆯᄀᆞ레에 강 ᄀᆞᆯ아 오민 뒈는 거?(으. 보리밥 해서 먹으려고 하면 가서 연자매에 가서 갈아 오면 되는 거?)

107003 #2 으. ᄆᆞᆯᄀᆞ레에 가 ᄀᆞᆯ아 와.(으. 연자매에 가서 갈아 와.)

107003 @ 기민 집이 와 가지고 ᄀᆞ레에 안 ᄀᆞᆸ니까?(그럼 집에 와 가지고 맷돌에 안 갑니까?)

107003 #2 ᄆᆞᆯᄀᆞ레에 ᄀᆞᆯ아다근에 이디 널엉.(연자매에 갈아다가 여기 널어서.)

107003 @ 널엉.(널어서.)

107003 #2 널엉 ᄆᆞᆯ류민 체 갈라근에. 체, 푸는체로. 푸는체로 푸닥푸닥허민[299] 저렌 체 나가고 ᄉᆞᆯ은 이레 들어오주게.(널어서 말리면 체 갈라서. 체, 키로. 키로 '푸닥푸닥하면' 저리로는 체 나가고 쌀은 이리 들어오지.)

107003 @ 으.(으.)

107003 #2 그거 헤근에 이젠 또 ᄀᆞ레에 ᄀᆞᆯ앙.(그거 해다가 이젠 또 맷돌에 갈아서.)

107003 @ ᄀᆞ레에 ᄀᆞᆯ앙.(맷돌에 갈아서.)

107003 #2 거 보리썰도 엇어근에.(거 보리쌀도 없어서.)

107003 @ 기지예.(그렇죠.)

107003 #2 나도 막 점심 ᄀᆞᆲ어낫저게. 허리가 ᄒᆞᆫ, 조 헤영 걷지 못헤여근에 하하. 엇인 디 시집와 놓난이.(나도 막 자주 점심 굶었었어. 허리가 한, 조 해서 걷지 못해서 하하. 없는 데 시집와 놓으니까.)

107003 @ 아.(아.)

107003 #2 아이고, 첨. 이젯 아이덜은 ᄀᆞᆯ아도 몰라.(아이고, 첨. 이제 아이들은 말해도 몰라.)

107004 @ 반지기밥 알아지쿠과, 반지기밥?('반지기밥' 알겠습니까, '반지기밥'?)

107004 #2 반지기밥[300]은 그거 보리ᄉᆞᆯ에 곤ᄉᆞᆯ 놓는 거.('반지기밥'은 그거 보리쌀에 흰쌀 넣는 거.)

107004 @ 음.(음.)

107004 #2 곤ᄉᆞᆯ 놔근에 허는 거. 건 막 부제칩이나 헹 먹주, 못 헹 먹어.(흰쌀 넣어서 하는 거. 그건 아주 부잣집이나 해서 먹지, 못 해서 먹어.)

107004 @ 아, 기.(아, 그래.)

107004 #2 곤썰이 어렵주게, 쌀.(흰쌀이 어렵지, 쌀.)

107004 @ 곤썰이 어려우난.(흰쌀이 어려우니까.)

107004 #2 어, 어려우난 엿날엔 산디 갈고.(어, 어려우니까 옛날에는 밭벼 갈고.)

---

299) '푸닥푸닥허다'는 쌀 등을 키로 까부를 때 잇달아 치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300) '반지기밥'은 두 가지 쌀을 반씩 넣어서 지은 밥을 말한다. 보리쌀과 좁쌀, 보리쌀과 쌀 등을 반씩 넣어서 지은 밥을 '반지기밥'이라고 한다.

107004 @ 으, 아까 보리쌀 장만허는 거 영 골앗잖아예?(으, 아까 보리쌀 장만하는 거 이렇게 말했잖아요?)

107004 #2 으.(으.)

107004 @ 보리쌀 영 장만헹 밥 짓젠 허민 어떵 지어?(보리쌀 이렇게 장만해서 밥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지어?)

107004 #2 밥 짓젠 허민 그 보리쏠 곤 거 멧돌에 곤 거, 체 아니 중간에 거.(밥 지으려고 하면 그 보리쌀 간 거 맷돌에 간 거, 체 아니 중간의 거.)

107004 @ 으.(으.)

107004 #2 그거 씻어근에 씻어근에 솟디 놩 물 부엉. 경헨 저 알로 아궁이로 헤근에 불 때여근에 숢당 그것이 막 부각부각허주게. 경허민 부각부각허민 이젠 불 끼와근에 그걸 틈 자게, 틈 자게 놔뒁당 폭 허게 틈 자주게. 틈 자민 그 쌀이 익어 ᄒᆞ쏠.(그거 씻어서 씻어서 솥에 넣어서 물 부어서. 그래서 저 아래로 아궁이로 해서 불 때서 삶다가 그것이 마구 보글보글하지. 그러면 보글보글하면 이젠 불 꺼서 그걸 뜸 들게, 뜸 들게 놔뒀다가 폭 하게 뜸 들지. 뜸 들면 그 쌀이 익어 조금.)

107004 @ 으.(으.)

107004 #2 익으민 또 불 숨아. 불 숨으민 ᄒᆞ쏠 눌어. 눌민 ᄒᆞ쏠 부뜨주게. 쏠광 쏠 사이. 경허민 그거 먹엇주게. 경헨 그것이 밥.(익으면 또 불 때. 불 때면 조금 눌어. 눌면 조금 붙지. 쌀과 쌀 사이. 그러면 그거 먹었지. 그래서 그것이 밥.)

107004 @ 그게 밥?(그게 밥?)

107004 #2 으. 경 안 헹은 보리쏠 씻엉 놔근에 경헨 숢다근에 솟디 놩 숢다근에 곤썰 놔.(으. 그렇지 않고는 보리쌀 씻어서 놔서 그래서 삶다가 솥에 넣어서 삶다가 흰쌀 넣어.)

107004 @ 으.(으.)

107004 #2 곤썰 신 사름은. 건 어려와. 곤썰 신 사름 엇어.(흰쌀 있는 사람은. 건 어려워. 흰쌀 있는 사람 없어.)

107004 @ 음.(음.)

107004 #2 곤썰은 막 부제칩이나 헤근에 먹고 어디 아방이나 애기덜이나, 밥 먹지 못허는 애기덜이나 흔펜더레 밀려근에 솟디 영 헤영 놓민 이쪽더레 흔펜더레 밀려근에 거 반지기밥. 그거 헤근에 먹곡.(흰쌀은 아주 부잣집이나 해서 먹고 어디 아버지나 아기들이나, 밥 먹지 못하는 아기들이나 한편으로 밀려서 솥에 이렇게 해서 놓으면 이쪽으로 한편으로 밀려서 거 '반지기밥'. 그거 해서 먹고.)

107004 @ 으, 게난 반지기밥은 보리쏠 놩 문저 영 숢당?(으, 그러니까 '반지기밥'은 보리쌀 넣어서 먼저 이렇게 삶다가?)

107004 #2 으, 숢다근에 곤썰은 말째.(으, 삶다가 흰쌀은 말째.)

107004 @ 말째.(말째.)

107004 #2 말째 놔근에 젓어근에이. 경헨 푹 허게 헹 먹곡, 좁썰도 보리썰에 놩 서꺼근에 저 헹 먹곡. 좁썰광 보리썰에 서껑. 것도 맛 좋아.(말째 넣어서 저어서. 그

래서 푹 하게 해서 먹고, 좁쌀도 보리쌀에 넣어서 섞어서 저 해서 먹고. 좁쌀과 보리쌀에 섞어서. 것도 맛 좋아.)

107004 @ 기민 아까 반지기밥이렌 헌 건 보리쏠에 곤쏠 서끈 것만 반지기밥?(그럼 아까 '반지기밥'이라고 하는 거는 보리쌀에 흰쌀 섞은 것만 '반지기밥'?)

107004 #2 으, 반지기밥.(으, '반지기밥'.)

107004 @ 게민 만약 보리쏠에 좁쏠 서끄면은 그건?(그럼 만약 보리쌀에 좁쌀 섞으면 그건?)

107004 #2 것도 반지기밥이주. 서끈 거 조합헌 거니까.(것도 '반지기밥'이지. 섞은 거 조합한 거니까.)

107004 @ 으. 서끈 건 반지기밥이렌 헙니까?(으. 섞은 건 '반지기밥'이라고 합니까?)

107004 #2 으. 또 보리쏠 솖당 곤쏠 놔근에 솖당 그 우터레 좁쏠 놩. 세 가지도 서껑 먹곡.(으. 또 보리쌀 삶다가 흰쌀 넣어서 삶다가 그 위로 좁쌀 넣어서. 세 가지도 섞어서 먹고.)

107004 @ 아.(아.)

107004 #2 그레 ᄆᆞ물쏠 또 놔근에 네 가지도 서껑 먹곡.(그리 메밀쌀 또 넣어서 네 가지도 섞어서 먹고.)

107004 @ 밥에도 ᄆᆞ물쏠 놔?(밥에도 메밀쌀 놔?)

107004 #2 ᄆᆞ물쏠 놓민 막 맛 좋아.(메밀쌀 넣으면 아주 맛 좋아.)

107004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7004 #2 으, 복삭복삭[301]. 이 잔치헐 때도 곤쏠에 ᄆᆞ물쏠 서꺼근에 잔치혜낫어. 맛 좋렌.(으, '복삭복삭'. 이 잔치할 때도 흰쌀에 메밀쌀 섞어서 잔치했었어. 맛 좋으라고.)

107004 @ 아, 맛 좋렌.(아, 맛 좋으라고.)

107004 #2 으, ᄆᆞ물쏠 놓민, 메밀쌀 놓민 막 맛 좋주게. ᄆᆞ물이 아니고 메밀. 이제 메밀.(으, 메밀쌀 넣으면, 메밀쌀 넣으면 아주 맛 좋지. 'ᄆᆞ물'이 아니고 메밀. 이제 메밀.)

107004 @ 지금은 메밀인디 옛날은 ᄆᆞ물이렌.(지금은 메밀인데 옛날은 'ᄆᆞ물'이라고.)

107004 #2 으, ᄆᆞ물쏠. 경헤근에 그거 서꺼근에 헹 먹고. 경허멍 아이고 엿날사 어떵 혜연 살아시니? 그 감저 마다리 이만이헌 것에 담아근에 져근에 집이 오고. 아이고, 첨말.(으, 메밀쌀. 그래서 그거 섞어서 해서 먹고. 그러면서 아이고 옛날에야 어떻게 해서 살았니? 그 고구마 마대 이만한 것에 담아서 져서 집에 오고. 아이고, 참말.)

107004 @ 감저도 그거 밥헹 먹젠?(고구마도 그거 밥해서 먹으려고?)

103056 #2 으, 밥헹 먹곡 구뎅이 팡 땅 파근에 이디 땅 둥그렁허게 파주. 요, 요

301) '복삭복삭'은 부드러운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영 허민 요딜로 빙 허게 파근에 옆더레 조찍 헤근에 세와근에.(으, 밥해서 먹고 구덩이 파서 땅 파서 여기 땅 둥그렇게 파지. 요, 요 이렇게 하면 여기로 빙 하게 파서 옆에 조짚 해다가 세워서.)

103056 @ 예.(예.)

103056 #2 그레 감저 져당 비와근에.(그리 고구마 져다가 부어서.)

103056 @ 비워.(부어.)

103056 #2 이 가운디 낭, 요런 낭 영 꼽아근에 영 헤근에 거 숨통, 건 숨통이라이. 경헨 영 우터레 이레 감저 놩 흑으로 헹 묻어. 이디 조칩 놔근에 이레 영허게시리.(이 가운데 나무, 요런 나무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해서 거 숨구멍, 건 숨구멍이야. 그래서 이렇게 위로 이리 고구마 놔서 흙으로 해서 묻어. 여기 조짚 놔서 이리 이러하게끔.)

103056 @ 으, 으.(으, 으.)

103056 #2 영헹 흑 씌와. 경헨 요건 숨통.(이렇게 흙 씌워. 그래서 요건 숨구멍.)

103056 @ 숨통.(숨구멍.)

103056 #2 경헤영 또 새 헤여근에 거 ᄂᆞ람쥐 멩글앙 ᄂᆞ람쥐 둘렁.(그래서 또 띠 해서 거 이엉 만들어서 이엉 두르고.)

103056 @ 음.(음.)

103056 #2 ᄂᆞ람쥐 둘르고 우인 또 주지[302], 주지라고 또 영헹. 나도 그거 헤낫저게. 주지 싸근에.(이엉 두르고 위에는 또 주저리, 주저리라고 또 이렇게. 나도 그거 했었어. 주저리 싸서.)

103056 @ 음.(음.)

103056 #2 경헨 영 허민 요레 톡 허게 더끄민 비 안 들어. 비 안 들게시리.(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리 톡 하게 덮으면 비 안 들어. 비 안 들게끔.)

103056 @ 게민 감저 꺼낼 땐 그 주지로?(그럼 고구마 꺼낼 때는 그 주저리로?)

103056 #2 아니, 주지 안 허영 옆으로 헤근에 또 영 영 거시기 갈라근에. 영 헹 손 영 걷어근에 영 들이밀앙 엎더졍 발 저레 영 허고 헹 엎더져근에 ᄒᆞ나 꺼내곡 또 ᄒᆞ나 꺼내곡 경허멍.(아니, 주저리 안 하고 옆으로 해서 또 이렇게 이렇게 거시기 갈라서. 이렇게 해서 손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들이밀어서 엎어져서 발 저리 이렇게 하고 해서 엎어져서 하나 꺼내고 또 하나 꺼내고 그러면서.)

103056 @ 게민 그 주지는 무사 만들어, 숨통으로?(그럼 그 주저리는 왜 만들어, 숨구멍으로?)

103056 #2 숨통.(숨구멍.)

103056 @ 아.(아.)

103056 #2 숨통.(숨구멍.)

103056 @ 썩지 말렌, 공기 통허게.(썩지 말라고, 공기 통하게.)

302) '주지'는 띠로 엮어 이엉으로 두른 위에 덧덮는 물건을 말한다. '주젱이'라고도 하는데, 표준어의 '주저리'에 대응한다.

103056 #2 으, 공기, 공기 통허는 거게. 경허연. 경허멍 헤나고. 에이구, 첨. 콩도 헤근에 갈민 가근에 막 놉덜 빌어 강 문 민짝허게[303] 비여 놓민 멍석 정 가근에 끌아근에 그레 문 놩 도께, 도리께. 지금은 도리께이.(으, 공기, 공기 통하는 거. 그랬어. 그러면서 했었고. 어이구, 참. 콩도 해서 갈면 가서 마구 놉들 빌러 가서 모두 '민짝하게' 베어 놓으면 멍석 지고 가서 깔아서 그리 모두 놔서 도리깨, 도리깨. 지금은 도리깨.)

103056 @ 도께. 옛날 말로 골아 줍서, 옛날 말로.(도리깨. 옛날 말로 말해 주세요, 옛날 말로.)

103056 #2 옛날 도께. 도께 헤영 어야 호야 허멍 허곡 요디 혼 사람 상 요디 거 훅 앗앙 넴기곡 거 영 두드려진 거 꺼내여 불고.(옛날 도리깨. 도리깨 해서 어야 호야 하면서 하고 여기 한 사람 서서 여기 거 훅 가져서 넘기고 거 이렇게 두드린 거 꺼내 버리고.)

103056 @ 음.(음.)

103056 #2 또 이디 안 두드려진 건 훅 허게 앗앙 넴기고. 이디 두드려 난 건 학허게 잡아뎅겨 불고. 경허멍 양펜이 사근에 일로 혼번 절로 혼번 허멍 콩 경 헨 두드리고. 무물도 경헨 두드리고.(또 여기 안 두드린 건 훅 하게 가져서 넘기고. 여기 두드렸던 건 확 하게 잡아당겨 버리고. 그러면서 양편에 서서 일로 한번 저리로 한번 하면서 콩 그렇게 해서 두드리고. 메밀도 그렇게 두드리고.)

107005 @ 두드리는 얘기는 이땅 또 물어보쿠다예. 곤밥, 곤밥?(두드리는 얘기는 이따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흰밥, 흰밥?)

107005 #2 으, 곤밥.(으, 흰밥.)

107005 @ 곤밥은 언제 먹어진 거라?(흰밥은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

107005 #2 곤밥은 식게 때나벳기 더 먹어게. 식게 때.(흰밥은 제사 때나밖에 더 먹어. 제사 때.)

107005 @ 생일 때 곤밥 안 줍디가?(생일 때 흰밥 안 줍디까?)

107005 #2 어?(어?)

107005 @ 생일 때도 곤밥 안 먹언?(생일 때도 흰밥 안 먹었어?)

107005 #2 옛날 생일이 어디서게. 하하하. 옛날 생일 몰라, 몰라.(옛날 생일이 어디서게. 하하하. 옛날 생일 몰라, 몰라.)

107005 @ 몰라.(몰라.)

107005 #2 육지선 생일 헷주만은 이 제준 대개 몰라. 우린 몰라. 생일이랑말앙.(육지에선 생일 했지만 이 제주는 이 제주는 대개 몰라. 우린 몰라. 생일은커녕.)

107005 @ 예, 이제 곤밥 허젠 허난 곤밥 허는 거 골아 줍서.(예, 이제 흰밥 하려고 하니까 흰밥 하는 거 말해 주세요.)

107005 #2 곤밥 허는 건 곤썰 씻어근에.(흰밥 하는 건 흰쌀 씻어서.)

107005 @ 음.(음.)

303) '민짝허다'는 표준어의 '평평하다'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남김없이 전부'의 의미로 쓰였다.

107005 #2 곤썰게 물에 놔근에 서너 번 씻어근에 그레 놔근에 물 부어근에 영 지프민이 알아져. 손 영 지프민 물 요레 요만이 오민 그거 헹 솖으민 곤밥 뒈는 거 주게. 경헨 곤밥 허고.(흰쌀 물에 넣어서 서너 번 씻어서 그리 놔서 물 부어서 이렇게 짚으면 알 수 있어. 손 이렇게 짚으면 물 이리 이만큼 오면 그거 해서 삶으면 흰밥 되는 거지. 그래서 흰밥 하고.)

107005 @ 게난 아멩헤도 곤밥이 보리밥 짓는 것보다는 덜 끓지예?(그러니까 아무래도 흰밥이 보리밥 짓는 것보다는 덜 끓지요?)

107005 #2 으, 쉽고.(으, 쉽고.)

107003 @ 쉽고.(쉽고.)

107003 #2 쉽고게.(쉽고.)

107003 @ 그 보리밥은 보리쏠 잘 익으니까 흔불 솖아 놩 허진 안헙니까?(그 보리밥은 보리쌀 잘 익으니까 초벌 삶아 놓고 하지는 않습니까?)

107003 #2 으?(으?)

107003 @ 흔불 미릿 솖아 놔가지고?(초벌 미리 삶아 놔가지고.)

107003 #2 저, 미릿 솖아 놧당도 허주게. 건 저 여께쏠[304]이엔 헤근에 좁썰이나 곤썰이나 셔사.(저, 미리 삶아 놨다가도 하지. 건 저 '여께쌀'이라고 해서 좁쌀이나 흰쌀이나 있어야.)

107003 @ 으.(으.)

107003 #2 셔사 그거 놔근에 그거 놩 솖당 그것 또 놩 그것도 젓어근에 허고.(있어야 그거 넣어서 그거 넣어서 삶다가 그것 또 넣어서 그것도 저어서 하고.)

107003 @ 아까 여께쏠?(아까 '여께쏠'?)

107003 #2 여께, 여께엔 헤근에 곤썰이나 좁썰이나 그디 ᄆᆞ물쏠이나 놓는 거, 영 혼합허는 거.('여께', '여께'라고 해서 흰쌀이나 좁쌀이나 거기 메밀쌀이나 넣는 거, 이렇게 혼합하는 거.)

107003 @ 그걸 여께?(그걸 '여께'?)

107003 #2 서꺼근에.(섞어서.)

107003 @ 그걸 여께쏠이렌 헤?(그걸 '여께쏠'이라고 해?)

107003 #2 으, 여께. 여께쏠.(으, '여께'. '여께쏠'.)

107003 @ 여께쏠이엔 곧는 거예?('여께쏠'이라고 말하는 거요?)

107003 #2 으, 여께 여께.(으, '여께', '여께'.)

107003 @ 보리쏠 좀 솖아 난 다음 거기에?(보리쌀 좀 삶고 난 다음 거기에?)

107003 #2 으, ᄀᆞ치 놩. 궤여근에.(으, 같이 넣어서. 끓어서.)

107003 @ 예.(예.)

107003 #2 보리쏠 어느 정도 피여나사.(보리쌀 어느 정도 피어나야.)

107003 @ 음.(음.)

107003 #2 보리쏠 피여나기가 어려와. 보리썰은.(보리쌀 피어나기가 어려워. 보

304) '여께쏠'은 흰쌀에 좁쌀, 메밀쌀 등을 섞은 쌀을 말한다.

리쌀은.)

107003 @ 음.(음.)

107003 #2 겐디 요새 그 저 거세기 가끈 보리썰이난에 요샌 피여나기 좋고 먹기 좋고 허주 엿날은 어려와.(그런데 요새 그 저 거시기 깎은 보리쌀이니까 요샌 피어나기 좋고 먹기 좋고 하지 옛날은 어려워.)

107003 @ 막 굵읍니까?(아주 굵습니까?)

107003 #2 아니 엿날은 요거 보리쏠 ᄒᆞ나민 두 쪽으로 쪼개진 거라도 어렵주게. 경헨에 풀풀허지[305] 안허영 바르르허게시리[306] 다 밥이 영 벙뎅이지지도 안허여, 잘이.(아니 옛날은 이거 보리쌀 하나면 두 쪽으로 쪼개진 거라도 어렵지. 그래서 '풀풀허지' 않고 '바르르하게끔' 다 밥이 이렇게 덩어리지지도 않아, 잘.)

107003 @ 으.(으.)

107003 #2 저 식어사.(저 식어야.)

107003 @ 식어사.(식어야.)

107003 #2 식어사 벙뎅이지주, 식지 안헌 때 벙뎅이 안 지고 저 가르르헤근에[307]. 게민 애기들 그거 먹으민 그대로 나와. 소화가이.(식어야 덩어리지지, 식지 않을 때 덩어리 안 지고 저 '가르르해서'. 그럼 아기들 그거 먹으면 그대로 나와. 소화가.)

107003 @ 안 씹엉 그냥.(안 씹어서 그냥.)

107003 #2 어, 기자 애기덜 멕이민 기자 픽픽 픽픽허게 뒤으로 기자 나오주게. 보리썰만 먹어 놓민 경허여, 옛날은 경헤낫어.(어, 그저 아기들 먹이면 그저 픽픽 픽픽하게 뒤로 그저 나오지. 보리쌀만 먹어 놓으면 그래, 옛날은 그랬었어.)

107006 @ 으. 이젠 조팝 만들어 줍서, 조팝.(으. 이젠 조밥 만들어 주세요, 조밥.)

107006 #2 조팝은 저 거시기 쏠 놔근에 물 놔근에.(조밥은 저 거시기 쌀 넣어서 물 넣어서.)

107006 @ 아니, 쏠 장만허는 거부터. 좁썰.(아니, 쌀 장만하는 거부터. 좁쌀.)

103023 #2 좁썰이, 존이 이만이 크주, 이만이 기러기가 크고 이디 또 조코고리가 영 뒈민 이거 영 헹 허민 이거 조코고리가 영허여.(좁쌀, 존 이만큼 크지, 이만큼 길이가 크고 여기 또 조이삭이 이렇게 되면 이거 조이삭이 이래.)

103023 @ 예.(예.)

103023 #2 이추룩 숙여지민 이거 무꺼당 이거 이 단으로 무꺼근에 지민, 사름 영헹 지민 혼착더레 막 자울아져.(이처럼 숙이면 이거 묶어다가 이거 이 단으로 묶어서 지면, 사람 이렇게 지면 한쪽으로 마구 갸울어져.)

103023 @ 예.(예.)

---

305) '풀풀허다'는 밥이 차진 기가 있는 것을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306) '바르르허다'는 밥이 차진 기가 없어서 밥알이 흩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307) '가르르허다'는 밥이 차진 기가 없어서 밥알이 흩어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제보자는 이러한 상태의 밥을 '가르르허다', '바르르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103023 #2 이디 뿔린 우터레 가고 고고리는 알러레 가고. 건 무거우난, 베난(여기 뿌리는 위로 가고 이삭은 아래로 가고. 건 무거우니까, 무거우니까.)

103023 @ 무거우난.(무거우니까.)

103024 #2 베난에 경헨 허민 그거 져다근에 조코고리 영 영 심으멍 그걸 호미 영 놔근에, 발에 영 앚아근에 호미로 톡톡 끈으멍 조코고리 뚜로 헤 놔, 멍석더레.(무거우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 져다가 조이삭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서 그걸 낫 이렇게 놔서, 발에 이렇게 앉아서 낫으로 톡톡 끊으면서 조이삭 따로 해 놔, 멍석에.)

103024 @ 으.(으.)

103024 #2 헤 놩 그거 또 도께로 두드려 또.(해 놓고 그거 또 도리깨로 두드려 또.)

103024 @ 두드려예.(두드려요.)

103024 #2 도께로 두드령 ᄇᆞ름 불 땐 영 헹 솔박[308] 헤당, 솔박은 낭으로 헹 솔박 잇주게.(도리깨로 두드려서 바람 불 땐 이렇게 해서 '솔박' 해다가, '솔박'은 나무로 해서 '솔박' 있지.)

103024 @ 예, 예.(예, 예.)

103024 #2 솔박 헤당 거려근에 솔박 거시기 허주게.('솔박' 해다가 떠서 '솔박' 거시기 하지.)

103024 @ 불리는 거.(불리는 거.)

103024 #2 어, 영 헹 불리민 저 체 뚜로 쏠 뚜로 조 뚜로. 경허민 거 또 존 또 ᄆᆞᆯᄀᆞ레 강 또 ᄀᆞᆯ아사.(어, 이렇게 해서 불리면 저 체 따로 쌀 따로 조 따로. 그러면 거 또 조는 또 연자매 가서 또 갈아야.)

103025 @ 아, 조도 ᄆᆞᆯᄀᆞ레에 강?(아, 조도 연자매에 가서?)

103025 #2 어. 또 둥그려사 그거 쏠 나와.(어. 또 둥글려야 그거 쌀 나와.)

103025 @ 예.(예.)

107006 #2 그거 쏠 나오민 그걸 저 물 놔근에 솖당 좁썰 놔근에, 좁썰엔 거시기 물 하영 안 들어, 보리썰추룩.(그거 쌀 나오면 그걸 저 물 넣어서 삶다가 좁쌀 넣어서, 좁쌀엔 거시기 물 많이 안 들어, 보리쌀처럼.)

107006 @ 예.(예.)

107006 #2 하영 안 들엉 기자 뒈주게. 경헤근에 감저 놔근에 물 놩 감저 썰어 놔근에 솖다근에 그디 좁썰 놔근에 경헤근에 그걸 무시거 허주게. 그 좁썰 놔근에 헹 불령 놔두민 ᄒᆞ쏠 불 끼와근에 잇이민 그거 푹 허게 익어.(많이 안 들고 그저 되지. 그래서 고구마 넣어서 물 넣어서 고구마 썰어 넣어서 삶다가 거기 좁쌀 넣어서 그래서 그걸 뭐 하지. 그 좁쌀 넣어서 해서 불려서 놔두면 조금 불 꺼서 있으면 그거 푹 하게 익어.)

107006 @ 음.(음.)

---

308) '솔박'은 '한 되들이만큼 하게 나무를 파서 만든 둥그스름한 그릇'을 말한다. 곡물을 뜰 때 사용하는 도구로 지역에 따라 '좀팍, 좀박, 손박'이라고도 한다.

107006 #2 경허민 감저에 좁썰에 박박 젓어근에 흔디 막 서껑.(그러면 고구마에 좁쌀에 박박 저어서 같이 마구 섞어서.)

107006 @ 으.(으.)

107006 #2 서꺼근에 퍼 놩 먹곡.(섞어서 떠 놔서 먹고.)

107006 @ 아, 그럼 조팝 헐 때는 감저를 먼저 솖당.(아, 그럼 조밥 할 때는 고구마를 먼저 삶다가.)

107006 #2 으.(으.)

107006 @ 거기에 좁썰 놓는 거?(거기에 좁쌀 넣는 거?)

107006 #2 으, 좁썰 놔근에.(으, 좁쌀 넣어서.)

107006 @ 그럼 좁썰은 금방 익는 거?(그럼 좁쌀은 금방 익는 거?)

107006 #2 으, 제기 익주게. 보리썰추룩 안 허여.(으, 재게 익지. 보리쌀처럼 안 해.)

107006 @ 아.(아.)

107006 #2 보리썰은 익기가 어려와. 저 거시기 이녁만썩 둥그는 따문.(보리쌀은 익기가 어려워. 저 거시기 자기만 뒹구는 때문.)

107006 @ 음.(음.)

107006 #2 경허고 보리밥 허민 냄새나. 보리쏠 내. 보리쏠 내나. 경허민 이 비위 약헌 사름은, 나 두린 땐 이 보리밥 못 먹언. 내나근에.(그리고 보리밥 하면 냄새나. 보리쌀 냄새. 보리쌀 냄새나. 그러면 이 비위 약한 사람은, 내가 어렸을 땐 이 보리밥 못 먹었어. 냄새나서.)

107006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7006 #2 어. 경헤근에 밥허민 영 코 막으멍 헤낫주게. 허허허. 경헨에 보리쏠은 싫어허는 사름은 안 먹는 사름은 안 먹어, 잘. 지금은 서끄난에 저 거시기 모든 걸 서끄난에 반지기밥추룩 영 허난 먹어지곡. 엿날은 보리밥은 막 어려왓주게, 먹음이.(어. 그래서 밥하면 이렇게 코 막으면서 했었지. 하하하. 그래서 보리쌀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어, 잘. 지금은 섞으니까 저 거시기 모든 걸 섞으니까 '반지기밥'처럼 이렇게 하니까 먹을 수 있고. 옛날은 보리밥은 아주 어려웠었지, 먹기가.)

107006 @ 먹음이.(먹기가.)

107006 #2 으, 먹음이 좋지 안헹게.(으, 먹기가 좋지 않아서.)

107006 @ 조팝은 좁썰만 놩 밥은 안 허고 거이 감저 놩 ᄀᆞ치 헤낫수과?(조밥은 좁쌀만 넣어서 밥은 안 하고 거 고구마 넣어서 같이 했었습니까?)

107006 #2 아니. 건 감저 놓는 건 하렌. 좁썰만도 놓아.(아니. 건 고구마 넣는 건 많게. 좁쌀만도 넣어.)

107006 @ 예.(예.)

107006 #2 좁썰만도 놓민 살락허여,[309] 또. 조팝도.(좁쌀만도 넣으면 '살락해',

309) '살락허다'는 조밥이 찰기가 없이 고슬고슬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또. 조밥도.)

107006 @ 예.(예.)

107006 #2 것도 또 소화가 잘 안 뒈여.(것도 또 소화가 잘 안 돼.)

107006 @ 예.(예.)

107006 #2 살락헤근에. 까릿까릿허곡 ᄒᆞ썰.('살락해서'. 까끌까끌하고 조금.)

107006 @ 좁썰은 종류가 흐린 것도 잇고 모인 것도.(좁쌀은 종류가 차진 것도 있고 메진 것도.)

107006 #2 흐린 것도 잇고 모인 것도 잇고. 보리도 흐린 것도 잇고 모인 것도 잇고.(차진 것도 있고 메진 것도 있고. 보리도 차진 것도 있고 메진 것도 있고.)

107006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7006 #2 산디도 흐린 산디 잇고 모인 산디 잇고.(밭벼도 차진 밭벼 있고 메진 밭벼 있고.)

107006 @ 게민 조팝 헐 때 밥허는 거는 흐린 거로 헙니까, 모인 거로 헙니까?(그럼 조밥 할 때 밥하는 거는 차진 거로 합니까, 메진 거로 합니까?)

107006 #2 흐린, 흐린 것광 저 모인 것광 서끄민 좋아.(차진, 차진 것과 저 메진 것과 섞으면 좋아.)

107006 @ 아, 서끄민 좋아.(아, 섞으면 좋아.)

107006 #2 으, 서끄민 건 좋고 흐린 쏠만 놓민 밥헹 보민 우인 물 ᄀᆞᆯ르지. 물 ᄀᆞᆯ르고 아랜 밥 뒈고. 경헤도 거 영 퍼 가민 ᄀᆞᆯ로로 뒈영 먹어져.(으, 섞으면 건 좋고 차진 쌀만 넣으면 밥해 보면 위엔 물 고이지. 물 고이고 아래는 밥 되고. 그래도 거 이렇게 떠 가면 골고루 돼서 먹을 수 있어.)

107006 @ 아.(아.)

107006 #2 견디 좁썰, 흐린좁썰만 밥헹은 혼엇이 못 먹어. 혼엇이 못 먹어.(그런데 좁쌀, 차좁쌀만 밥해서는 한없이 못 먹어. 한없이 못 먹어.)

107006 @ 아, 무사, 무사 못 먹어?(아, 왜, 왜 못 먹어?)

107006 #2 저 닉닉헤여근에.(저 느끼해서.)

107006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7006 #2 그건 막 끈기가 잇어놓난.(그건 아주 끈기가 있으니까.)

107006 @ 그럼 답지는[310] 거? 닉닉허다는 게 뭐?(그럼 '답지는' 거? '닉닉하다'는 게 뭐?)

107006 #2 닉닉헌 건 소곱이 좋지 안허다, 이 말이지.('닉닉한' 건 속이 좋지 않다, 이 말이지.)

107006 @ 으.(으.)

107006 #2 소곱이, 소곱이 닉닉헤여근에.(속이, 속이 느끼해서.)

107006 @ 예.(예.)

107007 #2 ᄑᆞᆺ밥 ᄀᆞᆯ아 줍서. ᄑᆞᆺ, ᄑᆞᆺ으로 밥허는 거. 팥.(팥밥 말해 주세요. 팥, 팥

310) '답지다'는 '먹은 것이 잘 삭지 않아 가슴속이 깐깐하게 괴로워 못 견디다'라는 의미다.

으로 밥하는 거. 팥.)
107007 #2 팥?(팥?)
107007 @ 예.(예)
107007 #2 저, 팥, 팥은.(저, 팥, 팥은.)
107007 @ 팥이렌 헐 거 픗이렌 헐 거?(팥이라고 할 거 팥이라고 할 거?)
107007 #2 픗, 픗, 픗.(팥, 팥, 팥.)
107007 @ 으, 픗밥.(으, 팥밥.)
107007 #2 픗은 솖아 놧다근에 건져근에 헷다근에 보리썰에 놩 서끔도 허고 보리썰에 놔근에 흔디 솖음도 허고.(팥은 삶아 놔서 건져서 했다가 보리쌀에 넣어서 섞기도 하고 보리쌀에 넣어서 같이 삶기도 하고.)
107007 @ 음.(음.)
107007 #2 픗은 솖기가 어렵주, ᄒᆞ썰 피어나기가.(팥은 삶기가 어렵지, 조금 피어나기가.)
107007 @ 아.(아.)
107007 #2 보리썰추룩 피어나기가 어려와. 게난 솖아근에 그레 흔디 놩 밥헹 먹는 게 좋아, 픗은.(보리쌀처럼 피어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삶아서 그리 같이 넣어서 밥해 먹는 게 좋아, 팥은.)
107007 @ 솖기 전에 물 컹 놔뒷당.(삶기 전에 물 담가 놔뒀다가.)
107007 #2 물, 물 컹 놔뒷당 허는 수도 잇주만은 대개 솖앙 놧당 헷주.(물, 물 담가 놔뒀다가 하는 수도 있지만 대개 삶아서 놨다가 했지.)
107007 @ 솖앙 놔뒷당.(삶아서 놔뒀다가.)
107007 #2 어, 어.(어, 어.)
107007 @ 어, 솖앙 놧당게.(어, 삶아서 놨다가.)
107007 #2 요즘, 지금은 컹 놧당 헤도 것도 엿날은 몰라. 컹 놔뒁 불어나는 걸 몰랏어, 몰랏어.(요즘, 지금은 담가 놨다가 해도 것도 옛날은 몰라. 담가 놔뒀다가 불어나는 걸 몰랐어, 몰랐어.)
107007 @ 아.(아.)
107007 #2 지금은 컹 놧당 허여. 엿날은. 경허난 엿날 살아난 무시거사 몰라. 어려와, 우리, 우리 시대보단 더 어른덜은 더 어렵게 살앗주게.(지금은 담가 놨다가 해. 옛날은. 그러니까 옛날 살았던 뭐 몰라. 어려워, 우리, 우리 시대보다는 더 어른들은 더 어렵게 살았지.)
107007 @ 기지예.(그렇죠.)
107007 #2 어, 더 어렵게 살앗주게. 우린 두린 때에 우리 할망네여 영 헌 거 보면 옷도이 진짜 ᄉᆞ못 갈리갈리 헌 거 입곡 ᄉᆞ못 맨발에.(어, 더 어렵게 살았지. 우리는 어렸을 때에 우리 할머니네 이렇게 한 거 보면 옷도 진짜 사뭇 가리가리 한 거 입고 사뭇 맨발에.)
107007 @ 어.(어.)

107007 #2 양말이 어딧어? 양말 엇이 초신, 찍신이.(양말이 어딨어? 양말 없이 짚신, 짚신.)

107007 @ 으, 찍신.(으, 짚신.)

107007 #2 찍신 신곡 경헨 뎅기고. 어느 저르에 고무신 신고 하간 거 헷어게. 찍신 신어근에 뎅기고 저 비 온 날도 맨발에 발탁발탁허게[311] 기자 물 블르멍 그대로 넘어가고 경헷주게. 우리 영 두린 때에 할망네 헌 거 보민 아이고, 반찬도이 고칫입, 꿧입이. 고칫입, 유엔 허주게, 깻입이.(짚신 신고 그래서 다니고. 어느 겨를에 고무신 신고 온갖 거 했어. 짚신 신고 다니고 저 비 온 날도 맨발에 절버덕절버덕하게 물 밟으면서 그대로 넘어가고 그랬지. 우리 이렇게 어렸을 때에 할머니네 한 거 보면 아이고, 반찬도 고춧잎, 깻잎. 고춧잎, '유'라고 하지, 깻잎.)

107007 @ 유입, 유입.(들깻잎, 들깻잎.)

107007 #2 유입. 그 유입, 고칫입 거튼 거 헤다근에 흔디 막 서껑 그레 ᄀᆞ루 놔근에 버물여근에 그거 솖으멍 그레 버물여근에 거 반찬.(들깻잎. 그 들깻잎, 고춧잎 같은 거 해다가 같이 마구 섞어서 그리 가루 넣어서 버무려서 그거 삶으면서 그리 버무려서 거 반찬.)

107007 @ 맞아예.(맞아요.)

107007 #2 그레 소금 놓고, 소금 놓고. 경헤영 먹엇주게. 그걸 반찬 막 맛 좋아.(그리 소금 넣고, 소금 넣고. 그래서 먹었지. 그걸 반찬 아주 맛 좋아.)

107007 @ 맛 좋아.(맛 좋아.)

107007 #2 하하하.(하하하.)

107007 @ 게난 옛날에도 풋밥은 막 헹 먹어졋수과?(그러니까 옛날에도 팥밥은 많이 해서 먹었습니까?)

107007 #2 풋, 풋, 풋밥. 헹 먹는 디는 헤영 먹고 또 그건 돈 산덴 허멍 풀레 가는 사름은 풀고 헷주게. 경 무시거 헌 건 돈 사젠 먹질 안허고. 어려운 시대난이.(팥, 팥, 팥밥. 해서 먹는 데는 해서 먹고 또 그건 돈 산다고 하면서 팔러 가는 사람은 팔고 했지. 그렇게 뭐 한 건 돈 사려고 먹질 않고. 어려운 시대니까.)

107007 @ 예.(예.)

107007 #2 헹 먹는 사름덜도 잇곡게. 이녁냥으로 허난. 밧 에염에 강 영 헹 허민 밧 에염으로 담 에염으로, 담 에염으로 풋 싱경 이레 담더레 올려. 그거 타다근에 믄 장만허고. 경헨 헤낫주게. 두불풋[312].(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대로 하니까. 밭 옆에 가서 이렇게 해서 하면 모두 장만하고. 그렇게 했었지. '두불풋'.)

107007 @ 두불풋이렌 헤?('두불풋'이라고 해?)

107007 #2 어, 두불풋이엔 헌 거 경헨 허고.(어, '두불풋'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고.)

107007 @ 무사 두불풋?(왜 '두불풋'?)

---

311) '발탁발탁허다'는 물에 흠씬 젖은 모양이나 고인 물 위를 걸을 때 나는 소리가 난다는 의미다. 여기서는 고인 물을 밟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표준어의 '절버덕절버덕하다'에 대응한다.

312) '두불풋'은 팥의 한 종류다.

107007 #2 두불풋이엔 헹 줄, 줄 올려근에.(‘두불풋’이라고 해서 줄, 줄 올려서.)

107007 @ 줄 올령. 게민 줄 안 올리는 것도 있고?(줄 올려서. 그럼 줄 안 올리는 것도 있고?)

107007 #2 줄 안 올리는 건 민짝[313] 갈고.(줄 안 올리는 건 ‘민짝’ 갈고.)

107007 @ 아.(아.)

107007 #2 민짝 갈아근에.(‘민짝’ 갈아서.)

107007 @ 줄 올리는 걸 두불풋이엔 허는 거예?(줄 올리는 걸 ‘두불풋’이라고 하는 거요?)

107007 #2 어.(어.)

107008 @ 피밥 알아지쿠과, 피밥?(피밥 알겠습니까, 피밥?)

107008 #2 피, 으.(피, 으.)

107008 @ 피밥도 헹 먹엇수과?(피밥도 해서 먹었습니까?)

107008 #2 핀 우린, 난 헤여 보진 안헌디 나 시집오난에 시삼춘네가 피 헤라게. 핀 허민 물ᄀᆞ레에 강 멧 번 ᄀᆞᆯ아사.(피는 우린, 난 해 보진 않았는데 내가 시집오니까 시삼촌네가 피 하더라. 피는 하면 연자매에 가서 몇 번 갈아야.)

107008 @ 무사?(왜?)

107008 #2 ᄒᆞᆫ번에 못 ᄀᆞᆯ아.(한번에 못 갈아.)

107008 @ 안 벳겨정?(안 벗겨져서?)

107008 #2 으, 안 안 뒈여. 멧 번 ᄀᆞᆯ앙 헤난 거 닮아. 난 해 보진 안허고 영 허는 거 보민. 경 헨 피밥이엔 허멍 헹 먹고.(으, 안 안 돼. 몇 번 갈아서 했던 거 같아. 난 해 보진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해서 피밥이라고 하면서 해서 먹고.)

107008 @ 음.(음.)

107008 #2 경헨 피밥도 똑 좁쏠 닮아.(그래서 피밥도 꼭 좁쌀 같아.)

107008 @ 음.(음.)

107008 #2 똑 좁쏠 닮앙 난 장만도 안 헤 보고 헌디 우리 시삼춘네가 헤여근에 준 거 보민 꼭 좁쏠과 ᄀᆞ타. 똑ᄀᆞ타. 경헤근에 그거 장만허기 막 어려와.(꼭 좁쌀 같아서 난 장만도 안 해 보고 했는데 우리 시삼촌네가 해서 준 거 보면 꼭 좁쌀과 같아. 똑같아. 그래서 그거 장만하기 아주 어려워.)

107008 @ 장만허기 어려워예?(장만하기 어려워요?)

107008 #2 으, 어렵덴 허멍 경허여.(으, 어렵다고 하면서 그래.)

107008 @ 피도 아무 디나 허는 건 아니잖아?(피도 아무 데나 하는 건 아니잖아?)

107008 #2 ᄀᆞᆺ인 밧디.(ᄀᆞᆺ은 밭에.)

107008 @ ᄀᆞᆺ인 밧디.(ᄀᆞᆺ은 밭에.)

107008 #2 어, 다른 거 안 뒈는 밧디.(어, 다른 거 안 되는 밭.)

313) 여기서 ‘민짝’은 고르게 늘어서거나 가지런히 벌여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08 @ 맛 좋긴 헙니까, 피밥?(맛 좋긴 합니까, 피밥?)

107008 #2 에, 케싹헹[314] 조팝만이도 못 허여.(에, '케싹해서' 조밥만큼도 못 해.)

107008 @ 아.(아.)

107008 #2 케싹, 기자 입에 놓면 다 이녁만썩 둥글어.('케싹', 그저 입에 넣으면 다 자기만큼씩 뒹굴어.)

107008 @ 하하하.(하하하).

107008 #2 어, 밥이 이녁만썩 둥글어.(어, 밥이 자기만큼씩 뒹굴어.)

107008 @ 아, 찰지지 안헹 따로따로.(아, 찰지지 않고 따로따로.)

107008 #2 어, 밥험도 어렵고. 그거 핀 아무나 헹 먹질 안허여. 저 거세기 헤근에.(어, 밥하기도 어렵고. 그거 피는 아무나 해서 먹질 않아. 저 거시기 해서.)

107008 @ 게난 여기 토평에도 피는 좀 농사짓긴 헤낫다예?(그러니까 여기 토평에도 피는 좀 농사짓긴 했었네요?)

107008 #2 으, 잇어낫주게. 옛날 할망덜은 잇어낫주게. 경헌디게 아고, 무시거, 다른 것사 무시거 나룩 우리, 우린 신효[315] 살멍 허난 이딘, 이 토평은 막 박헌 디.(으, 있었지. 옛날 할머니들은 있었지. 그런데 아이고, 뭐, 다른 거야 뭐 벼 우리, 우린 신효 살면서 하니까 여긴, 이 토평은 아주 박한 데.)

107008 @ 으.(으.)

107008 #2 논도 엇고 어디 물도 엇고 막 박헌 디고 땅이 나빠.(논도 없고 어디 물도 없고 아주 박한 데고 땅이 나빠.)

107008 @ 아.(아.)

107008 #2 땅이 나빵 아무거나 뒈질 안허여.(땅이 나빠서 아무거나 되질 않아.)

107008 @ 예.(예.)

107008 #2 보리도 갈민 피지 안헤근에 곧 죽어 불고.(보리도 갈면 피지 않아서 곧 죽어 버리고.)

107008 @ 아.(아.)

107008 #2 고고리 나오지 못헤영 죽어 불어. 북부리[316], 북부리 졍. 것ᄀᆞ라 북부리.(이삭 나오지 못해서 죽어 버려. '북부리', '북부리' 져서. 것보고 '북부리'.)

107008 @ 고고리 안 낭.(이삭 안 나서.)

107008 #2 안 나는 거 북부리.(안 나는 거 '북부리'.)

107008 @ 북부리엔 ᄀᆞᆫ는 거예?('북부리'라고 말하는 거요?)

107008 #2 으, 북부리 졍. 고고리 안 나근에 그걸 북부리 져근에 죽어 벼.(으, '북부리' 져서. 이삭 안 나서 그걸 '북부리' 져서 죽어 버려.)

107008 @ 아.(아.)

107008 #2 경헨 이딘 막 널르게 ᄉᆞ못 보릴 갈아도 멧 섬 안 허여. 멧 섬에 흔

314) '케싹허다'는 쌀이 찰기가 없이 푸석한 것을 말한다.
315) '신효'는 서귀포시 신효동을 말한다.
316) '북부리'는 곡식에 이삭이 맺지 않고 말라 죽은 것을 말한다.

섬이 저 두 뒈갓들[317]로 쏠, 보리 네 개 놓민 혼 말.(그래서 여긴 아주 넓게 사뭇 보릴 갈아도 몇 섬 안 해. 몇 섬에 한 섬에 저 두 되들이로 쌀, 보리 네 개 넣으면 한 말.)

107008 @ 음.(음.)

107008 #2 두 뒈갓들로 네 개썩 헌 거 열다섯 개 놓민 혼 섬.(두 되들이로 네 개씩 한 거 열다섯 개 넣으면 한 섬.)

107008 @ 음.(음.)

107008 #2 경헤근에, 경헨 열다섯 개 놩 혼 섬 헤영 아이고, 보리 멧 섬 헷저. 경허고.(그래서, 그래서 열다섯 개 놔서 한 섬 해서 아이고, 보리 몇 섬 했어. 그리고.)

107008 @ 맞아마씨.(맞아요.)

107008 #2 어느 집인 보리 멧 섬 헤연. 경 곧고.(어느 집은 보리 몇 섬 했어. 그렇게 말하고.)

107008 @ 맞아마씨.(맞아요.)

107008 #2 경헌디 신효 나 살아난 딘 논이 잇고 허민 논에 갈아근에 논일허고 비 와 가민 강 논일허고. 저 거시기 장마 때, 장마 때 강 논일허고 나룩 헤나고 헌디 이딘 나룩이 엇어.(그런데 신효 내가 살았던 데는 논이 있고 하면 논에 갈아서 논일하고 비 와 가면 논일하고. 저 거시기 장마 때, 장마 때 가서 논일하고 벼 했었고 했는데 여긴 벼가 없어.)

107008 @ 게난 신효에서는 나룩 헤나시민 곤밥 먹어나신게?(그러니가 신효에서는 벼 했었으면 흰밥 먹었었네요?)

107008 #2 어, 우린 곤밥 먹고 신효선 호강시리 살곡게, 어무니, 어무니 신 디선. 경헨 나 여름에 보리밥 안 먹으민 다른 밥 헹 주고게, 어무니네.(어, 우린 흰밥 먹고 신효에선 호강스럽게 살고, 어머니, 어머니 있는 데서는. 그래서 나 여름에 보리밥 안 먹으면 다른 밥 해서 주고, 어머니네.)

107008 @ 아이고.(아이고.)

107008 #2 이딘 오난에 보리밥도 엇엉 굶고게.(여긴 오니까 보리밥도 없어서 굶고.)

107008 @ 시집왕 고생하셨구나, 경허난.(시집와서 고생했구나, 그러니까.)

107008 #2 어. 아이고, 이딘 오난 보리썰도 엇곡 아무것도 엇언에 굶고, 굶고. 나도 점심 먹을 거 엇어. 경허민 애기덜 둘앙 신효 밥 얻어먹으레도 가나고.(어. 아이고, 여긴 오니까 보리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굶고, 굶고. 나도 점심 먹을 거 없어. 그러면 아기들 데리고 신효 밥 얻어먹으러도 갔었고.)

107008 @ 게민 이디서 신효까지 ᄇᆞ디과, 가차와?(그럼 여기서 신효까지 밭습니까, 가까워?)

107008 #2 상효[318] 넘어가민 기난 경 멀진 안허주게. 차 거트민 혼 십 분.(상효

317) 여기서 '갓들'은 '그만큼 담을 수 있는 용량'이라는 의미의 '들이'의 의미인 것 같다.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는 않지. 차 같으면 한 십 분.)

107008 @ 아, 바로 ᄌᆞᆺ딘게.(아, 바로 근처네.)

107008 #2 으, 바로 ᄌᆞᆺ디. 영헨 이디서 영 바레민 이디 소남.(으, 바로 근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소나무.)

107008 @ 예, 예.(예, 예.)

107008 #2 소나무 이신 동산을 바레지네. 것가 신효.(소나무 있는 동산을 볼 수 있어. 그것이 신효.)

107008 @ 아.(아.)

107008 #2 경허난 가까와. 겨난 나 두린 때, 첨 애기덜 두린 때 애기 ᄃᆞᆯ아근에 아이고, 오라 할망신디 강 밥 얻어먹엉 오게 헨 강 밥 얻어먹엉 ᄊᆞᆯ 빌곡 헹 오고.(그러니까 가까워.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참 아기들 어렸을 때 아기 데려서 아이고, 와라 할머니에게 가서 밥 얻어먹고 오자 해서 가서 밥 얻어먹고 쌀 빌리고 해서 오고.)

107008 @ 아이고.(아이고.)

107008 #2 경헤낫저, 경헤낫어.(그랬었어, 그랬었어.)

107008 @ 애기덜 데령?(아기들 데려서?)

107008 #2 으, 경헤낫어.(으, 그랬었어.)

107009 @ 아까 감저밥 ᄀᆞᆯ아신디 감저밥 헐 때는 좁썰만 놧수과?(아까 고구마밥 말했는데 고구마밥 할 때는 좁쌀만 놨습니까?)

107009 #2 아니, 곤썰에도 놔. 지금도이 곤썰에 놓민 막 좋아.(아니, 흰쌀에도 넣어. 지금도 흰쌀에 넣으면 아주 좋아.)

107009 @ 아, 감저를.(아, 고구마를.)

107009 #2 고구마 강 ᄒᆞ나 썰엉 곤썰에 놔 보라. 맛 좋메. 나도 이땅 벨미로 경헤 먹어.(고구마 가서 하나 썰어서 흰쌀에 넣어 봐. 맛 좋아. 나도 이따금 별미로 그렇게 해 먹어.)

107009 @ 아, 기구나, 기구나. 그때도, 옛날에도 좁썰 말고도 곤썰에도?(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때도, 옛날에도 좁쌀 말고도 흰쌀에도?)

107009 #2 으, 놩 먹엇주. 저 ᄊᆞᆯ을 애끼젠게. ᄊᆞᆯ을 애끼젠. 경헤근에 감저 놔근에 허민 ᄊᆞᆯ이 덜 들주게.(으, 넣어서 먹었지. 저 쌀을 아끼려고. 쌀을 아끼려고. 그래서 고구마 넣어서 하면 쌀이 덜 들지.)

107009 @ 으.(으.)

107009 #2 하영 안 놔도 뒈난. 경헤부난 경허고 수정 한 디 주고 감저 기자. 감저 먹엇주게, 주로.(많이 안 넣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수 많은 데 주고 고구마 그저. 고구마 먹었지, 주로.)

107010 @ 음. 무밥도 먹어낫수과, 무밥?(음. 무밥도 먹었었습니까, 무밥?)

107010 #2 무밥도 헤 먹는 디는 헷자 우린 안 헹 먹어 보고.(무밥도 해 먹는 데

318) '상효'는 서귀포시 상효동을 말한다.

는 해도 우린 안 해서 먹어 보고.)

107010 @ 무밥이 어떤 것과?(무밥이 어떤 겁니까?)

107010 #2 늠삐, 늠삐. 늠삐엔 헤근에이 무 썰어 놔근에 거 쏠에 흔디 놩 거 밥 허민 뒈는 거주게. 거 벨미로 헹 먹엇어덜.(무, 무. 무라고 해서 무 썰어 넣어서 거 쌀에 같이 넣어서 거 밥하면 되는 거지. 거 별미로 해서 먹었어.)

107010 @ 거 물 하영 나난, 무 솖으민 물 나잖아?(거 물 많이 나오니까, 무 삶으면 물 나잖아?)

107010 #2 물 나주게. 게난 무 놧젠 물 더 놓진 말아사주.(물 나지. 그러니까 무 놨다고 물 더 넣지는 말아야지.)

107010 @ 그니까, 그니까 쏠 만큼만.(그러니까, 그러니까 쌀 만큼만.)

107010 #2 무에 물이 나난 다른 쏠, 쏠에 들어갈 물만 놔사. 경헤근에 헹 먹고 경헷주게.(무에 물이 나니까 다른 쌀, 쌀에 들어갈 물만 놔야. 그래서 해서 먹고 그랬지.)

107010 @ 게난 아까 밥에 감저도 놩 불렷잖아. 쏠을 애끼젠 놩 헤잖아?(그러니까 아까 밥에 고구마도 넣어서 불렸잖아. 쌀을 아끼려고 넣어서 했잖아?)

107010 #2 으, 으.(으, 으.)

107011 @ 그거 말고 감저나 무 말고 톨 같은 것도 놔낫수과?(그거 말고 고구마나 무 말고 톳 같은 것도 넣었습니까?)

107011 #2 톨도 놩덜 헤 먹엇젠 곧주게. 톨덜도 놓고 또 저 이 거시기 무신 ᄂᆞ물 ᄀᆞ튼 거.(톳도 넣어서들 해 먹었다고 말하지. 톳들도 넣고 또 저 이 거시기 무슨 나물 같은 거.)

107011 @ ᄂᆞ물.(나물.)

107011 #2 으, 그런 푸십세 그런 것도 놔근에 버물렁 기자 어울렁 먹젠.(으, 그런 푸성귀 그런 것도 넣어서 버무려서 그저 어울려서 먹으려고.)

107011 @ 맞아, 맞아.(맞아, 맞아.)

107011 #2 하게시리 헤근에.(하게끔 해서.)

107011 @ 톨밥도 만들아 봣수과?(톳밥도 만들어 봤습니까?)

107011 #2 난 아니 헤 봔. 톨밥은 아니 헤 봔.(난 안 해 봤어. 톳밥은 안 해 봤어.)

107011 @ 여기는, 여기는 토평은 바당 거는 좀 구하기 어려워?(여기는, 여기는 토평은 바다 거는 좀 구하기 어려워?)

107011 #2 아니, ᄒᆞ쏠 경 해벤 닮지 안 허주게. 바당은 잇어, 검은여[319].(아니, 조금 그렇게 해변 닮지 않지. 바다는 있어, '검은여'.)

107011 @ 기지예.(그렇죠.)

107011 #2 바당은 잇어, 검은여.(바다는 있어, '검은여'.)

107011 @ 물질허는 사름은 별로 엇수과?(물질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까?)

319) '검은여'는 서귀포시 토평동 앞바다에 있는 여 이름이다.

107011 #2 물질허는 사름 흔 멧 잇어.(물질하는 사람 한 몇 있어.)
107012 @ 잇지예?(있지요?)
107012 #2 으, 흔 멧 잇주.(으, 한 몇 있지.)
107012 @ 게민 톨밥도 삼춘은 안 헤 보고 패, 패?(그럼 톳밥도 삼촌은 안 해 보고 패, 패?)
107012 #2 패. 패 헤당 씻어근에 그건 영 보끄민 맛 좋아.(패. 패 해다가 씻어서 그건 이렇게 볶으면 맛 좋아.)
107012 @ 패를 밥에 놔 보진 안허연?(패를 밥에 넣어 보진 않았어?)
107012 #2 안 허연. 기자 보깡 먹언 봐도.(안 했어. 그저 볶아서 먹어는 봐도.)
107012 @ 아, 보깡 먹어도.(아, 볶아서 먹어도.)
107012 #2 톨도 헤당 그대로 기자 무쳥 먹어 봐도 밥은 안 헤 보고.(톳도 해다가 그대로 그저 무쳐서 먹어 봐도 밥은 안 해 보고.)
107012 @ 게민 삼춘이 주로 헤 먹어난 건 보리밥.(그럼 삼촌이 주로 해 먹었던 건 보리밥.)
107001 #2 보리밥, 조팝.(보리밥, 조밥.)
107001 @ 조팝.(조밥.)
107001 #2 ᄆᆞ물.(메밀.)
107001 @ ᄆᆞ물.(메밀.)
107001 #2 콩도 허고 감자도 허고.(콩도 하고 고구마도 하고.)
107001 @ 게민 콩밥은 쏠에 놩?(그럼 콩밥은 쌀에 넣어서?)
107001 #2 으, 콩은 솖앗당 쏠에 놔사주.(으, 콩은 삶았다가 쌀에 넣어야지.)
107001 @ 곤썰에?(흰쌀에?)
107001 #2 아니, 보리썰에.(아니, 보리쌀에.)
107001 @ 보리썰에. 아까 풋밥도 보리썰에 놨수과?(보리쌀에. 아까 팥밥도 보리쌀에 넣었습니까?)
107001 #2 으, 보리썰에.(으, 보리쌀에.)
107001 @ ᄆᆞ물밥은 어떵 헷수과, ᄆᆞ물밥?(메밀밥은 어떻게 했습니까, 메밀밥?)
107001 #2 ᄆᆞ물밥은 ᄆᆞ물 ᄀᆞ레에 골아근에 막 채로 치멍 푸는체로 치멍 헤여근에 그 보리밥 헤여근에 거자 뒈여 가민 그 우터레 놔근에 저 불르민 따시 불 솜앙 불르민 밥 뒈는 거.(메밀밥은 메밀 맷돌에 갈아서 마구 채로 치면서 키로 치면서 해서 그 보리밥 해서 거의 되어 가면 그 위에 놔서 저 불면 다시 불 때서 불면 밥 되는 거.)
107001 @ ᄆᆞ물밥도 ᄆᆞ물쏠만 하는 게 아니고 보리쏠이영.(메밀밥도 메밀쌀만 하는 게 아니고 보리쌀이랑.)
107001 #2 ᄀᆞ치 놔근에. ᄆᆞ물죽 쒕 먹고.(같이 넣어서. 메밀죽 쒀서 먹고.)
107001 @ ᄆᆞ물죽 쒕 먹고.(메밀죽 쒀서 먹고.)
107001 #2 으, ᄆᆞ물죽 쒕 먹고.(으, 메밀죽 쒀서 먹고.)

107013 @ 밥헤시난 이제 국 가 보쿠다.(밥했으니까 이제 국 가 보겠습니다.)
107013 #2 국?(국?)
107013 @ 예, 국 종류에 뭐 뭐 잇수과?(예, 국 종류에 뭐 뭐 있습니까?)
107013 #2 드릇ᄂᆞ물도 헹 먹고.(들나물도 해서 먹고.)
107013 @ 드릇ᄂᆞ물.(들나물.)
107013 #2 어, ᄂᆞ물쿡.(어, 나물국.)
107013 @ ᄂᆞ물쿡.(나물국.)
107013 #2 배추허고.(배추하고.)
107013 @ 으, 배추허고.(으, 배추하고.)
107013 #2 어, 무시거 무우국도 헹 먹고 미역국 헹 먹고.(어, 뭐 무우국도 해서 먹고 미역국 해서 먹고.)
107013 @ 미역국. 미역이렌 ᄀᆞᆯ앗수과, 메역이렌 ᄀᆞᆯ앗수과?(미역국. 미역이라고 말했습니까, '메역'이라고 말했습니까?)
107013 #2 메역, 메역.('메역', 미역.)
107013 @ 무우도 무수렌 ᄀᆞᆯ아서예?(무도 '무수'라고 말했지요?)
107013 #2 ᄂᆞᆷ삐, ᄂᆞᆷ삐.('ᄂᆞᆷ삐', 무.)
107013 @ 예. ᄂᆞᆷ삐, ᄂᆞᆷ삐. 게난 무수국도 잇고, ᄂᆞᆷ삐국도 잇고?(예. 'ᄂᆞᆷ삐', 무. 그러니까 뭇국도 잇고, 뭇국도 있고?)
107013 #2 으.(으.)
107013 @ 또?(또?)
107013 #2 또 무슨 국 잇어?(또 무슨 국 있어?)
107013 @ 그때는 성게국[320] 같은 거 엇어낫어예?(그때는 성게국 같은 거 없었지요?)
107013 #2 아이고, 그 어느 절에.(아이고, 그 어느 겨를에.)
107013 @ 하하하. 어느 절에.(하하하. 어느 겨를에.)
107013 #2 어느 절에 고기국 먹고 하간 거. 고기국도 식게 때나 먹고 멩질 때나 궤기 먹주, 먹어지느냐?(어느 겨를에 고깃국 먹고 온갖 거. 고깃국도 제사 때나 먹고 명질 때나 고기 먹지, 먹을 수 있니?)
107013 @ 궤기국이렌 허면은 돗궤기 국?(고깃국이라고 하면 돼지고기 국?)
107013 #2 아니, 이디 솔라니국[321] 거튼 거 그거 궤기국게. 아무 고기라도이 멩질 때나 허고 식게 때나 먹주, 못 먹어.(아니, 여기 옥돔국 같은 거 그거 고깃국. 아무 고기라도 명질 때나 하고 제사 때나 먹지, 못 먹어.)
107013 @ 못 먹어.(못 먹어.)
107013 #2 곤밥도 식게 때나 허고 멩질 때나 먹주, 곤밥 못 봐, 못 봐. 보질 못허여. 먹어, 어느 절에 헹 먹고 하간 거. 몰라 부제칩인 헹 먹어주. 허허허.(흰밥도

320) '성게국'은 성게와 미역을 넣어 끓인 국을 말한다.
321) '솔라니국'의 '솔라니'는 옥돔을 가리키는 말로, '솔라니국'은 옥돔을 넣어 끓인 국을 말한다.

제사 때나 하고 명질 때나 먹지, 흰밥 못 봐, 못 봐. 보질 못 해. 먹어, 어느 겨를에 해서 먹고 온갖 거. 몰라 부잣집은 해서 먹었지. 허허허.)

107014 @ 그럼 ᄂᆞ물쿡이우다, ᄂᆞ물쿡.(그럼 나물국입니다, 나물국.)

107014 #2 어.(어.)

107014 @ ᄂᆞ물쿡 어떵 만들앗수과?(나물국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14 #2 물 놔근데 뒌장 풀어 놔근에 끓이당, 불 아궁이로 솜다근에 궤민 그레 ᄂᆞ물 무지려[322], 손으로 복복 무지려 놔.(물 넣어서 된장 풀어 넣어서 끓이다가, 불 아궁이로 때다가 끓으면 그리 나물 '무지려', 손으로 박박 '무지려' 넣어.)

107014 @ 무지려 놔.('무지려' 넣어.)

107014 #2 으.(으.)

107014 @ 게민 뒌장은 물 끓기 전에?(그럼 된장은 물 끓기 전에?)

107014 #2 으, 경 놔사 좋아.(으, 그렇게 넣어야 좋아.)

107014 @ 아, 경 놔사 좋아?(아, 그렇게 넣어야 좋아?)

107014 #2 경 놔사 좋아. 게사 뒌장 내 안 나고.(그렇게 넣어야 좋아. 그래야 된장 냄새 안 나고.)

107014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7014 #2 으, 익은 다음에 놓면 내나, 뒌장 내.(으, 익은 다음에 넣으면 냄새나, 된장 냄새.)

107014 @ 뒌장 내 나?(된장 냄새나?)

107014 #2 으.(으.)

107014 @ 뭐 다시 같은 건?(뭐 다시 같은 건?)

107014 #2 옛날에 그거 어디 셔, 당초.(옛날에 그거 어디 있어, 당최.)

107014 @ 엇어.(없어.)

107014 #2 그 장도 엇엉 소금도 놩 먹곡게.(그 장도 없어서 소금도 넣어서 먹고.)

107014 @ 아. 뒌장도 엇엉.(아. 된장도 없어서.)

107014 #2 으, 어느 절에 저 다시다[323] 거튼 거 하간 거. 메루치가 어디 셔게.(으, 어느 겨를에 저 다시다 같은 거 온갖 거. 멸치가 어디 있어.)

107014 @ 게도 뒌장은 담앙 먹지 안헨?(그래도 된장은 담가서 먹지 않았어?)

107014 #2 으, 뒌장은 담앗주게. 경허민 ᄒᆞᆫ 사람이 일 년 먹젠 허민 콩 ᄒᆞᆫ 말. ᄋᆞ답 식구 허민 ᄋᆞ답 말 솖아사. 열 식구 허민 열 말 솖아사.(으, 된장은 담갔지. 그러면 한 사람이 일 년 먹으려고 하면 콩 한 말. 여덟 식구 하면 여덟 말 삶아야. 열 식구 하면 열 말 삶아야.)

107014 @ 한 사람이 ᄒᆞᆫ 말?(한 사람이 한 말?)

107014 #2 ᄒᆞᆫ 말 먹넨. ᄒᆞᆫ 말 그거 안 먹는 거. 기자 장만, 장만 먹으난. 밥 출

322) '무지리다'는 풀이나 나물 따위를 손으로 뒤틀어 뜯는다는 의미다.
323) '다시다'는 조미료의 상품명이다.

려 놓민 짐치허고 장벳기 엇주게.(한 말 먹는다고. 한 말 그거 안 먹는 거. 그저 장만, 장만 먹으니까. 밥 차려 놓으면 김치하고 장밖에 없지.)

107014 @ 기지예.(그렇죠.)

107047 #2 짐치도이 대사니 ᄒᆞ꼼 ᄲᆞᆺ아 놓는 체헤근에 고춧ᄀᆞ루도 엇엉 졸바로 못 놔.(김치도 마늘 조금 빻아 넣는 척해서 고춧가루도 없어서 제대로 못 넣어.)

107047 @ 음.(음.)

107047 #2 경헨 ᄒᆞ는 체헤근에 그자. 바당에 가근에 ᄂᆞ물 헤당 씻엉 오라근에 물 졍 오랑 그것에 죽영. 바당물에.(그래서 하는 척해서 그저. 바다에 가서 나물 해다가 씻어 와서 물 지고 와서 그것에 죽여서. 바닷물에.)

107047 @ 아, 바당물에 죽영.(아, 바닷물에 죽여서.)

107047 #2 소금 애졍. 소금 애졍.(소금 아껴서. 소금 아껴서.)

107047 @ 아, 소금 절이는 대신에 바닷물에 절이는 거라?(아, 소금 절이는 대신에 바닷물에 절이는 거야?)

107047 #2 으, 경 헤근에 그거 헤근에 어느 절에 꿧ᄀᆞ루 놓고 하간 다시다 놓고. 고칫ᄀᆞ루도 ᄒᆞ꼼 놔근에 버무리는 체 허민 기자 그거 헤근에 기자 쨉찌랑허민 먹곡. 그것가 짐치.(으, 그렇게 해서 그거 해서 어느 겨를에 깻가루 넣고 온갖 다시다 넣고. 고춧가루도 조금 넣어서 버무리는 체 하면 그저 그거 해서 그저 짭조름하면 먹고. 그것이 김치.)

107047 @ 그것가 짐치.(그것이 김치.)

107047 #2 겐 뒌장허고 그거 짐치. 게민 부제칩인 자리젯 헹 먹곡 멜쳇 헹 먹곡.(그래서 된장하고 그거 김치. 그럼 부잣집은 자리젓 해서 먹고 멸치젓 해서 먹고.)

107047 @ 으.(으.)

107047 #2 부제칩 안헌 디 자리젯도 못 허여. 돈 엇엉 못 사난.(부잣집 아닌 데 자리젓도 못 해. 돈 없어서 못 사니까.)

107047 @ 그지예. 나중에 자리젓 만드는 거랑, 짐치 만드는 거랑 ᄒᆞ나씩 물어보쿠다예.(그렇죠. 나중에 자리젓 만드는 거랑, 김치 만드는 거랑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107047 #2 으.(으.)

107015 @ ᄂᆞ물쿡 끓여시난 이제 콩ᄂᆞ물, 콩ᄂᆞ물예. 콩ᄂᆞ물국 끓여 줍서.(나물국 끓였으니까 이제 콩나물, 콩나물요. 콩나물국 끓여 주세요.)

107015 #2 콩ᄂᆞ물?(콩나물?)

107015 @ 예.(예.)

107015 #2 콩ᄂᆞ물도게 물 놔근에, 물, 저 뒌장은 자꾸 풀어 놩게. 경헤근에 궤민 ᄂᆞ물 놔근에 콩ᄂᆞ물.(콩나물도 물 넣어서, 물, 저 된장은 자꾸 풀어 넣어서. 그래서 끓으면 나물 넣어서 콩나물.)

107015 @ 게민 콩ᄂᆞ물은 집이서 키운 거?(그럼 콩나물은 집에서 키운 거?)

107015 #2 집이서 키운 거.(집에서 키운 거.)
107015 @ 콩ᄂᆞ물 어떵 질렀수과?(콩나물 어떻게 길렀습니까?)
107015 #2 저 시리에, 떡 치는 시리에.(저 시루에, 떡 찌는 시루에.)
107013 @ 국부터 다시 한번 물어보쿠다.(국부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7013 #2 으.(으.)
107013 @ 국 종류가 뭐 뭐 잇수과?(국 종류가 뭐 뭐 있습니까?)
107013 #2 국 종류. 나물국, 콩나물국. 미역국.(국 종류. 나물국, 콩나물국. 미역국.)
107013 @ 나물이엔 ᄀᆞᆯ읍니까, ᄂᆞ물이엔 ᄀᆞᆯ읍니까?(나물이라고 말합니까, 나물이라고 말합니까?)
107013 #2 ᄂᆞ물.(나물.)
107013 @ 옛날 말로 ᄀᆞᆯ아 줍서.(옛날 말로 말해 주세요.)
107013 #2 으. ᄂᆞ물, ᄂᆞ물.(으. 나물, 나물.)
107013 @ ᄂᆞ물.(나물.)
107013 #2 으.(으.)
107013 @ ᄂᆞ물쿡.(나물국.)
107013 #2 어, ᄂᆞ물 점 찍는 거라. 하하하.(어, 'ᄂᆞ물' 점 찍는 거야. 하하하.)
107013 @ 하하, 삼춘 글자도 알암신게.(하하, 삼촌 글자도 알고 있네요.)
107013 #2 어?(어?)
107013 @ 삼춘 글자도 알암서.(삼촌 글자도 알고 있어.)
107013 #2 알주게. 글자 알주게. ᄂᆞ물국, 미역국, 또 콩ᄂᆞ물국 ᄯᅳ시 저 거시기 소고기 국, 또 이 해산물 국이, 저 거시기 바닷고기 국.(알지. 글자 알지. 나물국, 미역국, 또 콩나물국 또 저 거시기 소고기 국, 또 이 해산물 국이, 저 거시기 바닷고기 국.)
107013 @ 으.(으.)
107013 #2 뒈지 국도 끌리주게.(돼지 국도 끓이지.)
107013 @ 뒈지고기 국?(돼지고기 국?)
107013 #2 어, 엿날은 뒈지 국 끌려서. 요즘은 잘 안 끌려도.(어, 옛날은 돼지 국 끓였어. 요즘은 잘 안 끓여도.)
107013 @ 으. 돗, 돗고기.(으. 돼지, 돼지고기.)
107013 #2 돗고기.(돼지고기.)
107013 @ 궤기?(고기?)
107013 #2 돗궤기, 돗궤기 국. 겐에 국에 ᄂᆞ물국, 콩ᄂᆞ물국, 미역국, 돗궤기 국, 소고기 국, 조기 저 거세기 바닷고기, 바당고기, 바당고기 국.(돼지고기, 돼지고기 국. 그래서 국에 나물국, 콩나물국, 미역국, 돼지고기 국, 소고기 국, 조기 저 거시기 바닷고기, 바닷고기, 바닷고기 국.)
107014 @ ᄂᆞ물국을 끌려 보십서, 이제.(나물국을 끓여 보세요, 이제.)

107014 #2 ᄂᆞ물쿡 끌림은 물 놔근에 그레 뒌장 풀어 놔근에 경헨 궤민 ᄂᆞ물 놔불민 뒈는 거.(나물국 끓이기는 물 넣어서 그리 된장 풀어 넣어서 그래서 끓으면 나물 넣으면 되는 거.)

107015 @ 콩ᄂᆞ물쿡 끌려 보십서.(콩나물국 끓여 보세요.)

107015 #2 콩ᄂᆞ물도 물 놩 끌리다근에 뒌장 놔근에 저 끓이면 콩ᄂᆞ물 놔근에. 콩ᄂᆞ물국은 콩ᄂᆞ물 ᄒᆞ쏠 오래 끌려사주, 경 안허민 비린내 나.(콩나물도 물 넣어서 끓이다가 된장 넣어서 저 끓으면 콩나물 넣어서. 콩나물국은 콩나물 조금 오래 끓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비린내 나.)

107015 @ 아.(아.)

107015 #2 ᄒᆞ쏠 두루 솖아지민 비린내 나.(조금 덜 삶아지면 비린내 나.)

107015 @ 예.(예.)

107015 #2 ᄂᆞ물쿡은 살짝 끌여사 맛잇고.(나물국은 살짝 끓여야 맛있고.)

107015 @ 게민 콩ᄂᆞ물국 끓일 때 두껑 막 오래 더꺼 둡니까?(그럼 콩나물국 끓일 때 뚜껑 아주 오래 덮어 둡니까?)

107015 #2 어, 오래 더꺼도 좋주게, 거. 저 ᄂᆞ물국은 오래 더끄민 궂고.(어, 오래 덮어도 좋지, 거. 저 나물국은 오래 덮으면 궂고.)

107016 @ 으. 무국, 어떵 끌립니까?(으. 뭇국, 어떻게 끓입니까?)

107016 #2 ᄂᆞᆷ삐. ᄂᆞᆷ삐국.(무. 뭇국.)

107016 @ ᄂᆞᆷ삐국 끌려 보십서.(뭇국 끓여 보세요.)

107016 #2 ᄂᆞᆷ삐국은 또 물 놔근에 끌리다근에 그 뒌장 풀어 놔근에 물 뒌장 막 풀어 놔근에 끌이다근에 ᄂᆞᆷ삐 놔근에게 익으민 뒈는 거. 것도 다 그 종류주게.(뭇국은 또 물 넣어서 끓이다가 그 된장 풀어 넣어서 물 된장 마구 풀어 넣어서 끓이다가 무 넣어서 익으면 되는 거. 것도 다 그 종류지.)

107017 @ 콩국은 어떵?(콩국은 어떻게?)

107017 #2 콩국은 저 물 놔근에 끌리고 콩ᄀᆞ루 사발에 카근에 저 ᄒᆞ쏠 영 너미 뒈지 말게 카근에 물 끌이민 그레 그 콩ᄀᆞ루 칸 걸 놔근에 젓어사.(콩국은 저 물 넣어서 끓이고 콩가루 사발에 타서 저 조금 이렇게 너무 되지 말게 타서 물 끓이면 그리 그 콩가루 탄 것을 넣어서 저어야.)

107017 @ 예.(예.)

107017 #2 경 안허민 눌어. 그걸 계속 젓어사. 경허민 부꺼. 우터레 막 부끄주. 손 이거민 요만쯤 물 놓민 이ᄁᆞ장 부꺼와. 경허민 불 족게 헤근에, 불 족게 헤근에 영 영 부꺼 가민 소금을 캇당 ᄒᆞ쏠 조록허게 놓민 부끄는 거 ᄀᆞᆯ라앚고. ᄯᅳ시 또 부꺼 가민 조록허게 놓고.(그렇지 않으면 눌어. 그걸 계속 저어야. 그러면 끓어올라. 위로 마구 끓어오르지. 손 이거면 요만큼 물 넣으면 이까지 끓어올라. 그러면 불 작게 해서, 불 작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끓어 가면 소금을 탔다가 조금 조록하게 넣으면 끓어오른 거 가라앉고. 또 또 끓어 가면 조록하게 넣고.)

107017 @ 소금을 물에 캇당,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소금을 물에 탔다가,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107017 #2 그자 물에 캇당 물에 캇다근에 경허민 톡 허게 ᄀᆞ라앚곡, ᄀᆞ라앚곡 헤근에 끌여져 가민 따신 부끄지 안허여. 그거 익어 가민.(그저 물에 탔다가 물에 탔다가 그러면 톡 하게 가라앉고, 가라앉고 해서 끓어 가면 다신 끓어오르지 않아. 그거 익어 가면.)

107017 @ 음.(음.)

107017 #2 경헌디 것도 경허멍 솖당 또 ᄂᆞ물 놓곡.(그런데 것도 그러면서 삶다가 또 나물 넣고.)

107017 @ ᄂᆞ물 놓고.(나물 넣고.)

107017 #2 어, ᄂᆞ물 놩 끌이당 두께 더끌 때 소금 우터레 ᄒᆞ꼼 간 뒈게. 경헨 두께 톡 더껑 놔두민 저 거시기 저 뭐 두부추룩 다박다박허[324]주게.(어, 나물 넣어서 끓이다가 뚜껑 덮을 때 소금 위로 조금 간 되게. 그래서 뚜껑 톡 덮어서 놔두면 저 거시기 저 뭐 두부처럼 '다박다박하지'.)

107017 @ 아.(아.)

107017 #2 언주어근에, 언주엉 다박다박허고.(엉겨서, 엉겨서 '다박다박하고'.)

107018 @ 으. 이젠 호박입국 끓여 주십서.(으. 이젠 호박잎국 끓여 주세요.)

107018 #2 어?(어?)

107018 @ 호박입국.(호박잎국.)

107018 #2 호박입국. 호박입국은 그 놔근에 저 뭰장 놓민 건 호박입은 우린 간장 놔서, 장물. 간장이엔 안 허영 장물.(호박잎국. 호박잎국은 그 넣어서 저 된장 넣으면 건 호박잎은 우린 간장 넣어서, 간장. 간장이라고 안 하고 '장물'.)

107015 @ 장물이엔 헷지예?('장물'이라고 했지요?)

107015 #2 으, 장물. 겐 그거 놔근에 끌이당 궤민 호박입 놔근에 또 저 궤민 그레 ᄀᆞ루 카 놔.(으, 간장. 그래서 그거 넣어서 끓이다가 끓으면 호박잎 넣어서 또 저 끓으면 그리 가루 타 넣어.)

107018 @ 으.(으.)

107018 #2 ᄀᆞ루 무신 밀ᄀᆞ루나 저 ᄆᆞ물ᄀᆞ루나. 카근에 헹 경 그레 놔근에 ᄒᆞ쏠 허민 풀풀허게 경헨 먹어낫주게.(가루 무슨 밀가루나 저 메밀가루나. 타서 해서 그렇게 그리 넣어서 조금 하면 '풀풀하게' 그렇게 먹었었지.)

107018 @ 호박입국 끓이젠 허믄 호박입 영 다듬어야 허는 거 아니?(호박잎국 끓이려고 하면 호박잎 이렇게 다듬어야 하는 거 아니?)

107018 #2 호박입 저 거시기 이파리 다듬아근에. 씻어근에 그거 막 찢어근에 줄게이.(호박잎 저 거시기 이파리 다듬어서. 씻어서 그거 마구 찢어서 잘게.)

107018 @ 줄게.(잘게.)

107018 #2 줄게 찢어근에 놧다근에 거 끌일 때 놓주게. 경허영.(잘게 찢어서 놨다가 거 끓일 때 넣지. 그래서.)

---

324) 여기서 '다박다박허다'는 콩가루 물을 끓였을 때 응고하면서 굳어지는 느낌이 있다는 의미다.

107019 @ 모자반, 몸국도 끓여낫수과?(모자반, '몸국'도 끓였었습니까?)

107019 #2 어?(어?)

107019 @ 몸쿡?('몸쿡'?)

107019 #2 ᄆᆞ물?(메밀?)

107019 @ 몸, 몸, 몸쿡?(모자반, 모자반, '몸쿡'?)

107019 #2 아, 저 몸국[325].(아, 저 '몸국'.)

107019 @ 으.(으.)

107019 #2 몸국도 원 그대로 끌리메. 그것도이 우리 그 큰일 헐 때.('몸국'도 원 그대로 끓여. 그것도 우리 그 큰일 할 때.)

107019 @ 음.(음.)

107019 #2 저 영장난 때 조반이나 점심이나 헐 때 물 놔근에 끌이다근에 그레 저 거시기, 물 놩 끌이민 그 몸, 몸 그거 썰어근에 그레 놔근에 ᄀᆞ루 카근에 놓주게.(저 초상났을 때 조반이나 점심이나 할 때 물 넣어서 끓이다가 그리 저 거시기, 물 넣어서 끓이면 그 모자반, 모자반 그거 썰어서 그리 넣어서 가루 타서 넣지.)

107019 @ 으.(으.)

107019 #2 ᄀᆞ루 캉 놩 젓어근에 또 궤민 그레 저 마농, 파. 파 영 썰어근에 놔근에 허민 뒈는 거. 경허민 풀풀허주[326]게. ᄀᆞ루, ᄀᆞ루 카 놓민 풀풀헤여.(가루 타서 넣어서 저어서 또 끓으면 그리 저 마늘, 파. 파 이렇게 썰어서 넣어서 하면 되는 거. 그러면 '풀풀하지'. 가루, 가루 타 넣으면 '풀풀해'.)

107019 @ 아멩헤도 몸국 끌이는 거는 막 큰일 이실 때잖아예?(아무래도 '몸국' 끓이는 거는 아주 큰일 있을 때잖아요?)

107019 #2 으, 큰일 헐 때. 경허영 뒈지, 도새기 꽝 솖아 놔근에.(으, 큰일 할 때. 그래서 돼지, 돼지 뼈 삶아 놔서.)

107019 @ 예.(예.)

107019 #2 솖아난 그 물에 헤근에 그거 끌이민 막 맛 좋덴 허여. 도새기 꽝.(삶았던 그 물에 해서 그거 끓으면 아주 맛 좋다고 해. 돼지 뼈.)

107019 @ 게난 큰일 헐 때 말앙 집이서 먹젠도?(그러니까 큰일 할 때 말고 집에서 먹으려고도?)

107019 #2 아이고, 먹젠 거. 분주허덴 허멍 잘, 허는 사름도 잇주게. 도새기 꽝이나 어디 강 그것도 사 오나 빌어 오나 헤지민 허는 사름도 잇어.(아이고, 먹으려고 거. 분주하다고 하면서 잘, 하는 사람도 있지. 돼지 뼈나 어디 가서 그것도 사오거나 빌려 오거나 하면 하는 사람도 있어.)

107019 @ 음.(음.)

107019 #2 경헤영 그추룩 끌영 먹주게.(그래서 그처럼 끓여서 먹지.)

107020 @ 여기에 바닷궤기예, 바닷궤기는 어떤 종류를 국으로 끌려 먹엇수꽈?

325) '몸국'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을 말한다. '몸쿡', '물망국', '물망쿡'이라고도 한다.

326) '풀풀하다'는 국물 따위가 점성이 있게 되다.

(여기에 바닷고기요, 바닷고기는 어떤 종류를 국으로 끓여서 먹었습니까?)

107020 #2 바닷궤긴 돔.(바닷고긴 돔.)

107020 @ 돔.(돔.)

107020 #2 으, 돔허고.(으, 돔하고.)

107020 @ 돔을 여기서 뭐렌 ᄀᆞᆯ아낫수과?(돔을 여기서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107020 #2 돔 궤기엔 ᄀᆞᆯ아나서, 기자 것벳긴 몰라.(돔 고기라고 말했었어, 그저 것밖에 몰라.)

107020 @ 아, 그거 솔라니렌 안 허고?(아, 그거 '솔라니'라고 안 하고?)

107020 #2 솔라니, 솔라닌 다른 거.('솔라니', '솔라니'는 다른 거.)

107020 @ 다른 거?(다른 거?)

107020 #2 돔과 뚠난 거.(돔과 다른 거.)

107020 @ 예.(예.)

107020 #2 솔라니, 조기 그디 궤기가 여러 가지 시난게. 게난 솔라니 궤기도 물 궤민게 장 ᄆᆞᆫ저 놔사. 솟디 물 놔근에 간장, 저 장물.(옥돔, 조기 거기 고기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옥돔 고기도 물 끓으면 장 먼저 넣어야. 솥에 물 넣어서 간장, 저 간장.)

107020 @ 으, 장물 놩.(으, 간장 넣어서.)

107020 #2 숢앙 궤민, 궤민 그 고기 도막 내영 썬 거이, 졸게 썬 거 놔근에 경 허영 장물 안 놓민 궤기가 카져[327] 벼.(삶아서 끓으면, 끓으면 그 고기, 도막 내어서 썬 거, 잘게 썬 거 넣어서 그래서 간장 안 넣으면 고기가 '카져' 버려.)

107020 @ 아.(아.)

107020 #2 장물 ᄆᆞᆫ저 놔근에 출렐[328] ᄆᆞᆫ저 놔 베사. 경 안허영 출레랑 말쩨랑 놓고, 고기 ᄆᆞᆫ저 놩 장 말쩨 놓민 장 내나고 카져 불고.(간장 먼저 넣어서 '출레'를 먼저 넣어 버려야. 그렇지 않고 '출레'는 말째 넣고, 고기 먼저 넣고 장 말째 넣으면 장 냄새나고 '카져' 버리고.)

107020 @ 바닷궤기가 카져 부는 거?(바닷고기가 '카져' 버리는 거?)

107020 #2 으, 카져 부는 거.(으, '카져' 버리는 거.)

107020 @ 바닷궤기도 온차 놓는 게 아니고?(바닷고기도 통째 넣는 게 아니고?)

107020 #2 썰엉게 썰엉. ᄒᆞ쏠 ᄒᆞ쏠 썰엉 먹기 좋게. 도막도막 썰어근에.(썰어서 썰어서. 조금 조금 썰어서 먹기 좋게. 도막도막 썰어서.)

107020 @ 예. 그 바닷궤기로 제사헐 때도 그렇게 썰엉 헤?(예. 그 바닷고기로 제사할 때도 그렇게 썰어서 해?)

107020 #2 으, 제사헐 때 똑 그추룩.(으, 제사할 때 꼭 그처럼.)

107020 @ 가시 안 발라냅니까?(가시 안 발라냅니까?)

107020 #2 아, 요즘은 가시 불라. 옛날엔 가시 불를 줄 몰라, 두련. 엿날은 일절

327) '카지다'는 단단했던 것이 무르거나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328) '출레'는 밥과 곁들어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을 말한다.

가시 안 볼라.(아, 요즘은 가시 발라. 옛날엔 가시 바를 줄 몰라, 어렸어. 옛날은 일절 가시 안 발라.)

107020 @ 경헤부난 잘람구나.(그러니까 자르는구나.)

107020 #2 으. 이젠, 지금은 가시 볼랑 헌다, 우리도.(으. 이젠, 지금은 가시 발라서 한다, 우리도.)

107020 @ 예. 게난 온차 봉 끌이당 익으민 가시 발라 뒁.(예. 그러니까 통째 넣어서 끓이다가 익으면 가시 발라 두고.)

107020 #2 저 그 가시 볼를 땐 물에 놔근에 솔라니 영 놔근에 ᄒᆞ쏠만 궤민 건져 내사주이 오래 헤 불민 카져 불고 안 뒈여.(저 그 가시 바를 땐 물에 넣어서 옥돔 이렇게 넣어서 조금만 끓으면 건져 내야지, 오래 해 버리면 '카져' 버리고 안 돼.)

107020 @ 예.(예.)

107020 #2 게난 궴만 허민 건져 내민 가시 톡톡 떼지주. 술 뚜로 톡톡 떼여. 오래 솖으민 안 뒈여.(그러니까 끓기만 하면 건져 내면 가시 톡톡 뗄 수 있지. 살 따로 톡톡 떼. 오래 삶으면 안 돼.)

107020 @ 오래 솖으민 안 뒈.(오래 삶으면 안 돼.)

107020 #2 경헨 가시 볼랑, 떼여 냇다근에 국 끌릴 때 들이쳐 놓고. 경헨 그거 놔근에 궤민 또 미역 놓고. 메역. 메역이엔 헷주, 메역.(그래서 가시 바르고, 떼어 냈다가 국 끓일 때 들어뜨려 넣고. 그래서 그거 넣어서 끓으면 또 미역 넣고. 미역. '메역'이라고 했지, 미역.)

107020 @ 메역예?(미역요?)

107020 #2 으, 메역.(으, 미역.)

107020 @ 아멩헤도 식게 때 국 끌여난 거는 솔라니국이라예?(아무래도 제사 때 국 끓였던 거는 옥돔국이지요?)

107020 #2 어, 솔라니국 대개.(어, 옥돔국 대개.)

107020 @ 대개는예?(대개는요?)

107020 @ 으.(으.)

107020 #2 게민 솔라니국 말고 평상시에 바닷궤기 가졍 국 끌렁 먹는 게 잇어낫수과?(그럼 옥돔국 말고 평상시에 바닷고기 가지고 국 끓여 먹는 게 있었습니까?)

107020 #2 바닷고기 말고?(바닷고기 말고?)

107020 @ 바닷고기로. 솔라니 말고.(바닷고기로. 옥돔 말고.)

107020 #2 말고. 조기.(말고. 조기.)

107020 @ 조기.(조기.)

107020 #2 조긴 싸주게.(조긴 싸지.)

107020 @ 조기도 게난 국 끌려 먹어?(조기도 그러니까 국 끓여서 먹어?)

107020 #2 으, 조기영 그 눈 벌경헌 궤기도 헤다근에 국 끌렁 먹고.(으, 조기랑

그 눈 벌건 고기도 해다가 국 끓여서 먹고.)
107020 @ 눈 벌경헌 궤기는 이름이 뭐라?(눈 벌건 고기는 이름이 뭐야?)
107020 #2 거 몰라.(거 몰라.)
107020 @ 우럭 말고?(우럭 말고?)
107020 #2 우럭 말고. 게고 납세미 ᄀᆞ튼 거 헤다근에 국은 안 끌려 보고 기자 우리 거 졸영. 보까근에이 옛날 말로 보깡. 보깡 먹어.(우럭 말고. 그리고 가자미 같은 거 해다가 국은 안 끓여 보고 그저 우리 거 조려서. 볶아서 옛날 말로 볶아서. 볶아서 먹어.)
107021 @ 으. 메역국은 어떵 끌렷수과?(으. 미역국은 어떻게 끓였습니까?)
107021 #2 메역도게 물 놔근에 그레 거시기 메역도 저 간장보단 간장보단 뒌장이 맛 좋아.(미역도 물 넣어서 그리 거시기 미역도 저 간장보다 간장보다 된장이 맛 좋아.)
107021 @ 미역국이?(미역국이?)
107021 #2 어. 메역국에 간장보단 뒌장 풀어 놩 헤사 맛 좋아.(어. 미역국에 간장보다는 된장 풀어 넣어서 해야 맛 좋아.)
107021 @ 기?(그래?)
107021 #2 어, 메역국에 거시기 메르치 쪼끔 놓곡 다시마, 다시마 미역 닮은 거.(어, 미역국에 거시기 멸치 조금 넣고 다시마, 다시마 미역 같은 거.)
107021 @ 예, 미역 닮은 거.(예, 미역 같은 거.)
107021 #2 그거 쪼금 놓고 헹 끌리민 고기국 닮아.(그거 조금 넣고 해서 끓이면 고깃국 같아.)
107021 @ 아.(아.)
107021 #2 경헨 그걸 끌이다근에 그레 헤근에 저 뒌장 풀어 놔근에 거 건져 불고. 건져 뒁.(그래서 그걸 끓이다가 그리 해서 저 된장 풀어 넣고 거 건져 버리고. 건져 두고.)
107021 @ 예.(예.)
107021 #2 오래 끌이민 것도 맛엇어. 너미 오래 끌이민. 경헤영 메역 놔근에.(오래 끓이면 것도 맛없어. 너무 오래 끓이면. 그래서 미역 넣어서.)
107022 @ 여름에는 냉국 헹 먹엇지예?(여름에는 냉국 해서 먹었지요?)
107022 #2 으?(으?)
107022 @ 냉국.(냉국.)
107022 #2 냉국 헹 먹주. 메역으로도 허고 ᄂᆞ물 숣앙 허고.(냉국 해서 먹지. 미역으로도 하고 나물 삶아서 하고.)
107022 @ 냉국 만들 때는 간장?(냉국 만들 때는 간장?)
107022 #2 아니, 뒌장.(아니, 된장.)
107022 @ 예, 뒌장. 뒌장 메우는 것서부터. 양념 안 헤, 뒌장에?(예, 된장. 된장 '메우는' 것부터. 양념 안 해, 된장에?)

107022 #2 뒌장에 양념 안 혀.(된장에 양념 안 해.)
107022 @ 안 혜.(안 해.)
107022 #2 어, 안 헹 기자.(어, 안 하고 그저.)
107022 @ 냉국 허젠 허민 어떵헤?(냉국 하려고 하면 어떡해?)
107022 #2 냉국 허젠 허민 뒌장에 저 거시기 물 풀어근에 물 풀엉 맛보멍 영헹 그레 헤근에 저 뒌장 헤근에 맛봐근에 그레 식초 놓곡.(냉국 하려고 하면 된장에 저 거시기 물 풀어서 물 풀어서 맛보면서 이렇게 해서 그리 식초 넣고.)
107022 @ 음.(음.)
107022 #2 경허민 맛잇주게. 식초 놔사 맛잇어. 설탕 조금 놓고. 사탕.(그러면 맛있지. 식초 넣어야 맛있어. 설탕 조금 넣고. 사탕.)
107022 @ 음, 사탕 놓고.(음, 사탕 넣고.)
107022 #2 으.(으.)
107022 @ 게민 그 냉국 끓일 때 ᄂᆞ물은 무슨 ᄂᆞ물로?(그럼 그 냉국 끓일 때 나물은 무슨 나물로?)
107022 #2 아무 ᄂᆞ물이라도. 춤ᄂᆞ물도 뒈곡.(아무 나물이라도. 참나물도 되고.)
107022 @ 예.(예.)
107022 #2 저 배추도 뒈곡 허는디 배추 ᄂᆞ물 헤사 맛 좋고. 솖아근에 기자 먹는 딘 춤ᄂᆞ물이 맛 좋고. 그 솖아 먹는 딘.(저 배추도 되고 하는데 배추 나물 해야 맛 좋고. 삶아서 그저 먹는 데는 참나물이 맛 좋고. 그 삶아 먹는 데는.)
107022 @ 솖아 먹는 딘.(삶아 먹는 데는.)
107022 #2 으, 춤ᄂᆞ물이 맛 좋아. 겐에 춤ᄂᆞ물은 푹 솖아사 맛 좋고 무랑허게. 또 배추ᄂᆞ물은 약간 기자 경헤사 맛 좋고.(으, 참나물이 맛 좋아. 그래서 참나물은 푹 삶아야 맛 좋고 물컹하게. 또 배추나물은 약간 그저 그래야 맛 좋고.)
107022 @ 음.(음.)
107022 #2 경헨.(그래서.)
107022 @ 게난 그거 ᄂᆞ물은 약간 솖아가지고 썰엉 뒌장.(그러니까 그거 나물은 약간 삶아서 썰어서 된장.)
107022 #2 으, 뒌장 무쳐근에. 경 ᄂᆞ물에 뒌장 놔근에 막 무쳥 놔근에 그레 물 놔근에 경헨 또 식초 놓고.(으, 된장 무쳐서. 그렇게 나물에 된장 넣어서 마구 무쳐서 넣어서 그리 물 넣어서 그래서 또 식초 넣고.)
107022 @ 식초 놓고.(식초 넣고.)
107022 #2 어.(어.)
107022 @ 거기 뭐 새우리나 안 썰어 놔?(거기 뭐 부추나 안 썰어 넣어?)
107022 #2 아, 새우리 써나 쪽팔 써나 헹 놓고.(아, 부추 썰거나 쪽파를 썰거나 해서 넣고.)
107023 @ 예, 예.(예, 예.)
107023 #2 경허여.(그래.)

107023 @ 뭐 성게국 같은 건 요즘에야 허는 거라예?(뭐 성게국 같은 건 요즘에야 하는 거지요?)

107023 #2 성게국도 저 다른 것광 ᄀᆞ치 저 우리 잔치헐 때 우리 방상에서 잔치헐 때 우리 느량 끌여낫주게.(성게국도 저 다른 것과 같이 저 우리 잔치할 때 우리 종친에서 잔치할 때 우리 늘 끓였었지.)

107023 @ 으.(으.)

107023 #2 겨민 성게 헤근에 성게 하영 놔근에 이 소쿠리에 놔근에 더운물 막 그레 거시기 들이쳐근에 그거 익게시리 헤근에 그 물 거려 놩 그레 성게 ᄒᆞ쏠 놓멍 잔치 땐 먹어낫어. 경헌디 그 잔치 땐 경 하영 허는 거난 경헨 건져 냉 먹엇고. 기자 끌이는 건 물 끌여근에 그레 성게, 성게 들이쳐근에.(그럼 성게 해서 성게 많이 넣어서 이 소쿠리에 넣어서 더운물 마구 그리 거시기 들어뜨려서 그거 익게끔 해서 그 물 떠 넣어서 그리 성게 조금 넣으면서 잔치 땐 먹었었어. 그런데 그 잔치 땐 그렇게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건져 내서 먹었고. 그저 끓이는 건 물 끓여서 그리 성게, 성게 들어뜨려서.)

107023 @ 예.(예.)

107023 #2 경헤근에 기자 미역 놓고, 메역 놓고.(그래서 그저 미역 넣고, 미역 넣고.)

107023 @ 음.(음.)

107023 #2 메역 놓곡 허민 맛잇주게, 것도.(미역 넣고 하면 맛있지, 것도.)

107023 @ 보말쿡?(고둥국?)

107023 #2 보말도 그추룩 헹 끌리주게.(고둥도 그처럼 해서 끓이지.)

107023 @ 그추룩.(그처럼.)

107023 #2 다 원 물 놔근에 그자 그레 물 놔근에 장 헤 놔근에.(다 원 물 넣어서 그저 그리 물 넣어서 장 해 넣고.)

107023 @ 게민 이 동네에서도 보말 막 잡으레 뎅기고 헷수과?(그럼 이 동네에서도 고둥 마구 잡으러 다니고 했습니까?)

107023 #2 우린 뎅기지, 뎅겨 보지 안허연, 잘.(우린 다니지, 다녀 보지 않았어, 잘.)

107023 @ 아. 어쨌든 토평이 저 바닷가까지 있는 거잖아예?(아. 어쨌든 토평이 저 바닷가까지 있는 거잖아요?)

107023 #2 겐디 우린 두린 때서부터 바다 엇인 디서 신효서 사난 바단 원 보진 안허난.(그런데 우린 어릴 때부터 바다 없는 데서 신효에서 사니까 바다는 원 보진 않으니까.)

107023 @ 넙패는 국 끓여 먹엇수과?(넓패는 국 끓여 먹었습니까?)

107023 #2 어, 넙패도 국 끌려 먹어.(어, 넓패도 국 끓여 먹어.)

107023 @ 넙패국 끓이젠 허민 어떵 헤야 뒈?(넓패국 끓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107023 #2 넙팬이 그거 넙패 헤여지민 돌에서 바당에서 돌에 놔근에 탁탁 삐졍 와이. 삐져근에 그거 막 시치지.(넓패는 그거 넓패 하면 돌에서 바다에서 돌에 놔서 탁탁 빻아서 와. 빻아서 그거 잘 씻지.)

107023 @ 으.(으.)

107023 #2 경 헨 오랑 그거 또 솟디 놩 보까. 솟디 놩 보끄민 복삭허여[329], 익어근에. 복삭허민 푹 저 물 놔근에 그레 장 풀어 놓고 헤근에 끌이다근에 그레 그건 넙패국은 장물 놔도 좋고 뤤장 놔도 좋곡 허는 거라라. 아무거라도 기자 출레로, 기자 장 엇인 사름은 소금도 놔.(그렇게 해서 와서 그거 또 솥에 넣어서 볶아. 솥에 넣어서 볶으면 '복삭해', 익어서. '복삭하면' 푹 저 물 넣어서 그리 장 풀어 놓고 해서 끓이다가 그리 그건 넓패국은 간장 넣어도 좋고 된장 넣어도 좋고 하는 거더라. 아무거라도 그저 '출레'로, 그저 장 없는 사람은 소금도 넣어.)

107023 @ 으.(으.)

107023 #2 경헨 그거 놔근에 또 ᄆᆞ물ᄀᆞ루나 저 밀ᄀᆞ루나 헤근에 사발에 그거 풀어 놧다근에 풀어 놧당 그거 저 넙패 놔근에 끌여, 물이 끌여지민 그레 놔근에 또 풀어 놩. 경헨 허민, 그레 마농 썰어 놔사 맛 좋아.(그래서 그거 넣어서 또 메밀가루나 저 밀가루나 해서 사발에 그거 풀어 놨다가 풀어 놨다가 그거 저 넓패 넣어서 끓여, 물이 끓으면 그리 넣어서 또 풀어 놔서. 그렇게 하면, 그리 마늘 썰어 넣어야 맛 좋아.)

107023 @ 마농 썰어 놔사.(마늘 썰어 놔야.)

107023 #2 그레 마농 썰어 놩 코시롱허게. 넙패국은 막 맛 좋아.(그리 마늘 썰어 넣어서 고소하게. 넓패국은 아주 맛 좋아.)

107023 @ 아.(아.)

107023 #2 허허허.(허허허.)

107023 @ 그거 막 질긴 거니까 두드령 먹는 거?(그거 아주 질긴 거니까 두드려서 먹는 거?)

107023 #2 어. 건 질기난에 복삭 두드리민 그 카지주[330]게. 경헨 오랑 집이 오랑 그거 막 씻어 둬근에 숧아.(어. 건 질기니까 '복삭' 두드리면 그 '카지지'. 그래서 와서 집에 와서 그거 마구 씻어 두고 삶아.)

107023 @ 예, 숧아예?(예, 삶아요?)

107023 #2 보까, 보까.(볶아, 볶아.)

107023 @ 보깡예?(볶아요?)

107023 #2 어, 솟디 놔근에.(어, 솥에 넣어서.)

107023 @ ᄑᆞ레국, ᄑᆞ레?(파래국, 파래?)

107023 #2 ᄑᆞ레국도 그추룩 허주. 나, 우린 끌려 먹어 보지 안헌디.(파래국도 그처럼 하지. 나, 우린 끓여 먹어 보지 않았는데.)

---

329) 여기서 '복삭허다'는 단단한 것이 푹 익어서 보드랍거나 바스러지기 쉽다.
330) '카지다'는 단단했던 것이 무르거나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107023 @ 예. 물휀?(예. 물회는?)

107023 #2 물휀 저 거세기 고기 썰어 놔근에.(물회는 저 거시기 고기 썰어 넣어서.)

107023 @ 물훼 허젠 허민 무슨 고기 주로 헤낫수과?(물회 하려고 하면 무슨 고기 주로 했었습니까?)

107023 #2 물훼 허젠 허민 자리훼 헷주, 대게 자리훼.(물회 하려고 하면 자리회 했지, 대게 자리회.)

107023 @ 자리훼?(자리회?)

107023 #2 으, 자리물훼 기자. 그 자리 썰어 놓고 그디 저 거세기 제피. 제피 놔사 좋주게. 제피 그디 또 새우리.(으, 자리물회 그저. 그 자리 썰어 넣고 거기 저 거시기 제피. 제피 넣어야 좋지. 제피 거기 또 부추.)

107023 @ 음.(음.)

107023 #2 그런 거 헤여근에 놔근에 뒌장 저 그것에 자리에 버물영.(그런 거 해서 넣어서 된장 저 그것에 자리에 버무려서.)

107023 @ 으.(으.)

107023 #2 버물영 그레 물 놔근에 식초 놓곡 설탕 조금 놓곡 경허민 맛잇주게. 겐디 장맛이, 장이 맛 좋아사. 뒌장이 맛 좋는 뒌장 잇고 맛엇는 뒌장 잇주게. 경헨 장이 맛 좋아사.(버무려서 그리 물 넣어서 식초 넣고 설탕 조금 넣고 그러면 맛있지. 그런데 장맛이, 장이 맛 좋아야. 된장이 맛 좋은 된장 있고 맛없는 된장 있지. 그래서 장이 맛 좋아야.)

107023 @ 아무 국 끓여도 뒌장이 맛 좋아사.(아무 국 끓여도 된장이 맛 좋아야.)

107023 #2 으. 집이서 먹는 것도 다 장이 맛 좋아사.(으. 집에서 먹는 것도 다 장이 맛 좋아야.)

107023 @ 어떵 삼춘은 장 잘 담가낫수과?(어떻게 삼촌은 장 잘 담갔었습니까?)

107023 #2 장 느량 담앙 서울도 아져 가고 서귀포도, 뚤도 아져 가고 아덜도 아져 가고 문 아져 간다게.(장 늘 담가서 서울도 가지고 가고 서귀포도, 딸도 가지고 가고 아들도 가지고 가고 모두 가지고 간다.)

107023 @ 지금도 담급니까?(지금도 담급니까?)

107023 #2 지금도 둠감저. 올리도 두 말 둠간. 지금.(지금도 담그고 있어. 올해도 두 말 담갔어. 지금.)

107023 @ 아, 지금도?(아, 지금도?)

107023 #2 어. 막 맛 좋덴 허멍 우리 큰메누린 저 서울 부천 살주게. 겐 오랑 문 아져 간다.(어. 아주 맛 좋다고 하면서 우리 큰며느리는 저 서울 부천 살지. 그래서 와서 모두 가지고 가.)

107023 @ 아져 가?(가지고 가?)

107023 #2 으, 사 먹지 안 허영. 장물도 아져 가고.(으, 사 먹지 않고. 간장도 가

지고 가고.)

107023 @ 게난 장 담앙 장물도 다 만들고?(그러니까 장 담가서 간장도 다 만들고?)

107023 #2 어, 아져 가고. 하하하.(어, 가지고 가고. 하하하.)

죽류

107024 @ 이번엔 죽 물어보쿠다, 죽.(이번에는 죽 물어보겠습니다, 죽.)

107024 #2 죽?(죽?)

107024 @ 예. 죽 종류예. 죽 종류에는 무슨 죽, 무슨 죽이 잇수과?(예. 죽 종류요. 죽 종류에는 무슨 죽, 무슨 죽이 있습니까?)

107024 #2 죽은 곤죽 잇고 콩죽 잇고 풋죽 잇고 ᄆᆞ물축 잇고. 또 곤쏠에 ᄆᆞ물쏠에 서껑도 죽 쒕 먹고.(죽은 흰죽 있고 콩죽 있고 팥죽 있고 메밀죽 있고. 또 흰쌀에 메밀쌀에 섞어서도 죽 쒀서 먹고.)

107024 @ 아, 기?(아, 그래?)

107024 #2 그건 막 맛 좋메.(그건 아주 맛 좋아.)

107024 @ 곤쏠에 ᄆᆞ물쏠에 서껑도?(흰쌀에 메밀쌀에 섞어서도?)

107024 #2 으, 곤쏠 놔근에 쑤다근에 어느 정도 풀어지민, 거자 쒀져사 ᄆᆞ물쏠 놓주. ᄆᆞ물쏠은 놓민 익어.(으, 흰쌀 넣어서 쑤다가 어느 정도 풀어지면, 그저 쒀져야 메밀쌀 넣지. 메밀쌀은 넣으면 익어.)

107024 @ 놓민 익어.(넣으면 익어.)

107024 #2 어, 곤쏠은 막 오래 쒀사 익고. 경허민 그거 놔근에 ᄆᆞ물쏠 놔근에 ᄒᆞ쏠 뒈민 기자 ᄒᆞ꼼만 잇이민 맛 좋아.(어, 흰쌀은 아주 오래 쒀야 익고. 그러면 그거 넣어서 메밀쌀 넣어서 조금 되면 그저 조금만 있으면 맛 좋아.)

107025 @ 게민 하나씩 물으쿠다예. 곤죽 끌여 주십서, 곤죽?(그럼 하나씩 묻겠습니다. 흰쌀 끓여 주세요, 흰쌀?)

107025 #2 곤죽은 쏠 씻어 놔근에 끌이멍 기자 거 오래 끌어 가민, ᄒᆞ썰 영 풀 나 가민 젓어사. 젓지 안허민 눌어.(흰죽은 쌀 씻어 넣어서 끓이면서 그저 거 오래 끓어 가면, 조금 이렇게 풀 나 가면 저어야. 젓지 않으면 눌어.)

107025 @ 눌어 불어.(눌어 버려.)

107025 #2 어, 솟디 눌어 벼. 경헨 젓어근에 헤근에 기자 영 쏠 씹어 보민 ᄒᆞ쏠 도끗도끗헤여 가민 헤영 솟두껭이 ᄒᆞ쏠 영 더껑 놔두민 풀풀허주[331]게. 너미 쑤민 궂어 또.(어, 솥에 눌어 버려. 그래서 저어서 해서 그저 이렇게 쌀 씹어 보면 조금 '도끗도끗해' 가면 해서 솥뚜껑 조금 이렇게 덮어서 놔두면 '풀풀하지'. 너무 쑤면 궂어 또.)

107025 @ 음.(음.)

107025 #2 밀싹허연[332]. 너미 쒀 불민 밀싹.('밀싹해서'. 너무 쒀 버리면 '밀싹'.)

331) '풀풀허다'는 국물 따위가 점성이 있어 된 상태를 나타낸다..

107025 @ 어떤 때 곤죽을 끓영 먹엇수과, 쏠도 엇인디?(어떤 때 흰죽을 끓여서 먹었습니까, 쌀도 없는데?)

107025 #2 곤죽?(흰죽?)

107025 @ 예.(예.)

107025 #2 곤죽, 옛날엔 곤죽 쏠 엇엉 못 쒀 먹엇주게. 이젠 쒀 먹어진다. 우리도 이땅 가끔 쒀 먹어.(흰죽, 옛날엔 흰죽 쌀 없어서 못 쒀 먹었지. 이젠 쒀 먹을 수 있어. 우리도 이따금 가끔 쒀 먹어.)

107025 @ 어.(어.)

107025 #2 이땅 밥 먹기 싫은 때 기자. 점심 때나, 저녁 때 기자 밥 먹기 싫은 때 곤죽 쑤민 좋아. 경허고이 지금은 영장나민 나가 만일에, 우리 삼춘이 돌아갓다 허민 나가 장손이난 거 곤죽 헹 쒀당 먿 멕이주게. 방상에 사돈 죽엄저 헹 오민.(이따금 밥 먹기 싫을 때 그저. 점심 때나, 저녁 때 그저 밥 먹기 싫을 때 흰죽 쑤면 좋아. 그리고 지금은 초상나면 내가 만일에, 우리 삼촌이 돌아갔다 하면 내가 장손이니까 거 흰죽 해서 쒀다가 모두 먹이지. 종친에 사돈 죽어 간다 해서 오면.)

107025 @ 픗죽 말고?(팥죽 말고?)

107025 #2 픗죽 말고 곤죽 쳇 번 먹엉.(팥죽 말고 흰죽 첫 번 먹어.)

107025 @ 아.(아.)

107025 #2 곧 돌아갈 때.(곧 돌아갈 때.)

107025 @ 돌아가셨을 때?(돌아가셨을 때?)

107025 #2 으, 바로.(으, 바로.)

107025 @ 오늘 돌아가셨다 허민?(오늘 돌아가셨다 하면?)

107025 #2 허민 이제 곧 먹어.(하면 이제 곧 먹어.)

107025 @ 아.(아.)

107025 #2 픗죽은 ᄒᆞ꼼 시간이 지나사.(팥죽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107025 @ 예.(예.)

107025 #2 경헨 나도 삼춘, 시삼춘네 시하르방네 먿 죽은 때 여라 번 경헨 쒀 봣저. 곤썰 헤근에 곤죽 쳇 번은 곤죽을 먹주게.(그래서 나도 삼촌, 시삼촌네 시할아버지네 모두 죽었을 때 여러 번 그렇게 쒀 봤어. 흰쌀 해서 흰죽 첫 번은 흰죽을 먹지.)

107025 @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107025 #2 옛날은, 지금은 픗죽으로 허고 지금은 대 걸렁 허는디 옛날은 쳇 번 영장낫다 허면 곤죽 먹어 나근에 그다음은 픗죽. 건 사돈칩이서 쒀 오고.(옛날은, 지금은 팥죽으로 하고 지금은 대 걸러서 하는데 옛날은 첫 번 초상났다 하면 흰죽 먹고 나서 그다음은 팥죽. 건 사돈집에서 쒀 오고.)

107025 @ 예.(예.)

107025 #2 그자 어디서 쒀 오민.(그저 어디서 쒀 오면.)

---

332) '밀싹허다'는 죽 따위를 너무 끓어 쌀알 등이 으깨져 없는 상태를 나타낸다.

107026 @ 게민 조축, 조로 만든 조축?(그럼 조죽, 조로 만든 조죽?)

107026 #2 조축도 그추룩 헹 쑤주게. 조축은 제기 쒀져.(조죽도 그처럼 해서 쑤지. 조죽은 재게 쑬 수 있어.)

107026 @ 제기 쒀져?(재게 쑬 수 있어?)

107026 #2 으, 물에 놔근에 허민 좁썰은 즘질고 허난 제기 풀어지주게. 조축은 그레, 그레이 ᄂᆞ물 썰어 놓고이, 우리도 먹어 봣저, 옛날에. 좁썰 놔근에 끌이당 그레 ᄂᆞ물 썰어 놓고 마농 썰어 놓고 헤근에. 그건 국죽, 국죽이엔 헤낫어. ᄂᆞ물 썰어 놓고 하간 거 놓민.(으, 물에 넣어서 하면 좁쌀은 가늘고 하니까 재게 풀어지지. 조죽은 그리, 그리 나물 썰어 넣고, 우리도 먹어 봤어, 옛날에. 좁쌀 넣어서 끓이다가 그리 나물 썰어 넣고 마늘 썰어 넣고 해서. 그건 갱죽, 갱죽이라고 했었어. 나물 썰어 넣고 온갖 거 넣으면.)

107026 @ 게민 좁썰로만 허는 건 아니고 거기에?(그럼 좁쌀로만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107026 #2 ᄂᆞ물도 놓곡.(나물도 넣고.)

107026 @ ᄂᆞ물도 놓고.(나물도 넣고.)

107026 #2 마농도 놓고.(마늘도 넣고.)

107026 @ 음.(음.)

107026 #2 경헤연 쒀근에.(그렇게 쒀서.)

107026 @ 국죽이엔 불럿수과?(갱죽이라고 불렀습니까?)

107026 #2 국죽, 국죽.(갱죽, 갱죽.)

107027 @ 아. 폿죽 끓여 봅서, 폿죽?(아. 팥죽 끓여 보세요, 팥죽?)

107027 #2 폿죽은 폿 솖앙 지금은이, 엿날은 저 고압솟이 어신디 지금은 고압솟이 시난 폿을 고압솟에 놩 푹 끌이민 말쩬 시간 뒈민 열앙 보민 물싹허주게.(팥죽은 팥 삶아서 지금은, 옛날은 저 압력솥이 없는데 지금은 압력솥이 있으니까 팥을 압력솥에 넣어서 푹 끓이면 말째는 시간 되면 열어서 보면 물씬하지.)

107027 @ 옛날에 끓이던 걸로?(옛날에 끓이던 걸로?)

107027 #2 옛날엔 엿날엔 기자 저 폿 솖아근에.(옛날엔 옛날엔 그저 저 팥 삶아서.)

107027 @ 예.(예.)

107027 #2 솖앙 그거 무루데겨근에[333], 영영 무루데경 그거 걸렁.(삶아서 그거 주물러서, 이렇게 이렇게 주물러서 그거 걸러서.)

107027 @ 손으로 무루데경?(손으로 주물러서?)

107027 #2 어, 어. 그거 걸렁.(어, 어. 그거 걸러서.)

107027 @ 으.(으.)

107027 #2 걸렁 거 폿 겁죽은 저레 비껴 불고.(걸러서 거 팥 껍질은 저리 비켜 버리고.)

333) '무루데기다'는 삶을 팥 따위를 문질러 으깨는 것을 말한다.

107027 @ 비껴 불고.(비켜 버리고.)

107027 #2 으, 저레 내려 불고 쏠허고 물허고 헤근에 그 곤썰 허멍 그레 흔 뒈 놓민 놓멍싸라 젓어사주 경 안허민 눌어 벼. 그거 걸러 논 거난.(으, 저리 내려 버리고 쌀하고 물하고 해서 그 흰쌀 하면서 그리 한 되 넣으면 넣으면서 바로 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눌어 버려. 그거 걸러 놓은 거니까.)

107027 @ 예, 예.(예, 예.)

107027 #2 걸러 논 거난 기자 쏠에 그것에 흔디 놓멍 젓어사 계속. 계속 젓어사 허주.(걸러 놓은 거니까 그저 쌀에 그것에 같이 넣으면서 저어야 계속. 계속 저어야 하지.)

107027 @ 게민 문대경 걸러 난 우이 거는 데껴 불어?(그럼 문대고 거르고 난 위의 거는 던져 버려?)

107027 #2 우인 껀 겁죽. 픗 겁죽이난.(위의 건 거죽. 팥 거죽이니까.)

107027 @ 픗 겁죽이난.(팥 거죽이니까.)

107027 #2 으, 겁죽이난 내려 불고.(으, 거죽이난 내려 버리고.)

107027 @ 내려 불고.(내려 버리고.)

107027 #2 경헨 막 물에 데겨근에 영 영 거시기 체로 영 영 허민 우터러 그거 뜨주게. 뜨민 건정 내려 불고.(그래서 마구 물에 문대서 이렇게 이렇게 거시기 체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위로 그거 뜨지. 뜨면 건져서 내려 버리고.)

107027 @ 으.(으.)

107027 #2 아랜 알멩인 쏠 저 픗 쏠 들고 물도 알러레 그건 죽에 놓고. 경헨 그건 자꾸 젓어사주. 멩심 안 허민 거시기 눌어.(아래는 알맹이는 쌀 저 팥 쌀 들고 물도 아래로 그건 죽에 넣고. 그래서 그건 자꾸 저어야지. 명심 안 하면 거시기 눌어.)

107027 @ 눌어 불어.(눌어 버려.)

107027 #2 게민 눈 내 팍팍 나고 그건 막 멩심헹 젓어사.(그럼 눈 내 팍팍 나고 그건 아주 명심해서 저어야.)

107027 @ 게난 아까 흰죽은 돌아가시민 곧.(그러니까 아까 흰죽은 돌아가시면 곧.)

107027 #2 곧 먹고.(곧 먹고.)

107027 @ 픗죽은 무슨 제 끝난 다음에 먹는 것과?(팥죽은 무슨 제 끝난 다음에 먹는 겁니까?)

107027 #2 아니, 제 전이.(아니, 제 전에.)

107027 @ 제 전이.(제 전에.)

107027 #2 으, 성복제 전이.(으, 성복제 전에.)

107027 @ 성복제 전이.(성복제 전에.)

107027 #2 성복제 넘으민 안 먹어. 성복제 전이.(성복제 넘으면 안 먹어. 성복제 전에.)

107027 @ 풋죽은 누가 맡앙 끓영 오는 것과?(팥죽은 누가 맡아서 끓여서 오는 겁니까?)

107027 #2 사둔칩이.(사돈집.)

107027 @ 사둔칩이서예?(사돈집에서요?)

107027 #2 나가 죽으민 시어멍네나 동생네나 또 메누리 어멍이나 메누리 시누이나 동세나.(내가 죽으면 시어머니네나 동생네나 또 며느리 어머니나 며느리 시누이나 동서나.)

107027 @ 으.(으.)

107027 #2 경헨 쒀 오는 거.(그렇게 쒀서 오는 거.)

107027 @ 게난 옛날에 풋죽 쒕 어디에 담앙 갓수과?(그러니까 옛날에 팥죽 쒀서 어디에 담아서 갔습니까?)

107027 #2 허벅[334].(‘허벅’.)

107027 @ 허벅예.(‘허벅’요.)

107027 #2 어, 허벅에 담앙 영 져근에.(어, ‘허벅’에 담아서 이렇게 지고.)

107027 @ 졍 강예.(지고 가서요.)

107027 #2 졍 뎅겨낫저. 우리도 졍 뎅겨낫저. 스뭇 등따리 떼불어, 등따리 떼불어이.(지고 다녔었어. 우리도 지고 다녔었어. 사뭇 등 뜨거워, 등 뜨거워.)

107027 @ 맞아, 맞아.(맞아, 맞아.)

107027 #2 경헨 졍 뎅기멍 져근에 멧 밧디 가낫저. 스못 쒀근에 첨 여름엔 막 더웡 스못 허고.(그렇게 지고 다니면서 져서 몇 군데 갔었어. 사뭇 쒀서 첨 여름엔 아주 더워서 사뭇 하고.)

107027 @ 으, 경헹 거기에 온 손님덜안티 다 주는 거?(으, 그래서 거기에 온 손님들에게 다 주는 거?)

107027 #2 어, 다 주는 거.(어, 다 주는 거.)

107027 @ 예.(예.)

107027 #2 경허민 어느 뚤신디 풋죽 오랏저. 어느 메느리신디 풋죽 오랏저 허멍.(그러면 어느 딸에게 팥죽 왔어. 어느 며느리에게 팥죽 왔어 하면서.)

107027 @ 막 말덜 허멍?(마구 말들 하면서?)

107027 #2 어.(어.)

107027 @ 동네 사름덜.(동네 사람들.)

107027 #2 지금은 풋죽 안 허영 기자 라면 사 가곡게. 지금은 경헤도 엿날은 그런 거 엇이난 풋죽.(지금은 팥죽 안 하고 그저 라면 사 가고. 지금은 그래도 옛날은 그런 거 없으니까 팥죽.)

107027 @ 으.(으.)

107027 #1 기자 죽으로만.(그저 죽으로만.)

107027 @ 죽으로만. 콩죽 끓여 줍서, 콩죽.(죽으로만, 콩죽 끓여 주세요, 콩죽.)

334) ‘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로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가 아주 좁다.

107028 #2 콩죽도이, 콩죽은 맛 좋아, 풋죽보다.(콩죽도, 콩죽은 맛 좋아, 팥죽보다.)

107028 @ 아.(아.)

107028 #2 풋죽도 맛 좋주만은 풋죽은 ᄒᆞ쏠 답지고[335].(팥죽도 맛 좋지만 팥죽은 조금 '답지고'.)

107028 @ 예.(예.)

107028 #2 이 사름 ᄒᆞ쏠 기운 엇인 사름은 답져. 콩죽은 사름 먹으민 술져.(이 사람 조금 기운 없는 사람은 '답져'. 콩죽은 사람 먹으면 살쪄.)

107028 @ 아, 술져 콩죽?(아, 살쪄, 콩죽?)

107028 #2 어, 막 사름 저 기 부족헌, 기 부족헌 사름 먹으민 좋아, 콩죽은.(어, 아주 사람 저 기 부족한, 기 부족한 사람 먹으면 좋아, 콩죽은.)

107028 @ 아, 콩죽이.(아, 콩죽이.)

107028 #2 콩ᄀᆞ루 사당 죽 쒕 먹으민 막 좋나. 콩죽은 저 솟디 물 놔근에 끌이다근에 콩ᄀᆞ루 사발에 놔근에 영 카근에.(콩가루 사다가 죽 쒀서 먹으면 아주 좋아. 콩죽은 저 솥에 물 넣어서 끓이다가 콩가루 사발에 넣어서 이렇게 타서.)

107028 @ 예.(예.)

107028 #2 ᄀᆞ루 벙뎅이지카 부덴 벙뎅이 풀어 놔근에 허다근에 물 궤민 그레 놩 젓어사. 젓으민 것도 막 부꺼이. 국 끌리듯.(가루 덩어리질까 봐 덩어리 풀어 넣어서 하다가 물 끓으면 그리 넣어서 저어야. 저으면 것도 마구 끓어올라. 국 끓이듯.)

107028 @ 으.(으.)

107028 #2 국추룩 막 부끄어 가민, 부꺼 가민 부끄지 말렌 불 또 약허게 영 헤근에 놔근에 솖으멍 젓으멍. 젓어근에 쏠에 흔디 헤 놔근에 경헨 끌이주게.(국처럼 마구 끓어올라 가면, 끓어올라 가면 끓어오르지 말라고 불 또 약하게 이렇게 해서 넣어서 삶으면서 저으면서. 저어서 쌀에 같이 해 넣어서 그래서 끓이지.)

107028 @ 게민 콩죽 끓일 때 쏠을 먼저 물에 놩 끓입니까?(그럼 콩죽 끓일 때 쌀을 먼저 물에 넣어서 끓입니까?)

107028 #2 어, 어. 문저. 경 안허민 또 쏠광 콩ᄀᆞ루광 서껑.(어, 어. 먼저. 그렇지 않으면 또 쌀과 콩가루와 섞어서.)

107028 @ 예.(예.)

107028 #2 서껑근에 물 궤민 그레 비와 놩. 그것이 쉬워 또.(섞어서 물 끓으면 그리 부어 넣어서. 그것이 쉬워 또.)

107028 @ 아, 끓이는 거 쉬운 게.(아, 끓이는 거 쉬운 게.)

107028 #2 어, ᄀᆞ치 서꺼 놩.(어, 같이 섞어 넣어서.)

107029 @ ᄆᆞ물축 끓여 줍서, ᄆᆞ물축.(메밀죽 끓여 주세요, 메밀죽.)

107029 #2 ᄆᆞ물축은 졜 쉽나게.(메밀죽은 제일 쉬워.)

335) '답지다'는 '먹은 것이 잘 삭지 않아 가슴속이 깐깐하게 괴로워 못 견디다'라는 의미다.

107029 @ 아, 젤 쉬워.(아, 제일 쉬워.)

107029 #2 물 끓이민 그레 ᄆᆞ물쏠 놔근에 기자 궤민 그 두껑 영 더끄민 거 ᄆᆞ물축 뒈는 거.(물 끓으면 그리 메밀쌀 넣어서 그저 끓으면 그 뚜껑 이렇게 덮으면 거 메밀죽 되는 거.)

107029 @ 끝난 거?(끝난 거?)

107029 #2 어, 그건 끝난 거. 젤 쉬와.(어, 그건 끝난 거. 제일 쉬워.)

107029 @ 예.(예.)

107029 #2 쌀 피와나기가[336] 쉬와.(쌀 풀어지기가 쉬워.)

107029 @ 아, 금방 익는 거난?(아, 금방 익는 거니까?)

107029 #2 어.(어.)

107029 @ 어쨌든 조보다는 ᄆᆞ물이 더 피기가 쉬운 거다예?(어쨌든 조보다는 메밀이 더 풀어지기가 쉬운 거네요?)

107029 #2 어.(어.)

107029 @ 금방 끓여지는 거예?(금방 끓을 수 있는 거요?)

107029 #2 어, 금방 끓여지주게. 견디 조, 좁썰보다 ᄆᆞ물축이 더 쉬워. 좁썰은 ᄒᆞ썰 영 젓어사.(어, 금방 끓일 수 있지. 그런데 조, 좁쌀보다 메밀죽이 더 쉬워. 좁쌀은 조금 이렇게 저어야.)

107029 @ 저도 어렸을 때 아부지 감기 걸리거나 허면.(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감기 걸리거나 하면.)

107029 #2 ᄆᆞ물축 먹어낫저.(메밀죽 먹었었어.)

107029 @ 예, 예. 감기 걸렷을 때 ᄆᆞ물축 끓영 거기에 잔 파, 마농 썰어 놩.(예, 예. 감기 걸렸을 때 메밀죽 끓여서 기기에 잔 파, 마늘 썰어 넣어서.)

107029 #2 어, 어. 경 헨 먹고. 또 저 거시기 남저 어른은 막걸리 놩 먹으민 감기 돌아난덴 허멍. ᄆᆞ물축에.(어, 어. 그렇게 해서 먹고. 또 저 거시기 남자 어른은 막걸리 넣어서 먹으면 감기 달아난다고 하면서. 메밀죽에.)

107029 @ 아, ᄆᆞ물축에.(아, 메밀죽에.)

107029 #2 어, 그거 서껑 먹어낫저.(어, 그거 섞어서 먹었었어.)

107031 @ 예. 이제 ᄃᆞᆨ죽 끓여 줍서. ᄃᆞᆨ죽.(예. 이제 닭죽 끓여 주세요. 닭죽.)

107031 #2 ᄃᆞᆨ죽은. 원 똑ᄀᆞ튼다게 죽쯤은. 물 궤 가민 그레.(닭죽은. 원 똑같다, 죽쯤은. 물 끓어 가면 그리.)

107031 @ ᄃᆞᆨ 솖아 놔야 헐 거 아니?(닭 삶아 넣어야 할 거 아니?)

107031 #2 ᄃᆞᆨ, ᄃᆞᆨ 솖아근에 그거 다듬아근에 믄 줄게 다듬아근에 그레 쏠 흔디 놩 젓엉. 경 안허민 건져근에 다듬아근에 놓곡 물 끓영 쏠 놔근에 거자 끓여져 가민 궤기 놓곡.(닭, 닭 삶아서 그거 다듬어서 모두 잘게 다듬어서 그리 쌀 같이 넣어서 저어. 그렇지 않으면 건져서 다듬어서 넣고 물 끓여서 쌀 넣어서 그저 끓어 가면 고기 넣고.)

336) '피와나다'는 표준어의 '피어나다'에 대응하나, 여기서는 쌀 따위가 물에 불거나 익어 '풀어지다'는 의미다.

107031 @으.(으.)

107031 #2 경헨 먹으나. 경 안허민 또 저 궤기광 쏠광 ᄀᆞ치 놩 젓어근에 ᄀᆞ치 기자 쑤나.(그래서 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저 고기와 쌀과 같이 넣어서 저어서 같이 그저 쑤거나.)

107031 @ 으.(으.)

107033 #2 겐디 요즘 기자 우리도 가끔 거시기 헤당 먹는디, 오리. 듹 안 먹으난 오리 먹는디이.(그런데 요즘 그저 우리도 가끔 거시기 해다가 먹는데, 오리. 닭 안 먹으니까 오리 먹는데.)

107033 @ 아, 오리.(아, 오리.)

107033 #2 오리 먹는디 오리 솖앙 건져 내영 그거 뻬 뚜로 저 고기 뚜로 문 다듬아근에 놧다근에 쏠 놩 젓당 거자 풀어져근에 쏠이 어느 정도 풀어져 가민 그 고기 놔근에 허영 소금 놔근에. 간 맞촤근에.(오리 먹는데 오리 삶아서 건져 내서 그거 뼈 따로 저 고기 따로 모두 다듬어서 놨다가 쌀 넣어서 젓다가 그저 풀어져서 쌀이 어느 정도 풀어져 가면 그 고기 넣어서 소금 넣어서. 간 맞춰서.)

107033 @ 으.(으.)

107033 #2 간 맞촤근에 솟두껭이 더껑 놔두민 뒈주게. 경헨 먹어낫어.(간 맞춰서 솥뚜껑 덮어서 놔두면 되지. 그렇게 먹었었어.)

107033 @ 오리죽 자주 헹 먹엇수과?(오리죽 자주 해서 먹었습니까?)

107033 #2 어게, 오리죽 자꾸 우리 끌렁 먹나, 여름에영.(어, 오리죽 자꾸 우리 끓여서 먹어, 여름에랑.)

107033 @ 아.(아.)

107033 #2 여름에.(여름에.)

107031 @ 듹죽은 안 허고.(닭죽은 안 하고.)

107031 #2 듹죽은 안 먹어. 못 먹어, 나.(닭죽은 안 먹어. 못 먹어, 나.)

107031 @ 누게가 못 먹어? 삼춘이?(누가 못 먹어? 삼촌이?)

107031 #2 나가 못 먹주. 나가이 시집 스물두 설에 오랑, 스물네 설 나는 헤에 입이 틋라졍.(내가 못 먹지. 내가 시집 스물두 살에 와서, 스물네 살 나는 해에 입이 비뚤어져서.)

107031 @ 병 걸련?(병 걸렸어?)

107031 #2 어게. 저녁 헨에 어스렁헌디 우로 비헹기 소리가 꽝꽝 헨게 이디가 부떠 변. 말 사흘을 못 ᄀᆞᆯ아.(어. 저녁 하고 어스레한데 위로 비행기 소리가 꽝꽝 하더니 여기가 붙어 버렸어. 말 사흘을 못 했어.)

107031 @ 어.(어.)

107031 #2 아이고, 사흘 못 ᄀᆞᆯ으난 그때 무시거헨 우리 시하르방이 침을 줫주. 이디선 허민 저 농협만 헌 디. 그디 강 침 맞고, 침 맞고. 사흘을 말 못 ᄀᆞᆯ아. 먹음은 헤져도.(아이고, 사흘 못 말하니까 그때 뭐해서 우리 시할아버지가 침을 줬지. 여기서는 하면 저 농협만큼 한 데. 거기 가서 침 맞고, 침 맞고. 사흘을 말 못 했어.

먹기는 할 수 있어도.)

107031 @ 으.(으.)

107031 #2 이디가, 이디가 부떠 벼. 이짝 영 헨 영 헨 막 틀아져 변.(여기가, 여기가 붙어 버렸어. 이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구 비틀어져 버렸어.)

107031 @ 아.(아.)

107031 #2 경허난 그걸 침 매날, 매날 침 맞으멍 헤 가난 돌아완게이. 혼 삼 년은 그거 겨울 들엉 추우민 말 졸바로 못 곧고 이제사 ᄒᆞ꼼 말 잘 골아졈저.(그러니까 그걸 침 매일, 매일 침 맞으면서 해 가니까 돌아왔어. 한 삼 년은 그거 겨울 들어서 추우면 말 똑바로 못 말하고 이제야 조금 말 잘 하고 있어.)

107031 @ 아, 기과?(아, 그래요?)

107031 #2 스물네 설에 경헌 거.(스물네 살에 그런 거.)

107031 @ 아고, 고생헷구나. 무사 경헌 거?(아이고, 고생했구나. 왜 그건 거?)

107031 #2 어떵헨산디 웨살풍 걸린 거주게. 경허난이 이제 혼 삼 년 뒛주만은 삼 년 전이ᄁᆞ지 한의원에 침 맞으레 가민 그거 골아. 알아. 입 틀아져낫젠. 보민 알아.(어떡해서인지 '웨살풍' 걸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한 삼 년 됐지만 삼 년 전에까지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가면 그거 말해. 알아. 입 비뚤어졌었다고. 보면 알아.)

107031 @ 음.(음.)

107031 #2 견디 지금 어린 의사들은 몰라. 나이 한 의사들은 안다게.(그런데 지금 어린 의사들은 몰라. 나이 많은 의사들은 안다.)

107031 @ 아, 그렇구나.(아, 그렇구나.)

107031 #2 어.(어.)

107031 @ 아니 말씀하시는 거 봐가지고는 전혀 몰르쿠다게.(아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107031 #2 이제 지금은이 혼 삼 년, 삼 년이나 이 년이나 ᄒᆞ쏠 졸바로 말곧주 추워도 말 잘 못 곧고. 또 이ᄁᆞ정은 알아도 ᄂᆞ시 꺼내지 못허고. 경헤라게.(이제 지금은 한 삼 년, 삼 년이나 이 년이나 조금 똑바로 말하지, 추워도 말 잘 못 하고. 또 이까지는 알아도 도저히 꺼내지 못하고. 그러더라.)

107031 @ 고생헷구나. 지금 말씀 좋으시우다. 발음도 좋고.(고생했구나. 지금 말씀 좋습니다. 발음도 좋고.)

107031 #2 지금?(지금?)

107031 @ 예.(예.)

107031 #2 아이고, 몰르켜. 귄 막안.(아이고, 모르겠어. 귀는 막았어.)

107031 @ 하하.(하하.)

107031 #2 귄이 이디 ᄒᆞ쏠 막은디 다리 강 두 착 수술헤 와부난 톡 막아 벤게.(귀는 여기 조금 막았는데 다리 가서 두 짝 수술해 오니까 톡 막아 버렸어.)

107031 @ 아.(아.)

107031 #2 귀 혼착은 안 막고 이착은 톡 막아 베라게.(귀 한쪽은 안 막고 이쪽

은 톡 막아 버렸어.)

107031 @ 잘 들으셤신게. 한쪽 잘 안 들리는 것과?(잘 들으시네요. 한쪽 안 들리는 겁니까?)

107031 #2 으, 이착은 잘 안 들려.(으, 이쪽은 잘 안 들려.)

107031 @ 으.(으.)

107031 #2 일로 말ᄀᆞᆯ으민 잘 몰라. 경허난 이 다리 수술혜연 나오난 이착은 탁 막고. 이착도 쪼금 막고. 경헨 오난 말을 잘 안 들리난 보청기 헷지. 보청기 사다 놔도 졸바로 못 허난. 이제라 가난 기운 나 가난, 기운 나 가난 이착 귀도 ᄒᆞ쏠 잘 들려.(이리로 말하면 잘 몰라. 그러니까 이 다리 수술해서 나오니까 이쪽은 탁 막고. 이쪽도 조금 막고. 그래서 오니까 말을 잘 안 들리니까 보청기 했지. 보청기 사다 놔도 똑바로 못 하니까. 이제여 가니까 기운 나 가니까, 기운 나 가니까 이쪽 귀도 조금 잘 들려.)

107031 @ 아.(아.)

107031 #2 기운 나난. 이거 연결됀신궈라. 경헌디 나뿐 아니고 할망덜이 다 그거. 다 다리 수술혜 나민 귀 톡 막아 벼.(기운 나니까. 이거 연결되었는지. 그런데 나뿐 아니고 할머니들이 다 그거. 다 다리 수술하고 나면 귀 톡 막아 버려.)

107031 @ 아.(아.)

107031 #2 겨난 그 물리치료 허는 디 가민 물리치료 원장이 하이고, 속상헨 못 살쿠다. 무사마씀 허민, 할망덜이 다 귀 막아 놓난 영 ᄀᆞᆯ아도 몰르고 졍 ᄀᆞᆯ아도 몰르고. 날ᄀᆞ란 경헤도 아는 펜이엔.(그러니까 그 물리치료 하는 데 가면 물리치료 원장이 하이고, 속상해서 못 살겠어요. 왜요 하면, 할머니들이 다 귀 막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모르고 저렇게 말해도 모르고. 나보고 그래도 아는 편이라고.)

107031 @ 기니까. 잘 들엄수다게.(그러니까. 잘 듣고 있습니다.)

107031 #2 아는 편이엔 허멍. 경헤도 나 보청기도 백육십오만 원 줜에 헤다 놩 잇저게. 나 이제 안 쩜져. 이거 ᄒᆞ쏠 영 거시기 헤 가난 뒈연게. 쳇 번은 원 몰란게.(아는 편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나 보청기도 백육십오만 원 줘서 해다 놓고 있어. 나 이제 안 끼고 있어. 이거 조금 이렇게 거시기 해 가니까 되었어. 첫 번은 전혀 몰랐어.)

107031 @ 아, 아멩헤도 여기가 건강헤사.(아, 아무래도 여기가 건강해야.)

107031 #2 어, 어게. 이거 따문에, 온 통에 무시거 헌ᄀᆞ라게.(어, 어. 이거 때문에, 온 통에 뭐 했는지.)

107031 @ 게난 영 걸으러도 자꾸 다니셤지예. 걸으레예?(그러니까 이렇게 걸으러도 자꾸 다니고 있지요? 걸으러요?)

107031 #2 어게. 게난 이 다리 수술 안 헌 땐이 아판 걷지 못헨. 나 쉰셋에서부터 아팟주게. 쉰셋에 어떵헨 아파신고 허민 갑상선 걸련.(어. 그러니까 이 다리 수술 안 할 때는 아파서 걷지 못했어. 내가 쉰셋부터 아팠지. 쉰셋에 어떠해서 아팠는가 하면 갑상선 걸렸어.)

107031 @ 음.(음.)

107031 #2 갑상선에도 연관 잇넨 다리.(갑상선에도 연관 있다고 다리.)

107031 @ 아.(아.)

107031 #2 연관 잇넨 헤라게. 게난 다 들어보난 ᄂᆞ시 걷지 못헨에 제주시 병원에 강 ᄉᆞ십칠일 간 입원헷단 이 제주시에서 저 거시기 서울러레 병원 서울 병원더레 연결헨에 보내 줘라게. 이젠 비행기 탈 수 잇이난. 나 죽넨 헤낫주게. 죽은 걸로 막 헤난.(연관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다 들어보니까 도저히 걷지 못해서 제주시 병원에 가서 사십칠일 간 입원했다가 이 제주시에서 저 거시기 서울로 병원 서울 병원으로 연결해서 보내 주더라. 이젠 비행기 탈 수 있으니까. 나 죽는다고 했었지. 죽은 거로 마구 했었어.)

107031 @ 아고, 아고.(아고, 아고.)

107031 #2 경헌디 비행기 타지크메 이제랑 서울 가렌. 서울 간에 이젠 가난에 ᄂᆞ시 다릴 걷지 못허난 이착 ᄂᆞ시 이착은 끗고 이착은 ᄒᆞ꼼 뭐허민 끗지 못허난 우리 메누리 이디 심엉 차레 헤근에 올리곡 차레 영 심엉 ᄂᆞ리고 허단 연세대 병원 앞이 가난 데모허난이 우리 메누리 나만 내베 덩 오꼿 들아나 변.(그런데 비행기 탈 수 있겠으니 이제는 서울 가라고. 서울 가서 이젠 가니까 도저히 다리를 걷지 못하니까 이쪽 도저히 이쪽은 끌고 이쪽은 조금 뭐하면 끌지 못하니까 우리 며느리 여기 잡고 차로 해서 올리고 차로 이렇게 잡아서 내리고 하다가 연세대 병원 앞에 가니까 데모하니까 우리 며느리 나만 내버려 두고 그만 달아나 버렸어.)

107031 @ 아, 하하.(아, 하하.)

107031 #2 막 총 쏘우멍 그 수루탄 무시건가 냄새나지 안허느냐? 그거 쏘멍 막 학생덜 나왕 막 데모헤 가는디 사름 죽어도 몰라.(마구 총 쏘면서 그 수류탄 뭐지 냄새나지 않니? 그거 쏘면서 마구 학생들 나와서 마구 데모해 가는데 사람 죽어도 몰라.)

107031 @ 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107031 #2 ᄉᆞ못 이디가 왁왁. 그 수루탄으로 막 쏘아 놓난 이디가 왁왁허고 허난 난 질 ᄋᆞ피 강 영 헨 앚아 시난 막 말쩨사 우리 메누리 왕 아고, 나 저 거시기 ᄆᆞᄉᆞ우난 오꼿 들아나 베젼에 들아난 이딴 보난 어머니 내베던 가져서렌.(사뭇 여기가 캄캄. 그 수류탄으로 마구 쏘아 놓으니까 여기가 캄캄하고 하니까 난 난 길 옆에 가서 이렇게 해서 앉아 있으니까 아주 말째야 우리 며느리 와서 아이고, 나 저 거시기 무서우니까 그만 달아나 버렸다가 이따가 보니까 어머니 내버리고 갔다고.)

107031 @ 아이고.(아이고.)

107031 #2 하하하. 그 생각허민이. 그때 원 걷지 못헤낫주게. 경헨 글우후제 이 다리가 아픈 거. 쉰셋에부떠.(하하하. 그 생각하면. 그때 전혀 걷지 못했었지. 그래서 그 후에 이 다리가 아픈 거. 쉰셋부터.)

107031 @ 고생헷수다.(고생했습니다.)

107031 #2 오게. 경허난 작년이 이거 수술헌디, 작년 삼월덜에 이거 수술헌디

작년 삼월덜 전인 저 집이서, 우리 집이서 이디저디 가젠 허민 훤 이백 메다 삼백 메다 허주게. 먼다 ᄒᆞ쏠. 오젠 허민 쉬엇당 오고 쉬엇당 오고.(그래. 그러니까 작년에 이거 수술했는데, 작년 삼월에 이거 수술했는데 작년 삼월 전엔 저 집에서, 우리 집에서 여기저기 가려고 하면 한 이백 미터 삼백 미터 하지. 멀어 조금. 오려고 하면 쉬었다가 오고 쉬었다가 오고.)

107031 @ 경헤도 걸엉 다니셔야 헤예.(그래도 걸어서 다니셔야 해요.)

107031 #2 으. 경헨 헌디 이젠 쉬지 안헤도 가져. 이거 허난.(으. 그렇게 했는데 이젠 쉬지 않아도 갈 수 있어. 이거 하니까.)

107032 @ 예. 그 겡이죽, 겡이죽?(예. 그 '겡이죽', '겡이죽'?)

107032 #2 겡이죽[337]?('겡이죽'?)

107032 @ 예.(예.)

107032 #2 겡이죽은이 이 방에에 놩 막 뻣앙 우리도 헹 먹어봣저.('겡이죽'은 이 방아에 넣어서 마구 빻아서 우리도 해서 먹어봤어.)

107032 @ 음.(음.)

107032 #2 방에에 놩 뻣아근에 그거 헤근에 물 걸러근에 게민 우이 걱죽은 저 소쿠리에 헨에 영 헨 걸르민 엿날엔 차롱에.(방아에 넣어서 빻아서 그거 해서 물 걸러서 그럼 위에 껍데기는 저 소쿠리에 해서 이렇게 해서 거르면 옛날엔 채롱에.)

107032 @ 차롱에.(채롱에.)

107032 #2 저 소쿠리가 어딧어, 저 차롱에.(저 소쿠리가 어딨어, 저 채롱에.)

107032 @ 어딧어.(어딨어.)

107032 #2 으, 차롱에 영 헹 걸르민 그걸 저 물 걸러지민 물에, 물 놩 궤여 가민 그거 쏠에 그 겡이 물, 물 따라 논 거, 물 따라 논 것에 물에 서꺼근에 기자 홀 만이 놔근에 쏠에 ᄀᆞ치 놩 느량 계속 젓어사.(으, 채롱에 이렇게 해서 거르면 그걸 저 물 거르면 물에, 물 넣어서 끓어 가면 그거 쌀에 그 게 물, 물 따라 놓은 거, 물 따라 놓은 거에 섞어서 그저 할 만큼 넣어서 쌀에 같이 넣어서 늘 계속 저어야.)

107032 @ 으.(으.)

107032 #2 젓어근에 허민 맛 좋아 것도. 경헤근에 익으민 먹어낫저. 그추룩벳긴 안 헤 봔.(저어서 하면 맛 좋아 것도. 그래서 익으면 먹었었어. 그렇게밖에 안 해봤어.)

107033 @ 맞아마씨, 맞아마씨. 꿩죽도 헹 먹어낫수과?(맞아요, 맞아요. 꿩죽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33 #2 꿩죽은 나 쒕 먹어보진 안허고 고긴 먹어나도.(꿩죽은 나 쒀서 먹어보진 않고 고긴 먹었었어.)

107033 @ 아, 고기 먹어나도. 이거 말고 다른 죽 뭐, 호박죽, 호박죽?(아, 고기 먹었어도. 이거 말고 다른 죽 뭐, 호박죽, 호박죽?)

107033 #2 호박죽, 어 호박죽도 쒕 먹어낫주. 호박 좀질게 썰언에 영 솖아 가민

337) '겡이죽'은 흰쌀을 물에 불리어 반쯤 으깬 후에 게를 빻아 국물을 내고, 그 국물을 넣어 끓인 죽을 말한다.

카져[338]. 겐 그레 쏠 놘에 젓엉 쒕 먹어봣저게.(호박죽, 어 호박죽도 쒀서 먹었었지. 호박 가늘게 썰어서 이렇게 삶아 가면 물러. 그래서 그리 쌀 넣어서 저어서 쒀서 먹어봤어.)

107033 @ 음.(음.)

107033 #2 으, 것도 맛 좋아라.(으, 것도 맛 좋더라.)

107033 @ 게민 호박 솖아 가지고 으깽?(그럼 호박 삶아 가지고 으깨서?)

107033 #2 어?(어?)

107033 @ 호박 솖아 가지고 그거 막 으깨여?(호박 삶아 가지고 그거 마구 으깨?)

107033 #2 아니, 호박 저 갑 내영 겁죽 벳겨 둬근에 썰어근에 솟디 놩 솖으민 그거 문작헤 가민 막 대겨근에이 그레 쏠 놔근에 젓어.(아니, 호박 저 쪽 내서 껍질 벗겨 두고 썰어서 솥에 넣어서 삶으면 그거 문적해 가면 마구 문대서 그리 쌀 넣어서 저어.)

107033 @ 그거 말고 또 죽 헤 먹어난 거 이신가?(그거 말고 또 죽 해 먹었던 거 있나요?)

107033 #2 어?(어?)

107033 @ 죽 이거 말고 또 헤 먹어난 거?(죽 이거 말고 또 해서 먹었던 거?)

107030 #2 녹디죽도 그추룩 헹 먹곡.(녹두죽도 그처럼 해서 먹고.)

107030 @ 녹디죽도 헹 먹언?(녹두죽도 해서 먹었어?)

107030 #2 으, 녹디죽도 쏠에 녹디 저 거시기 헤근에 경 헹 먹고게.(으, 녹두죽도 쌀에 녹두 저 거시기 해서 그렇게 해서 먹고.)

107030 @ 녹디죽도 녹디 솖아 가지고?(녹두죽도 녹두 삶아 가지고?)

107030 #2 녹디 저 솖아근에 걸러근에.(녹두 저 삶아서 걸러서.)

107030 @ 걸렁 가지고.(걸러 가지고.)

107030 #2 으, 경허영, 경허영 겨민 걱죽 잇어, 우이. 걱죽은 던져 불고.(으,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껍질 있어, 위에. 껍질은 던져 버리고.)

107030 @ 던져 불고. 아까 폿죽 끌리는 거랑 마찬가지?(던져 버리고. 아까 팥죽 끓이는 거랑 마찬가지?)

107030 #2 똑ᄀᆞ트주게. 똑ᄀᆞ타.(똑같지. 똑같아.)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예. 저기 범벅이랑 수제비 물어보쿠다.(예. 저기 범벅이랑 수제비 물어보겠습니다.)

107034 #2 범벅은 ᄆᆞ물ᄀᆞ루 놓고 감저 썰어 놔근에 지금 고구마지, 감자.(범벅은 메밀가루 넣고 고구마 썰어 넣어서 지금 고구마지, 고구마.)

107034 @ 감자.(고구마.)

338) '카지다'는 단단했던 것이 무르거나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107034 #2 으, 감자 썰어 놔근에 감저 놔근에 물에 놔근에 불탁불탁 솖으민 익으민 감저 익으민 그레 ᄆᆞ물ᄏᆞ루 놩 막 젓어. 젓으민 금방 됀여.(으, 고구마 썰어 넣어서 고구마 넣어서 물에 넣어서 부글부글 삶으면 익으면 고구마 익으면 그리 메밀가루 넣어서 마구 저어. 저으면 금방 돼.)

107034 @ 음.(음.)

107034 #2 감저만 익으민 ᄆᆞ물쏠은 제기 익으난 ᄆᆞ물ᄏᆞ루.(고구마만 익으면 메밀쌀은 재게 익으니까 메밀가루.)

107034 @ 으, 기구나. 감저만 익으민 거기에 ᄆᆞ물.(으, 그렇구나. 고구마만 익으면 거기에 메밀.)

107034 #2 으, ᄆᆞ물ᄏᆞ루 놩, ᄏᆞ루 놩 막 젓어근에 맛 좋아, 그거.(으, 메밀가루 넣어서 가루 넣어서 마구 저어서 맛 좋아, 그거.)

107034 @ 게민 범벅은 그거뿐? 감저 놩 허는 것뿐?(그럼 범벅은 그거뿐? 고구마 넣어서 하는 것뿐?)

107034 #2 어.(어.)

107034 @ 다른 범벅은 엇수과?(다른 범벅은 없습니까?)

107034 #2 다른 범벅은 저 흔다게. ᄂᆞ물도 놔근에 허고 이땅 테레비 나는 거 보라게. 그 먹을 거 엇인 때 하간 푸십세 놔근에게. 하간 거, 하렌.(다른 범벅은 저 한다. 나물도 넣어서 하고 이따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봐. 그 먹을 거 없을 때 온갖 푸성귀 넣어서. 온갖 거, 많게.)

107034 @ 아, 하간 거?(아, 온갖 거?)

107034 #2 으. ᄀᆞ룬 쪼금만 허고 푸십세 ᄂᆞ물 ᄀᆞ튼 거, 무시거 산에 강 무시것덜 허당 그레 놩 엄불령.(으. 가루는 조금만 하고 푸성귀 나물 같은 거, 뭐 산에 가서 뭣들 해다가 그리 넣어서 어울려서.)

107034 @ 으, 푸십세 아까?(으, 푸성귀 아까?)

107034 #2 푸십센 ᄂᆞ물이나 무시거 모든 거시기 채소.(푸성귀 나물이나 뭐 모든 거시기 채소.)

107034 @ 채소 종류.(채소 종류.)

107034 #2 으, 채소 종류 푸십세.(으, 채소 종류 푸성귀.)

107034 @ 으, 그런 거 놔 가지고예?(으, 그런 거 넣어 가지고요?)

107034 #2 으, 푸십세엔 헌다.(으, '푸십세'라고 한다.)

107035 @ ᄌᆞ베기는?(수제비는?)

107035 #2 저베기는 저 칼저베기. ᄆᆞ물ᄏᆞ루 저 물 꿰민 ᄆᆞ물ᄏᆞ루에 놔근에 영 달롸 밀어.(수제비는 저 칼국수. 메밀가루 저 물 끓으면 메밀가루에 넣어서 이렇게 이겨서 밀어.)

107035 @ 으.(으.)

107035 #2 영 헹 밀어근에 영 영 썰어근에 건 물 놔근에 궤민 저 썰어 논 거 영 들이치민 금방 익주. 경허민 그레 마농 썰어 놓곡 꿰ᄀᆞ루 놓곡 허민 맛 좋아,

거. 경허영 저 거시기 ᄆᆞ물처베긴 막 맛 좋게 경 헨 먹고. 또 그, 그 저 영 밀어근에 허는 건 공들민 공들지 안허게시리 ᄆᆞ물ᄏᆞ루에 궤는, 궤는 물 넣어근에 영헨 젓어근에 그레 토박토박 썰어, 거려근에 물 궤는 더레 놔.(이렇게 해서 밀어서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건 물 넣어서 끓으면 저 썰어 넣은 거 이렇게 들어뜨리면 금방 익지. 그러면 그리 마늘 썰어 넣고 깻가루 넣고 하면 맛 좋아, 거. 그래서 저 거시기 메밀수제비는 아주 맛 좋게 그렇게 해서 먹고. 또 그, 그 저 이렇게 밀어서 하는 건 공들면 공들지 않게끔 메밀가루에 끓는, 끓는 물 넣어서 이렇게 저어서 그리 토막토막 썰어, 떠서 물 끓는 데 넣어.)

107035 @ 숟구락으로 거려 놔?(숟가락으로 떠 넣어?)

107035 #2 숟구락으로 똑똑허게 거려 놔근에. 그레 소금 놔.(숟가락으로 똑똑 떠 넣어서. 그리 소금 넣어.)

107035 @ 소금 놔.(소금 넣어.)

107035 #2 소금 놔근에 쩹찌렁허게 경헤근에 먹주게, 저베긴.(소금 넣어서 짭조름하게 그래서 먹지, 수제비는.)

107035 @ 예. 게난 저베긴 종류가 두 갠개예?(예. 그러니까 수제비는 종류가 두 개네요?)

107036 #2 칼저베기, 그추룩 기자 거려 놓는 저베기. 저 밀ᄏᆞ루도 그추룩 헹 또 ᄆᆞᆯ아근에 영영 얄룹게 헤근에 험도 허곡 경 안헹 밀어근에 또 ᄆᆞ물ᄏᆞ루추룩 험도 허곡 또 그추룩 안 헹 이 숟구락으로 영 걸여 놔근에 험도 허고.(칼국수, 그처럼 그 저 떠 넣는 수제비. 저 밀가루도 그처럼 해서 또 말아서 이렇게 이렇게 얇게 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밀어서 또 메밀가루처럼 하기도 하고 또 그처럼 안 하고 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떠 넣어서 하기도 하고.)

107036 @ 게난 저베기도 ᄆᆞ물ᄏᆞ루만 허는 게 아니고 밀처베기도 있는 거라?(그러니까 수제비도 메밀가루만 하는 게 아니고 밀수제비도 있는 거야?)

107036 #2 아고, 밀처베기 맛 좋나게.(아이고, 밀수제비 맛 좋아.)

107036 @ 맛 좋아?(맛 좋아?)

107036 #2 맛 좋아.(맛 좋아.)

107036 @ 밀로도 칼저베기 만들고?(밀로도 칼국수 만들고?)

107036 #2 으, 칼저베기도 허고.(으, 칼국수도 하고.)

김치

107037 @ 예, 예. 이제는 짐치 물어보쿠다. 짐치.(예, 예. 이제는 김치 물어보겠습니다. 김치.)

107037 #2 김치?(김치?)

107037 @ 예, 옛날에 짐치렌 ᄀᆞᆯ앗수과, 짐치렌 ᄀᆞᆯ앗수과?(예, 옛날에 '짐치'라고 말했습니까, '짐치'라고 말했습니까?)

107037 #2 짐치.('짐치'.)

107037 @ 짐치예?(‘짐치’요?)
107037 #2 김치가 아니고 짐치.(김치가 아니고 ‘짐치’.)
107037 @ 게난 옛날 말로 ᄀᆞᆯ아 줍서.(그러니까 옛날 말로 말해 주세요.)
107037 #2 으, 짐치.(으, 김치.)
107037 @ 짐치 종류에는 무슨 짐치가 잇수과?(김치 종류에는 무슨 김치가 있습니까?
107037 #2 저 거시기 배추짐치허곡이.(저 거시기 배추김치하고.)
107037 @ 으.(으.)
107037 #2 드릇ᄂᆞ물 캐당. 드릇ᄂᆞ물 느네 몰르지.(들나물 캐다가. 들나물 너희 모르지.)
107037 @ 드릇ᄂᆞ물 알아집니다.(들나물 압니다.)
107037 #2 알아져? 드릇ᄂᆞ물도 캐당도 허고. 쓴다, ᄒᆞ쏠 써.(알아? 들나물도 캐다가도 하고. 쓴다, 조금 써.)
107037 @ 예, 써.(예, 써.)
107037 #2 드릇ᄂᆞ물 짐치도 헹 먹고 저 놈삐짐치.(들나물 김치도 해서 먹고 저 무김치.)
107037 @ 놈삐짐치.(무김치.)
107037 #2 어, 놈삐짐치 헹 먹고. 그런 거벳긴 안 봣저, 우린.(어, 무김치 해서 먹고. 그런 거밖에 안 봤어, 우린.)
107037 @ 뭐 새우리짐치, 파짐치?(뭐 부추김치, 파김치?)
107037 #2 아, 파짐치 허주게. 새우리짐치도 허고 파짐치 허고.(아, 파김치 하지. 부추김치도 하고 파김치 하고.)
107037 @ 게도 막 옛날에는 새우리짐치, 파짐치?(그래도 아주 옛날에는 부추김치, 파김치?)
107037 #2 그런 거 안 헷어, 안 헷어. 헐 충 몰랑.(그런 거 안 했어, 안 했어. 할 줄 몰라서.)
107037 @ 헐 충 몰란?(할 줄 몰라서?)
107037 #2 어, 먹을 충을 몰란.(어, 먹을 줄을 몰랐어.)
107037 @ 이제사.(이제야.)
107037 #2 으. 이제난 쪽파 짐치 ᄀᆞ튼 거영 헴주, 안 헷저게. 놈삐짐치 허고 기자 드릇ᄂᆞ물 짐치 허고 배추짐치.(으. 이제니까 쪽파 김치 같은 거 하지, 안 했어. 무김치 하고 그저 들나물 김치 하고 배추김치.)
107037 @ 배추짐치.(배추김치.)
107038 #2 배추ᄂᆞ물, 배추ᄂᆞ물 허멍.(배추나물, 배추나물 하면서.)
107038 @ 예, 배추ᄂᆞ물예.(예, 배추나물요.)
107038 #2 하하하.(하하하.)
107038 @ 배추짐치 만들젠 허민 소금 절이는 것부터, 배추는 어디 강 상 와?(배

추김치는 만들려고 하면 소금 절이는 것부터, 배추는 어디 가서 사고 와?)

107038 #2 배춘 집이 갈아근에 헹 먹고게.(배추는 집에 갈아서 해서 먹고.)

107038 @ 예.(예.)

107038 #2 옛날은 배추 지금처럼 시장에 안 팔앗저게. 갈아근에 헤 먹주. 갈앙 허민 속 안 앚아. 기자 삐짝삐짝헌[339] 거 그거 기자 헤다근에 저 소금에 절이는 채 헤근에 고춧ᄀᆞ루도 이녁 갈앙, 지금은 요즘은 갈아근에 고춧ᄀᆞ루 하영 헤 먹엄주만은 그걸 못 허연. 그걸 못 허연 고춧ᄀᆞ루 엇엉이. 고춧ᄀᆞ루 헐 중도 몰랑 고추 썰어 놩, 듬박듬박[340] 썰어 놩 그것에 버물영 먹엇주게. 경헨 소금에 절엿다근에.(옛날은 배추 지금처럼 시장에 안 팔았어. 갈아서 해 먹지. 갈아서 하면 속 안 앉아. 그저 '삐작삐작한' 거 그거 그저 해다가 저 소금에 절이는 척해서 고춧가루도 자기가 갈아서, 지금은 요즘은 갈아서 고춧가루 많이 해 먹지만 그걸 못 했어. 그걸 못 해서 고춧가루 없어서. 고춧가루 할 줄도 몰라서 고추 썰어 넣어서, '듬박듬박' 썰어 넣어서 그것에 버무려서 먹었지. 그래서 소금에 절였다가.)

107038 @ 게도 소금에는 절여졋수과, 아니면 바닷가 강 물에?(그래도 소금에는 절일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바닷가 가서 물에?)

107038 #2 경헌디 배춘 대개 집이서 소금에 절영 우리가 집이서 헹 먹어 보고.(그런데 배추는 대개 집에서 소금에 절여서 우리가 집에서 해서 먹어 보고.)

107038 @ 예.(예.)

107038 #2 춤ᄂᆞ물[341], 춤ᄂᆞ물은 이만썩헌 거 헹 강 바당물에 가근에 그것이 밀멍 씻으멍 헤영 죽이어근에.('춤ᄂᆞ물', '춤ᄂᆞ물'은 이만한 거 해서 가서 바닷물에 가서 그것에 밀면서 씻으면서 해서 죽여서.)

107038 @ 으.(으.)

107038 #2 또 물 혼 허벅[342] 져근에.(또 물 한 '허벅' 져서.)

107038 @ 바닷물?(바닷물?)

107038 #2 으, 바닷물 졍 오랑 그것에 죽이고. 장 둠을 때도 바닷물 져당, 소금 애껑, 소금 엇이난. 그 저 바당물로 헤근에 장 둠고.(으, 바닷물 지고 와서 그것에 죽이고. 장 담글 때도 바닷물 져다가, 소금 아껴서, 소금 없으니까. 그 저 바닷물로 해서 장 담그고.)

107038 @ 바당물에?(바닷물에?)

107038 #2 으, 게민 소금 반도 안 들주게.(으, 그럼 소금 반도 안 들지.)

107038 @ 아, 맞아마씨.(아, 맞아요.)

107038 #2 으, 소금물, 저디 바닷물이난.(으, 소금물, 저기 바닷물이니까.)

107038 @ 바닷물이난.(바닷물이니까.)

107038 #2 그추룩 헨에 짐치도 그추룩 헹 먹고.(그처럼 해서 김치도 그처럼 해

339) 여기서 '삐작삐작허다'는 배추가 속이 앉지 않고 잎이 옆으로 퍼져 납작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340) '듬박듬박'은 큼직하게 썬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341) '춤ᄂᆞ물'은 싹이 나서 오래되지 않은 무의 무청을 말한다.
342) '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로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가 아주 좁다.

서 먹고.)

107038 @ 음.(음.)

107038 #2 겨민 ᄂᆞ물, 춤ᄂᆞ물 짐친 바당에 강 밀어다근에 단지에 헤당 딱 닫으민 고치도 안 허고 아무것도 안 놔. 기자 딱 담앙 돌 딱 지둘룅 놔두민 누렁허민 막 맛 좋아, 새콤새콤.(그럼 나물, '춤ᄂᆞ물' 김친 바다에 가서 밀어다가 단지에 해다가 딱 닫으면 고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넣어. 그저 딱 담아서 돌 딱 지질러 놔두면 누러면 아주 맛 좋아, 새콤새콤.)

107038 @ 아니, 양념 아무것도 안 헹?(아니, 양념 아무것도 안 해서?)

107038 #2 어, 아무것도 안 놔. 새콤새콤허게 막 맛 좋아.(어, 아무것도 안 넣어. 새콤새콤하게 아주 맛 좋아.)

107038 @ 뭐 자리젓 같은 것도 안 놔?(뭐 자리젓 같은 것도 안 넣어?)

107038 #2 감저 치민 감저 헤근에 그것에 먹엇주게.(고구마 찌면 고구마 해서 그것에 먹었지.)

107038 @ 아, 기과?(아, 그렇습니까?)

107038 #2 어게. 하하하.(어. 하하하.)

107038 @ 맛있겠다.(맛있겠다.)

107038 #2 옛날엔 이것저것 헤시냐게? 안 헷주게.(옛날엔 이것저것 했냐? 안 했지.)

107038 @ 맞수다.(맞습니다.)

107038 #2 헷자 이디 ᄀᆞ슴 셔도 헐 중도 몰르고 시간도 엇고. 밧디 강 일허젠 허민.(해도 여기 감 있어도 할 줄도 모르고 시간도 없고. 밭에 가서 일하려고 하면.)

107038 @ 밧디 강 일허젠 허민.(밭에 가서 일하려고 하면.)

107038 #2 으, 시간도 엇고게. 시간도 엇고 헐 중도 몰르고.(으, 시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107038 @ 으, 게민 이제 배추김치 물에 절여 가지고?(으, 그럼 이제 배추김치 물에 절여 가지고?)

107038 #2 지금은 절영, 아니 엿날도 절여근에 건져근에 그레 고추 두박두박[343] 그레 썰어 놔근에 그레 대사니 ᄒᆞ꼼 삐져 놓곡. 그축 헤근에 기자 헹 먹엇주. 쩹찌랑허민 기자.(지금은 절여서, 아니 옛날도 절여서 건져서 그리 고추 '두박두박' 그리 썰어 넣어서 그리 마늘 조금 빻아 넣고. 그처럼 해서 그저 해서 먹었지. 짭조름하면 그저.)

107038 @ 쩹찌랑예. 고춧가루덜 엇이난예.(짭조름요. 고춧가루도 없으니까요.)

107038 #2 어게.(어.)

107039 @ 열무짐치 같은 것도 헤낫수과?(열무김치 같은 것도 했었습니까?)

107039 #2 지금이 열무짐치주, 엿날에 열무가 어디 셔시니?(지금이 열무김치지, 옛날에 열무가 어디 있니?)

343) '두박두박'은 큼직하게 썬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39 @ 으.(으.)

107039 #2 놈삐 기자 놈삐.(무 그저 무.)

107039 @ 놈삐. 열무짐치 지금 헤 먹는 건 어떵 헙니까?(무. 열무김치 지금 해 먹는 건 어떻게 합니까?)

107039 #2 지금 헤 먹는 것도 소금물에 둠갓다근에 건져근에 다른 짐치 허듯 똑ᄀᆞ치 양념헤근에 경허민 맛 좋아. 양념 대사니 그레 저 열무짐친 대개 젓갈 놔사 맛 좋아, 젓갈. 젓갈이 들어가사.(지금 해 먹는 것도 소금물에 담갔다가 건져서 다른 김치 하듯 똑같이 양념해서 그러면 맛 좋아. 양념 마늘 그리 저 열무김치는 대개 젓갈 넣어야 맛 좋아, 젓갈. 젓갈이 들어가야.)

107039 @ 아.(아.)

107039 #2 이 무짐치도 젓갈이 들어가사 맛 좋고.(이 무김치도 젓갈이 들어가야 맛 좋고.)

107039 @ 으, 무슨 멜첫?(으, 무슨 멸치젓?)

107039 #2 으, 멜첫. 그거 쪼금 놓고. 하영 놓민 저 냄새나곡.(으, 멸치젓. 그거 조금 넣고. 많이 넣으면 저 냄새나고.)

107039 @ 냄새나고예.(냄새나고요.)

107039 #2 으, 쪼금. 쪼금 놔근에 그레 양념 문 헐 때 그레 양념에 서꺼근에. 경헤근에 헤 먹주게. 경헌디 지금은이 다, 나도 요자기도 김치 헌디, 메루치 놓고 다시, 다시마 메역 닮은 거이. 다시마 놓고 무 썰어 놓고 다마네기[344] 흑나 헤 놓고 이 경헨에 막 끌연에 그 물, 그 물 걸런에 그디 배 ᄀᆞᆯ아 놓고 다마네기 ᄀᆞᆯ아 놓고 게난 막 김치 맛 좋아라.(으, 조금. 조금 넣어서 그리 양념 모두 할 때 그리 양념에 섞어서. 그렇게 해서 해 먹지. 그런데 지금은 다, 나도 요전에도 김치 했는데, 멸치 넣고 다시, 다시마 미역 같은 거. 다시마 넣고 무 썰어 넣고 양파 하나 해 넣고 그래서 마구 끓여서 그 물, 그 물 걸러서 거기 배 갈아 넣고 양파 갈아 넣고 그러니까 아주 김치 맛 좋더라.)

107039 @ 맛있겠다.(맛있겠다.)

107039 #2 어, 겨난 맛 좋아라게.(어, 그러니까 맛 좋더라.)

107039 @ 거기에 고춧ᄀᆞ루 놩?(거기에 고춧가루 넣어서?)

107039 #2 으, 고춧ᄀᆞ루영 놔근에 마늘, 마늘 다진 거허고 생강 다진 거허고 경허연에.(으, 고춧가루랑 넣어서 마늘, 마늘 다진 거하고 생강 다진 거하고 그렇게.)

107039 @ 설탕도 놓고?(설탕도 넣고?)

107039 #2 으, 설탕도 조금 놓고 기자 헤근에. 게난 무시거 다른 거 이 미원 거튼 건 일절 안 써도 맛 좋아. 그거 끌이난에. 메르치허고 그런 거 끓이난게.(으, 설탕도 조금 넣고 그저 해서. 그러니까 왜 다른 거 이 미원 같은 거 일절 안 써도 맛 좋아. 그거 끓이니까. 멸치하고 그런 거 끓이니까.)

107039 @ 맞수다.(맞습니다.)

344) '다마네기'는 일본어 'たまねぎ'로 양파를 말한다.

107039 #2 시원허고.(시원하고.)

107040 @ 물짐치도 만들어 봣수과?(물김치도 만들어 봤습니까?)

107040 #2 물짐친 기자 나, ᄂᆞ물, 거시기 놈삐 물짐치, 놈삐 나박나박 허게 네모, 세모. 세모 뒈게 썰엉 나박나박 허게 거시기 얄룹게이.(물김친 그저 나, 나물, 거시기 무 물김치, 무 나박나박 하게 네모, 세모. 세모 되게 썰어서 나박나박 하게 거시기 얇게.)

107040 @ 으.(으.)

107040 #1 얄룹게 썰어 놓고 또 거시기 춤ᄂᆞ물 썰어 놓곡 그레 헤근에 죽엿다 근에 죽엿당 그레 물 놓곡 소금물 ᄒᆞ쏠 헤 놓곡 그레 또 저 밀ᄀᆞ루나 ᄀᆞ루 쪼금 풀어 놩 풀ᄀᆞ치 쒀근에 놔근에이 경허근 시원허게 허민 먹어져라게.(얇게 썰어 넣고 또 거시기 '춤ᄂᆞ물' 썰어 넣고 그리 해서 죽였다가 죽였다가 그리 물 넣고 소금물 조금 해 넣고 그리 또 저 밀가루나 가루 조금 풀어 넣어서 풀같이 쒀서 넣어서 그러면 시원하게 하면 먹을 수 있어.)

107040 @ 음.(음.)

107040 #2 경헨 냉장고에 놔두민 시원헹 기자.(그래서 냉장고에 놔두면 시원해서 그저.)

107040 @ 시원허게예?(시원하게요?)

107040 #2 으, 그레 새우리 썰어 놓고 파 ᄒᆞ썰 썰어 놓고 헤근에게.(으, 그리 부추 썰어 넣고 파 조금 썰어 넣고 해서.)

107040 @ 경헨 요즘에도 헹 먹는 거예?(그래서 요즘에도 해서 먹는 거요?)

107040 #2 이땅 어떤 땐 헹 먹곡, 어떤 땐 실프민 말곡. 경헌디 아이덜 클 땐 이것저것 헤지는디 나허고 하르방만 사난 허ᄀᆞ정을 안혀. 허ᄀᆞ정을 안혀.(이따금 어떤 때는 해서 먹고, 어떤 땐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런데 아이들 클 때는 이것저것 하게 되는데 나하고 할아버지만 사니까 하고 싶지 않아. 하고 싶지 않아.)

107040 @ 아.(아.)

107040 #2 허ᄀᆞ정을 안혀. 실펑 간세로.(하고 싶지 않아. 하기 싫어서 게으름으로.)

107041 @ 예. 남자 삼춘은 여기 토평 출신 아니?(예. 남자 삼촌은 여기 토평 출신 아니?)

107041 #2 토평[345]게.(토평.)

107041 @ 죽장 여기서만 산 거잖아예?(줄곧 여기에서만 산 거잖아요?)

107041 #2 어.(어.)

107041 @ 게민 집이 강 남자 삼춘신디도 물어봐사쿠다게. 쉐 질러난 거, 집 짓어난 것덜. 옛날에 연 만들어난 거, 밧 불라난 거.(그럼 집에 가서 남자 삼촌에게도 물어봐야겠습니다. 소 길렀던 거, 집 지었던 것들. 옛날에 연 만들었던 거, 밭 밟았던 거.)

345) '토평'은 서귀포시 토평동을 말한다.

107041 #2 아니, 그런 거 안 헤 봣어, 하르방[346].(아니, 그런 거 안 해 봤어, 할아버지.)

107041 @ 무사?(왜?)

107041 #2 저 그런 거 저런 거 허질 안허여.(저 그런 거 저런 거 하질 않아.)

107041 @ 안허여.(않아.)

107041 #2 일도 잘 안 헨에 육십 세 넘어사 일도 허고. ᄒᆞ꼼 영 뎅기멍 공무원 생활헤나난.(일도 잘 안 하고 육십 세 넘어야 일도 하고. 조금 이렇게 다니면서 공무원 생활했었으니까.)

107041 @ 아, 공무원 헷구나.(아, 공무원 했구나.)

107041 #2 으, 그런 거 헤나난 무시거 몰라, 몰라. 이 사회 몰라.(으, 그런 거 했으니까 뭐 몰라, 몰라. 이 사회 몰라.)

107041 @ 예, 알앗수다. 동지짐치는 뭘 동지짐치렌 헙니까?(예, 알겠습니다. '동지짐치'는 뭘 '동지짐치'라고 합니까?)

107041 #2 동진[347] 동 산 ᄂᆞ물.('동지'는 장다리 선 나물.)

107041 @ 음.(음.)

107041 #2 동 꺼꺼다근에 그것에 다른 짐치 허듯 기자 배추동이나 춤ᄂᆞ물 동이나이. 춤ᄂᆞ물 동은 배추ᄂᆞ물 동만이 맛엇엉 솖아사 맛잇어.(장다리 꺾어다가 그것에 다른 김치 하듯 그저 배추장다리나 '춤ᄂᆞ물' 장다리나. '춤ᄂᆞ물' 장다리는 배추나물 장다리만큼 맛없어서 삶아야 맛있어.)

107041 @ 음.(음.)

107041 #2 춤ᄂᆞ물 동은 솖으민 막 맛 좋아.('춤ᄂᆞ물' 장다리는 삶으면 아주 맛좋아.)

107041 @ 음.(음.)

107041 #2 그거 헤근에 물에, 소금물에 죽엿다근에.(그거 해서 물에, 소금물에 죽였다가.)

107041 @ 음.(음.)

107041 #2 양념 믄 다른 거 허듯 메르치 다시다물이영 하간 거 믄 그레 고춧ᄀᆞ루, 고춧ᄀᆞ루 언주엉 놓고 생강 놓고 믄 헤영 다른 짐치 허듯게. 기자 ᄀᆞ치 헤영 서껑 허민 동지짐치 또 오래 잇엇다근에 먹어사 맛 좋아.(양념 모두 다른 거 하듯 멸치 다시물이랑 온갖 거 모두 그리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러모아 넣고 생각 넣고 모두 해서 다른 김치 하듯이. 그저 같이 해서 섞어서 하면 '동지짐치' 또 오래 있었다가 먹어야 맛 좋아.)

107041 @ 그지예.(그렇죠.)

107041 #2 노리롱헤사.(노르무레해야.)

107041 @ 예. 익어야.(예. 익어야.)

---

346)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347) '동지'는 배추 따위에서 돋아난 연한 장다리를 말한다.

107041 #2 으, 익어사.(으, 익어야.)

107041 @ 익어사.(익어야.)

107041 #2 익어사 맛 좋아.(익어야 맛 좋아.)

107042 @ 예. 늠삐짐치 헤 봅서. 늠삐짐치.(예. 무김치 해 보세요. 무김치.)

107042 #2 늠삐짐친 기자 크게 써는 건 크게 썰엉 허곡 족게 써는 건 줄게 썰곡 헤근에 저 늠삐, 늠삐 죽일 땐이.(무김치는 그저 크게 써는 건 크게 썰어서 하고 작게 써는 건 잘게 썰고 해서 저 무, 무 죽일 땐.)

107042 @ 음.(음.)

107042 #2 저 거시기, 뭐여만은 당원[348] 아니고 거 뭐엔 곧나만은 저 설탕 아니고 든 거 잇나게.(저 거시기, 뭐지만 '당원' 아니고 거 뭐라고 말하지만 저 설탕 아니고 단 게 있어.)

107042 @ 사카린.(사카린.)

107042 #2 사카린 말고. 당원 닮은 거 이디 풀주게. 그거.(사카린 말고. '당원' 같은 거 여기 팔지. 그거.)

107042 @ 옥수수 숢을 때 넣는 거.(옥수수 삶을 때 넣는 거.)

107042 #2 어?(어?)

107042 @ 옥수수 숢을 때 넣는 거 말고?(옥수수 삶을 때 넣는 거 말고?)

107042 #2 그걸 거여게.(그걸 거야.)

107042 @ 예.(예.)

107042 #2 그것에 소금에 흔디 절여사 맛잇어. 경헤사 아삭아삭허여.(그것에 소금에 같이 절여야 맛있어. 그래야 아삭아삭해.)

107042 @ 아.(아.)

107042 #2 저 설탕은 놓민 거시기 아삭아삭 안 허영 거시기 그 재료가 문 죽여벼, 물싹헤 불고. 김치에도 설탕 하영 놓민 물싹헤 분다.(저 설탕은 넣으면 거시기 아삭아삭 안 해서 거시기 그 재료가 모두 죽어 버려, 물씬해 버리고. 김치에도 설탕 많이 넣으면 물씬해 버려.)

107042 @ 물싹헤 불어예.(물씬해 버려요.)

107042 #2 으, 쪼끔만 놔사, 아쓱. 게난 그 늠삐짐치 헐 땐 그 뭐엔 곧젠 허난 못 골으켜. 당원 닮은 거 저.(으, 조금만 놔야, 조금. 그러니까 그 무김치 할 때는 그 뭐라고 말하려니까 못 말하겠네. '당원' 같은 거 저.)

107042 @ 알쿠다, 알쿠다. 뭔지.(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뭔지.)

107042 #2 저 폰다, 저 설탕도 아니고. 그거 놔사 아삭아삭허게 기자 늠삐 언 때라도 바삭바삭허게 곳 헌 짐치거치. 그것에 흔디 죽여사.(저 팔아, 저 설탕도 아니고. 그거 넣어야 아삭아삭하게 그저 무 얼었을 때라도 바삭바삭하게 갓 한 김치 같이. 그것에 같이 죽여야.)

107042 @ 게난 소금이랑 그거랑 ᄀᆞ치 놩?(그러니까 소금이랑 그거랑 같이 넣어

348) '당원'은 단맛을 내는 용도로 쓰이는 인공감미료의 상품명의 하나다.

서?)

107042 #2 으, ᄀᆞ치 놩 ᄀᆞ치 죽여. 겡허민 맛 좋아.(으, 같이 넣어서 같이 죽여. 그러면 맛 좋아.)

107042 @ 양념허는 건 같고?(양념하는 건 같고?)

107042 #2 어, 똑ᄀᆞ트고게.(어, 똑같고.)

107043 @ 파짐치?(파김치?)

107043 #2 파짐치도 똑ᄀᆞ타게.(파김치도 똑같아.)

107043 @ 똑같아.(똑같아.)

107043 #2 어. 양념 똑ᄀᆞ치 헤근에 똑ᄀᆞ치. 견디 파짐치엔 생강허고 대사니 안 들어가도 좋아.(어. 양념 똑같이 해서 똑같이. 그런데 파김치라고 생강하고 마늘 안 들어가도 좋아.)

107043 @ 게니까 다 잇이난.(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107043 #2 어. 그건 안 들어가도 좋아.(어. 그건 안 들어가도 좋아.)

107044 @ 예, 예. 드릇마농짐치?(예, 예. 달래김치?)

107044 #2 드릇ᄂᆞ, 드릇마농도 그거 ᄀᆞ트고. 경헌디 드릇마농이나 파짐치나 멜젓 들어가사.(들나, 달래도 그거 같고. 그런데 달래나 파김치나 멸치젓 들어가야.)

107044 @ 아.(아.)

107044 #2 멜젓 들어가사 맛 좋나.(멸치젓 들어가야 맛 좋아.)

107044 @ 아. 파짐치엔 ᄀᆞᆯ읍니까, 마농짐치엔 ᄀᆞᆯ읍니까?(아, '파짐치'라고 말합니까, '마농짐치'라고 말합니까?)

107044 #2 마농짐치. 요샌 파짐치엔 헌다만은 옛날은 거 헤 먹을 줄 몰란. 그 짐치 안 헤 봣저게, 옛날은. 그자 솖앙이나 먹고. 짐치 헐 중 몰랑.('마농짐치'. 요새는 '파짐치'라고 한다만 옛날은 거 해 먹을 줄 몰랐어. 그 김치 안 해 봤어, 옛날은. 그저 삶아서나 먹고. 김치 할 줄 몰라서.)

107045 @ 아, 예. 갓짐치?(아, 예. 갓김치?)

107045 #2 갓짐치도 똑ᄀᆞ뜨주게. 갓짐친 갯ᄂᆞ물 아냐게.(갓김치도 똑같지. 갓김치는 갓 아니니.)

107045 @ 예, 갯ᄂᆞ물, 갯ᄂᆞ물짐치.(예, 갓, 갓김치.)

107045 #2 어, 갯ᄂᆞ물, 갯ᄂᆞ물.(어, 갓, 갓.)

107045 @ 예.(예.)

107045 #2 것도 똑ᄀᆞ튼다게. 다른 것광 ᄀᆞ치 기자. 그거 갯ᄂᆞ물 놔근에 물짐치 헤도 좋아. 물 하영 놔근에 시원허게. 경허민 그거 막 좋나.(것도 똑같다. 다른 것과 같이 그저. 그거 갓 넣어서 물김치 해도 좋아. 물 많이 넣어서 시원하게. 그러면 그거 아주 좋아.)

107046 @ 예, 예. 새우리짐치는?(예, 예. 부추김치는?)

107046 #2 새우리짐치도 다른 것광 똑ᄀᆞ트곡게, 파짐치 허듯.(부추김치도 다른 것과 똑같고, 파김치 하듯.)

107046 @ 파짐치 허듯.(파김치 하듯.)
107046 #2 어, 새우리도 저 젓갈 들어가사 좋고.(어, 부추도 저 젓갈 들어가야 좋고.)
107046 @ 여기도 마농 안 놓고.(여기도 마늘 안 넣고.)
107046 #2 으, 것도 안 놔도 좋아.(으, 것도 안 넣어도 좋아.)

젓갈

107048 @ 이젠 젓갈 물어보면, 젓갈에 무슨 젓갈 잇수과?(이젠 젓갈 물어보면, 젓갈에 무슨 젓갈 있습니까?)
107048 #2 젓갈 종류사 바당에 나는 거 다 젓갈 뒈주게.(젓갈 종류야 바다에 나는 거 다 젓갈 되지.)
107048 @ 그민.(그럼.)
107048 #2 갈치 젓갈도 잇고 저 조기 젓갈도 잇고 다 잇나. 궤기 나는 건 다 잇어.(갈치 젓갈도 있고 저 조기 젓갈도 있고 다 있어. 고기 나는 건 다 있어.)
107048 @ 예. 우리 주로 헤 먹는 건?(예. 우리 주로 해 먹는 건?)
107048 #2 자리젓, 멜젓.(자리젓, 멸치젓.)
107048 @ 멜젓.(멸치젓.)
107048 #2 저 새우젓.(저 새우젓.)
107048 @ 새우젓.(새우젓.)
107048 #2 으.(으.)
107048 @ 경헷엇던 거예?(그랬던 거요?)
107048 #2 어.(어.)
107048 @ 삼춘은 무슨 젓갈 담아낫수과?(삼촌은 무슨 젓갈 담갔었습니까?)
107048 #2 아, 집이서 저 자리젯 허고 멜젓.(아, 집에서 저 자리젓 하고 멸치젓.)
107048 @ 두 개만예?(두 개만요?)
107048 #2 어, 두 개만. 새우 거튼 건 못 허여.(어, 두 개만. 새우 같은 건 못 해.)
107048 @ 못 허여.(못 해.)
107048 #2 으.(으.)
107049 @ 자리젓을 먼저 담가 줍서, 어떵 담가난?(자리젓을 먼저 담가 주세요, 어떻게 담갔었어?)
107049 #2 자리젓은이 소금이 ᄉᆞ 대 일, ᄉᆞ 대 일로 담아진 거 닮다.(자리젓은 소금이 사 대 일, 사 대 일로 담갔던 거 같아.)
107049 @ 게민 자리가 사, 소금이 사?(그럼 자리가 사, 소름이 사?)
107049 #2 자리가 사.(자리가 사.)
107049 @ 소금이 일?(소금이 일?)
107049 #2 어, 일. 사 대 일.(어, 일. 사 대 일.)

107049 @ 사 대 일로.(사 대 일로.)
107049 #2 경헨 담아진 거 닮다.(그렇게 담근 거 같아.)
107049 @ 자리 담그젠 허민 어떵헤?(자리 담그려고 하면 어떡해?)
107049 #2 자리 사 오랑.(자리 사 와서.)
107049 @ 보통 얼마나 사 와낫수과?(보통 얼마나 사 왔었습니까?)
107049 #2 보통 이 키로.(보통 이 킬로그램.)
107049 @ 이 키로?(이 킬로그램?)
107049 #2 어, 흐쏠. 기자 경허민 으, 흔 말, 흔 말도 헤낫저. 흔 말은 팔 키론가 길 거라.(어, 조금. 그저 그러면 으, 한 말, 한 말도 했었어. 한 말은 팔 킬로그램인가 그럴 거야.)
107049 @ 으.(으.)
107049 #2 경허민이 그거 쳇 번으로 소금에 절엿당, 소금 조금 헤여근에 오널 헤영 낼 아칙은 놀싹허주게. 경허민 그거 홀홀홀 헤우멍 궂인 거 문 빼여 뒁. 자리 놔근에 그 물 똘라근에 걸러. 궂인 거 걸러.(그러면 그거 첫 번으로 소금에 절였다가, 소금 조금 해서 오늘 해서 내일 아침은 나른해. 그러면 그거 홀홀홀 헹구면서 궂은 거 모두 빼 둬. 자리 넣어서 그 물 따라서 걸러. 궂은 거 걸러.)
107049 @ 걸러예.(걸러요.)
107049 #2 걸러 물은 또 자리에 놓고 소금 족암직허민 그레 소금, 자리에 더 놩.(걸러 물은 또 자리에 넣고 소금 적음직하면 그리 소금, 자리에 더 넣어서.)
107049 @ 예.(예.)
107049 #2 경혜영 꽁꽁 누뜨렁 우이 무시거 똑허게 더꺼 베사 좋주. 더끄지 안 허영은 우터레 궂주게.(그래서 꽁꽁 눌러서 위에 뭐 딱하게 덮어 버려야 좋지. 덮지 않으면 위에 궂지.)
107049 @ 뭘 더퍼?(뭘 덮어?)
107049 #2 우이 험벅이나이 비니루나이 헤영 더꺼. 짐치도 헤여근에이 꼰꼰 누뜨러근에 비니루 얄룬 거 헹 더껑 놔두민 좋아. 경헤여근에 두께 더꺼. 소곱에 똑허게.(위에 헝겊이나 비닐이나 해서 덮어. 김치도 해서 꽁꽁 눌러서 비닐 얇은 거 해서 덮어서 놔두면 좋아. 그래서 뚜껑 덮어. 속에 딱하게.)
107049 @ 음.(음.)
107049 #2 장도이 저 거시기 뒌장도 헤 놔근에 우터레 비니루 똑ᄀᆞ트게 헤근에 그레 똑 더꺼근에 똑 허게시리 맞게시리. 경헨 헤사 곰셍이 안 피고.(장도 저 거시기 된장도 해 넣어서 위에 비닐 똑같이 해서 그리 똑 덮어서 똑 하게끔 맞게끔. 그렇게 해야 곰팡이 안 피고.)
107049 @ 아, 경헤야 곰셍이 안 펴.(아, 그래야 곰팡이 안 펴.)
107049 #2 으, 곰셍이도 안 피고 기자 그대로 잇주게. 우터레 톡 허게 더꺼 베사.(으, 곰팡이도 안 피고 그저 그대로 있지. 위에 똑 하게 덮어 버려야.)
107049 @ 아.(아.)

107049 #2 경혜근에 자리젓도 경혜근에 더껑 경헷다근에 자리젓은 대막데기 혜당 영 꽂아근에 영 헹 알러레 눅들게. 자릴 알러레 눅들게, 울러레 트지 못허게.(그래서 자리젓도 그렇게 덮어서 그랬다가 자리젓은 대막대기 해다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해서 아래로 누르게. 자리를 아래로 누르게, 위로 뜨지 못하게.)

107049 @ 아, 게민 돌 같은 거 지둘르진 안허고?(아, 그럼 돌 같은 거 지지르지는 않고?)

107049 #2 돌도, 돌도 지둘루고.(돌도, 돌도 지지르고.)

107049 @ 아, 지둘르고예.(아, 지지르고요.)

107049 #2 대막뎅이 영 헹 네커리로 놔근에 사각형으로 영 헤영 요레 돌 톡 허게 지둘루고. 경혜여근에.(대막대기 이렇게 해서 네거리로 넣어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서 요리 돌 톡 하게 지지르고. 그렇게.)

107049 @ 아, 우에 뜨지 말라고.(아, 위에 뜨지 말라고.)

107049 #2 어, 뜨지 말게.(어, 뜨지 말게.)

107049 @ 게민 우에 뜨민 거기에 뭐 생겨?(그럼 위에 뜨면 거기에 뭐 생겨?)

107049 #2 그디 궂주게. 그 자리가 빨강 안허여, 궂어.(거기 궂지. 그 자리가 빨갛지 않아, 궂어.)

107049 @ 검엉헤 부난.(거메 버리니까.)

107049 #2 으, 검엉헤영 그건 맛이 엇어.(으, 거메서 그건 맛이 없어.)

107049 @ 물 우터레 떠 부난.(물 위에 떠 버리니까.)

107050 #2 으, 물 우터레 떠 부난. 아래 지둘라져사주. 멜첫은 멜은 ᄒᆞ꼼 짜주게. 멜은 ᄉᆞ 대 일 넘엉 ᄒᆞ쏠 하영 헤사 멜은 카지지 안허여. ᄒᆞ쏠 하영 소금 하영 놩.(으, 물 위에 떠 버리니까. 아래 지질러져야지. 멸치젓은 멸치는 조금 짜지. 멸치는 사 대 일 넘어서 조금 많이 해야 멸치는 흐트러지지 않아. 조금 많이 소금 많이 넣어서.)

107050 @ 자리젓보다는 소금 하영 놩?(자리젓보다는 소금 많이 넣어서?)

107050 #2 으, 하영 놔근에.(으, 많이 넣어서.)

107050 @ 멜첫은 얼마나 담가낫수과?(멸치젓은 얼마나 담갔었습니까?)

107050 #2 아, 멜첫은 ᄒᆞ끔은 사당 담아낫저게. 쪼끔 담으민 기자.(아, 멸치젓은 조금은 사다가 담갔었어. 조금 담그면 그저.)

107050 @ 젓갈 많이 안 담아낫구나.(젓갈 많이 안 담갔었구나.)

107050 #2 어, 하영 안 담아.(어, 많이 안 담가.)

107050 @ 하영 안 담아?(많이 안 담가?)

107050 #2 으. 저 우리 친정에 신 땐 멜 댓 말썩 담아낫저, 친정엔.(으. 저 우리 친정에 있을 땐 멸치 댓 말씩 담갔었어, 친정엔.)

107050 @ 음.(음.)

107050 #2 난 이디 시집은 오난 이것가 엇언. 하하하.(난 여기 시집은 오니까 이것이 없었어. 하하하.)

107050 @ 예.(예.)
107050 #2 이것가 엇언에 그추룩 ᄒᆞ꼼썩 ᄒᆞ꼼썩 헤당 먹고 우리 친정엔 이거나 거 자랑이 아니고이 호화허게 살앗주게.(이것이 없어서 그처럼 조금씩 조금씩 해다가 먹고 우리 친정엔 이거 나 거 자랑이 아니고 호화하게 살았지.)
107050 @ 아이고, 어렸을 땐.(아이고, 어렸을 땐.)
107050 #2 아부지도이 막 거시기 헌 어른이난에 우리 일도 안 시키고 놉만 빌엉 허고 막 저 부제랏저게, 아버지네가.(아버지도 막 거시기 한 어른이니까 우리 일도 안 시키고 놉만 빌려서 하고 마구 저 부자였어, 아버지네가.)
107050 @ 예. 경 어떵헨 시집왕?(예. 그렇게 어떡해서 시집와서?)
107050 #2 경허난 시집은 오는디 이딘 아무것도 엇어도 사름 봔에.(그러니까 시집은 오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어도 사람 봐서.)
107050 @ 아.(아.)
107050 #2 사름 봔. 아무것도 엇인 디 풀아 놓난에 어려울 거 아니. 게난 이디선 ᄒᆞ꼼씩 사단 흔 뒈 사당 담앙 먹고 헤낫저게.(사람 봤어. 아무것도 없는 데 팔아 놓으니까 어려울 거 아니. 그러니까 여기선 조금씩 사다가 한 되 사다가 담가 먹고 했었어.)
107050 @ 아. 김치 헐 때도 썻던 거 아니, 멜첫?(아. 김치 할 때도 썼던 거 아니, 멸치젓?)
107050 #2 어?(어?)
107050 @ 김치 헐 때도 막 썻던 거 아니?(김치 할 때도 마구 썼던 거 아니?)
107050 #2 멜젓 국물 뚤앙 놓고 그 국물 엇이민 멜 놔근에 끓영, 끓이민 물 나온다게.(멸치젓 국물 따라 넣고 그 국물 없으면 멸치 넣어서 끓여서, 끓이면 물 나온다.)
107050 @ 예, 예.(예, 예.)
107050 #2 물 나오민 영 거시기 걸렁.(물 나오면 이렇게 거시기 걸러서.)
107050 @ 걸렁?(걸러서?)
107050 #2 으, 무시거 놔근에 바쳐근에 걸령 놓고.(으, 뭐 놔서 받쳐서 걸려서 넣고.)
107051 @ 아감젓도 헤낫수과?(아감젓도 했었습니까?)
107051 #2 어?(어?)
107051 @ 아감젓, 아가미젓?(아감젓, 아가미젓?)
107051 #2 안 헤낫저.(안 했었어.)
107051 @ 안 헤난?(안 했어?)
107051 #2 으.(으.)
107052 @ 게젓?(게젓?)
107052 #2 게젓도 안 헤. 아, 겡이젓은 헤낫저. 소금에 ᄒᆞ쏠 영 절여 놔두난 거 겡이젓 뒈는 거라라.(게젓도 안 해. 아, 게젓은 했었어. 소금에 조금 이렇게 절여 놔

두니까 거 게젓 되는 거더라.)

107052 @ 겡이를?(게를?)

107052 #2 으, 기자 소금에 기자 버물영 영 헹 놔두난 겡이젓 맛 좋는 거라라게.(으, 그저 소금에 그저 버무려서 이렇게 해서 놔두니까 게젓 맛 좋은 거더라.)

107052 @ 예. 아까 갈치젓도 얘기허고 조기젓도 얘기헷잖아예. 그런 거 만드는 것도 봐낫수과?(예. 아까 갈치젓도 얘기하고 조기젓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것도 봤었습니까?)

107052 #2 헤 보진 안허고 갈치젓허고 조기젓산디 먹언 봣저. 먹언 본디 갈치 영 영 썰어 놘에 그냥 다른 거 젓갈 허듯 헌 거 닮아라. 조기젓도 경허고.(해 보지는 않고 갈치젓하고 조기젓인지 먹어는 봤어. 먹어는 봤는데 갈치 이렇게 이렇게 썰어 넣어서 그냥 다른 거 젓갈 하듯 한 거 같더라. 조기젓도 그렇고.)

107052 @ 으.(으.)

107052 #2 그추룩 똑ᄀᆞ치 소금 기자 놩. 대개 간 맞추멍 놔근에.(그처럼 똑같이 소금 그저 넣어서. 대개 간 맞추면서 넣어서.)

107053 @ 아까 자리젓이나 멜첫 담글 때 상 왕 물에 씻엉 소금에 버무리는 것과?(아까 자리젓이나 멸치젓 담글 때 사고 와서 물에 씻어서 소금에 버무리는 겁니까?)

107053 #2 물에 씻으민, 언물에 씻으민 안 뒈여.(물에 씻으면, 찬물에 씻으면 안 돼.)

107053 @ 아, 안 뒈여.(아, 안 돼.)

107053 #2 그대로, 그대로. 소금, 바닷물에 나오는 거 그대로 헤사.(그대로, 그대로. 소금, 바닷물에 나오는 거 그대로 해야.)

107053 @ 아.(아.)

107053 #2 거 언물 적져 나민 잘 안 뒈고이.(거 찬물에 적시고 나면 잘 안 되고.)

107053 @ 잘 안 뒈고.(잘 안 되고.)

107053 #2 저 냉장고에 들어가난 자리도 젯 안 뒈고.(저 냉장고에 들어갔던 자리도 젓 안 되고.)

107053 @ 아.(아.)

107053 #2 안 뒈여.(안 돼.)

107053 @ 아, 냉장고에 들어가난 것도?(아, 냉장고에 들어갔던 것도?)

107053 #2 어, 자리젓 안 뒈여.(어, 자리젓 안 돼.)

107053 @ 예, 예.(예, 예.)

107053 #2 소금에 절여근에 들어가민, 들어가사주.(소금에 절여서 들어가면, 들어가야지.)

107054 @ 예. 그 출레렌 허는 건 뭘 출레렌 헙니까?(예. 그 '출레'라고 하는 건 뭘 '출레'라고 합니까?)

107054 #2 출렌[349] 장도 기고 자리젓도 기고 멜첫도 기고 출렌 짠 거.(‘출레’는 장도 그렇고 자리젓도 그렇고 멸치젓도 그렇고 ‘출레’는 짠 거.)

107054 @ 짠 거를 출레렌.(짠 거를 ‘출레’라고.)

107054 #2 출레. 밥반찬.(‘출레’. 밥반찬.)

107054 @ 어쨋든 거의 젓갈 종류를 출레엔 헴다예?(어쨌든 거의 젓갈 종류를 ‘출레’라고 하네요?)

107054 #2 어, 짠 거. 장도 출레엔 헤여.(어, 짠 거. 장도 ‘출레’라고 해.)

107054 @ 장도 출레엔 허고?(장도 ‘출레’라고 하고?)

107054 #2 으, 으.(으, 으.)

장아찌와 회

107055 @ 이젠 지시예, 지시?(이젠 장아찌요, 장아찌?)

107055 #2 으?(으?)

107055 @ 어떤 걸 지시렌 헙니까? 지?(어떤 걸 장아찌라고 합니까?)

107055 #2 지?(장아찌?)

107055 @ 예, 지.(예, 장아찌.)

107055 #2 장아찌 저.(장아찌 저.)

107055 @ 지금은 장아찌렌 허주만 옛날엔 삼춘 지렌 골안, 지시렌 골안?(지금은 장아찌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삼촌 ‘지’라고 말했어, ‘지시’라고 말했어?)

107055 #2 지, 지.(‘지’, 장아찌.)

107055 @ 마농지?(마늘장아찌?)

107055 #2 마농지. 마농지엔 헌 거, 거 대사니민 대사니 썰어 놩 그레 장물 놔근에 헤근에 놧다근에 또 ᄒᆞ룻밤 자근에 그 국물 뜰라 놩 데와. 데와근에 식영 또 놓고. 그거 저 거시기 허카 부덴, 벤허카 부덴. 벤허카 부덴 그 물 뜰롸 놩 두 번, 세 번꺼지만 끌여근에 놓민 어떵 안허여. 벤허지 안허여. 오래 놔두민 벤허카 부덴. 지엔 헌 건 짠맛이주게. 짠맛으로 오래 먹는 거, 지.(마늘장아찌. ‘마농지’라고 하는 거, 거 마늘이면 마늘 썰어 넣어서 그리 간장 넣어서 해서 놨다가 또 하룻밤 자서 그 국물 따라 놓고 데워. 데워서 식혀서 또 넣고. 그거 저 거시기 할까 봐, 변할까 봐. 변할까 봐 그 물 따라 넣고 두 번, 세 번까지만 끓여서 넣으면 어떻지 않아. 변하지 않아. 오래 놔두면 변할까 봐. 장아찌라고 하는 건 짠맛이지. 짠맛으로 오래 먹는 거, 장아찌.)

107055 @ 게난 지 담가 먹어난 거 아까 마농?(그러니까 장아찌 담가 먹었던 거 아까 마늘?)

107055 #2 저 대사니마농.(저 마늘.)

107055 @ 대사니마농?(마늘?)

107055 #2 으, 그거나 그거 반치지.(으, 그거나 그거 파초장아찌.)

---

349) ‘출레’는 밥과 곁들어 먹는 장, 젓갈 따위의 반찬을 말한다.

107055 @ 반치지?(파초장아찌?)

107055 #2 으, 반치지. 거시기 뭐이니 파인아플 말고 저 거시기, 이디 무시거 거 반치엔 헌 거 알아지크냐, 몰르지?(으, 파초장아찌. 거시기 뭐니 파인애플 말고 저 거시기, 여기 뭐 거 파초라고 하는 거 알겠냐, 모르지?)

107055 @ 예, 말은 들어낫수다. 집 넝쿨에 영 열리는 거.(예, 말은 들었었습니다. 집 넝쿨에 이렇게 열리는 거.)

107055 #2 영 헤근에 영 올라가는 거 입사귀 걸게 나오고.(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잎사귀 걸게 나오고.)

107055 @ 예, 예.(예, 예.)

107055 #2 그거. 그거 쫄라근에 반치지 헹 먹주게.(그거. 그거 잘라서 파초장아찌 해서 먹지.)

107055 @ 아.(아.)

107055 #2 그거 헹 장물에, 장물에 그거 놔근에 놧다근에 걸러근에 꿰와근에 또 놓고. 경헤근에 그거 지 담앙 먹어.(그거 해서 간장에, 간장에 그거 넣어서 놨다가 걸러서 끓여서 또 넣고. 그래서 그거 장아찌 담가서 먹어.)

107055 @ 아, 반치지.(아, 파초장아찌.)

107055 #2 경 안허민 그거 썰어근에 장에 ᄀᆞ치 담앙, 할망덜 ᄀᆞ치 장항에 놔라게. 장항에.(그렇지 않으면 그거 썰어서 장에 같이 담아서, 할머니들 같이 장항에 넣더라. 장항에.)

107055 @ 아, 장 담글 때 그냥.(아, 장 담글 때 그냥.)

107055 #2 어, 어. ᄀᆞ치 놘에. 경헨 건져당 먹고. 놈삐도 경 헹 먹고. 할망덜 경 헹게.(어, 어. 같이 넣어서. 그래서 건져다가 먹고. 무도 그렇게 해서 먹고. 할머니들 그러더라.)

107055 @ 장에 그냥 놈삐를 담아?(장에 그냥 무를 담아?)

107055 #2 으. 난 경 안 헤 봣저만은. 할망덜 경허민 막 짱 못 먹어. 막 짱.(으, 난 그렇게 안 해 봤는데. 할머니들 그러면 아주 짜서 못 먹어. 아주 짜.)

107055 @ 아.(아.)

107055 #2 경헨 먹언게. 그 반치진 썰어근에 장물 놔근에 장물이 ᄒᆞ쏠 우터레 올르듯 헤사주 경 안허민 곰셍, 곰펭이 피고.(그렇게 먹어. 그 파초장아찌는 썰어서 간장 넣어서 간장이 조금 위로 오르듯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곰팡이, 곰팡이 피고.)

107055 @ 예.(예.)

107055 #2 경헤난 그거 물 뚤롸 놩 꿰와근에 그거 벤허지 말게.(그러니까 그거 물 따라 놓고 끓여서 그거 변하지 말게.)

107055 @ 예.(예.)

107055 #2 또 식이여근에 놓고. 두 번, 세 번 경만 허민 어떵 안허주게.(또 식혀서 넣고. 두 번, 세 번 그렇게만 하면 어떻지 않지.)

107055 @ 음. 게민 한번 끓영 식영, 한번 끓영 식영, 한번 끓영 식영 경 헨 놓는 거라.(음. 그럼 한번 끓여서 식혀서, 한번 끓여서 식혀서, 한번 끓여서 식혀서 그렇게 해서 넣는 거야.)

107055 #2 으, 경허는 거.(으, 그러는 거.)

107055 @ 게민 아까 마농지, 반치지, 또 다른 거 지 헹 먹어난 거 잇수과?(그럼 아까 마늘장아찌, 파초장아찌, 또 다른 거 장아찌 해서 먹었던 거 있습니까?)

107055 #2 무시거 반치지나벳기, 마농지.(뭐 파초장아찌나밖에, 마늘장아찌.)

107055 @ 여기는 양에나?(여기는 양하나?)

107055 #2 양에 잇나.(양하 있어.)

107055 @ 양에도 지 헹 먹어낫수과?(양하도 장아찌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55 #2 으, 양엣근[350].(으, 양하.)

107055 @ 양엣근.(양하.)

107055 #2 으, 양엣근 헤근에 장에 것도 그추룩 버물여. 장에 놔근에 끌영 놓고, 끌영 놓고 헤근에 양엣근.(으, 양하 해서 장에 것도 그처럼 버무려. 장에 넣어서 끓여서 넣고, 끓여서 넣고 해서 양하.)

107055 @ 몸은?(모자반은?)

107055 #2 어?(어?)

107055 @ 몸은 지 안 헹 먹어난? 몸, 몸.(모자반은 장아찌 안 해서 먹었었어? 모자반, 모자반.)

107055 #2 몸?(모자반?)

107055 @ 으.(으.)

107055 #2 그런 건 안 헤낫저.(그런 건 안 했었어.)

107057 @ 그럼 훼 종류, 훼 종류는 어떤 게 잇수과?(그럼 회 종류, 회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107057 #2 휀 저 바닷고기덜게 헤근에 허민 자리.(회는 저 바닷고기들 해서 하면 자리돔.)

107057 @ 자리.(자리돔.)

107057 #2 돔.(돔.)

107057 @ 돔.(돔.)

107057 #2 또.(또.)

107057 @ 여기서 돔은 그냥 돔이렌 골아난?(여기서 돔은 그냥 돔이라고 말했었어?)

107057 #2 으. 경허고.(으. 그리고.)

107057 @ 자리, 돔?(자리돔, 돔?)

107057 #2 거 바다에 나는 건 다 저 파닥파닥 튈 때 다 헤 먹언게. 저 거세기도 오징어, 오징어 ᄀᆞ튼 거이. 뚜시 저, 거 무슨 궤기니? 곧젠 허난 알아지크라?(거 바

350) '양엣근'은 양하의 땅속 줄기에서 올라오는 자주빛 꽃이삭을 말한다.

다에 나는 건 다 저 파닥파닥 뛸 때 다 해 먹었어. 저 거시기도 오징어, 오징어 같은 거. 또 저, 거 무슨 고기니? 말하려고 하니까 알겠어?)

107057 @ 상에?(상어?)

107057 #2 어?(어?)

107057 @ 상에, 상어 말고?(상어, 상어 말고?)

107057 #2 상어도 훼 헹 먹고.(상어도 회 해서 먹고.)

107057 @ 으.(으.)

107057 #2 상어도 훼 헹 먹어. 훼 헹 먹고. 아고, 나 몰르켜. 바닷궤기 다 훼 헹 먹어. 다 헹 먹어.(상어도 회 해서 먹어. 회 해서 먹고. 아이고, 나 모르겠어. 바닷고기 다 회 해서 먹어. 다 해서 먹어.)

107058 @ 그럼 우리 뭐 봄에는 어떤 거 먹고 여름에는 무슨 반찬 먹어나고 가을에 뒈민 무슨 반찬 먹어나고 허는 거 잇수과?(그럼 우리 뭐 봄에는 어떤 거 먹고 여름에는 무슨 반찬 먹었었고 가을 되면 무슨 반찬 먹었었고 하는 거 있습니까?)

107058 #2 아이고.(아이고.)

107058 @ 엇어? 봄에는 뭐 헹 먹어신고?(없어? 봄에는 뭐 해서 먹었지?)

107058 #2 봄엔.(봄엔.)

107058 @ ᄂᆞ물?(나물?)

107058 #2 ᄂᆞ물 기자 허고 저 마농 ᄀᆞ튼 거게. 마농, 대사니 그런 지허고 다마네기[351]지 담앙 먹고.(나물 그저 하고 저 마늘 같은 거. 마늘, 마늘 그런 장아찌하고 양파장아찌 담가서 먹고.)

107058 @ 예.(예.)

107058 #2 저 양파이.(저 양파.)

107058 @ 다마네기지도 헤 먹엇구나.(양파장아찌도 해 먹었구나.)

107058 #2 으. 그거 헤 먹고 또 무, 무 삼각형추룩 헤근에 얄룹게 썰언에 장물에 요새 저 ᄑᆞ는 장물. ᄑᆞ는 장물은 ᄃᆞᆯ주게, ᄒᆞᄊᆞᆯ이.(으. 그거 해서 먹고 또 무, 무 삼각형처럼 해서 얇게 썰어서 간장에 요새 저 파는 간장. 파는 간장은 달지, 조금.)

107058 @ 예.(예.)

107058 #2 그것에 둠가 놧당 먹으난 거 막 좋아라, 반찬.(그것에 담가 놨다가 먹으니까 거 아주 좋더라, 반찬.)

107058 @ 아.(아.)

107058 #2 그 ᄂᆞᆷ삐 ᄒᆞᄊᆞᆯ 썰언에.(그 무 조금 썰어서.)

107058 @ 예, 예.(예, 예.)

107058 #2 것도 막 좋아라.(것도 아주 좋더라.)

107058 @ 예. 여름에 뒈민 냉국 헹 먹고.(예. 여름 되면 냉국 해서 먹고.)

107058 #2 냉국 헹 먹고. 물에 기자 뒌장 기자 카 놩도 먹고. ᄂᆞ물 엇이민.(냉국 해서 먹고. 물에 그저 된장 그저 타서 넣어서도 먹고. 나물 없으면.)

351) '다마네기'는 일본어'たまねぎ'로 양파를 말한다.

107058 @ ᄂᆞ물 엇이민.(나물 없으면.)

107058 #2 뒌장 카 놩도 먹고. 경 시원허여.(된장 타 넣어서도 먹고. 그렇게 시원해.)

107058 @ ᄀᆞ슬 들민?(가을 들면?)

107058 #2 어?(어?)

107058 @ ᄀᆞ슬 들민?(가을 들면?)

107058 #2 가을 들민. ᄀᆞ슬 들민, ᄀᆞ슬 들민이 이 ᄀᆞ슬 나 가민 저 양엣근, 대개 양엣근. 그때도 놈삐, ᄂᆞ물 것벳기 엇주게. 놈삐, ᄂᆞ물 기자.(가을 들면. 가을 들면, 가을 들면 이 가을 돼 가면 저 양하, 대개 양하. 그때도 무, 나물 것밖에 없지. 무, 나물 그저.)

107058 @ 겨울 뒈 가민 감저나?(겨울 돼 가면 고구마나?)

107058 #2 감저. 어, 그런 거벳기게.(고구마. 어, 그런 거밖에.)

장 담그기

107059 @ 그럼 장예, 뒌장이나 간장은, 장은 언제 담급니까?(그럼 장요, 된장이나 간장은, 장은 언제 담급니까?)

107059 #2 장은이 섣돌그믐에. 이 제주돈.(장은 섣달그믐에. 이 제주도는.)

107059 @ 아.(아.)

107059 #2 제주돈 섣돌그믐에 둠고 육진 삼월, 삼월삼일날 담넨 헤라.(제주도는 섣달그믐에 담그고 육지는 삼월, 삼월삼짇날 담근다고 하더라.)

107059 @ 아, 삼짇날.(아, 삼짇날.)

107059 #2 어, 육진.(어, 육진.)

107059 @ 섣달그믐에예?(섣달그믐에요?)

107059 #2 으, 섣달그믐. 섣돌 나민 장 둠아.(으, 섣달그믐. 섣달 되면 장 담가.)

107060 @ 게민 삼춘은 장 담아 먹어난 건 뒌장이랑 간장인 거라예?(그럼 삼촌은 장 담가서 먹었던 건 된장이랑 간장인 거지요?)

107060 #2 으, 으.(으, 으.)

107062 @ 이제 뒌장 담그젠 허면, 뒌장 담그는 거 콩 솖으는 것부터 ᄀᆞᆯ아 줍서.(이제 된장 담그려고 하면, 된장 담그는 거 콩 삶는 것부터 말해 주세요.)

107062 #2 콩, 콩 저 이녁 거나 사당을 허나 헤도 물에 시치민이 콩은 씻어 가민 거끔 나.(콩, 콩 저 자기 거나 사다가 하거나 해도 물에 씻으면 콩은 씻어 가면 거품 나.)

107062 @ 으?(으?)

107062 #2 거끔 난다. 그거 저 거시기 당, 그 거시기 것도 거시기 것도 무신, 무시거엔 ᄀᆞᆫ느니? 콩은 씻어 가민 무시거 헌 거주. 좋은 거주, 좋은 거. 그거 나 가민 학 허게 궂인 물 믄 씻어근에 돌, 일어근에.(거품 나. 그거 저 거시기 당, 그 거시기 것도 거시기 것도 무슨, 뭐라고 말하니? 콩은 씻어 가면 뭐 한 거지. 좋은 거지, 좋

은 거. 그거 나와 가면 확 하게 궂은 물 모두 씻어서 돌, 일어서.)

107062 @ 예.(예.)

107062 #2 돌이나 들어시카 부덴 막 일주게. 들어시카 부덴 솟디 놩 쏠, 경헨 솟디 놩 불 심당 궤여 가민 솟두껭이 ᄒᆞ썰 영 베욱헤사주,[352] 경 안허민 막 부각부각 넘어.(돌이나 들었을까 봐 막 일지. 들었을까 봐 솥에 놔서 쌀, 그래서 솥에 넣어서 불 때다가 끓어 가면 솥뚜껑 조금 이렇게 '베욱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마구 부글부글 넘어.)

107062 @ 아.(아.)

107062 #2 ᄒᆞ쏠 베욱헤근에 너미 불 달게 말아근에.(조금 '베욱해서' 너무 불 달게 말고.)

107062 @ 음.(음.)

107062 #2 ᄒᆞ쏠ᄒᆞ쏠 그자 베롱베롱허게[353] 그자 궴만 허게. 불 달게 허민 우터레 욱곽헨 부꺼 벼. 겨난 ᄒᆞ쏠ᄒᆞ쏠 허영 ᄒᆞ꼼 오래 솖아사.(조금조금 그저 '베롱베롱하게' 그저 끓기만 하게. 불 달게 하면 위로 부글대서 끓어올라 버려. 그러니까 조금조금 해서 조금 오래 삶아야.)

107062 @ 음.(음.)

107062 #2 경헨 것도 콩도 자꾸 뒤집어사주, 눌어.(그래서 것도 콩도 자꾸 뒤집어야지, 눌어.)

107062 @ 아, 밑에.(아, 밑에.)

107062 #2 장 듬을 콩도 눈다. 그레 딱 부뜨민 ᄉᆞ못 칸내가 싹 헤여.(장 담글 콩도 눌어. 그리 딱 붙으면 사뭇 탄내가 싹 해.)

107062 @ 예.(예.)

107062 #2 게난 것도 물 꿰왕 ᄲᅳ뜨지 안허게 막 정성헤사 허여. 막 젓고 자꾸 젓엉 보곡, 보곡 물 ᄲᅳ땀신가 안 ᄲᅳ땀신가. 물 ᄲᅳ따 가민 ᄒᆞ쏠 놓고. 자꾸 우터레 넘어 가민 또 솟두껭이 ᄒᆞ쏠 영 허고 경허멍 헤근에 그걸 믄 익엉, 물싹허게 익어근에 허민 솟두껭이 푹 더껑 놔두민 푹 허게 즘자민 그자 메지근헌 때 퍼내영 물을 막 똘라내영 소쿠리에 건져근에 다라 바쳥 영 놔두민 물 영 막 알러레 내려와 불주게. 경허민 우이 건 물, 물기 엇이민 저 무시거 마다리 곤 거 헤근에 그레 담아근에 이 나 허는 식으로.(그러니까 것도 물 끓어서 밭지 않게 아주 정성해야 해. 잘 젓고 자꾸 저어서 보고, 보고 물 밭고 있나 안 밭고 있나. 물 밭아 가면 조금 넣고. 자꾸 위로 넘어 가면 또 솥뚜껑 조금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해서 그걸 모두 익어서, 물씬하게 익어서 하면 솥뚜껑 푹 덮어서 놔두면 푹 하게 잠자면 그저 미지근할 때 퍼내서 물을 마구 따라내어서 소쿠리에 건져서 대야 받쳐서 이렇게 놔두면 물 이렇게 마구 아래로 내려와 버리지. 그러면 위의 건 물, 물기 없으면 저 뭐 마대 깨끗한 거 해서 그리 담아서 나 하는 식으로.)

---

352) '베욱허다'는 불이 세지 않고 약하게 피운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353) '베롱베롱허다'은 불이 약하게 붙는 모습을 나타낸 말이다.

107062 @ 예, 예.(예, 예.)

107062 #2 마다리에 담아근에 그거 봉지 줄라메영 이디 아래 무시거 끌아근에 이디 무시거 놩 그거 발로 붋주게.(마대에 담아서 그거 봉지 잘라매서 여기 아래 뭐 깔아서 여기 뭐 놔서 그거 발로 밟지.)

107062 @ 불라.(밟아.)

107062 #2 불르민 문딱 뿟아져.(밟으면 모두 빻아져.)

107062 @ 예, 예.(예, 예.)

107061 #2 문딱 뿟아지민 그거 퍼내영 문 접앙, 꼭꼭 접아근에 영 헤영 무시거 더껑 놔두민 터. 부각허게[354].(모두 빻아지면 그거 퍼내서 모두 집어서, 꼭꼭 집어서 이렇게 해서 뭐 덮어서 놔두면 터. 부각하게.)

107061 @ 예.(예.)

107061 #2 트민 또 영 거둰 내불민 전인 영 돌아메낫저만은 찍 엇어놓난. 찍 잇인 땐 찍이 젤 존 거.(트면 또 이렇게 거둬서 내버리면 전에 이렇게 달아맸었지만 짚 없으니까. 짚 있을 때는 짚이 제일 좋은 거.)

107061 @ 아.(아.)

107061 #2 찍 헹 돌아멧주만은 돌아메지 안헤영 난 기자 아래 영 널엉 걷어근에 영헹 얄룬 거 더껑 내불민 트멍 물르멍, 트멍 물르멍 헌다게. 경헹 허민 섣돌 나민 멩질 뒈어 가민 스무날 넘어가민 기자 날 봐근에 듬주게.(짚 해서 달아맸지만 달아매지 않고 난 그저 아래 이렇게 널어서 걷어서 이렇게 얇은 거 덮어서 내버리면 트면서 마르면서, 트면서 마르면서 한다. 그렇게 하면 섣달 되면 명질 돼 가면 스무날 넘어가면 그저 날 봐서 담그지.)

107061 @ 음.(음.)

107061 #2 올리도 저 섣돌 뒈연 멩질 전이 개날 뒈난 듬앗주게.(올해도 저 섣달 돼서 명질 전에 개날 되니까 담갔지.)

107061 @ 게난 장 담는 게 섣달그믐인 거고?(그러니까 장 담그는 게 섣달그믐인 거고?)

107061 #2 으.(으.)

107061 @ 메주 숢는 건?(메주 삶는 건?)

107061 #2 메주 숢는 건 기자 이 제기, 장 엇엉 제기 먹을 사름은 콩 장만 헤지민 허고.(메주 삶는 건 그저 이 재게, 장 없어서 재게 먹을 사람은 콩 장만 하면 하고.)

107061 @ 으.(으.)

107061 #2 경 안헌 사름은 동짓덜.(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짓달.)

107061 @ 아, 동짓덜.(아, 동짓달.)

107061 #2 동짓덜 혼 보름 고비에 허민 섣돌꾸장 트멍 물르멍 허주게.(동짓달

354) '부각허다'는 거품이나 솜 따위가 잘 피어오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여기서는 메주에 곰팡이가 잘 핀 모양을 나타낸다.

한 보름 고비에 하면 섣달까지 트면서 마르면서 하지.)

107061 @ 그 물르는 시기가?(그 마르는 시기가?)

107061 #2 혼 둘, 혼 둘.(한 달, 한 달.)

107061 @ 혼 둘 정도예?(한 달 정도요?)

107061 #2 으, 혼 둘.(으, 한 달.)

107061 @ 혼 둘 물려근에.(한 달 말려서.)

107061 #2 경허민 날 봐근에 기자 개날이나 저 엿날은 그 집 식구가 그 띠 엇인 날. 개날이나 토날이나, 모날이나 그런 날만 둠주게. 그, 그 집 식구가 그 장, 장 둠는 날에 띠가 잇이민 그 띠 신 사름이 손을 알리나 그 발을 알리나 헌덴.(그러면 날 봐서 그저 개날이나 저 옛날은 그 집 식구나 그 띠 없는 날. 개날이나 토끼날이나, 토끼날이나 그런 날만 담그지. 그, 그 집 식구가 그 장, 장 담그는 날에 띠가 있으면 그 띠 있는 사람이 손을 알리거나 그 발을 알리거나 한다고.)

107061 @ 아.(아.)

107061 #2 그런 전설이 잇어.(그런 전설이 있어.)

107061 @ 아, 기구나.(아, 그렇구나.)

107061 #2 경허난 띠 엇인 날로 둠아.(그러니까 띠 없는 날로 담가.)

107061 @ 아, 예, 예. 경헨 정월덜에 솖앙 섣달에.(아, 예, 예. 그래서 정월달에 삶아서 섣달에.)

107061 #2 둠아. 지금 막 익엇저. 둠으난 지금 발강헷저, 우리도 장.(담가. 지금 잘 익었어. 담그니까 지금 발갰어, 우리도 장.)

107061 @ 게민 섣돌에 담은 건 언제서부터 먹을 수 있는 거라?(그럼 섣달에 담근 건 언제서부터 먹을 수 있는 거야?)

107061 #2 아, 섣돌에 담으민 장 엇이민 제기 허민 혼 둘, 두 둘만 시민 먹을 수 잇고. 혼 둘만 뒈도 장 엇이민 먹어지고.(아, 섣달에 담그면 장 없으면 재게 하면 한 달, 두 달만 있으면 먹을 수 있고. 한 달만 돼도 장 없으면 먹을 수 있고.)

107061 @ 먹어지고.(먹을 수 있고.)

107061 #2 으. 경 안허민 또 칠십 일 뒈민 장물 거려. 칠십 일.(으. 그렇지 않으면 또 칠십 일 되면 간장 떠. 칠십 일.)

107061 @ 예, 예. 게난, 게난예. 메주 헤 가지고 장을 담을 때 메주 씻을 거?(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메주 해 가지고 장을 담글 때 메주 씻을 거?)

107061 #2 어게. 문 씻엉 물에.(어. 모두 씻어서 물에.)

107061 @ 문 씻어.(모두 씻어.)

107061 #2 씻엉 소금을 또 전에, 혼 삼 일 전에 소금을 캇다근에 다라에 물 놓고 소금 어느 정도 놩 영 찍엉 먹어 보멍 쨉찌랑허민 영 놧당. 소금도 영 궂인 아젱이가 하.(씻어서 소금을 또 전에, 한 삼 일 전에 소금을 탔다가 대야에 물 넣고 소금 어느 정도 넣어서 이렇게 찍어서 먹어 보면서 짭조름하면 이렇게 놨다가. 소금도 이렇게 궂은 앙금이 많아.)

107061 @ 음.(음.)

107061 #2 경허민 거 우로 영 뚤롸 놔근에. 경허영 메주 항에 문딱 놩. 곳사거치 대막뎅이 헤다근에 네모로 꼭꼭 지둘롸근에 메주 트지 안허게.(그러면 거 위로 이렇게 따라 놔서. 그래서 메주 항에 모두 넣어서. 아까처럼 대막대기 해다가 네모로 꼭꼭 지질러서 메주 뜨지 않게.)

107061 @ 올라오지 안허게.(올라오지 않게.)

107061 #2 으, 우터레 올르지 안허게.(으, 위에 오르지 않게.)

107061 @ 으.(으.)

107061 #2 경헤여근에 그레 물 부어 놩 놔두민 저, 경헨 계란, 저 육지선 보민 계란도 놓고. 어제도 허는 거 보난 동태도 몰른 거 놔라. 고치도 놓고 문 헤도 난 그런 거 넣어 보지 안허고 기자. 숫도 놓고.(그래서 그리 물 부어 넣어서 놔두면 저, 그래서 계란, 저 육지에서 보면 계란도 넣고. 어제도 하는 거 보니까 동태도 마른 거 넣더라. 고추도 넣고 모두 해도 난 그런 거 넣어 보지 않고 그저. 숯도 넣고.)

107061 @ 냄새나지 말렌.(냄새나지 말라고.)

107061 #2 으, 경덜 헨게. 경헨게 나 작년인 숫도 놓고 고치도 놓고 헌디 올린 그거 안 놔도 어떵 안허고.(으, 그렇게들 했어. 그래서 나 작년엔 숯도 넣고 고추도 넣고 했는데 올해는 그거 안 넣어도 어떻지 않고.)

107061 @ 아.(아.)

107061 #2 경헨에 기자 지금 발강헷저게.(그래서 그저 지금 발갰어.)

107061 @ 발강헨.(발갰어.)

107061 #2 허허허.(허허허.)

107061 @ 게난 고추장은 안 만들어 봣수과?(그러니까 고추장은 안 만들어 봤습니까?)

107061 #2 고추장은 저 난이 기자 아멩이라도 헹 만들어 보는디 저 거시기 콩ᄀᆞ루라도 ᄀᆞᆯ아다근에 저 밀ᄏᆞ루, 저 거시기 춥쏠ᄀᆞ루.(고추장은 저 난 그저 아무렇게라도 해서 만들어 보는데 저 거시기 콩가루라도 갈아다가 저 밀가루, 저 거시기 찹쌀가루.)

107061 @ 예, 춥쏠ᄀᆞ루.(예, 찹쌀가루.)

107061 #2 춥쏠ᄀᆞ루 쑤어근에.(찹쌀가루 쒀서.)

107061 @ 예.(예.)

107061 #2 으, 츰쏠ᄀᆞ루 쑤어근에 그레 간장, 물장. 물장 놩 허는 사름, 그레 소금물 헹 놓는 사름 헤여. 난 물장 놔근에 그레 춥쏠ᄀᆞ루 헤여 놓고 고칫ᄀᆞ루 놓고 경헨 젓엉 먹어낫저게.(으, 찹쌀가루 쒀서 그리 간장, 간장. 간장 넣어서 하는 사람, 그리 소금물 해서 넣는 사람 해. 난 간장 넣어서 그리 찹쌀가루 해 넣고 고춧가루 넣고 그래서 저어서 먹었었어.)

107061 @ 아.(아,)

107061 #2 경허고 경 안허민 콩 틔운 ᄀᆞ루 그것도 서끄고. 경헤연 먹어난.(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콩 틔운 가루 그것도 섞고. 그래서 먹었었어.)

107061 @ 아.(아.)

107061 #2 밀, 밀 틔와근에 콩추룩 틔운 거. 거 풀주게.(밀, 밀 틔워서 콩처럼 틔운 거. 거 팔지.)

107061 @ 으.(으.)

107061 #2 그거 사다 놓고 헤근에.(그거 사다 넣고 해서.)

107061 @ 고추장도 담강 먹어낫구나?(고추장도 담가서 먹었었구나?)

107061 #2 으. 경헤근에 막 젯어근에 허민 그때부터 먹어져.(으. 그래서 마구 저어서 하면 그때부터 먹을 수 있어.)

107061 @ 그거 만들엉 바로 먹을 수 있는 거?(그거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107061 #2 으, 바로 먹어져.(으, 바로 먹을 수 있어.)

107061 @ 게난 고추장 만들 때는 장물로만 허는 게 아니고.(그러니까 고추장 만들 때는 간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107061 #2 소금물도 헌다.(소금물도 한다.)

107061 @ 소금물도.(소금물도.)

107061 #2 소금물도 헤라게. 게난 설탕도 놓곡 그레 또 설탕 안 놓는 사름은 꿀도 놓곡게.(소금물도 해. 그러니까 설탕도 넣고 그리 또 설탕 안 넣는 사람은 꿀도 넣고.)

107061 @ 아, 양념허는 거구나.(아, 양념하는 거구나.)

107061 #2 으, 꿀도 놓고.(으, 꿀도 넣고.)

107061 @ 꿀도 놓고. 그럼 아까 장 담글 때에 뭐 허지 말렌 허는 금기사항 같은 거 잇수과?(꿀도 넣고. 그럼 아까 장 담글 때에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107061 #2 어?(어?)

107063 @ 장 담글 때, 장 담글 때에 뭐 허지 말렌 허는 그런, 그런 것들 잇수과? 아까 띠 잇인 날은 그날 안 헌덴 헷잖아?(장 담글 때, 장 담글 때에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것들 있습니까? 아까 띠 있는 날은 그날 안 한다고 했잖아?)

107063 #2 으, 으.(으, 으.)

107063 @ 그 웨에 또 장 담그는 날 뭐허진 말렌 헌 거 그런 거 엇어?(그 외에 또 장 담그는 날 뭐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없어?)

107063 #2 장 둠는, 장 둠는 디 부정헌 사름은 뎅기민 안 뒈여. 영장밧디도 가오민 안 뒈고.(장 담그는, 장 담그는 데 부정한 사람은 다니면 안 돼. 장지에도 갔다 오면 안 되고.)

107063 @ 안 뒈고예?(안 되고요?)

107063 #2 으. 장 익기 전에이 영장밧디 가 왕 장항 올앙 ᄆᆞᆫ직으민 거 안 뒈여,

안 뒈여.(으. 장 익기 전에 장지 갔다 와서 장항 열여서 만지면 거 안 돼, 안 돼.)

107063 @ 으.(으.)

107063 #2 안 뒈여근에 내나 분다.(안 돼서 냄새나 버려.)

107063 @ 내나.(냄새나.)

107063 #2 으, 내나. 거시기 제라허게 뒈질 안허여.(으, 냄새나. 거시기 온전하게 되지 않아.)

107063 @ 게난 장 헐 때 부정 타민.(그러니까 장 할 때 부정 타면.)

107063 #2 으, 부정 막 타, 장은. 제일 부정 탄다 그거. 부정헐 때 그디 안 뎅겨사.(으. 부정 마구 타, 장은. 제일 부정 타 그거. 부정할 때 거기 안 다녀야.)

107063 @ 예, 예.(예, 예.)

떡류

107064 @ 이제는 이제는 떡 허는 거.(이제는 이제는 떡 하는 거.)

107064 #2 떡 허는 거. 하하하.(떡 하는 거. 하하하.)

107064 @ 떡 헤낫잖아예?(떡 했었잖아요?)

107064 #2 어, 떡 헤난.(어, 떡 했었어.)

107064 @ 떡 종류에는 어떤 떡이 잇수과?(떡 종류에는 어떤 떡이 있습니까?)

107064 #2 솔벤[355], 절벤, 또 인절미, 또 중궤[356], 약궤[357].(솔편, 절편, 또 인절미, 또 중계, 약과.)

107064 @ 으.(으.)

107064 #2 어 중궤, 약궤, 저 시리떡, 저 인절미 거시기 인절미도 막 으라 가지.(어, 중계, 약과, 저 시루떡, 저 인절미 거시기 인절미도 아주 여러 가지.)

107064 @ 음.(음.)

107064 #2 곤인절미[358] 잇고 춥썰인절미 잇고 속인절미 잇고. 인절미도 막 으라 가지여.('곤인절미' 있고 찹쌀인절미 있고 쑥인절미 있고. 인절미도 아주 여러 가지야.)

107064 @ 인절미도 속인절미 그런 건 재료에 따라 다른 거?(인절미도 쑥인절미 그런 건 재료에 따라 다른 거?)

107064 #2 으, 으. 재료에 따라.(으, 으. 재료에 따라.)

107065 @ 게민 먼저 시리떡부터 물어보쿠다예?(그럼 먼저 시루떡부터 물어보겠습니다.)

107065 #2 으.(으.)

---

355) '솔벤'은 쌀가루나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얇게 민 다음 반달 모양의 떡살로 떠서 끓는 물에 삶거나 찐 떡을 말한다.

356) '중궤'는 좁쌀 가루나 메밀가루로 기름하게 만들어 기름에 튀긴 떡을 말한다. 표준어의 '중계'에 대응할 수 있으나, 재료나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357) 좁쌀가루나 밀가루 따위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구멍 다섯을 내고 기름에 지지거나 삶아낸 떡이다. 표준어의 '약과'에 대응할 수 있으나, 재료나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358) '곤인절미'는 흰쌀로 만든 인절미를 말한다.

107065 @ 여기 시리떡이엔 걸읍니까?(여기 시루떡이라고 말합니까?)
107065 #2 시리떡.(시루떡.)
107065 @ 침.(‘침’.)
107065 #2 침떡[359].(‘침떡’.)
107065 @ 침떡이렌 헙니까?(‘침떡’이라고 합니까?)
107065 #2 어, 침떡.(어, ‘침떡’.)
107065 @ 침떡예?(‘침떡’요?)
107065 #2 어. 시리 침떡.(어. 시루 ‘침떡’)
107065 @ 시리떡이엔 걷는 건 이제사 걷는 거 아니?(시루떡이라고 말하는 건 이제야 말하는 거 아니?)
107065 #2 옛날에도 시리떡이엔 헷저게. 시리 침떡. 옛날에도 시리떡, 시리떡 헷저. 시리가 동글랑헌 거 구멍 난 거 시난 그것에 치난 시리떡.(옛날에도 시루떡이라고 했어. 시루 ‘침떡’. 옛날에도 시루떡, 시루떡 했어. 시루가 동그란 거 구멍 난 거 있으니까 그것에 찌니까 시루떡.)
107065 @ 음. 게민 시리떡 만들젠 허민 재료, 뭘로 시리떡을 만듭니까?(음. 그럼 시루떡 만들려고 하면 재료, 뭐로 시루떡을 만듭니까?)
107065 #2 풋 숢아근에 걸아 놓고 곤쏠 헤다근에 곤쏠 컷다근에 건졍 방앗간, 저 엿날은 방에에 져근에, 방에에 서이, 너이 졍. 아이고, 방에 지젠 허민 손이 문 터져.(팥 삶아서 갈아 넣고 흰쌀 해다가 흰쌀 담갔다가 건져서 방앗간, 저 옛날은 방아에 찧어서, 방아에 셋, 넷 찧어서. 아이고, 방아 찧으려고 하면 손이 모두 터져.)
107065 @ 하하하.(하하하.)
107065 #2 뜸이 잘잘허고 이여 이여 이여 허멍 서이가 허다근에 대가리 탁 조지고.(땀이 좔좔하고 이여 이여 이여 하면서 셋이 하다가 대가리 탁 조지고.)
107065 @ 이거, 이거.(이거, 이거.)
107065 #2 이거 허다근에 잘못허영.(이거 하다가 잘못해서.)
107065 @ 아이고, 아파.(아이고, 아파.)
107065 #2 잘못허민.(잘못하면.)
107065 @ 잘못허민.(잘못하면.)
107065 #2 경허민 뜸이 잘잘 나게 그거 헤근에 또 ᄒᆞ쏠 저 방에 젖으민 저 거려내여근에 이젠 체로 쳐근에, 아래 건 ᄀᆞ루 뭰 거. 우이 건 또 ᄲᅳᆺ고. 또 이여 이여 허멍 비치락질허멍 허리도 아주 아프주게 영영 허 멍 그거 헤근에 경헤영 ᄀᆞ루 헤다근에 이젠 집이 와근에 저 다라에 놔근에 저 도고리, 도고리.(그러면 땀이 좔좔 나게 그거 해서 또 조금 저 방아 젖으면 저 떠서 이젠 체로 쳐서, 아래 건 가루 된 거. 위에 건 또 빻고. 또 이여 이여 하면서 비질하면서 허리도 많이 아프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거 해서 그래서 가루 해다가 이젠 집에 와서 저 대야에 넣어서 저

359) ‘침떡’은 팥 등의 고물을 묻힌 시루떡을 말한다. ‘친떡’, ‘시리떡’이라고도 한다.

함지박, 함지박.)

107065 @ 도고리.(함지박.)

107065 #2 저, 나무도고리.(저, 함지박.)

107065 @ 낭도고리.(함지박.)

107065 #2 으, 낭도고리. 그것에 낭도고리에 놔근에 물 놔근에 영 영 영 영 막 헤근에 막 젓어근에.(으, 함지박. 그것에 함지박 넣어서 물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마구 해서 마구 저어서.)

107065 @ 음.(음.)

107065 #2 젓어근에 그걸 영 영 영 영 문 복삭하게[360] 젓어, 부벼. 경헤근에 시리에 풋, 쳇 번 이디, 요거 시리민 요레 험벅 끌앙이. 요레 험벅 동글랑 험벅 끌앙 그레 풋 영 영 풋ᄀᆞ루. 풋 솖아근에 것도 방에 빳아근에 치나 안 치나 헤근에. 치민 하영 써지고 안 치민 하영 들어가 불고 경허주게.(저어서 그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두 '복삭하게' 저어, 비벼. 그래서 시루에 팥, 첫 번 여기, 요거 시루면 요리 헝겊 깔아서. 요리 헝겊 동그란 헝겊 깔아서 그리 팥 이렇게 이렇게 팥가루. 팥 삶아서 것도 방아 빻아서 치거나 안 치거나 해서. 치면 많이 쓰고 안 치면 많이 들어가 버리고 그러지.)

107065 @ 아.(아.)

107065 #2 경허주게. 치민 ᄀᆞ늘게 허민 하영 써지고 안 치민 그 ᄀᆞ슴이 하영 들어가 불고. 경허민 험벅 끌민 그레 영 놔근에 이젠 ᄀᆞ루 혼, 혼 사발 허민 어느 정도 뭔다 헤근에 요 노피 헤근에. 옛날엔 엇이난 막 ᄀᆞ늘게 헷저게.(그랬지. 치면 가늘게 하면 많이 쓰고 안 치면 그 감이 많이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헝겊 깔면 그리 이렇게 넣어서 이젠 가루 한, 한 사발 하면 어느 정도 된다 해서 요 높이 해서. 옛날에는 없으니까 아주 가늘게 했어.)

107065 @ 아.(아.)

107065 #2 지금은 이만이 헤도. 경헨 영 헨 멘쭈와근에[361] 영 멘쭈왕 그레 풋 혼 도리[362] 영 놔근에.(지금은 이만큼 해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멘쭈어서' 이렇게 '멘쭈어서' 그리 팥 한 '도리' 이렇게 넣어서.)

107065 @ 예.(예.)

107065 #2 또 ᄀᆞ루 ᄒᆞ나 놩 영 놓고. 경헨 우터레 혼 ᄋᆞ답 도리 뭴 거라, ᄋᆞ답 도리.(또 가루 하나 넣어서 이렇게 놓고. 그래서 위로 한 여덟 '도리' 될 거야, 여덟 '도리'.)

107065 @ ᄋᆞ답 도리, 여덟 징[363]을 허는 거라?(여덟 '도리', 여덟 '징'을 하는 거야?)

---

360) '복삭허다'는 솜 따위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말한다.

361) 여기서 '멘쭈다'는 쌀가루를 시루에 넣고 평평하게 고른다는 의미다.

362) '도리'는 둘레를 돌게 겹을 쌓은 것,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명사다.

363) '징'은 시루에 떡을 찔 때 알맞은 두께로 켜를 만들어 그 사이에 소를 넣어 켜로 나누어지게 만든 것을 말한다.

107065 #2 어, 징을. 경허민 그거 세 빗[364], ᄒᆞ나에 세 빗.(어, 켜를. 그러면 그거 세 '빗', 하나에 세 '빗'.)

107065 @ 예, 예.(예, 예.)

107065 #2 겡허민 에염에 건 동글락허게 ᄒᆞ쏠 족고 가운데 건 네귀방장 크곡. 경허민 어른신딘 가운데 거 안네곡 아이덜은 에염에 거 주곡.(그러면 옆에 거는 동그랗게 조금 작고 가운데 건 네모반듯 크고. 그러면 어른에게 가운데 거 드리고 아이들은 옆에 거 주고.)

107065 @ 에염에 거 주고. 하하하.(옆에 거 주고. 하하하.)

107065 #2 어. 시리떡 경헷저게.(어. 시루떡 그랬어.)

107065 @ 시리떡 경 헷어예?(시루떡 그렇게 했지요?)

107065 #2 어.(어.)

107065 @ 게민 보통 시리 헐 때 속에는 쏠 허고 우이는 풋?(그럼 보통 시루 할 때 속에는 쌀 하고 위에는 팥?)

107065 #2 으, 풋 허고.(으, 팥 하고.)

107065 @ 조로는 안 헤낫수과?(조로는 안 했었습니까?)

107065 #2 조, 조 시리도 그추룩 허고.(조, 조 시루도 그처럼 하고.)

107065 @ 조 시리도 그추룩.(조 시루도 그처럼.)

107065 #2 또 곤떡 곤쏠 ᄒᆞᆫ 도리 영 놩 좁썰 또 그레 ᄒᆞᆫ디 영 놔근에 허민 영 헹 말째 내영 보민 ᄒᆞᆫ착은 곤쏠, ᄒᆞᆫ착은 좁썰. 그런 떡 잇어낫저.(또 흰떡 흰쌀 한 '도리' 이렇게 넣어서 좁쌀 또 그리 같이 이렇게 넣어서 하면 이렇게 해서 말째 내어서 보면 한쪽은 흰쌀, 한쪽은 좁쌀. 그런 떡 있었어.)

107065 @ 그거는 무슨 떡이렌 안 헤난?(그거는 무슨 떡이라고 안 했었어?)

107065 #2 어?(어?)

107065 @ 그거는 무슨 떡?(그거는 무슨 떡?)

107065 #2 조침떡[365].('조침떡')

107065 @ 조침떡.('조침떡'.)

107065 #2 저 조로만도 헹 조침떡 허고 또 감저 썰어 놩 서꺼근에 조침떡. 그것에도 허고 감저 뺏데기 물류와근에.(저 조로만도 해서 '조침떡' 하고 또 고구마 썰어 넣어서 섞어서 '조침떡'. 그것에도 하고 고구마 절간고구마 말려서.)

107065 @ 예.(예.)

107065 #2 골아다근에 그레 감저 썰어 놩 거 치민 막 맛 좋아.(갈아다가 그리 고구마 썰어 넣어서 거 찌면 아주 맛 좋아.)

107065 @ 아.(아.)

107065 #2 뺏데기 골앙 감저 ᄀᆞ루 헤근에 그레 감저 썰어 놔근에 또 그추룩 치민이 막 맛 좋아.(절간고구마 갈아서 고구마 가루 해서 그리 고구마 썰어 넣어서 또

364) '빗'은 칼로 베어낸 시루떡의 낱개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다.
365) '조침떡'은 좁쌀로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그처럼 찌면 아주 맛 좋아.)

107065 @ 아, 그니까 그 감자 뻿데기에 옆에는 감저 뻿데기 간 가루.(아, 그러니까 그 고구마 절간고구마에 옆에는 고구마 절간고구마 간 가루.)

107065 #2 ᄀᆞ루, ᄀᆞ루. 간 ᄀᆞ루.(가루, 가루. 간 가루.)

107065 @ 완전 돌큰게.(완전 달겠네요.)

107065 #2 으.(으.)

107065 @ 와, 맛있겠다.(와, 맛있겠다.)

107065 #2 겐 거 막 맛 좋나.(그래서 거 아주 맛 좋아.)

107065 @ 그거는 뭐 그것도 그냥 시리떡이렌?(그거는 뭐 그것도 그냥 시루떡이라고?)

107065 #2 시리떡.(시루떡.)

107065 @ 감자 시리떡?(고구마 시루떡?)

107065 #2 게난 시리에 치난 시리떡. 건 시리에 들어가민 시리떡이라.(그러니까 시루에 찌니까 시루떡. 건 시루에 들어가면 시루떡이야.)

107065 @ 아.(아.)

107065 #2 거 영 동글랑헌 것에 들어가민 시리떡.(거 이렇게 동그란 것에 들어가면 시루떡.)

107065 @ 어쨋든 곤썰로 헤도 시리떡.(어쨌든 흰쌀로 해도 시루떡.)

107065 #2 좁썰로 헤도 시리떡.(좁쌀로 해도 시루떡.)

107065 @ 감저로 헤도 시리떡.(고구마로 해도 시루떡.)

107065 #2 으, 으 게도 시리떡.(으, 으 그래도 시루떡.)

107065 @ 게민 이거를 곤시리떡이렌은 안 허고?(그럼 이거를 '곤시리떡'이라고는 안 하고?)

107065 #2 곤시리떡[366]이렌 헌다게. 곤 건 곤시리떡.('곤시리떡'이라고 한다. 흰 건 '곤시리떡'.)

107065 @ 조 시리떡?(조시루떡?)

107065 #2 어.(어.)

107065 @ 감저 시리떡?(고구마시루떡?)

107065 #2 어, 어. 고달[367], 고달시리떡[368]은 저.(어, 어. '고달', '고달시리떡'은 저.)

107065 @ 고달?('고달'?)

107065 #2 고달시리떡은 곤썰을, 헌 걸 영 놩 우이 저 좁썰 놔근에 우이 픗 놩 허민 고달 뒈여근에 좁썰광 곤썰광 흔디 조합뒌 거.('고달시리떡'은 흰쌀을, 한 걸 이렇게 넣어서 위에 저 좁쌀 넣어서 위에 팥 넣어서 하면 '고달' 되어서 좁쌀과 흰

366) '곤시리떡'은 흰쌀로 만든 시루떡을 말한다.

367) '고달'은 좁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짓되 그 사이에 쌀가루를 넣어 켜를 안친 시루떡인 '고달시리떡'을 말한다.

368) '고달시리떡'은 좁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짓되 그 사이에 쌀가루를 넣어 켜를 안친 시루떡이다.

쌀과 같이 조합된 거.)
107065 @ 예.(예.)
107065 #2 거 흔착썩. 게난 고달시리떡.(거 한쪽씩. 그러니까 '고달시리떡'.)
107065 @ 고달시리떡?('고달시리떡'?)
107065 #2 으.(으.)
107065 @ 곤썰 하영 엇어부난?(흰쌀 많이 없으니까?)
107065 #2 으.(으.)
107065 @ 곤썰 하영 엇어부난.(흰쌀 많이 없으니까.)
107065 #2 으. 고달시리떡.(으. '고달시루떡'.)
107066 @ 송편은 옛날에 송펜이렌 헷수과?(송편은 옛날에 송편이라고 했습니까?)
107066 #2 송펜?(송편?)
107066 @ 으, 송펜.(으, 송편.)
107066 #2 송펜 송펜 헷주게.(송편 송편 했지.)
107066 @ 송펜 잇엇수과?(송편 있었습니까?)
107066 #2 어. 아이고, 막 옛날엔 엇엇저. 중간에사.(어. 아이고, 아주 옛날엔 없었어. 중간에야.)
107066 @ 그럼 예전에는?(그럼 예전에는?)
107066 #2 절벤, 솔벤. 솔벤, 절벤 또 인절미 중궤[369], 약궤[370] 저 거시기 웃찍.(절편, 솔편. 솔편, 절편 또 인절미 중계, 약과 저 거시기 웃기.)
107066 @ 으.(으.)
107066 #2 웃찍.(웃기.)
107073 @ 게민 절벤이랑 솔벤 그거 만드는 것 좀 ᄀᆞᆯ아 줍서. 절벤은?(그럼 절편이랑 솔편 그거 만드는 것 좀 말해 주세요. 절편은?)
107073 #2 절벤. 절벤 만들 땐 ᄀᆞ루 ᄀᆞᆯ앙 올 건 다 ᄀᆞ튼 거 아냐?(절편. 절편 만들 땐 가루 갈아서 올 건 다 같은 거 아니냐?)
107073 @ 예.(예.)
107073 #2 ᄀᆞ루 ᄀᆞᆯ아다근에 물에.(가루 갈아다가 물에.)
107073 @ 곤썰 ᄀᆞᆯ아 오는 거예?(흰쌀 갈아 오는 거요?)
107073 #2 으, 곤썰 ᄀᆞ루 ᄀᆞᆯ아다근에 물에 버물여근에. 물 꿰왕.(으, 흰쌀 가루 갈아다가 물에 버무려서. 물 끓여서.)
107073 @ 예.(예.)
107073 #2 물도 언물 아니. 꿰왕. 꿰왕 놔근에 버무려근에 그걸 영영 버물영 ᄒᆞ쏠 ᄒᆞ쏠 톤아 놩 저 솟디 놩 쳐.(물도 찬물 아니. 끓여서. 끓여서 넣어서 버무려서 그걸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서 조금 조금 뜯어 넣어서 저 솥에 넣어서 쪄.)

369) '중궤'는 좁쌀 가루나 메밀가루로 기름하게 만들어 기름에 튀긴 떡을 말한다. 표준어의 '중계'에 대응할 수 있으나, 재료나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370) '약궤'는 좁쌀가루나 밀가루 따위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구멍 다섯을 내고 기름에 지지거나 삶아낸 떡이다.

107073 @ 음.(으.)

107073 #2 쪄. 바드렝이 놔근에. 쪄근에 그걸 익으민 이레 물싹물싹헤근에 막 달롸. 달롸근에 영 영 밀어근에 ᄒᆞ쏠썩 허멍 절벤 멘들주게. 영 동글랑동글랑허게 헨 두 개 부쪄.(쪄. 겅그레 넣어서. 쪄서 그걸 익으면 이리 물씬물씬해서 마구 이겨. 이겨서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조금씩 하면서 절편 만들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두 개 붙여서.)

107073 @ 아니 동글랑동글랑허게 헹 뭐로 찍어내는 거 아니?(아니 동글동글하게 해서 뭐로 찍어내는 거 아니?)

107073 #2 찍어내는 절벤 저 거시기가 잇주. 저 본이 잇주.(찍어내는 절편 거 거시기가 있지. 저 떡살이 있지.)

107073 @ 절벤 본?(절편 떡살?)

107073 #2 으, 솔벤 본 잇고, 절벤 본 잇고. 인절민 기자 칼로 잘라내고.(으, 솔편 본 있고, 절편 본 있고. 인절미 그저 칼로 잘라내고.)

107073 @ 그럼 절벤은 영 영 동글랑동글랑허게.(그럼 절편은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107073 #2 동글랑동글랑 두 개 부쪙.(동글동글 두 개 붙여서.)

107073 @ 두 개 부쪙.(두 개 붙여서.)

107073 #2 우로 꼭 누뜨령.(위로 꼭 눌러서.)

107073 @ 예.(예.)

107073 #2 솔벤은 그 물 꿰와근에 그거 ᄀᆞ루 거시긴 달롸근에 밀어 밀어. 돔베에 놔근에 벵 헤다근에 영 영 밀어근에 솔벤 본 영헹 영헌 거 잇주게. 영헌 거. 그걸로 톡톡 찍어내영 쪄.(솔편은 그 물 끓여서 그거 가루 거시긴 이겨서 밀어 밀어. 도마에 놔서 병 해다가 이렇게 이렇게 밀어서 솔편 떡살 이렇게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그걸로 톡톡 찍어내서 쪄.)

107073 @ 쪄.(쪄.)

107073 #2 찌민 그거 솔벤. 솔벤에 뭐 거시기 솔입, 솔입 헤다 놩. 솔입 헤당 찌민 솔입 내 코시롱허고 저 믄 그레 그려지고, 솔벤에. 믄 그려져.(찌면 그거 솔편. 솔편에 뭐 거시기 솔잎, 솔잎 해다 놓고. 솔잎 해다가 찌면 솔잎 내 고소하고 저 모두 그리 그려지고, 솔편에. 모두 그려져.)

107073 @ 그럼 찔 때 물에 놩 찌는 거 아니면?(그럼 찔 때 물에 넣어서 찌는 거 아니면?)

107073 #2 물 놔근에 바드렝이 놔근에 우터레 짐만 올리는 거. 짐만 올리는 거.(물 넣어서 겅그레 넣어서 위로 김만 올리는 거. 김만 올리는 거.)

107073 @ 게민 바드렝이에 솔입을 까는 거?(그럼 겅그레에 솔잎을 까는 거?)

107073 #2 깔아근에 솔입 ᄒᆞᆫ착, ᄒᆞᆫ 도리[371] 놩 우터레 또 솔입 놔근에 경헤근에 찌는 거. 경허민 믄 기려지고 솔벤에 믄 기려지고.(깔아서 솔잎 한쪽, 한 '도리' 놔

371) '도리'는 둘레를 돌게 겹을 쌓은 것, 또는 그것을 세는 단위 명사다.

서 위로 또 솔잎 놔서 그래서 찌는 거. 그러면 모두 그려지고 솔편에 모두 그려지고.)

107073 @ 예.(예.)

107073 #2 지금은 솔벤 헤도 저 방엣간에 강 헤 오난 그대로 밀엉 그대로 찌는 거.(지금은 솔편 해도 저 방앗간에 가서 해 오니까 그대로 밀어서 그대로 찌는 거.)

107075 @ 음. 우찍은 어떤 것과?(음. 웃기는 어떤 겁니까?)

107075 #2 우찍은이, 우찍은 그추룩 떡 궤는 물에 헤근에 줄게 헤근에 줄게 헹동글랑허게 잔으로 똑똑 떠내영 게민 동글랑허게 요만썩 헌 거, 젤 우이 올리는 거.(웃기는, 웃기는 그처럼 떡 끓는 물에 해서 잘게 해서 잘게 해서 동그랗게 잔으로 똑똑 떠내서 그럼 동그랗게 요만큼씩 한 거, 제일 위에 올리는 거.)

107075 @ 젤 우이 올리는 거. 우리 집은 그거 지름떡을 경 헤낫거든마씨.(제일 위에 올리는 거. 우리 집은 그거 기름떡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107075 #2 어, 지름떡.(어, 기름떡.)

107075 @ 지름떡을 우찍으로 써난예?(기름떡을 웃기로 썼었어요?)

107075 #2 어. 지름떡은 크주, 커. 견디 우찍이 뚜로 잇나. 우찍이 뚜로 잇어. 요만썩 헤근에.(어. 기름떡은 크지, 커. 그런데 웃기가 따로 있어. 웃기가 따로 있어. 요만큼씩 해서.)

107075 @ 게민 아까 영 떠근에.(그럼 아까 이렇게 떠서.)

107075 #2 으, 잔으로 똑 헤근에.(으, 잔으로 똑 해서.)

107075 @ 그럼 그거 떠근에 솖으는 것과?(그럼 그거 떠서 삶는 겁니까?)

107075 #2 쪄, 쪄. 솔벤에 흔디 놩 쪄. 경 안허민 기자 솖아 내영 밀어 내영 솔벤도 뜨고 그것도 뜨고 허는 거주. 경헌디 정성 들영 허는 건 솔입 헤다 놩 찌는 거.(쪄, 쪄. 솔편에 같이 넣어서 쪄. 그렇지 않으면 그저 삶아 내어서 밀어 내서 솔편도 뜨고 그것도 뜨고 하는 거지. 그런데 정성 들여서 하는 건 솔입 해다 넣고 찌는 거.)

107075 @ 으.(으.)

107075 #2 솔입 헤다 놩.(솔입 해다 놓고.)

107075 @ 게민 이디 지름떡은 따로 안 헙니까?(그럼 여기 기름떡은 따로 안 합니까?)

107075 #2 아니, 지금덜은 먹젠 헌다게. 우리도 멩질 땐 느량 헌다. 아이덜 지름떡, 지름떡 허난.(아니, 지금들은 먹으려고 한다. 우리도 명질 땐 늘 한다. 아이들 기름떡, 기름떡 하니까.)

107075 @ 겐디 옛날에는 맨 우이 올리는 거 우찍인 거라예?(그런데 옛날에는 맨 위에 올리는 거 웃기인 거지요?)

107075 #2 또 올리는, 상에 궵시[372] 헐 때 시리떡 영 놔 낭.(또 올리는, 상에 '궵시' 할 때 시루떡 이렇게 놓고 나서.)

372) '궵시'는 제사상에 올릴 제물을 그릇 위에 올려놓은 것을 말한다.

107075 @ 예.(예.)
107075 #2 우이 중궤 놔근에 그다음 약궤 놔근에 그다음 인절미 놔근에 그다음 절벤 놔근에.(위에 중계 놓고 그다음 약과 놓고 그다음 인절미 놓고 그다음 절편 놓아서.)
107075 @ 절벤.(절편.)
107075 #2 그다음 솔벤 놔근에 그 우터레 우찍 세 개.(그다음 솔편 놓고 그 위에 웃기 세 개.)
107075 @ 우찍 세 개. 하하하.(웃기 세 개. 하하하.)
107075 #2 우찍은, 우찍은 별.(웃기는, 웃기는 별.)
107075 @ 별.(별.)
107075 #2 솔벤은 달.(솔편은 달.)
107075 @ 달.(달.)
107075 #2 절변은 저 해.(절편은 저 해.)
107075 @ 예.(예.)
107072 #2 또 인절민 거 뭐라고 허더라만은 또 저 시리떡은 땅. 그거 다 거 의미가 있는 거.(거 인절민 거 뭐라고 하더라만 또 저 시루떡은 땅. 그거 다 거 의미가 있는 거.)
107072 @ 의미가 있는 거예.(의미가 있는 거요.)
107072 #2 어.(어.)
107069 @ 게민 그렇게 올리는 거 제사 때나.(그럼 그렇게 올리는 거 제사 때나.)
107069 #2 멩질 때나.(명질 때나.)
107069 @ 멩질 때나 ᄀᆞ튼 거잖아예.(명질 때나 같은 거잖아요.)
107069 #2 으.(으.)
107070 @ 상났을 때, 장례식헐 때는 어떵헙니까?(초상났을 때, 장례식할 때는 어떡합니까?)
107070 #2 상난 때?(초상났을 때?)
107070 @ 상난 때 떡은 어떤 떡 헙니까?(초상난 때 떡을 어떤 떡 합니까?)
107070 #2 그거 그거 저 엿날엔 다 헷주게.(그거 그거 저 옛날엔 다 했지.)
107070 @ 으.(으.)
107070 #2 다 헤도 요샌 절벤, 솔벤 허고 인절미, 시리떡. 거벳기 안 허여.(다 해도 요새는 절편, 솔편 하고 인절미, 시루떡. 거밖에 안 해.)
107070 @ 옛날에 다 헷덴 허민 어떤 떡?(옛날에 다 했다고 하면 어떤 떡?)
107070 #2 중궤, 약궤. 중궨이 어떤 건고 허민 이추룩 쫄랑헌 거. 약궨 네귀방장헌 거.(중계, 약과. 중계는 어떤 건가 하면 이처럼 짧은 거. 약과는 네모반듯한 거.)
107070 @ 중궤 영 길쭉헌 거?(중계 이렇게 길쭉한 거?)
107070 #2 어, 길쭉헌 거.(어, 길쭉한 거.)

107070 @ 게민 이것도 곤쏠로 허는 거.(그럼 이것도 흰쌀로 하는 거.)

107070 #2 곤쏠 헤근에 요추룩, 요 정도. 요추룩 허주게. 또 약궨 영 헨 네귀방장허영 고망 네 밧디 뚤랑 영 헨 영 헨 요 중궤나 약궤나 지름에 튀겨.(흰쌀 해다가 이처럼, 요 정도. 요처럼 하지. 또 약과는 이렇게 해서 네모반듯해서 구멍 네 군데 뚫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중계나 약과나 기름에 튀겨.)

107070 @ 아.(아.)

107070 #2 지름에 또 이 후라이팬에 튀겨.(기름에 또 이 프라이팬에 튀겨.)

107070 @ 아, 지져근에.(아, 지져서.)

107070 #2 으. 튀경, 중궤, 약궤 튀기고 약궨 고망 뚤르고 중궤 쫄랑헌 거. 또 인절민 영 헤영 쪼꼼 이 길인 ᄒᆞ쏠 길고 세론 ᄒᆞ쏠 쫄르고 경헤여근에 네모나게 헤근에 건 인절미. 그다음 그다음은 또 우터레 올리는 건 절벤 동글랑헌 거.(으. 튀겨서 중계, 약과 튀기고 약과는 구멍 뚫고 중계 짧은 거. 또 인절민 이렇게 해서 조금 이 길이는 조금 길고 세로는 조금 짧고 그래서 네모나게 해서 건 인절미. 그다음 그다음은 또 위로 올리는 건 절편 동그란 거.)

107070 @ 예, 예.(예, 예.)

107070 #2 그다음은 솔벤 둘. 또 그 우인 별.(그다음은 솔편 달. 또 그 위에는 별.)

107070 @ 별, 우찍.(별, 웃기.)

107070 #2 어, 우찍.(어, 웃기.)

107066 @ 이제는 송펜도 허잖아예?(이제는 송편도 하잖아요?)

107066 #2 으게, 송펜도 헤, 이젠.(으, 송편도 해, 이젠.)

107066 @ 송편 만들어 줍서.(송편 만들어 주세요.)

107066 #2 송펜 허는 건 기자 저 거시기 꿰는 물에 ᄀᆞ루헤근에 막 달롸근에 저 쪼끔 솖아 내여근에 반반 솖아 내여근에 허는 사름이 잇고 그대로 허는 사름이 잇고. 그 반반 솖아근에 그 생떡에 어울령 달롱 허민 ᄒᆞ기가 손쉽고.(송편 하는 건 그 저 저 거시기 끓는 물에 가루해서 마구 이겨서 저 조금 삶아 내서 반반 삶아 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반반 삶아서 그 생떡에 어울려서 이겨서 하면 하기가 손쉽고.)

107066 @ 아.(아.)

107066 #2 영, 영 밀지 안헤도. 또 원 안 솖앙 그대로 달루민 영 헤도 케삭[373], 영 헤도 케삭 어우러지질 잘 안허여.(이렇게, 이렇게 밀지 않아도. 또 원 안 삶아서 그대로 이기면 이렇게 해도 '케삭', 이렇게 해도 '케삭' 어우러지질 잘 않아.)

107066 @ 예.(예.)

107066 #2 게난 쪼끔 솖앙 허민 잘 어우러졍 만들기가 좋아. 겐 만들 때 똑 조개솔벤[374] 허듯이 영 동글랑허게 헹 요레 앙꼬[375] 담아근에 벵벵 헹 돌리민 송펜

373) '케삭'은 밥이나 가루 반죽 따위가 찰기가 없어서 잘 뭉쳐지지 않고 흐트러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374) '조개솔벤'은 쌀가루 따위를 익반죽 하여 안에 팥소 등을 조개 모양으로 만든 떡을 말한다.
375) '앙꼬'는 떡이나 빵 안에 든 팥을 말한다. 여기서는 팥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떡 안에 들어가는 소를

뒈는 거.(그러니까 조금 삶아서 하면 잘 어우러져서 만들기가 좋아. 그래서 만들 때 꼭 '조개솔벤' 하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요리 소 담아서 뱅뱅 해서 돌리면 송편 되는 거.)

107066 @ 앙꼬는 뭐로 쓰는 거?(소는 뭐로 쓰는 거?)

107066 #2 앙꼰, 앙꼰이 거시기 요새 콩 게역도 잇고 풋도 솖앙 허고. 또 기자 두불콩도 솖앙 허고 건 기자 종류대로 또 완두콩도 잇고.(소는, 소는 거시기 요새 콩 미숫가루도 있고 팥도 삶아서 하고. 또 그저 두불콩도 삶아서 하고 건 그저 종류대로 또 완두콩도 있고.)

107066 @ 콩이랑 두불콩이랑 틋납니까? 두불콩이 뭐?(콩이랑 두불콩이랑 다릅니까? 두불콩이 뭐?)

107066 #2 두불콩은 저 흔 해에 두 번 허는 거. 벌경헌 거.(두불콩은 저 한 해에 두 번 하는 거. 벌건 거.)

107066 @ 아.(아.)

107066 #2 벌경헌 거 요만썩 홁은 거. 기자 장콩은 흔 해에 흔번 허는 거 준준헌 거. 그런 거 솖앙 삐져근에 그레 담고. 풋도 솖앙 그레 담고.(벌건 거 요만큼씩 굵은 거. 그저 장콩은 한 해에 한번 하는 거 자잘한 거. 그런 거 삶아서 빻아서 그리 담고. 팥도 삶아서 그리 담고.)

107066 @ 담고.(담고.)

107066 #2 또 마농콩 요새 맛존 거 마농콩 나와. 그거 헤근에 허고. 또 콩ᄀᆞ루, 콩 게역.(또 '마농콩' 요새 맛있는 거 '마농콩' 나와. 그거 해서 하고. 또 콩가루, 콩 미숫가루.)

107066 @ 마농콩은 퍼렁헌 거.('마농콩'은 파란 거.)

107066 #2 퍼렁헌 퍼런 거. 또 콩 게역. 콩 게역도 담곡.(퍼런 퍼런 거. 또 콩 미숫가루. 콩 미숫가루도 담고.)

107067 @ 여기 빙떡은 빙떡이엔 헙니까?(여기 빙떡은 빙떡이라고 합니까?)

107067 #2 젱기, 젱기.('젱기', 빙떡.)

107067 @ 젱긴 어떵 만듭니까?(빙떡은 어떻게 만듭니까?)

107067 #2 젱긴 ᄆᆞ물ᄀᆞ루 언물에 카근에. 것도 카젠 허민 벙뎅이 안 지게 카사. 잘헤사주, 저 서튼 사름 허민 벙뎅이져 벵 안 뒈여.(빙떡은 메밀가루 찬물에 타서. 것도 타려고 하면 덩어리 안 지게 타야. 잘해야지, 저 서툰 사람 하면 덩어리져 버려서 안 돼.)

107067 @ 음.(음.)

107067 #2 그 물을 알맞게 놔근에 솔솔 젓어가멍 놔사주이. 홈치 물 바락 놔도 안 뒈고 족영 놔도 안 뒈고 그건 물 맞게 카사. 경헨 막 카근에 솟디 영 지지멍게 놈삐 솖아근에 마농에 서꺼근에, 마농에 꿰ᄀᆞ루에 놈삐에 영 서꺼근에 담으멍 물민 거 정기주게. 정기 거 맛 좋아.(그 물을 알맞게 넣어서 살살 저어가면서 넣어야지.

가리킨다.

한꺼번에 물 바락 넣어도 안 되고 적게 넣어도 안 되고 그건 물 맞게 타야. 그래서 마구 타서 솥에 이렇게 지지면서 무 삶아서 마늘에 섞어서, 마늘에 깻가루에 무에 이렇게 섞어서 담으면서 말면 거 빙떡이지. 빙떡 거 맛 좋아.)

107067 @ 음. 정기?(음. 빙떡?)

107067 #2 으.(으.)

107068 @ 여기 상웨떡은 안 헤낫수과?(여기 상화떡은 안 했었습니까?)

107068 #2 상웨떡은 밀ᄀᆞ루 헤근에 막걸리 사다 놓고 우유 사다 놓고 헤여근에 그것에 저 흔디 ᄆᆞᆯ아 그거 놔근에.(상화떡은 밀가루 해서 막걸리 사다 넣고 우유 사다 넣고 해서 그것에 저 같이 말아 그거 넣어서.)

107068 @ 예, 예.(예, 예.)

107068 #2 계란도 카 놓고.(계란도 타 넣고.)

107068 @ 계란도 카 놓고.(계란도 타 넣고.)

107068 #2 으, 계란은 카 놓민 복삭복삭허여.[376](으, 계란은 타 넣으면 '복삭복삭해'.)

107068 @ 예.(예.)

107068 #2 경헨 그 상웨떡을 ᄆᆞᆯ앙 더꺼근에 흔 멧 시간 놔둬사. 됫게시리 저 거시기 온돌방에.(그래서 그 상화떡을 말아서 덮어서 한 몇 시간 놔둬야. 따뜻하게끔 저 거시기 온돌방에.)

107068 @ 음.(음.)

107068 #2 온돌방에 이불 ᄀᆞᆯ고 이불 더끄고 헤근에. 멧 시간 놔두민 우터레 부각허게[377] 나 가. 경허민 밀엉. 밀멍 쳐도 뒈고 밀엉 ᄒᆞ꼼 놔둬사 좋고.(온돌방에 이불 깔고 이불 덮고 해서. 몇 시간 놔두면 위에 '부각하게' 나 가. 그러면 밀어서. 밀면서 쳐도 되고 밀어서 조금 놔둬야 좋고.)

107068 @ 예.(예.)

107068 #2 경헨 것도 잘 뒈여.(그래서 것도 잘 돼.)

107068 @ 게난 상웨떡은 제사상이나 상에 안 올립니까?(그러니까 상화떡은 제사상이나 상에 안 올립니까?)

107068 #2 상에 올린다.(상에 올려.)

107068 @ 올려. 게민.(올려. 그럼.)

107068 #2 으, 엿날은이 엿날은 시리떡 올리고 상웨떡은 아니 올려난 셍이라. 그거 먹을 걸로 헤영. 경헌디 요즘은 그거 아니.(으, 옛날은 옛날은 시루떡 올리고 상화떡은 안 올렸던 모양이야. 그거 먹을 거로 해서. 그런데 요즘은 그거 아니.)

107068 @ 예.(예.)

107068 #2 요샌 다 올려.(요새는 다 올려.)

107068 @ 시리떡 다음에 상웨떡을 올리는 거라?(시루떡 다음에 상화떡을 올리

376) '복삭복삭허다'는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상태를 나타낸 말이다.
377) '부각허다'는 거품이나 솜 따위가 잘 피어오른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는 거야?)

107068 #@ 으, 요샌 다 올려.(으, 요새는 다 올려.)

107069 @ 솔벤, 절벤을 안 허는 거 아니, 요즘?(솔편, 절편은 안 하는 거 아니, 요즘?)

107069 #2 으, 안 허는 디도 잇곡 허는 디도 잇곡.(으,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 데도 있고.)

107069 @ 허는 디도 잇곡.(하는 데도 있고.)

107069 #2 솔벤, 절벤 안 허영 그 인절미, 첨 송펜, 송펜만 허는 디 잇고 조개솔편[378] 또, 둘 영 헨 둘거치 허는 거, 접는 거.(솔편, 절편 안 해서 그 인절미, 첨 송편, 송편만 하는 데 있고 '조개솔편' 또, 달 이렇게 달같이 하는 거, 접는 거.)

107069 @ 예, 예.(예, 예.)

107069 #2 만두거치이.(만두같이.)

107069 @ 만두거치?(만두같이?)

107069 #2 어, 그추룩 허는 거.(어, 그처럼 하는 거.)

107069 @ 그거를 조개송편이렌 헤?(그거를 '조개송편'이라고 해?)

107069 #2 으, 조개솔편.(으, '조개솔편'.)

107069 @ 아, 조개솔편.(아, '조개솔편'.)

107069 #2 으, 조개. 조개 닮으난 조개솔편. 하하하.(으, 조개. 조개 같으니까 '조개솔편'. 하하하.)

107072 @ 인절민 어떵 만듭니까?(인절미는 어떻게 만듭니까?)

107072 #2 인절미도 똑ᄀᆞ타. 이거 밀어근에 떠내는 거. 저 중궤, 약궤도 밀엉 떠내영 영 약궨 고망 뚤라근에 지져 내고.(인절미도 똑같아. 이거 밀어서 떠내는 거. 저 중계, 약과도 밀어서 떠내서 이렇게 약과는 구멍 뚫어서 지져 내고.)

107072 @ 지져 내고.(지져 내고.)

107072 #2 요즘은 그거, 엿날벳긴 안 헌다, 이젠.(요즘은 그거, 옛날밖에 안 한다, 이젠.)

107072 @ 인절미에 우에 콩고물 무치고 그런 건 안 헤?(인절미에 위에 콩고물 묻히고 그런 건 안 해?)

107072 #2 콩ᄀᆞ루 무치고 허는 건 상에 잘 안 올리고 먹는 거.(콩가루 묻히고 하는 건 상에 잘 안 올리고 먹는 거.)

107072 @ 먹는 건 무치고?(먹는 건 묻히고?)

107072 #2 어. 먹는 거 콩ᄀᆞ루 미치고 속떡이여 무시거 허는 건 거 먹는 거. 상에 예비로 올림은 헤도 춤상으론 안 올리주게. 예비, 예비.(어. 먹는 거 콩가루 묻히고 쑥떡이며 뭐 하는 건 거 먹는 거. 상에 예비로 올리기는 해도 참상으로는 안 올리지. 예비, 예비.)

107072 @ 예. 게니까 영 제헐 때는 안 올리고.(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할 때는

---

378) '조개솔편'은 쌀가루 따위를 익반죽 하여 안에 팥소 등을 조개 모양으로 만든 떡을 말한다.

안 올리고.)

107072 #2 으, 예비 예비.(으, 예비 예비.)

107076 @ 그럼 고사나 당에 갈 때, 당에 고사허레 갈 때 그때는 어떤 떡 헹 갓어.(그럼 고사나 당에 갈 때, 당에 고사하러 갈 때 그때는 어떤 떡 해서 갔어.)

107076 #2 떡 저 흰 ᄀᆞ루 ᄀᆞᆯ아다근에 저 꿰는 물 놔근에 영 돌레떡 멘글앙. 영 영 멘글앙 솖앙. 솖앙 건져 내근에 경헨 가낫저게.(떡 저 흰 가루 갈아다가 저 끓는 물 넣어서 이렇게 도래떡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삶아서. 삶아서 건져 내서 그렇게 갔었어.)

107076 @ 그걸 무슨 떡이렌 ᄀᆞᆯ아?(그걸 무슨 떡이라고 말해?)

107076 #2 어?(어?)

107076 @ 그걸 무슨 떡이렌 ᄀᆞᆯ아?(그걸 무슨 떡이라고 말해?)

107076 #2 그건 저.(그건 저.)

107076 @ 일름이? 돌레떡?(이름이? 도래떡?)

107076 #2 돌레떡. 어, 돌레떡.(도래떡. 어, 도래떡.)

107076 @ 돌레떡예?(도래떡요?)

107076 #2 어.(어.)

107076 @ 게민 그건 곤쏠로도 허고.(그럼 그건 흰쌀로도 하고.)

107076 #2 ᄆᆞ물쏠로 허고.(메밀쌀로 하고.)

107076 @ ᄆᆞ물쏠로 허고?(메밀쌀로 하고?)

107076 #2 어, ᄆᆞ물쏠로 허고.(어, 메밀쌀로 하고.)

107076 @ 게난 당에도 삼춘도 뎅겨낫수과?(그러니까 당에도 삼촌도 다녔었습니까?)

107076 #2 으, 뎅겨낫저. 막 뎅겻져. 막 뎅경 ᄉᆞ못 밤중에 헤근에 막 뎅겻저.(으, 다녔었어. 마구 다녔었어. 마구 다녀서 사뭇 밤중에 해서 마구 다녔어.)

107076 @ 언제 당에 갑니까? 메칠날?(언제 당에 갑니까? 며칟날?)

107076 #2 저 거시기 유월 초 일뤠날 열여, 츰 열에일뤳날, 스무일뤳날 허고.(저 거시기 유월 초 이레 열여, 참 열이레, 스무이레 하고.)

107076 @ 음.(음.)

107076 #2 동짓덜 초일뤳날, 열에일뤳날, 스무일뤳날 경헨 당에 가주, 이디. 경헌디 다른 딘 정월덜에 뎅기는 디도 잇어.(동짓달 초이레, 열이레, 스무이레 그렇게 당에 가지, 여기. 그런데 다른 데는 정월달에 다니는 데도 있어.)

107076 @ 잇어.(있어.)

107076 #2 으. 우린 이 토평은 유월광 동지덜 그때 뎅겨낫저.(으. 우리는 이 토평은 유월과 동짓달 그때 다녔었어.)

107076 @ 게민 그거는, 여기 토평에 잇인 당은 무슨 당이렌 ᄀᆞᆯ아낫수과?(그럼 그거는, 여기 토평에 있는 당은 무슨 당이라고 말했습니까?)

107076 #2 감동당[379]이여, 본향이여 경 ᄀᆞᆯ아낫저.('감동당'이야, 본향이야 그렇게

말했었어.)

107076 @ 아.(아.)

107076 #2 감동당이엔도 곧고 본향이엔도 곧고.('감동당'이라고도 말하고 본향이라고도 말하고.)

107076 @ 저기 굿헐 때는 어떤 떡덜 헤낫수과?(저기 굿할 때는 어떤 떡들 했었습니까?)

107076 #2 돌레떡게.(도래떡.)

107077 @ 굿헐 때 돌레떡?(굿할 때 도래떡?)

107077 #2 돌레떡 기자. 돌레떡벳기. 먹을 떡을 상웨떡 거튼 거 허곡.(도래떡 그저. 도래떡밖에. 먹을 떡을 상화떡 같은 거 하고.)

107077 @ 예.(예.)

107077 #2 기자 일반 먹을 떡은.(그저 일반 먹을 떡은.)

107077 @ 예.(예.)

107077 #2 손님덜 가민 대접허는 거.(손님들 가면 대접하는 거.)

107077 @ 예. 그건 상웨떡 허고.(예. 그건 상화떡 하고.)

107077 #2 으, 상웨떡 허고 돌레떡 기자.(으, 상화떡 하고 도래떡 그저.)

107078 @ 아까 골앗던 떡덜 중에 안 곤 거 무슨 속인절미니? 속떡?(아까 말했던 떡들 중에 안 말한 거 무슨 쑥인절미니? 쑥떡?)

107078 #2 으, 속떡.(으, 쑥떡.)

107078 @ 그건 어떤 거라?(그건 어떤 거야?)

107078 #2 속떡은 속 캐당 솖아근에 저 그 ᄀᆞ루에 놩 ᄀᆞ치 찌는 거. ᄀᆞ치 쪙 만드는 거.(쑥떡은 쑥 캐다가 삶아서 저 그 가루에 넣어서 같이 찌는 거. 같이 쪄서 만드는 거.)

107078 @ 으. 속 서끄는 것과?(으. 속 섞는 겁니까?)

107078 #2 으, 서꺼근에. 서껑, ᄀᆞ루에 서꺼근에.(으, 섞어서. 섞어서, 가루에 섞어서.)

107078 @ 예.(예.)

107078 #2 그거 시리에 놩 쪄근에. 그거 납작허게 헤근에 밀어근에 경헨 떠내는 거. 방앗간에서 다 경헴주.(그거 시루에 넣어서 쪄서. 그거 납작하게 해서 밀어서 그래서 떠내는 거. 방앗간에서 다 그러지.)

107078 @ 게민 그것도 제사상에 올려 아니면?(그럼 그것도 제사상에 올려 아니면?)

107078 #2 예비, 예비.(예비, 예비.)

107078 @ 예비로. 먹는 거예?(예비로. 먹는 거요?)

107078 #2 으, 먹는 거 예비.(으, 먹는 거 예비.)

107078 @ 또 뭐 잇수과? 그거 말고 떡?(또 뭐 있습니까? 그거 말고 떡?)

379) '감동당'은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었던 당 이름이다.

107078 #2 그거 말고 몰르켜, 나. 동글랑 떡 요새덜 요만썩헌 것덜 잘 나완게.(그거 말고 모르겠어, 나. 동그란 떡 요새들 요만한 것들 잘 나오더라.)

107078 @ 하하하.(하하하.)

107078 #2 요즘덜.(요즘들.)

107078 @ 동글랑 떡.(동그란 떡.)

107078 #2 어. 요만썩헌 것덜 빨간 물, 푸린 물, 노란 물 들이멍 그거 요새.(어. 요만한 것들 빨간 물, 푸른 물, 노란 물 들이면서 그거 요새.)

소와 고물

107079 @ 아까 송편 만들 때도 물어봣수다만은 영 안에 넣는 거?(아까 송편 만들 때도 물어봤습니다만 이렇게 안에 넣는 거?)

107079 #2 앙꼬[380].(소.)

107079 @ 그거는 뭐 뭐 헤신고? 앙꼬는 아까 콩도 허고 폿도 허고?(그거는 뭐 뭐 했는지? 소는 아까 콩도 하고 팥도 하고?)

107079 #2 저 두불콩이나 저 기자 보리콩도 허고.(저 두불콩이나 저 그저 완두콩도 하고.)

107079 @ 보리콩도 허고.(완두콩도 하고.)

107079 #2 콩ᄀᆞ루도 허고 저 게역, 게역.(콩가루도 하고 저 미숫가루, 미숫가루.)

107079 @ 게역.(미숫가루.)

107079 #2 보까근에 ᄀᆞ는 거. 저 만두콩[381]도 허고 요새는이. 옛날엔 만두콩 엇엇저.(볶아서 가는 거. 저 '만두콩'도 하고 요새는. 옛날에는 '만두콩' 없었어.)

107079 @ 음.(음.)

107079 #2 옛날은 폿 대개.(옛날은 팥 대개.)

107079 @ 예.(예.)

107079 #2 대개 폿.(대개 팥.)

107079 @ 만두콩은 어떤 거라?('만두콩'은 어떤 거야?)

107079 #2 만두콩은 저 거시기 콩. 두불콩 닮은 거 말고 동글랑 콩인데 물 들여진 거라라.('만두콩'은 저 거시기 콩. 두불콩 같은 거 말고 동그란 콩인데 물 든 거더라.)

107079 @ 거 만두콩이렌 헙니까?(거 '만두콩'이라고 합니까?)

107079 #2 으, 만두콩이렌 헹 이 방엣간에 나와.(으, '만두콩'이라고 해서 이 방앗간에서 나오.)

107079 @ 예, 예.(예, 예.)

107079 #2 요새 나온다. 퍼렁헌 거이. 거 돈 줭 사민 뒈는 거고. 경 안허민 폿

380) '앙꼬'는 떡이나 빵 안에 든 팥을 말한다. 여기서는 팥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떡 안에 들어가는 소를 가리킨다.

381) '만두콩'은 콩의 한 종류다

솖아근에 쳐 내여근에 그거 놓곡 뚜시 콩 게역.(요새 나와. 퍼런 거. 거 돈 줘서 사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팥 삶아서 쪄 내서 그거 넣고 또 콩 미숫가루.)

107079 @ 콩 게역?(콩 미숫가루?)

107079 #2 콩 게역 그것에 집이 왕 설탕 놔근에 버물영.(콩 미숫가루 그것에 집에 와서 설탕 넣어서 버무려서.)

107079 @ 버물영.(버무려서.)

107079 #2 물 쪼금 놓곡.(물 조금 넣고.)

107079 @ 그거는 안에 넣는 거지예?(그거는 안에 넣는 거지요?)

107079 #2 으, 속에 담는 거.(으, 속에 담는 거.)

107080 @ 속에 담는 거고 무치는 거는 우에?(속에 담는 거고 무치는 거는 위에?)

107080 #2 우엔 저 무시거 무치지 안허여, 다.(위에 저 뭐 무치지 않아, 다.)

107080 @ 아니, 침떡 헐 때. 시리떡 헐 때?(아니, 시루떡 할 때. 시루떡 할 때?)

107080 #2 시리떡 헐 땐 풋, 풋.(시루떡 할 때는 팥, 팥.)

107080 @ 콩은 안 헙니까, 녹디나?(콩은 안 합니까, 녹두나?)

107080 #2 녹디 헌다게. 녹디도 허고 경헤도 주로 풋.(녹두 한다, 녹두도 하고 그래도 주로 팥.)

107080 @ 주로 풋.(주로 팥.)

107080 #2 으, 주로 풋, 아니 놈도 허고 기자. 경헌디 옛날은 솔벤, 절벤 문 올린 땐 풋 안 놩 풋은 저 귀신신디 반대허는 거엔.(으, 주로 팥, 아니 넣기도 하고 그저. 그런데 옛날은 솔편, 절편 모두 올렸을 때는 팥 안 놓고 팥은 저 귀신에게 반대하는 거라고.)

107080 @ 맞아.(맞아.)

107080 #2 아니 헤근에 흰 시리, 그거 헤나시네, 옛날은.(안 해서 흰 시루, 그거 했었어, 옛날은.)

107080 @ 귀신 쫓는 거렌예?(귀신 쫓는 거라고요?)

107080 #2 으, 풋은 경허는 거엔 경헨 안 놔낫주게. 상에 올릴 건 요새도 허는딘 저 상에 올리는 건 흰 시리 허곡 먹는 건 풋 놩 헴저, 요새도.(으, 팥은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안 넣었지. 상에 올릴 건 요새도 하는 데는 저 상에 올리는 건 흰 시루 하고 먹는 건 팥 넣어서 하고 있어, 요새도.)

107081 @ 예. 떡 헐 때 뭐하지 말렌 헌 거 잇수과?(예. 떡 할 때 뭐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107081 #2 어?(어?)

107081 @ 떡 헐 때 뭐허지 말렌 허는 금기사항 잇수과?(떡 할 때 뭐하지 말라고 하는 금기사항 있습니까?)

107081 #2 시리떡 칠 때이 정짓간으로 여저 들어오지 말렌.(시루떡 찔 때 부엌으로 여자 들어오지 말라고.)

107081 @ 여자 들어오지 말렌.(여자 들어오지 말라고.)

107081 #2 어. 여자 정제 들어오지 말렌. 시리 익지 안헌덴.(어. 여자 부엌 들어오지 말라고. 시루 익지 않는다고.)

107081 @ 아이고, 무산고?(아이고, 왜지?)

107081 #2 떡 익지 안헌덴. 경헨 문 ᄒᆞ쏠 베옥허고 여잔 보도 안허고 그레 들어오민 안 뒌다. 시리떡 익지 안헌덴.(떡 익지 않는다고. 그런 문 조금 버름하고 여자는 보지도 않고 그리 들어오면 안 된다. 시루떡 익지 않는다고.)

107081 @ 시리떡 치젠 허면 짐 나가지 말렌 뭐허지 안 헙니까?(시루떡 찌려고 하면 김 나가지 말라고 뭐하지 않습니까?)

107081 #2 으, ᄀᆞ루헤근에 벵 허게 문딱 무치고.(으, 가루해서 뱅 하게 모두 묻히고.)

107081 @ 게난 시리떡 잘 쳐낫수과, 삼춘은?(그러니까 시루떡 잘 쪘었습니까, 삼촌은?)

107081 #2 어게. 쳔 헤낫저게.(어. 쪄서 했었어.)

107081 @ 파분내는 거 엇어난?(망친 거 없었어?)

107081 #2 아이고, 설엉, 익지 안헤영.(아이고, 설어서, 익지 않아서.)

107081 @ 설엉 익지 안헤영.(설어서 익지 않아서.)

107081 #2 비왕 보민 ᄒᆞᆫ착은 익고 ᄒᆞᆫ착은 설곡.(부어서 보면 한쪽은 익고 한쪽은 설고.)

107081 @ 예.(예.)

107081 #2 경허민 또 그건 차롱에 놩 또 치고 경헤낫저게.(그러면 또 그건 채롱에 놔서 또 찌고 그랬었어.)

107081 @ 예.(예.)

107081 #2 경허민 그건 차롱에 놩 또 솟디 치곡.(그러면 그건 채롱에 놔서 또 솥에 찌고.)

107081 @ 아, 다시 치곡.(아, 다시 찌고.)

107081 #2 으, 경헤낫저게.(으, 그랬었어.)

107081 @ 하하하.(하하하.)

107081 #2 경헌디 옛날엔 그걸 몰랑 거주. 이 공, 저 ᄇᆞ름이 들어간 디 떡을 안 익고 ᄇᆞ름 안 들어간 디 떡을 익은디 옛날엔 그걸 몰랑 거라. 머리가 ᄒᆞ쏠 어둑우난.(그런데 옛날엔 그걸 몰라서 거지. 그 공, 저 바람이 들어간 데 떡을 안 익고 바람 안 들어간 데 떡을 익었는데 옛날엔 그걸 몰라서 거야. 머리가 조금 어두우니까.)

107081 @ 하하하.(하하하.)

107081 #2 경헨 정젯문으로 들어오지 말렌 허난 정젯문 더껏당 사름 들어가민 ᄇᆞ름 들어가 불민 경허는 걸.(그래서 부엌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니까 부엌문 덮었다가 사람 들어가면 바람 들어가 버리면 그러는 걸.)

107081 @ 맞아.(맞아.)

107081 #2 걸 몰른 거.(걸 모른 거.)

107081 @ 겐 문 닫앙 바람 들어오지 못허게 헌 거.(그래서 문 닫아서 바람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

107081 #2 경헤근에 불꼿을 잘, 골로로 가게시리 헤야 뒈는 건디 요샌 아멩헤도 뒈는 건디게.(그래서 불꽃을 잘, 골고루 가게끔 해야 되는 건데 요새는 아무래도 되는 건데.)

107081 @ 예.(예.)

107081 #2 게난 아메도 옛날은 어두원.(그러니까 아무래도 옛날은 어두워서.)

별식

107082 @ 저기 수웨도 헤 먹어신가예?(저기 순대도 해 먹었나요?)

107082 #2 어?(어?)

107082 @ 수웨, 수웨?(순대, 순대?)

107082 #2 수웬이 대사니도 헤 놓곡 쪽파도 썰어 놓곡 파도 썰어 놓곡 하간 거 막 헤여 놔근에 ᄆᆞ물ᄀᆞ루 헤근에 그레 밀ᄀᆞ루 ᄒᆞ쏠 서꺼. 경 안허민 게실게실[382] 허난. 밀ᄀᆞ루 ᄒᆞ쏠 서꺼사 좋아. 저 정기떡 헐 때도 저 ᄆᆞ물ᄀᆞ루에 밀ᄀᆞ루 쪼끔 멧 분지 일, 막 ᄒᆞ쏠은 ᄒᆞ꼼은 놔사 거 풀풀헹[383] 좋아. 곱고, 윤지고.(순대는 마늘도 해 넣고 쪽파도 썰어 넣고 파도 썰어 넣고 온갖 거 막 해 넣어서 메밀가루 해서 그리 밀가루 조금 섞어. 그렇지 않으면 '게실게실' 하니까. 밀가루 조금 섞어야 좋아. 저 빙떡 할 때도 저 메밀가루에 밀가루 조금 몇 분의 일, 아주 조금은 조금은 넣어야 거 '풀풀해서' 좋아. 곱고, 윤지고.)

107082 @ 윤지고예?(윤지고요?)

107082 #2 어, 거 밀ᄀᆞ루, ᄆᆞ물ᄀᆞ루에 밀ᄀᆞ루 ᄒᆞ쏠 들어가사. 수에 헐 때도 ᄒᆞ꼼 들어가사 좋아.(어, 거 밀가루, 메밀가루에 밀가루 조금 들어가야. 순대 할 때도 조금 들어가야 좋아.)

107082 @ 예.(예.)

107082 #2 견디 밀ᄀᆞ루만도 수웨 담나게, 이젠. 밀ᄀᆞ루만도 ᄆᆞ물ᄀᆞ루 안 헴실거여. 으, 그거 담는디 ᄆᆞ물ᄀᆞ루에이 그것에 거시기 마늘 거튼 거, 파 거튼 거 하간 거 양념헤 가민 맛 좋주게. 경헤근에 수웨도 영 헹 담으민 우리 담아 보민이 영 헨 솜빡 놓민 이거 벅찬 안 뒈여.(그런데 밀가루만도 순대 담아, 이젠. 밀가루만도 메밀가루 안 하고 있을 거야. 으, 그거 담는데 메밀가루 그것에 거시기 마늘 같은 거, 파 같은 거 온갖 거 양념해 가면 맛 좋지. 그래서 순대도 이렇게 해서 담으면 우리 담아 보면 이렇게 해서 가득 넣으면 이거 벅차서 안 돼.)

107082 @ 으.(으.)

382) '게실게실'은 가루 성분으로 된 것이 차진 기는 조금도 없고 아주 메진 모양을 말한다.
383) '풀풀허다'는 음식이 차진 기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

107082 #2 ᄒᆞ쏠 멧 분지 일 넴겨사.(조금 몇 분의 일 남겨야.)

107082 @ 경헤야 안 터졍.(그래야 안 터져서.)

107082 #2 그것이 익으민 영 골라져.(그것이 익으면 이렇게 골라져.)

107082 @ 예.(예.)

107082 #2 경헤근에 익어낫어.(그렇게 익었었어.)

107082 @ 예, 그럼 수웨는 언제 만들엉 먹어난 거라?(예, 그럼 순대는 언제 만들어서 먹었던 거야?)

107082 #2 큰일 헐 때 도새기 잡을 때.(큰일 할 때 돼지 잡을 때.)

107082 @ 보통 땐 아니고?(보통 땐 아니고?)

107082 #2 에, 에 당초 어디 시니게. 도새기 잡앙 잔칠 허나 영장을 허민 그때.(에, 에 당최 어디 있니. 돼지 잡아서 잔치를 하거나 장례를 하면 그때.)

107083 @ 그때. 예, 예. 둠비도 큰일 헐 때 헤난 거 아니?(그때. 예, 예. 두부도 큰일 할 때 했던 거 아니?)

107083 #2 둠비 헤낫저만은 우린 안 헤 봣저, 둠비.(두부 했었지만 우린 안 했봤어, 두부.)

107083 @ 안 헤낫수과? 게민 이 동넨 둠비 안 헤 봔?(안 했었습니까? 그럼 이 동네는 안 해 봤어?)

107083 #2 안 헤 봔, 안 헤 봔. 사단만 허주, 기자.(안 해 봤어, 안 해 봤어. 사다가만 하지, 그저.)

107083 @ 옛날에 어디 강 사 와?(옛날에 어디 가서 사 와?)

107083 #2 옛날엔 몰르켜게, 어떵사 헤신디 몰라.(옛날에는 모르겠어, 어떻게 했는지 몰라.)

107083 @ 예, 둠빈 안 헤난.(예, 두부는 안 했었어.)

107083 #2 둠빈 안 헤 봔.(두부는 안 해 봤어.)

107084 @ 예. 메밀묵 헤낫수과, ᄆᆞ물묵?(예. 메밀묵 했었습니까, 메밀묵?)

107084 #2 어, 묵 쒀. 거시기 ᄆᆞ물쏠 저 ᄆᆞ물ᄀᆞ루 헹 ᄆᆞ물묵 허는 건 저 물 놔근에 솖, 물 놔근에 솟디 꿰우고 ᄆᆞ물ᄀᆞ루 다라에 영 카고. 영 캉 그거 물 궤여 가민 놩 젓어. 막 젓어근에 영 들르민 톡톡허게 안 헹 지랑허게, 거무룽헤사.(어, 묵 쒀. 거시기 메밀쌀 저 메밀가루 해서 메밀묵 하는 건 저 물 넣어서 삶, 물 넣어서 솥에 끓이고 메밀가루 대야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타서 그거 물 끓어 가면 넣어서 저어. 마구 저어서 이렇게 들면 톡톡 안 하고 치렁하게, 거뭇해야.)

107084 @ 음.(음.)

107084 #2 익는 게 거무룽헤사 익주 저 헤영헌 땐 거 선 거.(익는 게 거뭇해야 익지, 저 허연 땐 선 거.)

107084 @ 아, 예.(아, 예.)

107085 #2 거무룽헤사 막 젯으멍. 경허고 또 청묵[384]. 청묵은 ᄆᆞ물쏠 사다근에

384) '청묵'은 메밀쌀 등을 물에 담갔다가 짜낸 물로 쑨 묵을 말한다.

저 거시기 잘리에 담아근에 물 놔근에 물 하영 안 놩 ᄒᆞ꼼만 놩 막 손으로 밀려.(거뭇해야 마구 저으면서. 그렇고 또 '청묵'. '청묵'은 메밀쌀 사다가 저 거시기 자루에 담아서 물 넣어서 물 많이 안 넣어서 조금만 넣어서 마구 손으로 밀어.)

107085 @ 예.(예.)

107085 #2 경혜영 청[385] 내영, 경혜영 청 내영 그 물로 쑤민 청묵.(그래서 '청' 내서, 그래서 '청' 내서 그 물로 쑤면 '청묵'.)

107085 @ 아.(아.)

107085 #2 그건 더 ᄀᆞ늘고 더 거시기 헌 거 청묵. 경혜낫저게.(그건 더 가늘고 더 거시기 하는 거 '청묵'. 그랬었어.)

107085 @ 만들기 어려운 건 청묵이 더?(만들기 어려운 건 '청묵'이 더?)

107085 #2 청묵 어렵주게. 손으로 막 문질러사.('청묵' 어렵지. 손으로 마구 문질러야.)

107085 @ 음.(음.)

107085 #1 저 ᄆᆞ물, 청묵 아닌 쉽곡 ᄀᆞ루 사당 그자 쉽고. 겐디 저 두루 쑤민이 먹지 못허고 게실게실[386] 찰찰 훌터 벼. 두루 쑤민. 막 익여사, 잘 익어사.(저 메밀, '청묵' 아닌 쉽고 가루 사다가 그저 쉽고. 그런데 저 덜 쑤면 먹지 못하고 '게실게실' 찰찰 홅어 버려. 덜 쑤면. 잘 익어야, 잘 익어야.)

107085 @ 음.(음.)

107085 #2 영 들르민 기자 영 헹 쭈런허게 거시기 헤져사. 칼칼허민[387] 안 뒈여.(이렇게 들면 그저 이렇게 해서 쭈룩하게 거시기 해야. '칼칼하면' 안 돼.)

107086 @ 음. 게역은 어떵 헤낫수과?(음. 미숫가루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107086 #2 게역은 보린 솟디 보까근에 ᄀᆞ레에 ᄀᆞᆯ앙 영 헹 쳔에 먹어나고. 저 게역 보리게역.(미숫가루는 보린 솥에 볶아서 가루에 갈아서 이렇게 해서 쳐서 먹었었고. 저 미숫가루 보리미숫가루.)

107086 @ 보리게역.(보리미숫가루.)

107086 #2 또 콩 게역은 콩 보까끈에 ᄀᆞ레에 ᄀᆞᆯ아근에 또 영 헹 체로 치민 우알 이실 거 아냐게?(또 콩 미숫가루는 콩 볶아서 가루에 갈아서 또 이렇게 해서 체로 치면 위아래 있을 거 아니냐?)

107086 @ 으.(으.)

107086 #2 가루 곤 거 잇고 홁은 거 잇고 허민 홁은 거 또 ᄀᆞᆯ고. ᄀᆞ루 아랫 건 놔두고.(가루 고운 거 있고 굵은 거 있고 하면 굵은 거 또 갈고. 가루 아래 건 놔두고.)

107086 @ 아.(아.)

107086 #2 홁은 건 기자 치멍 홁은 건 또 ᄀᆞᆯ고 또 ᄀᆞᆯ고 허멍.(굵은 건 그저 치면서 굵은 건 또 갈고 또 갈고 하면서.)

---

385) '청'은 메밀쌀 따위에 물에 불려 우려낸 물을 말한다.
386) '게실게실'은 끈기가 없어서 잘 뭉쳐지지 않고 흐트러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387) '칼칼허다'는 고르지 못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86 @ 게민 보리게역은 보리 깍기 전이라예?(그럼 보리미숫가루는 보리 깎기 전이지요?)

107086 #2 보리게역은 보리 비영 거 장만헤지민 기자.(보리미숫가루는 보리 베어서 거 장만하면 그저.)

107086 @ 장만헤지민?(장만하면?)

107086 #2 어.(어.)

107086 @ 보리 장만 어떵 헤가지고.(보리 장만 어떻게 해서.)

107086 #2 보리 장만은 보리 비여당 영 헹 그 클 잇어낫저. 영 헨 보리 홀트는 거.(보리 장만은 보리 베어다가 이렇게 해서 그 그네 있었어. 이렇게 해서 보리 훑는 거.)

107086 @ 예, 보리클.(예, 보리그네.)

107086 #2 으, 그것에 홀텅 마당질허영, 어야 호야 허멍. 마당질헹 보리 헤근에 그거 장만헤여근에게. 보리 장만허민 보리썰 나오주게.(으, 그것에 훑어서 마당질해서, 어야 호야 하면서. 마당질해서 보리 해서 그거 장만해서. 보리 장만하면 보리쌀 나오지.)

107086 @ 으.(으.)

107086 #2 경허민 그거 솟디 보까. 보리썰을 보리, 보리 겁죽 신 거.(그러면 그거 솥에 볶아. 보리쌀을 보리, 보리 껍질 있는 거.)

107086 @ 게니까 겁죽 신 거예?(그러니까 껍질 있는 거요?)

107086 #2 으, 신 거. 쌀이 아니고.(으, 있는 거. 쌀이 아니고.)

107086 @ 예, 그걸로 솟디 놩.(예, 그걸로 솥에 넣어서.)

107086 #2 으, 보까. 경헤영 보리게역게. 술보리도 경허고 줄보리[388]도 경허고. 줄보리 잇고 술보리 잇고.(으, 볶아서. 그래서 보리미숫가루. 쌀보리도 그러고 '줄보리'도 그러고. '줄보리' 있고 쌀보리 있고.)

107086 @ 줄보리 잇고 술보리 잇인디 게역은 줄보리 술보리 다 헤낫수꽈?('줄보리' 있고 쌀보리 있는데 미숫가루는 '줄보리' 쌀보리 다 했었습니까?)

107086 #2 다 헤낫주게.(다 했었지.)

107086 @ 밥 먹는 거는?(밥 먹는 거는?)

107086 #2 밥 먹는 건 줄보리 쏠이 저 치근허고[389] ᄒᆞ쏠 촙쏠거치.(밥 먹는 건 '줄보리' 쌀이 저 '치근하고' 조금 찹쌀같이.)

107086 @ 예.(예.)

107086 #1 치근허고 술보리 쏠은 ᄒᆞ쏠 살락헤도[390] 술보리 쏠이 양이 하주게.('치근하고' 쌀보리 쌀은 조금 '살락해도' 살보리 쌀이 양이 많지.)

107086 @ 아. 게민 삼춘네는 주로 줄보리, 술보리 다 헷수과?(아. 그럼 삼촌네는 주로 '줄보리', 쌀보리 다 했습니까?)

---

388) '줄보리'는 보리의 한 종류다.

389) '치근허다'는 밥이 찰기가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390) '살락허다'는 밥 따위가 찰기가 없이 고슬고슬한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86 #2 어, 줄보리도 헤영 먹어 보고 대개 솔보리. 대충은 솔보리.(어, '줄보리'도 해서 먹어 보고 대개 쌀보리. 대충은 쌀보리.)

107086 @ 솔보리가 양이 많이 나니까?(쌀보리가 양이 많이 나니까?)

107086 #2 어, 솔보리.(어, 쌀보리.)

107087 @ 지지미도 헹 먹어난마씨?(부침개도 해서 먹었었습니까?)

107087 #2 지지미도 그 ᄀᆞ루 헤근에.(부침개도 그 가루 해서.)

107087 @ 예.(예.)

107087 #2 ᄀᆞ루헤근에 기자 물에 거시기 묵 카듯 카근에 지져 가민 뒈주. 저 무시거 쪽파나 하간 거 썰어 놩게. 쪽파나 거시기나 다마네기[391] 거튼 거 그런 거 썰어 놓민 좋아.(가루 해서 그저 물에 거시기 묵 타듯 타서 지져 가면 되지. 저 뭐 쪽파나 온갖 거 썰어 넣어서. 쪽파나 거시기나 양파 같은 거 그런 거 썰어 넣으면 좋아.)

107088 @ 음. 오메기술은 어떵 담아낫수과?(음. '오메기술'은 어떻게 담갔었습니까?)

107088 #2 ᄀᆞ메기죽?('ᄀᆞ메기죽'?)

107088 @ 아니, 아니. 오메기술?(아니, 아니. '오메기술'?)

107088 #2 아, 오메기술[392]?(아, '오메기술'?)

107088 @ 예.(예.)

107088 #2 오메기술은 좁썰 ᄀᆞ루 ᄀᆞᆯ앙.('오메기술'은 좁쌀 가루 갈아서.)

107088 @ 예.(예.)

107088 #2 나도 혼번 헤낫저.(나도 한번 했었어.)

107088 @ 예.(예.)

107088 #2 좁썰 ᄀᆞ루 ᄀᆞᆯ아근에 그 ᄀᆞ루에 꿰는 물 놔근에 달롸근에 영 영 접아, 영 영 멘글앙이, 영 영 멘글아근에 솟디 놩 숢아근에.(좁쌀 가루 갈아서 그 가루에 끓는 물 넣어서 이겨서 이렇게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솥에 넣어서 삶아서.)

107088 @ 으.(으.)

107088 #2 숢앙 것가 오메기[393].(삶아서 것이 '오메기'.)

107088 @ 아, 게민 좁썰 ᄀᆞᆯ앙 반죽헌 것이 오메기?(아, 그럼 좁쌀 갈아서 반죽한 것이 오메기?)

107088 #2 으, 반죽헤근에 그거 숢아 내영 허민 거 오메기떡[394]. 것가 오메기떡 영 동글랑허게 저 거시기거치 멘글민. 거 동글랑허게 멘글민.(으, 반죽해서 그거 삶

391) '다마네기'는 일본어 'たまねぎ'로 '양파'를 말한다.

392) '오메기술'은 좁쌀로 빚은 술을 말한다. 이것은 탁주를 만드는 술떡의 이름인 '오메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떡으로 만든 술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393) '오메기'는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오메기떡'이라고도 한다.

394) '오메기떡'은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에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을 말한다. '오메기'라고도 한다.

아 내어서 하면 거 오메기떡. 것이 ‘오메기떡’ 이렇게 동그랗게 저 거시기처럼 만들면. 거 동그랗게 만들면.)

107088 @ 술 허젠 허민.(술 하려고 하면.)

107088 #2 술 허젠 허민 거 경헨 오메기떡 숢앙 놔근에 또 물 놩 그거 놔근에 막 궤여. 막 주물러 가민 막 풀어질 거 아냐. 풀어지민 풀풀허지. 경허민 그레 누룩 놔근에.(술 하려고 하면 거 그래서 ‘오메기떡’ 삶아서 넣어서 또 물 넣어서 그거 넣어서 마구 괴어. 마구 주물러 가면 마구 풀어질 거 아니냐. 풀어지면 풀풀하지. 그러면 그리 누룩 넣어서.)

107088 @ 누룩 놩.(누룩 넣어서.)

107088 #2 누룩 놔근에 헤여근에 항에 담앙 ᄒᆞ쏠 놔두민 부깍부깍허주게.(누룩 넣어서 해서 항아리에 담아서 조금 놔두면 부글부글하지.)

107088 @ 으.(으.)

107088 #2 궤여.(괴어.)

107088 @ 게민 불 숨는 거?(그럼 불 때는 거?)

107088 #2 아니, 저 거시기 불 숨지 안허영 그자 오메기떡 헤여근에 그거 막 주물렁 저 누룩 놩 서꺼근에 항에 담앙 놔두민 불 안 숨아도 궤여.(아니, 저 거시기 불 때지 않고 그저 ‘오메기떡’ 해서 그거 마구 주물러서 저 누룩 넣어서 섞어서 항아리에 담아서 놔두면 불 안 때도 괴어.)

107088 @ 아.(아.)

107088 #2 겐 부각부각게. 경허민 그디 헤근에 저 오래민 청 앚곡 문 허주게. 경헤영 술 헤여근에. 경헹 고소리 헤근에 술, 술 다까나고.(그래서 부글부글해. 그러면 거기 해서 저 오래면 청 앉고 모두 하지. 그렇게 술 해서. 그래서 소줏고리 해서 술, 술 빚었었고.)

107088 @ 술 다까나고. 고소리 헌 그게 잇잖아예?(술 빚었었고. 소줏고리 하는 그게 있잖아요?)

107088 #2 으.(으.)

107088 @ 술 다끄는 그 단지렌 헙니까, 항이렌 헙니까?(술 빚는 그 단지라고 합니까, 항아리라고 합니까?)

107088 #2 고소리.(소줏고리.)

107088 @ 예, 고소리예?(예, 소줏고리요?)

107088 #2 으, 고소리.(으, 소줏고리.)

107088 @ 그 고소리 하면 그 일름 알아지쿠과, 혹시? 고소리에 이렇게 주둥이 부분도 잇고.(그 소줏고리 하면 그 이름 알겠습니까, 혹시? 소줏고리에 이렇게 주둥이 부분도 있고.)

107088 #2 주둥이, 주둥이에 무시거 바투와근에 허민 그레 촐촐 나오주게.(주둥이, 주둥이에 뭐 받쳐서 하면 그리 촐촐 나오지.)

107088 @ 예, 예. 게민 술 담을 때는 이 고소리를 불 때는 거 아니?(예, 예. 그

럼 술 담글 때는 이 소줏고리를 불 때는 거 아니?)

107088 #2 아니. 솟디, 솟디 술 놔근에.(아니. 솥에, 솥에 술 넣어서.)

107088 @ 여기.(여기.)

107088 #2 아, 이거 고소리여.(아, 이거 소줏고리야.)

107088 @ 예, 고소리.(예, 소줏고리.)

107088 #2 일로 술 나온다. 요디, 요디 솟 놩 이디 무시거 놔근에, 저 ᄀᆞ슴.(이리로 술 나와. 요기, 요기 솥 놓아서 여기 뭐 놔서, 저 감.)

107088 @ ᄀᆞ슴?(감?)

107088 #2 어. 저 감저술이민 감저술, 기자 술이민 기자 술 요디 솟디 놔근에 우터레 놔근에 ᄀᆞ루 버물영 요디 딱 막아.(어. 저 고구마술이면 고구마술, 그저 술이면 그저 술 요기 솥에 넣어서 위로 넣어서 가루 버무려서 여기 딱 막아.)

107088 @ 막아.(막아.)

107088 #2 막앙 짐 나오지 말게.(막아서 김 나오지 말게.)

107088 @ 예.(예.)

107088 #2 경허민 요디 물 놓고 허민 요디로 요 짐으로 헹 촐촐촐 나오주게, 이 짐으로.(그러면 요기 물 넣고 하면 요기로 요 김으로 해서 촐촐촐 나오지, 이 김으로.)

107088 @ 짐으로?(김으로?)

107088 #2 어, 이레 촐촐촐촐 나와. 경헨 술 나왕 술 영 먹으민 ᄒᆞ쏠 기자 도꼰허고[395] 헌다게.(어, 이리 촐촐촐촐 나와. 그래서 술 나와서 술 이렇게 먹으면 조금 그저 '도꼰하고' 한다.)

107088 @ 이 부분을 그냥 주둥이렌 ᄀᆞᆯ아?(이 부분을 그냥 주둥이라고 말해?)

107088 #2 으, 이거 주둥이.(으, 이거 주둥이.)

107088 @ 이걸 뭐렌 불르는 일름이 잇수과?(이걸 뭐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107088 #2 몰르켜, 나.(모르겠어, 나.)

107088 @ 그냥 이거 주둥이렌만?(그냥 이거 주둥이라고만?)

107088 #2 으, 주둥이.(으, 주둥이.)

107088 @ 기민 아까 오메기술 허젠 허민 오메기떡 만든 거에 뭐를 놨잖아예, 뭐과?(그럼 아까 '오메기술' 하려고 하면 '오메기떡' 만든 거에 뭐를 넣었잖아요, 뭡니까?)

107088 #2 누룩.(누룩.)

107090 @ 누룩. 누룩은 어떵 만들어?(누룩. 누룩은 어떻게 만들어?)

107090 #2 누룩은 보리썰 ᄀᆞᆯ아근에이. 보리썰 ᄀᆞᆯ아근에 그거 물 놔근에. 거시기 돌레떡ᄀᆞ치 만들앙 놔두민 트주게.(누룩을 보리쌀 갈아서. 보리쌀 갈아서 그거 물 넣어서. 거시기 도래떡같이 만들어서 놔두면 트지.)

395) 여기서 '도꼰허다'는 술을 마셨을 때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나타낸 것 같다.

107090 @ 으.(으.)

107090 #2 콩 트듯.(콩 트듯.)

107090 @ 예.(예.)

107090 #2 트민 그게 누룩.(트면 그게 누룩.)

107090 @ 아, 그게 누룩이과?(아, 그게 누룩입니까?)

107090 #2 으, 거 뜻게 헹 놔두민 박삭[396] 튼다게. 것이 누룩이라.(으, 거 따뜻하게 해서 놔두면 '박삭' 튼다. 것이 누룩이야.)

107089 @ 누룩. 게민 쉰다리는마씨? 쉰다리.(누룩. 그럼 '쉰다리'는요? '쉰다리'.)

107089 #2 순다리[397]는 순다린 누룩도 놔근에 허곡 저 보리, 보리밥 헤근에 우리 순다리 헹 먹어낫저. 지금도 이 순다리 헹 먹주게. 누룩 장에 강 사다근에이.('순다리'는 '순다리'는 누룩도 넣어서 하고 저 보리, 보리밥 해서 우리 '쉰다리' 해서 먹었었어. 지금도 이 '순다리' 해서 먹지. 누룩 장에 가서 사다가.)

107089 @ 음.(음.)

107089 #2 밥 놔근에 메지근허게 물 데와근에 밥에 풀어 놔근에 거 누룩 들이치민 팔닥팔닥 궤여. 경혜영 순다리 헹 먹어.(밥 넣어서 미지근하게 물 데워서 밥에 풀어 넣어서 거 누룩 들어뜨리면 괴여. 그래서 '순다리' 해서 먹어.)

107089 @ 아, 순다리 헹 먹어.(아, '순다리' 해서 먹어.)

107089 #2 어, 그거. 겡 헹 누룩은 건져 불고.(어, 그거. 그렇게 해서 누룩은 건져 버리고.)

107089 @ 예.(예.)

107089 #2 거 밥만 헤근에 죽ᄀᆞ치.(거 밥만 해서 죽같이.)

107089 @ 밥은 식은 밥?(밥은 식은 밥?)

107089 #2 으, 경혜영 그거 짜근에.(으, 그렇게 그거 짜서.)

107089 @ 예.(예.)

107089 #2 지금 우리 헹 먹음은 그거 짜근에 물로 헤근에 냉장고에 놔두민 시원허고이 막걸리ᄀᆞ치.(지금 우리 해서 먹기는 그거 짜서 물로 해서 냉장고에 놔두면 시원하고 막걸리같이.)

107089 @ 아.(아,)

107089 #2 경게. 식은 밥 한 땐 여름에 경 헌다.(그래. 식은 밥 많았을 땐 여름에 그렇게 한다.)

107089 @ 아.(아.)

107089 #2 누룩 사단, 영 돌레떡 닮은 거 누룩 풀주게. 그거 사다 놔근에.(누룩 사다가, 이렇게 도래떡 같은 거 누룩 팔지. 그거 사다 넣어서.)

107089 @ 사다가.(사다가.)

107089 #2 으.(으.)

---

396) '박삭'은 풀 등이 사이가 촘촘하게 아주 많이 난 모양을 나타낸다.

397) '순다리'는 밥과 누룩으로 담근 음료를 말한다.

107089 @ 이제도 쉰다리 헹 먹읍니까?(이제도 '쉰다리' 해서 먹습니까?)

107089 #2 으, 헹 먹엄저, 우린.(으, 해서 먹었어, 우린.)

107089 @ 하하하.(하하하.)

107089 #2 나 지금 누룩 사다 논 것도 잇어.(나 지금 누룩 사다 놓은 것도 있어.)

107089 @ 예.(예.)

107089 #2 작년이 사다 논 거.(작년에 사다 놓은 거.)

107091 @ 예, 엿도 멘들앙 먹어낫수과?(예, 엿도 만들어서 먹었었습니까?)

107091 #2 엿은이 난 만들아 보지 안허고 저 무신 엿 만들아 봣저, 미깡엿[398].(엿은 난 만들어 보지 않고 저 무슨 엿 만들어 봤어, 귤엿.)

107091 @ 미깡엿?(귤엿?)

107091 #2 미깡 헨에 미깡 벳견에 알멩이만 까 놘에 솟디 하영 헤 놘 거 젯으멍 설탕 놔근에 젯으멍 기자 헤 가민 그거 믄딱 녹앙 물 뒈여.(귤 해서 귤 벗겨서 알맹이만 까 넣어서 솥에 많이 해 넣어서 거 저으면서 설탕 넣어서 저으면서 그저 해 가면 그거 모두 녹아서 물 돼.)

107091 @ 예.(예.)

107091 #2 그레 설탕 하영 놔근에 그걸 막 쫄라.(그리 설탕 많이 넣어서 그걸 마구 졸여.)

107091 @ 예.(예.)

107091 #2 막 쫄르민 풀풀허게[399] 헤근에 그거 떡 사다근에 그거 찍엉 먹으민 맛 좋아. 거 식빵 헤다근에 불라근에.(마구 졸이면 '풀풀하게' 해서 그거 떡 사다가 그거 찍어서 먹으면 맛 좋아. 거 식빵 해다가 발라서.)

107091 @ 엿이 아니고 잼인게, 잼.(엿이 아니고 잼이네, 잼.)

107091 #2 어, 잼. 그추룩 헤근에, 헹 먹어낫저.(어, 잼. 그처럼 해서, 해서 먹었었어.)

107091 @ 옛날에 꿩엿 같은 건 안 헤낫구나?(옛날에 꿩엿 같은 건 안 했었구나?)

107091 #2 안 헤낫저.(안 했었어.)

107092 @ 예. 이거 말고 뭐 특별허게, 맛 좋게 만들어 먹어난 거 잇수과?(예. 이거 말고 뭐 특별하게, 맛 좋게 만들어 먹었던 거 있습니까?)

107092 #2 몰르켜. 무시거 만들앙 경 먹어나지 안헌 거 닮아.(모르겠어. 뭐 만들어서 그렇게 먹지 않은 거 같아.)

107092 @ 하하하.(하하하.)

107092 #2 이거 어려완, 이거 어려완.(이거 어려웠어, 이거 어려웠어.)

107092 @ 이거 어려원.(이거 어려웠어.)

---

398) '미깡'은 일본어 'みかん'으로, 귤을 말한다. '미깡엿'을 귤을 넣어 만든 엿이다.

399) '풀풀허다'는 국물 따위가 되어서 끈기가 있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107092 #2 어.(어.)

107092 @ 어디 강 뭐 따당, 캐당 경헨 만들아 먹엇던 거?(어디 가서 뭐 따다가, 캐다가 그렇게 만들어 먹었던 거?)

107092 #2 에, 에. 그런 거 엇어.(에, 에. 그런 거 없어.)

107092 @ 바닷가 강 뭐 보말 잡아당도 안 먹어나고?(바닷가 가서 뭐 고둥 잡아다가도 안 먹었었고?)

107092 #2 으, 바당에도 안 가고이. 물른 밧디서만, 물랏주게. 하하하.(으, 바다에도 안 가고. 마른 밭에서만 말랐지. 하하하.)

107092 @ 아, 물른 밧디서만 물란.(아, 마른 밭에서만 말랐어.)

107092 #2 어, 하하하.(어, 하하하.)

8. 주생활

구조

108001 #1 놈의 집 멧 년 살단 왓저게.(남의 집 몇 년 살다가 왔어.)

108001 @ 놈의 집 멧 년 살단. 어느 집 살단 왓어?(남의 집 몇 년 살다가. 어느 집 살다가 왔어?)

108001 #1 요 동네거리[400]엔 헌 디. 동네거리엔 헌 디 빌언에, 빌언에 이제 살단에 아이고 옛말 골아사주. 요, 요 이 터도.(요 '동네거리'라고 하는 데. '동네거리'라고 하는 데 빌려서, 빌려서 이제 살다가 아이고, 옛말 말해야지. 요, 요 이 터도.)

108001 @ 예.(예.)

108001 #1 첨 놈의집사는 사름신디 나가 속안 와젼게.(첨 남의집사는 사람에게 내가 속아서 오게 되었어.)

108001 @ 으.(으.)

108001 #1 첨 이녁 막살이 하나 엇인 사름을 들려져서라게. 원 원 몰랑 속앗주게. 원 원 흔ᄆᆞ슬에 살아도이 몰란게. 경허난에 놈의집살 때에 시집을 왓저게.(참, 자기 막살이 하나 없는 사람을 들여졌더라. 원 원 몰라서 속았지. 원 원 한마을에 살아도 몰랐어. 그러니까 남의집살 때에 시집을 왔어.)

108001 @ 음.(음.)

108001 #1 놈의집살 때 시집을 오난 이젠, 옛날은 첨 놈의 밧을 버슬어도 감저메 놔살 거 아니냐이. 감저 멜 놓젠 허난 이거 집 안 짓언에 밧으로 잇어낫저, 이거 백오십 평인디.(남의집살 때 시집을 오니까 이젠, 옛날은 참 남의 밭을 벌어도 고구마 모종 놔야 할 거 아니냐. 고구마 모종을 놓으려고 하니까 이거 집 안 지어서 밭으로 있었어, 이거 백오십 평인데.)

400) '동네거리'는 토평동의 마을 지경 이름의 하나다. 동쪽에 있는 네거리라는 의미다.

108001 @ 으.(으.)

108001 #1 밧으로 잇언에 우리 동네 사름이 이걸 버슬엇저게. 버슬어난디 나가 이제 흔 파니 옛날은 밧, 버슬젠 밧 이제 삯 내젠 허민 이젠 돈이주만은 옛날은 조서 말 줫저게.(밭으로 있어서 우리 동네 사람이 이걸 벌었어. 벌었었는데 내가 이제 한 뙈기 옛날은 밭, 벌려고 밭 이제 삯 내려고 하면 이젠 돈이지만 옛날은 조 서 말 줬어.)

108001 @ 아, 예.(아, 예.)

108001 #1 조, 조로 서 말 줜에 이 터를 오란 빌어서. 오란 감저 메 놓멍, 나가 감저 메랑 놓멍이 나 중심에 여산이, 놈의집살아지난.(조, 조로 서 말 줘서 이 터를 와서 빌려서. 와서 고구마 모종 놓으면서, 내가 고구마 모종은 놓으면서 내 중심에 계획이, 남의집사니까.)

108001 @ 음.(음.)

108001 #1 아이고, 요 터랑 나라시민 막살이라도 짓엉 나가 살아 볼컬, 헌 것만 나가 꿈을 게나제나 오랑 감저 메 놓레 오랑 이 터만 나가 기자.(아이고, 요 터는 나였으면 막살이라도 지어서 내가 살아 볼걸, 한 것만 내가 꿈을 그러나저러나 와서 고구마 모종 놓으러 와서 이 터만 내가 그저.)

108001 @ 탐낫구나?(탐났구나?)

108001 #1 막 탐을 나라. 워낙 엇어 놓난.(막 탐을 나더라. 워낙 없어 놓으니까.)

108001 @ 음.(음.)

108001 #1 하이고, 요거 그자 나 거라시민 하이고, 기자 요것만 나 거라시민 이녁 집 엄막을 메여도이 엄막을 메여도 놈의집사는 것보다는 낫주 헌 생각을 헤져라게. 게난 이젠 요걸 이젠 오란 감저 메 놘에 이젠 그 감저쿨 헤연 헤 놩 가멍 이젠 이 밧 관리허는 사름신디 이제 이 밧 임젠 생효[401] 이제 강 죽어 벳저만은 이제 생효 사름이여. 경헌디 이걸 풀켄 허라게. 풀켄 허난 돈이 어디 잇느니게.(하이고, 요거 그저 나 거였으면 하이고, 그저 요것만 내 거였으면 자기 집 움막을 매도 움막을 매도 남의집사는 것보다는 낫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젠 요걸 이젠 와서 고구마 모종 놔서 이제 고구마 기는줄기 해서 해 놓아 가면서 이젠 이 밭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 밭 임자는 상효 이제 가서 죽어 버렸지만 이제 상효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 팔겠다고 하더라. 팔겠다고 하니까 돈이 어디 있니.)

108001 @ 음.(음.)

108001 #1 돈이 아무것도 엇이난에 이제 나 친정에서 나 시집오난 말은 ᄒᆞ나 줘라게.(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나 친정에서 내가 시집오니까 말은 하나 주더라.)

108001 @ 으.(으.)

108001 #1 말 ᄒᆞ나 주난 그거 풀안에, 옛날에 팔천 원. 팔천 원도 큰돈이주게.(말 하나 주니까 그거 팔아서, 옛날에 팔천 원. 팔천 원도 큰돈이지.)

401) '생효'는 서귀포시 상효동을 말한다.

108001 @ 으.(으.)

108001 #1 팔천 원 받안 그 돈을 이제 놈 주멍, 생효 사름, 누물 장시허는 사름 줫단 이제 원뎅이도 못 받안 내벳저게. 그것도게.(팔천 원 받아서 그 돈을 이제 남 주면서, 상효 사람, 나물 장사하는 사람 줬다가 이제 원전도 못 받아서 내렸었어. 그것도.)

108001 @ 무사 줘서?(왜 줬어?)

108001 #1 꿔 줜.(꿔 줬어.)

108001 @ 아이고.(아이고.)

108001 #1 이제 ᄉᆞ 푼 내울 때난 새끼 내우젠.(이제 사 푼 낼 때니까 새끼 내려고.)

108001 @ 아이고.(아이고.)

108001 #1 이 우녁집 사름도 안다. 우녁집 사름도 그 사름 돈 꿔 줫단 이제 못 받안 나영 벗헴저만은. 그 돈을 열 번을 받으레 가도 못 받안게. 못 받으난 내벳주게. 내부난 그디 문딱 죽어 벳저게.(이 윗집 사람도 안다. 윗집 사람도 그 사람 돈 꿔 줬다가 이제 못 받아서 나랑 벗하고 있지만. 그 돈을 열 번을 받으러 가도 못 받았어. 못 받으니까 내버렸지. 내버리니까 거기 모두 죽어 버렸어.)

108001 @ 으.(으.)

108001 #1 죽어 벳저만은. 아이고, 놈의 밧 버슬언에 감절 싱경 버슬엉 이걸, 이 털 사시네게. 아이고, 이거 멧 년이니? 이 터 만오천 원 줜에, 만오천 원 줜. 만오천 원도 그때는 어려워라.(죽어 버렸지만. 아이고, 남의 밭 벌어서 고구마를 심어서 벌어서 이걸, 이 터를 샀어. 아이고, 이거 몇 년이니? 이 터 만오천 원 줘서, 만오천 원 줬어. 만오천 원도 그때는 어렵더라.)

108001 @ 어려웟지.(어려웠지.)

108001 #1 이거 흔 육십 년 뒈 가난에게, 흔 육십 년이 무시거라. 흔 칠십 년 뒛주.(이거 한 육십 년 돼 가니까, 한 육십 년이 뭐야. 한 칠십 년 됐지.)

108001 @ 그지예.(그렇지요.)

108001 #1 게난 만오천 원 줜 요걸 샀어. 사난 요만헌 막살이도 허질 못헤라, 돈 엇이난.(그러니까 만오천 원 줘서 요걸 샀어. 사니까 요만한 막살이도 하지 못하더라, 돈 없으니까.)

108001 @ 음.(음.)

108001 #1 저, 요만헌 방 하나 허고 무시거 저 춤 전기 하나. 경헨 이거 엄막 짓엉 살단에.(저, 요만한 방 하나 하고 뭐 저 참 전기 하나. 그래서 이거 움막 지어서 살다가.)

108001 @ 으.(으.)

108001 #1 살단 어떵 어떵 허멍 이젠 돈 흔 푼씩 모연에 이거 안팟거릴[402] 짓엇주. 그땐 이거 좋은 집으로 지엇저. 이거 흔 칠십 년 때난. 그땐 이건 완전 좋은

402) '안팟거리'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안채와 바깥채를 말한다.

집으로 짓은 거라.(살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이젠 돈 한 푼씩 모여서 이거 '안팟거리'를 지었지. 그땐 이거 좋은 집으로 지었어. 이거 한 칠십 년 때니까. 그땐 이거 완전 좋은 집으로 지은 거야.)

108001 @ 그지예.(그렇지요.)

108001 #1 요 중간에 짓어시민 이추룩 허느냐게. ᄒᆞ쏠 경헤도 높직허게도 짓고 방도 크게 허곡.(요 중간에 지었으면 이처럼 하냐. 조금 그래도 높직하게도 짓고 방도 크게 하고.)

108001 @ 움막 짓엉은 얼마나 살앗수과?(움막 지어서는 얼마나 살았습니까?)

108001 #1 ᄒᆞᆫ 삼 년.(한 삼 년.)

108001 @ 삼 년.(삼 년.)

108001 #1 삼 년 살멍 우리 시할망이 잇어낫저.(삼 년 살면서 우리 시할머니가 있었어.)

108001 @ 예.(예.)

108001 #2 시할망 죽엉 원 집이서 삼 년 헤시녜게.(시할머니가 죽어서 원 집에서 삼 년 했어.)

108001 @ 예.(예.)

108001 #1 대소상을 ᄆᆞᆫ 집이서.(대소상을 모두 집에서.)

108001 @ 예.(예.)

108001 #1 우리 시어머니도 경 헷저만은. 우리 시어머니도 경 아무것도 엇엉 경 그추룩 헷저만은. 경허난 오랑 시어머니 죽엉 삼 년 시할망 죽엉 삼 년, 날거치 고생헌 사름 세상 하늘나라에 엇다.(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 시어머니도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그처럼 했지만. 그러니까 와서 시어머니 죽어서 삼 년 시할머니 죽어서 삼 년. 나같이 고생한 사람 세상 하늘나라에 없다.)

108001 @ 아.(아.)

108001 #1 하르방, 나도 시집왕 보난 아무것도 엇고 나도 속아지난[쏙아지난] 나 안 살젠 ᄃᆞᆯ아낭 막 나도 ᄃᆞᆯ아난 뎅기고 무시거 헤신디 사름이 어질언이 순허연 첨, ᄒᆞᆫ번 싸워 보지 안허고 귀야지 ᄒᆞᆫ번 안 맞아 보고 첨 ᄆᆞᆫ 이 우녁집이나 동녁집이나 술 먹엉 두가시 와삭와삭 ᄆᆞᆫ 헤도 우린 원 그릇 ᄒᆞ나 숟가락 ᄒᆞ나 ᄂᆞᆯ려 본 일 엇고. 사름이 순헤라게. 게난 우리 친정어멍이 안 살앙 가시난 술 먹엉 지랄허고 이제 부량헌 사름보다 낫으메. 돈 엇어도 애껴 주는 것이 펜안헌 거 아이넨.(할아버지, 나도 시집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나도 속으니까 나 안 살려고 달아나서 마구 나도 달아나서 다니고 뭐 했는지 사람이 어질어서 순해서 참, 한번 싸워 보지 않고 귀퉁이 한번 안 맞아 보고 참 모두 이 윗집이나 동녘 집이나 술 먹고 부부 '와삭와삭' 모두 해도 우린 원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날려 본 일 없고. 사람이 순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친정어머니가 안 살고 갔으니까 술 먹고 지랄하고 이제 불량한 사람보다 나아. 돈 없어도 아껴 주는 것이 편안한 거 아니냐고.)

108001 @ 으, 맞수다.(으, 맞습니다.)

108001 #1 ᄂᆞ시 친정에 강 못 살게 허난, 가민 다울리고 가민 다울리고 허난 이젠 벗신디, 친구네 집이 섯동네[403] 가시네. 친구네 집이 강 살멍 곱안 살앗저게. 막 내놓렌 허멍 허곡 헤 가난이 첨, 원 테움사 헤져신디 경 ᄃᆞᆯ아난 뎅기당도 사름이 너무 순허고 경헌디 난 너미 순헌 것도 이젠 안 좋아 뵌다게.(도무지 친정에 가서 못 살게 하니까, 가면 쫓고 가면 쫓고 하니까 이제는 벗에게, 친구네 집에 '섯동네' 갔어. 친구네 집에 가서 살면서 숨어서 살았어. 숨어서 살면서 해도 마구 찾으러 와서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 원 달아나 버려서 없다고 하면서, 마구 내놓으라고 하면서 하고 해 가니까 참, 원 태우기야 했는지 그렇게 달아나서 다니다가도 사람이 너무 순하고 그런데 난 너무 순한 것도 이제는 안 좋아 보인다.)

108001 @ 하하하.(하하하.)

108001 #1 실제여게.(실제야.)

108001 @ 아.(아.)

108001 #1 와싹 떼려 뒁 ᄉᆞ정허고 그 시간에 파급헤야지 너무너무, 아무거엔 ᄀᆞᆯ아도 속솜.(와싹 때려 두고 사정하고 그 시간에 파급해야지 너무너무, 아무거라고 말해도 잠잠.)

108001 @ 속솜.(잠잠.)

108001 #1 아구리질을 헤도 속솜. 허단 보민 ᄃᆞᆯ아나 벼.(아가리질을 해도 잠잠. 하다가 보면 달아나 버려.)

108001 @ 하하하.(하하하.)

108001 #1 막 부에 나.(마구 부아 나.)

108001 @ 예.(예.)

108001 #1 경허영 난 그걸 막 궂어 벤 허는디 ᄂᆞᆷ덜은 호강 져운 소리엔 날ᄀᆞ라헌다게. 경헌디 애기덜이 착헤영 경헤도이 돈 ᄒᆞᆫ 푼 안 썬 첨 대학교ᄁᆞ장도 돈 ᄒᆞᆫ 푼 안 썬 살앗저게. 경헤영 허난 어떵 어떵 모이멍 우이 강 저 밧 ᄒᆞᆫ 이천 펭 삿저게, 나 온 후제.(그러니까 난 그걸 아주 궂어 보여서 하는데 남들은 호강 겨운 소리라고 날보고 한다. 그런데 아기들이 착해서 그래도 돈 한 푼 안 써서 참 대학교까지도 돈 한 푼 안 써서 살았어. 그래서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모이면서 위에 가서 저 밭 한 이천 평 샀어, 내가 온 후에.)

108001 @ 으.(으.)

108001 #1 밧 ᄒᆞᆫ 이천 펭 사고 요거, 이거 집 짓고. 그거 넘엉 못 헤라게.(밭 한 이천 평 사고 요거 이거, 집 짓고. 그거 넘어서 못 하더라.)

108001 @ 움막은 삼춘네가 직접 지은 거 아니?(움막은 삼촌네가 직접 지은 거 아니?)

108001 #1 우리냥으로 움막 짓언게.(우리대로 움막 지었어.)

108001 @ 움막 지을 때 어떵 지어난 거 생각나는 거 ᄀᆞᆯ아 줍서.(움막 지을 때 어떻게 지었던 거 생각나는 거 말해 주세요.)

---

403) '섯동네'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108001 #1 아이고, 하르방[404] 도벌 낭 산에 간에, 것도 모르게 숙대낭 끈어당.(아이고, 할아버지 도벌 나무 산에 가서, 것도 모르게 삼나무 끊어다가.)

108001 @ 예.(예.)

108001 #1 하르방냥으로.(할아버지대로.)

108001 @ 으, 하르방냥으로.(으, 할아버지대로.)

108001 #1 목시 돈 줘사 짓주게.(목수 돈 줘야 짓지.)

108001 @ 으.(으.)

108001 #1 하르방냥으로 엄막 헨에 살단에게.(할아버지대로 움막 해서 살다가.)

108001 @ 흑은 어떵헹 왕?(흙을 어떡해서 와서?)

108001 #1 흑은 흑 파당 흑질허고.(흙은 흙 파다가 흙질하고.)

108001 @ 으, 게민 요 옆이 거 파당?(으, 그럼 요 옆의 거 파다가?)

108001 #1 으, 경허고 헨 살단 요거 경헤도 짓으난 바로 요거 대통령 삶인가 헤져라, 그땐.(으, 그리고 해서 살다가 요거 그래도 지으니까 바로 요거 대통령 삶인가 하게 되더라, 그땐.)

108001 @ 아, 처음 들어왔을 때.(아, 처음 들어왔을 때.)

108001 #1 아이고, 첨. 경허영 ᄉᆞ뭇 우리 아덜은 이제 오랑 이거 고치지도 못허게 허고 돈 들이지 맙센. 이디 안 살켄 허멍.(아이고, 첨. 그래서 사뭇 우리 아들은 이제 와서 이거 고치지도 못하게 하고 돈 들이지 말라고. 여기 안 살겠다고 하면서.)

108001 @ 으.(으.)

108001 #1 이디 안 살앙 어디 시원헌 디 강 살켄 허멍.(여기 안 살고 어디 시원한 데 가서 살겠다고 하면서.)

108001 @ 으.(으.)

108001 #1 이디 안 살켄 헌다만은 이 토평도 땅값 비쌍 사도 못허고 이거 기자. 난 아파트 강 삽센 허멍 아파트가 이제 ᄉᆞ못 ᄃᆞ스고 좋은덴 허멍. 난 나 짓은 고망에서 살단 죽어 불건 느네냥으로 아멩이라 허라 경 헷주게.(여기 안 살겠다고 한다만 이 토평도 땅값 비싸서 사지도 못하고 이거 그저. 난 아파트 가서 사시라고 하면서 아파트가 이제 사뭇 따뜻하고 좋다고 하면서. 난 내가 지은 구멍에서 살다가 죽어 버리건 너희대로 아무렇게나 해라 그렇게 했지.)

108001 @ 맞수다.(맞습니다.)

108001 #1 아덜 세 성제난 줄 거 시냐? 저 우이 거 이천이백 평이난 성제 줘 불고.(아들 세 형제니까 줄 거 있냐? 저 위의 거 이천이백 평이니까 형제 줘 버리고.)

108001 @ 으.(으.)

108001 #1 요디 거 하우스 헌 거 흔 오백 평 거 죽어 분 놈 찍시난 이제 아덜 군인 가난 거 줘 불고.(요기 거 하우스 한 거 한 오백 평 거 죽어 버린 놈 몫이니까

404)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이제 아들 군인 가니까 거 줘 버리고.)

108001 @ 예, 예.(예, 예.)

108001 #1 경허난.(그러니까.)

108002 @ 옛날에는 집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잇어낫수과, 옛날에?(옛날에는 집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었습니까, 옛날에?)

108002 #1 옛날 집은 이간집[405]이여 삼간집이여.(옛날 집은 이간집이다 삼간집이다.)

108002 @ 예, 예. 지붕은?(예, 예. 지붕은?)

108002 #1 지붕 기자 뭐 상ᄆᆞ루 기자 무시거 삼간집 상ᄆᆞ루 기자 멧 칸. 혼 칸, 두 칸 멧 칸 기자. 삼간집 허민 상ᄆᆞ루가 삼 칸으로 허고.(지붕 그저 뭐 용마루 그저 뭐 삼간집 용마루 그저 몇 칸. 한 칸, 두 칸 몇 칸 그저. 삼간집 하면 용마루가 삼 칸으로 하고.)

108002 @ 삼 칸으로 하고.(삼 칸으로 하고.)

108002 #1 이간집이민 이 칸으로 허고 경혜영 이 칸, 삼 칸.(이간집이면 이 칸으로 하고 그래서 이 칸, 삼 칸.)

108002 @ 지붕은 지금은 스레뜨집이우다만은 옛날엔 무신 집이엇수과?(지붕은 지금은 슬레이트집입니다만 옛날엔 무슨 집이었습니까?)

108002 #1 초집게.(초가야.)

108002 @ 초집 잇엇고.(초가 있었고.)

108002 #1 으, 초집이라낫주, 원 원.(으, 초가였었지, 원 원.)

108002 @ 토평리에 잘 사는 어른덜 엇어낫수과?(토평리에 잘 사는 어른들 없었습니까?)

108002 #1 무사 엇어. 요디 부 선생네.(왜 없어. 요기 부 선생네.)

108002 @ 그 집도 초집이라?(그 집도 초가야?)

108002 #1 어. 다 옛날 부제, 초집이라낫저.(어. 다 옛날 부자, 초가였어.)

108002 @ 지에집 엇어낫수과?(기와집 없었습니까?)

108002 #1 엇다. 기와집 하나도 엇엇저.(없다. 기와집 하나도 없었어.)

108002 @ 엇어난.(없었어.)

108002 #1 다 부제도 초집이랏단 새로 짓은 집덜이주.(다 부자도 초가였다가 새로 지은 집들이지.)

108002 @ 아.(아.)

108002 #1 다 새로 짓은 집덜 아니냐?(다 새로 지은 집들 아니냐?)

108002 @ 으, 으.(으, 으.)

108002 #1 경허난 이 완전 부젠 삼칸집이여 이칸집이여 안팟거리[406]. 완전 부제 칩은 마당도 막 널르고.(그러니까 이 완전 부자는 삼간집이다 이간집이다 '안팟거

405) '이간집'은 칸으로 지어진 집을 말한다.

406) '안팟거리'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안채와 바깥채를 말한다.

리'. 완전 부잣집은 마당도 아주 넓고.)
108002 @ 보통 다 삼 칸 아니과?(보통 다 삼 간 아닙니까?)
108002 #1 어게, ᄉᆞ칸집[407] 짓은 사름덜이 부제.(어, 사간집 지은 사람들이 부자.)
108002 @ 아.(아.)
108002 #1 옛날 ᄉᆞ칸집도 잇나.(옛날 사간집도 있어.)
108002 @ 사칸집도 잇어?(사간집도 있어?)
108002 #1 어게, 흔 칸, 두 칸, 삼 칸, ᄉᆞ 칸. 경허영 ᄉᆞ칸집이엔 허고.(어, 한 칸, 두 칸, 삼 칸, 사 칸. 그래서 사간집이라고 하고.)
108002 @ 예.(예.)
108002 #1 경허연 삼칸집 ᄉᆞ칸집.(그래서 삼간집, 사간집.)
108002 @ 예.(예.)
108002 #1 경헤낫저, 초집도.(그랬었어, 초가도.)
108002 @ 이거 삼칸집인 거라예?(이거 삼간집인 거지요?)
108002 #1 이거 삼칸집도 안 뒈여.(이거 삼간집도 안 돼.)
108002 @ 안 뒈여?(안 돼?)
108002 #1 이거 저 십오 평 아니냐게. 십오 평이난 저 삼칸집 안 뒈여 이칸집이주.(이거 저 십오 평 아니냐. 십오 평이니까 저 삼간집 안 돼, 이간집이지.)
108002 @ 아.(아.)
108002 #1 삼칸집은 그자.(삼간집은 그저.)
108002 @ 형태는, 형태는 삼칸이잖아예?(형태는, 형태는 삼간집이잖아요?)
108002 #1 으, 형태는 삼칸집으로 뒈주. 지붕 ᄀᆞᆯ아 보믄, 오랑 삼칸집으로 ᄀᆞᆯ아 준다.(으, 형태는 삼간집으로 되지. 지붕 갈아 보면, 와서 삼간집으로 말해 줘.)
108002 @으.(으.)
108002 #1 경헤낫주, 무신 옛날에 경 쓰레뜨집 아이고, 엇어낫저. 기와집 엇어낫저.(그랬었지, 무슨 옛날에 그렇게 슬레이트집 아이고, 없었어. 기와집 없었어.)
108002 @ 다 초집이라예?(다 초가지요?)
108002 #1 으, 부제칩도. 부제칩도 기자 안팟거리.(으, 부잣집도. 부잣집도 그저 '안팟거리'.)
108003 @ 저기 안커리, 밧커리 그렇게만 잇어난?(저기 안채, 바깥채 그렇게만 있었어?)
108003 #1 으, 안커리, 밧커리, 몽커레.(으, 안채, 바깥채, 곁채.)
108003 @ 몽커레도 잇어난?(곁채도 있었어?)
108003 #1 으, 옆이 짓은 건 몽커레.(으, 옆에 지은 거는 곁채.)
108003 @ 게민 안커리, 밧커리, 몽커리?(그럼 안채, 바깥채, 곁채?)
108003 #1 으.(으.)

407) 'ᄉᆞ칸집'은 네 칸으로 지어진 집을 말한다.

108003 @ 쉐막 따로 잇고?(외양간 따로 있고?)

108003 #1 으, 쉐막 뜨로 잇고.(으, 외양간 따로 있고.)

108003 @ 게민 네 개 뒈겠다예?(그럼 네 개 되겠네요?)

108003 #1 어게. 경허민 그 부제칩덜은이 그 손청거리[408].(어. 그럼 그 부잣집들은 그 '손청거리'.)

108003 @ 손청거린 뭐과?('송손거리'는 뭡니까?)

108003 #1 손청거린 옛날게 큰어른덜 앚앙 영 이제민 첨 어디 큰어른덜 뭐 허민 송청거리엔 헌 디는 영 저 하르방덜, 문세 가진 하르방덜.('손청거리'는 옛날 큰어른들 앉아서 이렇게, 이제면 참 어디 큰어른들 뭐 하면 '송청거리'라고 하는 데는 이렇게 저 할아버지들, 문서 가진 할아버지들.)

108003 @ 예.(예.)

108003 #1 문세 가진 하르방 송청거리엔 짓곡 경헤낫저게. 올레거리[409]에.(문서 가진 할아버지 '손청거리'라고 짓고 그랬었어. '올레거리'에.)

108003 @ 게민 안커리, 밧거리.(그럼 안채, 바깥채.)

108003 #1 으, 손청거리.(으, '손청거리'.)

108003 @ 몽커리.(곁채.)

108003 #1 몽커레.(곁채.)

108003 @ 손청거리, 쉐막.('손청거리', 외양간.)

108003 #1 어.(어.)

108003 @ 다섯 채나 잇어?(다섯 채나 있어?)

108003 #1 어.(어.)

108003 @ 부제칩은?(부잣집은?)

108003 #1 어게, 부제칩덜은 막 몽커리여.(어, 부잣집들은 마구 곁채며.)

108003 @ 예.(예.)

108003 #1 밧거리여, 안거리여 이제 ᄉᆞ못 첨 손청거리여, 쉐막 경.(안채다, 바깥채다 이제 사뭇 참 '손청거리'다, 외양간 그렇게.)

108003 @ 음. 게민 손청거리는 집이 들어오는 올레에 잇어난 거?(음. 그럼 '손청거리'는 집에 들어오는 '올레'에 있었던 거?)

108003 #1 으, 올레거리에 영 손청거리라고.(으, '올레거리'에 이렇게 '손청거리'라고.)

108003 @ 예.(예.)

108003 #1 그건 아무나 경 그디 첨 남자 어른덜 영 모이고 허주게. 우잇어른덜.(그건 아무나 그렇게 거기 참 남자 어른들 이렇게 모이고 하지. 웃어른들.)

108003 @ 우잇어른 거기서 잠자고도 헷던 거?(웃어른 거기서 잠자고도 했던 거?)

---

408) 여기서 '손청거리'는 제보자가 집채 중 하나는 가리켜 말한 것이다. 골목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있는 집채를 가리켜 '촌청거리'로 설명하고 있다.

409) '올레거리'는 골목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올레' 가까이에 있는 집채를 말한다.

108003 #1 아니, 즘은 안 자고 영 영.(아니, 잠은 안 자고 이렇게 이렇게.)

108003 @ 사랑방처럼 놀앗던 거?(사랑방처럼 놀았던 거?)

108003 #1 사랑방이주, 사랑방.(사랑방이지, 사랑방.)

108003 @ 그니까 앉앙 놀앗엇던 거예?(그러니까 앉아서 놀았었던 거요?)

108003 #1 으, 으. 어른덜 가민 앚앙 놀고 기자. 부제칩덜은.(으, 으. 어른들 가면 앉아서 놀고 그저. 부잣집들은.)

108003 @ 예, 예. 게민 삼칸집 짓젠 허민 낭도 헹 와야 뒈고 흑도 헹 와야 뒈고 허잖아예?(예, 예. 그럼 삼간집 지으려고 하면 나무도 해서 와야 되고 흙도 해서 와야 되고 하잖아요?)

108003 #1 하이고.(하이고.)

108004 @ 삼칸집 짓는 과정을 좀 골아 줍서.(삼간집 짓는 과정을 좀 말해 주세요.)

108004 #1 과정은게 삼칸집 헤영 문 짓어 놓민게 흑질허민 우리 흑질 물 문 돌아가멍 흑질 물 질레 허벅[410]덜 경, 아이고, 오널 그 집이 흑질헐 거. 흑질헐 거 문 우리 동네에서 문 흑질 물 문 허벅으로 지영 강 문 비왕 점심 얻어먹고 그디서.(과정은 삼간집 해서 모두 지어 놓으면 흙질하면 우리 흙질 물 모두 돌아가면서 흙질 물 길러 '허벅'들 져서, 아이고, 오늘 그 집에 흙질할 거. 흙질할 거 모두 우리 동네에서 모두 흙질 물 모두 '허벅'으로 져서 가서 모두 부어서 점심 얻어먹고 거기서.)

108004 @ 음.(그랬었어.)

108004 #1 경헤나시네. 영 집 짓젠 허민 문 경헤낫어.(그랬었어. 이렇게 집 지으려고 하면 모두 그랬었어.)

108004 @ 집 짓젠 허면 경 동네 사름덜이 도와줫던 거?(집 지으려고 하면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던 거?)

108004 #1 어게, 도와준다게. 도와줘.(어, 도와준다. 도와줘.)

108004 @ 으.(으.)

108004 #1 그 흑을 쉐 잇인 집은 영 흑 그 옛날 삼칸집이라도 짓젠 허민 문 담으로 짓으민 흑질을 헤야 허주게, 흑질을.(그 흙을 소 있는 집은 이렇게 흙 그 옛날 삼간집이라도 지으려고 하면 모두 담으로 지으면 흙질을 해야 하지, 흙질을.)

108004 @ 예, 예.(예, 예.)

108004 #1 허민 그 흑을 기신새 놔근에 불려사주게.(하면 그 흙을 썩은새 넣어서 밟아야지.)

108004 @ 기신새 놩예?(썩은새 넣어서요?)

108004 #1 으, 기신새 놩 그 흑을 막 불려. 출, 출지게.(으, 썩은새 넣어서 그 흙을 마구 밟아. 찰, 찰지게.)

108004 @ 예.(예.)

108004 #1 출지게 막 불려.(찰지게 마구 밟아.)

410) '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로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가 아주 좁다.

108004 #1 경헨 그걸로 착착 데끼멍. 장갑을 찌카? 장갑도 안 쪙 그냥.(그래서 그걸로 착착 던지면서. 장갑을 낄까? 장갑도 안 끼고 그냥.)

108004 @ 게난, 게난 흑질허는 건 나중이잖아?(그러니까, 그러니까 흙질하는 건 나중이잖아?)

108004 #1 어, 나중에. 문 짓어 놩.(어, 나중에. 모두 지어 놔서.)

108004 @ 가장 먼저 허는 건 뭐꽈?(가장 먼저 하는 건 뭡니까?)

108004 #1 먼저 허는 건 낭 헤당은에게 어떵 낭 헤당 옛날에사 문 이녁냥으로 낭 헤당 헷주. 무신 낭 상 허는 사름이 멧 개나 잇이니게?(먼저 하는 건 나무 해다가 어떻게 나무 해다가 옛날에야 모두 자기대로 나무 해다가 했지. 무슨 나무 사서 하는 사람이 몇 개나 있니?)

108004 @ 예.(예.)

108004 #1 문 이녁냥으로 헤당 짓엇주게. 도벌 낭, 도벌 낭 헤당 ᄉᆞ못 낭 헤당. 우리도 이 안거리 이거 하르방[411]냥으로 짓으켄 허멍 이 낭 헤당 놈의 대왓디 곱젼 놔두난 살림청에 왕 껄련.(모두 자기대로 해다가 지었지. 도벌 나무, 도벌 나무 해다가 사뭇 나무 해다가. 우리도 이 안채 이거 할아버지대로 짓겠다고 하면서 이 나무 해다가 남의 대나무밭에 숨겨 놔두니까 살림청에서 와서 걸렸어.)

108004 @ 아고.(아고.)

108004 #1 문 시꺼 가 불언.(모두 실어 가 버렸어.)

108004 @ 아.(아.)

108004 #1 문 시꺼 가 부난 이거 낭 산 헷어, 상. 이녁 낭 문 일허부난. 문 산 헷저게, 산. 경허민 목시 빌엉 문 이거. 옛날은 목시가 주장 아니가게.(모두 실어 가 버리니까 이거 나무 사서 했어, 사서. 자기 나무 모두 잃어버리니까. 모두 사서 했어, 사서. 그러면 목수 빌려서 모두 이거. 옛날은 목수가 주장 아니니.)

108004 @ 예.(예.)

108004 #1 이제는 사강이 주장이라도이 옛날은 목시가 주장이여게. 낭으로 문 그 ᄉᆞ못 그 집이나 저 집이나 서리, 서리엔 헌다. 이 가젱이 걸치는 것이, 톡톡 걸치는 것이.(이제는 미장이가 주장이어도 옛날은 목수가 주장이야. 나무로 모두 그 사뭇 그 집이나 저 집이나 서까래, 서까래라고 한다. 이 가지 걸치는 것이, 톡톡 걸치는 것이.)

108004 @ 어디, 지붕에?(어디, 지붕에?)

108004 #1 어, 지붕에 걸치는 것ᄀᆞ라.(어, 지붕에 걸치는 것보고.)

108004 @ 벽에도 서리 걸칩니까?(벽에도 서까래 걸칩니까?)

108004 #1 벡에는 서리엔 안 헌다. 벡에는 서리엔 안 헹.(벽에는 서까래라고 안 한다. 벽에는 서까래라고 안 하고.)

108004 @ 지붕에?(지붕에?)

108004 #1 지붕 우에 걸치는 것이, 상ᄆᆞ루 걸쳐 놩 그 버금은 서리 걸친덴 헌

411)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하는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다.(지붕 위에 걸치는 것이, 용마루 걸쳐 놓고 그 버금은 서까래 걸친다고 한다.)
108004 @ 게난 우선은 이.(그러니까 우선은 이.)
108004 #1 상ᄆᆞ루 걸쳐 놩.(용마루 걸쳐 놓고.)
108004 @ 지둥을 먼저 세울 거 아니?(기둥을 먼저 세울 거 아니?)
108004 #1 지둥 영 세와 가주게.(기둥 이렇게 세워 가지.)
108004 @ 세우고.(세우고.)
108004 #1 으.(으.)
108004 @ 우에 상ᄆᆞ루.(위에 용마루.)
108004 #1 주칫돌 놔근에.(주춧돌 놔서.)
108004 @ 주춧돌 먼저 놓고?(주춧돌 먼저 놓고?)
108004 #1 어, 주칫돌 놔 낭, 낭 가깡 세와 놩.(어, 주춧돌 놓고 나서, 나무 깎아서 세워 놓고.)
108004 @ 예.(예.)
108004 #1 이제 방 네 개민 네 개 세왕.(이제 방 네 개면 네 개 세워서.)
108004 @ 예.(예.)
108004 #1 그 우터렌 또 이젠 천장 멘들앙.(그 위에는 또 이젠 천장 만들어서.)
108004 @ 멘들앙.(만들어서.)
108004 #1 마지막엔, 마지막엔.(마지막엔, 마지막엔.)
108004 @ 상ᄆᆞ루 헹 천장 메와.(용마루 해서 천장 메워서.)
108004 #1 건, 마지막 막 마지막.(건, 마지막 아주 마지막.)
108004 @ 마지막.(마지막.)
108004 #1 상ᄆᆞ루 멘드는 건 마지막 아냐. 아이, 그 집인 오널 상ᄆᆞ루 헤영 서리 걸친덴.(용마루 만드는 건 마지막 아냐. 아니, 그 집은 오늘 용마루 해서 서까래 걸친다고.)
108004 @ 예.(예.)
108004 #1 경 ᄀᆞᆯ아낫저.(그렇게 말했었어.)
108004 @ 예.(예.)
108004 #1 경헷주, 무신. 이레 오라. 왕 감저 친 거 먹으라.(그랬지, 무슨. 이리 와라. 와서 고구마 찐 거 먹어라.)
108004 @ 이레 오십서.(이리 오십서.)
108004 #1 감제 친 거 먹으라.(고구마 찐 거 먹어라.)
108004 #4 감저 나도 쳔.(고구마 나도 쪘어.)
108004 #1 이 집 짓어난 말 ᄀᆞᆯ암저, 집 짓어난 말.(이 집 지었던 말 하고 있어, 집 지었던 말.)
108004 #4 잘 ᄀᆞᆯ암수다게.(잘 말하고 있습니다.)
108004 @ 이 상ᄆᆞ루 걸치는 거.(이 용마루 걸치는 거.)
108004 #1 어게, 상ᄆᆞ루 걸쳐 놔사 서릴 걸치주게. 아멩헤도. 우리 이거.(어, 용

마루 걸쳐 놓아야 서까래를 걸치지. 아무래도 우리 이거.)

108005 @ 들포엔 헌 거 뭐?(들보라고 하는 거 뭐?)

108005 #1 들포?(들보?)

108005 @ 예.(예.)

108005 #1 들포엔 헌 건 이 상ᄆᆞ루포 말이주게.(들보라고 하는 건 이 용마루 보 말이지.)

108005 @ 상ᄆᆞ루포. 도리는 뭐과, 도리?(용마루. 도리는 뭡니까, 도리?)

108005 #1 도리? 도리엔 헌 거는.(도리? 도리라고 하는 거는.)

108005 @ 서리, 도리.(서까래, 도리.)

108005 #1 서리 그 끗뎅이ᄀᆞ랑 도리엔 헴실 거여, 끗겡이ᄀᆞ라 도리. 서리 끗.(서까래 그 끄트머리보고 도리라고 하고 있을 거야, 끄트머리보고 도리, 서까래 끝.)

108005 @ 서리 끗.(서까래 끝.)

108005 #1 으, 서리 끗이 도리라.(으, 서까래 끝이 도리야.)

108005 @ 게민, 게민 어쨋든 주춧돌 놩 지둥 세웡.(그럼, 그럼 어쨌든 주춧돌 놔서 기둥 세워서.)

108005 #1 으.(으.)

108005 @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도리 허고 서리 허고.(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도리 하고 서까래 하고.)

108005 #1 어게, 저 상ᄆᆞ루 걸치고.(어, 저 용마루 걸치고.)

108005 2 예.(예.)

108005 #1 상ᄆᆞ루 걸쳐 놩 마지막엔 서린 걸치는 거 아니냐게?(용마루 걸쳐 놓고 마지막에는 서까래 걸치는 거 아니냐?)

108005 @ 예.(예.)

108005 #1 서리 걸쳐 놩 또 이제 가시새[412], 가시새엔 헌 거 준 거 빠지지 안허게 서리 걸쳥. ᄀᆞ르 ᄀᆞ르로 논 거.(서까래 걸쳐 놓고 또 이제 가시새, 가시새라고 하는 거 잔 거 빠지지 않게 서까래 걸쳐서. 가로 가로로 놓는 거.)

108005 @ 예.(예.)

108005 #1 ᄀᆞ르 ᄀᆞ르 놓는 거여, 그 가시새엔 헌 건.(가로 가로 놓는 거야, 그 가시새라고 하는 건.)

108005 @ 가시새예?(가시새요?)

108005 #1 으, 서리 막는 거.(으, 서까래 막는 거.)

108005 @ 아, 서리 막는 거.(아, 서까래 막는 거.)

108005 #1 으. 이젠 베니다[413]로덜 탁탁 막암주만은 옛날은 우리 거 가시새로덜.(으. 이제는 베니어로들 탁탁 막고 있지만 옛날은 우리 거 가시새로들.)

108005 @ 가시생이?('가시생이'?)

412) 여기서 제보자는 '가시새'를 '산자'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 '산자'는 서까래 위에 까는 물건인데 이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반지, 서슬, 서슬목' 등이 있다. 한편, '가시새'는 벽체에 하는 외의 가로 나무를 말한다.

413) '베니다'는 일본어 'べにイタ'에서 온 말로, 얇게 켠 나무 널빤지인 '베니어'를 말한다.

108005 #1 가시새, 가시새 헤낫저게.(가시새, 가시새 했었어.)

108005 @ 가시새, 가시새예?(가시새, 가시새요?)

108005 #1 으, 아이고, 이 집 혼 거리치 우리 집 하르방[414] 헤당 바깟 우영에 데멋당 오꼿 산림청에 껄령. 이거 문 산 헷어, 산.(으, 아이고, 이 집 한 채치 우리 집 할아버지 해다가 바깥 터앝에 쟁였다가 그만 산림청에 걸려서. 이거 모두 사서 했어, 사서.)

108005 #4 옛날은 토벌 강 막 낭덜, 산에 강.(옛날은 토벌 가서 마구 나무들, 산에 가서.)

108005 #1 우리 하르방 혼 거리치 이거 헤 오라지 안헤시냐? (우리 할아버지 한 채치 이거 해 왔었지 않았니?)

108005 #4 몰로로 문 헤다근에.(모르게 모두 해다가.)

108005 #1 문딱 헤당 바깟 우영에 눌엉 놔두난 오꼿 밀세사 헤 벼신디.(모두 해다가 바깥 터앝에 가려서 놔두니까 그만 밀서야 해 버렸는지.)

108005 #4 껄련?(걸렸어?)

108005 #1 껄련. 껄련 오꼿.(걸렸어. 걸렸어, 그만.)

108006 @ 삼춘 외, 고데, 개위 그런 거 알아지쿠과?(삼촌 외, 새우, 인방 그런 거 알겠습니까?)

108006 #1 몰르켜, 뭣산디.(모르겠어, 뭐인지.)

108006 @ 고데?(새우.)

108006 #1 고덴 뭣산디. 고데 올려, 고데 올려 헌 건. 이 상ᄆᆞ리 올리는 것ᄀᆞ라 고데 올리렌 허주게. 상ᄆᆞ리 올리는 것ᄀᆞ라 고데 올렴저. 고데 올렴저.(새우 뭐인지. 새우 올려, 새우 올려 하는 건. 이 용마루 올리는 것보고 새우 올리라고 하지. 용마루 올리는 것보고 새우 올린다. 새우 올린다.)

108006 @ 예. 개위는?(예. 인방은?)

108006 #1 개윈 모르켜, 나.(인방은 모르겠어, 나.)

108006 @ 천아반귀틀?(반자틀?)

108006 #1 으?(으?)

108006 @ 천아반귀틀?(반자틀?)

108006 #1 천아반귀틀도 이 집 짓는디 문 들어가는 걸 거여만은, 나.(반자틀도 이 집 짓는데 모두 들어가는 걸 거지만, 나.)

108006 #4 반귀틀은 몰라도 천아반, 천아반 헤낫저.(반자틀은 몰라도 '천아반', '천아반' 했었어.)

108006 #1 어.(어.)

108006 @ 우에, 우에 올리는 거?(위에, 위에 올리는 거?)

108006 #1 어게, 천아반.(어, 반자.)

108005 #4 우에 것이 천아반.(위의 것이 반자.)

414) '하르방'은 표준어의 '할아버지'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제보자의 남편을 가리킨다.

108006 @ 천아반예?(반자요?)

108006 #1 으.(으.)

108004 @ 이거 다 올린 다음에 그다음 흑질을 할 거과?(이거 다 올린 다음에 그다음 흙질을 할 겁니까?)

108004 #1 흑질이사 이거 저 믄짝 헤여 놩 허는 거주게. 완료뒌 후에.(흙질이야 이거 저 모두 해 놓고 하는 거지. 완료된 후에.)

108004 @ 그럼 맨 마지막에 흑질을 허는 거예?(그럼 맨 마지막에 흙질을 하는 거요?)

108004 #1 으, 흑질은 마지막에 허는 거주게.(으, 흙질은 마지막에 하는 거지.)

108004 @ 게민 그 흑질을 헐 때 동네 사름덜이 다 왕 도와주는 거?(그럼 그 흙질을 할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도와주는 거?)

108004 #1 어게, 옛날은이 흑 불령 그신새 놩 흑 불려 가민 우리.(어, 옛날은 흙 밟아서 썩은새 놓고 흙 밟아 가면 우리.)

108004 #4 옛날은 돈 안 줘도 왕 헤 주고 그자 밥만, 점심만 헤 주곡.(옛날은 돈 안 줘도 와서 해 주고 그저 밥만, 점심만 해 주고.)

108004 @ 으.(으.)

108004 #1 점심 헤 주민 우리 얻어먹곡.(점심 해 주면 우리 얻어먹고.)

108004 #4 물도 이 수도가 엇이난 허벅으로 물 져다근에 동네 여자덜이 와근에 물 져다근에 흑 헐 때 믄딱 물도 져다 주고.(물도 이 수도가 없으니까 '허벅'으로 물 져다가 동네 여자들이 와서 물 져다가 흙 할 때 모두 물도 져다 주고.)

108004 @ 져다 주고예.(져다 주고요.)

108004 #4 서로 어우, 서로서로 ᄀᆞ찌 어우르멍 허는 거.(서로 어우, 서로서로 같이 어우르면서 하는 거.)

108004 @ 게난, 겨난 물 져다 주는 게 완전 부주허는 거 아니꽈?(그러니까, 그러니까 물 져다 주는 게 완전 부조하는 거 아닙니까?)

108004 #1 부지허는 거 우리 부지허레, 서로.(부조하는 거 우리 부조하러, 서로.)

108004 @ 기지예.(그렇지요.)

108004 #1 수눌엉.(품앗이해서.)

108004 @ 수눌엉예.(품앗이해서요.)

108004 #4 점심밥만 얻어먹어, 강.(점심밥만 얻어먹어, 가서.)

108004 #1 점심밥만 얻어먹는 거.(점심밥만 얻어먹는 거.)

108004 @ 그럼 집주인이 점심밥을 내는 거?(그럼 집주인이 점심밥을 내는 거?)

108004 #4 으, 집주인이 점심밥을 헤주는 거.(으, 집주인이 점심밥을 해주는 거.)

108004 #1 우리 얻어먹으레게, 얻어먹으레. 물 질엉 강 얻어먹으레.(우리 얻어먹으러, 얻어먹으러. 물 길어서 가서 얻어먹으러.)

108004 #4 옛날엔 서로서로 그추룩 안 허민 일은 못 헷주게.(옛날에는 서로서로 그처럼 안 하면 일은 못 했지.)

108004 @ 예, 예.(예, 예.)
108004 #1 에구, 첨.(어이구, 참.)
108004 @ 그럼 흑은 누게가, 집주인이 다 헤다 놓는 거?(그럼 흙은 누가, 집주인이 다 해 놓는 거?)
108004 #1 주인이 흑이사게 파 놓주게.(주인이 흙이야 파 놓지.)
108004 @ 파 놓고.(파 놓고.)
108004 #1 으, 이녁 우잣 안에 엇이민 어디 강 시꺼 와사. 팡 시꺼 와사. 경혜영 그 그신새 놓곡 물 비우곡. 경혜영 흑질허는 거라.(으, 자기 터앝 안에 없으면 어디 가서 실어 와야. 파서 실어 와야. 그래서 그 썩은새 놓고 물 붓고. 그래서 흙질하는 거야.)
108004 @ 으.(으.)
108004 #1 그 경 어디 무신 흑은 지냥으로 나오람시냐. 아이고.(그 그렇게 어느 무슨 흙은 자기대로 나오니. 아이고.)
108007 @ 게민 이제 방 물어보쿠다, 방예. 이디를 무슨 방이렌 골읍니까?(그럼 이제 방 물어보겠습니다, 방요. 여기를 무슨 방이라고 말합니까?)
108007 #1 이거 무슨 방이렌 헤, 이거 큰구들이엔 곧.(이거 무슨 방이라고 해, 이거 큰방이라고 말.)
108007 @ 큰구들?(큰방?)
108007 #1 어. 족아도 큰구들 우선, 부엌 부튼 거 큰구들이엔 헌다. 이 제주돈. 부엌 부튼 건 큰구들.(어. 작아도 큰방 우선 부엌 붙은 거 큰방이라고 한다. 이 제주도는. 부엌 붙은 건 큰방.)
108007 @ 예, 그다음?(예, 그다음?)
108007 #1 작은구들.(작은방.)
108007 @ 작은구들, 족은구들이엔 허지 안헙니까?(작은방, 작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08007 #1 족은구들 옛날은. 옛날 말론 족은구들.('족은구들' 옛날은. 옛날 말로는 '족은구들'.)
108007 @ 옛날 말로 골아 주십서.(옛날 말로 말해 주십시오.)
108007 #1 큰구들, 족은구들 하하하.(큰방, 작은방 하하하.)
108007 @ 맞아예, 족은구들.(맞아요, 작은방.)
108007 #1 항상 이 정지 부튼 거 큰구들 경. 이 부엌 부튼 건. 어떤 집이라도.(항상 이 부엌 붙은 거 큰방 그렇게. 이 부엌 붙은 건. 어떤 집이어도.)
108007 @ 근데 이거는.(그런데 이거는.)
108007 #1 찻방.(찻방.)
108007 @ 찻방?(찻방?)
108007 #1 으, 찻방.(으, 찻방.)
108007 @ 찻방예. 이거는 현대식으로 지으난 정지가 여기 있는 거 아니꽈?(찻방

요. 이거는 현대식으로 지으니까 부엌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108007 #1 어게.(어.)
108007 @ 이쪽에 정지 항상?(이쪽에 부엌 항상?)
108007 #1 저쪽에가 정지 헤낫저게. 저쪽에.(저쪽이 부엌 했었어. 저쪽에.)
108007 #4 저쪽에 싱크대 논 디는 정제.(저쪽에 싱크대 놓은 데는 부엌.)
108007 @ 으.(으.)
108007 #1 여기는 밥 먹는 디는 찻방.(여기는 밥 먹는 데는 찻방.)
108007 @ 아, 정지 들어갈 때 여기 하나 있는 게.(아, 부엌 들어갈 때 여기 하나 있는 게.)
108007 #1 어, 찻방 걸쳥 들어가는 거.(어, 찻방 걸쳐서 들어가는 거.)
108007 @ 거쳐 가는 거.(거쳐 가는 거.)
108007 #1 으, 찻방 거쳥 정제 들어가는 거.(으, 찻방 거쳐서 부엌 들어가는 거.)
108007 @ 찻방 거쳐 정제 들어가고. 게민 방에는 큰방에, 큰구들엔 벡장 잇수꽈?(찻방 거쳐 부엌 들어가고. 그럼 방에는 큰방에, 큰방에는 벽장 있습니까?)
108007 #1 우리 저 시렁 잇이네게.(우리 저 벽장 있었어.)
108007 #4 옛날 벡장 다 헤 놧주.(옛날 벽장 다 해 놨지.)
108007 @ 삼춘 저거 시렁이렌 골앗수꽈, 벡장이렌 골앗수꽈?(삼촌 저거 '시렁'이라고 말했습니까, '벡장'이라고 말했습니까?)
108007 #1 어게.(어.)
108007 #4 시렁, 시렁.('시렁', '시렁'.)
108007 #1 시렁이엔도 곧고 벡장이엔도 곧고.('시렁'이라고도 말하고 '벡장'이라고도 말하고.)
108007 #4 옛날엔 시렁.(옛날엔 '시렁'.)
108007 #1 시렁.('시렁'.)
108007 #4 시렁 우이 이불 개여 놓곡.(벽장 위에 이불 개어 놓고.)
108007 @ 궤 놓고?(궤 놓고?)
108007 #1 궤도 저 소곱에 잇저게. 옛날 궤.(궤도 저 속에 있어. 옛날 궤.)
108007 @ 게난 여기는 시렁에 영 문 돌앗수다예?(그러니까 여기는 벽장에 이렇게 문 달았네요?)
108007 #1 어게.(어.)
108007 #4 아니, 옛날에 문도 안 돌앗저.(아니, 옛날에 문도 안 달았어.)
108007 @ 그니까 벽장으로 헹 이렇게만 꺼꺼지게.(그러니까 벽장으로 해서 이렇게만 꺾어지게.)
108007 #1 야, 옛날은이 벡장에 이불을 칭칭 담앗주게.(야, 옛날은 벽장에 이불을 층층 담았지.)
108007 @ 그니까 그니까 다 보이게.(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보이게.)
108007 #1 경헤신디 이거 고쳐시네. 글후제 고친 거.(그랬는데 이거 고쳤어. 그

후에 고친 거.)
108007 @ 아.(아.)
108007 #1 옛날 집 헷당 이거 문을 든 거.(옛날 집 했다가 이거 문을 단 거.)
108007 @ 게난 시렁이랑 벡장이랑은 ᄀᆞ튼 것과?(그러니까 '시렁'이랑 '벽장'이랑은 같은 겁니까?)
108007 #1 ᄀᆞ튼 거.(같은 거.)
108007 #4 ᄀᆞ뜬 거.(같은 거.)
108007 @ ᄀᆞ튼 거?(같은 거?)
108007 #1 어. ᄀᆞ튼 거, ᄀᆞ튼 거.(어. 같은 거, 같은 거.)
108007 #4 겐 문 든 거는 이제사.(그래서 문 단 거는 이제야.)
108007 #1 으, 그거 고찐 거. 멧 년 전에 것도. 저거 고찌건 디도 오래서이.(으, 그거 고친 거. 몇 전에 것도. 저거 고친 지도 오랬어.)
108007 #4 이거 신식으로 고찐 집.(이거 신식으로 고친 집.)
108007 #1 고찐 거주. 아이고.(고친 거지. 아이고.)
108007 @ 게민 그 벡장 우에는 궤 올려놓고?(그럼 그 벽장 위에는 궤 올려놓고?)
108007 #1 으. 이불게.(으. 이불.)
108007 @ 이불 개여 놓고. 게민 방 ᄯᅳ뜻헌 디는 뭐렌 ᄀᆞᆯ읍니까? 굴묵[415] 짇엉 ᄯᅳ뜻헌 디.(이불 개어 놓고. 그럼 방 따뜻한 데는 뭐라고 말합니까? '굴묵' 때서 따뜻한 데.)
108007 #4 온돌방.(온돌방.)
108007 #1 굴묵 짇엉.('굴묵' 때서.)
108007 @ 아니, 아랫목?(아니, 아랫목?)
108007 #1 아랫목이 ᄃᆞ뜻헷저, 헤여.(아랫목이 따뜻했어, 해.)
108007 @ 예.(예.)
108007 #1 아랫목이 ᄃᆞ뜻헷저. 아랫목이엔 굴묵 짇으민 아랫목이 ᄃᆞ뜻헷저, 헤영.(아랫목이 따뜻했어, 아랫목이라고 '굴묵' 때면 아랫목이 따뜻했어, 해서.)
108007 @ ᄃᆞᄃᆞ헤저 허는 거고예.(따뜻했어 하는 거고요.)
108007 #1 아고, 옛날이사.(아이고, 옛날이야.)
108008 @ 여기는 뭐렌 불럿수꽈, 여기는?(여기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기는?)
108008 #4 삼방.(마루.)
108008 #1 상방, 상방이엔 헷주.(마루, '상방'이라고 했지.)
108008 @ 상방이렌 ᄀᆞᆫ는 거예?('상방'이라고 말하는 거요?)
108008 #1 으, 상방.(으, '상방'.)
108008 @ 게민 옛날에는 상방이 지금은 마루 요거.(그럼 옛날에는 '상방'이 지금은 마루 요거.)

415)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08008 #1 으.(으.)

108008 @ 이거 마루잖아예. 옛날 마루덜 보민 널찍널찍헌 마루덜.(이거 마루잖아요. 옛날 마루들 보면 널찍널찍한 마루들.)

108008 #1 저, 옛날 낭은게 저 네귀방장, 네귀방장.(저, 옛날 나무는 저 네모반듯, 네모반듯.)

108008 @ 네귀방장.(네모반듯.)

108008 #4 통으로 막 헤근에게 든든허게시리.(통으로 마구 해서 단단하게끔.)

108008 #1 그거 든든허게 헷주만은.(그거 단단하게 했지만.)

108008 @ 요만큼씩 허멍 영 꿰여 맞추멍.(요만큼씩 하면서 이렇게 꿰서 맞추면서.)

108008 #1 어게, 어, 어. 경헌디게 이 마린게 길쭉길쭉허게시리 원.(어, 어, 어. 그런데 이 마루는 길쭉길쭉하게끔 원.)

108008 @ 게민 이렇게 만든 마리를 널마리렌 골읍니까?(그럼 이렇게 만든 마루를 널마루라고 말합니까?)

108008 #4 널이주, 널.(널이지, 널.)

108008 #1 널마린 널로 헌 거난 널마리주게.(널마루는 널로 한 거니까 널마루지.)

108008 @ 널마리예?(널마루요?)

108008 #1 으, 널마리. 삼방이엔도 허고 마리엔도 허고.(으, 널마루. '삼방'이라고도 하고 '마리'라고도 하고.)

108008 @ 옛날 집, 삼춘 어렸을 때 집 한번 생각헤 봅서.(옛날 집, 삼촌 어렸을 때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8008 #1 옛날 집은 무슨 옛날 집.(옛날 집은 무슨 옛날 집.)

108008 @ 그때 널마리랏수과?(그때 널마루였습니까?)

108008 #1 어게, 널마리주게, 옛날 집은. 아주 옛날 집은 널마리 아니냐게?(어, 널마루지, 옛날 집은. 아주 옛날 집은 널마루 아니냐?)

108008 @ 예, 널마리예.(예, 널마루요.)

108008 #1 아주 옛날에.(아주 옛날에.)

108008 @ 그니까 어렸을 때 집은예.(그러니까 어렸을 때 집은요.)

108008 #1 옛날 집은 널마리 허곡 이 널마리 가운디 부섭[416], 부섭이엔 안 허느냐?(옛날 집은 널마루 하고 이 널마루 가운데 '부섭', '부섭'이라고 안 하냐?)

108008 @ 으, 부섭.(으, '부섭')

108008 #1 돌 부섭 헤영.(돌 '부섭' 해서.)

108008 #4 부섭 돌로 이렇게 네귀방장허영 모다놩 불살랑 초는 거.('부섭' 돌로 이렇게 네모반듯해서 모아놓고 불살라서 쬐는 거.)

108008 #1 으, 불살랑 초고.(으, 불살라서 쬐고.)

---

416) '부섭'은 마루 바닥에 설치된 돌화로를 말한다. '봉덕'이라고도 한다.

108008 @ 불살랑 초고.(불살라서 쬐고.)
108008 #1 으, 경헤낫주게.(으, 그랬었지.)
108008 @ 거기서 뭐 구워 먹기도 허고?(거기서 뭐 구워 먹기도 하고?)
108008 #1 게. 구워도 먹고게.(그래. 구워도 먹고.)
108008 #4 고기도 구워 먹주게.(고기도 구워 먹지.)
108008 #1 불도 초곡게.(불도 쬐고.)
108008 #4 추우난 불 초앗주게. 이제거치 난로 같은 거 엇이난에.(추우니까 불 쬐었지. 이제같이 난로 같은 거 없으니까.)
108008 #1 아이고, 이제사 난로 앚다 놩 호강도.(아이고, 이제야 난로 가져다 놔서 호강도.)
108008 @ 게난 옛날 초집에, 삼춘네 어렸을 때.(그러니까 옛날 초가에, 삼촌네 어렸을 때.)
108008 #1 알아지주게.(알지.)
108008 @ 부섭이 다 잇어낫수과?('부섭'이 다 있었습니까?)
108008 #1 어. 부섭 엇인 집 엇다. 부섭 엇엉 살아지느냐?(어. '부섭' 없는 집 없다. '부섭' 없어서 살 수 있니?)
108008 #4 추워근에 부섭은 다 잇어.(추워서 '부섭'은 다 있어.)
108008 #1 추웡.(추워서.)
108008 @ 추웡?(추워서?)
108008 #1 으, 부섭 엇엉 살아지느냐? 화릴 구들엔 화리 앚다 놓고.(으, '부섭' 없어서 살 수 있니? 화로를 방에는 화로 가져다 놓고.)
108008 @ 으.(으.)
108008 #1 화리, 옛날 화리.(화로, 옛날 화로.)
108008 #4 불, 불 거기서 살랑 놩 어떵 게스미[417] 불부쩡 그레 담아당 놩 방에서는 그거 피웁고.(불, 불 거기서 살라 놔서 어떻게 뜬숯 불붙여서 그리 담아다가 놔서 방에서는 그거 피우고.)
108008 #1 이젠 얼어 가민 보일라 틀고.(이젠 추워 가면 보일러 켜고.)
108008 @ 으.(으.)
108008 #1 어느 절에. 나 이제 저 매트도 턴 내벳저, 침대에.(어느 겨를에. 나 이제 저 매트도 켜서 내버렸어, 침대에.)
108008 #4 무신 오늘 듯은 날인디.(무슨 오늘 다스운 날인데.)
108008 #1 하하.(하하.)
108008 @ 영 들어오면 부섭은 어디, 가운데 놉니까?(이렇게 들어오면 '부섭'은 어디, 가운데 놓습니까?)
108008 #1 이레.(이리.)
108008 #4 조금 안네.(조금 안에.)

417) '게스미'는 일본어 'げすみ'에서 온 말로, 표준어 '뜬숯'에 해당하는 말이다.

108008 @ 안에.(안에.)
108008 #1 뒷문 ᄇᆞ디게.(뒷문 밭게.)
108008 @ 뒷문 ᄇᆞ디게예?(뒷문 밭게요?)
108008 #1 으, 앞으론 손님 뎅기는 따문.(으, 앞으로는 손님 다니는 때문.)
108008 @ 예, 예.(예, 예.)
108008 #1 뒷문 ᄇᆞ디게.(뒷문 밭게.)
108008 @ 이쪽에는 뭐 엇어낫수과, 마루에 물건 놓는 거? 살레 같은 거 엇어난?(이쪽에는 뭐 없었습니까, 마루에 물건 놓는 거? 찬장 같은 거 없었어?)
108008 #1 살레? 살레사.(찬장? 찬장이야.)
108008 #4 살레는이 부엌에.(찬장은 부엌에.)
108008 #1 아, 부엌에 놧주, 옛날. 살레, 살레 허멍 부엌에 놧주.(아, 부엌에 놨지, 옛날. '살레', '살레' 하면서 부엌에 놨지.)
108008 #4 찻장ᄀᆞ라 살레엔 헷주게.(찬장보고 '살레'라고 했지.)
108008 #1 어.(어.)
108008 #4 사발 어프는 거.(사발 엎는 거.)
108008 #1 아고, 옛날 살레사.(아이고, 옛날 찬장이야.)
108008 @ 그거 말고 삼방 끝에 뭐 물건덜 놔두는 공간은 엇어낫수과?(그거 말고 마루 끝에 뭐 물건들 놔두는 공간은 없었습니까?)
108008 #1 우리 기억으론 마리 뒤에 무시거 엇어.(우리 기억으론 마루 뒤에 뭐 없어.)
108008 @ 엇어난.(없었어.)
108008 #1 저런 신장도 엇어나고 아무것도 엇어낫어.(저런 신발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
108009 @ 예. 게민 고팡은?(예. 그럼 고방은?)
108009 #1 고팡 잇주게.(고방 있지.)
108009 #4 고팡은.(고방은.)
108009 @ 어디에?(어디에?)
108009 #1 옛날 고팡. 고팡은 어드레 허느냐 허면은 저 부엌 저거 허지 안허느냐이? 저디 부엌이민 경허민 영허영 안팡이라고 소랑허게 욜로 요만인 허주, 안팡 그것ᄀᆞ라 고팡.(옛날 고방. 고방은 어디 하느냐 하면 저 부엌 저거 하지 않니? 저기 부엌이면 그러면 이렇게 '안팡'이라고 길쭉하게 요리로 요만큼 하지, '안팡' 그것보고 고방.)
108009 @ 부엌 안에 고팡이 잇어?(부엌 안에 고방이 있어?)
108009 #4 젤 안네 고팡.(제일 안에 고방.)
108009 #1 젤 안네가 고팡. ᄒᆞ쏠 허민 고팡에 강.(제일 안에가 고방. 조금 하면 고방에 가서.)
108009 @ 큰방, 큰방 옆에, 큰구들 옆에 고팡이 있는 게 아니고?(큰방, 큰방 옆

에, 큰방 옆에 고방이 있는 게 아니고?)
108009 #1 큰구들 옆에 잇지 안허고, 그것도이 저 집집마다 꼭ᄀᆞ뜨진 안헌다.(큰방 옆에 있지 않고, 그것도 저 집집마다 똑같지는 않다.)
108009 #4 ᄀᆞ트진 안허여.(같지는 않아.)
108009 #1 ᄀᆞ트지 안헌다게.(같지 않다.)
108009 #4 부엌 부쩽도 잇고.(부엌 붙어서도 있고.)
108009 #1 부엌 부쩽도 고팡이 잇고 마리에 부쩽도 고팡이 잇고 경헷저, 옛날은.(부엌 붙어서도 고방이 있고 마루에 붙어서도 고방이 있고 그랬어, 옛날은.)
108009 #4 지금 거트민 젤 안쪽에.(지금 같으면 제일 안쪽에.)
108009 #1 꼭 ᄒᆞᆫ 식으로 허질 안헷저. 옛날 집도.(꼭 한 식으로 하지 않았어. 옛날 집도.)
108009 @ 음.(음.)
108009 #1 경허질 안허여.(그러질 않아.)
108009 @ 고팡에 옛날.(고방에 옛날.)
108009 #4 항아리 고팡에 양쪽으로 쭉 놔 가지고.(항아리 고방에 양쪽으로 쭉 놓아 가지고.)
108009 @ 예.(예.)
108009 #1 보리쏠, 좁쏠 막 그런 거, 다 농사질 때는 그런 거 놓는 거 고팡이주게.(보리쌀, 좁쌀 마구 그런 거, 다 농사지을 때는 그런 거 놓는 거 고방이지.)
108009 @ 예, 항아리들 놩, 곡석 항아리들.(예, 항아리들 놔서, 곡식 항아리들.)
108009 #1 양펜이 쑥 허게시리 놩 곡석 ᄀᆞ득으민.(양편에 쭉 하게끔 놔서 곡식 가득하면.)
108009 @ 옛날에는 고팡에 창문이 엇어낫잖아예, 뭐가 잇어낫수과?(옛날에는 고방에 창문이 없었잖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108009 #1 왁왁.(컴컴.)
108009 @ 왁왁, 게도 바람 통허렌.(컴컴, 그래도 바람 통하라고.)
108009 #1 바람 통헐 거 앞이벳기 엇엉 무시거 창곰[418] ᄒᆞ꼼 고망 뚤랑.(바람 통할 거 앞에밖에 없어서 뭐 '창곰' 조금 구멍 뚫어서.)
108009 @ 창곰 잇어낫지예?('창곰' 있었지요?)
108009 #1 으, 경헷주. 문이 어디 잇느니게.(으, 그랬지. 문이 어디 있니.)
108009 @ 문이 엇어예?(문이 없어요?)
108009 #1 아이고, 문 안 헤 봣저, 옛날에.(아이고, 문 안 해 봤어, 옛날에.)
108009 @ 창곰은 잇어나서예?('창곰'은 있었지요?)
108009 #1 어.(어.)
108009 @ 공기 통허렌.(공기 통하라고.)
108009 #1 우리 어멍네 고팡 봐낫주, 나 기자.(우리 어머니네 고방 봤었지, 나

418) '창곰'은 고방 등에 바람을 통하게 하려고 벽에 조그맣게 구멍을 뚫은 것이다.

그저.)

108009 @ 예. 어렸을 때, 어렸을 때.(예. 어렸을 때, 어렸을 때.)

108009 #1 우리 어멍네 고팡 봐낫주.(우리 어머니네 고방 봤었지.)

108009 @ 게난 그 고팡에서 식게허젠 허민 거기 안칠성도 모시고 헙니까?(그러니까 그 고방에서 제사하려고 하면 거기 '안칠성'도 모시고 합니까?)

108009 #4 어게, 안칠성[419]에 밥 거려 간다.(어, '안칠성'에 밥 떠 간다.)

108009 #1 안칠성, 그 칠성[420]도 여라 가진다게.('안칠성', 그 '칠성'도 여러 가지다.)

108009 @ 예.(예.)

108009 #1 일뤠 잇고.(이레 있고.)

108009 @ 일뤠 칠성.(이레 '칠성'.)

108009 #4 그냥 보통으로만 골아붑서.(그냥 보통으로만 말하세요.)

108009 #1 보통으로 안칠성은 어떤 집이라도.(보통으로 '안칠성'은 어떤 집이라도.)

108009 #4 아무 집이라도.(아무 집이라도.)

108009 #1 어떤 집이라도 건 모신다. 안칠성이라고.(어떤 집이라도 건 모신다. '안칠성'이라고.)

108009 @ 음.(음.)

108009 #1 경헤여근에 고팡에 모신다.(그래서 고방에 모신다.)

108009 @ 경헤영 식게헐 때 어떵 헙니까?(그래서 제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108009 #1 어떵 허느니? 메 거령 올렴주. 식게헐 땐 메 거령 올렴주.(어떻게 하니? 메 떠서 올리지. 제사할 때는 메 떠서 올리고 있지.)

108009 #4 상에 올리듯이 쪼금 쪼금씩.(상에 올리듯이 조금 조금씩.)

108009 #1 이 상에 출리듯, 상 싱그지 안허느냐게?(이 상에 차리듯, 상 차리지 않니?)

108009 @ 예, 예.(예, 예.)

108009 #1 그런 거 다 떨어지지 안허영 올린다.(그런 거 다 떨어지지 않고 올린다.)

108009 @ 으.(으.)

108009 #4 그것만 아니. 부엌에도 그거 헤당 놔, 부엌에도.(그것만 아니. 부엌에도 그거 해다가 놔, 부엌에도.)

108009 @ 게민 부엌엔 뚜로.(그럼 부엌엔 따로.)

108009 #1 그건 조왕할망.(그건 조왕할머니.)

108009 @ 조왕할망?(조왕할머니?)

108009 #1 어, 조왕할망이엔 헨 조왕할망에도 올려낫주게.(어, 조왕할머니라고

419) '안칠성'은 고방에 모시는 뱀 신을 말한다. 여자 귀신으로 재물을 관장한다고 한다.
420) '칠성'은 집안에서 신으로 모시는 뱀을 가리키는 말이다.

해서 조왕할머니에게도 올렸었지.)

108009 @ 게난, 게민 안칠성 상 따로 차리고 조왕할망 상 따로 차리고?(그러니까, 그러면 '안칠성' 상 따로 차리고 조왕할머니 상 따로 차리고?)

108009 #1 어, 어게, 어게.(어, 어, 어.)

108009 @ 여기, 여기 본상 ᄯᅳ로 차리고 문전상도 ᄯᅳ로 차릴 거 아니과?(여기, 여기 본상 따로 차리고 '문전상'도 따로 차릴 거 아닙니까?)

108009 #1 이 문제[421]는 옛날도.(이 '문제'는 옛날도.)

108009 @ 예.(예.)

108009 #4 허는 집 안 허는 집.(하는 집 안 하는 집.)

108009 #1 허는 집 안 허는 집 헌다, 문제는. 문전 모른 공서가 어디 시리 헤도 이.(하는 집 안 하는 집 한다, '문제'는. '문전' 모른 공서가 어디 있으리 해도.)

108009 @ 예.(예.)

108009 #1 우리 오칩은 안 허여.(우리 오씨 집안은 안 해.)

108009 @ 아, 문전상 안 헤마씨?(아, '문전상' 안 해요?)

108009 #1 으, 우리 오칩은.(으, 우리 오씨 집안은.)

108009 #4 우리도 안 헙니다게.(우리도 안 합니다.)

108009 #1 느네도 안 허느냐?(너희도 안 하니?)

108009 @ 아고.(아이고.)

108009 #1 견디 문체 허는 집이 멧 개 안 허여. 우리 호근리[422] 강 보민 안 허여, 우리 호근이 집인디 문체 안 헌다.(그런데 '문체' 하는 집이 몇 개 안 해. 우리 호근동 가서 보면 안 해, 우리 호근동 집인데 '문체' 안 한다.)

108009 @ 삼춘 문전제를 문체렌 헙니까?(삼촌 '문전제'를 '문체'라고 합니까?)

108009 #1 어.(어.)

108009 @ 어.(어.)

108009 #1 저 영 문전에 올리는 것ᄀᆞ라 문체, 문체.(저 이렇게 문전에 올리는 것 보고 '문체', '문체'.)

108009 #4 게민 거 제사 지낼 때도 다른 큰 제사보단 앞이 지내여, 것이.(그럼 거 제사 지낼 때도 다른 큰 제사보다는 앞에 지내, 것이.)

108009 @ 예, 예.(예, 예.)

108009 #1 앞이 지내주게. 경헌디 우리 오칩인 안 헌다.(앞에 지내지. 그런데 우리 오씨 집안은 안 한다.)

108009 @ 아.(아.)

108009 #1 부칩이도 안 허여.(부씨 집안도 안 해.)

108009 #4 안 허여.(안 해.)

108009 #1 아, 난 헴시카 부덴.(아, 난 하고 있을까 봐.)

---

421) '문제'는 주로 제사나 명절 때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에서 지내는 '문전제'를 말한다. 제보자를 이를 '문체'라고도 했다.

422) '호근리'는 서귀포시 호근동을 말한다.

108009 #4 아니. 우리 상효[423]서 오칩이 친정에는 헤나신디 이 시집이 완 보난 안 헴십디다.(아니. 우리 상효에서 오씨 집안 친정에는 했었는데 이 시집에 와서 보니까 안 하고 있습디다.)

108009 #1 으음.(으음.)

108009 #4 그것도양 혼 가지 좋아양.(그것도 한 가지 좋아.)

108009 #1 막 좋주.(아주 좋지.)

108009 #4 것도 허젠 허민 하영 헤야 뒈고. 궵시[424] 혼번은 더 헤야 뒈는 거난.(것도 하려고 하면 많이 해야 되고. '궵시' 한번은 더 해야 되는 거니까.)

108009 #1 우리 웃동네 아주망네 집이 허메.(우리 윗동네 아주머니네 집에 해.)

108009 @ 예.(예.)

108009 #1 우리 아주망네 집인 허여.(우리 아주머니네 집은 해.)

108009 #4 허는 집 막 하메.(하는 집 아주 많아.)

108009 #1 어. 문체, 문체 허멍덜 ᄉᆞ못. 하이고, 것도 원체 복잡헤라게.(어. '문체', '문체' 하면서들 사뭇. 하이고, 것도 원체 복잡하더라.)

108009 #4 복잡허여.(복잡해.)

108009 #1 복잡헤라.(복잡하더라.)

108010 @ 이제는 정지 물어보쿠다. 정지예. 정지에 들어갓수다. 정지렌 헙니까, 정제렌 헙니까?(이제는 부엌 물어보겠습니다. 부엌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정지'라고 합니까, '정제'라고 합니까?)

108010 #4 정제, 정제. 부엌ᄀᆞ라.('정제', '정제'. 부엌보고.)

108010 #1 정제. 정제 강 봐사켜, 정제 강 봐사켜.('정제'. 부엌 가서 봐야겠어, 부엌 가서 봐야겠어.)

108010 @ 정제에 들어가민 정제에 뭐 뭐 잇수과?(부엌에 들어가면 부엌에 뭐 뭐 있습니까?)

108010 #1 무시거 잇느니, 무신 그.(뭐 있니, 무슨 그.)

108010 #4 정제엔 불 솜앙 밥허는 것벳기.(부엌엔 불 때서 밥하는 것밖에.)

108010 #1 불 솜앙 밥허는 것벳기 더 잇느냐?(불 때서 밥하는 것밖에 더 있니?)

108010 @ 게민.(그럼.)

108010 #1 물항, 물항 놓고.(물독, 물독 놓고.)

108010 @ 물항 놓고.(물독 놓고.)

108010 #4 솟.(솥.)

108010 #1 그디 강알[425] 봉 솟덜 앚지고.(거기 아궁이 놔서 솥들 앉히고.)

108010 @ 솟 앚지고.(솥 앉히고.)

108010 #1 기자 무시거 여라 가지 경 엇나게. 돔베나 놓고.(그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없어. 도마나 놓고.)

---

423) '상효'는 서귀포시 상효동을 말한다.
424) '궵시'는 의식이나 잔칫상에 쓰는 음식 등을 쌓아 올린 것을 말한다.
425) '강알'은 표준어의 '샅'에 대응한다. 여기서 '강알'은 '솟강알'로 아궁이를 의미한다.

108010 @ 돔베나 두고.(도마나 두고.)
108010 #1 무시거 경.(뭐 그렇게.)
108010 @ 살레 잇고?(찬장 있고?)
108010 #1 살레 원 원 이젠 찻장으로 헹 정 찻장 놧당.(찬장 원 원 이제 찬장으로 해서 저렇게 찬장 놨다가.)
108010 @ 찻장 놓고. 영 들어가는 게 찻방이렌 허고예?(찬장 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찻방이라고 하고요?)
108010 #1 어게.(어.)
108010 @ 게민.(그럼.)
108010 #1 일로 들어가는 건 찻방.(이리로 들어가는 건 찻방.)
108010 @ 솟 허젠 허민 솟은 뭐 우에 얹을 거 아니? 이 밑에 이거 뭐렌 헙니까?(솥 하려고 하면 솥은 뭐 위에 얹을 거 아니? 이 밑에 이거 뭐라고 합니까?)
108010 #4 솟덕, 솟덕.(봇돌, 봇돌.)
108010 #1 솟덕.(봇돌.)
108010 @ 예. 솟덕에 솟을 얹엇수다예. 솟은 멧 개나 놔낫수과, 삼춘 옛날에? 지금 말앙.(예. 봇돌에 솥을 얹었습니다. 솥은 몇 개나 놨었습니까, 삼촌 옛날에? 지금 말고.)
108010 #1 옛날에?(옛날에?)
108010 @ 예.(예.)
108010 #1 옛날에 감저 쳥 먹을 땐 세 개.(옛날에 고구마 쪄서 먹을 땐 세 개.)
108010 @ 아, 세 개.(아, 세 개.)
108010 #1 감저 쳥 먹을 때 기자 두말떼기[426], 두말떼기.(고구마 쪄서 먹을 때 그저 '두말떼기', '두말떼기'.)
108010 #4 기자 세 개, 네 개 보통 헌다. 세 개, 네 개.(그저 세 개, 네 개 보통 한다. 세 개, 네 개.)
108010 #1 세 개, 네 개 기자 하사.(세 개, 네 개 그저 많아야.)
108010 @ 게민.(그럼.)
108010 #1 온돌은 네 개 멘들앗저만은. 세 개.(온돌은 네 개 만들었지만. 세 개.)
108010 @ 족은 솟.(작은 솥.)
108010 #1 큰솟.(큰솥.)
108010 @ 큰솟.(큰솥.)
108010 #1 감저 쳐 먹는 솟. 콩 옛날 메주 숢주게.(고구마 쪄서 먹는 솥. 콩 옛날 메주 삶지.)
108010 @ 그럼 요거는 몇 대들이. 족은 솟은?(그럼 요거는 몇 대들이. 작은 솥은?)
108010 #1 아, 족은 솟은 쏠 흔 뒈 아니민 두 뒈지.(아, 작은 솥은 쌀 한 되 아

426) '두말떼기'는 쌀 두 말 들이 솥을 말한다.

니면 두 되지.)
108010 @ 이거는 몇 뒈?(이거는 몇 되?)
108010 #1 거 국 끌리는 솟허고.(거 국 끓이는 솥하고.)
108010 @ 국 끌리는 솟 이거는 흔 말짜리?(국 끓이는 솥 이거는 한 말짜리?)
108010 #1 아니, 경 크지 안헌다. ᄀᆞ타, ᄀᆞ타.(아니, 그렇게 크지 않아. 같아, 같아.)
108010 @ ᄀᆞ타?(같아?)
108010 #1 경허고 큰솟은 콩 흔 말 솖는 거.(그리고 큰솥은 콩 한 말 삶는 거.)
108010 #4 막 큰 솟 하나만 크주이 경 크지 안헌다.(아주 큰 솥 하나만 크지 그렇게 크지 않는다.)
108010 @ 아.(아.)
108010 #1 나머진 ᄀᆞ타.(나머지는 같아.)
108010 @ 기민 이거는 이 솟에는 뭰장도 솖고 헐 거 아니과?(그럼 이거는 이 솥에는 된장도 삶고 할 거 아닙니까?)
108010 #1 으, 감저도 쳥 먹고.(으, 고구마도 쪄서 먹고.)
108010 @ 감저도 쳥 먹고.(고구마도 쪄서 먹고.)
108010 #1 으.(으.)
108010 @ 기민 이거 완전 큰게.(그럼 이거 완전 크네요.)
108010 #1 물도 데우고.(물도 데우고.)
108010 @ 물도 데우고. 이건 몇 말들이?(물도 데우고. 이건 몇 말들이?)
108010 #1 아, 큰 솟이사게 그자 흔 말들이도 뒈고 두 말들이도 뒈고. 두말떼기엔 헌다, 두말떼기.(아, 큰 솥이야 그저 한 말들이도 되고 두 말들이도 되고. ‘두말떼기’라고 한다, ‘두말떼기’.)
108010 @ 으. 삼춘네 두말떼기 잇어난? 삼춘네 두말떼기 놔난?(으. 삼촌네 ‘두말떼기’ 있었어? 삼촌네 ‘두말떼기’ 놨었어?)
108010 #1 으. 두말떼기, 두말떼기 이제도 잇어.(으. ‘두말떼기’, ‘두말떼기’ 이제도 있어.)
108010 @ 두말떼기 잇어예?(‘두말떼기’ 있어요?)
108010 #1 어, 잇어 이제도. 콩 솖젠 허난.(어, 있어 이제도. 콩 삶으려고 하니까.)
108010 @ 아, 콩 솖젠 허난. 그 솟은 어디 놩 언졍 솖을 거라?(아, 콩 삶으려고 하니까. 그 솥은 어디 놔서 얹어서 삶을 거야?)
108010 #1 이젠 바나에 헴시네. 큰 바라. 아이고 솟 앚질 디가 잇어게? 솟 앚졍 허고정 헤도.(이제는 버너에 하고 있어. 큰 버너. 아이고, 솥 앉힐 데가 있어? 솥 앉혀서 하고 싶어도.)
108010 @ 아.(아.)
108010 #1 ᄀᆞ득은 낭에. ᄀᆞ득은 낭에 솟 앚질 디가 시나게? 솟 앚질 디가 엇어

부난.(가득한 나무에. 가득한 나무에 솥 앉힐 데가 있어? 솥 앉힐 데가 없으니까.)

108011 @ 이제는예 문입젱이 물어보쿠다. 문입젱이. 문, 문, 문 ᄃᆞ는 데.(이제는요 문설주 물어보겠습니다. 문설주. 문, 문, 문 다는 데.)

108011 #1 아, 문입젱이?(아, 문설주?)

108011 @ 요거를 뭐렌 골아? 문 전체를?(요거를 뭐라고 말해? 문 전체를?)

108011 #1 이건 무시거엔 ᄀᆞᆫ는고, 와쿠[427]렌 ᄀᆞᆫ주.(이건 뭐라고 말하는가, '와쿠'라고 말하지.)

108011 @ 와쿠, 하하하.('와쿠', 하하하.)

108011 #1 와쿠 세와 놔사 문을 ᄃᆞᆯ주.(틀 세워 놔야 문을 달지.)

108011 @ 그거는 그거는 와쿠는 일본말 들어온 거고.(그거는 그거는 '와쿠'는 일본말 들어온 거고.)

108011 #1 와쿠엔 골아, 경헤도 우린.('와쿠'라고 말해, 그래도 우린.)

108011 @ 으. 옛날에 이 문 말고 우리.(으. 옛날에 이 문 말고 우리.)

108011 #1 지게문.(지게문.)

108011 @ 이렇게 열고 닫는 문 있지예?(이렇게 열고 닫는 문 있지요?)

108011 #1 어, 지게문 그거. 쌀문.(어, 지게문 그거. 쌀문.)

108011 @ 쌀문이엇잖아예. 그믄 그 옆이 그거 일름 알아지쿠과?(쌀문이었잖아요. 그럼 그 옆에 그거 이름 알겠습니까?)

108011 #1 나 그거 일름 모르켜.(나 그거 이름 모르겠어.)

108011 @ 모르크라.(모르겠어.)

108011 #1 문, 지게문 ᄃᆞᆯ아낫주.(문, 지게문 달았었지.)

108011 @ 문입젱이렌 헌 디가 어디라?(문설주라고 하는 데가 어디야?)

108011 #1 문입젱인 원 이것ᄀᆞ라 문입젱이렌 ᄀᆞᆫ주.(문설주는 원 이것보고 문설주라고 말하지.)

108011 @ 어디?(어디?)

108011 #1 이런 옆이ᄀᆞ라. 문입젱이, 그런 것ᄀᆞ라 우린 문입젱이. 와쿠엔도 허고. 와쿠엔도 허고 문입젱이엔도 허주.(이런 옆에보고. 문설주, 그런 것보고 우린 문설주. 틀이라고도 하고. 틀이라고도 하고 문설주라고도 하지.)

108011 @ 저기.(저기.)

108011 #1 지게문은 ᄃᆞᆯ아, 나도 몰라. 지게문으로 우리 옛날에사게.(지게문은 달아, 나도 몰라. 지게문으로 우리 옛날에야.)

108011 @ 이렇게 여는 걸 지게문이렌 허는 거?(이렇게 여는 걸 지게문이라고 하는 거?)

108011 #1 어, 쌀문.(어, 살문.)

108011 @ 문 열젠 허면 손잡이가 있잖아예? 그걸 불러난 이름 알아지쿠과? 돌저귀, 돌처귀?(문 열려고 하면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걸 불렀던 이름 알겠습니까?

427) '와쿠'는 일본어 'わく'로 '테두리, 틀'이라는 의미다.

돌쩌귀, 돌쩌귀?)

108011 #1 돌, 돌쳉이.(돌, '돌쳉이'.)

108011 @ 돌쳉이?('돌쳉이'?)

108011 #1 아니, 아니. 도, 돌 무시거?(아이, 아이. 도, 돌 뭐?)

108011 #4 저기 ᄃᆞ는 거 도절귀.(저기 다는 거 돌쩌귀.)

108011 #1 도절귀.(돌쩌귀.)

108011 @ 아, 도절귀.(아, 돌쩌귀.)

108011 #1 도절귀, 도절귀. 문 ᄃᆞ는 거. 도절귀여 거 도절귀.(돌쩌귀, 돌쩌귀. 문 다는 거. 돌쩌귀야 거 돌쩌귀.)

108011 @ 도절귀예?(돌쩌귀요?)

108011 #1 으, 도절궐 ᄃᆞᆼ겨사.(으, 돌쩌귀를 당겨야.)

108011 @ 예.(예.)

108011 #1 ᄃᆞᆼ겨사 올아지는 거.(당겨야 열리는 거.)

108011 @ 그믄 하나는 ᄃᆞᆼ기는 거고 우리 문 잠그젠 허믄 영 영 씌우잖아. 영 동글랑헌 거 영 씌우잖아?(그럼 하나는 당기는 거고 우리 문 잠그려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씌우잖아. 이렇게 동그란 거 이렇게 씌우잖아?)

108011 #1 으.(으.)

108011 @ 게믄 이거 불르는 이름이랑 요거 불르는 이름이 ᄐᆞ낫수꽤?(그럼 이거 부르는 이름이랑 요거 부르는 이름이 달랐지요?)

108011 #1 씌우는 건 모르켜. 도절귀 박아 놩, 도절귀 박아 놔근에.(씌우는 건 모르겠어. 돌쩌귀 박아 놔서, 돌쩌귀 박아 놔서.)

108011 #4 문고리 아닌가양? 동글랑헌 거 잇주게.(문고리 아닌가요? 동그란 거 있지.)

108011 #1 문고리, 문고릴 거여. 도절귀 박아 놩 문고릴 ᄃᆞᆯ아사 경헤여.(문고리, 문고리일 거야. 돌쩌귀 박아 놔서 문고리를 달아야 그래.)

108011 @ 암도절귀, 숫도절귀 허는 말은 안 써난?(암톨쩌귀, 수톨쩌귀 하는 말은 안 썼어?)

108011 #1 으, 암도절귀, 숫도절귄 암컷, 수컷 우이 거, 우이 끼우는 것사 숫커주만은.(으, 암톨쩌귀, 수톨쩌귀는 암컷, 수컷 위의 거, 위에 끼우는 것이야 수컷이지만.)

108011 @ 으.(으.)

108011 #1 그거 아래 끼우는 건, 으, 암토절귀엔도 ᄀᆞᆯ아서. 암토절귀엔도 ᄀᆞᆫ는 거 닮아. 암토절귀, 숫토절귀. 경도 ᄀᆞᆯ아난 거 닮다.(그거 아래 끼우는 건, 으, 암톨쩌귀라고도 말했어. 암톨쩌귀라고도 말하는 거 같아. 암톨쩌귀, 수톨쩌귀. 그렇게도 말했던 거 같아.)

108011 @ 하하.(하하.)

108011 #4 난 모르켜, 잊어변.(난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108011 #1 암토절귀, 숫토절귀.(암톨쩌귀, 수톨쩌귀.)
108011 @ 으.(으.)
108011 #1 암토절귀, 숫토절귀.(암톨쩌귀, 수톨쩌귀.)
108011 @ 경헤난 거. 여기는 뭐렌 골읍니까?(그랬던 거. 여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108011 #1 그거 무시거엔 골아 문대방이주.(그거 뭐라고 말해, 문지방이지.)
108011 #4 문대방.(문지방.)
108011 @ 문대방. 문지방 안 허고 문대방?(문지방. 문지방 안 하고 '문대방'?)
108011 #4 문대방.('문대방'.)
108011 #1 대방이엔 헷주, 대방.('대방'이라고 했지, '대방')
108011 @ 문대방이엔 골안예?('문대방'이라고 말했어요?)
108011 #1 으, 문대방.(으, '문대방'.)
108011 @ 여기는예. 음.(여기는요. 음.)
108011 #1 이제랑 그만 들으라, 곧지 못허켜.(이제랑 그만 물어라, 말하지 못하겠어.)
108011 #4 오늘 헹 가민 마지막 아니?(오늘 해서 가면 마지막 아니?)
108011 @ 아니, 아니. 앞으로 더 올 거우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허쿠다.(아니, 아니. 앞으로 더 올 겁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08011 #4 다음 주?(다음 주?)
108011 #1 어느 때꺼장 올 거니?(어느 때까지 올 거니?)
108011 @ 내일도 오고 다음 주도 오고.(내일도 오고 다음 주도 오고.)
108011 #1 골을 말 엇어.(말할 말 없어.)
108013 @ 호령창이렌 들어봣수과?('호령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108013 #1 호령창?('호령창'?)
108013 @ 으.(으.)
108013 #1 호령창[428]이사 욕허는 거벳기 더냐?('호령창'이야 욕하는 것밖에 더냐?)
108013 @ 아.(아.)
108013 #4 막 욕허는 것ᄀᆞ라 호령창이엔.(마구 욕하는 것보고 '호령창'이라고.)
108013 #1 욕허는 것ᄀᆞ라 아따 호령창도.(욕하는 것보고 아따 '호령창'도.)
108013 @ 그거 말고.(그거 말고.)
108013 #1 뭐?(뭐?)
108013 @ 작은 문 그런 거?(작은 문 그런 거?)
108013 #1 엇어.(없어.)
108013 @ 예.(예.)

428) '호령창'은 마루로 들어가는 대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문 또는 작은 창이다. 여기서 제보자는 '큰 소리로 꾸짖음'이라는 '호령'의 의미로 '호령창'을 언급하고 있다.

108013 #1 문고망?(문구멍?)

108013 #4 문고망은 무신 종이 문, 옛날에 종이 문 헐 때 고망 뚤랑.(문구멍은 무슨 종이 문, 옛날에 종이 문 할 때 구멍 뚫어서.)

108013 #1 종이 문에 문고망 손으로 뚤랑 무시거 헌 거벳기 더 골아나시냐? 종이로 볼르민 기자.(종이 문에 문구멍 손으로 뚫어서 뭐 한 거밖에 더 말했었니? 종이로 바르면 그저.)

108013 @ 호령창이렌 헌 말 안 들어 봔?('호령창'이라고 하는 말 안 들어 봤어?)

108013 #1 호령창은 우린 욕허는 거벳긴.('호령창'은 우리는 욕하는 거밖에는.)

108014 @ 예, 예. 그럼 굴묵?(예, 예. 그럼 '굴묵'?)

108014 #1 굴묵[429].('굴묵'.)

108014 @ 굴묵에는.('굴묵'에는.)

108014 #4 굴묵은게 방 뜨거우렌 불 때는 거주.('굴묵'은 방 뜨거우라고 불 때는 거지.)

108014 @ 으, 불 때는 거. 굴묵 짇는 얘기는 아까 헷엇고.(으, 불 때는 거. '굴묵' 때는 얘기는 아까 했었고.)

108014 #4 굴묵 짇는 거.('굴묵' 때는 거.)

108014 @ 방마다 다 굴묵은 잇수과?(방마다 다 '굴묵'은 있습니까?)

108014 #4 방마다 옛날사.(방마다 옛날에야.)

108014 #1 옛날이사 구둘마다 헤사게, 굴묵을 만들어사 낭을 떼엇든 ᄀᆞ스락을 떼엇든 헴시네게. 실려왕 살아지느냐게?(옛날이야 방마다 해야지, '굴묵'을 만들어야 나무를 때었든 까끄라기를 때었든 하지. 시려서 살 수 있니?)

108014 @ 게난 굴묵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라?(그러니까 '굴묵'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108014 #1 어느 쪽으로 들어가 어귀 멘들암주, 굴묵으로?(어느 쪽으로 들어가 어귀 만들지, '굴묵'으로?)

108014 @ 어귀로?(어귀로?)

108014 #1 으, 어귀 멘들다. 요추룩 어귀 멘든다. 돌 헤근에 어귀 멘들앙.(으, 어귀 만든다. 이처럼 어귀 만든다. 돌 해서 어귀 만들어서.)

108014 @ 이 구들은?(이 방은?)

108014 #1 이 구들 만약 허게 뒈민 절로.(이 방 만약 하게 되면 저리로.)

108014 @ 절로. 저 구들은?(저리로. 저 방은?)

108014 #1 저펜이.(저편이.)

108014 #4 앞으론 안 허여. 보기 싫으난.(앞으로는 안 해. 보기 싫으니까.)

108014 #1 앞으론 안 헌다. 항상.(앞으로는 안 한다. 항상.)

108014 @ 뒤로예?(뒤로요?)

---

429)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을 말한다.

108014 #1 어. 남 못 바레는 딜로 헹 앞으론 안 헌다.(어. 남 못 보는 데로 해서 앞으로는 안 한다.)

108015 @ 예, 예. 여기 초집 헐 때 비 올 때 앞이 쳐난 거 있잖아예?(예, 예. 여기 초가 할 때 비 올 때 앞에 쳤던 거 있잖아요?)

108015 #4 풍체.(차양.)

108015 #1 풍체벳긴 더 잇어?(차양밖에 더 있어?)

108015 @ 예, 풍체. 게민 이거 비 올 때 영 세우고 비 안 올 때 영 내리고?(예, 차양. 그럼 이거 비 올 때 이렇게 세우고 비 안 올 때 이렇게 내리고?)

108015 #1 으.(으.)

108015 #4 아니. 비 안 올 때 우터레 영 세와 불고.(아니. 비 안 올 때 위로 이렇게 세워 버리고.)

108015 #1 그거이 비 오라 가사 ᄂᆞ리우주게.(그거 비 와 가야 내리지.)

108015 @ 아, 비 안 올 땐.(아, 비 안 올 땐.)

108015 #1 비 오라 가건 ᄂᆞ리우주게. 비 오라 가사 비 들이삐여, 영.(비 와 가건 내리지. 비 와 가야 비 들이쳐, 이렇게.)

108015 @ 으, 으. 날 좋은 날은 영 올려 불고?(으, 으. 날 좋은 날은 이렇게 올려 버리고?)

108015 #1 으.(으.)

108015 @ 비 오민 영 내려 불고.(비 오면 이렇게 내려 버리고.)

108015 #1 으.(으.)

108015 @ 올릴 때 영 받쳐야 헐 거 아니?(올릴 때 이렇게 받쳐야 할 거 아니?)

108015 #1 바투와사주게.(받쳐야지.)

108015 @ 뭐 바톼?(뭐 받쳐?)

108015 #1 무시거 바톼, 낭 그차 낭 아무거라도.(뭐 받쳐, 나무 자르고 나서 아무거라도.)

108015 @ 낭 그창.(나무 잘라서.)

108015 #1 작데기 영 헤근에.(작대기 이렇게 해서.)

108015 @ 예, 작데기 헹 풍체를 바투울 거라예?(예, 작대기 해서 차양을 받칠 거지요?)

108015 #1 으.(으.)

108015 @ 게민 이 풍체도 여기 달령 있는 거잖아예?(그럼 이 차양도 여기 달려 있는 거잖아요?)

108015 #1 풍체 둘령 있는 것도 잇고 기자.(차양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저.)

108015 #4 기냥 헷당.(그냥 했다가.)

108015 #1 헷당. 기냥 헷당 바투왕 허는 것도 잇고 헌다.(했다가. 그냥 했다가 받쳐서 하는 것도 있고 한다.)

108015 @ 아, 세우는 것도 있고?(아, 세우는 것도 있고?)

108015 #1 어, 세우는 건 풍체 양펜이 지둥을 세와사 풍체가 뒈는 거주게.(어, 세우는 건 차양 양편에 기둥을 세워야 차양이 되는 거지.)

108015 @ 예, 예.(예, 예.)

108015 #1 경허는 거주. 아니 헹 뒈느냐?(그러는 거지. 아니 해서 되니?)

108015 @ 게난 지붕에 돌려 있는 것도 있고.(그러니까 지붕에 달려 있는 것도 있고.)

108015 #1 으, 으.(으, 으.)

108015 @ 세우는 것들도 있고예?(세우는 것들도 있고요?)

108015 #1 으, 으.(으, 으.)

108016 @ 물팡은 뭐꽈?('물팡'은 뭡니까?)

108016 #1 허벅[430] 놓는 게 물팡[431]이주.('허벅' 놓는 게 '물팡'이지.)

108016 @ 허벅 놓은 거.('허벅' 놓는 거.)

108016 #1 으, 우리 물 질어다근에 항더레 비와 나민 어드레 허벅 놓느니게. 진 냥 강 부렷주, 똥꼬망 내놩 부령.(으, 우리 물 길어다가 항아리에 붓고 나면 어디 '허벅' 놓니. 진 채 가서 부렸지, 똥구멍 내놓고 부려서.)

108016 #4 부엌 옆이 물팡을 만들주.(부엌 옆에 '물팡'을 만들지.)

108016 #1 이추룩 만들아 놓민 또꼬망 내와당 그레 강 허벅.(이처럼 만들어 놓으면 똥구멍 내서 그리 가서 '허벅'.)

108016 @ 게난 허벅도 여기 올려놓는 거주만은 아멩헤도 허벅 부리기 쉬우렌 허는 거?(그러니까 '허벅'도 여기 올려놓는 거지만 아무래도 '허벅' 부리기 쉬우라고 하는 거?)

108016 #1 어. 쉬우렌도 허곡게 놔두는 거여. 그디게.(어. 쉬우라고도 하고 놔두는 거야. 거기.)

108016 #4 그 물구덕이엔 헤근에 허벅 들여놩 지는 것이 시네게. 게난 그거 지고 부려사주.(그 '물구덕'이라고 해서 '허벅' 들여놔서 지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 지고 부려야지.)

108016 @ 게난 물 질엉 오젠 허민 필요헌 게 뭐가 잇수과?(그러니까 물 길어서 오려고 하면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108016 #1 필요헌 게 무시거 잇느니게. 물 강 질어 오민게 기자 첨 숭키나 아졍 가민 숭키 시졍 오고 집이선 물 엇이민 숭키 아졍 강 시졍 오고.(필요한 게 뭐 있니. 물 가서 길어 오면 그저 참 푸성귀나 가지고 가면 푸성귀 씻어 오고 집에서는 물 없으면 푸성귀 가지고 가서 씻어 오고.)

108016 @ 수도 엇이난, 이디선 어디 강 물 질엇수과?(수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어디 가서 물 길었습니까?)

108016 #4 수도이 혼 부락에 멧 개 잇주게, 옛날.(수도 한 부락에 몇 개 있지,

430) '허벅'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로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아가리가 아주 좁다.
431)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허벅'를 올려 넣어 두는 곳을 말한다.

옛날.)

108016 #1 돈내코[432]도 가고 저 옛날에 수도 엇인 때 저 구상물이엔[433] 헌 디 생효[434]도 가고.(돈내코도 가고 저 옛날에 수도 없을 때 저 '구상물'이라고 하는 데 상효도 가고.)

108016 @ 아, 생효도 가고.(아, 상효도 가고.)

108016 #1 으. 우리 돈내코 물 주로 먹엇저.(으. 우리 돈내코 물 주로 먹었어.)

108016 @ 돈내코. 게민 거기 물 질러 가젠 허민 가졍 갈 거?(돈내코. 그럼 거기 물 길러 가려고 하면 가지고 갈 거?)

108016 #1 허벅 졍 가고.('허벅' 지고 가고.)

108016 @ 허벅 졍 가고. 허벅 지젠 허민 뭐에 놔?('허벅' 지고 가고. '허벅' 지려고 하면 뭐에 넣어?)

108016 #1 물구덕[435]에.('물구덕'에.)

108016 @ 물구덕에 놩.('물구덕'에 놔서.)

108016 #1 대 바톼근에.(대 받쳐서.)

108016 @ 대 바탕에.(대 받쳐서.)

108016 #4 그디 박세기, 물 질을 박세기 놓고.(거기 바가지, 물 길을 바가지 놓고.)

108016 #1 어. 박세기 톡 허게 ᄏᆞ박세기[436]나 놓고.(어. 바가지 톡 하게 'ᄏᆞ박세기'나 놓고.)

108016 @ 예, 경혜영 이디. 이거 질팡? 지는 거? 지는 끈, 배?(예, 그래서 여기. 이거 '질팡'? 지는 거? 지는 끈, 바?)

108016 #1 배, 배.(바, 바.)

108016 #4 지는 거 배로 져근에.(지는 거 바로 져서.)

108016 @ 예. 배로 졍.(예. 바로 져서.)

108016 #1 물배[437].('물배'.)

108016 @ 물배?('물배'?)

108016 #1 으, 허벅 졍 뎅기는 건 물배.(으, '허벅' 지고 다니는 건 '물배'.)

108016 @ 그건 물배렌 헐 거?(그건 '물배'라고 할 거?)

108016 #4 딱 그거 그냥 고정시켱 잇어. 딴 거 안 헤근에.(딱 그거 그냥 고정시켜서 있어. 딴 거 안 하고.)

108016 #1 기자 허벅에, 물허벅에 기자 끼왕 내불민 물배.(그저 '허벅'에, '물허벅'에 그저 끼워서 내버리면 '물배'.)

108016 @ 으, 물배가 뒈는 거예?(으, '물배'가 되는 거요?)

---

432) '돈내코'는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계곡 이름이다.
433) '구상물'은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샘물 이름이다.
434) '생효'는 서귀포시 상효동을 말한다.
435) '물구덕'은 물동이를 넣어, 지고 다니는 바구니를 말한다.
436) 'ᄏᆞ박세기'는 박을 쪼개어 씨를 파내고 만든 바가지를 말한다.
437) '물배'는 물을 허벅에 길어, 지고 나를 때 사용하는 바를 말한다.

108016 #1 으, 물배.(으, '물배'.)

108016 @ 큰 허벅을 구덕에 봉 지잖아예? 근데 아이덜도 물 질러 다니지 않아?(큰 '허벅'을 바구니에 넣어서 지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물 길러 다니지 않아?)

108016 #1 대바지[438].('대바지'.)

108016 @ 대바지.('대바지'.)

108016 #1 두 벵들이도 잇고 쪼글락헌 것도 잇고.(두 병들이도 있고 조그마한 것도 있고.)

108016 @ 음.(음.)

108016 #1 우린 두린 땐 요만이 헌 거 져낫주.(우린 어렸을 때는 요만한 거 졌었어.)

108016 @ 게난 그때는 애기덜안테도 물 질엉 오렌 시켠.(그러니까 그때는 아기들한테도 물 길어서 오라고 시켰어.)

108016 #1 안 시키민 어떵헐 말이니. 하이고, 첨. 눗도 안 씻엉 살앗저, 그땐.(안 시키면 어떡할 말이니. 하이고, 참. 낯도 안 씻고 살았어, 그땐.)

108016 @ 하하하.(하하하.)

108016 #1 어느 절에.(어느 겨를에.)

108016 @ 맞수다, 맞수다.(맞습니다, 맞습니다.)

108016 #1 첨 밧디 강 오랑 목욕허고 허카 부덴?(참 밭에 갔다 와서 목욕하고 할까 봐?)

108016 @ 삼춘은 멧 살 때부터 물 질어난 거 닮수과?(삼촌은 몇 살 때부터 물 길었던 거 같습니까?)

108016 #1 멧 살 때부터 허여, 혼 여남은 설 나 가난 짐 시작헷주.(몇 살 때부터 해, 한 여남은 살 돼 가니까 지기 시작했지.)

108016 @ 아.(아.)

108016 #1 짐 시작허영 게나제나 나도 혼 스무 설ᄁᆞ장은 돈내코 물 질엇어. 어멍신디 살멍도. 스무 설ᄁᆞ장은 돈내코.(지기 시작해서 그러나저러나 나도 한 스무 살까지는 돈내코 물 길었어. 어머니에게 살면서도. 스무 살까지는 돈내코.)

108016 @ 으.(으.)

108016 #1 경허당 기자.(그러다가 그저.)

108016 #4 돈내코 갓구나?(돈내코 갔구나?)

108016 #1 어게, 우린 허금동산[439]보담 돈내코.(어, 우린 '허금동산'보다는 돈내코.)

108016 #4 상효 사름덜 조가물[440]양, 밑으로 막 나는 물이 시난.(상효 사람들 '조가물', 밑으로 막 나는 물이 있으니까.)

---

438) '대바지'는 어린 아이들이 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든 작은 허벅을 말한다.
439) '허금동산'은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440) '조가물'은 서귀포시 상효동 근처의 샘물 이름이다.

108016 #1 조개물도 우리 가낫저만은 조개물.(‘조개물’도 우리 갔었지만 ‘조개물’.)

108016 #4 몰령 못 헙니다.(말라서 못 합니다.)

108016 #1 몰련에 나 흔번 갓단에.(말라서 나 한번 갔다가.)

108016 #4 사름 하영 못 질어.(사람 많이 못 길어.)

108016 #1 아이고, 밭기는 헤도 몰리난 돈내코 두 번 가 와서라.(아이고, 가깝기는 해도 마르니까 돈내코 두 번 가 왔더라.)

108016 #4 아.(아.)

108016 #1 나 상효도 와나시녜.(나 상효도 왔었어.)

108016 #4 우린 상효 조가물 먹으난.(우린 상효 ‘조가물’ 먹으니까.)

108016 #1 아이고, 구천 몰람주.(아이고, 구천 모르지.)

108016 #4 저끗디난.(근처니까.)

108016 #1 아이고, 구천 몰람주. 우린 돈내코 가젠 허민 이제 그 법환리[441] 집 사는 그 허금동산 글로 헤영 샛질로 헤영.(아이고, 구천 모르지. 우린 돈내코 가려고 하면 이제 법환동 집 사는 그 ‘허금동산’ 그리고 해서 샛길로 해서.)

108016 #4 으, 으.(으, 으.)

108016 #1 아이고, 허벅 지영.(아이고, ‘허벅’ 지고.)

108017 @ 삼춘, 여기 초집이라예. 옛날에는 집에 들어오젠 허민 질이 있었잖아예?(삼촌, 여기 초가였지요. 옛날에는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길이 있었잖아요?)

108017 #1 어, 올레[442].(어, ‘올레’.)

108017 @ 올레예?(‘올레’요?)

108017 #1 어.(어.)

108017 @ 올레 굳작허게 만들엇수과, 아니면 영 휘여지게 만들엇수과?(‘올레’ 곧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었습니까?)

108017 #4 휘여진 올레도 잇고 굳작헌 올레도 잇고.(휘어진 ‘올레’도 있고 곧은 ‘올레’도 있고.)

108017 #1 그거 ᄀᆞ트느냐게?(그게 같니?)

108017 @ 곧작헌 올레도 잇어난?(곧은 ‘올레’도 있었어?)

108017 #1 게, 곧작헌 올레도 잇주게.(그래, 곧은 ‘올레’도 있지.)

108017 @ 쭉 허게.(쭉 하게.)

108017 #1 경헌디 대부분 영 보민.(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108017 #4 고부라졍 잇어, 고부라졍.(고부라져 있어, 고부라져서.)

108017 #1 올레 경 곧작 안 헌덴 옛날은.(‘올레’ 그렇게 곧게 안 한다고 옛날은.)

108017 @ 그니까.(그러니까.)

108017 #1 이 저 식이.(이 저 식이.)

---

441) ‘법환리’는 서귀포시 법환동을 말한다.

442) ‘올레’는 큰길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을 말한다.

108017 @ 으, 식이.(으, 식이.)
108017 #1 아멩 부제칩은 올레가 더 긴덴 허곡.(아무리 부잣집은 '올레'가 더 길다고 하고.)
108017 @ 으.(으.)
108017 #1 막 안에.(막 안에.)
108017 @ 기지예.(그렇지요.)
108017 #4 이제는이 가까운 집이 좋아도 옛날은 부제칩은 아주 쭉.(이제는 가까운 집이 좋아도 옛날은 부잣집은 아주 쭉.)
108017 #1 막 들어가낫주.(마구 들어갔었지.)
108017 #4 올레가 길쭉허게.('올레'가 길쭉하게.)
108017 #1 이 성안이, 성안 올레 쯤은 오죽 길어나시냐. ᄉᆞ못. 우리 성안에 가젠 허민 잘도 길어낫주게.(이 '성안'이, '성안' '올레' 쯤은 오죽 길었었니. 사뭇. 우리 '성안'에 가려고 하면 아주 길었었지.)
108019 @ 기지예. 예, 예. 게민 집이 오랑 촐을 눌어낫수과?(그렇지요. 예, 예. 그럼 집에 와서 꼴을 가렸었습니까?)
108019 #1 집이 오랑 촐 눌주, 어디 강 누느니?(집에 와서 꼴 눌지, 어디 가서 가리니?)
108019 모두 하하하.(모두 하하하.)
108019 #1 밧디서 눌엇당.(밭에서 가렸다가.)
108019 @ 밧디서 눌엇당.(밭에서 가렸다가.)
108019 #1 또 집이 시꺼단.(또 집에 실어다가.)
108019 @ 시꺼단.(실어다가.)
108019 #1 집이 오랑 또 눌고.(집에 와서 또 가리고.)
108019 @ 게민 쉐 집이 있는 동안은 촐눌이 옆이 잇어나서예?(그럼 소 집에 있는 동안은 꼴가리가 옆에 있었지요?)
108019 #1 게. 잇주게.(그래. 있지.)
108019 @ 촐눌 눌고 다른 것도 집이 왕 눌어낫수과?(꼴가리 가리고 다른 것도 집에 와서 가렸습니까?)
108019 #1 게, 다른 것도 눌주.(그래, 다른 것도 가리지.)
108019 @ 조도 허민 시꺼당 눌고 보리도 허민 시꺼당 눌고?(조도 하면 실어다가 가리고 보리도 하면 실어다가 가리고?)
108019 #1 아이고, 첨 아니 눈 게 잇어게.(아이고, 참 아니 가린 게 있어.)
108019 @ 음.(음.)
108019 #4 게난 문 올레 안네 문 ᄉᆞ못 눌 천지주.(그러니까 모두 '올레' 안에 모두 사뭇 가리 천지지.)
108019 @ 예.(예.)
108019 #1 지들커도 헤당 데미고.(땔감도 해다가 쟁이고.)

108019 @ 지들커도 헤당 데미고예.(땔감도 해다가 쟁이고.)

108019 #1 게. 촐 빌 때엔이 우선 불 솜을 검질도 비고.(그래. 꼴 벨 때엔 우선 불 땔 검불도 베고.)

108019 @ 예. 경 눌 잇이민 아이덜 거디 강 곱을락헐 때 거디 강 곱기도 허고?(예. 그렇게 가리 있으면 아이들 거기 가서 숨바꼭질할 때 거기 가서 숨기도 하고?)

108019 #1 하하. 어, 곱을락도 헷저.(하하. 어, 숨바꼭질도 했어.)

108019 @ 예.(예.)

108019 #1 곱을락 잘헷주. 스못 눌 뒤에 강덜 곱을락.(숨바꼭질 잘했지. 사뭇 가리 뒤에 가서들 숨바꼭질.)

108019 #4 야인 지금 무슨 말 곧는 처레도 모르고.(얘는 지금 무슨 말 하는 줄도 모르고.)

108019 #1 야이 이디 말 몰르지?(얘 여기 말 모르지?)

108019 @1 아니, 압니다.(아니, 압니다.)

108019 #1 알아들어져?(알아들을 수 있어?)

108019 @1 쪼금.(조금.)

108019 #4 느 제주도 아니?(너 제주도 아니?)

108019 @1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이 제주도예요.(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이 제주도예요.)

108019 #4 아, 할머니 고향이 제주도.(아, 할머니 고향이 제주도.)

108019 @ 야이, 일본서 왓수다예.(얘, 일본에서 왔습니다.)

108019 #1, #4 일본서.(일본에서.)

108019 #1 야, 일본 어디서?(야, 일본 어디에서?)

108019 @1 오사카[443].(오사카.)

108019 #1 오사카?(오사카?)

108019 @1 네.(네.)

108019 #1 우리 족은아부지 살아난 디 살암구나게.(우리 작은아버지 살았던 데 살고 있구나.)

108019 #4 고베[444]엔 헌 디 나도 가 왓저, 일본. 우리 삼춘네가 거기 사난.(고베라고 하는 데 나도 갔다 왔어, 일본. 우리 삼촌네가 거기 사니까.)

108019 @1 아, 고베요?(아, 고베요?)

108019 #4 고베.(고베.)

108019 #1 오사카 우리 족은아부지.(오사카 우리 작은아버지.)

108019 @ 이거 다 녹음됨수다예, 나 질문허는 것만.(이거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나 질문하는 것만.)

108019 #1 그만허라게.(그만해라.)

---

443) '오사카'는 일본 오사카시를 말한다.

444) '고베'는 일본 고베시를 말한다.

108019 @ 조금만 더.(조금만 더.)
108019 #1 또 보라.(또 봐라.)
108020 @ 집이 통시도 잇어낫어예?(집에 돼지우리 있었지요?)
108020 #1 통시 잇주. 도새기 질루고.(돼지우리 있지, 돼지 기르고.)
108020 @ 도새기 질루고.(돼지 기르고.)
108020 #4 것ᄀᆞ란 돗통.(것보고 '돗통'.)
108020 @ 돗통.(돼지우리.)
108020 #1 옛날에 저 보리찍 앗다 놔근에 또꼬망, 보리찍 빠근에 또꼬망 쓸고.(옛날에 저 보릿짚 가져다 놔서 똥구멍, 보릿짚 빼서 똥구멍 쓸고.)
108020 @ #1 #4 하하하.(하하하.)
108020 @ 게난 토평[445]은 돗통이렌 불러난?(그러니까 토평은 '돗통'이라고 불렀었어?)
108020 #1 어.(어.)
108020 @ 돗통?('돗통'?)
108020 #1 돗통.(돼지우리.)
108021 @ 게민 여기 볼일 보는 디도 잇고?(그럼 여기 볼일 보는 데도 있고?)
108021 #4 지들팡 놔근에.(부춘돌 놓아서.)
108021 #1 팡. 건 디들팡이엔 헌다.('팡'. 건 부춘돌이라고 한다.)
108021 @ 지들팡?(부춘돌?)
108021 #1 디들팡.(부춘돌.)
108021 @ 디들팡.(부춘돌.)
108021 #1 으, 디들팡.(으, 부춘돌.)
108021 @ 예.(예.)
108020 #1 돗도고리[446].('돗도고리'.)
108020 #4 돗도고린 도새기 것 주는 거.('돗도고리'는 돼지 먹이 주는 거.)
108020 @ 돗도리린 것 주는 거.('돗도고리'는 먹이 주는 거.)
108020 #1 어, 도새기 것 먹는 거.(어. 돼지 먹이 먹는 거.)
108020 @ 게민 도새기 비 맞지 말렌.(그럼 돼지 비 맞지 말라고.)
108020 #4 거 집 짓어 준다.(거 집 지어 준다.)
108020 #1 주젱이 차근에 집 짓어 주주.(주저리 짜서 집 지어 주지.)
108020 #4 뒈지집[447] 헤근에.('돼지집' 해서.)
108020 @ 뒈지집 지어 주고예?(돼지집 지어 주고요?)
108020 #1 집 짓어 주주게.(집 지어 주지.)
108020 @ 겐 영 도새기 질룰 때 도새기 담 튀어넘엉 베꼇디도 나가 불고 허고.(그래서 이렇게 돼지 기를 때 돼지 담 뛰어넘어서 바깥에도 나가 버리고 하고.)

445) '토평'은 서귀포시 토평동을 말한다.
446) '돗도고리'는 돼지 먹이를 주기 위하여 돌을 파서 만든 그릇이다.
447) '뒈지집'은 '도새기(돼지)'가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으로, 돼지우리 한쪽에 지붕을 간소하게 해서 만든다.

108020 #4 어, 막 돌아낭 도망.(어, 마구 달아나서 도망.)

108020 #1 돌아남도 헌다게. 돌아남도 헹 이땅 암토새기나 질룰 때는이. 수톳 춧앙 뎅기주게. 수톳 춧을 땐이.(달아나기도 한다. 달아나기도 해서 이따금 암퇘지나 기를 때는. 수퇘지 찾아서 다니지. 수퇘지 찾을 땐.)

108020 #4 새끼 가지젠 허민.(새끼 가지려고 하면.)

108020 #1 저이 새끼 가지젠 허민이.(저 새끼 가지려고 하면.)

108020 @ 으.(으.)

108020 #4 막 도망가.(마구 도망가.)

108020 #1 암토새기가 수톳을 춧앙 막 담 커 불고 막.(암퇘지가 수퇘지를 찾아서 마구 담 넘어 버리고 마구.)

108020 @ 꺼꾸로 아니?(거꾸로 아니?)

108020 #4 꺼꾸로 뒈여.(거꾸로 돼.)

108020 #1 꺼꾸로 꺼꾸로. 야 이 도새기만은 거꾸로 뭰다.(거꾸로 거꾸로. 야 이 돼지만은 거꾸로 된다.)

108020 @ 아.(아.)

108020 #4 그 남자 도새기안티 돌아가야 뒈여. 하하하.(그 남자 돼지한테 데려가야 돼. 하하하.)

108020 #1 남저신디, 남저신디 몰아가고. 몰아당 새끼 배왕 오랑 새끼 나고.(남자에게, 남자에게 몰아가고. 몰아다가 새끼 배게 하여 와서 새끼 낳고.)

108020 @ 아, 새끼 나고.(아, 새끼 낳고.)

108020 #1 아이고, 어떵 허난 처레 앎이니?(아이고, 어떻게 했던 줄 아니?)

108020 @ 게민 그 도새기 도망가지 못허게.(그럼 그 돼지 도망가지 못하게.)

108020 #4 담 다주게.(담 쌓지.)

108020 @ 담 다잖아예?(담 쌓잖아요?)

108020 #1 으.(으.)

108020 @ 거기에 뭐 가시낭덜 갓다 놓곤 안 헙니까?(거기에 뭐 가시나무들 갔다 놓고는 안 합니까?)

108020 #1 안 헌다.(안 한다.)

108020 @ 그냥 내불어.(그냥 내불어.)

108020 #1 경 안 헤도 어떵 안허여.(그렇게 안 해도 어떻지 않아.)

108020 @ 으.(으.)

108020 #1 도새기도 지 경 수톳 춧을 때만 경 그 남자 춧을 때만 페까롭주. 경 안 허민 먹어지민 눕곡 먹어지민 눕고 경. 어질어.(돼지도 자기 그렇게 수톳 찾을 때만 그렇게 그 남자 찾을 때만 폐롭지. 그렇게 안 하면 먹으면 눕고 먹으면 눕고 그렇게. 어질어.)

108020 @ 어질어.(어질어.)

108020 #1 으, 배고프지만 말민.(으, 배고프지만 말면.)

108023 @ 예. 여기 쉐막 잇어나잖아예?(예. 여기 외양간 있었잖아요?)
108023 #1 쉐막 저거 아냐.(외양간 저거 아냐.)
108022 @ 저게예. 쉐막도 잇고 이, 이 농기구덜 보관허젠 허민 헛간도 잇어낫수과?(저거요. 외양간도 있고 이, 이 농기구들 보관하려고 하면 헛간도 있었습니까?)
108022 #1 헛간도 잇주게. 헛간 잇주게.(헛간도 있지. 헛간 있지.)
108022 @ 아, 헛간도 잇고.(아, 헛간도 있고.)
108022 #1 헛간 잇주게.(헛간 있지.)
108022 @ 쉐막 따로 헛간 따로?(외양간 따로 헛간 따로?)
108022 #1 어, 쉐막 따로. 연장, 밧디 강 쟁기.(어, 외양간 따로. 연장, 밭에 가서 쟁기.)
108022 @ 예.(예.)
108022 #1 뭐 지게 ᄀᆞ튼 거 문. 궹이, 쉐스랑, 문 밧디 강 삽 그런 거 놓는 디 영헤영 ᄯᅮ로.(뭐 지게 같은 거 모두. 괭이, 쇠스랑, 모두 밭에 가서 삽 그런 거 놓는데 이렇게 따로.)
108022 @ 아, ᄯᅮ로 만들고.(아, 따로 만들고.)
108022 #1 으, ᄯᅮ로 만들어낫주게. 풍체 쳥.(으, 따로 만들었었지. 차양 쳐서.)
108022 @ 뭐?(뭐?)
108022 #1 풍체, 풍체.(차양, 차양.)
108022 @ 풍체.(차양.)
108022 #1 풍체가 잇나. 영 ᄂᆞ람쥐로 만들앙 영 풍체 영 ᄒᆞ쏠 영 이런 집가지시민 영 헤영 의지허는 거.(차양이 있어. 이렇게 이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차양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런 처마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의지하는 거.)
108022 @ 아, 큰 공간 ᄒᆞ나가 아니고 쪼금만허게.(아, 큰 공간 하나가 아니고 조그마하게.)
108022 #1 으, 풍체 쳥 터가 잇이민게. 터가 엇이난.(으, 차양 쳐서 터가 있으면. 터가 없으니까.)
108022 #4 큰집 허는 사름도 잇는데.(큰집 하는 사람도 있는데.)
108022 #1 큰집 허는 사름도 잇주게.(큰집 하는 사람도 있지.)
108022 #4 땅이 족으민 족은 대로.(땅이 작으면 작은 대로.)
108022 #1 우리 ᄀᆞ치 엇인 사름은 영 풍체 쳥.(우리 같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차양 쳐서.)
108022 @ 으, 거기에 다 보관을 헷던 거.(으, 거기에 다 보관을 했던 거.)
108022 #1 보관헤사. 비 맞고 벳 맞앙 안 뒈주게.(보관해야. 비 맞고 볕 맞아서 안 되지.)
108022 @ 예, 예. 게민 여기 뒌장 담고 간장 담는 항아리 잇잖아예? 그거는 어느 쪽에 놔낫수과?(예, 예. 그럼 여기 된장 담고 간장 담는 항아리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쪽에 놨었습니까?)

108022 #4 저 집 뒤에.(저 집 뒤에.)
108022 #1 저 뒤에 놓주, 뒤에.(저 뒤에 놓지, 뒤에.)
108024 @ 그럼 여기는 뭐렌 헙니까?(그럼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108024 #1 어게, ᄀᆞ레. ᄀᆞ레짝 놩.(어, 맷돌. 맷돌짝 놓아서.)
108024 #4 ᄀᆞ레착 밑에 놓고.(맷돌짝 밑에 놓고.)
108024 #1 동골락 ᄀᆞ레 알아?(동그란 맷돌 알아?)
108024 @ 예, 예. 알아집니다.(예, 예. 압니다.)
108024 #1 그거 밑에 놓주게.(그거 밑에 놓지.)
108024 @ 예.(예.)
108024 #1 그것덜 놩 그 우터레 항.(그것들 놔서 그 위에 항아리.)
108024 @그민 그게 장항굽[448]이 뒈는 거?(그럼 그게 '장항굽'이 되는 거?)
108024 #1 어, 장항굽, 장항굽.(어, '장항굽', '장항굽'.)
108024 @ 게민 그 항덜 다 모아 잇이난 그곳 전체를 뭐렌 ᄀᆞᆯ아?(그럼 그 항아리들 다 모아 있으니까 그곳 전체를 뭐라고 말해?)
108024 #1 뭐렌 ᄀᆞᆯ아?(뭐라고 말해?)
108024 @ 장독대 허는 말?(장독대 하는 말?)
108024 #1 장독대렌 ᄀᆞᆫ주.(장독대라고 말하지.)
108024 @ 그거는 표준말이고 제줏말로 ᄀᆞᆫ는 거 엇수과?(그거는 표준말이고 제줏말로 말하는 거 없습니까?)
108024 #1 제줏말은 거 그냥 뒤에 놔근에 이땅 영, 옛날 어른덜 영 보민 장항광 돗통은 멀어사 헌덴 허멍 영 장항은 영 집 뒤에 놓고 화장실은 멀게 허고 헤낫저게.(제줏말은 거 그냥 뒤에 놔서 이따금 이렇게, 옛날 어른들 이렇게 보면 장항과 돼지우리는 멀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장항은 이렇게 집 뒤에 놓고 화장실은 멀게 하고 했었어.)
108024 @ 으, 화장실은 멀게 허곡예?(으, 화장실은 멀게 하고요?)
108024 #1 으, 돗통은 멀게 허고.(으, 돼지우리는 멀게 하고.)
108025 @ 게난 옛날 수도 엇이난 빗물도 영 받아낫잖아예?(그러니까 옛날 수도 없으니까 빗물도 이렇게 받았었잖아요?)
108025 #1 아이고, 눈도 녹영 먹어낫저.(아이고, 눈도 녹여서 먹었었어.)
108025 @ 하하.(하하.)
108025 #1 하늘에 눈 오민 다라에 녹여근에 그거는, 그거 먹어낫저.(하늘에 눈 오면 대야에 녹여서 그거는, 그거 먹었었어.)
108025 @ 으, 눈도 녹영 먹어나고.(으, 눈도 녹여서 먹었었고.)
108025 #1 으, 눈도 녹영 먹고 빗물도 받주게.(으, 눈도 녹여서 먹고 빗물도 받지.)
108025 @ 집이 큰 낭 잇이민 거기에 줄, 줄 메영 영 항아리 놩 그 물 받아낫잖

448) '장항굽'은 장독을 받치기 위해 넓적한 돌을 놓은 것을 말한다.

아예? 그거 뭐 받는덴 헙니까?(집에 큰 나무 있으면 거기에 줄, 줄 매서 이렇게 항아리 놔서 그 물 받았었잖아요? 그거 뭐 받는다고 합니까?)

108025 #1 지슨물 받는 거주.(낙숫물 받는 거지.)

108025 @ 지슨물 받는 거. 그거 뭐 츰항이렌 안 허여?(낙숫물 받는 거. 그거 뭐 '츰항'이라고 안 해?)

108025 #1 으?(으?)

108025 @ 츰, 츰. 츰항? 여기 항아리 갖다 놩 여기 새끼줄 꼬은 거 갖다 놩 물 내리게예.('츰', '츰'. '츰항'? 여기 항아리 갖다 놓고 여기 새끼줄 꼰 거 갖다 놔서 물 내리게요.)

108025 #4 그런 것도 잇는 집, 엇는 집 허여.(그런 것도 있는 집, 없는 집 해.)

108025 #1 그거이 아무 집이나 건 엇나게. 잇는 집도 잇고 엇는 집도 잇고. 그건 아무 집이나 엇나.(그거 아무 집에나 건 없어.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그건 아무 집에나 없어.)

108025 #4 보통은 이 집이서 내리는 물.(보통은 이 집에서 내리는 물.)

108025 #1 보통으로 우린 기자 영 지슨물이엔 헌다게. 지슨물.(보통으로 우린 그저 이렇게 낙숫물이라고 한다. 낙숫물.)

108025 @ 초집에서 영 내려오는 물 뚝뚝 떨어지는 거.(초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 뚝뚝 떨어지는 거.)

108025 #1 으, 으. 어게.(으, 으. 어.)

108025 #4 거 지슨물.(거 낙숫물.)

108025 #1 지슨물 받아근에 우리.(낙숫물 받아서 우리.)

108025 #4 사용허주게. 먹진 안헤도.(사용하지. 먹진 않아도.)

108025 #1 그자 먹진 안헤도 뭐 무신 초불, 송키 거튼 거, 우리 빨래허고 문 헤나시네게. 지슨물 받앙 하영 썻주, 옛날에사.(그저 먹진 않아도 뭐 무슨 초벌, 푸성귀 같은 거, 우리 빨래하고 모두 했었어. 낙숫물 받아서 많이 썼지, 옛날에야.)

108025 @ 기지예.(그렇지요.)

108025 #1 어, 눈 녹영, 눈 녹인 물도, 곱닥헌 디 눈 헤당 녹영 밥도 헹 먹엇저.(어, 눈 녹여서, 눈 녹인 물도, 고운 데 눈 해다가 녹여서 밥도 해서 먹었어.)

108025 @ 그럼 츰항이렌 헌 말은 안 들어봣수과?(그럼 '츰항'이라고 하는 말은 안 들어봤습니까?)

108025 #1 어?(어?)

108025 @ 츰항. 츰항.('츰항', '츰항'.)

108025 #1 츰항?('츰항'?)

108025 @ 예, 츰항?(예, '츰항'?)

108025 #1 항 말사 들어봣주만은 츰항[449]이엔은.(항아리 말이야 들어봤지만 '츰항'이라고는.)

---

449) '츰항'은 '츰'을 타고 내려온 이슬 따위를 받아 담는 항아리를 말한다.

108025 @ 안 들어 봔예?(안 들어 봤어요?)

108025 #1 으. 춤항이엔은 안 들어 봣저.(으. '춤항'이라고는 안 들어 봤어.)

초가 지붕이기

108026 @ 초집 지으면 초집은 지붕을 골아 줘야 헙니께?(초가 지으면 초가 지붕을 갈아 줘야 하지요?)

108026 #4 매해마다 혼번은 우에.(매해마다 한번은 위에.)

108026 #1 일 년에 혼 번 골아사. 딱 일 년에 혼 번. 안 골앙은 못 살주게. 비 셀앙.(일 년에 한 번 갈아야. 딱 일 년에 한 번. 안 갈아서는 못 살지. 비 새서.)

108026 @ 예.(예.)

108026 #1 새 헤당 믄 골암주게.(띠 해다가 모두 갈고 있지.)

108027 @ 예. 게민 새는 준비헤야 뒐 거. 새랑?(예. 그럼 띠는 준비해야 될 거. 띠랑?)

108027 #1 새 준비허여, 각단[450] 준비허여. 경헤영 줄 놔.(띠 준비해, '각단' 준비해. 그래서 줄 놓아.)

108027 @ 새는 뭐고 각단은 뭐?(띠는 뭐고 '각단'은 뭐?)

108027 #1 각단은 쯔른 거. 줄 놓는 거 벵벵.('각단'은 짧은 거. 줄 놓는 거 뱅뱅.)

108027 @ 아.(아.)

108027 #1 새는 더끄는 거.(띠는 덮는 거.)

108027 @ 더끄는 거?(덮는 거?)

108027 #1 어.(어.)

108027 @ 게민 각단으로 헹, 새도 비여 왕 모셔 놓고.(그럼 '각단'으로 해서, 띠도 베어 와서 모셔 놓고.)

108027 #1 으. 각단도 헤당 놓고.(으. '각단'도 해다가 놓고.)

108028 @ 줄을 만들어야쿠다예?(줄을 만들어야겠네요?)

108028 #1 으, 호렝이 멘들앙 이제 그 줄을 비여[451]. 놓는 사름 헹 줄을 비여.(으, '호렝이' 만들어서 이제 그 줄을 '비여'. 놓는 사람 해서 줄을 '비어'.)

108028 @ 그럼.(그럼.)

108028 #1 건 저 새 끌앙 무끄는 거.(건 저 띠 깔아서 묶는 거.)

108028 @ 집줄 놓젠 허민 사람이 몇 사람이나 필요허여?('집줄' 놓으려고 하면 사람이 몇 사람이 필요해?)

108028 #1 쳇 번은 두 사름이민 뒈는디 어울릴 땐 세 사름, 네 사름 든다.(첫 번은 두 사람이면 되는데 드릴 때는 세 사람, 네 사람 든다.)

108028 @ 네 사름예?(네 사람요?)

---

450) '각단'은 지붕을 동여맬 때 사용하는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를 말한다.

451) '비다'는 초가의 지붕을 일 때 사용하는 '집줄'을 만들기 위해서 '호롱이'란 도구로 줄이 되게 꼬는 것을 말한다.

108028 #1 으. 줄 어울려사, 줄 어울려사.(으. 줄 드려야, 줄 드려야.)
108028 #4 맞아, 네 사름.(맞아, 네 사람.)
108028 #1 네 사름 빌어사.(네 사람 빌려야.)
108028 #4 둘리가 비고 흔 사름 가운디 사고 또 한 사름 허곡 헤사.(둘이 '비고' 한 사람 가운데 서고 또 한 사람 하고 해야.)
108028 #1 영 허영 영 줄 어울령 영 노 꼬앙 멘들아 가주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 드려서 이렇게 노 꼬아서 만들어 가지.)
108028 @ 예.(예.)
108028 #1 그 사름 ᄒᆞ나, 뒤으론 벵벵 허는 사름 ᄒᆞ나.(그 사람 하나, 뒤로는 뱅뱅 하는 사람 하나.)
108028 @ 예.(예.)
108028 #4 또 두 밧디서 비고.(또 두 군데에서 '비고'.)
108028 #1 또 두 밧디서 영 영 비고.(또 두 군데에서 이렇게 이렇게 '비고'.)
108028 #4 두 개가 어울리젠 허민.(두 개가 드리려고 하면.)
108028 #1 경헨 네 사름.(그래서 네 사람.)
108028 @ 네 사람예?(네 사람요?)
108028 #1 일 년에 흔 번은 똑 지붕 ᄀᆞᆯ아사.(일 년에 한 번은 꼭 지붕 갈아야.)
108028 @ 예.(예.)
108028 #1 느량 하이고, 얼마나 걱정헤나시니? 우린 이녁 밧 엇이난이 새 철 나오라 가민 ᄉᆞ못, 에이쿠.(늘 하이고, 얼마나 걱정했었니? 우린 자기 밭 없으니까 새 철 되어 가면 사뭇, 어이쿠.)
108028 #4 거 봉그레 산에.(거 주우러 산에.)
108028 #1 하하하.(하하하.)
108028 @ 비레?(베러?)
108028 #1 으, 산에 봉그레[452].(으, 산에 주우러.)
108028 #4 봉그레, 봉그레. 이녁 밧 엇이난.(주우러, 주우러. 자기 밭 없으니까.)
108028 @ 예, 뭘 봉그레?(예, 뭘 주우러?)
108028 #1 새 봉그레.(띠 주우러.)
108028 #4 새가 쪼금씩 쪼금씩 봉가 와야지.(띠가 조금씩 조금씩 주워 와야지.)
108028 #1 가민이.(가면.)
108028 @ 아, 그걸 봉근덴 헙니까?(아, 그걸 줍는다고 합니까?)
108028 #1 으, 우리 봉그레 가는 거주.(으, 우리 주우러 가는 거지.)
108028 @ 비레 가는 거주.(베러 가는 거지.)
108028 #1 비레 무신.(베러 무슨.)
108028 #4 새 봉그레, 새 봉그레 헌다.(띠 주우러, 띠 주우러 한다.)

452) '봉그다'는 표준어의 '줍다'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들에 가서 드문드문 나 있는 띠를 찾아 장만하는 것을 의미한다.

108028 #1 새 봉그레 우리 가노렌 헌다.(띠 주우러 우리 간다고 한다.)

108028 @ 게민 요기 강 혼 줌?(그럼 요기 가서 한 줌?)

108028 #1 어.(어.)

108028 @ 요기 강 혼 줌 비고 또 저디 강 혼 줌 비고?(요기 가서 한 줌 베고 또 저기 가서 한 줌 베고?)

108028 #1 저 멩게낭 엠에라도 시민 그거 강 혼 줌썩 비고. 우리 경 설룹게 살앗저.(저 청미래덩굴 옆에라도 있으면 그거 가서 한 줌씩 베고. 우리 그렇게 서럽게 살았어.)

108028 @ 아이고게, 고생헷수다.(아이고, 고생했습니다.)

108028 #1 부제칩인 이녁 새왓[453] 잇수게.(부잣집은 자기 '새왓' 있어요.)

108028 @ 예.(예.)

108028 #1 우린 촐이나 새나. 경허난 원 첨. 사름이 엇엉 살 건 아니주, 벨거 다 헹 살앗저. 각단 거, 강정칩[454]이ᄀᆞ라 각단 ᄒᆞ쏠 도렌 허난, 아이고 우린 비단 남으카 원 남으카 헨게.(우린 꼴이나 띠나. 그러니까 원 참. 사람이 없어서 살 건 아니지, 별거 다 해서 살았어. '각단' 거, '강정칩'보고 '각단' 조금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린 베다가 남을까 원 남을까 하더라.)

108028 @ 하하. 게민 각단으로 줄을 영 만들앗수다, 꼬앗수다예.(하하. 그럼 '각단'으로 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꼬았습니다.)

108028 #1 으, 으.(으, 으.)

108028 @ 줄은 길게도 꼬고, 진줄[455]도 만들고?(줄은 길게도 꼬고, '진줄'도 만들고?)

108028 #1 이 집에 맞추와.(이 집에 맞춰.)

108028 @ 이 집에 맞춰.(이 집에 맞춰서.)

108028 #1 어, 삼간집[삼관집]이민 삼간집이 맞추고 ᄉᆞ간집[456]이민 ᄉᆞ간집이 맞추곡. 긴 줄.(어, 삼간집이면 삼간집에 맞추고 'ᄉᆞ간집'이면 'ᄉᆞ간집'에 맞추고. 긴 줄.)

108028 @ 으.(으.)

108028 #1 ᄌᆞ른줄. 이건 ᄌᆞ른줄.('ᄌᆞ른줄'. 이건 'ᄌᆞ른줄'.)

108028 @ 긴 줄이렌 헷수과, 진줄이렌 헷수과?(긴 줄이라고 했습니까, '진줄'이라고 했습니까?)

108028 #1 긴 줄이렌 안 허영 옛날은 건줄, 건줄 헷저. 옛날엔이 옛날 말은 건줄 ᄍᆞ른줄. 경헤낫저.(긴 줄이라고 안 하고 옛날은 '건줄', '건줄' 했어. 옛날에는 옛날 말은 '건줄', 'ᄍᆞ른줄'. 그랬었어.)

---

453) '새왓'은 지붕에 일 띠가 나서 자라는 밭을 말한다.

454) 여기서 '강정칩'은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와서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킨다.

455) '진줄'은 길이가 긴 줄이라는 뜻이다. 초가지붕을 인 후에 지붕을 단단히 동여맬 때 사용하는, 길이로 매는 줄을 말한다. 제보자는 이를 '건줄'이라고도 하고 있다.

456) 'ᄉᆞ간집'은 네 칸으로 지어진 집을 말한다.

108028 @ 아.(아.)
108028 #1 영 ᄀᆞ로 허는 건 쯔른줄.(이렇게 가로 하는 건 ‘쯔른줄’.)
108028 @ 쯔른줄.(‘쯔른줄’.)
108028 #1 영 길게 허는 건, 건줄. 경헤낫저.(이렇게 길게 하는 건, ‘건줄’. 그랬었어.)
108028 #4 이렇게 메곡 이렇게 메곡 허는 거.(이렇게 매고 이렇게 매고 하는 거.)
108028 #1 경허난 맞추앙 줄 놓느네게. 맞추앙.(그러니까 맞춰서 줄 놓잖아. 맞춰서.)
108028 @ 예.(예.)
108028 #1 진줄 쯔른줄 맞추앙 경 아무상 엇이 허는 건 아니.(‘진줄’, ‘쯔른줄’ 맞춰서 그렇게 까닭 없이 하는 건 아니.)
108028 @ 게난 그 줄 만들젠 허민 뭐가 필요허여, 아까?(그러니까 그 줄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 아까?)
108028 #1 각단.(‘각단’.)
108029 @ 각단 말고 영 돌리는 거?(‘각단’ 말고 이렇게 돌리는 거?)
108029 #1 호렝이.(‘호렝이’.)
108029 @ 뒤에서 영 꼿앙 세우는 거?(뒤에서 이렇게 꼿아서 세우는 거?)
108029 #1 그거ᄀᆞ란.(그것보고는.)
108029 #4 어울리는 거엔만 허난, 줄 어울리는 거.(드리는 거라고만 하니까, 줄 드리는 거.)
108029 #1 줄 어울리는 거 어디 강 아져오라, 아져오라 허주. 우린 비는 건 호렝이[457]렌 헤낫저.(줄 드리는 거 어디 가서 가져와라, 가져와라 하지. 우린 ‘비는’ 건 ‘호렝이’라고 했었어.)
108029 #4 양, 언니 그만 ᄀᆞᆯ읍서. 다시 오민 ᄀᆞᆯ을 말 엇입니다.(여보세요, 언니 그만 말하세요. 다시 오면 할 말 없습니다.)
108029 @ 요기까지만.(요기까지만.)
108029 #4 하하하. 따시 오민 뭐 ᄀᆞᆫ젠?(하하하. 다시 오면 뭐 말하려고?)
108030 @ 삼춘. 게난 영 하면 초가집 하면 영 줄 메젠 하면 여기 지붕 밑에 뭘 대잖아예?(삼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초가집 하면 이렇게 줄 매려고 하면 여기 지붕 밑에 뭘 대잖아요?)
108030 #1 게, 대 ᄃᆞᆯ아멘다. 대 ᄃᆞᆯ아멘다.(그래, 대 달아맨다. 대 달아맨다.)
108030 @ 대 ᄃᆞᆯ아메.(대 달아매.)
108030 #1 서리 끗에.(서까래 끝에.)
108030 @ 서리 끗에.(서까래 끝에.)
108030 #1 서리 끗에 헤영 대 영 헤영 무끄주게.(서까래 끝에 대 이렇게 해서

457) ‘호렝이’는 초가의 지붕을 일 때 쓰는 줄이나 참바 따위를 틀 때 사용하는 도구다.

묶지.)

108030 @ 예.(예.)

108030 #1 경헨 무꺼근에 대 영 딱딱 뎅인다게. 뎅영 놧당 줄 ᄃᆞᆼ경 그 줄에 무끈다게.(그래서 묶어서 대 이렇게 딱딱 동인다. 동여 놨다가 줄 당겨서 그 줄에 묶는다.)

108030 @ 그 대를 뭐렌 ᄀᆞᆯ읍까?(그 대를 뭐라고 말합니까?)

108030 #1 왕대.(왕대.)

108030 @ 왕대. 그거 거왕이렌 허는 말 안 써?(왕대. 그거 '거왕'이라고 하는 말 안 써?)

108030 #1 거왕이엔 말 나 안 들어봣저.('거왕'이라는 말 나 안 들어봤어.)

108030 @ 벵두암, 펭고대 안 들어 봔? 그냥 왕대렌만 허는 거예?('벵두암', '평고대' 안 들어 봤어? 그냥 왕대라고만 하는 거요?)

108030 #1 왕대 끈어 와사 이 서리 끗 무끄컬 헤낫주. 우린 왕대도 엇고 족대도 엇고 허민. 것도 빌어 와사. 이젠 공짜로 안 줄 거여. 옛날은 그자 공짜덜, 하난 빌어 왓주.(왕대 끊어 와야 이 서까래 끝 묶을걸 했었지. 우린 왕대도 없고 이대도 없고 하면. 것도 빌려 와야. 이젠 공짜로 안 줄 거야. 옛날은 그저 공짜들, 많으니까 빌려 왔지.)

108032 @ 게난 영 줄 헤 나면 집줄 남으민.(그러니까 이렇게 줄 하고 나면 '집줄' 남으면.)

108032 #1 남으민 호미로 끈엉.(남으면 낫으로 끊어서.)

108032 @ 남으민 호미로 끈엉. 게민 남은 거 가졍 뭣도 만들고 헙니까?(남으면 낫으로 끊어서. 그럼 남은 거 가지고 뭣도 만들고 합니까?)

108032 #1 남은 걸로 홀 거 엇나. 기자.(남은 걸로 할 게 없어. 그저.)

108032 #4 집 땔 거, 땔 거.(집 땔 거, 땔 거.)

108032 #1 밥도 헹 먹고.(밥도 해서 먹고.)

108032 @ 방석 같은 거 안 만들고?(방석 같은 거 안 만들고?)

108032 #1 아니. 방석 못 만들아.(아니. 방석 못 만들어.)

108032 #4 방석을 새로 줄 헤근에 다 만들앙 ᄁᆞᆯ앙 앉아.(방석을 새로 줄 해서 다 만들어서 깔아서 앉아.)

108032 @ 아, 어쨌든 ᄌᆞ른 거 요만이헌 거.(아, 어쨌든 짧은 거 요만한 거.)

108032 #4 으, 만들아. 요만씩 허게.(으, 만들어. 요만큼씩 하게.)

108032 #1 경허난이 줄 일단 걸게, 놔진 건 하영 남아도 경 하영 남지 안헌다. 맞추앙덜 놓는 따문 남지 안헌다.(그러니까 줄 일던 걸, 놓은 건 많이 남아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 맞춰서들 놓기 때문에 남지 않는다.)

108032 @ 아, 맞추앙.(아, 맞춰서.)

108032 #4 맞추앙 허는 따문.(맞춰서 하기 때문에.)

108032 #1 아이고, 옛날에 큰집덜이사 새 오죽 하영 들어시냐게. 새 하영 들언.

(아이고, 옛날에 큰집들이야 띠 오죽 많이 들었니. 띠 많이 들었어.)

연장

108033 @ 게민예. 집 짓젠 허민 연장덜이 필요헐 거잖아예?(그럼요. 집 지으려고 하면 연장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108033 #1 집 목시 연장 목시가 알주.(집 목수 연장 목수가 알지.)

108033 @ 게니까 일름 알아지는 것만 골아 줍서.(그러니까 이름 아는 것만 말해 주세요.)

108033 #1 알아지는 거 뭐 나 모르켜. 옛날에 자귀허고.(아는 거 뭐 나 모르겠어. 옛날에 자귀하고.)

108033 @ 자귀.(자귀.)

108033 #1 자귀허고 무시거 번자귀[458]여 뭐, 대패여 뭐 거벳긴 엇어.(자귀하고 뭐 '번자귀'다 뭐, 대패다 뭐 거밖에 없어.)

108034 @ 낭 자르젠 허민?(나무 자르려고 하면?)

108034 #1 톱.(톱.)

108034 @ 톱. 그런 거 잇어야 뒐 거.(톱. 그런 거 있어야 될 거.)

108034 #1 으, 그런 거.(으, 그런 거.)

108034 @ 기민 톱은 자르는 거라예?(그럼 톱은 자르는 거지요?)

108034 #1 낭 그치는 거. 또 대패엔 헌 건 낭 미는 거. 자귀는 닥닥 찍는 거.(나무 자르는 거. 또 대패라고 하는 건 나무 미는 거. 자귀는 닥닥 찍는 거.)

108035 @ 게민 못 박을 때는?(그럼 못 박을 때는?)

108035 #1 못 박을 땐 무시거니?(못 박을 때는 뭐?)

108035 @ 못 박는 거.(못 박는 거.)

108035 #1 못 박는 것ᄀᆞ라.(못 박는 것보고.)

108035 #4 못 박는 것ᄀᆞ라 무시거엔 ᄀᆞᆫ느니?(못 박는 것보고 뭐라고 말하니?)

108035 #1 아이고, 거 ᄀᆞᆫ나만은 잊어벳저, 것도.(아이고, 거 말하는데 잊어버렸어, 것도.)

108035 @ 예, 예. 좋수다, 좋수다.(예,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108035 #1 두 가지 돋은 걸로 헹 두 가지 돋은 걸로 못 박나게.(두 가지 돋은 걸로 해서 두 가지 돋은 걸로 못 박아.)

108035 @ 예, 예. 그럼 이걸로 못 빼고?(예, 예. 그럼 이걸로 못 빼고?)

108035 #4 빼고 박고.(빼고 박고.)

108035 @ 박고예.(박고요.)

108035 #1 못빼기엔 골아낫저.('못빼기'라고 말했었어.)

108035 #4 못빼기엔 골아, 지금은.('못빼기'라고 말해, 지금은.)

458) '번자귀'는 자귀의 한 종류로 날이 가로로 되어 있어 주로 굵은 통나무를 서서 깎는데 알맞게 만들어진 도구다.

108035 #1 못뻬기엔 골아낫저.(‘못뻬기’라고 말했었어.)
108035 @ 못뻬기예. 예, 예.(못뽑이요. 예, 예.)
108035 #1 못 빠는 거난 못뻬기라, 거.(못 빼는 거니까 못뽑이야, 거.)
108035 @ 예, 예.(예, 예.)
108035 #1 걸로 못 박나.(걸로 못 박아.)
108034 @ 예. 톱에도 여러 종류가 이실 거 아니?(예. 톱에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
108034 @#4 잇주게. 큰 거, 족은 거 다.(있지. 큰 거, 작은 거 다.)
108034 #1 아이고게, 그 톱ᄀᆞ라도 무신.(아이고, 그 톱보고도 무슨.)
108034 #4 양, 큰 톱은 거뒤양.(여보세요, 큰 톱은 거도요.)
108034 #1 거뒤. 완전 큰 톱ᄀᆞ란 거뒤엔 허고.(거도. 완전 큰 톱보고 거도라고 하고.)
108034 @ 으.(으.)
108034 #1 또 족은 톱ᄀᆞ라 다 일름은 잇어.(또 작은 톱보고 다 이름은 있어.)
108034 #4 족은 톱은 톱이엔 허고 큰 톱은 거뒤엔 헤.(작은 톱은 톱이라고 하고 큰 톱은 거도라고 해.)
108034 @ 음.(음.)
108034 #1 거뒤허고 족은 톱일 거여.(거도하고 작은 톱일 거야.)
108033 @ 예. 영 영 벳기는 건?(예. 이렇게 이렇게 벗기는 건?)
108033 #1 자귀.(자귀.)
108033 @ 자귀예. 집 짓는 목수는 잣대도 이실 거라예?(자귀요. 집 짓는 목수는 잣대도 있을 거지요?)
108033 #1 아이고, 잇고말고. 엇인 거 엇나게.(아이고, 있고말고. 없는 거 없어.)
108033 @ 엇인 거 엇어예?(없는 거 없어요?)
108033 #1 으.(으.)
108039 @ 우리 여기 뭐 헐 때, 흑 ᄇᆞ를 때. 흑 ᄇᆞ를 때 쓰는 거?(우리 여기 뭐 할 때, 흙 바를 때. 흙 바를 때 쓰는 거?)
108039 #1 쒜손?(쇠손?)
108039 @ 으, 쒜손.(으, 쇠손.)
108039 #4 쒜손, 쒜손.(쇠손, 쇠손.)
108039 @ 그건 시멘트 바를 때고, 옛날에 흑손이엔도 골아낫수과?(그건 시멘트 바를 때이고, 옛날에 흙손이라고도 말했었습니까?)
108039 #1 옛날은 쒜손으로 안 헌다게.(옛날은 쇠손으로 안 한다.)
108039 @ 예.(예.)
108039 #1 낭으로, 낭으로이 ᄌᆞ룩 돋앙 멘들주게.(나무로, 나무로 자루 돋아서 만들지.)
108039 @ 멘들엉.(만들어서.)

108039 #1 으, 멘들앙 그것ᄀᆞ라 것도 일름 잇엇저만은 몰르켜. 멘들아근에 크게 멘들앙 짝 허게 손으로 앗앙 착 허게 부지데기멍 헤 왕 거로 짝 민다.(으, 만들어서 그것보고 것도 이름 있었지만 모르겠어. 만들어서 크게 만들어서 짝 하게 손으로 가져서 착 하게 내리갈기면서 해 와서 거로 짝 민다.)

108039 @ 으.(으.)

108039 #1 경헨 꼭꼭 누르뜨고.(그래서 꼭꼭 누르고.)

108039 @ 누르뜨고.(누르고.)

108039 #1 고망더레 찔러사주게, 흑.(구멍에 찔러야지, 흙.)

108039 @ 그니까 잘 들어가게예.(그러니까 잘 들어가게요.)

108039 #1 으, 으. 그 담 고망더레 들어가사 헐 거난.(으, 으. 그 담 구멍에 들어가야 할 거니까.)

108039 @ 예.(예.)

108039 #1 꼭꼭 누르뜬다. 낭으로 허영.(꼭꼭 누른다. 나무로 해서.)

108039 @ 으.(으.)

108039 #1 이젠 쒜손으로 허주만은 그땐 낭, 낭손[459].(이젠 쇠손으로 하지만 그땐 나무, '낭손'.)

108039 @ 낭손. 낭손이렌 ᄀᆞᆯ아난?('낭손'. '낭손'이라고 말했었어?)

108039 #1 으, 낭손. 옛날은 낭손.(으, '낭손'. 옛날은 '낭손'.)

108039 @ 게민 목수는 영 선 그리젠 허난 뭐도, 그리는 것도 가졍 다닐 거 아니?(그럼 목수는 이렇게 선 그리려고 하니까 뭐도, 그리는 것도 가지고 다닐 거 아니?)

108039 #1 목시사 다 가졍 다니주.(목수야 다 가지고 다니지.)

108038 @ 거 먹통, 먹줄 들어봣수과?(거 먹통, 먹줄 들어봤습니까?)

108038 #1 으, 먹통, 먹줄. 먹통, 먹줄 아졍 다니고게, 자 아졍 다니고 문딱 아졍 다닌다. 목쉰게.(으, 먹통, 먹줄. 먹통, 먹줄 가지고 다니고, 자 가지고 다니고 모두 가지고 다닌다. 목수는.)

108038 @ 목쉬는예. 겐 집 짓을 때 썼던 거라예?(목수는요. 그래서 집 지을 때 썼던 거지요?)

108038 #1 으, 다 써 원 옛날이고 이제고 목쉬는 그 연장을 아졍 뎅긴다.(으, 다 써 원 옛날이고 이제고 목수는 그 연장을 가지고 다닌다.)

108038 @ 예.(예.)

108038 #1 초집 짓을 때나 이제 집 짓을 때나. 이젠 기술이 더 좋앙 기계로 헴시네게.(초가 지을 때나 이제 집 지을 때나. 이젠 기술이 더 좋아서 기계로 하고 있어.)

108001 @ 게민 이 집 짓을 땐, 이거 직접 지은 거 아니지 않아? 불렁 지은 거?(그럼 이 집 지을 땐, 이거 직접 지은 거 아니지 않아? 불러서 지은 거?)

459) '낭손'은 흙일을 할 때에, 이긴 흙을 떠서 바르고 그 겉 표면을 반반하게 하는 나무로 만든 연장을 말한다.

108001 #4 이 집 짓을 땐 그추룩 안 헷저게. 이건 신식 집으로 짓은 거난.(이 집 지을 땐 그처럼 안 했어. 이건 신식 집으로 지은 거니까.)

108001 #1 하이고, 이거 옛날에 이거, 이거 짓건 디도.(하이고, 이거 옛날에 이거, 이거 지은 지도.)

108001 #4 아니 오래도 이거는 세멘으로만 허고 흑으로 안 헷주게.(아니 오래도 이거는 시멘트로만 하고 흑으로 안 했지.)

108001 #1 이거, 이거 흔 칠십 년 뭰 거 닮다만은.(이거, 이거 한 칠십 년 된 거 같다만.)

108001 @ 칠십 년 아니. 삼춘이 지금 여든하나니까. 시집왕 몇 살에 지엇수과?(칠십 년 아니. 삼촌이 지금 여든하나니까. 시집와서 몇 살에 지었습니까?)

108001 #4 이것사 시집오난.(이거야 시집오니까.)

108001 #1 나 이거 흔 오십쯤에 짓어져실 거여.(나 이거 한 오십쯤에 지었을 거야.)

108001 @ 오십이난 얼마 안 뒛수게.(오십이니까 얼마 안 되었지요.)

108001 #1 ᄀᆞ만 시라.(가만 있어라.)

108001 @ 으.(으.)

108001 #4 아이고, 더 뒛저, 더 뒛저. 아니 나 우리 저 누게가 물애기 때 나 수술, 수술.(아이고, 더 됐어, 더 됐어. 아니 나 우리 저 누가 물아기 때 나 수술, 수술.)

108001 #4 이거양 흔 오십 년은 뭼서.(이거요 한 오십 년은 되고 있어.)

108001 #1 오십 년 넘엇어.(오십 년 넘었어.)

108001 #4 우리 거보다 먼저 짓은 집이난.(우리 거보다 먼저 지은 집이니까.)

108001 #1 오십 년 넘엇저. 이거 흔 난 흔 칠십 년 뭰 줄 아는디.(오십 년 넘었어. 이거 한 난 한 칠십 년 된 줄 아는데.)

108001 @ 칠십 년이면 삼춘 열 살 때우다. 열 살 때고.(칠십 년이면 삼촌 열 살 때입니다. 열 살 때이고.)

108001 #1 으, 여든ᄒᆞ나난이. 이것이 흔 나 간장염 수술헐 때난.(으, 여든하나니까. 이것이 한 내가 간장염 수술할 때니까.)

108001 #4 오래여사 오십 년이우다.(오래어야 오십 년입니다.)

108001 @ 예, 예.(예, 예.)

108001 #1 간장염 수술헐 때가 오십 년인디 그때 헤져신가, 원.(간장염 수술할 때가 오십 년인데 그때 했나, 원.)

108001 @ 큰아이 몇 살 때쯤?(큰아이 몇 살 때쯤?)

108001 #1 아이고, 것도 모르켜.(아이고, 것도 모르겠어.)

108001 #4 큰아이, 이디서 다 아이덜 낫수과?(큰아이, 여기서 다 아이들 낳았습니까?)

108001 #1 아니여게. 동네커리[460]에서 나시녜.(아니야. '동네커리'에서 낳았어.)

108001 #4 동네커리.('동네커리'.)
108001 #1 놈의집살 때 낫어. 놈의집살 때.(남의집살 때 낳았어. 남의집살 때.)
108001 @ 으.(으.)
108001 #1 놈의집살 때 큰년 나고 큰놈 나고 저 셋놈은 ○○네 집이서 나고 족은놈 이디 왕 낫구나. 경허난에.(남의집살 때 큰딸 낳고 큰아들 낳고 저 둘째는 ○○네 집에서 낳고 작은아들 여기 와서 낳았구나. 그러니까.)
108001 @ 족은놈이 몇 살이과?(작은아들이 몇 살입니까?)
108001 #1 이거 혼.(이거 한.)
108001 #4 ○○가 지금 마흔다섯인가, 으섯인가?(○○가 지금 마흔다섯인가, 여섯인가?)
108001 @ 게난 오십 년 정도 뒈신게?(그러니까 오십 년 정도 되었네요?)
108001 #4 오십 년.(오십 년.)
108001 #1 그자 오십 년. 오십 년이여게. 이추룩 골을 줄 알아시민 문딱 적엉 놔둘걸.(그저 오십 년. 오십 년이야. 이처럼 말할 줄 알았으면 모두 적어서 놔둘걸.)
108001 #1 @ 하하하.(하하하.)

9. 신앙

109001 @ 이번엔 신앙에 관헤서 몇 개 물어보쿠다. 그 가신이라는 거, 집 신, 가신이라는 거 알아지쿠과?(이번에는 신앙에 관해서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그 가신이라는 거, 집 신, 가신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109001 #1 가신?(가신?)
109001 @ 으, 집에 있는 신.(으, 집에 있는 신.)
109001 #1 가신이 뭐라?(가신이 뭐야?)
109002 @ 그럼, 집 지으면 성주허잖아예?(그럼, 집 지으면 성주하잖아요?)
109002 #1 어, 성주 내는 거.(어, 성주 내는 거.)
109002 @ 성주 내는 거.(성주 내는 거.)
109002 #1 어.(어.)
109002 @ 성주 내는 거 어떵 헙니까?(성주 내는 거 어떻게 합니까?)
109002 #1 심방 둘아당.(무당 데려다가.)
109002 @ 심방 둘아당?(무당 데려다가.)
109002 #1 어.(어.)
109002 @ 언제 성주를 냅니까?(언제 성주를 냅니까?)
109002 #1 옛날엔 집 짓으민 똑 백일 안에 헤낫저만은 이젠 기자 일 년 가도

460) '동네커리'는 토평동의 마을 지경 이름의 하나다. 동쪽에 있는 네거리라는 의미다.

좋고 멧 년 가도 좋고 또 구신 올리지 안헹도 허고. 경헨 성주는 꼭 낸다.(옛날에는 집 지으면 꼭 백일 안에 했었지만 이제는 그저 일 년 가도 좋고 몇 년 가도 좋고 또 귀신 올리지 않아서도 하고. 그래서 성주는 꼭 낸다.)

109002 @ 집 다 짓기 전에?(집 다 짓기 전에?)

109002 #1 아니, 다 짓어 낭, 완료헤 놩.(아니, 다 짓고 나서, 완료해 놓고.)

109002 @ 아, 완료헤 놩?(아, 완료해 놓고?)

109002 #1 완료 헤 놩 성주 낸다게. 경헨 스님도 돌아당 허는 사름도 잇나만은 심방을 돌아당 허주게. 대개 경우는.(완료 해 놓고 성주 낸다. 그래서 스님도 데려다가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당을 데려다가 하지. 대개 경우는.)

109002 @ 심방 돌아당.(무당 데려다가.)

109002 #1 어.(어.)

109002 @ 게민 그날 ᄒᆞ루 종일 헙니까?(그럼 그날 하루 종일 합니까?)

109002 #1 으, ᄒᆞ루 종일. 단지 오랑 성주만 내지 안허주게. 성줄 내젠 허면은 뭐 앚은제[461]도 앚은제 부청도 허고 일월제[462]도 허고 칠성맞이[463]도 허고.(으, 하루 종일. 단지 와서 성주만 내지 않지. 성주를 내려고 하면 뭐 '앚은제'도 '앚은제' 붙여서도 하고 '일월제'도 하고 '칠성맞이'도 하고.)

109002 @ 으.(으.)

109002 #1 겡헨 허는 따문 ᄒᆞ루 종일도 ᄒᆞ고 또 앚은제 허젠 허민 ᄒᆞᆫ 삼 일도 성주 걸청 허고.(그렇게 하는 때문에 하루 종일도 하고 또 '앚은제' 하려고 하면 한 삼 일도 성주 걸쳐서 하고.)

109002 @ 아.(아.)

109002 #1 또 문딱 헤진 사름은 단지 성주만 내젠 허민 오랑 ᄒᆞᆫ 멧 시간 낮전이 헹 가고 경헌다.(또 모두 한 사람은 단지 성주만 내려고 하면 와서 한 몇 시간 낮전에 해서 가고 그런다.)

109002 @ 게민 동네 사름덜도 먹으레 오는 거?(그럼 동네 사람들도 먹으러 오는 거?)

109002 #1 어게. 아고, 거기 성주 냄젠, 앚은제 헴젠 우리 문 보레 간다.(어. 아이고, 거기 성주 낸다고, '앚은제' 한다고 우리 모두 보러 간다.)

109002 @ 앚은제?('앚은제'?)

109002 #1 으, 앚은제엔 헌 건 삼 일 허는 것ᄀᆞ라 앚은제엔 헌다.(으, '앚은제'라고 하는 건 삼 일 하는 것보고 '앚은제'라고 한다.)

109002 @ 아, 삼일이나?(아, 삼일이나?)

109002 #1 큰굿은, 큰굿은 옛날엔 ᄒᆞᆫ 오일 허주. 큰 제 세왕. 경허는 건 큰굿 그 집이 헴젠.(큰굿은, 큰굿은 옛날에는 한 오일 하지. 큰 제 세워서. 그러는 건 큰굿 그 집에 한다고.)

---

461) '앚은제'는 성주받이를 할 때 지내는 제의 하나다.
462) '일월제'는 성주받이를 할 때 지내는 제의 하나다.
463) '칠성맞이'는 성주받이를 할 때 지내는 제의 하나다.

109002 @ 으.(으.)

109002 #1 이 족은 굿은 앚은제.(이 작은 굿은 '앚은제'.)

109002 @ 아.(아.)

109002 #1 족은 굿은 삼일 안에 허는 건 앚은제엔 헤낫저, 그땐. 경헤근에 헤낫저. 나도 앚은제 헤낫저, 이디서.(작은 굿은 삼일 안에 하는 건 '앚은제'라고 했었어, 그땐. 그래서 했었어. 나도 '앚은제' 했었어, 여기서.)

109002 @ 앚은제.('앚은제'.)

109002 #1 삼 일 굿.(삼 일 굿.)

109002 @ 게니까 집 짓고 나서예?(그러니까 집 짓고 나서요?)

109002 #1 으.(으.)

109002 @ 그거 집 짓엉 성주 허는 거 말고도 집이서 굿을 헤낫수과?(그거 집 지어서 성주 하는 거 말고도 집에서 굿을 했었습니까?)

109002 #1 아프나 누게 무시거 허민.(아프거나 누구 뭐라고 하면.)

109002 @ 누게가 아프민.(누가 아프면.)

109002 #1 푸다시. 아프민 아무라도. 아이가 아프난 어른이 아프난 허민 푸다시 허고.(푸닥거리. 아프면 아무라도. 아이가 아프거나 어른이 아프거나 하면 푸닥거리 하고.)

109002 @ 삼춘네는?(삼춘네는?)

109002 #1 우리도.(우리도.)

109002 @ 누게 아팡 헤낫어?(누구 아파서 했었어?)

109002 #1 아이덜 ᄒᆞ쏠 저 넉 난 일이 잇언에.(아이들 조금 저 넋 나간 일이 있어서.)

109002 @ 으.(으.)

109002 #1 동창인디, 우리 큰놈. 동창인디 이 알동네[464] 아이 ᄀᆞ튼 동창인디 어떵헨에 이 동창 각시가 야개들아졍 죽어불언게. 육지 강. 육지서 야개들아졍 죽은디 이젠 그 동창이 우리 큰놈신디 전활[전날] 간 거라. 전화[전나] 가난 ᄒᆞ쏠 천천히 오주만은 경찰관보단 먼저 오난 지렝이 들아진 걸 봔게. 아이가 넉 나벳주게. 경허난에 나 넉 들여 줫주, 심방 헨에. 넉 들여 줘낫저. 경헨 푸다시 이 알드르[465]로 강 푸다시헤낫저.(동창인데, 우리 큰놈. 동창인데 이 '알동네' 아이 같은 동창인데 어떡해서 이 동창 각시가 목매서 죽어버렸어. 육지 가서, 육지에서 목매서 죽었는데 이젠 그 동창이 우리 큰놈에게 전화를 간 거야. 전화 가니까 조금 천천히 오지만 경찰관보다 먼저 오니까 치렁하게 매달린 걸 봤어. 아이가 넋 나가버렸지. 그러니까 내가 넋 들여 줬지, 무당 해서. 넋 들여 줬었어. 그래서 푸닥거리 이 '알드르'로 가서 푸닥거리했었어.)

109002 @ 게난 우리 영 집안에 신이 잇덴 생각허는 거 아니예?(그러니까 우리

464) '알동네'는 '아랫동네'의 의미로,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465) '알드르'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이렇게 집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요?)

109002 #1 그자 집안에서 허주게. 신은 초상덜은 문 불러들이는 거.(그저 집안에서 하지. 신은 조상들은 모두 불러들이는 거.)

109002 @ 으, 불러들이는 거.(으, 불러들이는 거.)

109002 #1 심방이. 문 옵센.(무당이. 모두 오시라고.)

109002 @ 옵센.(오시라고.)

109002 #1 옵센, 오늘 영 헴수덴 불러들이는 것ᄀᆞ라 신 청헤, 신 청헤, 경헤낫저게. 신 불러들이는 거엔 헤낫주.(오시라고, 오늘 이렇게 한다고 불러들이는 것보고 신 청해, 신 청해, 그랬었어. 신 불러들이는 거라고 했었지.)

109002 @ 으.(으.)

109002 #1 심방이 불르는 거. 경헤영, 경헤영 문 이 저 질 쳐, 질 쳐. 느네 이 질 치는 것도 들어봐실 거여. 이 문 초상덜 질 치는 거엔 헨. 경허민이 문 열두 문에 이디 영 대 세와, 대 세왕 열두 문에 인정 돌앙 이제 돌아사 *** ** *** 경헨 문 신굿.(무당이 부르는 거. 그래서, 그래서 모두 이 저 길 쳐, 길 쳐. 너희 이 길 치는 것도 들어봤을 거야. 이 모두 초상들 길 치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모두 열두 문에 여기 이렇게 대 세워, 대 세워서 열두 문에 인정 달아서 인정 달아야 *** ** *** 그래서 모두 신굿.)

109002 @ 신굿.(신굿.)

109002 #1 신굿 경허멍 헌다게. 경헤낫주.(신굿 그러면서 한다. 그랬었어.)

109002 @ 아.(아.)

109002 #1 굿도 혼두 가지냐게, 멧 가지주. ᄉᆞ못 멧 가지, 천 가지주.(굿도 한두 가지냐, 몇 가지지. 사뭇 몇 가지, 천 가지지.)

109002 @ 음.(음.)

109002 #1 굿허는 것이.(굿하는 것이.)

109002 @ 게난, 게난 삼춘네는 아까 큰아들이 그때 헤 보고 집 짓엇을 때 헤 보고.(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촌네는 아까 큰아들이 그때 해 보고 집 지었을 때 해 보고.)

109002 #1 으.(으.)

109002 @ 경헌 거라예?(그런 거지요?)

109002 #1 으, 셋놈도 혼번 오렌 헨 푸다시허고.(으, 둘째아들도 한번 오라고 해서 푸닥거리하고.)

109002 @ 넉 들이는 걸로예?(넋 들이는 걸로요?)

109002 #1 으, 넉 들이는 걸로.(으, 넋 들이는 걸로.)

109002 @ 옛날에는 경 동네에 굿허는 게 하영 잇언예. 저도 어린 때.(옛날에는 그렇게 동네에 굿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109002 #1 하이고, 글로도 둥둥 절로도 둥둥 이제난 엇엄주.(하이고, 그리로도 둥둥 저리로도 둥둥 이제니까 없지.)

109002 @ 그니까. 이제난 엇엄주예.(그러니까. 이제니까 없지요.)

109002 #1 옛날에 기자 퀭퀭 부수우는 디가 천지.(옛날에 그저 깽깽 부수는 데가 천지.)

109002 @ 예.(예.)

109002 #1 천지 백가.(천지 백가)

109002 @ 예.(예.)

109002 #1 이젠 첨 신식이여.(이제는 참 신식이야.)

109002 @ 게난예.(그러니까요.)

109002 #1 나도 이젠 다 손 놘 우리 메누리덜 육지서 절간에 뎅기난 기자. 첨 이젠 난 손 놩 아무것도. 으든이 넘어가민 이젠 원 헐 무시것도 안 뒈주게.(나도 이제는 다 손 놔서 우리 며느리들 육지에서 절간에 다니니까 그저. 참 이젠 난 손 놔서 아무것도. 여든이 넘어가면 이젠 원 할 뭐도 안 되지.)

109002 @ 게난 당에는 다녀난 거 아니예?(그러니까 당에는 다녔던 거 아니요?)

109002 #1 으, 어게. 일뤠 으드레에 가곡게. 유월 나민이 유월 초으드레 초일뤠 경헨 알당[466]에 가고.(으, 어. 이레 여드레에 가고. 유월 되면 유월 초여드레 초일 그렇게 '알당'에 가고.)

109002 @ 음.(음.)

109002 #1 정월 나민 집이서 올레코시[467] 허고.(정월 되면 집에서 '올레코시' 하고.)

109002 @ 올레코시 허고예?('올레코시' 하고요?)

109002 #1 으, 경헤근에 헤낫저. 늘 헤낫저. 경헌디 이젠 나가 으든이 넘어가민.(으, 그렇게 했었어. 늘 했었어. 그런데 이젠 내가 여든이 넘어가면.)

109002 @ 여기 토평에 당이 멧 개나 잇어마씨?(여기 토평에 당이 몇 개나 있었어요?)

109002 #1 이 감동당[468].(이 '감동당'.)

109002 @ 으, 감동당.(으, '감동당'.)

109002 #1 이 저 감동당 허곡 또 알드르[469], 알드르 당. 알당, 알당.(이 저 '감동당' 하고 또 '알드르', '알드르' 당. '알당', '알당'.)

109002 @ 예. 두 개예?(예. 두 개요?)

109002 #1 으, 두 개. 당은 두 개.(으, 두 개. 당은 두 개.)

109002 @ 삼춘이, 삼춘이 다녓던 건.(삼촌이, 삼촌이 다녔던 건?)

109002 #1 어, 난 두 밧디.(어, 난 두 군데.)

109002 @ 두 밧디 다 다년?(두 군데 다 다녔어.(두 군데 다 다녔어?)

109002 #1 어. 알드르 강 알당에 가사게. 일뤠, 으드렌 알당에 가고.(어. '알드르'

466) '알당'은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당 이름이다.
467) '올레코시'는 주로 정월에 집안에 탈이 없도록 무당을 불러 지내는 고사를 말한다.
468) '감동당'은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당 이름이다.
469) '알드르'는 서귀포시 토평동 지경 이름의 하나다.

가고 ‘알당’에 가야. 이레, 여드레는 ‘알당’에 가고.)

109002 @ 어.(어.)

109002 #1 감동당에 뎅겨왕 알드르 가는 거 아니냐.(‘감동당’에 다녀와서 ‘알뜨르’ 가는 거 아니니.)

109002 @ 여기 먼저 가는 거?(여기 먼저 가는 거?)

109002 #1 일뤳날은이.(이렛날은.)

109002 @ 예.(예.)

109002 #1 일뤳날은 이 토평 알당에 가고.(이렛날은 이 토평 ‘알당’에 가고.)

109002 @ 예.(예.)

109002 #1 으드레날은 바당에 알당에 가고.(여드렛날은 바다에 ‘알당’에 가고.)

109002 @ 아.(아.)

109002 #1 경헌다게. 이딘 이틀. 옛날엔 경헨 살앗저.(그런다. 여기 이틀.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

109002 @ 바당이 알당?(바다에 ‘알당’?)

109002 #1 이제도, 이제도 뎅겸서.(이제도, 이제도 다니고 있어.)

109002 @ 뎅기는 사름 잇겟주마씨.(다니는 사람 있겠지요.)

109002 #1 아고, 이제도 뎅긴다. 이 우녁집인 뎅긴다게. 젊으난. 나보다, 나광 이젠 열나 차이난.(아이고, 이제도 다닌다. 이 윗집은 다닌다. 젊으니까. 나보다, 나와 이젠 열이나 차이니까.)

109002 @ 으.(으.)

109002 #1 뎅겸저게. 경헌디 이 칠십 넘어가민 모든 거 다 구신이 돌아사 분덴 허주게. 경헌디 난 그자 으든 나 가난 설러 벳주.(다니고 있어. 그런데 이 칠십 넘어가면 모든 거 다 귀신이 돌아서 버린다고 하지. 그런데 난 그저 여든 되어 가니까 그만둬 버렸어.)

109002 @ 으.(으.)

109002 #1 이젠 마지막으로 심방 돌아당 마지막이우다 헨에 이젠. 나 경 수술도 하영 받고 아프고 헤가난 마지막이우다 헨 이제 돌려시네. 경헤영 심방 돌아당 빌언.(이젠 마지막으로 무당 데려다가 마지막입니다 해서 이젠. 나 그렇게 수술도 많이 받고 아프고 해 가니까 마지막입니다 해서 이제 돌렸어. 그래서 무당 데려다가 빌었어.)

109002 @ 아, 그거 끝낼 때도 심방?(아, 그거 끝낼 때도 무당?)

109002 #1 어게. 아이고게, 빌어사주게. 경헨 마지막이우덴. 나가 아프니까. 경헨 설러 벳저.(어. 아이고, 빌어야지.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내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만둬 버렸어.)

109003 @ 문전은 뭐과, 문전?(‘문전’은 뭡니까, ‘문전’?)

109003 #1 문전, 문전은게 이 문전에 출려 놩 허는 거.(‘문전’, ‘문전’은 이 문전에 차려 놔서 하는 거.)

109003 @ 식게 때?(제사 때?)

109003 #1 으. 문전제[470], 문전제.(으. '문전제', '문전제'.)

109003 @ 문전제, 문전제 헷던 거.('문전제', '문전제' 했던 거.)

109003 #1 으.(으.)

109004 @ 조왕에 대해서?(조왕에 대해서?)

109004 #1 조왕제[471], 조왕제 그거는 조왕제엔 헌 건게 이 심방 올 때. 제서 때엔 안 헌다, 조왕에. 이 심방 올 때엔 조왕제렌 헨 조왕에. 조왕 모른 공수가 어디 시린, 글로 음식허는 따문이.('조왕제', '조왕제' 그거는 '조왕제'라고 하는 건 이 무당 올 때. 제사 때에는 안 한다, 조왕에. 이 무당 올 때에는 '조왕제'라고 해서 조왕에. 조왕 모른 공사가 어디 있으리, 그리로 음식하는 때문에.)

109004 @ 음.(음.)

109004 #1 글로 음식허는 따문 심방 온 땐 빌어. 경헨 조왕제 헤낫저게. 제서 땐 조왕제 안 헌다. 일월엔 논다.(그리로 음식하는 때문 무당 온 땐 빌어. 그래서 '조왕제' 했었어. 제사 때는 '조왕제' 안 한다. 일월에는 놓는다.)

109004 @ 일월에?(일월에?)

109004 #1 으. 일월에 놔.(으. 일월에 놔.)

109005 @ 고팡제[472] 헙니까, 제사 때?('고팡제' 합니까, 제사 때?)

109005 #1 고팡제가 일월제주게. 이 저 칠성제[473]가 고팡제주.('고팡제'가 일월제지. 이 저 '칠성제'가 '고팡제'지.)

109005 @ 아, 칠성.(아, '칠성'.)

109005 #1 칠성[474]이 고팡제 아니냐.('칠성'이 '고팡제' 아니니.)

109005 @ 예.(예.)

109005 #1 경허민 칠성 일월은 어떤 집이라도 잇주게.(그러면 '칠성' 일월은 어떤 집이라도 있지.)

109005 @ 예.(예.)

109005 #1 경헨 잇이민 그 일월도이 선씨 일월, 이씨 일월, 오씨 일월 경허주게. 경허민 우린 이씨 할망 막 어진 할망, 순한 할망이엔 허주. 선씨 일월 잇인 집인 막 **허고 헌다. 잘 아니 모시민.(그래서 있으면 그 일월도 현씨 일월, 이씨 일월, 오씨 일월 그러지. 그러면 우린 이씨 할머니 아주 어진 할머니, 순한 할머니라고 하지. 현씨 일월 있는 집은 아주 **하고 한다. 잘 아니 모시면.)

109005 @ 아니, 그 할망덜도 다 성씨가 잇어? 오씨, 이씨?(아니, 그 할머니들도 다 성씨가 있어? 오씨, 이씨?)

109005 #1 어, 어 잇고. 아이구.(어, 어 있고. 아이고.)

---

470) '문전제'는 주로 제사나 명절 때 본 제사를 지내기 전에 문 앞에서 지내는 제를 말한다.
471) '조왕제'는 부엌을 관장하는 신에게 지재는 제를 말한다.
472) '고팡제'는 제사 때 '고방'을 관장하는 신에게 지내는 제를 말한다.
473) '칠성제'는 칠성신에게 지내는 제를 말한다.
474) '칠성'은 집안에서 신으로 모시는 뱀을 가리키는 말이다.

109005 @ 아이구.(아이고.)

109005 #1 성 엇인 할망이 잇느냐?(성 없는 할머니가 있니?)

109005 @ 아. 게믄 삼춘네는 이씨 할망?(아. 그럼 삼촌네는 이씨 할머니?)

109005 #1 이씨, 으, 우리 집인 이씨 할망. 막 순헌 할망이엔 ᄀᆞᆫ나게. 이씨 할망은.(이씨, 으, 우리 집은 이씨 할머니. 아주 순한 할머니라고 말해. 이씨 할머니는.)

109005 @ 으.(으.)

109005 #1 우리 오칩인. 경허고 이 김칩이나 고칩인 선씨 일월. 선씨 일월 이신 집인 막 선씨. 똘에도 줓아간덴 옛날에 새각시 우리 옛날 할망덜 새각씨 구허젠 허민, 에, 그 집이 똘 구허지 말아 선씨 일월 잇어. 영 ᄀᆞᆯ아낫저.(우리 오씨 집안은. 그렇고 이 김씨 집이나 고씨 집안은 현씨 일월. 현씨 일월 있는 집은 아주 현씨. 딸에도 쫓아간다고 옛날에 새색시 우리 옛날 할머니들 새색시 구하려고 하면, 에, 그 집의 딸 구하지 말아 현씨 일월 있어. 이렇게 말했었어.)

109005 @ 아.(아.)

109005 #1 선씨 일월이 쎄여.(현씨 일월이 세.)

109005 @ 아, 여저안티 따라가는 거?(아, 여자한테 따라가는 거?)

109005 #1 으. 선씨 일월이 막 쎈덴 헌다게. 느네 어무니 살아시민 그런 거 저런 거 다 알 거여만은.(으. 현씨 일월이 아주 세다고 한다. 너희 어머니 살았으면 그런 거 저런 거 다 알 거지만.)

109005 @ 게난예. 살아계실 땐 그런 거 물어볼 생각도 못허고예.(그러니까요. 살아계실 때는 그런 거 물어볼 생각도 못하고요.)

109005 #1 아고, 맞다. 맞다, 맞다. ᄀᆞᆯ아도 느네 알도 안허고.(아고, 맞다. 맞다, 맞다. 말해도 너희 알지도 않고.)

109005 @ 예.(예.)

109005 #1 알도 못헌다. 우리 똘덜 이제 ᄀᆞᆯ아도 저 어멍 저 허주겡이 ᄀᆞᆫ는 거. 에이구. 베고파나ᄀᆞ렌 허민 우리 족은놈 라면이라도 끌령 먹주.(알지도 못한다. 우리 딸들 이제 말해도 저 어머니 저 허풍쟁이 말하는 거. 어이구. 배고팠었다고 하면 우리 작은놈 라면이라고 끓여서 먹지.)

109005 @ 하하하.(하하하.)

109005 #1 어느 절에 라면이 어디 셔. 아이고, 원 원 ᄀᆞᆯ을 필요도 엇고.(어느 겨를에 라면이 어디 있어. 아이고, 원 원 말할 필요도 없고.)

109005 @ 예, 예.(예, 예.)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지역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외도동, 안덕면 덕수리
김미진	〃	〃	연구 책임 대정읍 인성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	교열 및 감수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제주시 외도동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안덕면 덕수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인성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	대정읍 구억리
문덕찬	(사)제주어연구소	〃	한림읍 대림리
고창근	제주어보전 및 육성위원회	〃	애월읍 봉성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	위촉연구원
서수빈	〃		연구 보조
현혜경	〃	국어국문	〃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1

발행인 김순자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모사전송:**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